

생명운동 자료모음

모심과살림연구소



한살림

모심과살림 연구소

생명운동으로서 한살림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2년에 설립된 모심과 살림연구소는 현대 산업사회 물질문명에서 비롯된 생명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사상과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 연구 및 조사와 교류 및 실천 활동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주소 서울 중구 장충단로 188 분도빌딩 402호
전화 02-6931-3606~9 전송 02-2269-1309
www.mosim.or.kr mosim@hansalim.or.kr

생명운동 자료모음

모심과살림연구소

생명운동 자료모음

■ 생명운동 관련 단체 주요 문건(선언, 강령, 제안, 취지문)

- 한살림 - 한살림을 시작하면서 (1987. 1. 29) _ 9
- 한살림모임 - 한살림선언 (1989. 9. 29) _ 12
- 가톨릭농민회 - 가톨릭농민회 제20차 대의원대회 선언문 (1990. 2. 27) _ 49
- 흙살림 - 흙살림 창립선언문 (1991. 6. 11) _ 51
-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 강령 (1993. 4. 2) _ 53
- 한국종교인 평화회의 - 환경윤리종교인선언 (1993. 5. 31) _ 55
- 녹색연합 - 녹색연합 창립선언문 (1994. 4. 1) _ 58
-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창립선언문 (1994. 6. 29) _ 59
- 전국귀농운동본부 - 전국귀농운동본부 창립선언문 (1996. 9. 19) _ 61
- 생명민회 - 생명가치를 찾는 민초들의 모임(생명민회)을 제안한다 (1) (1994. 10) _ 63
- 생명민회 - 생명가치를 찾는 민초들의 모임(생명민회)을 제안한다 (2) (1994. 10) _ 77
- 한살림 - 한살림운동의 지향 (1999. 2) _ 83
- 인드라마생명공동체 - 인드라마생명공동체 창립선언문 (1999. 9. 11) _ 84
- 녹색연합 - 녹색연합 강령 (2000. 4. 1) _ 86
- 기독교환경운동연대 - 2000년 기독교 환경선언 (2000. 6. 4) _ 88
- 한국생명학연구원 - 한국생명학연구원 취지문 (2000. 11. 23) _ 92
- 불교환경연대 - 불교환경연대 창립선언문 (2001. 9) _ 96
- 농업희생연대(준) - 농업희생연대 제안문 (2002. 3. 14) _ 98
- 농업희생연대(준) - 우리쌀지키기 100인 100일 걷기 운동 제안문 (2002. 4) _ 104
- 새만금 삼보일배 순례단 - 새만금 삼보일배를 떠나며 (2003. 3. 28) _ 106

- 세계생명문화포럼 - 세계생명문화포럼 2003 선언문 (2003. 12. 20) _ 109
- 두레생협연합회 - 나에게서, 너에게서 생명을 본다 (2004. 10) _ 113
- 생명평화결사 - 고천문: 생명평화탁발순례, 길을 나서며 (2004. 3. 1) _ 142
- 천성산살리기운동 도롱뇽 소송인단 - 천성산살리기운동 도롱뇽 소송인단 발족 취지문 (2004. 8. 20) _ 144
- 생명과 평화의 길 - 생명평화선언 (2004. 8. 26) _ 146
- 생명평화결사 - 생명평화 100배 서원문 (2006. 4. 21) _ 179
- 가톨릭농민회 - 21세기 문명사적 대 변혁운동선도 (2006. 11. 8) _ 187
- 생명학회 - 생명학회 창립 취지문 (2007. 5. 26) _ 190
- 생명평화결사 - 생명평화경 (2007. 11. 2) _ 196
- 생명평화결사 - 생명평화선언문 (2008. 12. 14) _ 200

■ 생명운동 관련 매체

- 공동체문화(제3집) - 생활공동체, 그 평가와 전망 (좌담, 1986) _ 205
- 한살림(무크지) - 문명의 위기에서 생명의 질서로 (좌담1, 1990) _ 227
- 한살림(무크지) - 새로운 삶의 이해와 생활협동운동 (좌담2, 1990) _ 251
- 녹색평론 - 녹색평론 창간사: 생명의 문화를 위하여 (1991) _ 265
- 민들레 - 민들레 창간사 (1998) _ 272
- 민들레 - 창간 서시: 민들레, 이 꽃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기를 (1999) _ 274

■ 생명담론 관련 주요 문헌

- 원주사람들 - 생명의 세계관 확립과 협동적 생존의 확장 (1980) _ 279

- 장 일 순 - 삶의 도량에서 (1988) _ 336
- 장 일 순 - 시(侍)에 대하여 (1989) _ 340
- 김 지 하 - 개벽과 생명운동 (1990) _ 345
- 김 종 철 - 시의 마음과 생명공동체 (1991) _ 393
- 천 규 석 - 공생두레농: 농업위기와 그 대안 (1994) _ 411
- 문 순 홍 - 생명운동의 정치기획 (1998) _ 434
- 이 병 철 - 생태위기의 대안으로서 농(農) (1999) _ 449
- 박 맹 수 - 동아시아의 고유한 생명사상 (2003) _ 460
- 박 재 일 - 생산과 소비는 하나다 (2003) _ 478
- 이 기 상 - 생명학의 미래를 생각한다 (2003) _ 490
- 장 회 익 - 온생명의 이해와 생태보전 (2003) _ 510
- 이 영 숙 - 생명여성주의와 생태여성주의 (2004) _ 522
- 정 경 식 - 흙과 생명 (2004) _ 542
- 도 법 - 인드라망 세계관과 삶의 철학 (2005) _ 555
- 박 재 순 - 한국 생명사상의 뿌리 (2005) _ 561
- 수 경 - 삼보일배의 마음으로 못 생명의 용서를 구한다 (2006) _ 572

<생명운동 자료모음>을 발간하며

‘생명운동’, ‘생명살림’, 어느덧 보통명사가 되었습니다. 이는 물론 생명운동의 확산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 역설적으로 더욱 심화된 생명의 위기를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구체역을 빌미로 쓰레기처럼 ‘처분’되는 동물들, 세계적인 식량·에너지 위기와 민생불안, 정녕 생명운동이 하나의 사회적 대안이 되고 비전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어제의 실천과 노력 없이 오늘의 성과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한살림을 비롯한 생명운동도 나름의 역사 속에서 사회적 역할을 키워왔습니다. 생명의 세계관과 대안적 생활양식을 천명한 한살림선언도 벌써 20여 년 전의 일입니다. 한국사회에 최초로 ‘생명농업’을 전한 정농회도 창립한 지 35년이 지났습니다.

모심과살림연구소에서는 2002년 설립 초기부터 온라인에 생명문화자료정보센터를 운영해 왔고, 2010년에는 <생명운동연구모임>을 구성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생활협동, 농업, 지역, 종교 등 각 분야에서 전개해온 생명운동의 다양한 흐름을 살피고 또 되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생명운동 자료모음’은 이 과정에서 발굴하고 또 공유한 자료들입니다. 매우 초보적인 작업이긴 하지만, 생명운동 역사를 확인하는 나름의 과정인 셈입니다. 한국 생명운동사의 묶은 자료, 잊혀진 자료, 중요한 자료 등을 발굴 정리하고, 이를 한국 생명운동사 공부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한국 생명운동의 역사를 기억하고 또 이어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물론 나름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첫째 ‘역사성’입니다. 생명운동 단체들의 창립, 관련 매체의 창간, 주요한 행사나 대회에서 나온 문건들을 모아 봤습니다. 둘째 ‘중요성’입니다. 물론 주관적인 한계가 있긴 하지만 운동사적으로 기념비적인 문건, 생명운동 담론에 있어서 획기적인 내용을 담은 문건 등을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셋째는 ‘대중성’입니다. 널리 소개되어 생명운동사에 커다란 영향을 준 문

건 등을 살피고자 했습니다.

물론 아직 여러 가지로 미흡합니다. 발굴하지 못한 자료도 많습니다. 식견이 부족하고 게으른 탓입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일차로 모았습니다만 오히려 이번 자료모음이 미처 발견치 못한 자료들을 나누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생명운동사 연구, 생명운동의 창조적 진화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랍니다. 생명위기의 시대, 생명운동이 우리의 삶과 이 사회를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1년 5월

모심과살림연구소

생명운동 관련 단체의 주요 문건

(선언, 강령, 제안, 취지문)



한살림을 시작하면서

박재일

오늘의 세상은 너무나 많은 물건을 대량으로 만들고 써버립니다. 많고 높고 빠르면 좋고, 편리하면 더욱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좋은 듯 보이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안심하고 믿고 도우며 건강하고 만족스런 삶을 살게 하고 있는지요?

숨 쉬는 공기나, 마시는 물이, 농사짓는 땅이 살아있는 제 모습을 잃어 갈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만듦이 있어야 쓸 수가 있고, 씹이 있어야 만듦이 필요하고 계속되지요. 원래 생산과 소비, 생산자와 소비자는 떨어질 수 없는 사이요, 서로를 필요로 하고 돕는 사이인데, 현실은 서로 갈등하는 사이가 되어 버렸어요.

소비자는 누가 어떻게 만들어 내고 생산자는 누가 어떻게 쓰는지 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건강과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음식물(먹을거리)을 생산하는 농업의 경우, 농민은 자기가 생산한 것을, 어디서 누가 먹는지 또 사는 형편은 어떠한지, 반대로 소비자는 자기가 먹는 것을 누가 어떻게 만들고 또 사는 형편은 어떠한지 알 수 없습니다.

농약, 화학비료를 치는 양이 해마다 늘어만 가고, 물은 오염되고 땅은 토박해지고 생명력을 잃어 가고 있지요. 농민은 농약중독으로 고통당하고 농산물은 독극물에 오염되어 먹는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농

약 방부제 착색제 각종 식품첨가제로 뒤범벅이 된 식품이 범람하는 속에서, 가족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건강한 식탁을 꾸며야 할 어머니들은 어느 것 하나 믿을 수 없어서 불안합니다.

정말 안심하고 건강한 식품을 구해 먹을 수가 없을까요?

땅과 사람, 물건과 물건, 사람과 사람 사이가 갈라지고 못 믿는 사이가 되는 삶이 살림의 삶일까요, 죽음의 삶일까요? 또한 농산물 값이 내려가면 농민은 울고 소비자는 좋아하고, 농산물 값이 올라가면 소비자는 울고 농민은 좋아합니다. 이처럼 다른 이의 아픔이 나의 기쁨이 되는 삶이 옳은 삶일까요?

특히, 농산물은 유통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여러 손을 거치기 때문에 값, 품질, 수량 등이 조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하지 않고 믿고 나누며 사는 길은 없을까요?

땅도 살리고 자신도 살고 소비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고 퇴비를 하고 김을 매고 땀 흘리며 정성들여 농사 짓는 농민도 있고, 그런 농산물을 고대하는 소비자도 많습니다.

다만, 서로 만나지 못하고 믿지 못하지요. 가족이나 친한 사람에게 줄 것은 정성들여 만들지요. 받는 사람 또한 고마워하지요.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만나게 되고 친한 사이가 된다면, 정성과 고마움이 나누어지지 않을까요?

한살림은 생산자와 소비자들 만나게 하고 친한 사이가 되도록 하여, 생산자는 소비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소비자는 생산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사이가 되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농산물의 유통단계를 줄여서 과도한 유통마진을 줄이는 직거래활동을 펼쳐서 농산물의 품질이나 수량을 믿을 수 있도록 하고 적절한 가격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땅도 살리고 건강하고 안전한 농산물이 생산되고 서로가 믿고 돕는 관계가 되고 모두의 건강과 생명이 보호될 수 있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이 일은 한두 사람이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더불어 해야 가능합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해야 가능합니다. 이 한살림운동에 많은 분들의 이해와 성원과 참여를 고대합니다.

이 운동은 많은 농민(단체), 소비자(단체)가 협력하고 천주교 원주교구(지학순 주교)가 뒷받침하여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987년 정초에, 살림꾼 박재일 드림

한살림 선언¹⁾

생명의 지평을 바라보면서

1. 산업문명의 위기

인류가 자유, 평등, 진보의 깃발 아래 피와 땀을 흘리면서 이룩해 온 오늘날의 문명세계는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 준 반면 인간을 억압하고 소외시키고 나아가서 인류의 생존기반이 되는 지구의 생태적 질서를 훼손시키고 파괴하고 있다. 일찍이 자연의 주인임을 자처하고 자연을 지배해 왔던 인간이 자연지배의 도구로 사용했던 기계와 기술에 사로잡혀 하나의 부품이나 계량적 단위로 전락해 버렸다. 오늘날 인간은 삶의 진정한 주체라 할 수 없고 다만 기계의 지배에 조종되는 대상일 뿐이다.

기술의 진보는 자연의 지배를 확대·강화하고 인간의 노동을 합리화·기계화함으로써 놀라운 생산력의 발전을 이룩하여 대량생산의 길을 열어 놓았다. 오늘날 자본주의는 낭비적 소비가 권장되고 미덕이 될 정도로 물질적 성장과 풍요를 성취했다.

그러나 풍요로운 산업사회에서 물질적 안락을 누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넘쳐흐르는 상품의 홍수 속에서 넋을 잃고 상품의 소유와 소비에서 자신의

1) 이 선언문은 한살림 운동의 이념과 실천방향을 확립하기 위해 가진 공부모임과 토론회에서 합의된 내용을 장일순 선생님, 박재일, 최혜성, 김지하가 정리하고 최혜성이 대표집필하여 1989년 10월 29일 한살림모임 창립총회를 채택한 것이다.

존재를 확인하게 되었다. 이제 인간은 ‘자신의 생각, 느낌, 활동의 주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을 소유하고 소비하기 위해서 자신의 영혼과 육체, 지식과 노동을 상품으로 파는 소외된 존재로 전락해 버렸다. 물질, 에너지 정보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하고 있는 기술관료체제는 인간의식을 조작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되었고 대중매체를 통하여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대중매체는 사회적 의식, 태도뿐만 아니라 개인적 욕구, 희망, 기호(嗜好)까지도 결정하는 지배문화가 되었다. 결국 자본주의는 일찍이 자연의 정복에 활용하였던 과학과 기술을 가지고 인간심리를 조작·지배하여 폭력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사회의 원심력을 정복하였다. 그리하여 산업기술은 인간에 대한 새로운 통제와 지배의 형태로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산업사회 초기에 그렇게 소중한 가치였던 인간의 자유와 존엄이 생산과 능률을 앞세우는 기술의 이데올로기 앞에 굴복하게 되었고 인간은 기계, 기술, 체제에 예속되어 종속적 위치를 기꺼이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이다. 선진자본주의 사회는 물질적인 성장과 풍요를 성취하였으나 근본적으로 전체주의의 경향을 띠고 있는 것이다.

자본의 지배, 절대적 빈곤, 노동의 소외로부터 인간의 해방을 선언하였던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지배질서에 대항하면서 오늘날 세계의 절반에 가까운 넓은 지역에 사회주의 생산양식과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발전의 전제가 되었던 과학과 기술을 계승하여 경제성장과 근대화의 추진력으로 삼았다. 혁명 초기에 사회주의 생산양식은 과학기술을 활용하고 노동의 기계화, 합리화, 집단화를 단행함으로써 생산력의 증대에 적지 않은 성과를 올렸다.

한편 공산주의는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노동자 계급의 독재를 주장하고 확립하였다. 혁명의 완성단계에서는 적대계급이 소멸하고 우호적인 노동자와 농민계급만이 있기 때문에 복수정당제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사실 노동자계급의 독재란 모든 권력이 혁명을 주도하는 당에 집중되고 다시 당 관료와 지도자의 손에 집중되는 것을 뜻한다. 당과 지도자는 인민들에게 자발성과 자율성보다는 체제에 대한 동조와 순응을 요구하고 기계에 대한 종속적 태도를 강요하고 있다. 인민들은 사고와 행동의 자유를 빼앗기고 자신의 삶과 운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소외되어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노동과 공동체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잃어버린 채 자기 능력 이하의 노동을 마지못해 하고 있을 뿐이다. 오늘날 공산주의 현실은 마르크스주의의 궁극 목표인 인간해방이 아니라 인간의 재노예

화인 것이다. 결국 공산주의는 권력을 당과 국가의 관료에게 집중시킴으로써 관료의 무책임, 부패, 나태만을 조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민들의 노동의욕을 약화시킴으로써 경제를 무기력하게 만들었고 자연자원을 무분별하게 개발함으로써 자연을 황폐화하였다.

소련은 초강대국이면서도 자국민을 먹여 살릴 식량을 자급하지 못하고 전자제품에서 일용식량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용품을 수입하고 자연자원과 무기(武器)만을 수출하고 있을 뿐이다. 이것이 사회주의 소련 경제의 치욕적인 상징이 되고 있다. 최근 공산주의 세계에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온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은 낡은 스탈린주의에 대한 혁신적 비판이면서 동시에 사회주의의 모순과 사회주의 경제의 실패에 대한 용기 있는 인정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세계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양분되어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있으나 기술적 산업주의라는 동일한 문명적 기반 위에 서 있다. 이것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산업문명은 기술과 기계로써 인간과 자연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전체주의적 세계이다. 전체주의적 억압이 인간을 인간답지 않게, 사회를 사회답지 않게, 자연을 자연답지 않게 만들고 있다. 인간은 본성을 잃어버린 채 참된 ‘자기’로부터 소외되고 있으며 공동체를 상실한 채 ‘이웃사람’으로부터 고립되어 있고 그 생존의 모태인 ‘자연’으로부터 단절되어 ‘죽임’을 강요당하고 있다. 때문에 산업문명은 생명소외(生命疎外)의 체제이고 본질적으로 반인간적일 뿐만 아니라 반생태적인 문명이다. 동시에 산업문명은 모든 것을 뒤집은 혼돈(混沌)의 세계이다. 산업문명은 생명을 기계로, 존재를 소유로, 주체를 객체로, 주인을 노예로, 지식을 기술로, 자유를 동조로, 노동을 상품으로, 낭비를 필요로, 파괴를 생산으로, 가치를 가치로 바꾸어 놓음으로써 전도된 세계를 연출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문명은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회, 인간과 자연을 분열시킴으로써 서로 대립하고 투쟁하게 하는 갈등의 세계이다. 오늘날 국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 선진공업국과 제 3세계 국가가 서로 대립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노동과 자본이 투쟁하고 있고 인간정신 안에서는 이성과 감성이 갈등하고 있다. 그리고 생태적으로는 인류가 자연에 적대하고 있다. 사실 산업문명은 우리 민족과 한반도를 분단시켜 놓았고 같은 민족이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와 체제를 가지고 적대하도록 하는 문명사적 전제이기도 한 것이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산업문명은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사회, 경제, 정치의 영역에서, 전 지구적인 생태계의 영역에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것은 물질적,

제도적인 위기일 뿐만 아니라 지적, 윤리적, 정신적 위기이며 인류사상 유례없는 규모와 긴박성을 지닌 위기, 바로 전 인류와 지구상의 전생명의 파멸을 의미할 수도 있는 위기인 것이다.

오늘날 산업문명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는 다음과 같은 증후(症候)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핵 위협과 공포이다.

이차세계대전 후 미소간의 이데올로기적 냉전체제는 전략적 우위의 선점을 위한 핵무기의 경쟁적 개발과 비축을 유발하여 지구와 인류 자체의 파괴를 의미하는 핵 전쟁의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 한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란 구호 아래 개발된 핵 발전소가 또 다른 핵의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두 차례의 석유파동 이후부터 화석연료의 고갈에 대한 대안으로 인식되면서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나가고 있다.

둘째, 자연환경의 파괴이다.

과도한 물질적 성장의 추구는 과잉생산, 낭비적 소비, 인플레이션, 불황, 실업 등과 같은 경제적 재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과 자연의 생태적 균형을 파괴시키고 있다. 특히 과도한 화석연료의 사용 때문에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은 대기, 바다 그리고 강, 들과 산을 오염시켜 가공스러운 오존층의 파괴와 기상이변을 초래하기에 이르렀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산성비 그리고 화학비료와 농약의 과도한 사용은 토양의 유기적 순환 질서를 파괴하였고 식수, 식품의 오염은 인간의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셋째, 자원고갈과 인구폭발이다.

끝없는 성장과 확대의 추구는 인간생존에 불가결한 금속과 광물, 산림과 어류, 산소와 오존을 소진시키며, 한정된 채 재생시킬 수 없는 화석에너지원을 고갈시켜 나갈 것이다. 자원이 고갈되어 가면서 동시에 세계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인류미래에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선진자본주의 열강의 식민지였던 제 3세계는 과거 식민지시대 이래 창출된 부가 외부로 유출되어서 아직도 절대적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제 3세계에 유출된 부가 선진 공업국들의 인구평형에는 기여했을지 몰라도 제 3세계의 인구증가를 폭발적으로 가속시키고 있다.

넷째, 문명병의 만연과 정신분열적 사회현상이다.

환경오염과 사회적 갈등 그리고 심리적 긴장은 한편으로는 인체의 면역과 자기치유의 기능을 약화시켜 암, 에이즈(AIDS), 심장병, 뇌일혈, 당뇨병 등과 같은 만성적 퇴행성 질환을 만연시켰고, 다른 한편으로 사회문화적 환경을 악화시켜 우울증, 분열증, 자폐증(自閉症)과 같은 정신질병과 폭력, 범죄, 마약중독, 사고, 자살 등의 사회분열증 현상을 야기시키고 있다.

다섯째, 경제의 구조적 모순과 악순환이다.

시장원리를 추구하는 자본주의는 낭비적 소비를 조장하는 과잉생산의 체제로서 그것은 경기순환 과정에 주기적으로 인플레이션, 불황, 실업을 발생시키는 악순환의 모순을 가지고 있으며, 자본주의의 모순의 대안으로서 확립된 사회주의는 악순환의 고리인 시장경제를 거부하고 사회적 통제와 계획이 생산과 공급을 결정하는 체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필수적인 수요마저 충족시키지 못하며 공급부족과 생산의 비능률을 유발하는 또 다른 모순을 낳고 있다.

여섯째, 중앙집권화된 기술관료체제에 의한 통제와 지배이다.

자원, 에너지, 인간노동을 지배·관리하는 기술관료체제 특히 정부와 당과 대기업은 합리성, 능률, 성장을 내세워 더욱더 전문화, 거대화되어 가고 있고 중앙집권화를 강화시키고 있다. 그 결과 중앙집권화로 비대해진 기술관료체제는 에너지의 낭비와 관리비의 증대로 인해 생산·관리의 사회적 비용과 생태적 비용을 증가시키면서 인플레이션과 실업, 환경오염과 자원고갈을 촉진하고 있으며 인간에 대한 통제와 지배를 강화하면서 비능률과 부조리, 부패와 나태만 유발하고 있다.

일곱째, 낡은 기계론적 세계관의 위기이다.

우리들은 일상생활 가운데 매일 산업문명이 유발시키고 있는 수많은 위기의 현상과 맞부딪치게 된다. 인플레이션과 실업, 에너지의 위기, 건강의 위기, 환경재해, 폭력과 범죄의 증가를 우리들은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경제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과 불황의 진정한 의미와 원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병리학자나 의사들은 암과 에이즈(AIDS)의 정체를 몰라 당황하고 있으며, 정신분석학자들은 정신분열증에 아무런 해답도 주지 못하고 있고, 치안당국과 법률전문가들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폭력과 범죄에 속수무책인 상황에 처해 있으며, 환경

문제에 피상적인 대책만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상호의존하면서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역동적인 세계를 낡은 기계론적인 세계관으로 이해하고 틀지우는 데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위에서 열거한 산업문명의 여러 위기적 증후는 결국 동일한 하나의 위기, 즉 낡은 세계관의 위기의 서로 다른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기존의 사회조직, 가치체계, 세계관은 핵공포와 환경오염, 암과 정신분열증, 폭력과 범죄, 물가고와 불황, 자원고갈과 인구폭발 등과 같은 위기적 상황의 진상을 규명하고 처방을 구하기에는 너무나 편협하고 낡은 것으로서 이미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것이 오히려 위기의 근원이라 할 수 있다. 17세기 이래 약 300년간 서구인들이 주도해온 세계질서와 그 기반이 되고 있는 세계관, 가치체계, 문화모형에 대해 전면적 재검토와 재평가를 할 때가 온 것이다.

2. 기계론적 모형의 이데올로기

세계의 위기는 자연파괴, 인간소외, 사회분열, 경제의 악순환, 권력의 억압, 사상의 혼돈 등의 증후군들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위기적 상황은 인류문화의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근세에 들어와서 서구인들이 지배해온 세계질서는 서구의 계몽철학, 실증과학, 산업혁명, 시민혁명에 의해 형성되어 온 역사적 산물인 것이다. 오늘날 인간을 억압하고 소외시키며 자연을 지배하고 파괴하는 산업문명도 한때 인류에게 자유, 평등, 진보를 약속하는 복음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19세기에 이르러 독점자본주의, 기술관료체제, 제국주의가 등장하게 되면서 산업문명은 세계를 하나의 거대한 기계장치와 같은 질서로 편성하게 되었던 것이다. 여기에 사상적 기반과 과학적 근거를 제공한 것이 다름 아닌 분석적 합리주의 철학과 실증주의적 과학이었다.

데카르트(Descartes)의 철학, 뉴턴(Newton)의 물리학, 존 로크(John Locke)의 사회사상은 인간과 물질을 고립되고 단절된 원자적 존재로 파악하고 자연, 사회, 우주를 기계론적 모형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들은 인간이 육체 안에 외부와 격리되어 존재하는 정신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인식함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육체와 감성의 존재의미를 상실케 하였고, 인간을 사회와 자연으로부터 격리시켜서 인간이 사회와 자연 속에서 이웃사람과 다른 생명들과 협동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망각케 하였다.

그리고 서구의 합리주의, 실증주의, 산업주의는 직관적 지혜보다는 분석적 지식을, 통일보다는 분리를, 조화보다는 대립을, 협동보다는 경쟁을 더 치중해 왔다. 이러한 편향된 지향과 시각이 문화의 전반적인 불균형, 즉 인간과 자연, 사고와 감정, 존재와 가치의 불균형을 유발함으로써 산업문명은 사회적, 정치적, 생태적 분열과 갈등으로 야기되는 위기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과학적 방법과 분석적 합리성만을 강조하는 기계론적 이데올로기는 오늘날의 산업사회 전반에 깊숙이 뿌리를 박고 있다.

산업문명을 옹호하는 지배적 이데올로기는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과학만이 진리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신념이다.

현대는 과학시대라고 불리운다. 이 시대는 합리적 사상이 지배적이며 분석과 실증에 기반을 둔 과학적 방법만이 참된 지식의 유일한 길이라는 신념이 보편화되어 있다. 직관적 철학, 윤리적 성찰, 종교적 명상 등과 같은 정신활동은 신비주의로 배척되어 그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과학지상주의(科學至上主義)라고 불리울 만한 신념과 태도가 단지 학문과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정치적 모든 제도에 깊숙이 침투해 있다.

둘째, 실재(實在)를 이원론적으로 분리해서 보는 존재론이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Cogito, ergo sum)”고 한 저 유명한 데카르트의 말은 근대 합리주의의 상징적 명제일 것이다. 이 명제는 인간을 정신과 육체로 분리된 것으로 보며, 그 존재의 확실성은 육체가 아니라 정신에 있다는 사상을 담고 있다. 물론 이원론적 존재론은 데카르트 이전부터 서구에 뿌리 깊은 철학사조이었으나 데카르트 이후 인간과 자연, 정신과 물질, 이성과 감정, 개인과 사회 등 모든 존재의 영역에 적용되면서 산업사회의 지배적인 철학으로 신봉되어 왔다.

셋째, 물질과 우주를 기계모형으로 보는 고전역학이다.

근대 과학의 기계론적인 모형은 물질을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기본구성체로 환원하고 우주를 정확한 수학적 법칙에 따라 작동하고 있는 하나의 커다란 기계로 파악한 뉴턴의 물리학에서 비롯되었다. 우주란 절대공간, 절대시간이라는 3차원

의 무대에서 외부와 단절되어 고립된 물질들이 동시에 작용하는 중력에 의해 운동하는 세계라고 보는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물리현상은 중력에 의한 물질의 운동으로 환원될 수 있고 이 운동을 지배하는 것은 정밀한 수학방정식으로 기술될 수 있는 결정론적인 인과법칙인 것이다. 이러한 뉴턴의 기계론적인 역학은 자연과학은 물론 인간과 사회에 대한 학문인 사회과학을 기계론적 틀로 정립시키는데 이론적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서 절대공간, 절대시간, 물질적 입자, 인과법칙과 같은 뉴턴의 고전물리학의 기본 개념들이 깨지면서 기계적 세계관은 그 기초에서부터 동요하기 시작하였다. 아인슈타인(Einstein)은 상대성이론에서 공간과 시간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관찰자의 위치와 속도에 따라 상대적인 것이며 물질도 외부로부터 독립된 입자(粒子)가 아니라 에너지의 다른 형태일 뿐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양자론도 물질의 미시적 세계에 있어서 양자적 입자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재가 아니라 부단히 생성·소멸하는 에너지의 일시적 형태, 즉 에너지(場)의 변화과정이며 그 변화의 현상은 관찰자의 선택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밝혀내고 있다.

넷째, 생명현상을 유기적으로 보지 않는 요소론적 생물관이다.

생물의 기본구성요소가 세포라는 것을 발견한 이래 생물학은 신체구조, 유전, 생식, 진화와 같은 생명현상을 기계론적으로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현대 분자생물학은 디엔에이(DNA)의 신비, 즉 염색체 안에 있는 유전자의 분자구조를 밝혀내기에 이르렀다. 생물을 기계로 간주하고 탐구함으로써 얻은 성공으로 말미암아 생명과학자들은 기계적 모형 이외에 아무것도 믿으려 하지 않는 경향이 없지 않다. 그러나 현대 분자생물학은 생물체가 어떻게 숨 쉬며 체온을 조절하고 소화하고 지각하는지를 규명하지 못하고 하나의 세포인 태아가 어떻게 조직과 기관으로 분화되면서 성장해 가는지 그리고 생물체가 상처를 입으면 왜 통증을 느끼고 또 어떻게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지를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생명과학이 풀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은 전체로서의 생물체가 갖고 있는 통합적 기능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무시하고 전일적인 생명체를 환원할 수 있는 요소로만 분석하는 비유기적이고 단편적인 접근 때문에 기인하는 것이라 하겠다.

다섯째, 인간정신을 기계모형으로 보는 영혼 없는 행동과학과 육체 없는 정신 분석이다.

오늘날 인간심리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은 행동주의 심리학과 정신분석학이다. 양자는 그 방법과 관점에 있어서 현저하게 다르나 인간의 의식을 기계론의 시각으로 보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한 논리적 기반 위에 서 있다. 행동주의 심리학에서는 심리현상이 행동의 형태로 환원될 수 있고, 행동의 형태는 기계론적 메커니즘에 지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인간의 심리나 행동을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는 복잡한 기계적 구조의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인간행동은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서 욕구충족을 통해 강화되고 미리 계획된 조건에 의해 조정되고 통제될 수 있다고 본다. 인간을 외적 조건에 의해 조작할 수 있다고 간주하는 행동주의 심리학은 주체로서 행동하는 인간상을 거부하고 인간행동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조건화함으로써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무의식의 존재는 물론 인간의식 자체까지 인정치 않는 행동주의와는 달리 정신분석학은 욕체와 분리된 인간정신을 탐구한다.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인 프로이트(Freud)는 각성된 의식이 빙산의 일각, 즉 본능의 힘에 지배되는 감추어진 거대한 무의식의 얇은 층에 불과하다고 한다. 무의식이란 망각되었거나 억압되어 아직 의식적인 각성에 도달하지 않은 심리적 힘, 또는 본능적인 성의 욕구를 의미한다. 본능적 욕구의 깊숙한 근원에는 이드(ID)라는 실체가 있어 이것이 본능의 충동적인 힘을 억제하고 있는 초자아(超自我)와 충돌함으로써 모든 정신병리현상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다. 각성된 의식, 즉 자아(自我)는 충돌하는 두 힘이 대립·갈등하는 심리공간일 뿐이다. 정신분석학은 인간 정신세계도 수량적이고 직선적인 인과법칙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병리는 분석될 수 있고 과학적으로 치료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결국 정신분석학은 인간의식을 기계적 모형으로 보는 일종의 정신물리학인 것이다.

여섯째, 직선적인 성장만을 추구하는 경제이론이다.

오늘날 많은 경제학 이론들은 경제현상이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간의 물질·에너지·정보의 순환적 대사(循環的 代謝)라는 경제의 사회적, 생태적 연관관계를 간과하고 있고 경제가 생태적 환경과 인간사회가 변함에 따라 변화하는 역동적 과정임을 무시하고 있으며 경제를 포함한 사회의 진화가 인간의 가치관에 의해 추진된다는 사실을 부인하면서 이론의 단편적 전문화와 수량적 추상화만을 추구하고 있다. 그리하여 경제학은 경제의 구체적 현실로부터 점점 괴리된 채 심각한 개념상의 혼란에 빠져 있다. 가치문제와 깊은 연관을 갖고 있는 경제학이 경제의 생태적, 사회적, 심리적 의미와 관계되는 가치의 질적인 문제를 오히려 도외시하

고 가치를 화폐의 양으로만 환원하여 경제를 기계적 모형으로 탐구하고 있다.

자본주의이건 사회주의이건 간에 오늘날의 경제이론은 직선적인 성장에 대한 강박관념을 갖고 있다. 성장에 대한 강한 집념은 결과적으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서로 유사하게 만들어 놓았다. 한정된 환경 속에서 무한정한 성장만을 추구한다면 온 생태계와 인류는 머지않아 재난을 초래할 것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 모두가 경제성장과 기술진보만을 추구함으로써 중앙집권화된 기술 관료들에 의한 통제와 지배를 강화시키고 경제적 갈등을 고갈시켜 나가고 있다.

일곱번째, 자연을 지배와 정복의 대상으로 보는 반생태적 자연관이다.

근대 이래 과학의 목표는 자연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지식의 획득에 있었다. 일찍이 베이컨(Bacon)은 과학의 실험적 방법이란 자연의 방종함을 견제하고 자연을 인간에게 ‘봉사하는 노예’로 묶어 두기 위해서 그 비밀을 고문해 알아내는 일이라고 잔인한 표현을 쓴 일이 있다. 분석과 실증에 기초하는 과학은 자연을 기계적 모형으로 인식함으로써 자연에 대한 정복, 지배, 착취를 합리화하고 승인하는 과학적 근거를 제공한 셈이다. 결국 과학은 생명을 양육하는 모성으로서의 자연을 노예로 삼고 말았다.

자본주의는 과학과 기술을 활용해서 생산이란 이름으로 자연으로부터 엄청난 부(富)를 수탈해 왔으나 자연의 가치를 인정치 않고 자연질서 이외의 그 무엇을 생산하는 것, 즉 자연을 변형시키는 노동, 기술, 기계, 자본만이 가치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소외된 노동으로부터 인간해방을 주창한 젊은 마르크스(Marx)는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며 노동자는 자연 즉 감각적 외부세계 없이는 아무것도 창조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자연에 대한 생태론적인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그러나 그의 사상을 계승했다고 하는 공산주의는 자연에 대한 지배와 착취를 생산력이라 오인함으로써 자연에 대해 반생태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북한의 소위 주체사상도 자연을 개조하고 투쟁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인간을 자연지배의 ‘유력한 존재’로 보고 있는 것이다.

산업문명을 지배하고 있는 기계론적 이데올로기들은 개방적이고 진화되어 가는 인간의 세계를 폐쇄적이고 고립된 거대한 기계의 체계로 전락시켜 놓음으로써 반인간적, 반사회적, 반생태적 성격을 갖게 되었다. 물론 오늘날 과학에서도 낡은 기계론적 모형에서 벗어나 인간과 자연과 우주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려는 기운이

썩트고 있다고 하나 여전히 기계론적 이데올로기가 산업사회의 지배적 원리로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기계의 원리와 질서를 가지고 생명인 인간과 자연을 억압하고 지배하는 산업문명은 비록 합리성과 능률성을 표방하고 성장을 추구하면서 더욱더 거대화, 전문화, 중앙집권화되어 가고 있지만 한정된 채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인 화석연료 없이는 작동될 수 없는 폐쇄적이고 고립된 기계장치에 불과하다. 그러나 기계는 엔트로피(entropy)의 법칙에 지배되는 죽음에의 세계이다. 일찍이 지구를 지배했다가 환경의 진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멸종해 버린 공룡(恐龍)의 운명과 같은 것을 오늘의 산업문명의 위기에서 예감하게 된다. 결국 기계문명은 생명의 부정이며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며, 그것은 곧 전 인류의 죽음이다.

3. 전일적(全一的)생명의 창조적 진화

환경과 단절되어 고립된 체계는 엔트로피, 즉 폐기된 에너지를 생산하고 축적하여 마침내는 열의 죽음에 이르게 되며 그 구조는 질서에서 무질서로 향하게 된다고 하는 우울한 진실이 열역학(熱力學)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 오늘의 산업문명은 환경, 즉 생태계로부터 단절되어 고립된 기계와 흡사한 세계이다. 이 안에서 생존하는 인간도 사회적, 생태적 환경에서 단절되어 고립된 존재같이 보인다. 그런데 열역학은 고립된 체계들은 반드시 죽음에 이른다고 선언하고 있다. 엔트로피 법칙에 지배되는 산업문명은 파멸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슬픈 운명이 기계적 모형 안에 이미 배태되어 있었고 기계문명의 붕괴는 이미 예고되어 있었다. 그러나 붕괴되고 파멸하는 것은 기계문명의 낡은 틀일 뿐이지 인류 그 자신은 아닌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창조적으로 진화하는 생명이기 때문이다.

과학에 새로운 기운이 움트고 있다. 뉴턴 이래 모든 과학은 사물을 가장 단순한 단위로 분할하고 환원시켜 해명하려고 애써 왔으나 분할의 과학은 산업문명의 낙조가 깃든 오늘날 한계에 부딪쳐 있다. 우리가 일상 경험하는 자연현상은 하나의 원자나 분자가 아니라 다수의 분자덩어리로 이루어진 복잡한 현상이다. 분자와 분자, 분자와 환경 사이에 여러 모양의 상호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덩어리는 혼란스럽게 보인다. 이와 같은 복합현상은 단순한 단위와 요소로 환원하여 해명할 수 없다. 구름의 변화를 물의 분자로 해명할 수 없고 건물을 벽돌의 집합으로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분할된 것을 다시 통합하여 자연의 전체적인 본래

의 모습을 보려고 노력하는 과학의 새로운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새로운 과학이 엔트로피 법칙에 대해 놀라운 재해석을 하게 되었고 진화에 대한 새로운 모형을 우리 앞에 제시하고 있다.

새로운 과학의 견해에 따르면, 환경과 더불어 물질·에너지·정보를 주고받는 개방된 체계는 환경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내부에서 생산된 엔트로피를 환경에 배출한다. 개방된 체계에 있어서 환경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에너지의 양과 환경으로 배출하는 엔트로피의 양이 평형을 이루면 그 구조는 평형상태에 놓이게 되고 반대로 양자 사이에 평형이 깨질 때에는 비평형상태에 놓이게 된다. 평형상태는 그 구조가 안정되어 있지만 비평형상태에 있는 체계는 불안정하여 끊임없이 동요하게 된다. 그 동요가 격화되어서 어떤 분기점(分岐點)에 도달하게 되면 지금까지의 낡은 구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조직하게 된다는 것이다. 비평형상태에 있어서 작은 동요는 오히려 증폭되고 격화됨으로써 낡은 구조를 해체하고 새 질서로 진화해 가는 것이라 한다.

열역학은 고전역학과는 달리 시간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엔트로피 법칙은 이 우주에는 피할 수 없는 에너지의 손실이 있다는 것, 즉 한 체계에 있어서 에너지의 총량은 일정하지만 쓸모 있는 에너지의 양은 열의 손실로 점차 감소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만일 이 우주가 열의 죽음으로 인해 운동을 멈추는 것이라면 한 순간이라도 바로 그 전의 순간과는 더 이상 같을 수가 없다. 열역학의 세계에서는 언제나 일정하게 흐른다는 절대 시간의 개념이 성립될 수 없다. 그 누구도 엔트로피를 보충하기 위해 시간의 방향을 거꾸로 돌릴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의 화살은 비가역적(非可逆的)인 것이다. 우주는 에너지가 새어나옴으로써 그 구조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고 질서에서 무질서로 무너져 버리고 만다. 결국 우주는 늙어가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엔트로피 법칙은 우주와 인간에게 비관적인 장래를 예언하고 있다.

그러나 진화의 시각에서 보면 우주와 세계는 달리 보인다. 우주는 에너지를 잃어감에 따라 질서 있는 상태에서 무질서한 상태로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늙어감에 따라 보다 성숙하게 자기를 조직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더 높은 수준의 질서를 향해 진화해 가는 것이라고 한다. 엔트로피의 증대는 닫혀진 체계에 있어서 시간이 비가역적으로 흐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닫혀진 체계란 우주의 진화에서는 극히 드문 일시적인 현상이며 오히려 비가역적인 시간, 즉 엔트로피야말로 질서의 근원이 되는 것이라 한다. 개방된 체계는 무질서하게 요동치

는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고차원의 질서로 자기를 조직해 나아간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엔트로피는 죽음을 향해 가는 내리막길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한계를 초월하여 높은 질서로 향해 가는 진화의 밑바탕이 되는 것이다.

진화의 모형으로 보면 평형은 정태적 구조에서 안정된 상태를 의미하지 않고 오히려 정체(停滯)와 죽음을 의미한다. 환경으로부터 고립된 기계적인 체계가 비가역적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르게 되는 최대의 엔트로피는 완전한 평형과 정지로서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살아 있는 생명은 자기의 외부에 있는 환경과 에너지를 주고받는 과정 가운데 일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 머무를 수도 있으나 근본적으로 볼 때 정태적 구조에 갇힌 존재가 아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끊임없는 동요와 진동 속에서 변화를 억제함으로써 기존의 구조를 유지할 때도 있지만 오히려 변화를 촉진하고 증폭함으로써 낡은 구조를 버리고 새 질서로 진화하는 자기 초월을 수행하는 것이다. 진화의 과정에서 보면 모든 생명은 그 환경으로부터 고립된 존재가 아니고 우주적 관계의 그물 속에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자신 안에 우주적 생명을 지니고 있는 하나의 통합된 전체라 할 수 있다. 생동하는 우주의 진정한 모습은 모든 생명을 하나의 생명으로 아우르면서 진화하는 큰 생명의 무궁한 펼쳐짐이라 하겠다. 따라서 모든 생명은 환경과 협동하여 공진화(共進化)하면서 우주의 궁극적 생명으로 합일되어 나아가는 것이다.

오늘날 인간과 자연은 기계적인 질서 속에서 서로 단절되고 고립되어 있으며 그들의 참모습, 즉 생명의 모습으로부터 소외되고 있고 그 본성을 억압받고 있다. 그리하여 오늘날 생명에 대한 공동체적, 생태적, 우주적 각성이 더욱 요청되고 있다. 생명에 대한 새로운 각성만이 인류를 새로운 지평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문명을 바라보면서 생명의 의미를 새로운 빛으로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생명은 ‘자라는 것’이고 기계는 ‘만들어지는 것’이다.

생명이란 스스로 자라는 생성(生成) 그 자체이며 자라는 과정에서 자기의 구조와 질서를 스스로 조직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기계는 그 누군가에 의해 제작되는 것이고 그 운동은 이미 정해진 구조와 질서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서구의 오랜 전통철학은 모든 것을 존재로 보고 존재의 정태적 구조를 중심으로 사고를 해왔다. 즉 변화 가운데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을 궁극적 실재라고 생각해

왔다. 만들어진 기계는 어떤 의미에서 존재라 할 수 있으나 생명은 진화라는 시각에서 보면 존재라기보다는 생성하는 과정 그 자체이다.

둘째, 생명은 부분의 유기적 ‘전체’이고 기계는 부품의 획일적 ‘집합’이다.

모든 생명은 그 자신보다 큰 전체에 대해서 하나의 부분이면서 동시에 많은 부분을 통합하고 있는 전체라는 의미로서 전일적 아조조직체(全日的 亞組織體)이다. 전체이면서 부분인 생명은 서로 작용하면서 순환적인 구조를 가진 성층질서(成層秩序)의 그물에 연결되어 있다. 때문에 모든 생명은 전체로서의 독립성과 부분으로서의 종속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 전체로서의 생명은 부분으로 결코 분할될 수 없고 오히려 부분으로서의 생명이 전체에 통합되어지는 것이다. 또 부분이 전체에 통합될 때 부분은 자기의 개성을 주장하려는 경향과 전체에 통합되어지려는 경향을 동시에 갖고 있다. 그리고 이 경향은 상반된 것인 동시에 상보적인 것으로서 균형을 유지하며 이 균형은 정태적인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것이다. 그리하여 전체적 통합과 개성적 주장 사이의 역동적 균형이 전일적인 생명에게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셋째, 생명은 ‘유연한’ 질서이고 기계는 ‘경직된’ 통제이다.

생명은 내적인 융통성(融通性)과 유연성(柔軟性)을 가지고 있다. 생명은 통합된 전체로서는 하나의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부분들의 모양은 어느 정도 변화가 있고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 때문에 두개의 생명체가 똑 같은 부분을 갖고 있지 않다. 생명은 전체로서는 일정한 질서와 규칙을 가지고 있으나 부분들의 활동은 분방하고 불규칙적이다. 또한 생명은 전체로서 질서와 규칙을 강조하지만 이를 분방하고 개성적인 부분들에게 강요하지 않고 부분들의 무질서와 다양성을 너그럽게 조정(調整)하는 유연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하여 생명은 진화하는 환경에 동참하여 스스로 진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편 기계는 엄밀한 설계에 따라 일정한 부품들로 조립되어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엄밀히 설계된 전체의 구조가 부품들의 운동을 엄격히 통제하고 그 부품들의 모양도 획일적인 것이다.

넷째, 생명은 ‘자율적’으로 진화하고 기계는 ‘타율적’으로 운동한다.

생명은 자기를 스스로 조직화하는 체계이다. 생명의 활동은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전적으로 결정되지 않고 자신의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며 동시에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영향을 주고 받는다. 그리하여 생명은 자기를 자율적으로

조직하는 한 자유롭지만 반면에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인 한 결정론적이라 할 수 있다. 생명이 격심한 동요로 진화의 분기점에 이르렀을 때 그 진화의 방향이 혼돈 속으로 와해될지 아니면 새로운 질서로 진화해 나아갈지 예측할 수가 없다. 그리하여 생명의 진화에는 돌연변이와 같은 우연이 개입할 소지가 있다. 그러나 진화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생명 자신의 선택이며 일단 한 방향을 선택하면 다음 분기점에 이르기까지는 필연이 개입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자유와 필연은 생명의 진화과정 속에서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보적인 것으로 통일되어 있다. 그러나 기계의 운동은 외부의 힘에 의해 필연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기계는 타율적인 것이라 하겠다.

다섯째, 생명은 ‘개방’된 체계이고 기계는 ‘폐쇄’된 체계이다.

모든 생명은 자기 밖에 있는 환경과 물질·에너지·정보를 주고받는 신진대사(新陳代謝)를 통하여 자신을 구성하는 부분들 중에 낡은 것은 밖으로 내보내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 생명은 이러한 자기갱신(自己更新)을 통하여 전체적인 자기의 구조와 질서를 유지하게 되며 부분들의 손상 때문에 전체로서의 자기가 파괴되지 않도록 자기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손상된 부분들을 스스로 치유한다. 생명은 낡은 부분들을 새것으로 바꾸는 부분적인 자기갱신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만은 아니다. 자기한계를 넘어 새로운 자신을 창조하기 위하여 또다시 자신을 전체적으로 갱신하는 창조적 모험을 감행한다. 그리고 생명은 창조적 진화를 단독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거시적인 생명인 환경과 협력해서 공동으로 수행한다. 그러므로 생명의 진화는 생명체가 자연선택에 의해 환경에 적응하는 것만으로 보는 다윈(Darwin)류의 진화가 아니라 미시적 생명이 거시적 환경과 공진화하면서 자기를 초월하고 동시에 자기를 조직화하는 창조적 활동이다. 반면에 기계는 외부와 단절되어 고립된 체계이다. 작동을 계속하기 위해서 한번 에너지를 공급받으면 외부와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에너지가 일단 고갈되면 작동이 정지되며 정지된 기계는 외부에서 에너지의 새로운 공급이 없는 한 스스로 작동을 시작할 수 없다.

여섯째, 생명은 순환적인 ‘되먹임고리(feedback)’에 따라 활동하고 기계는 직선적인 ‘인과연쇄’에 따라 작동한다.

생명의 활동은 신진대사이거나 진화이거나를 막론하고 끊임없는 순환과정을 통

하여 진행된다. 순환과정은 출력된 에너지를 입력으로 다시 먹이는 되먹임의 고리이다. 이러한 순환에서 생명은 그 내부가 동요하게 됨으로써 비평형의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 사실 비평형이야말로 생명으로 하여금 ‘일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며 자기보존과 자기개신을 위해 부지런히 환경과 신진대사를 하게 만드는 동시에 낡은 자기한계를 넘어서서 새로운 질서로 진입하게 만들고 있다. 생명은 자기 내부에서 일어나는 변동이 일정 수준을 넘어 자신의 평형을 지나치게 불안하게 만들면 마치 자동제어장치같이 변동을 억제함으로써 다시 평형을 회복한다. 그리하여 생명은 소극적인 ‘되먹임고리’를 통하여 체온조절, 혈액순환 등과 같은 대사활동을 하는 것이다. 한편 생명은 적극적인 ‘되먹임고리’를 통해 변동과 요동이 증폭되면 전체의 평형이 붕괴될지도 모르는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이때 생명은 낡은 질서를 해체하고 전혀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게 되는데 결국 생명은 위기를 창조적인 진화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생명의 진화는 변동을 억제하는 소극적인 되먹임고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동을 증폭하는 적극적인 되먹임고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적극적인 되먹임은 적은 입력으로 진화라는 엄청난 효과를 가져오는 과정이다. 이와는 다르게 기계는 원인과 결과의 직선적인 연쇄에 따라 에너지가 소진될 때까지만 작동하는 것이다.

일곱째, 생명은 ‘정신’이다.

진화의 관점에서 볼 때 생명의 본질은 정신이라 할 수 있다. 정신은 생명을 기계와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생명과 정신은 둘 다 그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자기를 조직하는 역동성을 지닌다. 창조적인 것은 정신의 본성이다. 물질도 정신의 반대가 아니라 우주적 한 과정의 또 다른 면을 드러내는 것이다. 정신은 인간과 생물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정신은 우주의 모든 실체에 내재하는 생명의 근원적 활동이다. 모든 생명체가 신진대사를 통하여 자기를 조직하듯이 화학반응에 있어서 분자들도 스스로 자기를 조직한다. 아원자입자에서 은하계에 이르는 물질의 세계, 원생세포에서 인간에 이르는 생물의 세계, 생식과 대사작용에서 자기의식에 이르는 인간정신의 세계는 모두가 ‘우주정신의 자기조직화’, 즉 우주진화의 역동적 표현이다. 인간은 외부의 실재를 자기 안에 반영하는 반사정신(反射精神)을 창조함으로써 환경의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환경을 변형시킬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인간은 자기의 밖에 있는 것들을 감각하고 경험하며 생각하는 반사정신으로써 자신을 의식하는 단계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인간은

자기의 밖에 있는 환경을 의식하고 지각하며 경험할 뿐 아니라 자기자신을 자각하게 되면서 문화를 창조하게 되었다.

과학의 견해에 따르면 인간의 생물학적 진화는 약 5만년 전에 거의 완성되었고 그 뒤에는 사회문화적 진화를 해왔다고 한다. 이미 인간은 의식, 사고, 언어의 능력을 사용함으로써 생물학적 진화에서 정신의 진화로 나아가게 된 것이다.

자기를 초월하는 인간정신은 자기보다 큰 생명인 공동체와 생태계의 질서에 참여하고 지구의 정신에 통합되며 중국에 가서는 거룩한 우주의 마음과 합일하게 된다. 이와 같이 생명은 단순히 환경에 적응하여 살아남는 그 이상의 것으로 자기한계를 초극하여 진화함으로써 창조의 기쁨을 느끼는 거룩함이다. 거룩함은 우주를 포함한 모든 생명에 담겨져 있고 바로 이 거룩한 생명이 바로 한울님이다. 한울님은 결코 초월자나 절대자가 아니다. 오히려 자기실현을 위해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끊임없이 창조적으로 진화하는 생명 그 자체이다. 인간 정신은 자기 안에 거룩한 우주의 마음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4. 인간 안에 모셔진 우주 생명

동양 전통사상의 직관적 지혜는 우주의 궁극적 실재를 창조하고 계시하는 초월적인 신(神)으로 보지 않고,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활동 속에서 자신을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보편적 일자(普遍的 一者) 즉 우주의 생명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힌두교의 최고신을 지칭하는 브라만이라는 말은 생명, 운동, 성장, 진행을 의미하는 것이라 한다. 브라만은 때로는 생성과 소멸의 춤을 추는 시바신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힌두교는 우주를 유기적으로 성장하며 율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보고, 고립된 형태로 고정된 것들은 모두 마야(摩耶) 즉 환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 자신을 포함한 모든 것이 브라만이라는 것을 체험할 때 인간은 비로소 마야의 구속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역동적인 세계관은 바로 불교의 근본사상이기도 하다. 불교는 세계의 모든 실상이 무상하다는 깨달음에서 출발한다. 모든 것은 생겼다가 사라지며(諸行無常) 유전하고 변화하는 것이 우주와 생명의 근원적인 모습이라는 것이다. 인간의 변하는 움직이고 변하는 세계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고정된 현상과 관념에 집착하는 데에서 생겨난다고 가르치고 있다.

중국의 역 사상(易思想)과 노장 사상(老莊思想)도 모든 실재를 유동하고 변화하는 과정으로 보았고 그 궁극의 원리를 ‘길(道)’이라고 표현하였다. 심리적인 것이든 사회적인 것이든 자연적인 것이든 모든 현상은 역동적인 우주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라 한다. 도(道)의 참모습은 대립하면서도 상보적인 관계에 있는 음(陰)과 양(陽)의 순환적 활동의 주기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음과 양은 우주의 궁극적인 생명인 태극(太極)의 양극이다. 그리고 모든 변화는 음과 양의 순환적 파동으로서 끊임없이 점진적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변화는 어떤 외적인 힘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물에 두루 내재해 있는 자연적 경향이고, 음과 양의 균형이 바로 사물의 질서라는 것이다.

우리 민족은 우주의 근원적 생명을 ‘한’이란 말로 표현해 왔다. ‘한’은 서로 상반되는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한’은 ‘전체로서의 하나’이면서 동시에 ‘개체로서의 하나’이다. 그리고 ‘한’은 밖으로 퍼져 나가는 ‘원심적 확산’과 가운데로 모여지는 ‘구심적 수렴’을 동시에 뜻하기도 한다. ‘한’은 많은 개체를 하나의 전체에 통합하면서 확산과 수렴의 순환적 활동을 수행하는 한울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사상은 고조선시대 이래 우리 민족의 전통사상으로 면면이 그 맥락을 이어왔다. 최치원(崔致遠)이 전하는 풍류도(風流道)가 바로 ‘한’의 사상이다. 풍류도는 유(儒), 불(佛), 선(仙)을 모두 포함하면서 그 이상의 무엇을 지니고 있다. 그것이 바로 ‘한’사상이다. 풍류도는 진화하는 우주 생명의 전일성(全一性), 즉 ‘한’에 이르는 지극히 그윽한 길(玄妙之道)이다. 현묘지도는 우주의 궁극적 실재인 생명에 합일되어 가는 도정(道程)이다. 우주 생명인 ‘한’에서 하늘과 땅과 사람이 생겨나고(一折三極) 하늘과 땅과 사람이 각각 생명을 지니면서 하나의 우주 생명에 합일되어 가는 것이다(大三合). 따라서 ‘한’은 없는 곳이 없고 포용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無不在 無不容).

‘한’사상은 서세가 동점하는 근세에 와서 우리 민족이 봉건적 질곡과 외세의 억압에 신음하고 있을 때 인내천(人乃天)사상으로 그 위대한 모습을 다시 나타냈다. 동학의 한울님사상은 수운(水雲) 최제우(崔濟愚)와 해월(海月) 최시형(崔時亨)의 깨달음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다. 우리 민족의 마음에 수천년간 형성되어 맥락을 이어온 한울님의 상(像)이 민족의 암울한 전환기에 성(誠)과 경(敬)과 신(信)으로써 모셔져야 하는 한울님으로 다시 현현하게 되었다. 한울님은 ‘한’, ‘길(道)’, ‘태극(太極)’, ‘기(氣)’의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한울님을

관념화하지 않았다. 우리 민족의 마음에 있는 한울님은 삼라만상 속에 충만하고 인간과 더불어 있는 지극히 가까우면서도 그윽하고 아득한 우주의 궁극적인 실재인 것이다. 한울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그 안에 동참하면서 나누어 받아 체험할 수 밖에 없는 한(大)생명인 것이다. 동학은 이러한 한울님사상을 계승하고 발전시켰다. 동학사상은 하늘과 사람과 물건이 다같이 ‘한생명’이라는 우주적인 자각에서 시작해서 우주의 생명을 모시고(侍天) 키워 살림으로써(養天) 모든 생명을 생명답게 하는 체천(體天)의 도를 설파하였다.

오늘날 인류는 진화냐 파멸이냐 하는 분기점에 서 있다. 진화는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허락하고 있다. 문명의 전환기는 인간에게 새로운 각성과 결단으로써 잃어버린 생명과 정신을 되찾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야말로 우리는 기존의 세계관과 가치관에서 벗어나 우리의 행동을 의식적으로 변화시켜야 할 때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인류의 진화과정에 축적된 문화유산에서 우리의 진로를 현명하게 결정할 지혜를 찾아내 활용해야 하겠다. 특히 동학사상은 이러한 상황에 처해있는 우리에게 지혜와 희망을 줄 것이다.

첫째, 사람은 물건과 더불어 다 같이 공경해야 할 한울이다.

동학사상은 한울님을 인간과 자연을 초월해서 주재(主宰)하는 신으로 보지 않았다. 한울님은 사람과 생물 심지어 무기물에까지 내재해 있고 이들을 하나의 생명으로 통합하면서 자기자신을 실현해 가는 우주의 큰 생명이라고 한다. 사람과 물건들 속에 있는 생명은 곧 한울님이며 거룩함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사람은 한울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사람은 한울님을 공경함으로써 다른 사람과 물건들이 자기와 같은 생명으로서 한 동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동학은 ‘사람’과 ‘자연’이 모두 공경해야 할 ‘한울생명’에 합일된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한울님같이 공경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해월(海月)은 일찍이 인간이 자연에 대해 공경심을 가짐으로써 자연과 생태적 균형을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주의 진화에 참여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그리하여 해월은 “초목의 싹을 꺾지 아니한 뒤에라야 산림이 무성하고” “순수 꽃가지를 꺾으면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폐물을 버리면 부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생태적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둘째, 사람은 자기 안에 한울을 모시고 있다.

수운(水雲)은 사람은 누구나 자기 안에 거룩한 한울님을 모시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인간은 모두 한울님이 되는 것이다. 수운은 한울님을 개념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수운은 한울님을 말로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한울님의 참모습을 드러내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한울님은 개념화될 수도 없고 정의될 수 없는 아득한 우주 생명의 활동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사람은 한울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모시고 있다고 하였다. 사람은 우주의 거룩한 생명을 자기 안에 모심으로써 우주적 삶을 살게 되고 우주의 마음에 합일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울님을 모시는 일은 “안으로 신령함을 지니고(內有神靈) 밖으로 기운화함이 있으며(外有氣化) 나아가 한 세상 모든 사람 각각이 옮겨 살 수 없는 한울임을 알게 되는 일(一世之人 各知不移者也)”이다. 시천(侍天)은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다. 사람이 자기 안에 모신 한울님을 망각하고 섬기지 않을 때 바로 인간의 소외, 즉 ‘옮김(移)’이 일어나는 것이다. 수운은 인간이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守其心) 자신의 생명을 바르게 하면(正其心) 한울님의 성품을 거느리고(率其性) 한울님의 가르침을 받아 자연의 결에 따라 진화해 가는 것으로 본 것이다(化出於自然之中).

셋째, 사람은 마땅히 한울을 길러야 한다.

해월은 한울님이 사람의 마음속에 모셔져 있음은 종자(種子)의 생명이 종자 속에 있음과 같다고 하였다. 사람은 종자를 땅에 심어 그 생명을 기르는 것과 같이 자신의 마음밭에 심어져 있는 우주 생명(宇宙生命), 즉 한울님을 길러야 한다고 한다. 한울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종자를 땅에 심지 않고 물속에 던져 그 생명을 죽게 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한울을 기르는 사람에게 한울이 있고 한울을 기르지 않는 사람에게 한울이 없는 것이라 하였다. 종자를 심지 않는 사람은 결국 생명의 원천인 곡식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한울을 기를 줄 아는 사람이라야 한울을 모실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사람은 자기 안에 포태(胞胎)된 생명의 씨앗을 잘 기르기 위해서 자기가 일해서 얻은 곡식과 밥을 먹여 키워야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자기 안에 거룩한 생명을 모시고 기른다면 다른 사람도 똑같이 자기 안에 모시고 기르고 있다. 그리하여 사람은 한울로서 서로 공경하며 협동적으로 공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은 자기 안에, 다른 사람 안에, 자연 안에 모셔져 있는 생명의 씨앗을 정성껏 기르는 노고를 아끼지 않을 때 우주의 생명과 합일되는 시천(侍天)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우주차원에

서 보면 양천(養天)은 바로 한울이 한울 전체를 키우기 위해 동질적인 생명들이 서로 상부상조(相扶相助)하게 함으로써 서로 발전하게 하는 것이고, 이질적인 생명들이 먹이사슬(從屬營養) 순환을 통해 연대적인 성장발전을 도모하도록 함으로써 한울 자신이 진화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해월은 이를 한울이 한울을 먹는다(以天食天)고 표현하고 있다.

넷째, ‘한 그릇의 밥’은 우주의 열매요 자연의 젖이다.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한울을 키우기 위해서 밥을 먹어야 한다. 사람은 밥을 얻기 위해 땀을 흘려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밥과 곡식은 사람이 노동하여 얻은 결실이라고만 할 수 없고 오히려 우주와 자연의 밭에서 자라난 열매이며 한울(天)과 땅(地)의 젖이라 할 수 있다. 부모의 포태(胞胎)가 곧 천지의 포태이기에 사람이 어렸을 때 어머니의 젖을 빠는 것도 한울과 땅의 젖이고 자라서 오곡을 먹는 것도 한울과 땅의 젖이라 한다. 해월은 밥과 곡식과 젖을 한울과 땅의 녹(祿)이라고 불렀다. 그러므로 한 그릇의 밥을 먹는 일이 예사스러운 일이 아니다. 한울이 한울의 젖과 녹인 밥을 먹는 일이다. 즉 그것은 사람이 우주 생명과 합일되는 우주적 사건이 되는 것이다.

한 그릇의 밥은 한울과 땅에서 맺힌 열매이며 동시에 이웃사람들이 땀으로 빚은 젖이기도 한 것이다. 때문에 밥 한 그릇 속에는 우주의 진리가 깃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공동체적 의미도 담겨져 있다고 하겠다. 인간은 결국 사회라는 큰 술에서 지은 밥을 같이 먹고 살아가는 한 식구인 것이다. 만사를 안다는 것(萬事知) 즉 진리의 깨달음은 밥 한 그릇을 먹는(食一碗) 이치를 아는 데 있다고 하였다. 한 그릇의 밥이 한울과 자연의 젖이요 이웃들의 땀인 줄 안다면 한울과 땅 그리고 이웃의 고마움을 알고 되갚을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되갚을 마음은 한울과 땅과 이웃에 대한 고마움의 고백(告白)으로 나타나게 된다. 해월은 이 고백을 식고(食告)라고 부르고 이를 “도로 먹이는 이치(反哺之理)”라고 풀고 있다. 생명은 ‘되먹임고리’에 따라 순환적으로 활동하는 것이다. ‘되먹임’은 우주와 생태계와 사회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명이 물질과 정보, 에너지와 마음을 교환(交換)·교감(交感)하면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순환적인 상호의존성의 고리를 뜻한다. 그리하여 해월이 말하는 반포지리는 바로 ‘되먹임’으로 풀 수 있다. 즉 한울과 땅과 사람이 생명의 에너지와 마음을 받아 되돌려 주는 순환고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식고는 한울과 땅과 이웃으로부터 받은 생명의

양식을 다시 되돌려 주겠다는 보은(報恩)의 의리(義理)를 맹세하는 일이다.

밥을 먹는 일은 성스러운 우주 생명에 바치는 제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계시는 한울님 앞에 생명인 밥을 바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조상의 혼령에게 제사를 지낼 때 멧밥과 위패가 벽을 향해 산 사람 건너편(彼岸)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해월은 밥 그릇을 정오(正午)의 산 사람 앞으로, 즉 이편으로(此岸) 옮겨 놓았다. 옮겨 놓은 것이 아니라 잘못된 시간과 자리를 제자리로 바로 잡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향아설위(向我設位)의 사상은 매일매일의 일상적인 식사를 성스러운 제사로 그 본래의 의미를 찾게 하였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 우주 생명을 모셔 기르는 산 사람 앞에 생명의 근원이 되는 밥을 공양(供養)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산 사람 안에 한울님으로서의 조상들의 마음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지금 여기에 있는 나의 마음 안에는 먼 과거의 조상들의 영혼과 먼 장래의 후손들의 마음이 우주의 정신 즉 한울님으로서 하나로 합일되어 있는 것이다.

다섯째, 사람은 한울을 체현해야 한다.

사람은 한울을 모시고 키우는 자, 즉 시천(侍天)과 양천(養天)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은 한울님의 질서를 이 세상에 구현해야 할 사회·윤리적 책임을 지고 있다. 체천(體天)은 사람이 한울을 모시고 키우는 주체로서 한울님다운 도덕적, 사회적, 생태적 행위를 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은 한울님다운 행동을 실천함으로써 이 세상을 한울님다운 세상으로 진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현존하는 세계, 즉 선천세계(先天世界)는 죽음과 억압, 소외와 분열의 세계이다. 때문에 이 세상을 다시 한울의 세계, 즉 생명의 질서로 개벽(開闢)하는 인간의 행동은 불가피하게 싸움과 부정(否定)의 형태를 띠게 된다. 죽음과 억압에 거슬러 투쟁해야 하고 소외와 분열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한울의 정의(正義)인 것이다. 이 싸움은 우선 죽음과 억압의 질서에 대한 도덕적, 정치적인 투쟁(財戰)으로, 조작과 기만의 문화에 대한 언어·심리적 투쟁(言戰)으로 나타나게 된다. 도덕의 싸움과 생명을 죽이는 싸움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活人) 싸움,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사람도 살고 자연도 사는, 즉 함께 사는 무극대도(無極大道)를 위한 싸움이다. 한편 경제의 싸움은 밥 한 그릇의 싸움이라 할 수 있다. 밥 한 그릇이 우주의 열매이자 사회의 열매인 것을 깨닫고 생명의 열매를 모든 생명에게 나누어 먹여서 그 생명을 살리는 싸움인 것이다. 말의 싸움은 한울과 사람과 물건이 다 같은 한울님이라는 우주적 각성을 가지고 인간과 자연

의 모든 생명을 섬기고 키워서 살려야 하는 책임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한울의 진리를 이 세상에 널리 전하고 또한 그 진리의 그릇인 ‘말’을 순화(淳化)시키고 생동시키는 문화투쟁(文化鬪爭)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사람은 죽음의 세계에 대한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하면서 동시에 일상적 생활에서 생명에 대한 존엄과 경의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생명을 가두고 나누고 억압하고 죽이는 일을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체천(體天)의 소극적인 포현이 바로 십무천(十母天)의 강령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십무천 강령의 내용은, “①생명을 속이지 않는다 ②생명 앞에 오만하지 않는다 ③생명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는다 ④생명을 어지럽히지 않는다 ⑤생명을 일찍 죽이지 않는다 ⑥생명을 더럽히지 않는다 ⑦생명을 굶기지 않는다 ⑧생명을 파괴하지 않는다 ⑨생명을 혐오하지 않는다 ⑩생명을 예측시키지 않는다”로 되어 있다. 한울을 이 세상에 구현하는 체천의 도(道)는 삼전(三戰)과 십무천을 통하여 구체화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섯째, 개벽(開闢)은 창조적 진화이다.

수운과 해월이 말한 바 선천세계는 생명을 가두고(抑壓) 옮기고(疏外) 나눔(分裂)으로써 생명을 죽이는 죽음의 질서라 할 것이다. 생명이 생명답게 되기 위해서는 선천의 질서를 해체하고 새로운 생명의 질서를 창조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후천개벽(後天開闢)이다. 그러나 동학사상은 후천개벽이 인간의 인위적인 혁명으로 성취된다고 생각지 않았다. 후천개벽은 무위이화(無爲而化)로 되어 가는 것이다. 낡은 선천세계는 낡은 것과 새것이 자연스럽게 서로 갈아드는 진화의 흐름에 따라 변화해 가는 것이다. 인류는 인위적 폭력으로써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위이화하는 우주의 진화와 협력해서 자신의 생명을 능동적, 적극적으로 진화시켜 나아갈 때 세계를 개벽할 수 있는 것이다.

인류의 진화는 무위이화라는 우주의 자연스러운 진화과정이면서 동시에 시천(侍天)하고 있는 인간의 각성과 실천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때문에 인간이 낡은 선천세계를 개벽하는 일도 한편으로 보면 우주의 생명과 마음을 자기 안에 지니고 있는 인간의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참여에 의해서 이룩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우주와 인간은 협력하고 동역(同役)함으로써 창조적 진화를 이룩해 나가는 것이고 이 진화의 역동적인 과정을 통하여 우주와 인간이 통일되어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인류의 창조적 진화는 우주의 개벽이고 우주의 진화는 인류의 후천개벽이

되는 것이다.

일곱째, 불연기연(不然其然)은 창조적 진화의 논리이다.

수운은 그의 독특한 개념인 ‘불연기연(不然其然: 아니다 그렇다)’을 가지고 천지개벽과 인간진화의 사상을 전개시키고 있다. 그의 ‘불연기연론’은 동양과 서구의 전통적인 존재론에 대한 진화론적 극복이라 할 수 있다. 수운은 형태를 갖추면서 생성·진화하고 있는 천고(千古)의 만물들이 그 현상으로 보면(所見而論之則) 그렇고 그런 것같이(不然其然)보이지만 그 생성으로 보면(所自而度之則) 그렇지 않다(不然)고 하였다. 그리고 생성하는 것을 변하지 않고 고정된 틀, 즉 ‘존재’의 구조로 보면 ‘그렇다’와 ‘아니다’의 대립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서, 긍정(肯定)과 부정(否定)의 이원론은 ‘생성’을 ‘존재’로 보는 데서 성립된다는 것이다. 수운은 이원론적 대립이 시간의 개념에서도 성립된다고 보고 있다. 시간의 흐름에 있어서도 ‘이미 사라진 과거’와 ‘아직 오지 않은 미래’가 이분(二分)되어 어느 한 쪽을 ‘그렇다’라고 보면 그 다른 쪽은 ‘아니다’가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수운은 긍정과 부정의 대립이라는 이원론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 해결을 진화의 시각에서 찾으려고 했다. 모든 실재는 그 생성과 진화에서 보면 스스로 진화하는 궁극적 실재, 즉 한울과 합일되어 있다는 것이 부정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다’라고 단언되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수운은 인간이 존재의 시각으로 보아서 ‘아니다’라고 하는 것조차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부정할 수 없고 오히려 ‘그렇다’고 옳으므로 ‘그렇다’고 믿는 것이라 하였다. 결국 ‘아니다(不然)’라고 보는 것은 기필(既必)하기 어려운 것, 즉 생각이 ‘아직’ 미치지 못한 것을 의미하고 ‘그렇다(其然)’는 ‘이미’ 알고 있는 것, 즉 생각이 미친 것을 말하는 것이라 하였다. 그리하여 수운은 무위이화(無爲而化)하는 가운데 진화하는 한울에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미필(未必)한 적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불연(不然)한 것은 미필한 것이요 기연(其然)한 것은 기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주는 물질과 반물질 간의 대칭성의 파괴로 인한 태초의 폭발(Big Bang)로부터 시작되어 맥동치면서 진화해 왔으며 지금도 진화하면서 원자와 분자 같은 물질의 미시적 수준, 생물과 인간과 같은 생명의 거시적 수준, 생태계와 우주와 같은 초거시적 수준 등으로 중층질서(重層秩序)를 형성해 왔다고 한다. 여기서 진화

란 단순한 것이 복잡한 것으로 분화되어 가는 것을 말한다. 즉 ‘하나(一)’가 ‘많은 것(多)’으로 분화된다는 의미이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진화는 복잡하게 혼돈된 무질서가 질서화되어 가는 과정이다. 즉 ‘많은 것’이 ‘하나’로 통합되어 가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진화는 서로 모순되는 것 같이 보이는 ‘복잡화’와 ‘질서화’의 두 경향을 통합하는 순환적 역동과정이다. 그리고 진화는 모든 수준의 생명이 그 존재의 한계를 넘어 멀리 뻗어 나가는 것, 즉 ‘자기초월’인 것이다. 그와 동시에 진화는 모든 수준의 생명이 요동을 통해 자기를 새로운 질서로 조직하는 것, 즉 ‘자기조직화’인 것이다. 따라서 진화는 낡은 질서의 초월과 새 질서의 조직을 그 과정에서 통일하고 있다. 또한 진화는 과거의 살아있는 경험과 전망되는 미래에의 계획을 창조적으로 통합하고 있다. 그리고 진화는 시간들의 통일일 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묶어 시공연속체로 통합하고 있다. 그리하여 우주는 모든 수준의 생명이 상호연관의 그물에 이어져 미시계와 거시계가 공진화함으로써 무궁한 시공(時空)으로 펼쳐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을 통합하면서 진화하는 우주가 바로 인간정신 안에 내재되어 있다. 인간정신은 과거의 경험과 정보를 축적하고 있는 유전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의 환경인 생태계와 에너지를 교환하는 대사활동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주진화의 전 과정을 포괄하면서 자기 자신을 의식할 수 있는 자기의식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자기의식 속에 무궁히 진화하는 우주, 즉 한울을 지니고 있는 썸이다. 수운은 이를 일컬어 시천(侍天)이라 하였던 것이다. 시천은 정태적(靜態的)인 상태에서 초월적인 신을 섬기는 인간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생성·진화하는 우주를 지님으로써 한울과 더불어 진화하는 인간의 정신을 의미한다.

수운의 ‘불연기연론(不然其然論)’은 ‘아니다 그렇다’의 논리로써 바로 진화의 진상(眞相)을 규명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감각적 경험과 분석적 지각은 실제들을 정태적 구조 안에 ‘존재하는 것’으로만 보고 실재들의 생성과 진화를 간과하고 있다. 그리하여 인간은 감성과 오성(悟性)을 넘어서 있는 것, 즉 생성과 진화에 대해 불연한 것으로 ‘아니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만다. 그리고 인간이 미시적 차원에서 진화하는 거시적 실재를 인식하려고 한다면 정태적인 틀에 맞는 것에 대해서만 ‘그렇다’라고 궁극적 판단을 내리게 된다. 여기에서 존재의 이원론적 분열과 대립이 성립하는 것이다. 인간이 생성하는 실재를 분석적 지각으로 보면 기연한 것만 보고 지각의 한계를 넘어서 있는 것을 불연하다고 부정하지만 궁극적 실재에 대한 직관을 가지고 이를 보면 그 불연한 것이 기연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

이다. 결국은 불연과 기연이 진화하는 궁극적 실재에 있어서 하나로 통일되어 나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거시적인 차원의 실재는 감각적인 경험과 분석적인 지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직관을 통해 파악할 수밖에 없다. 직관(直觀)은 문자 그대로 ‘내부에서 배우는 것(intuition)’을 의미한다. 인간이 격변하는 진화의 소용돌이에서 저장된 유전정보, 환경과의 대사(代謝), 분석적 정신만을 가지고 진로설정에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직관적 지혜가 인간을 인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직관은 구조적 지식이 아니라 역사적 과정의 지식이며 진화하는 우주의 전일적 과정의 기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시천의 각성(覺醒)이다. 인간이 생명의 궁극적인 실재인 한울을 자기 안에 지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아니다’가 ‘그렇다’로 전환되는 것이다. 결국 인간은 ‘깨달음’을 통해서 인간과 우주, 인간과 자연, 개인과 공동체, 물질과 정신, 불연과 기연이 통일되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제 시천의 각성이 양천(養天)의 실천을 통해 무위이화(無爲而化)하는 가운데 개벽(開闢)으로 전개되는 진화의 문맥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자연과 인간을 역사적인 안목에서 존재가 아니라 생성으로 보려는 사상적인 시도와 노력이 19세기 서구에 있었다. 근대화되어 가는 서구의 세계 질서 속에서 후진적 주변부에 지나지 않았던 독일의 낭만적인 시대정신은 당시 현상(現狀)을 타파하고 새로운 질서를 추구하면서 변증법적 사고를 촉진시켜 나갔다. 변증법(dialectic)은 헤겔(Hegel)의 관념적인 변증법이나 마르크스의 유물변증법을 막론하고 그 특징은 모순을 용인하는 데 있다. 이때 모순은 ‘있음과 없음’의 통일, 즉 대립의 통일을 의미하는 것이다. 헤겔과 마르크스는 ‘대립의 통일’을 모든 사물의 본질이요 역사진보의 원동력이면서 동시에 사고의 법칙이라고 보았다. 그들은 사물의 변화를 ‘양(量)의 점진적 변화의 질적 비약(質的飛躍)’으로 보고 그 원리를 바로 ‘부정의 부정’의 논리로 보았다. 변증법은 레닌(Lenin)에 와서 대립의 통일 보다는 투쟁이 강조되었다. 레닌은 대립의 통일은 조건적, 일시적, 상대적이고 서로 배치하고 충돌하는 ‘대립의 투쟁’만이 절대적이라고 주장하면서 투쟁의 변증법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변증법은 대립의 통일과 투쟁으로써 생성과 변화를 설명하고 있지만 대립적인 것이 모순이라기보다는 상보(相補)적이라는 점을 놓침으로써 존재의 이원론적 구조에서 벗어나는 데 실패하였으며 생성과 변화를 단순히 ‘양의 질로의 변화’로 이해함으로써 기계론적 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라 하겠다. 결국 헤겔의 ‘구체적 전체성(具體的 全體性)’은 개체와 전체가 전일적으로 통합되

는 것을 의미하기 보다는 ‘획일적 전체성’으로 오해됨으로써 파시즘과 스탈린주의로 귀결되고 말았다. 수운의 ‘불연기연의 논리’는 존재의 정태적인 틀 속에 속박되어 있는 인간오성을 해방시키려다가 좌초한 변증법적 이성(辯證法的 理性)의 실패를 극복하고 인간, 자연, 그리고 우주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창조적 진화의 문법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5. 한살림

인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모든 문명은 발생, 성장, 쇠퇴, 소멸의 길을 걸어왔고 역사의 이러한 흐름은 우주의 역동적 순환과정의 일환이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어떠한 문명이든지 그것이 최성기에 도달하면 그 사고방식, 행동양식, 사회구조의 유연성(柔軟性)을 잃고 경직화됨에 따라 활력을 상실해 버리고 몰락해 가는 경향이 있다. 산업문명은 20세기 후반 70년대에 들어와서 그 정점에 도달하고서는 바로 쇠퇴의 길로 접어든 것 같다. 생명의 원리인 유연성에 반하면서 경직화된 기계의 질서는 이제 생존이나 아니면 파멸이나 하는 절망적 위기의 벼랑에 서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위기는 파멸로 인도하는 위험한 상황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변화에의 가능성을 잉태하고 있는 진화의 계기, 즉 새로운 기회일 수도 있다.

오늘날 위기의 상황저변에서부터 변화의 조짐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사회, 경제, 정치의 모든 영역 특히 국제정치, 경제의 영역에서 지배권력이 그 힘을 잃어가고 있다. 초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은 베트남에서 소련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무력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실감하였다. 일본은 인류사상 처음으로 자위대라는 비정상적인 군비(軍備)를 가지고 경제대국으로 발돋움을 해가고 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 이후 세계경제를 지배해 오던 미국경제는 70년대를 고비로 해서 소위 쌍둥이 적자라 불리우는 국제수지적자와 재정적자로 시달리면서 쇠퇴의 길로 들어섰다. 그리하여 세계 최대의 부채국인 미국의 달러가 세계경제사상(世界經濟史上) 처음으로 전 세계의 화폐로 통용되고 있는 기현상이 나타나게 되었고 국경을 타고 넘는 다국적기업(多國籍企業)들이 국가의 주권과 세계경제를 주무르게 되었다. 이들 기업의 자산은 대부분 국가의 국민총생산을 능가하고 그들의 경제적, 정치적 힘은 각국 정부의 권력을 능가하고 있다. 그러나 다국적기업의 지배도 국제여론의 힘과 국제경제의 블록화에 의해 세계 도처에서 도전을 받고 있

다. 또 세계는 인권과 자유를 물리적 폭력으로써 지배해 오던 권위주의적 국가권력이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민주화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 산업사회 내부에서도 기술관료체제, 즉 대기업과 당의 지배체제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면서 부분적인 개혁의 기운이 감돌고 있다.

또 다른 변화의 조짐은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서도 엿보인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제 더 이상 경제성장을 환경문제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인식이 뿌리내리기 시작하였다. 일부 사람들은 환경파괴와 공해문제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파탄이라고까지 하면서 적극적인 환경정책이 요청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파괴가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다소의 환경파괴는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아직도 지배적인 것이다.

사상과 이념의 영역에서도 새로운 징후가 보이고 있다. 그동안 세계를 양분하여 지배해 왔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그 정책과 사상에 있어서 현실성을 잃어가고 있다. 세계인은 계급과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인류의 공동선이 현실적이고 중요하다는 새로운 공동인식에 도달하고 있다. 19세기 자유방임의 환상에 실망한 나머지 지식인들은 한때 마르크시즘에 열중했었지만 오늘에 와서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수렴화(收斂化)에 기대를 걸고 있다. 자본주의 여러 나라들은 고전자본주의의 틀을 넘어서 사회정책과 복지개념에 관심을 돌리고 있고 한편 최근 소련과 동구의 일부 나라들은 개방과 자율화의 경향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오늘날 인류와 세계가 문명의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때 우리는 우리 민족의 역사적 상황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돌아다보면 우리 민족의 근세사는 외압에 대한 줄기찬 항전의 발자취였다. 우리 민족은 근대적 민족으로서의 자각이 움트기 전에 안으로부터 동요하기 시작하였으며 동시에 서구 제국주의가 동점(東漸)하는 세계사의 흐름 속에 밖으로부터 충격을 받게 되었다. 일본 제국주의의 폭력적 억압과 야만적 수탈 속에서 민중은 그 생존기반을 빼앗기고 그 민족적 본성을 박탈당한 채 신음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이에 굴하지 않고 일본 식민지 지배에 대해 끊임없이 저항해 왔던 것이다. 저항과 투쟁이 그렇게 치열했고 독립과 해방을 향한 민족의 마음이 그렇게 열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은 끝내 독립을 자주적으로 성취하지 못한 채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 해방은 민족의 자주적 투쟁의 결과라기보다는 일본을 대신한 또 다른 외세(外勢), 즉 미국과 소련에 의해 타율적으로 주어진 것에

불과했다.

이차대전 이후 소위 미·소 냉전체제(冷戰體制)는 세력균형이라는 명분아래 민족해방을 민족분단이라는 아픔으로 뒤집어 놓았다. 민족의 분단은 결국 동족간의 비극적 싸움으로 심화되어 갔다. 전쟁이 휴전체제로 바뀐 지 40년이 지나도록 남과 북은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여전히 타율적 이데올로기와 체제하에 서로 적대하고 있다. 그동안 남과 북은 자본주의 이념과 공산주의 이념을 가지고 그 나름대로의 산업화를 이루어 놓고 있다. 그러나 남은 어느 정도 경제성장을 이룩했지만 정치적으로는 군사적 독재 권력 밑에 민중의 생존과 인권이 오랫동안 유린되어 왔다. 북은 이른바 주체사상이라는 낡은 스탈린주의의 토착화에 열중하면서 인민을 억압하고 소외시키는 폐쇄된 전체주의사회를 구축하고 있다.

지금까지 남과 북의 집권세력은 서로 정치·군사적으로 적대하고 있으면서 말로만 통일을 외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기존의 체제나 이데올로기에 대해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통일문제를 권력획득과 유지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현재 남쪽의 민중들 사이에 통일에 대한 열망이 고조되지만 그들도 민족분단에 가로놓여 있는 장애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사상적 혼란에 빠져 있다. 살아 있는 하나의 생명인 우리 민족을 기계적 힘으로 분단시켜 적대토록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자연 그대로의 한반도를 기하학적인 선으로 절단하여 그 생명의 기(氣)를 끊어 놓은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인류와 세계를 분열시킨 억압적인 기계문명인 것이다.

진정한 통일운동은 무엇이 우리 민족의 역사적 진화를 가로막고 있는가를 정확히 인식하는 일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생명을 기계의 구조와 질서로써 억압하고 소외시키며 분열시키고 있는 오늘날 산업문명이 인류진화 과정상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가를 파악하는 일에서 통일의 문턱은 발견되는 것이다. 우리 민족을 남과 북으로 갈라놓고 서로 적대케 하는 것은 낡은 기계문명의 명맥을 유지시키면서 인류의 진화를 억제하는 소극적인 ‘되먹임고리(feedback)’인 것이다.

바야흐로 산업문명은 내부에서 격동하고 있고 그 동요는 낡은 구조와 질서를 유지시키기에는 너무나 격렬한 것이다. 그것은 곧 적극적인 ‘되먹임고리’를 통하여 더욱더 증폭되고 확대되면서 진화의 분기점을 돌파하는 혁명적 순간을 맞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인류진화의 창조적 초월은 바로 한반도에서 시작될 것이 틀림없다. 한반도는 산업문명의 비극적 운명이 집약적으로 연출되는 무대이며 우리 민족의 현존은 소외된 인간실존의 응축된 상징인 것이다. 바로 그러하기에 우리

민족의 비극적 운명은 진화의 분기점에서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류를 대신하여 앞장서서 과감한 창조적 진화의 모험을 감행토록 하는 추진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 민족이 생명의 씨앗을 전 인류, 전 세계에 퍼뜨리고 인류의 진화에 앞장서서 나선다면 우리 민족은 통일을 성취할 뿐만 아니라 인류 진화의 대약진의 여명을 알리게 될 것이다. 그때 한반도는 우주 생명, 즉 한울님의 제단이 될 것이다. 진정한 통일운동은 우리 민족의 통일만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 전 생태계, 전 우주 생명과의 통일을 지향하는 생명운동이다. 생명의 이념과 활동인 <한살림>은 모든 개인, 모든 민족, 전 인류, 전 생태계가 한울님, 즉 우주 생명의 태 속에서 태어나 한울의 젖을 빨고 자라는 한 형제, 한 동포라는 우주적, 생태적, 공동체적 각성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한살림>은 그 세계관에 있어서는 물질, 생명, 정신이 역동적인 과정을 통하여 하나의 우주 생명에 통합되어 가고 있으며 인간, 자연, 우주 모두가 동요를 통해 새로운 질서로 자기를 조직하는 생명이라는 점을 감지하고 있는 새로운 과학에서 그 이론적인 전거(典據)를 찾고 있다. 한편 <한살림>은 가치관에 있어서는 한민족의 오랜 전통과 맥을 이어오고 있는 동학의 생명사상에서 그 사회적, 윤리적, 생태적 기초를 발견하고 있다. 동학은 물질과 사람이 다 같이 우주 생명인 한울을 그 안에 모시고 있는 거룩한 생명임을 깨닫고 이들을 ‘님’으로 섬기면서(侍) 키우는(養) 사회적, 윤리적 실천을 수행할 것을 우리들에게 촉구하고 있다. 자연과 인간을 자기 안에 통일하면서 모든 생명과 공진화해 가는 한울을 이 세상에 체현시켜야 할 책임이 바로 시천과 양천의 주체인 인간에게 있음을 동학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첫째, <한살림>은 생명에 대한 우주적 각성(覺醒)이다.

모든 생명은 전체의 일부분인 동시에 부분들의 통합된 전체라는 전일적(全一的) 구조를 갖고 있으며 전체로서의 독립성과 개체로서의 의존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 그리하여 모든 인간, 모든 생물, 심지어 무기물까지도 하나의 우주적 그물 속에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협동하여 공진화하는 생명인 것이다.

모든 생명은 한울 가득히 가지를 뻗고 있는 우주라는 큰 나무에 연결된 가지, 줄기 뿌리이다. 모든 살아 있는 것은 우주 생명이라는 나무에서 단절되면 그 생명을 잃고 만다. 우주 생명인 한울은 모든 생명을 자기 안에 합일시키고 키워 나간다. 인간은 무궁히 자라나는 우주라는 생명나무의 한 가지 끝에 맺힌 작은

열매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하여 인간은 우주 생명에서 떨어져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 인간은 우주 생명이라는 큰 나무의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작은 생명이며 동시에 보다 작은 생명들을 통합하고 있는 큰 생명이다. 이것이 우주에 있어서의 인간의 제자리며 참모습이다. 그런데 열매 속에는 나무의 씨앗이 있고 그 씨앗 속에는 우주의 생명나무가 포태되어 있다. 진화하는 우주 생명은 살아서 진화하는 인간의 마음 안에 잠재해 있고 진화하는 인류의 문화는 우주의 전 시공간을 포괄하고 있다. 전체로서의 우주가 개체로서의 인간 안에 살아 숨쉬고 있어 동학은 이를 일컬어 시천(侍天)이라 하였다. 즉 사람은 누구나 그 안에 한울님을 모시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의 인간은 한울을 자기 안에 모시고 있음을 스스로 망각함으로써 그 본성으로부터 소외되어 있고 탐욕스럽고 잔인하게 그 형제이자 동포인 자연을 지배하여 착취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은 탐욕스러운 욕망을 버리고 인간이 다시 자기 안에 모신 한울을 섬긴다면, 즉 소외되어 있던 자신의 본성을 회복하기만 한다면 인간은 지혜롭고 성스러운 생명이 될 것이다.

둘째, <한살림>은 자연에 대한 생태적 각성이다.

생태계는 자율적으로 자기를 조직하는 체계이며 동시에 자기 안에 인간, 생물, 무기물들을 하나의 생명으로 포괄하고 있는 인간보다 큰 생명이다. 생태계로서 지구는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이며 가이아(Gaia)로서의 지구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대기와 바다의 흙과 더불어 인간과 다른 생물을 하나의 생명으로 통합하고 있는 지구는 엄청난 화학적, 열역학적 비평형의 동요에서도 자기를 유지해 왔고 오랜 진화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생태적 질서를 창조해 왔다고 한다. 만일 지구가 단순한 무생물체의 고체덩어리라면 어떻게 인체가 체온을 조절하듯이 지표(地表)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고 모든 지질학적, 기상학적인 요동을 꺾어내면서 생명체를 창조할 수 있었겠는가. 오늘의 새로운 과학은 분자수준의 물질에도 생명과 정신현상이 있다는 놀라운 혁명적 물질관을 제시하고 있다. 물건 안에도 성스러운 한울이 계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해월은 땅 울리는 소리가 자기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고백하였다.

생명의 진화는 우리 인간에게 많은 것을 깨우치게 하고 있다. 지구상 최초의 생명의 형태인 원생세포(prokaryote)들은 광합성을 통해 산소를 만들어 내어 지구의 대기권에 현 수준의 산소가 함유되도록 함으로써 산소를 호흡하고 살아가는 유핵세포(eukaryote)와 그 밖의 고등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생태적 질서를 창

조하였다. 그리고 원생세포들은 생태계에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식물과 동물의 세포 속에서 그들과 공생하고 있다. 그들은 지금도 생물의 산소호흡을 조절하고 무기물로부터 영양을 합성함으로써 ‘전 생태계의 에너지 살림’을 도맡고 있으며 생물의 폐기된 유기물 쓰레기를 분해하여 정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 인간은 전생태계의 ‘생산자’와 ‘주부’로서 또는 ‘청소부’로서의 원생세포가 수행하는 ‘에너지의 순환운동’과 ‘자정(自淨)활동’을 기반으로 하여 살아가고 있다. 우리 인간은 우주 생명의 나무의 일원으로서 가지, 잎, 뿌리와 더불어 공생하고 공진화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인간에게 자신의 자유함과 동시에 생태계에 대한 성숙한 책임감이 전 지구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지구의 요구는 인간의 요구이며 인간의 권리도 지구의 권리인 것이다.”

셋째, <한살림>은 사회에 대한 공동체적 각성이다.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 인간은 자연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듯이 사회를 떠나서 살 수가 없다. 인간은 본래 공동체에서 태어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산업사회에 있어서 인간은 자연과의 생태적 균형을 잃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 참다운 공동체를 상실하고 있다. 인간은 군중 속에 원자화된 고독한 개인으로 이웃과 단절되어 있다. 사회는 공동체적 성격을 상실하고 지배와 통제의 기능만 강화시키고 있다. 인간은 핵가족과 개인으로 산산이 흩어지고 중앙집권화된 권력에 의해 일괄적으로 관리되고 통제되고 있다. 사회의 가치를 결정하고 배분하는 권력이 더욱더 중앙집권화되고 전문화되고 독점화되면서 인간을 더욱더 소외시켜 가고 있다. 사회는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집단과 집단들이 대립하고 갈등하는 투쟁의 장이 되어 버렸다. 그 속에서 인간은 이기적으로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욕망충족(欲望充足)의 고리에서 쳇바퀴 돌고 있다. 오늘날 인간의 삶에서 결핍되어 있는 것은 물질적 안락이 아니라 공동체적 협동과 자연과의 조화인 것이다.

사회는 살아 있는 인간의 사회이며 그 본래의 모습은 진화하는 생명이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물질과 에너지, 정보와 지식, 정서와 정신이 끊임없이 순환적으로 교류되고 있다. 그리하여 사회는 개인들의 단순한 집합(集合)이 아니라 부분으로서의 개인과 전체로서의 사회가 전일적으로 통합된 공동체이어야 하며 인간은 공동체에서 이웃과 협동함으로써 공생하지만 결코 그 자율성(自律性)을 상실하지 않고 오히려 참다운 자기실현의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진정한 공동체

로서의 사회는 자연과 생태적 균형을 이루어 나가면서 환경의 변화와 진화에 유연성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다. 해월은 사람이 사람을 한올로서 대접하면 세상을 기화(氣化)시킬 것이라고 하면서 인간사회가 공동체적 삶을 통해서 진보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사회가 용시(用時), 용활(用活)하지 못하면, 즉 시대의 진화에 응하지 못하면 죽은 물건이나 다름없다고 설파하고 있다. 인간은 공동체를 회복해야 한다. 오늘날 낭비보다는 검약, 경쟁보다는 협력, 물질적 성장보다는 정신적 성숙, 이기(利己)보다는 공생, 자기주장보다는 사회정의, 분열보다는 통일을 지향하는 참다운 공동체적 각성이 우리에게 요청되고 있다.

넷째, <한살림>은 새로운 인식, 가치, 양식을 지향하는 ‘생활문화활동’이다.

산업문명은 자연의 생태적 균형과 인간의 공동체를 파괴함으로써 엄청난 분열과 충돌과 동요를 유발하고 있다. 격동하는 문명의 동요는 더욱더 증폭되어 생존이나 파멸이나, 붕괴이나 창조적 진화이나 하는 분기점에 이르렀다. 어느 방향으로 진행될지는 전적으로 인류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다. 오늘날 인간은 매우 탐욕스럽고 어리석은 생명인 것같이 보이나 그 본성에 있어서 지혜롭고 성스러움을 자기 안에 지니고 있다. 그러나 기계문명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 본성으로부터 떠나 소외된 모습으로 살도록 억압해 왔다. 오늘날 인간은 자기 안에 모시고 있는 우주 생명을 망각함으로써 생명의 본성을 잃어버리고 말았고 드디어 세계는 인간의 소외뿐만 아니라 생명 그 자체의 소외로 귀결되었다. 그리하여 인간은 인류의 파멸과 생태계의 파괴로 발전될지도 모르는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이 위기상황에서 인간이 먼저 해야 할 일은 소외된 본성을 회복하는 일일 것이다. 그것은 인간이 자기 안에 모셔진 우주적 생명을 깨닫는 일이다. 즉, 인간이 자신 안에서 우주 생명과 합일됨을 깨닫는 일이다. 이러한 각성된 깨달음이 있을 때 인간에게 새로운 희망의 길이 열릴 것이고 참된 인간회복과 인간해방의 길이 열릴 것이다. 우주 생명과의 합일됨을 깨달은 각성된 인간은 인간과 자연이 다 같은 생명으로서 우주와 합일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그리하여 각성된 인간은 공동체 속에서 이웃과 협동하면서 공생하고 생태계와 균형되고 조화스러운 생활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이제 삶의 인식, 가치, 양식에 대한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는 자연, 인간, 사회를 기계모형으로 보는 산업문명을 생명의 제 모습으로 바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새로운 세계관과 가치관에 기초하는 새로운 생활양식을 창조하여 사회에 널리 보급해야 하겠다.

다섯째, <한살림>은 생명의 질서를 실현하는 ‘사회실천활동’이다.

생명의 진화는 환경에 적응하면서 기존의 질서에 머물러 있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오히려 변화의 충격과 동요를 증폭시키면서 이를 새로운 질서와 환경으로 창조하는 생명의 활동을 말하는 것이다. 산업문명은 그 내부적 동요와 외부적 충격으로 진화의 문턱에 와 있다. 와해되어 가는 기계문명으로부터 인류가 창조적 진화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성된 인간들의 창조적 활동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 활동은 낡은 기존의 사회, 경제, 정치를 혁파하고 생명의 질서를 지향하는 실천적 사회활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산업문명의 정치는 그 권력을 소수 기술관료들에게 집중시키면서 대다수의 국민을 억압하여 소외시키고 사회의 분열과 경제의 불균형을 조장하고 있고 관료들의 부조리, 부패, 무능을 양산해내고 있다. 대기업에 의해 장악된 경제는 자본과 기술을 더욱더 집중함으로써 실업과 주기적 불황을 유발하고 있고 자원과 에너지를 낭비함으로써 생태적 균형을 파괴하고 있으며 부(富)를 독점함으로써 사회의 불균형과 분열을 심화시켜 나가고 있다. 기존의 정치질서와 경제구조는 기계의 질서로써 인간을 억압하여 소외시키고 자연을 파괴하는 죽음의 질서인 것이다. 그리하여 우주의 큰 생명을 자각한 창조적인 인간은 반 생태적, 반 공동체적인 정치권력, 기술관료, 대기업들에 대한 생명의 투쟁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인간과 자연, 개인과 사회, 민족과 인류가 다 같이 살자는 이 싸움은 사랑의 투쟁이며 평화의 투쟁이고 생명의 투쟁이다. 생명의 투쟁은 인위적 폭력으로서 기존의 사회질서를 해체하자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생명의 투쟁은 인류진화의 도정에서 새롭게 도래할 문명을 준비하는 창조적 활동을 말하는 것이고 후천개벽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섯째, <한살림>은 자아실현을 위한 ‘생활수양활동’이다.

생명의 세계관, 가치관을 실현하고자 하는 실천활동은 인간과 자연, 개인과 사회의 모든 생명이 모두 우주 생명에 합일되어 있다는 깨달음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해월은 일찍이 한울을 키우지 않는 사람에게는 한울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인간이 살아 있는 생명이라면 누구나 자기 안에 우주 생명을 포태하고 모시고

있는 것이다. 수운은 한울님을 모시는 일은 자기의 마음을 닦고 몸의 기운을 바르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시천(侍天)은 안으로 심화(心化)하고 밖으로 기화(氣化)하는 인간의 마음을 바르게 닦는 일이다. 그리하여 수운은 사람이 성실, 공경, 믿음을 다하여 한울을 섬기고 수심정기(守心正氣)하면 누구나 무극대도(無極大道)에 이르게 된다 하였다.

만약 사람이 한울님을 자기 안에 모시고 있는 거룩한 생명이라면 마땅히 자기 안에 계시는 한울을 키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 안에 계신 한울뿐 아니라 이웃사람과 자연 안에 계시는 한울도 키워야 할 윤리적 책임이 있는 것이다. 양천은 인간이 자기와 이웃과 자연 안에 내재해 있는 우주 생명을 키움으로써 ‘자아’와 ‘공동체’와 ‘생태계’의 공진화를 도모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해월은 한울을 기를 줄 아는 사람이라야 한울을 모실 줄 안다고 하였다. 시천(侍天)이라는 우주적 각성과 자기 마음을 닦는 수양(修養)은 생명을 기르고 키우는 현실적 생활(生活)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생활이란 문자 그대로 살아 활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생활은 인간이 살아 활동하기 위해 자신을 포함한 못 생명에게 ‘밥’이라는 생명에너지를 먹여 키우는 일이다. 우주 생명과 하나임을 깨닫고 있는 사람은 자기와 이웃과 자연이 모두 하나의 생명임을 자각하고 그들의 생명도 자신의 땀으로 빚은 ‘밥’을 먹여 키운다. 그리하여 각성된 사람은 시천(侍天)과 양천(養天)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다 그 자신 안에 ‘한울생명’을 모시고 있는 성스러운 생명이기 때문에 성실함과 경건함 그리고 믿음을 갖고 자기와 이웃과 자연의 생명을 자신의 땀과 피로써 키워 살려야 하는 윤리적 책무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도덕적 각성은 곧 진정한 ‘자아실현’을 위한 수련의 길일뿐만 아니라 자기와 이웃이 협동하는 ‘공동체의 삶’의 정신적 기반이 되고 ‘사회정의’, ‘생태균형’을 실현코자 하는 사회 실천활동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일곱째, <한살림>은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생명의 통일활동’이다

민족통일은 우리에게 민족적 지상과제이다. 하나의 통합된 생명인 한민족이 물리적 힘과 기하학적인 선으로 잘릴 수는 없다. 이것은 자연의 결을 거스르는 일이며 생명의 진화를 역행하는 일이다. 그런데 우리 민족은 아직도 분단의 고통 가운데 있다. 그러나 이 고통은 쓰라림을 이겨내면서 한 알의 영롱한 진주를 만들어내는 진주조개의 창조적인 고통일 것이다. 진정한 통일운동은 인류역사의 진

화 속에서 우리 민족이 수행해야 할 역할을 인식하는 데서 그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 우리 민족의 역할은 고난과 시련의 역사를 새로운 역사창조의 원동력으로 전환시켜 인류진화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산업문명이 기초하는 기계의 사회문화모형은 모든 것을 분할, 구속, 고립시키고 모든 것을 예측, 소외, 오염시키고 있는 죽음의 틀이다. 그런데 기계문명도 본래 생명인 인간정신의 산물이다. 그것이 생명의 모태를 떠나 생명의 탯줄을 끊고 나서부터 오히려 그 어머니인 생명과 인간을 억압하고 꺾박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탕자와 같은 기계문명은 더 이상 생명을 억누를 수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생명의 탯줄로부터 단절되어 그 생명력을 잃고 엔트로피의 노예가 되어 죽음을 선고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기계는 그 생명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 인간과 화합함으로써 본래의 생명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한살림>은 기계의 힘과 논리가 분할시키고 단절시키고 폐쇄시킨 모든 것을 다시 통일하는 일을 시작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통일을 성취시키고자 한다. <한살림>은 인간의 마음속에서는 감성과 이성을, 인간의 자기의식 속에서는 분석적 지식과 직관적 지혜를, 인간의 생명에서는 육체와 정신을, 인간사회에서는 개인과 공동체를, 생태계에서는 자연과 인간을 다시 통일시키면서 이 모든 것을 ‘한울생명’에 통일시키는 생명의 대통일운동을 전개해 나아가려 한다. 한살림은 전 우주, 전생태계, 전 인류를 생각하면서 민족통일을 위한 실천활동을 수행하고 민족의 통일을 생각하면서 생태적 균형, 사회정의, 자아실현의 길을 모색하려 한다.

수운(水雲)은 우리에게 통일의 대원리를 제시하고 있으니 시천사상(侍天思想)이 바로 그것이다. 인간은 거룩한 우주 생명이 자기 안에 임재해 있음을 각성함으로써 진화하는 우주의 창조적 대통일사업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우주적 사업은 생명을 억압하고 소외시키고 분열시키면서 죽음을 강요하고 있는 낡은 선천세계를 개혁하는 창조적 진화라 하겠다. 개혁은 한울과 인간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인간 누구나에 내재해 있는 우주 생명은 바로 인간의 옮길 수 없는 본성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망각된 채 소외된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여 제자리에 놓는 일이다. 이것이 진정한 인간해방의 길인 것이다. 시천의 각성이 내 마음, 우리 민족의 정신 아니 전 인류의 영혼에서 일어날 때 자연과 인간, 물질과 정신, 개인과 사회, 민족과 인류가 하나의 우주 생명으로 동귀일체(同歸一體)되는 생명의 궁극적 통일이 성취될 수 있다. 바야흐로 후천개벽이 다가오고 있다. 생명의 새로운 지평이 우리 앞에 열리기 시작하고 있다.

인류의 위대한 추축시대(樞軸時代)에 예수와 붓다에 의해 점화된 ‘사랑’과 ‘자비’의 등불은 2000년 이상 인류를 어둠에서 인도해 왔다. 그러나 산업문명시대에 들어와서는 그 빛이 희미하게 되었다. 죽음의 어둠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오늘날 사랑과 자비가 생명의 등잔 위에 더욱 큰 불꽃으로 다시 점화되어야 할 것이다. 1848년 마르크스는 공산당선언을 통해 인간해방을 선포하면서 혁명의 깃발을 높이 치켜들어 온 세계의 억압받고 소외되어 온 계급과 민족의 길잡이가 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 혁명의 깃발은 그 빛깔이 바래져 가고 있다. 마르크스는 인간이 물질의 생산, 분배, 소유를 혁명적으로 재편함으로써 인간해방을 실현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빵만 아니라 생명인 빵의 의미와 창조적으로 진화하는 생명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는 시천의 각성이다.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고 이를 준비하고 있는 각성되고 해방된 인간의 정신은 ‘자기 안에 있는 우주 안에 자기가 있음’을 깨닫고 있다. 진화의 분기점에 방황하고 있는 이 시대는 ‘우주 속의 인간’, ‘인간 안의 우주’라는 자기 이미지를 지닌 새로운 이념이 나와야 할 때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새로운 생명의 이념과 활동인 <한살림>을 펼친다.

“무궁한 그 이치를 무궁히 살피내면
무궁한 이 울 속에 무궁한 내 아닌가”(水雲)

가톨릭농민회 제20차 대의원대회 선언문

생명과 해방의 공동체를 건설하자!

오늘 우리는 한국가톨릭농민회 25년을 겸허하게 되돌아보며 농업을 살리고 모두를 살리는 생명운동, 공동체운동의 새 지평을 향해 굳건히 나아갈 것을 선언한다. 지금 우리 농민과 겨레, 더 나아가 전체 인류는 삶과 죽음의 절박한 갈림길에 놓여있다.

우리 모두를 억누르고 길들이는 분단, 독재, 독점과 모든 생명을 가르고 죽이는 핵무기와 전쟁, 자원의 낭비, 공해 그리고 생태계의 파괴는 실상, 생산력 향상 제일주의에 매달려 있는 현대 산업기술 문명과 맹목적인 이윤 추구로 내닫는 제국주의 모습인 것이다. 이러한 구조와 문명의 복합 모순 속에서 인간의 끝없는 이기심과 탐욕은 생명의 근원인 자연마저 철저히 훼손시켜 이제 전 인류의 생존은 물론 전체 생명을 파멸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그 동안 우리 농민은 외세에 시달리고 독점세력에 빼앗기면서 온갖 모순을 최종적으로 떠맡은 고달픈 삶 속에서 모든 사람의 목숨을 유지하는 생명산업의 당당한 일꾼으로 살아왔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물밀 듯 밀려들어오는 외국 농산물에 짓눌려 무엇을 심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면서 어느덧 우리 자신이 생명을 죽이는 생산현장에 내몰리며 이웃이 떠나는 속에 스스로가 분열되고 모두와 경쟁해야만 하는 격심한 반(反) 생명, 반(反) 공동체 물결에 한낱 도구로 전락되는 현실에 전율을 느낀다.

자연 속에서, 자연과 함께 생명을 가꾸고 기르는 농업 본래의 모습은 간데없고, 생태계를 파괴하고 식량을 오염시키며 자신마저 죽음 속에 빠져들고 있는 이 참담한 현실에 모든 생명이 조화롭게 공생하면서 농민이 함께 사람답게 사는 길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 길이 생명운동, 공동체운동을 통한 새로운 생명의 문명을 건설해 나가는 데서 실마리가 비롯되고 열매 맺을 것이라 확신한다.

우리는 참 농민이 되는 것과 참 세상을 만드는 길이 하나임을 믿는다. 생명운

동, 공동체운동은 바로 참 농민이 되는 길이며 위기에 처한 농업·농민문제의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이며 거래와 인류와 전체 생태계의 생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길이며 하느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그 나라를 건설하는 길임을 확신한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실현하기 위해 사람을 억압, 소외, 왜곡하는 구조의 모순, 제도의 강제를 바로잡기 위한 싸움에 이 땅의 농민운동의 한 부분으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더 나아가 모든 구조의 모순을 지탱하고 심화시키는 토대인 반(反) 생명, 반(反) 공동체 문명양식을 바로 잡는데 우리의 온 힘을 기울일 것이다.

첫째, 우리는 우주 생명의 하나이자 전체인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며 생명의 가치관, 세계관으로 중심을 단단히 세우고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농업에 충실할 것을 선언한다.

둘째, 개인, 거래, 인류 그리고 모든 생명은 하나의 커다란 공동체임을 자각하고 이웃과 관계를 맺고 발전시키는 현장생활 공동체를 건설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체 실현에 헌신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나눔과 섬김이 하나 되고 일에 대한 가치와 보람이 실현되는 해방과 대동의 세상을 현장 생활공동체 운동을 통해 이루어 나갈 것이다.

셋째, 우리 사회 구성원과 우리 거래 모두를 갈라놓고 생명을 위협하는 남북분단과 핵무기의 죄사슬을 끊어버리고, 민족공동체가 하나로 얼싸안고 인류평화를 더욱 확실히 뿌리내리기 위해 반핵·반전·평화운동과 민족통일운동에 매진한다.

오늘 우리의 선언과 결단은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과 겸손한 모색 그리고 끈질기고 공동체적인 실천을 요구한다.

우리는 사람을 아끼고 생명의 질을 드높이려는 모든 이들의 의롭고 착한 움직임에 한 형제로서 동참하며 힘을 키워 나갈 것이다.

우리는 생명을 한 올이라도 소홀히 여겨서는, 그리고 이웃과 떨어져서는 한시라도 살 수 없는 우주의 진리와 생명의 법칙을 깨우치면서 우리 운동이 처음부터 끝까지 생명과 해방의 참된 공동체가 되도록 모든 힘을 모아 성심성의, 정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바이다.

1990. 2. 27

한국가톨릭농민회 제20차 대의원회 대의원 일동

흙살림 창립선언문

인류생명의 원천인 농업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고, 농업의 모습 또한 건강한 식량생산이라는 원래의 목적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도시화·공업화의 추세에 따라 산업폐수와 생활오수가 농촌의 하천과 흙을 오염시키고 있고, 상업적 가치와 편리만 추구하여 진행된 농업정책과 영농방식은 농약, 화학비료 등 화공약품으로 토양의 생명력을 심각하게 떨어뜨리고 있다. 땅이 죽으면 농사가 제대로 안될 뿐만 아니라 오염된 땅은 독이 된 식량을 인간에게 돌려줄 수밖에 없다. 밥 없이도 인간이 살수만 있다면 이 같은 농업과 농업생태계의 파괴를 절박한 과제로 여기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디 그런 인간이 이 지구상에 한 명이라도 있는가?

따라서 농업의 토대인 흙을 살려 건강한 농업생산활동과 이를 신명나게 하며 살아가는 농민농촌의 살림은 가장 시급한 이 시대의 과제이다. 이 같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작은 불씨라도 되고자 우리는 흙살림연구소를 창립한다. 흙살림연구소 우리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의 생명을 지키며, 우수한 미생물농자재를 연구, 개발, 보급하여 생산자농민의 생명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공생순환하는 자연생태계의 원리를 자신의 삶과 논밭에 실천하려는 농민생산자의 고심이 있는 곳에 흙살림연구소는 항상 함께 있고자 한다. 농업의 가치를 바르게 인식하며 모두가 떠나려는 농촌에 지금 남아 있는 농민형제들과 농촌에 애정을 갖고 있는 모든 분들의 한결같은 성원으로 흙살림연구소가 가고자 하는 바가 알찬 결실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흙살림연구소 창립을 밝히는 바이다.

흙살림 일꾼의 다짐

우리 흙살림 일꾼은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삶의 터전을 일구기 위해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흙살림 일꾼은 흙을 살리고 국민건강을 지켜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흙살림 일꾼은 더불어 사는 농촌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한다.

흙살림 일꾼은 스스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환경을 살리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흙살림 일꾼은 흙의 건강상태를 1년에 한 번 이상 파악하여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흙살림 일꾼은 흙의 생명체인 미생물, 지렁이, 곤충들의 활동을 소중히 여긴다.

흙살림 일꾼은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품종의 선택, 생물학적 방제, 적절한 윤작 등을 실시한다.

흙살림 일꾼은 제초 관리를 위하여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적절한 방법을 이용한다.

1991. 6. 11.

환경운동연합 강령

<이념>

환경운동연합은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자연환경과 인간의 삶이 파괴되는 현실을 극복하고,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추구한다. 우리는 폭력과 전쟁에 반대하며, 평화롭고·공평한 미래사회를 지향한다. 우리는 생명, 평화, 참여를 중심 가치로 삼아·지구촌 모든 사람들과 힘을 합쳐 우리와 미래세대를 위한·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핵심가치>

- 생명 - 생명을 존중하고 자연과 인간이 함께 어울려 사는 세상을 만든다.
- 평화 - 폭력과 억압에 반대하며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향한다.
- 참여 - 참여와 연대를 통해 민주주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한다.

<10대 강령>

1. 지속가능한 소비생활체제를 구현한다.
2. 생물학적 · 사회적 약자의 환경권을 보호한다.
3.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생태적 국토 이용체제를 구축한다.
4. 법, 제도 등 공공부문을 생태적으로 개혁한다.
5. 산업구조와 세제를 생태적으로 재편한다.
6. 핵무기와 핵 발전의 폐기를 추구한다.

7. 재생가능에너지 체제를 구축하고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한다
8. 풀뿌리 시민운동으로 녹색자치를 실현한다.
9.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건설한다.
10.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국제협력과 연대를 강화한다.

환경윤리 종교인 선언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만들어 놓은 문명에 의해 자멸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바로 일찍이 겪어보지 못했던 생태적 위기인 것입니다. 지구의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현상, 오존층 파괴,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삼림의 훼손 및 많은 생물들의 멸종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국경을 넘어서 내리는 광범한 산성비의 피해, 대기와 수질과 토양의 오염, 그리고 도시화와 산업화의 과정에서 쏟아져 나온 쓰레기가 엄청난 속도로 누적되어 하나뿐인 지구를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오만과 탐욕으로 인해 다른 생명과의 상호의존관계를 깨닫지 못함으로써 이들과의 조화로운 공생의 가능성에 대하여 무관심해 온 것입니다. 특히, 산업혁명 이후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간에게 많은 편의를 가져다주면서, 높은 생산력이 인간의 자유와 행복을 무한히 확대할 수 있으리라는 꿈을 심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중심의 문명은 결국 계층문제와 민족문제 및 인간생존의 위기로 표현되는 환경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환경문제를 제기하는 바탕에는 물질적 소유의 확대가 행복의 유일한 기준이 되는 시대적 흐름에 대한 근본적인 변혁의지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우리 종교인은 자연을 지배의 대상으로 삼아 수탈해 온 어리석음과 그러한 행위를 방관, 방조한 과거의 잘못된 태도를 깊이 참회합니다. 이러한 참회는 자연 속의 수많은 생물, 무생물과 인간이 맺어야 할 관계를 올바르게 세우며, 나아가 온 인류와 지구를 살리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환경보전을 위한 삶의 윤리

한국의 모든 종교인들은 이러한 환경위기를 맞아, 지구상의 모든 생명의 지속적인 생존을 위해 우리 삶의 기본윤리가 다음과 같이 새롭게 정립되어야 함을 선언합니다.

첫째: 물질의 집착에서 벗어나 정신적 풍요를 소중히 여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기주의를 토대로 하는 물신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자연과 인간을 생명으로 보기보다는 상품으로 보는 물질만능주의는 구조적 불평등과 폭력, 도덕적인 타락, 생명경시풍조, 인간소외 및 환경파괴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물질의 소유만을 추구하는 삶으로부터 정신적 풍요를 소중히 여기는 삶으로 바뀌어야합니다. 나아가, 나만의 작은 삶에서 벗어나 모든 생명과 더불어 나누는 커다란 기쁨을 깨달아야 합니다.

둘째: 인간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자연과의 조화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탐욕은 다른 생명체와 서로 조화롭게 의존하는 생태계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결국 스스로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모든 동물, 식물, 무생물을 지배한다는 오만을 버리고, 우주가 하나의 생명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은 생태계를 이루는 한 부분으로서 겸손하여야 하며, 모든 생명과 더불어 서로를 살리는 관계속의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셋째: 지역에 한정된 생각에서 벗어나 범세계적 사고로 전환해야 합니다.

가족, 지역, 계층, 국가라는 겹겹의 울타리 속에 갇혀 있던 그 동안의 편협한 생각을 뛰어넘어, 전 지구적 사고로 전환될 때 비로소 인류와 모든 생명의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우리세대만의 생각에서 벗어나 후손의 삶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은 우리 후손에서 물려주어야 하는 것이며, 우리는 잠시 빌어 살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우리의 편리를 위해 후손들에게 파괴된 자연과 고통을 물려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종교인의 바람과 다짐

우리 종교인은 외형적인 성장보다는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발전을 희망합니다. 또한 생명을 존중하며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과학기술을 지지합니다.

정부와 정치가는 올바른 환경정책을 수립, 시행하여 시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해 봉사해야 하며, 기업 역시 무분별한 이윤추구로 인한 환경파괴행위를 지양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기술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일반시민은 환경윤리에 기초한 새로운 가치관과 생활양식을 갖는 동시에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불어 종교단체와 교육자는 시민과 학생들의 환경교육을 위해 힘을 다해야 합니다.

결국, 올바른 환경윤리의 바탕위에 올바른 환경정책과 올바른 환경기술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환경문제는 실질적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종교인은 산업문명이 개발과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분리시키고 조각낸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을 하나로 엮는 일을 해 나갈 것입니다.

자연파괴적인 물질문명에서 비롯된 환경위기는 이를 통제할 인간 정신능력의 고양을 절실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교의 역할은 실로 지대하며 그 책임 또한 막중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 종교인들은 자연환경의 보전과 생태계의 평화를 위한 환경윤리 실천에 앞장서며, 종교 간의 연대는 물론 시민단체와 기업, 정부 그리고 다른 나라와의 협력을 통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다짐합니다.

1993. 5. 31.

한국종교인 평화회의

환경윤리 종교인 선언대회 서명자 일동

녹색연합 창립선언문

대한녹색당 창당 준비위원회, 푸른 한반도 되찾기 시민의모임, 그리고 배달환
경연합은 우리의 환경과 생태가 날로 훼손되고 있음에 그 인식을 같이 하고, 배
달민족 유일의 삶터인 금수강산 한반도를 되찾기 위해 한 마음 한 몸이 되었다.

비록 자라온 연륜과 토양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오염으로부터 해방을 염원하
는 그 늘푸른 뜻만은 한결같고 굳어, 오살스러운 새 대동세상의 건설에 필적하는
녹색 깃발을 함께 들었다.

우리는 새 대동세상의 건설을 위해 좁은 의미의 환경운동을 넘어 대안문명운동
으로서의 녹색생명운동을 펼치고, 무엇보다 우리 역사와 풍토에 걸 맞는 배달민
족 자존의 운동방법을 전개해 이 땅에 녹색생명을 융틀임치게 한다.

또한 우리는 곧 통일되어 하나 될 북누리의 환경에 큰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가
지고 통일 에코토피아 건설의 첫 주춧돌을 놓는데 온 정성을 다 쏟는다. 나아가
전 지구적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세계 곳곳의 NGO들과 함께 하며, 궁극으로
자연과 인간이 하나 되어 살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립과 녹색문명의 참된
건설에 적극 앞장선다.

오늘 바로 이 땅으로부터 그린 르네상스, 녹색부흥의 힘찬 물결이 넘쳐, 내일
은 우리가 녹색으로 화할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는 이런 모든 일
들을 함께 함에 있어, 오직 올곧은 녹색신념으로 온누리 온민중과 함께 하는 풀
뿌리 모임임을 만천하에 널리 알리며, 우리의 굳은 뜻이 내일 이루어지는 그 날
까지 오로지 외길로 진군, 또 진군할 것을 다짐한다.

1994. 4. 1.

녹색연합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창립선언문

오늘 우리는 한국 천주교 교우들의 고향사랑과 생명존중의 뜻을 하나로 모아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를 창립합니다. 농업은 인간과 자연이 협력하여 하느님 창조사업에 가장 친숙하게 동참하는 생명산업이요, 기초산업이며, 농촌은 모든 생명이 창조질서에 따라 공존·공생하는 생명의 터전이며 우리 모두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농업, 농민, 농촌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외국농축산물의 수입개방과 부적절한 농업정책으로 우리 농업은 축소, 왜곡되고 있으며, 농심은 지치고 거칠어져 농촌공동체는 해체되고 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 타결 이후의 국내외 조건은 이런 현상을 가속화시켜 국제 곡물가격이 급등할 것이며, 수입국은 식량조달에 급급하면서도 국내 농산자원을 포기하여 자연생태계는 빠르게 훼손될 것입니다. 영농의욕을 상실한 농민들은 농토를 묵히거나 떠나 버려 우리의 밥상은 농약 투성이 수입농산물로 채워질 것이며 도시는 교통난, 주택난, 실업난이 가중될 것입니다.

농업문제는 단지 농민들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류는 오랫동안 농업을 통해 삶의 양식을 얻어 왔을 뿐 아니라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조화 속에 공존·공생하는 이치를 터득해 왔습니다. 농업은 경제적 가치를 넘어서는 생명이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생명경시, 사회공동체 해체, 상호불신 등 현대산업사회적 혼란과 비인간화 현상은 모두가 농업적 삶의 가치를 포기한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살고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길'을 찾아내고 실천해야 하는 '결단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농업·농촌·농민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인식하면서 이로부터 새로운 삶의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도시와 농촌의 생명·생활공동체운동만이 '함께 살고 모두를 살리는 길' 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하느님 창조질서를 보전하고 생명의 먹거리를 제대로 나누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농촌살리기운동’이야말로 우리의 믿음과 생활을 일치시키는 ‘참공동체’를 실천하고 지향하는 ‘믿는이들의 삶의 자세’라고 고백합니다.

도시교회와 농촌교회는 ‘일용할 양식’을 중심에 놓고 참된 나눔과 형제적 연대를 구체화할 것입니다. 창조질서를 보전하기 위해 수많은 생활공동체를 건설해 나갈 것입니다. 작은 공동체들의 공동체인 한국 천주교회는 도·농공동체 활동과 창조질서보전 활동이라는 두 기둥을 축으로 우리사회 전체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사회복음화에 정성을 기울일 것입니다.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결단과 실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안팎의 조건은 불리한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느님의 크신 사랑을 믿기에, 그리고 생명 생활공동체운동에 참여하는 교형자매들의 선의와 정성이 있기에 용기를 가지고 나섭니다. 교우 형제자매 여러분의 뜨거운 동참을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이 일은 바로 우리 자신의 일ियो, 모두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1994. 6. 29.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전국귀농운동본부 창립선언문

지금 우리의 농촌은 황폐화되고 농업은 파탄에 직면하고 있다. 산업화·공업화를 중심으로 하는 고도 경제성장 정책의 맹목적 추구에서 비롯된 이 같은 농촌·농업의 위기는 이제 UR/WTO 체제 아래서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려운 절박한 한계상황 속에 놓여있다.

농업은 민족생존의 산업이요, 농촌은 민족 뿌리이며 민족 문화의 터밭이다. 건강한 농촌·농업의 활성화 없이 건강한 민족의 생존도, 민족문화의 창달도 없다.

해마다 40만 명이 넘는 농민들, 특히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 고 농촌, 그 고향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노인들과 부녀자들 뿐, 농촌을 이끌어 갈 젊음의 힘, 그 활기참이 없다. 젊은이들이 없는 농촌은 내일이 없다. 농촌의 내일이 없음은 곧 이 나라와 이 겨레의 내일이 없음이다. 산업화·도시화의 반자연, 반생명의 메마른 문명 속에서 생기를 잃고 시들어가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아이들에게 살아있는 흙의 소중함, 밥의 소중함, 자연과 생명가치의 소중함을 맛보게 하고 지친 몸과 마음을 쉬게 해 줄 겨레의 고향, 생명의 터밭인 농촌을 우리는 잃어가고 빼앗기고 있는 것이다. 농촌을 살려내어야 한다. 우리의 밥상인 농촌, 우리의 환경생태계를 지탱해주는 농촌, 우리의 정서를 포근히 보듬어 주는 농촌,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울려 생명을 움티우는 생존의 보금자리인 농촌을 살려내어야 한다. 농촌을 살려야 우리가 산다. 지금 우리의 농촌은 스스로 회생할 수 있는 자생력을 상실한지 이미 오래이다. 젊은이들이 고향으로, 고향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

젊은이들의 힘과 사랑과 열정을 고향은, 농촌은 목 메이게 부르고 있다. 단시간적인 편리와 쓰고 버려야 할 물질적 풍요로움을 위해서 반생명적이고 반자연

적인 산업문명체계와 기업의 부속물로 우리의 젊음을 저당 잡히기에는 우리의 꿈과 내일의 희망이 너무 소중하다.

이제 우리의 땅, 우리의 농촌, 우리의 고향이 더 이상 버림받은 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땅의 농업이 한갓 돈놀이의 수단으로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 생명의 일꾼인 농민이 더 이상 이 시대의 천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땅의 젊은이들이여! 이제 흙으로, 고향으로, 농촌으로 돌아가자. 가서 땅을 갈고 거름을 내어 씨를 뿌리자. 흙을 살리고 개울을 살리며 풀벌레와 어울리는 유기순환적 생태질서 속에서 생명의 양식을 생산하고, 도시 소비자와 함께 손잡고 얼굴을 맞대는 도·농의 연대 속에서 새로운 대안 문명을 창조해 나가자. 반생명적이고 대립·경쟁적인 도시산업문명의 유일한 대안은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생조화하는 유기순환적인 농적(農的)문명이다. 순환공생의 농적문명을 창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다. 우리의 아이들과 겨레와 인류의 건강한 내일을 준비하는 길이다.

텅 빈 마을, 노인들의 바튼 기침소리만 적막한 고향땅에 돌아가자. 가서 부서진 삽썩문을 고쳐 달고 골목길에 우리 아이들의 방울 웃음소리 가득하게 하자. 가자. 가서 둥지 하나씩을 틀자. 농촌이, 들판이, 세상이 푸르게 다시 살아나는 보금자리를 만들자.

농촌에 신바람을, 새로운 활력을 불어 일으키자. 흙속에서 잃었던 생기를 되찾고 삶의 진정한 가치를 실현하자. 우리의 농촌과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하여, 사람과 사람이, 도시와 농촌이,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울리는 공생의 대동 세상, 생기와 신명이 넘치는 우리의 농촌, 그 생태적 공동체 마을을 만들기 위하여.

1996. 9. 19.

전국귀농운동본부

생명가치를 찾는 민초들의 모임(생명민회)을 제안한다 (1)

김지하(시인), 문순홍(생태사회연구소 소장)

지존과 사건과 인천 북구청 세금도적질, 그리고 만연된 환경위기와 내외정세에서 보듯 우리는 지금 생명윤리와 문화의 부재, 관료화되고 비대해진 국가체제의 모순, 환경운동의 방향상실, 국가 개혁의 목표 불투명, 국제관계에서의 피동상태라는 거대한 문제들에 부딪쳐, 국가는 국가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당혹감에 빠져 있다. 나는 이에 대안운동으로서의 새로운 사회운동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환경, 자치, 문화 등을 한 고리안에 통합시킬 생명운동을 제창하며 생명가치, 곧 보편적 삶의 통합을 추구하는 민초들의 모임 인 생명민회 운동을 제안하는 바이다.

1. 공명하는 세계

1) 20세기에 중첩된 19세기형 물음과 21세기형 물음

1970년대 이후 전 세계는 21세기형의 새로운 문제들에 직면하기 시작하였다. 이 새로운 문제는 생명가치의 상실과 이로 인한 생명위기가 연출해내고 있는 증후군들로, 지금 전 세계는 지구 자정능력의 파괴와 자원고갈, 현재를 살아가는 인간들의 진정한 자아감의 상실과 문화적 부패의 만연, 무분별한 과학기술의 발달 그리고 남북간 경제적 및 문화적 차이의 심화 등으로 고통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심각성을 더해가며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공통된 물음 외에도 제1세계와 제3세계는 각기 독특한 물음을 가지고 있다. 제1세계에서는 경제성장이 둔화, 퇴조되기 시작하였고, 실업률 또한 만만찮은 사회 문제로 자리 잡고 있어 경제구조의 새로운 전환과 사회적 부의 재분배를 필요로 하며, 여성과 남성의 새로운 性態에의 요구는 가부장제적 성관계와 사회적 역할분배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길 요구하고 있다. 또한 동구권 붕괴이후 가속화된 외국인(난민, 취업자)의 유입 증대는 새로운 국민관·민족관·국제관계의 새로운 재편을 요구하고 있다.

제3세계의 국가들은 그동안 선택의 여지없이 제1세계적 전망에 집착하여 왔다. 이러한 집착은 자연스레 서구형 해결방식에 의존하고 이를 수입하도록 요구받았고, 이로 인한 또 다른 미래의 문제들이 현재에 이미 배태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는 20세기라는 시점에서 18,19세기형 서구사회의 물음(정치적 권리의 획득 및 경제성장과 부의 분배)으로부터 벗어 날 수 없었으며, 동시에 20세기말의 새로운 문제인 채무문제와 지구생태계 위기 등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이들 지역에선 19세기 이후 등장했던 민족문제가 마지막 고비를 넘기고 있으며, 최빈국들은 인류탄생 이후 계속되어 온 생존문제와 아직까지 씨름하고 있다.

2) 공명하는 물결들

제1세계의 진보 및 발전은 제1물결, 제2물결 그리고 제3물결을 순차적으로 타고 나아가고 있지만, 한국을 포함한 나머지 세계의 국가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제1물결, 제2물결 그리고 제3물결이 겹쳐져 공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공명은 세계를 새로운 문제군들로 덮어버리고, 제3세계의 국가들은 과거 서구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공명현상은 전 세계 자연 생명력을 고갈시키고, 아프리카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무수한 인명들을 죽음으로 몰고 있으며, 상호의존적으로 살아가는 지구촌이란 개념을 허상으로 만들고 있다.

2. 현재의 세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 1) 인식의 전환

(1) 열려있는 선형이 아니라 ‘닫혀있는’ 그물망의 원으로

오늘의 위기적 정후군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열려있는 세계가 아니라, 한계 또는 경계를 가진 닫힌 세계임을 확인할 것을 요구한다. 오늘의 생명위기는

끝없이 무한한 선형적 성장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며, ‘이것 또한 하나의 허상’임을 우리 인간에게 깨워주고 있다.

현재의 지구는 인간에게 하나의 한계이다. 물론 비평형적 균형 속에서 지속적 창조작업이 진행되는 우주진화사에서, 지구는 열려있는 개방계일 수 있다. 그러나 뉴턴 물리학적 시공간에 갇힌 인간사에서, 지구는 현재 닫혀 있다. 닫혀 있음은 두 가지 함의를 가진다. 그 하나는 인간적 행위에 대한 지구적 한계를 의미하는 바, 이 한계성은 지구수용력(자정능력과 자연자원)으로부터 나온다. 다른 하나는 생태학적 법칙에 따라 “모든 것은 모든 것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상호연관적 그물망 체계를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세계란 “원은 닫혀있다.”는 것이다. 열려있는 선형의 발전관은 이러한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닫혀있는 그물망임을 인정하는 한에서 선형적 발전관은 하나의 신기루이다.

아원자의 세계가 보여주듯이, 닫힌 원은 닫혀있음을 인정하는 순간 또 다시 광대한 세계로 열려 진다. 왜냐하면 한계에 대한 인정이 인간에게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로 진입할 수 있는 열쇠를 찾도록 하기 때문이다. 이 열쇠로 인간은 자연을 새로이 재발견해낼 수 있으며, 자연과 교호하는 새로운 문화유형, 새로운 과학기술 그리고 새로운 사회를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열림의 열쇠는 바로 시공간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만들어 준다.

(2) 단선형 절대시간에서 복선형 상대시간으로

열려있는 선형의 세계에서 세계적 의식을 지배하는 것은 단선형 절대시간관이다. 단선형 절대 시간의 지배는 서구 중심의 국가간, 문화간, 과학기술간 서열을 만든다. 그리고 단선형 절대시간의 지배는 개발된 거대도시 중심의 지방간 서열을 만든다. 따라서 현재 세계의 국가들은 서로 다른 경제발전단계 및 정치발전단계에 놓여 있으며, 단선형 시간관에서 서로 다른 시간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 단선형 절대시간의 지배 속에서 서구의 뒤를 쫓아가는 기타 다른 세계들 그리고 개발을 원하는 지방들은 서구와 중앙거대도시의 시행착오가 시간대의 매듭마다 만들어놓은 누적적으로 증폭된 문제군들을 끊임없이 답습하고 있다. 오늘날 생태위기라는 인류보편의 문제는 비서구지역을 갑자기 20세기 후반이란 동일 시간대 위에 올려놓고, 이들 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18,19세기의 문제군들을 동시에 풀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지적하였듯이, 이 세계가 닫혀있는 그물망의 세계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이 세계에서 주변의 국가들은 서구와 다르다.

이들은 끊임없이 밀려오는 제1세계, 제2세계, 제3세계의 파도가 겹쳐 만들어낸 공명적 파고에 시달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닫혀있는 그물망의 세계에선 단선형 절대시간대 이외에도 다양한 복선형의 상대시간대가 존재할 수 있다. 서구와 중앙거대도시의 오류들을 극복하기 위해선 복선의 상대시간대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단선형 절대시간대에서 이탈하는 “틈”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인식 하에서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생태적으로 건전한 지속 가능한 발전”은 다양한 유형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되고, “생태적으로 건전한 지역개발들”이 가능해진다.

(3) 절대공간에서 상대공간으로 : 다층의 동위상화

정보통신의 발달은 세계를 일일생활권화 시켰고, 1980년대 말 냉전의 종식과 자유무역의 극대화 추진 그리고 환경오염의 광역성 확인은 국민국가를 기본단위로 한 세계구성을 새로이 재편집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들은 주위에 널려 있는 용어들 즉, 세계화(Globalization),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 지역화(Regionalization), 지방화(Localization)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열려있는 선형과 절대적 공간의 세계에서 우리 개인들이 위의 네 단계 다수준을 만나기 위해선 시간적·공간적 차이를 요구한다. 그러나 복선형 상대공간의 세계에서 이러한 다수준은 가장 하위수준인 지역을 중심으로 동시에 동일 위상화된다.

3. Glocalization 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

단일위상에 중첩된 공간적 다층구조를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 Glocalization이라면, 이 개념은 가장 큰 단위의 세계화와 가장 작은 단위의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현상을 표현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 사회의 세계화/국제화에 대한 논의는 한편에선 전문가와 국가 중심으로 수입되었고, 다른 편에선 우루과이라운드 등으로부터 직접적 경제문화 개방을 목전에 두고 등장하였다. 반면 지방화에 대한 논의는 거의 맹아적 모습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항상 맞물려야 하는 양측 중 지방화는 세계화/국제화의 뒷면으로 슬쩍 빠져버린다. 이런 상태에서 Glocalization은 공허하고, 실질적 내용은 Localization만을 의미할 뿐이다. 왜냐하면 그 우선 순위에서 Glocalization은 지방화가 세계화에 앞선 개념이기 때문이다. 지방과 비서구적 시각에서 작은 단위에 대한 강조점이 빠진 세계화는 자신의 근본

적 해체이며, 이를 서구적·중앙적 실체로 바꿔 버리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4. 현재의 세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 2) 자기 결정성

(1) 자기결정성의 기본단위는?

생태계의 공간구조는 우주 또는 지구생태계를 구성하는 7개 이상의 수준들이 비위계적이며 창발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먹이사슬구조와 지구물리학적 순환과정의 기능적 제관계들은 생물 및 무생물이 상극적 관계와 동시에 상생적 관계 속에 고리지어져 있음을 시사해준다.

이 세상을 구성하는 모든 것들이 그러하듯이 인간도 그 자체로 완결적 개체이면서 동시에 원형으로서의 자연, 인간화된 자연으로서의 기계 그리고 다른 인간들과 고리지어 더불어 사는 존재이다. 스스로 판단하고 행위하며 결과에 책임지는 자기 결정성은 상극적 세계에서 개체적 속성이 강조되지만, 상생적 세계에선 관계적 속성이 보다 강조되는 사회이다. 특히 비위계구조에서 하위단위는 항상 상위세계와 교류한다. 단위들간 더불어 하는 상위적 결정과정은 ‘보다 나은 그 어떤 것’에 창발적으로 도달하도록 한다. 그러나 더불어 하는 결정과정에 대한 인간의 역사는 ‘무리 지원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 초기단위로서의 적정 범위’에 대한 기준을 제공해준다. 이 기준은 잠정적이거나 생태적 동질성, 문화적 동질성, 그리고 대면적 인간관계로 볼 수 있다. 자기결정은 이에 의거한 적정공동체를 기본단위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2) 적정공동체를 전제로 한 ‘나’의 회복

다층으로 구조화되어 있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실재의 세계에서 개별 주체들은 다양한 일(사안)에 얽히고 설킨 채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은 주체들의 전체에 대한 인식과 이를 전제로 한 자기결정능력(자율)을 회복하길 요구하는데, 만일 개체들이 이러한 준비를 하지 못한다면, 더욱 복잡해져가고 빠른 간격으로 다층적 구조가 ‘나’에게 열려지는 세계에서 ‘나’는 전체에 무관심/무능하게 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전체는 ‘나’의 우위에서 나를 우롱하고 조종할 것이기 때문이다.

각각의 수준마다 각각의 사안마다 개인들은 자기파열을 경험하여야 하며, 그 속에서 동시에 자기정체성을 추수리고, 확인해내며, 견지해내야 한다. 즉, 개인들은 카멜레온처럼 변신하여야 하는데, 이 변신과정에서 변하지 않는 핵은 자기결정 능

력일 수밖에 없다. 자기정체성의 견지와 다층구조로의 적극적 참여(개방화),이 양자 간 조화는, 만일 개체적 차원에서 정보수집력/통찰력/판단력을 그리고 사회차원에서 집단적 해결을 위한 능력(참여 및 토론연습)이 결여되어 있다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3) 세계적 차원에서 주체의 다양화(국민국가, 기업, 민간단체, 개인)

이러한 자기결정성에 대한 요구를 객관적으로 정당화시켜주는 것이 세계적 차원에서 서서히 등장하고 있는 주체들의 다양화된 형태이다. 기존 국제정치경제의 장에서 주된 주체는 민족국가와 다국적 기업이었다. 그러나 세계적 구조의 다층구조화는 민족국가 이외의 주체들을 세계정치경제의 장으로 등장시키고 있다. 아직 국가 단위의 주체가 유효하다고는 하나, 미래의 주체들로 우리들은 쉽게 민간단체, 지방정부, 중소기업 그리고 개인들을 예상할 수 있다.

5. 자기결정성에 대한 요구와 잃어버린 질문의 회복

1) 과거의 위기/전환기 속의 ‘나’

과거 모든 위기는 경제적 위기나 안보상의 위기 유형이었다. 사실 이러한 위기 개념은 나에게 결정성을 요구하진 않는다. 그러나 현재적 상황과 자기결정성 회복에 대한 요구는 ‘나’에게 “내가 누구인가?”를 묻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를 생각토록 하며, 궁극적으로 “나에게 의미 있는 삶, 좋은 삶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이 질문은 지극히 가치내재적 물음이고, 삶의 질을 묻는 질적인 물음이다.

2) 고대적 질문의 회복

좋은 삶, 바람직한 삶에 대한 물음은 우리 인류가 오랫동안 물어왔던 질문이며, 고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정치철학자들이 해결하고자 하였던 물음이다. 그러나 근대 이후 좋은 삶에 대한 물음은 양적으로 풍요로운 삶으로 전치되었다. 오랫동안 잊어온 이 질적인 질문을 현재의 상황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다.

6. 바람직한 세계와 오늘의 ‘나’

이렇게 자기결정성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질문을 나에게 던지자마자, 우리들은 현재 세계가 우리가 원하지도 않고 선택하지도 않은 미래로 가고 있음을 인식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과 더불어 우리들이 세계를 스스로 구성할 수 있는 힘을 회복해낼 수 있다면, 미래의 세계는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 의해 만들어 질 수 있다.

7. 변화하는 세계에 직면한 서구형 노력 : 근본주의적 관점

70년대 초 서구에서 먼저 인지된 현재의 생명위기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운동을 불러 일으켰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근본주의가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이 근본주의는 현재를 위기 또는 문명의 전환기로 설정한다. 이들의 눈에 비친 근대문명은 과학기술-산업문명으로, 필연적으로 인간의 생존과 미래인류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예측은 과학기술-산업문명이 인간을 생존케하는 외부 생명보조계, 즉 자연을 운명적으로 파괴할 수밖에 없는 발전에 의거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문명의 기반은 이원적·유물론적·기계론적·원자론적 실재관과 무관계적이고 조야한 인간중심주의에 놓여 있다. 따라서 근본주의는 이 문명을 극복하기 위해 실재관의 전환을 요구한다. 전환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이들은 개체적 차원이든 집단적 차원이든 문화혁명의 형식을 택한다. 그 이유는 현재의 제도 및 학문이 이 실재관을 구체화한 것이므로, 기존 제도적 틀과 사상·이론을 활용한 운동은 개량화될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근본적 관점이란 현대를 특징지우는 문제들에 피상적으로만 즉, 주어진 제도적 장치/법률을 활용하거나 기술적 개선을 통해서만 접근하는 관점은 문제를 악화시킨다고 보기 때문에 이로부터 자신을 차별화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문제를 발생시킨 근원으로부터 접근하자는 취지와 해결에 선 기존제도나 의식에서 벗어나는 방식을 택하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8. 우리에게 근본주의적 관점이 지닌 함의

이러한 서구형 근본주의는 우리의 현실에서 현재 치우쳐 있는 중심을 견인해서

관계를 균형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또 다른 상대극, 즉 절대의 상대방에 상대를, 기계의 상대방에 유기체를, 인간중심의 상대방에 자연중심(생물중심)을, 입자로서의 단위 상대방에 관계란 단위를, 목적지향적 합리성에 과정지향적 낭만성을, 이성이란 인간능력에 직관과 통찰력이란 반대극을, 양중심의 상대방에 질 중심을, 남성중심의 상대방에 여성중심을, 서양의 상대방에 동양을, 제 1 세계중심의 상대방에 제 3 세계중심을, 국가 중심의 상대방에 국가거부를, 시장경제 상대방에 도덕경제를, 경제성장의 상대방에 반성장을, 경제가치의 상대방에 비경제적 가치를 설정해 준다는데 의미가 있다.

9. 생명운동 : 근본주의적 관점을 활용한 운동

생명현상 즉, 자기작동인자를 실체내부에 가지고 있어 스스로 움직이는(생성, 변화, 사멸) 자기작동의 현상은 그 자체가 “아니다 그렇다”가 공존하는 역리를 근거로 하므로, 생명운동은 ‘아니다’, ‘그렇다’의 양극이 공존토록 해 양극을 포용하고 있는 전체가 양극 속에서 스스로 작동토록 하는 운동이다. 따라서 행함은 없으되, 역리관계에 있는 양극의 균형을 잡아줌으로써 행함이 없지 않은 운동이다.

10. 생명운동의 기반한 논리 : 時中에 의거한 省察主義

따라서 생명운동은 엄밀히 말해 서구의 근본주의적 관점을 취할 순 없다. 새로운 관점 또는 논리를 개발하여야 한다. 이를 시중적 성찰주의라 칭하고 싶다. 時中的이라 함은 양극간 균형이 물리적 중앙에 놓여 있는 지점이 아니라 “기우뚱한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의미는 것이다. 보편적인 생명현상은 “기우뚱함”에도 불구하고 균형을 이루어내고, 이 균형점은 시대적·사회적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성찰주의라 함은 진행되는 現在的 과정에서 항상 과거와 미래를 보고, 방향성을 잃지 않음을 칭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 방향성을 결정한 지향점은 초시간적·초공간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11. 생명운동의 영역들

1) 미래세계는 현세계 속에 만들어진 “틈”으로 엿보인다.

현재의 세계는 자신의 모습으로 실체적인 외형과 가치내재적 내용이란 양면을 모두 가지고 있는 반면, 바라직한 사회는 구체적 외형을 가지지 못하고 오직 의식속에 이미지로만 낡은 삶의 틀속에 존재한다. 즉, 이 세계에서는 그 가치체계가 구체적인 제도/법률/학문체계 속에 감추어져 있으면서 무의식속에 숨어서 보편화되어 있다. 반면 바람직한 세계는 현실세계를 위태롭게하는 문제군들이 만들어낸 의식의 “틈” 속에 과거의 구체적 경험과 더불어 이미지로서 엿보인다. 그러나 현 체제의 보편적 의식과 무의식은 상식의 세계를 이루고 있어, 이 “틈” 속에 살아 숨쉬는 과거와 미래를 보지 못하도록 막거나, 보더라도 곧 부인토록 만든다. 따라서 미래의 세계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틈”을 확장시키기 위해 제도와 삶의 방식 속에 감추어져 있는 상식을 걷어내고, 이를 새로운 가치체계로 전치시킬 필요가 있다.

2) 생명운동의 주 영역 : 주민들의 생활세계와 문화운동.

이 집단적 가치체계를 문화라 한다면, 현 체제 이면에 숨어있는 보편적 가치체계는 거시적 유형의 문화로 제도화된 세계관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것만이 문화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문화는 미시적 차원에선 구체적 삶의 방식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현재의 위기가 만들어낸 제도화된 세계관내의 “틈”은 구체적 현실의 주변적 삶의 방식일 수도 있다.

제1의 물결과 제2의 물결 그리고 제3의 물결이 서로 공명하며 부딪치고 있는 세계에서, 오늘의 위기는 감추어져 있던 주변적 삶의 방식을 재조명해준다. 나아가 두 개의 문화가 공존하고 있음을 인식토록하고, 분열된 두 문화 사이에 놓여있는 간극을 더욱 균열시킬 수 있다.

지방적 삶의 방식이 지배적 논리체계와 어긋나는 바로 이 “틈”에서 복선형 시간대와 다층구조의 동위상화에 대해 인식지평이 열린다. 생명운동은 바로 이 “틈”에서 시작하며, 특수성들이 보편성과 더불어 인정되고 나아가 획일화되지 않은 보편적 가치를 획득하도록 하는 운동이다.

3) 생명운동의 주영역이 실천적 공간의 선택을 결정하진 않는다.

생명운동은 양극단의 “기우뚱한 균형” 속에서 전체가 작동토록 하는 운동이다. 현존의 세계에는 분열된 세계와 통합하려는 세계가 공존한다. 실천적 공간의 선택은 현존의 세계가 분열된 세계임을 인정하는 데서 의미를 갖는다. 서구의 근대는 세계를 체제와 생활세계, 국가와 사회로 이분화시키고, 동일 인간을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에서 전혀 별개의 인간으로 자아분열시켰다. 그래서 너와 내가 더불어 사는 공간의 문제를 논의하는 결정과정은 국가 내 정치공간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러한 근대의 세계를 인정하는 한에서 자기결정성 회복으로서의 자치 또는 민주화는 형식적 정치공간(국가)의 민주화이며, 경제공간의 인간화이다. 이 분열된 세계에선 국가 정치과정 및 경제적 부의 분배과정을 민주화하려는 노력이 별개로 존재할 수 있으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들의 과정은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생명운동은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정치운동, 경제적 공간에서 삶을 파괴하는 방식에 의한 경제활동을 거부하는 운동 모두를 포용할 수 있다. 즉, 생명운동은 구정치운동과 새로운 정치운동으로서의 지방자치의 참여문화를 만들어내는 운동의 양면을 가지고 있다.

12. 생명운동의 변형태로서의 세개의 영역 : 환경운동, 여성운동, 자치운동

생명운동은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 여성과 남성 간 왜곡된 관계를 회복하는 운동이다. 따라서 생명운동은 현상적으로 여성운동, 환경운동, 자치운동을 변형태로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세 개의 영역은 광의에서 문화운동으로 귀결된다. 이 세개의 생명운동영역은 위에서 언급한 실천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다. 자치운동은 구정치적 틀을 활용하고 새로운 정치운동의 형식과 내용을 만들어 내어야 한다. 환경운동은 국가를 겨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시민사회 및 지역주민의 친생태적 감각을 살리고 공동체의 기반인 자연을 회복하고, 지키고 감시하는 운동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여성운동 또한 정치경제적 권익의 불평등이란 측면에서 이를 시정하기 위해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을 지향하면서 동시에 서로 다른 성들이 더불어 사는 방식을 습득해내는 문화를 만들어내는데 주목하여야 한다.

13. 1995년 지자체 선거에 대비한 생명운동

1) 생명가치와 생명과정

자치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바로 지역주민들의 내발적 에너지이다. 이 내발적 에너지는 지역 내의 주민 과정과 생명과정이 통합적이나 통합적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한다. 생명은 관계성, 다양성, 순환성, 영성이라는 네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생명과정에서 생명가치가 발생한다. 생명과정이 지역적 삶 속에서 실현될 때는 특히 인간 상호간의 공동체적 신용관계,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토지소유관계 등), 그리고 광의의 노동력문제로 나타나며, 기타 영성의 문제는 문화활동과 종교활동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소위 국민국가의 공권력이 개입하여 국민경제적 전국시장으로의 획일적 통합과정이 진행되면서 이상의 네 가지 생명과정이 해체되고 상품화되었다. 토지는 토지시장에서 소유관계로 전락해버렸고, 인간의 노동은 노동시장에서 자신은 물론 자연도 상품화되었고, 인간의 신용은 신용시장에서 금융화 되어버렸다. 그 결과 사회는 황폐화, 비인간화되고 있으며, 특히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환경문제는 인간들의 세계관 문제이며 문명의 문제이다. 지역적 삶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생명과정의 해체는 바로 노동, 신용, 자연(토지소유관계) 그리고 상품화와 소외로 인한 경제의 비인간화, 문화의 이원화와 민초문화의 저급저질화, 폭력화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새로운 사회운동을 통해서 환경운동과 새 문화운동, 주민자치운동을 생명과정과 결합시킴으로써 탈상품화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부분적이거나 생명과정의 탈상품화를 통해서 따뜻한 도덕경제가 가능한 지역적 삶을 구축하고, 인간의 노동이 자기실현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연(토지소유)과의 관계 역시 비록 사유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토지이용권 만은 지역주민의 공동관리 하에 둬으로써 환경을 파괴시키는 공장이나 지역생태를 파괴하는 각종 개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이러한 지속적 운동의 영향력을 시장에 행사함으로써 시장을 수정해야 한다. 나는 이것을 ‘시장의 聖化’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과정이 바람직한 세계화인 것이다. 지역적 삶 안에서 이상의 과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새로운 사회운동으로서 환경, 자치, 새 문화를 결합하는 생명민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운동이 큰 뜻에서 문화운동의 내용이 될 것이다.

2) 환경

환경을 특화시켜서 정책대안 개발이나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에만 그치지 말고 오히려 지역개발론자에 대해서도 개발의 내용을 친 생태적으로 유도해내야 한다. 지역으로의 건전한 중소기업 유치와, 대기업의 개발이윤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전환시키고, 이를 통해 다국적 기업의 지역침투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제반 기업활동으로 인한 생태계파괴로부터 지역을 지켜야 한다. 나아가 지역기업을 공동체적 경제체제로 전환시킴으로써 인간의 노동소외와 자연에 대한 생태적 소외로부터 지역을 되살리는 것이 궁극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내년 지자제 선거에서 선거공약이나 정책대안제시의 방향을 단순히 특화된 환경문제에 그치지 않고 교육이나 문화에 대한 내용 등 사회전체의 문제가 총체적으로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3) 영성

전체적인 주민중심의 생명운동 과정에서 중요시해야 할 것은 영성이라고 생각한다. 즉 생명의 본성으로서의 영성이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문화와 종교생활 전체에 걸쳐서 일어나는 일종의 정신적 활동이라고 보는데, 이점에 착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대는 문화력이 중심이 되는 시대로 전환하고 있으므로 그 동안 소홀히 해왔던 문화문제, 종교생활에 보다 많은 시선을 주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4) 시민의회

풀뿌리 보수주의로 전락될 가능성을 보이는 현재의 정당 공천후보 일변도의 내년 지자제 선거에 대비해서 어떻게 내용을 수정시키고 압력을 가하며 지속적인 감시단체로서 주민운동을 밀고 나갈 수 있는가 라는 점에서 장기적인 시민의회 운동의 전개는 매우 중요하다. 다만 여기서 정부에 지나치게 긴장을 주는 대립적 입장을 가져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지역정부이든 중앙정부이든 간에 시민의회와의 관계는 서로 주거나 받거나하고 때론 타협도 하고 때론 압력도 주고 때론 정책대안도 제시하는 건강하고 온건한 태도를 취해야 만이 시민의회가 존속할 기반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이 시민의회의 힘은 국가개혁과 통일의 주체적 활력으로 크게 작용할

것으로 나는 믿는다.

5) 동북아 생명공동체

생명운동으로서의 주민자치운동이 동북아시아의 생명공동체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기한 바 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최근 한일포럼이 열렸다. 이 한일포럼에서 일본 측의 의견을 살펴보면, 중국의 급성장에 대해 매우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이로부터 한국을 끌어들이 한일간의 연대를 통해 중국의 팽창하는 압력을 저지하자는 숨은 의도를 찾아 볼 수 있다. 한편 중국은 한국과의 빈번한 접촉을 통해 일본의 팽창을 견제하는데 한국을 끌어들이자는 속셈을 가지고 있다. 다시 한번 19세기말 20세기 초의 개화척사파의 갈등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히려 주민자치를 통한 생명운동의 확장과정으로서 일본과 중국에 대해 이니셔티브를 쥐고 지역과 민간차원에서 동북아시아 전체를 삶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는 일을 벌여야 할 것이다. 지금의 핵전쟁 위협과 생태위기는 창조적인 동양정신과 새로운 첨단 과학사상과의 결합을 통해서 극복가능 하다. 15억 인구가 밀집한 동북아 지역이 현재 전 지구에서 환경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점에서 오히려 남한 쪽의 주민들이 생명공동체 운동을 활성화 시켜 동북아 각국내의 一國主義의 정치리더쉽을 끈질기게 설득하고, 동북아 전체를 삶의 공동체로 만들자는 창조적 제안을 제기하고 밀고 나감으로써, 지금의 한국, 일본, 그리고 중국간 미묘한 삼자관계를 새로운 평화적 관계로 전환시켜야 한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6) 네트워크

생명운동으로서의 생명민회운동은 의장제라든가 피라미드식 조직으로 되어서는 안되며, 철저한 (수평지향적) 네트워크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생명민회에선 지역과 지역간의 현실관계에 맞고, 시기적으로 내년에 여러 가지 제기될 이슈들에 맞는 네트워크 방식을 깊이 논의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7) 여성

여성에 대한 주목은 시민, 주민운동 특히 지역자치운동에 있어서 주체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여성문제에 대한 우리의 보다 발전적인 논의가 앞으로 여성운동을 주민자치운동과 환경운동에 결합시키는데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도 뺄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생명운동은 결국 여성을 생명과정의 한 주체로 새로이 발견해 냄으로써 생명가치를 회복해내는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여성의 새로운 발견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는 고민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생명가치를 찾는 민초들의 모임(생명민회)을 제안한다 (2)

- 생명운동의 구체적 실천방안 -

생명민회 연구팀

생명가치를 지키고 제대로 실현시키기 위한 우리의 운동은 단기적으로 성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 운동의 성과는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이며, 그 결과는 기존의 패러다임과 질적으로 판이한 형태를 취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틀을 새롭게 짜는 것이 될 것이다. 이 변화는 간절한 열망이나 어느 날 갑자기 도래하는 혁명적 전복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변화는 그 움직임을 포착하기는 힘들지만 끊임없이 쉬지 않고 진행되는 일련의 지속적인 노력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

생명운동은 관념적으로 추구되는 추상적 운동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실현되어야 하는 구체적 실천운동을 지향한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생명운동을 표방하며 우리가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은 무엇인가? 생명운동의 구체적인 실행태로서 우리가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 중의 하나는 바로 자치운동이다. 생명가치를 구체적인 삶 속에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삶의 구성 방식을 주체의 자기결정성에 근거해 새롭게 바꾸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는 곧 생명운동이 ‘삶의 정치’를 운동의 내용으로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생명운동이 자치운동에 관심을 갖는 것이 단순히 기존 정치틀 내에 국한된 정치운동으로서 이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생명운동은 삶의 문화 전반을 바꾸고자 하는 보다 넓은 의미의 생명문화운동이며, 그 구체적 실행태

로서 자치운동 역시 그 틀 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생명운동으로서 자치운동은 정치적 형식의 활용을 뛰어넘어, 삶의 구성방식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을 지향한다. 그 변화란 구체적으로, 첫째 삶의 자기정체성과 결정성을 회복해 내는 것을 지향하고, 둘째 비판과 요구의 능력을 복구시키고자 하며, 셋째 대화와 합의 도출 능력을 배양하고, 넷째 이로부터 삶의 세계에 대한 체제적 전횡에 한계를 설정하는 것을 지향한다.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생명가치의 파괴와 훼손은 바로 이러한 지향점들이 총체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데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크게 두 영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패러다임 수준의 변동 공간이며, 다른 하나는 개별적인 생활방식상의 변동 공간이다. 고무적이게도 이러한 변화의 단초들이 시민사회의 성숙 과정과 더불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서서히 그 싹을 내보이고 있다. 이 변화의 싹을 건실하게 키워 나가 궁극적으로 패러다임 수준의 변동을 이끌기 위해서는 생명운동의 이념적 지향과 그것의 실현에 대한 이론적 논의의 활성화가 필수적일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물론 전문가나 운동가들의 선도적인 작업에 의해 촉발되겠지만 그 중추적 논의는 이들을 포함한 삶의 주체로서의 민초들에 의해 삶의 개별적인 실천행위를 통해 구체화되고 뿌리내려져야 할 것이다. 그것의 직접적인 형태가 드러나는 공간이 생활양식 공간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생명운동이 취해야 할 운동의 형태는 일차적으로는 고립화되어 있는 주체 역량을 결집시켜 공동체성을 회복시키는 것과, 이차적으로는 사고의 변화를 위한 논의의 확산 과정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임은 다음과 같은 운동의 실천방안들을 단계적으로 진행시켜 나가고자 한다. 먼저 우리 모임은 장기적으로 이러한 논의가 확산되는 매개구조로서 가칭 ‘생명민회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할 것이다. 이 논의의 장은 생명운동의 지향점과 장기적인 실천전략, 각 단계에서의 국면적 활동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논의 내용들이 중앙뿐 아니라 각 지역으로 확산되는 계기를 제공해 줄 것이다. 우리는 이것이 결코 매번 완성된 형태로 완결되리라고 생각지 않는다. 이 논의 구조는 오늘의 이 모임을 포함하여 생명가치의 실현에 대한 문제의식을 끊임없이 띄워 나가면서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검증되고 구현될 수 있도록 촉발시켜 나가는 기능을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논의는 일회적으로 일단락되거나 소진되지 않고 그 자체로 계속해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와 같이 진행될 것이다.

또한 현단계에서 직접적인 운동의 활동 공간으로서 지방자치 국면을 적절히 활용하고자 한다. 이는 생명운동이 자치운동을 중요한 매개운동 형태로 고려하고 있는 만큼, 내년에 있을 지방자치제 선거를 의미 있는 운동의 계기로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다시피 지방자치선거에 주목한다고 해서 운동의 형태가 선거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기존의 정치운동적 성격을 띠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생명운동은 이보다 훨씬 더 긴 호흡을 가지고 전개될 것이다.

따라서 생명가치를 지향하는 삶의 형식과 내용을 스스로 결정짓기 위한 기존 정치들을 활용하는 자치운동도 또한 다음의 각 단계를 겨냥하여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추진될 필요가 있다. 제1단계는 1995년 지방자치선거 국면에서 지역욕구의 표출 및 활성화, 욕구의 조정과 변형을 꾀하는 단계이다. 이는 기존의 선거운동과는 차원을 달리 하는 것으로, 후보가 시민연대 후보이든 정당 후보이든 상관없이 이들의 선거 공약이 주민들의 욕구에 기반하도록 유도하는 운동 형태를 취한다. 제2단계는 지방자치 선거 이후 국면으로 지방행정부와 지방의회가 견제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지방의회 의원들의 역할, 즉 공약의 이행 및 주민의사 대변이란 기능의 충실한 수행여부를 평가하는 작업에 주력하는 단계이다. 이는 그 과정에서 지역사회가 자체 견인력과 비판적 평가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제3단계는 1996년 국회의원 선거와 1997년 대선 국면으로, 이 시기는 운동을 통해 시민사회가 정당 민주주의의 정착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력하는 단계이다. 이는 개별 정치인들을 생명자치운동의 차원에서 평가하고 그들의 정책역량을 판별함으로써 생명자치운동을 지지하는 선거구민이나 선거권자들에게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후보를 지지하는 형태로 전개될 것이다. 제4단계는 시기적으로는 2단계 이후부터 동시에 진행되는 것으로서 1995년 이후 국면에서 중앙의 권한을 재차 지방으로 이양시키는 작업이 필요한 단계이다. 특히 지방이 가져야 할 권한으로서 지역경제 부문, 에너지원, 기술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단계는 이상의 각 단계에서의 운동 성과들이 축적되면서 2000년대를 지향하는 단계로서 새로운 생명가치에 근거한 삶의 정치가 발현되는 단계이다.

이 가운데 현시점에서 가장 긴급하게 구체화되어야 할 운동의 실천방안은 물론 제1단계 지방자치선거 국면에서의 운동 전략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생명운동은 지방자치 선거 국면에서 어떠한 실천전략을 가질 것인가?

선거 국면에서 시민운동의 대응 양식은 크게 다음의 두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선거 개입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대응방식이다. 구체적으로 지자체 선거를 통해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으며, 또 얻어내야 한다는 시각에 근거하여, 운동이 선거 국면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고 보는 당위론적 입장이다. 이는 상황을 낙관적으로 해석하는 경우이거나 비관적이더라도 점진적인 변혁을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길 경우에 취할 수 있는 대응방식이다. 여기에서 선거 개입은 개입의 방식이나 규모에 따라 직접적 개입과 간접적 개입 또는 전면적 개입과 제한적 개입으로 구분될 수 있다. 직접적 또는 전면적 개입은 시민운동 내부에서 총체적으로 연합하여 상당한 지역의 선거구에서 후보를 내고 선거에 직접 관여하는 방식을 뜻하며, 간접적 또는 제한적 개입은 시민운동 일부에서 몇몇 선거구에 제한적으로 후보를 내거나, 기후보자들의 성향을 판별하여 선거구민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선거에 영향력을 주고자 하는 방식을 뜻한다. 이러한 대응방식은 개입 결과가 의도한 대로 성공적일 경우, 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운동 내부의 총체적 전력 투입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의견 조율 및 합의 도출에 이르는 힘든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더욱이 만일 선거개입 결과가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하고 실패하였을 경우, 자칫하면 운동 전체에 패배주의가 확산될 수도 있으며 나아가 지속적인 운동의 추동력을 상당 기간 상실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

선거 국면에서의 또하나의 대응방식은 이와는 달리 직접 선거에 관여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운동의 토대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선거를 바라보는 방식이다. 이는 지자체 선거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 운동이 과연 소기의 성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최근의 정세 판단이나 현행 선거제도를 감안하여 회의적인 시각을 갖는 입장이다. 따라서 지자체 선거에 지나치게 관여하였을 때 오히려 얻는 것 보다는 잃는 것이 많다고 여겨, 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변화의 토대를 구축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본다. 이 장기적인 준비 전략은 몇몇 후보자를 당선시키는 데 운동력을 집중하기 보다는 오히려 긴 안목에서 선거구민의 자치능력을 계발시키는 데 역점을 둔다. 이는 일견 설득력이 있으나 단기적으로 지자체 선거 국면을 직접 활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시작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모임은 현 지자체 국면에서 운동의 실천전략으로서 이중과정으로서의 양면전략을 취하고자 한다. 이 제3의 입장은 앞의 두 입장을 보완절충하여 지자체 국면을 한편으로는 변화의 한 계기로 직접 활용하면서도 여기에 지나치게 승부를 걸지 않고 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대안적인 지역자치의 기반을 준비하는 데 역점

을 두는 양면전략을 구사하자는 입장이다. 개입과 불개입이 병존하는 형태로서 개입은 하되 선거에 이기기 위해 전력투구하는 방식보다는 오히려 설혹 선거에서 진다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선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지자체 선거를 장기적인 지역자치 능력을 향상시키는 밑거름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모색하는 입장인 것이다.

이 이중과정으로서의 양면전략을 전제로 생명운동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활동을 하여야 할 것인가? 전체 시민운동 내 각 부문운동별 또는 개별운동단체별 역량과 입장에 따라 지자체 선거에 임하는 대응 방식은 다양한 다원적 형태를 띠 것이다. 따라서 바람직한 생명가치가 실현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지자체 선거 국면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대응 방식을 취하는 입장에 우리의 모임 자체가 동조하여 직접 개입하는 방식을 취하기보다는, 그러한 운동전략을 취하는 운동단체에 ‘제한적인 지원’을 보내는 한편, 장기적인 토대를 준비하고자 하는 입장에 대해서도 이에 필요한 지역 차원의 논의 부각과 확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

그에 따라 우선 앞서 제안하였던 생명운동의 논의 확산 프로그램인 가칭 “생명민회 포럼”의 단계적인 논의 주제 영역을 일단 지방자치선거와 관련된 주제로 집중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지방자치선거가 있기까지 5회의 포럼 주제를 다음과 같이 기획하고자 한다. 첫번째 포럼은 생명운동의 취지와 입장을 제안하고, 장기적인 운동전략을 모색하는 것으로서 오늘의 모임이 그것이다. 두번째 포럼 주제는 지역의 선거 대응 전략에 대한 것으로서, 이를 통해 지역 수준의 선거대응 프로그램 실행의 필요성을 확산시키고 그 전형을 보여주하고자 한다. 세번째 포럼은 지역선거의제 개발에 대한 것으로서, 이를 통해 선거 국면에서 생명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삶의 정치 구현에 필요한 환경, 자치, 내발적인 지역발전, 새로운 문화, 교육, 여성, 교통 등과 관련된 지역의제의 개발을 쟁점화시키고자 한다. 네번째 포럼은 지역의 자치후보 만들기와 관련된 것으로서, 이는 직접적으로 운동이 후보전략을 강구하지는 않되, 후보들을 판별하거나 선거공약을 견인해 넘으로써 향후 선거 이후 국면에서 자치운동의 실질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는다. 다섯번째 포럼은 지자체 선거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운동의 대응방향을 주제로 선거 이후 국면을 겨냥한 논의의 확산을 기도하고자 한다.

이어 이러한 논의 확산 프로그램과 함께 선거 국면에서 직접적으로 개별 선거구에 대한 지원프로그램도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차적으로는 앞의 포럼에서의 논의 성과가 각 지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개별적인 지역참여를 유인할 것이며,

나아가 지역 차원의 포럼을 기획하거나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이차적으로 향후 이 운동이 확산되는 상황조건에 따라서 몇몇 개별 선거구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실행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지원 내용으로는, 강연이나 교육, 기타 행사 기획을 통해 해당 선거구민의 자치능력 계발을 도모하는 것이라든지, 지역단체의 선거대응 능력 계발을 위해 작업, 선거 이후 의정감시 전략 및 시민의회 운영 전략 개발 작업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작업은 직접적으로 해당 선거구를 중심으로 하지만, 그 작업 내에서 일반적인 전형을 끌어냄으로써 다른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생명운동이 현단계의 지자체 국면에서 단기적으로 이상의 실천방안들을 모색하고 실행시켜 나가는 것은 좁은 의미로 그것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라기보다 항상 장기적 관점에서 생명운동이 지향하고자 하는 바와 결부되었을 때 그 참된 의미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선거는 생명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삶의 정치를 구현시키는 형식적 틀로서 의미가 있을 뿐이며, 그 내용을 채워 나가는 것은 삶의 주체로서의 주민들의 주체적인 삶의 의지이자 일상적인 삶의 행위인 것이다.

한살림운동의 지향

1. 우리는 우리 안에 모셔진 거룩한 생명을 느끼고 그것을 실현합니다.

사람은 자기 안에 모셔진 거룩한 생명을 공경할 때 자기의 자기다움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를 모시고 공경하듯 다른 사람의 거룩한 생명도 공경합니다.

2. 우리는 우리가 딛고 사는 땅을 내 몸처럼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젖을 통해 어린 생명이 길러지듯 우주의 젖인 안전한 밥상을 통해 인간의 생명은 길러집니다. 그래서 식량생산의 터전인 땅과 우리 농업을 살리기 위한 삶의 문화를 일구어 생명살림을 펼쳐 나갑니다.

3. 우리는 지역의 이웃과 생산자와 소비자를 가족으로 생각합니다.

무관심과 소외가 만연된 우리 삶에서 이웃 간의 믿음과 사랑을 회복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살림의 생산자는 소비자의 생명을, 소비자는 생산자의 생활을 책임지면서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이루어 나갑니다.

4. 우리는 우주 생명의 일원으로서 생태계에 책임지고자 합니다.

생명의 근본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오늘의 나를 있게 한 모든 자연환경, 햇빛과 그늘, 바람과 도랑을 흐르는 작은 물까지도 귀하게 여겨 사랑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온 생명이 더불어 사는 생명살림 세상을 만들어 나갑니다.

5. 우리는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해 나부터 시작합니다.

한살림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존재를 넓혀 나감으로써 우리의 이웃과 자연 만물, 나아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까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서로 보살피며 돕는 운동입니다. 나부터 삶의 가치와 생활양식의 올바른 전환을 통한 실천이 있을 때 우리의 지역과 이웃을 함께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창립선언문

첨단과학기술에 대한 환상적 미래를 노래하고 있는 현대사회가 총체적 비인간화, 생명위기의 문제로 불안·초조하다. 전혀 뜻하지 않았던 결과인 오늘의 역사현실은 우주(存在)의 실상에 대한 무지의 세계관과 방법으로 살아온 필연적 귀결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너무 오랫동안 길 아닌 길을 달려왔다. 본래의 큰 길, 유일한 영원의 길을 잃고 헤맨 것이다. 본래의 길을 찾아야 한다. 영원의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한다. 우리들의 희망이 그곳에 있다.

우주의 실상이 유기적 생명공동체임을 확신한다.

온 우주는 총체적 관계의 진리에 의해 형성된 유기적 생명 공동체이다. 유형무형의 모든 것들이 총체적 관계의 진리에 따라 생성 변화하고 있다. 영원에서 영원 끝까지 관계의 진리에 의해 생명 공동체로 형성되고, 생명 공동체로 활동하는 것이 우주(存在)의 실상이다.

우주의 실상인 생명 공동체의 길에는 평화롭게 함께 사는 길 하나뿐이다. 함께 사는 길엔 협력·협동하는 길만이 참 삶의 길이다. 더불어 함께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균형과 조화의 길만이 확실한 희망의 길이다. 우리 모두는 너와 나, 인간과 자연이 서로를 아끼며 함께 사는 이 길을 가야한다.

우주의 생명질서인 공존-협동-균형의 길을 간다.

우주의 실상인 관계의 진리에 입각한 세계관을 확립하는 일에 최고의 가치를 둔다. 관계의 진리에 입각한 존재가치를 깨닫는 일에 진지한 관심을 기울인다.

더불어 함께 살고, 서로 협력, 협동하며, 평등하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문화를 가꾸는데 정성을 다한다 이 길만이 인류의 원초적 염원인 모순과 고통의 불행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유일한 큰 길이다.

인드라망세계관 확립과 존재가치의 깨달음과 평화공존의 문화를 갖춘다.

세계의 실상인 관계의 진리를 뜻하고, 그 세계관의 정신을 역사화 하고자 '인드라망생명공동체'를 창립한다. 인드라망 세계관의 사상과 정신을 역사에 실현하기 위해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세세생생토록 서로를 아끼고 격려하며 본래부터 활짝 열려있는 생명의 길, 희망의 길, 만인의 길을 향하여 오늘 첫 걸음을 내딛는다.

청산은 의연히 푸르고 강물은 유유히 흐른다.

불기 2543년(서기 1999년) 9월 11일

녹색연합 강령

생명존중

- 우리는 모든 생명의 가치와 권리를 존중하여 생태계 질서의 보존과 회복을 위해 노력 한다.
- 우리는 자연과 생물의 권리를 인정하고 이들의 서식지인 자연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활동한다.
- 우리는 다른 생명체에 대한 인간의 간섭과 통제를 거부하며, 생명체가 인간과 시장중심의 논리로 이용되는 것을 반대한다.
- 우리는 생태계를 교란하고 생명윤리를 위협하는 유전자 조작을 반대하며, 유전자 조작과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생명안전과 생태계 질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모든 생명을 위해 인간의 욕망을 절제하여 육체, 정신, 영의 건강을 되찾는다.

생태순환형 사회의 건설

- 우리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중심의 왜곡된 경제체제를 극복하고 생태순환형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무분별한 도시팽창과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대형 개발사업을 반대하며, 백두대간을 비롯한 산림생태계, 갯벌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생물종 다양성 보전을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자연과 더불어 사는 문화를 오래된 미래로 존중하며 이를 계승 발전시킨다.
- 우리는 절제된 녹색소비를 통해 소박하고 작은 것이 아름다운 생활양식을 정착시켜 나간다.

- 우리는 미래세대의 생명과 환경권을 존중하며, 미래세대가 지속 가능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핵 발전과 화석연료 중심의 잘못된 에너지체계를 극복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 개발과 보급, 에너지 효율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비폭력 평화의 실현

- 우리는 모든 종류의 폭력과 차별을 거부한다.
- 우리는 전쟁의 종식과 평화를 위협하는 핵무기 등 살상무기 폐기, 전쟁위협을 야기하는 군비경쟁과 군수산업 중단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우리는 자연과 인간, 여성과 남성, 그리고 모든 생명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 우리는 관용과 열린 마음의 형성, 서로의 귀기울임, 평화의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녹색자치의 실현

- 우리는 참여민주주의와 자치, 분권을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환경문제를 인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환경권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 한다.
- 우리는 노약자, 청소년, 어린이, 빈민, 여성, 지역 주민 등 사회 약자들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환경자치가 실현되는 생태마을, 생태도시, 녹색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녹색생명운동의 발전을 위해 국내외의 시민단체, 사회운동세력과 연대 한다.

강령제정 2000. 4. 1

강령개정 2001. 6. 23

2000년 기독교 환경선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지 2000년을 맞이한 인류는 과학, 산업, 경제의 발달로 전에 없던 물질적 풍요를 경험하고 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삶의 터전인 지구는 빈곤, 전쟁, 핵무기, 환경파괴 등으로 파멸의 그림자가 점점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 이는 물질문명을 주도해온 근대적 개발이념이 생태계의 질서를 파괴하고, 무제한적인 경제개발이 인간 사회에 경쟁과 대립을 초래하였기 때문이다. 생물종의 경계를 넘나들며 생명을 조작하고 있는 생명과학의 발전과, 무한경쟁을 조장하는 세계화는 창조질서와 인류공동체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창주가 하나님의 은총임을 믿으며, 현재와 미래 세대가 평등한 혜택을 누리도록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을 포기하고 새 천년을 위한 생명의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셨기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그러므로 인간이 자연을 임의로 다룰 수 있는 도구로 여기는 것은 잘못이다(창 1:1). 흠으로 빚어진 인간은 피조물 가운데 하나이며 동시에 창조세계의 겸손한 청지기이다. 이 사실이 자연을 착취하고 억압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창 1:28, 2:15).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안식의 법을 주셨다. 즉 안식일에는 모든 사람과 육축이, 안식년에는 땅도 쉬도록 명령하시어, 창조주를 기억하며 태초의 아름다움을 회복할 것을 지시하셨다(출 20:10, 레 25:5).

인간은 아담에게서 유래하는 탐욕과 교만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하나님과 자연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죽음으로 치닫게 되었다(창 3:17, 4:8-12, 6:5-7, 19:24-25).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는 자는 땅에서 배불리 먹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황폐해진 땅에서 쫓아냄으로써, 땅을 안식하게 하여 땅을 회복시키실 것임을 경고하신다(레 26:3-35). 선지자들은 인간의 죄악으로 땅이 황폐해짐을 안

타까워하며 회개를 촉구하였으나 사람들은 선지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렘12:4, 호4:1-3, 욥1:13-20).

하나님께서 인간과 우주 만물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이 땅에 보내주셨으나 사람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요3:16, 마21:33-44).

만물보다 먼저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만물이 화목케 되었다(골1:15-20). 그러나 피조물은 여전히 신음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롬 8:18-25). 주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지 못한다고 하시며, 먹고 입을 것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명하신다(마 6:24-33).

환경오염으로 고통당하는 피조물은 강도 만나 죽어가는 이 시대의 새로운 이웃이므로 내 몸 같이 사랑해야 한다(눅10:25-37).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육신을 좇지 않고 매일 좁은 문으로 들어감으로 생명과 평화를 위해 살아야 한다(롬8:5-6, 마7:13-14).

하나님께서서는 오늘날 신음하는 피조물을 불쌍히 여기시며 인류를 회개의 막다른 길로 몰아가고 계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고후 5:17)이 된 우리는 이웃하는 모든 것들과의 평화를 위해, 인간중심적이고 물질주의적인 삶을 버리고 헌신적이며 영적인 삶을 살아야만 한다. 고통 받고 있는 오늘의 자연을 생태적 감수성을 가지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자연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한다. 소비지향적 삶의 양식을 거부하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명 공간인 지구를 보호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창조적 삶을 창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야 할 가장 큰 책임을 진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지켜나가야 바를 다음과 같이 선포하는 바이다.

우리의 다짐

첫째, 우리는 작은 들꽃에서 하늘의 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창

조능력과 변함없는 사랑을 느끼는 감수성과 영성을 계발하여 기쁨에 넘치는 삶을 산다.

둘째, 우리는 유행을 따르지 않고, 헛 옷, 헛 가구, 환경상품 등을 애용하며, 작은 집, 작은 차, 단순한 삶을 자랑하는 건전한 소비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선다.

셋째, 우리는 에너지와 물 부족의 시대를 직시하며, 현대의 편리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추구하기 보다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사용과 물 절약과 수질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넷째, 우리는 오병이어로 공평히 나누시고 남은 것도 모으신 예수님을 본받아, 간소한 식탁에 감사하며 굶주리는 형제와 나누기를 힘쓴다.

다섯째, 우리는 '쓰레기 강산'을 금수강산으로 회복하기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를 감시, 고발하며, 주위의 버려진 쓰레기를 줍고, 필요시 행정당국에 신고하여 처리토록 한다.

여섯째, 교회는 환경파괴가 인간의 죄임을 고백하고, 창조보전을 위한 기도, 설교, 교육을 실시하며, 녹색공간을 만들어 지역사회에 제공하며, 환경파괴를 감시하는 역할을 감당한다.

일곱째, 교회는 생태계를 교란하는 유전자조작, 생명경시를 유발하는 생명과학을 견제하며, 특히 어떠한 형태의 인간복제도 반대한다. 과학자들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해하는 무분별한 연구를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

여덟째, 교회는 기독교인이 이 땅에서의 삶에 집착하지 않으며, 묘지 확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막기 위하여 장묘문화를 바꾸는 데 앞장선다.

아홉째, 교회는 농촌과 도시교회가 협력하여 유기농법을 확산하여 땅을 살리는 데 앞장서며, 생활협동운동으로 상업주의를 극복하며 생명공동체를 형성한다.

열째, 정부가 급속한 세계화로 인한 빈부 격차의 심화, 국내 농업기반의 파괴,

물질적 가치관의 범람 등의 문제를 중시하고 천년대계의 국가발전 원칙을 세우도록 한다.

열한째, 정부가 새만금 간척사업, 전국토의 난개발, 지리산 식수댐건설, 지방자치체의 무분별한 개발, 골프장 건설의 조장 등 국토생태계 파괴를 중단하고 미래 세대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열두째, 정부가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북한의 황폐화된 산림 복원, 경제파탄에 의한 환경파괴의 방지, 자연재해의 방지, 생태계의 보호 등을 북한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을 촉구한다.

2000년 6월 4일 제 17회 환경주일에

한국 생명학 연구원 취지문

1. 왜 生命學을 論議하는가?

인류 역사상 생명이 전멸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 1) 인간은 역사상 최초로 고도의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지구의 생명계를 공멸시킬 핵전쟁을 가능하게 한 핵폭탄을 만들었고 이를 실전배치하고 있다.
- 2) 인간은 유전자공학과 같은 생명공학을 발전시켜 생명의 유전자를 통제·조작하여 생명체의 건강과 생명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 3) 인간은 과학기술을 토대로 자연을 정복함으로써 근대산업문명을 발전시켜 생태계의 전면적인 파괴의 위기를 가져왔다.
- 4) 지구화된 정치경제체제 자체가 생명을 전멸시킬 수 있는 무한경쟁과 무한성장의 논리를 내포하고 있으며 시장의 논리에 의하여 전개되고 있는 고도의 과학기술을 통하여 이윤극대화라는 책략이 수행·전개되고 있다.
- 5) 이러한 상황은 인류의 종교적 문화적 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지대하게 미치고 있으며 우주의 생명계에 치명적인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따라서 우주 안에 있는 생명의 존엄성과 생명의 존속, 그리고 생명체의 온전하고 풍만한 相生을 위해서는 생명에 대한 연구와 운동이 새롭고 총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生命學은 어떠한 學問인가?

1) 生命學은 우주에 살아있는 생명전체에 대하여 총합적으로 연구하고 배우는 학문이다.

서구근대 학문체계는 우주적 차원과 분리하여 인간만을 중심으로 생명을 취급하였다. 그러나 생명은 인간의 생명과 우주의 생명으로 분리될 수 없다. 생명은 우주적 차원의 통합적 실체이다. 따라서 生命學은 우주에 살아있는 것에 대한 총합적인 성찰을 비롯하여 인간의 삶과 살림살이에 대한 성찰을 내포한다.

2) 生命學은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한 인문사회과학적인 차원과 자연과학적인 차원을 총합하는 학문이다.

生命學은 인문과학적인 접근을 출발로 사회과학적인 차원, 나아가 자연과학적인 차원을 내포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생명은 역동적이고 相生的이기에 열려있는 성찰의 과정이고 지속적으로 총합적이다. 따라서 모든 파편적임과 축소주의적인 성찰과 배타적인 전문화과정을 지양한다. 生命學은 모든 분야별 성찰과 연구를 단순하게 조합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연관성을 추구한다.

生命學이 총합적 접근을 시도한다 함은 각 전문분야 간의 단순한 연관관계의 형성을 말하지 않는다. 生命學의 역동적이고 열린 틀(Paradigm) 안에서 각 전문분야는 변화를 경험하고 새로운 위치와 관계를 항상 새롭게 설정하고 또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여 나간다. 각 전문분야는 生命學의 출발점과 초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전문분야 안에서는 완결구조를 가질 수 없고 항상 다른 분야들과 새롭게 열린 연관성을 형성하여 비로소 완성의 방향을 설정하여 나간다.

3) 生命學의 지평은 항상 새롭게 전개되는 역동적이고 열려있는 지평이다.

生命學은 모든 생명을 파괴하는 세력에 대한 성찰을 포함하고 이를 극복하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데 그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

3. 生命學은 어떤 비전을 追求해 갈 것인가?

1) 生命學은 생명파괴의 세력과 인위적, 자연적 요인에 대한 연구를 추구한다.

생명은 항상 생명을 파괴하는 세력에 의하여 위협을 당해왔다. 生命學은 죽음

의 세력 즉 생명을 파괴하는 세력과 요인 그리고 그 영향에 대한 연구를 한다. 이 시대의 자연재해는 인위적인 차원, 인간에 의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요인이 부가된 것이다. 오존층의 파괴, 대기오염, 지구의 온난화와 해일, 댐의 건설, 산림의 훼손과 홍수 또는 가뭄과 같은 현상이 이를 예시하고 있다.

자연재해는 이제 새롭게 이해되어야 한다. 동시에 자연재해가 역으로 생태계와 인간의 생명을 위한 사회경제와 문화에 주는 영향을 또한 연구해야 한다. 생명과 파괴의 인위적 요인을 인간의 정치경제에서 분석하여야 한다. 적자생존을 위한 종족과 국가간의 전쟁, 자연정복으로서의 과학과 기술, 빈곤과 기아를 극복하기 위한 산업발전과 경제성장, 빈부의 격차에 따른 착취와 기아, 기아와 빈곤으로 인한 각종질병, 계급투쟁을 비롯한 갈등과 모순에 낚인 폭력, 문화적 종교적 차별과 갈등으로 인한 폭력과 억압, 문화적 정체성의 파괴, 지정학적 폭력 등 각양각색의 요인들이 죽음의 세력, 생명파괴의 세력에 개입하고 있다. 生命學은 이런 요인들이 대하여 종합적인 연구를 한다.

2) 生命學은 인문학의 풍요로움에 열린 종합성을 추구한다.

모든 종교나 철학은 생명학적인 기반이 되고 있다. 모든 종교와 철학은 각기 다양한 접근으로 죽음을 극복하고 최상의 생명의 경지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적 문명은 생명의 종교적 철학적 차원을 무시하고 부정적으로 취급하여 왔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시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모든 예술분야에서도 生命學의 꽃을 종합적으로 이루어야 한다. 생명은 단순히 물리적이거나 생물학적이거나 심지어는 사회과학적인 차원에서만 성찰될 수 없다. 생명은 심미적 정신적 종교적 차원에서 그 꽃이 피어야 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3) 生命學은 생명과정과 생명운동의 역사적 전개에 대한 추구를 중요시한다.

生命學은 생명역사를 우주사, 문명사, 민족사의 연관 속에서 이해한다. 그리고 현대적 시간의 개념을 극복하고 생명 고유의 시간을 회복한다. 이것은 생명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종합적으로 연관하는 개념이다. 성경의 카이로스의 개념이 하나의 열쇠가 될 것이다.

4) 生命學은 지정학적 접근을 중요시한다(Globalization).

생명은 지정학적인 자리를 가지게 된다. 生命學은 우주의 변화, 사회의 변동에 따른 지정학적인 생명의 조건을 규명한다. 봉건시대, 근대국가시대(전쟁과 평화), 우주지구시대(위성시대)의 지정학이 총합적으로 연관되어야 한다. 生命學에서 생명의 지역적 천착성과 우주적 맥락을 연계하는 학문적 연구가 요청되기 때문이다.

5) 生命學은 macro-micro 우주학을 총합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생명의 자리는 우주다. 미시적-거시적 맥락이 총합적 연관성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우주는 생명의 총체적인 자리이기 때문이다. 태양과 분자는 생명에 있어서 양극적인 지정학적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동시에 태양은 종교적 뿌리를 생명공동체에 주고 심오한 종교적 가치인 사랑은 인간의 생명을 지탱하는 혼과 같은 것이다. 우주는 생명의 子宮이며 동시에 사랑의 거처라는 표현은 생명의 우주론적인 차원을 명시하여 준다.

6) 生命學은 각 분야의 총합적 직조망(Matrix)을 중요시한다.

生命學은 인간사회 중심적인 사회구조론을 극복하고, 열리고 역동적인 직조망(matrix, network or webwork)의 새로운 틀 안에서 각 분야별 문제별 부문별 관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총합적 직조망을 형성하기 위하여 전문분야를 출발점과 초점으로 삼아야 한다. 지금까지의 학문 분야별 배타주의, 고립주의, 축소주의를 극복하고 생명이라는 역동적이고 열린 실체에 교향악적인 접근이 요청된다.

불교환경연대 창립선언문

"환경보살의 길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오늘 환경보살의 원력을 모아 청정불국토 건설의 길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큰 스승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유정 무정 온갖 것의 생명의 기쁨과 관계의 조화로움을 설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분의 가르침을 따르고 실현하는 일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불제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애초부터 고통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맑디맑은 우리의 심성을 찾지 못하고 심술궂음과 어리석음으로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소유와 소비에서 행복을 찾으려 한 물신의 노예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관계의 조화로움보다는 경쟁에서의 승리를 삶의 가장 큰 가치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만이 아닙니다.

산은 동강나고 강은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죽음의 터가 되어버렸습니다. 물신주의의 노예가 된 인간중생들이 제일인 양 불성의 종자를 지닌 미물의 삶터마저도 파헤친 결과입니다.

어제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도 산은 파헤쳐지고 강물은 썩어가고 있습니다. 자연은 정복의 대상이며, 인간을 위해서는 죽음으로 내몰아도 된다는 폭력적인 사고를 현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땅과 자연을 벗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부처님이 계실 자리

는 없습니다. 미물까지도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지 못하고서는, 돌 하나 놓인 자리의 의미를 존중하지 않고서는 보살의 향훈은 피어오르지 못합니다.

생명살림의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만일 보살이 청정한 국토를 얻으려거든 마땅히 그 마음을 청정하게 가져야 한다. 그 마음이 깨끗하면 불국토가 깨끗하여진다"고, 일찍이 자비로우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서는 생명살림의 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불제자임을 자랑으로 삼는 우리는 마땅히 환경보살이어야 합니다.

환경보살이 아니 되고서는 삶을 맑히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맑히지 않고서는 보살의 실체는 없습니다. 내가 보살이 되지 않고서는 불국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불교환경연대의 출범은 참회와 환경보살이 되겠다는 서원에 다름 아닙니다.

인간중생이 제일인 줄 알고 못생명을 업신여겼음을 참회합니다.

산하대지가 온전치 못하고도 우리는 잘 살 줄 알았던 어리석음을 참회합니다.

이제 동체대비의 큰 가르침을 우리의 좌표로 삼아 먼저 내 마음을 맑히고, 국토를 청정하게 장엄하는 보살의 길로 나아갑니다.

환경과 생명을 살리는 보살의 서원을 굳게 세웠으니, 삼가 시방삼세 부처님과 보살 성문 스님들께서는 저희들이 내딛는 걸음걸음 살피소서.

나무 마하반야바라밀.

2001. 9.

불교환경연대

농업희생연대운동 제안문 (초안)

정부의 쌀농사 포기 정책 때문에 농업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개발과 성장 중심의 경제논리가 판을 치는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 출범과 김대중 정부의 잘못된 농업정책은 농민들로 하여금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쌀값 폭락으로 1조원이 넘는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3-4년 내에 관세도 내리고 개방도 해야 한다는 WTO 각료회의 결정에 맞춰 신 농업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농림부장관은 “2004년 쌀의 추가개방이 불가피하다”거나, “국내외 가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국내 쌀값이 지금보다 75% 더 내려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2003년과 2004년 정부 수매가를 크게 내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전체 농가의 77.9%에 달하는 쌀 생산 농가의 소득 저하는 우리 농산물과 농업 전반에 대한 치명적인 연쇄 파급효과를 일으킬 것이고 급기야 우리 농업은 회생불능의 상태로 빠져들 것이 분명합니다.

쌀농사가 무너지면 농촌이 붕괴되고 우리의 건강과 생명도 함께 무너집니다.

대기업과 제조업 중심의 국제교역을 위해서는 쌀과 농업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다고 보는 정부의 정책은 농민을 죽이고 농촌을 파탄시키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세계 곡물 수출량의 약 50%를 차지하는 미국과 세계 곡물시장의 약 80%를 독점 지배하는 카길 등의 소수 곡물 다국적기업과 몬산토 등 농화학·종자 다국적기업에 자신의 생명줄을 맡겨 놓아야 한다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나아가 인간의 건강에 어떤 영향이 미칠 지에 대해 검증된 바 없는

유전자조작농산물(GMO)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면서, 이 땅의 소비자들은 누가 어디서 어떻게 생산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수입 농산물의 홍수에 휩싸여,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구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내 고장의 먹거리를 통해서 건강한 생명을 돌보아온 조상들의 ‘신토불이’라는 지혜도 책에서나 찾을 수 있는 옛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게다가 쌀농사와 농업의 붕괴는 우리의 환경과 생태계까지 위협합니다.

쌀 농사와 농업은 ‘식량 주권’과 ‘안전한 농산물’의 공급만으로 우리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논은 춘천담의 15배 정도에 해당하는 홍수조절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지하수 담수기능, 대기정화기능, 수질정화기능, 폐기물처리기능, 토양유실경감기능 등 연간 약 20조원 이상의 비경제적 가치를 생산합니다. 또한 농업은 지역사회의 유지, 자연환경의 유지, 자연경관의 제공 등 여러 가지로 사회의 건강에 기여합니다. 따라서 이 땅의 농민들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이것은 생물다양성의 위기로 이어져 생태계의 파괴를 동반할 것입니다.

‘보상지불제’ 확대실시로 농업을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안정시켜야 합니다.

지금 정부와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쌀농사와 농업을 국제경쟁력을 상실한 사양산업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농업구조 조정을 통한 전체 농업규모의 축소와 기업농 체제로의 재편을 농업에 대한 기본정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말이 좋아 기업농이지, 외국의 대규모 기계농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농민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농업포기정책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식량주권과 식품 안전성, 깨끗한 환경(건강한 생태계)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어찌 이대로 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대안은, 적정규모를 유지하면서 농업을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 기간산업을 담당하는 농민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해야 합니다. 농산물에 대한 직접적 대가 외에도 농업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농민들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농가소득에서 직접 지불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미국 51%, 유럽연합 77%, 스위스 80% 등인 사례에서

보듯이, 이미 선진국에서는 다양하고 충분한 만큼의 보상지불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는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업에 대한 보상지불제는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실시되면 농산물 가격을 내리면서도 농민들은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값싼 수입 농산물과 가격 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어, 국민들은 이 땅에서 생산되는 안전하고 질 좋은 농산물을 값싸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농업 기획자로서의 지역농협을 건설해야 합니다.

지난 99년 김대중 정부에 의해 협동조합 개혁이 주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농협이 ‘협동적 소유와 민주적 경영을 통해 농민의 경제적 권익과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는 농민들의 자발적인 결사체’라고 생각하는 농민은 극소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동조합 개혁이라는 화두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최근 금융연구원의 연구보고가 중간 발표되는 등 그 동안 협동조합 개혁의 핵심 사안으로 제기되어 왔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한다. 더불어 협동조합개혁의 중요한 과제는 종래에 진행되었던 소극적인 유통중심의 조직화에서 지역 농민들의 참여와 운영을 통해 지역의 생산과 유통을 실질적으로 조직하는 지역농업의 기획자로서 지역농협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질적인 협동조합의 개혁으로부터 농업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농민의 조직적 힘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농민 여러분, 친환경농업으로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인 농촌과 농업을 지킵시다.

쌀 재협상에서 밀려 2004년을 맞으면 쌀은 개방되고 수입량은 급격히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의 쌀 농사포기정책과 대책 없는 농산물 수입개방에 반대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쌀과 농산물 자체를 좀 더 경쟁력 있는 차별화 된 상품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화학비료와 농약에 의존하는 기존의 쌀농사 중심만으로는 수입쌀, 수입 농산물과의 경쟁은 어렵습니다. 점차 친환경농업을 확대하여 안전한 쌀과 농산물을 우리 소비자들에게 제공합시다. 가족농

중심의 소농이 대부분인 우리 농촌에서 친환경농업은 경쟁력 있는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식품안전성과 환경 보호라는 사회적 기여에 대한 대가(보상지불제)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이기도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친환경농업으로의 대대적인 전환을 결단할 때입니다. 물론 친환경농업은 힘이 듭니다. 그러나 힘들더라도 해야만 하고, 그럴 경우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한 여러분의 노력을 국민들이 인정하고 지지할 것입니다. 더구나 정부가 나서서 친환경농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정책을 적극 펼치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조건에서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지난 광우병 파동 때 농업담당 장관이 독일 농업을 소규모 유기농들을 중심으로 재편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WTO 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농업의 장기전략을 새롭게 선언해야 합니다. “쌀 농사를 축소 또는 포기하는 대신 농외소득을 증대시킨다”가 아니라 “친환경농업을 전면적으로 육성하여 점차 한국 농업의 중심으로 삼는다”는 선언을 하도록 정부에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의 실현을 위한 단계적인 프로그램 마련과 관련법과 제도의 정비를 요구합니다. 정부의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한편으로 기존의 농사법을 점차적으로 친환경농법으로 바꾸어 갑시다. 우리 농민의 슬기로운 선택이 한국농업의 미래, 나아가서는 전체 국민들의 삶의 방식과 생활문화를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노동자 여러분, 농민들의 문제는 바로 우리 노동자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노동자라고 해서 싸다는 이유만으로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 수입 농산물을 먹어야 하겠습니까? 보상지불제 확대실시로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하는 대신 적정가격의 안전하고 질 좋은 쌀 등 친환경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희망하는 평등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쌀농사와 농업을 지키는데 있어 우리 노동자들이 농민들과 함께 나서야 하는 보다 직접적이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쌀농사 기반이 무너지고 연쇄적으로 다른 농업기반이 무너지면 농민들은 과연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 도시의 빈민이나 비숙련 노동자가 될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실업문제와 함께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들의 임금하락을 불러올 것입니다. 전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자들과 노동단체들은 적극적으로 농

업과 농민들의 문제에 나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소비자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해 일어섭시다.

광우병과 구제역, 다이옥신 돼지고기, 유전자조작농산물 등으로 인해 수입식품의 안전성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지 오래입니다. 비위생적일 뿐만 아니라 불균형한 영양분을 제공해주는 각종 패스트푸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안전한 먹을거리를 원하고 있지만, 지금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친환경농산물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적절한 가격으로 모든 사람이 친환경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상지불제 및 친환경농업육성 정책의 대폭적인 확대실시를 요구합니다. 1차 산업에 의해 생산된 농산물뿐만 아니라 가공품의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도 실시하는 등 친환경농산물 검증과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도록 요구합니다.

학부모 교사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와 학생들이 안전하고 싱싱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유아부터 대학생에 이르는 모든 교육기관의 급식 재료로 내 고장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급식조례제정운동에 나섭시다.

환경단체 회원 여러분, 농촌과 농업을 살려 우리 생태계를 살립니다. 쌀농사와 농업의 환경적 기여와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보상지불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정부의 반환경적인 농업 포기정책도 바꾸나갑시다.

생활협동조합의 회원 여러분, 농산물의 직거래를 더욱 확대해 갑시다. 다양한 직거래를 통해 소비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영양가 높은 먹을거리를 공평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도시와 농촌을 연결해 갑시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서로 신뢰하며 돕고 사는 새로운 생활문화를 만들어 갑시다.

종교인 여러분, 여러분의 농사형제가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종교인들은 종교와 종파를 가리지 않고 어려움에 빠진 이 땅의 농민들과 국민들, 환경을 살리는 이 운동에 나서리라 믿습니다.

대안 문명과 공동체 운동에 나선 여러분, 여러분의 실천 범위를 넓히는 일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비록 여러분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비해 미흡할지 모르지만 우리 농촌을 환경친화적인 소농들의 협업 공동체로 바꾸어 가는 데 필요한 조건들을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있는 곳에서 이상적인 모범을 만들어 가는 것 못지않게 느리고 힘들지만 전체 사회를 우리 민중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어 가는 일도 중요합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부터 ‘쌀농사와 농촌 살리기 주민운동’을 시작합시다. 오는 6월이면 지방자치 선거가 있습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 후보가 이 운동의 대의에 따르고 실천하도록 여러분 자신이 있는 곳에서 앞장서서 이 운동을 조직합시다.

이상의 취지에 공감하는 전국의 모든 농민단체, 노동단체, 소비자단체, 교사와 학부모단체, 환경단체, 종교단체, 대안공동체, 정치단체 등에 제안합니다. 중앙단위는 중앙단위대로 지역단위는 지역별로 쌀농사와 농업을 살리기 위한 농업회생연대를 조직합시다. 이를 중심으로 차이가 있는 부분은 서로 존중하고, 뜻이 같은 부분은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실천합시다.

국민 여러분, 우리의 건강, 생명 그리고 환경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농업과 농촌은 농민들의 삶의 터전만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의 토대입니다. 지금 이 토대의 뿌리인 쌀농사와 농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 생명, 환경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함께 나서서 바로 세웁시다. 농업회생연대와 함께 행동합시다. 서명운동, 집회,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합시다. 그리하여 개발과 성장 중심의 경제논리에서 벗어나 우리 삶의 유일한 토대인 땅과 생태계를 회복하고 사람과 사람,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새로운 대안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노동이 제대로 결실을 맺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2002. 03. 14.

우리쌀 지키기 100인 100일 걷기운동 제안문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쌀 지키기 100인 100일 걷기운동'을 제안합니다. 농약과 화학비료, 제초제, 비닐 등으로 우리 농토는 오염되고 농가 빚은 쌓여가고, 식량자급도는 최악(25% 이하)으로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4월 18일 쌀 공급과잉과 WTO 재협상에 대비한다는 '쌀산업종합대책'을 통해 쌀의 재배면적을 2005년까지 12% 감축시키고, 국내외 쌀 가격차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부분적인 논농업직불제 확대와 양곡거래소 설립, 공공비축제 도입 등만으로는 수입쌀의 홍수 속에서 무너져 갈 우리 쌀농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현재 논농사 0.1ha 이상인 농가에 ha당 50만원씩 지급되는 논농업직불제 보조금을 내년부터는 논농사 면적이 0.5ha 이하인 소농(전체 농가의 43%)들에게는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대신 우수 전업농이 경영위기에 처하면 회생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우리 농업의 중추인 영세소농을 농촌에서 몰아내고 소수의 기업농들 중심으로 농촌과 농업을 재편하기 위해 이들에게만 혜택을 몰아주는 것이 농업정책의 기본방향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 기업농이 수입쌀과 경쟁하면서 친환경농업 등으로 우리쌀을 지키는 데 앞장서기보다 이윤이 남는 다른 작물로 쉽게 바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농촌에서 어떤 농업형태가 개방체제에서 더 경쟁력이 있는지 살펴보기도 전에 일정한 규모의 경영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이런 불공정한 정책은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가칭)농업회생연대 제안문에서 정부가 쌀농사를 적정규모를 유지해야 할 국가 기간산업으로 인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농업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즉, 식량주권과 식품안전성, 환경보전

의 측면에서 쌀농사가 기여하는 바를 정당하게 보상하는 보상지불제의 대폭 확대와 친환경농업의 전면적인 육성, 농협개혁 등이 긴요한 정책적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우리 정농회는 지난 27년간 농약과 화학비료와 제초제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농사를 지으면서 우리의 쌀이 우리의 주식이며 주권이고, 우리의 문화인 동시에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쌀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우리쌀 지키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농업회생연대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첫 사업으로 우리 정농회가 주관하고 농업회생연대(준비모임)가 주최하는 '우리쌀 지키기 100일 100인 걷기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부 농업정책의 근본적 전환과 아이들의 학교 급식에서 국내산 또는 친환경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급식조례제정 등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이 운동을 위해, 필요하다면 우리쌀 지키기 특별위원회는 안식년까지 선포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쌀과 농촌과 자연을 사랑하는 모든 개인과 단체들에게 호소합니다. 우리쌀 지키기 100일 100인 걷기운동에 함께합시다. 행사기획안(뒤에 첨부)을 참고하셔서 6월 25일과 10월 5일 사이에 함께 걷거나, 이 운동을 후원해주거나, 기획 및 자문을 해주거나, 실무지원을 해주는 등 참여하거나 힘을 보태줄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알려주십시오. 최종 확정된 일정과 계획은 결정되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 걷기운동을 대대적으로 조직하여 농업을 "몇 표 안 되는 농민들의 문제" 정도로 소홀하게 다루는 정치인들에게 이것이 전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달린 중대사임을 깨닫게 합시다. 정부와 정치가, 언론을 움직이는 것은 위대한 국민들의 힘뿐입니다.

- 학교 급식은 친환경농산물로!
- 보상지불제 대폭확대 실시하라!
- 쌀농사 포기는 식량주권 포기!

2002년 4월

정경식 (정농회 우리쌀 지키기 특별위원장)

새만금 삼보일배를 떠나며

새만금 갯벌과 온 세상의 생명, 평화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새만금 갯벌에서 서울까지 三步一拜를 떠나며

지금 이 순간, 이 나라와 온 세상은 가장 추악하고 야만적인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부끄럽고 마음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전쟁과 죽음, 폭력과 파괴, 두려움과 고통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저마다의 존재가 지닌 존엄성과 고귀함, 공존과 관용의 가치는 설자리가 없습니다. 잔인한 힘이 작고 힘없는 약자들을 향해 무차별로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바로 이런 상황을 만든 공범자임을 뼈아프게 고백합니다. 끊임없이 벌어지는 크고 작은 폭력과 파괴의 범죄자는 바로, 그칠 줄 모르는 우리의 이기심과 탐욕입니다. 내 것이 아니면 바로 외면하는 무관심과 냉정함입니다. 자본과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린 우리의 생활입니다.

우리는 우리 종교인들 자신을 비롯한 만민에게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진정으로 참회하고 고난을 두려워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그 누구보다 앞서서 생명과 평화에 대한 깊은 믿음을 간직하고 이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절망의 시간에도 희망을, 죽음의 현장에 생명을, 그리고 폭력이라는 무기를 평화로 녹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기도와 실천을 행해야 합니다.

여기 새만금 갯벌에서도 십 년이 넘게 소리 없는 파괴와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인간의 그릇된 허상과 탐욕이 빚고 있는 거대한 전쟁터입니다. 무기를 동원하고 충성이 울려야만 전쟁은 아닙니다. 우리는 새만금 갯벌의

허덕이는 숨소리에서 이라크 어린아이들의 비명소리를 듣습니다. 저 무고한 갯벌의 고통과 죽음으로 눈앞의 이익을 채우려는 우리의 차가운 가슴이 바로 이라크의 죄 없는 시민들을 희생하여 소위 국익을 챙기겠다는 수치스러운 행위와 맞닿아있음을 직시합니다.

이 어려운 때, 문규현 신부와 수경 스님, 기독교와 원불교 성직자들은 이곳 새만금 갯벌에서 서울까지 삼보일배의 길을 나섭니다. 장장 300여km, 1200여 리의 기나긴 여정을 그 어느 때에 비할 수 없는 간절함과 비장함으로 떠납니다. 우리의 이 길은 고되고 혹독할 것입니다. 어쩌면 목숨을 거는 일이기조차 합니다. 그러나 오체투지, 우리의 온 몸과 온 마음을 던져 새만금 갯벌을 살리고 온 세상의 속죄를 촉구하며 생명과 평화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기도와 고행을 통하여 생명과 평화를 위하여 행동하는 모든 이들과 뜻과 마음으로 하나 되하고자 합니다. 작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소중함을, 실천의 단순함과 굽힐 수 없는 신념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노무현 정부에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농지조성 목적을 상실한 새만금 간척을 즉시 중단하고 대안을 모색하십시오. 노무현 대통령은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새만금 간척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갯벌을 다 죽이는 방조제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대안을 찾는 일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낡은 가치관과 명분 잃은 논리에 집착하는 노무현 대통령이 진정으로 마음을 돌리기를 염원합니다. 21세기에 걸 맞는 미래지향적 친환경 대통령이 되어주기를 거듭 거듭 촉구합니다.

우리는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가 새만금 간척사업에서 깨끗이 물러설 것을 요구합니다. 지난 3월 14일 농림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새만금 간척을 통해 농지조성은 포기하더라도 자신들이 주체가 되어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동시에 쌀 재배면적을 축소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소위 식량안보와 우량농지 확보를 위해 새만금 간척을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하던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가 그렇게 한 순간에 자기 말을 뒤엎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참으로 탄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직이기주의에 찌들고 한낱 건설업자요 땅 투기꾼으로 변해버린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에게 우리는 분명하게 요구합니다. 명분과 논리, 도

덕성을 상실한 새만금 간척사업을 즉각 포기하십시오.

우리의 무기라면 그저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고행할 수 있는 맨 몸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과 그 몸을 다 바쳐 생명의 소중함과 평화의 아름다움에 대해 계속해서 말할 것입니다. 길 위에 쓰러지고 더 이상은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온다 해도, 새만금 갯벌을 살리고 온 세상의 생명·평화를 구하는 우리의 여정은 계속 될 것입니다.

2003년 3월 28일

새만금 갯벌과 온 세상의 생명·평화를 간절히 염원하며
새만금 갯벌에서 서울까지 삼보일배 참가 종교인 일동

세계생명문화포럼 2003 선언문

세계생명문화포럼 2003이 경기도 수원에서 12월 18일부터 21일까지 열렸다. 경기문화재단과 생명문화원의 주최로 세계 17개국 출신의 학자, 예술가, 저널리스트, 사회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였다.

8백여명의 참가자들은 개개 인간의 삶이 소중하게 여겨지며, 생명을 지속하게 하는 인간의 활동과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하는 생명문화의 원칙을 따랐다.

이 포럼은 생태계의 파괴와 지역사회의 소외 그리고 다양한 문화와 생태계의 파괴가 전 지구적인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에 대한 깊은 우려와 인간의 영성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되었다. 우리는 우리의 사유를 교환할 수 있으며 생명문화를 포괄하는 새로운 방향들을 제시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희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다.

1. 참가자들은 생명문화라는 원리와 전체마당에서 도출된 내용들에 기반하여 다음을 선언한다.

1) 참가자들은 생명문화포럼 2003이 생명과 아울러 문화가 처한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는 계기를 마련하며, 나아가 현대 사회에서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새로운 시도를 마련하고자 함이라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

2) 생명문화라는 개념은 작은 공동체들의 활력을 찾는 것과 아울러, 자연의 원리와 일치하는 문화와 사회를 부양시키는 것에 대한 강조를 가장 우선으로 하여

우주적 삶을 위해 요청되는 바 자연 생태계와 인간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관심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

3) 인간은 경제의 세계화가 긍정적/부정적인 면에서 인간과 생태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어떤 점에서는 혜택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국가들의 생명문화에 큰 폐해를 야기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4) 인간을 넘어선 세계(다른 생명 존재)에 관해서, 우리의 삶이 다른 생명 존재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우리의 철학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행동도 중요하다. 모든 문화와 전통은 반드시 자신의 관행과 전통을 주의 깊게 비판적으로 검토해서, 인간을 제외한 생명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바꾸어야 한다. 만일 이러한 영향이 어떠한 것인지를 모르고 있다면, 이제 그 영향을 우리 자신이 깨닫고, 그에 따른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 곧 우리의 의무이다. 인간을 제외한 종들은 고유한 권리와 영토를 가지고 있는 “주권국가”처럼 인정되어야 한다. 우리는 인간 국가들뿐만 아니라, 이 “주권국가”들과 평화적인 공존과 상호존중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5) 생명문화라는 개념은 아시아의 철학과 사상을 기반으로 성립됨으로써, “새로운 아시아의 르네상스”를 이루고자 한다. 물론 이것은 이 지구상의 모든 대륙의 생명 우주 사상을 포함한다.

6) 사람들은 개발도상국의 생명문화를 손상시키는 현재의 경제적 지구화가 인간과 환경에 심각한 결과를 야기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7) 우리는 세계적인 생명문화 실천과 평화적 “문화 혁명”을 새로이 창조해나가야 한다.

8) 우리는 “살림”(생명문화)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고 심오한 윤리학, 철학, 역사학과 예술 그리고 미학을 창조해야 한다.

9) 우리는 이러한 원리에 부합하는 변화를 낳기 위한 정치적 행동에 착수해야 한다.

2. 이 포럼은 5개의 주제마당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주제마당들은 생명문화로 포괄되는 특유한 사유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아래의 선언문들은 각각의 마당으로부터 도출된다.

1) 주제마당 I : 생태주의와 생명문화

현대 과학과 기술의 문제점을 토론하고, 현대 환경사상을 함께 포괄하면서 아시아에 고유한 창조적인 생명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토론이 이루어졌고, “생명학”이란 학문분야를 제안했다.

2) 주제마당 II : 생명의 문화적 통로

참석자들은 특히 비폭력 운동이나 생태적 의식 그리고 창조적인 실천들의 등장과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서구 세계에 끼친 동양 문화의 영향을 탐구하였다. 또한 예술적 실천과 개인윤리를 보다 큰 맥락의 사회운동들 안에 위치지우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3) 주제마당 III : 공생의 삶과 생명의 경제

모든 경제시스템들은 모든 개인과 공동체의 번영과 삶의 질을 생성시키고 지속시키고 지속시키는 생명문화를 강화한다. 또한 환경을 보존해야 하며, 에너지효율성과 재생가능 한 에너지 및 물질을 촉진시키고, 자원을 보존해야 한다고 했다.

4) 주제마당 IV : 동아시아의 역사와 상생

이 소주제 마당의 참가자들은 상생이라는 모델을 동아시아와 그 이외 지역의 역사와 실천적 전통으로부터 탐구했다. 그들은 그러한 공존의 구조가 미래와 인간과 생명이 중심이어야 한다고 확신했다.

5) 특별 주제마당 : 생명문화와 지역발전 계획

특별 주제마당은 급격한 지역개발로 인해 야기되는 위협들에 관한 논의에 초점

이 맞추어져 있다. 급격한 개발은 환경과 사회기반구조, 그리고 사회적 삶을 폐쇄시키고 파편화시켰다. 이러한 위협들은 개인들뿐만 아니라 지자체나 비정부기구, 기업체 그리고 시민단체들을 포괄하는 지역의 모든 세력들의 개입을 최대화 시키는 방식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가자들은 지방자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적합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공동체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지역민들의 미래를 형성해나가야 한다고 선언했다.

3.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이 앞으로 취해야 할 행동들을 추천하였다.

- 1) “고대의 동아시아 문예부흥”을 창조하기 위해 세계의 지식인들과 “살림”(생명문화)운동가들을 모은다.
- 2) “살림”(생명문화)의 새로운 시대를 창조하기 위하여 세계 속에서 생명문화를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간다.
- 3) 윤리와 철학, 신과학과 미학을 포함한 문화혁명을 위한 새로운 사상들을 창조한다.
- 4) 인간을 포함한 모든 물질과 모든 생명 개체는 공동 주체성을 공유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한다.
- 5) '세계생명문화포럼' 네트워크를 확대시킨다.
- 6) 생명문화를 진전시키는 지구적 협력을 고양시킨다.
- 7) '세계생명문화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2003. 12. 20.

나에게서, 너에게서 생명을 본다

생협수도권연합회 정체성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1. 새로운 생협운동을 위하여

1) ‘정체성’ 논의의 의미에 대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6개월여 간의 긴 여정을 거치며 우리 생협운동의 정체성과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변화하는 생협의 모습과, 그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 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1) 몇 가지 장면들

장면 1.

모 학회의 토론회에서 생협에서 ‘사업’과 ‘운동’이 분화하고 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토론자로 나온 모 생협의 상근 조합원 활동가 한분으로부터, 상황에 대한 분석은 정확하다, 그러나 사업의 어려운 처지를 이제 겨우 벗어난 지금의 생협에 대해 옛날로 회귀하자는 의미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 사업은 사업대로 운동은 운동대로 각자의 위치와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며 발전해야 한다, 운동의 활발한 전개를 통해 사업의 부족한 점을 충족시켜야 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분화’를 ‘특화’로, 다시 나아가 특화된 부분들 사이의 ‘보완적 관계’를 제시한 말씀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장면 2.

어느 날 생활재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같은 해역에서 우리나라 선박이 어획하였기에 국내산이라고 표기해왔던 명태, 명란젓 등이, 쿼터제로 인해 러시아 선박이 어획한 것을 수입할 수밖에 없게 되면서, 이제는 수입산-러시아산으로 표기해야만 하는 상황에 대해, 생협에서의 수입은 자기정체성의 상실로 이어진다는 관점과, 조합원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어쩔 수 없는 수입의 경우 안전성을 담보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관점 사이에서 많은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결론은 ‘취급’으로 결정되었습니다만, 전자의 관점을 주장하신 위원님들은 ‘조합원 필요’라는 어쩔 수 없는 대의 앞에, 후자의 관점을 주장하신 위원님들은 ‘정체성이 상실되어가는 생협’의 아쉬움을 남긴 채 쓸쓸히 돌아서야 했습니다.

장면 3.

하루는 조합원 회의와 직원회의를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서 연달아 참석했습니다. 조합원 회의에서는 생협운동의 사회적 의미, 가치, 헌신, 참여 ... 등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직원회의에서는 생협 사업의 경제적 분석, 과제, 의무 ... 등에 대해 또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루 온종일 회의에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하며, 오전에 했던 많은 이야기와 오후에 했던 또 많은 이야기가, 똑같은 생협을 두고 하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어찌면 그렇게 다른 세계인지, 스스로가 보아도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그 두 세계가 내안에서 하나로 통일되지 못했습니다.

장면 4.

몇 년 전부터 우리 생협에서는 공동체를 찾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공동체를 생협운동의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회원생협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회원생협에서 공동체는 없어지고 개인공급과 점포가 이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 대해, 공동체는 ‘와해’로, 개인공급과 점포의 확대는 어쩔 수 없는 ‘보완책’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장면 5.

또 몇 년 전부터 생협의 조합원 가운데 전업주부의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전면적이거나 부분적으로 여성의 경제인화 경향이 급속히 진전되면서, 생협의 조합원이 갖는 전업주부라는 계층적 동질성이 무너지고 있고, 그에 대응하는 조합원 노동의 유상화(有償化)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 정체성 논의의 의미

위의 몇 가지 장면들은 지금까지는 별로 갈라져 드러나지 않았던 생협의 모습이 차차 내 안에서 갈라져 보이는 여러 모습 가운데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갈라짐을 저의 뒤에서 ‘분화’라는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갈라져 감, 분화에 대해 지금까지 저는 ‘보완’으로 밖에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분화’를 어렵게 이해할 필요도 없고, 아직 분화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생협의 여러분들께 분화를 의식적으로 강요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분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식적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에 대해서는 분화야말로 도태가 아닌 새로운 생협운동의 전기임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아직 분화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은 경우에는 분화를 도태로 바라보지 않고도 우리 모두가 바라는 생협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린코프에서는 ‘생협은 언어다’라고 합니다. 생협의 생활재를 1000원이라는 ‘상품’에서 ‘먹거리’ 본래의 가치로 되찾아가는 의식적 행위인 생협은, 언어를 통해, 언어를 매개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십 년간 그들이 행해왔던 모든 활동은, 이러한 언어를 찾아가는 과정이었다고 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생협의 갈라진 현실을 보완으로 관계하려 해왔던 제 언어로 인해 저 안에서 생협은 간혀 있었고, 스스로에게도 어색하고 씁쓸했습니다. 다시 한번 생협은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언어 속에 담겨진 의미만큼 생협은 나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언어를 찾아가는 일, 그 언어를 통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생협에서의 가치를 찾아가는 일, 그것을 저의 지금 우리가 행하는 정체성 논의의 의미라고 여기고 있습니다.²⁾

2) 여기서 잠깐 ‘언어의 이데올로기’와 ‘반(反)이데올로기로서의 언어’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실체에 대한 이해의 자기표현으로서 ‘언어’를 사용합니다. 또한 거꾸로 ‘언어’를 통해 우리는 실체에 대해 보다 풍부하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언어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2) 지난 20년간 생협운동의 의미

한국사회에서의 생협운동은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소비자협동조합(=소협)이라는 이름으로, 농촌과 도시지역에서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고자 하는 협동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협운동을 지금과 같은 유형의 생협운동의 출발이라 보기에는 어려운 몇 가지 점이 있으며³⁾, 따라서 지금의 생협운동은 1985년 안양에서 시작된

동시에 언어는 스스로가 살아 움직여 우리와 관계하는 생명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협운동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그 안에는 나름의 가치체계가 있을 것이고, 또 그 체계 안으로의 의식화 과정이 따를 것입니다. 이를 우리는 ‘언어의 이데올로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운동은, 한편에서는 ‘언어의 이데올로기’이면서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반이데올로기로서의 언어’입니다. 개별화한 인간들 사이의 ‘경쟁’을 부추기는 자본주의체제에 대항하여 생겨난 모든 협동운동은, 자본주의체제의 ‘경쟁’에 대한 ‘반이데올로기로서의 언어’로서 ‘협동’을 주창하였으며, ‘협동’ 또한 의무와 가치를 동반하는 ‘언어의 이데올로기’인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같은 언어를 ‘언어의 이데올로기’로 바라보느냐, ‘반이데올로기로서의 언어’로 바라보느냐는, 보통은 그 언어로 인해 표현되는 가치의 ‘속’에 내가 있느냐, ‘밖’에 내가 있느냐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생협에서의 언어는 ‘언어의 이데올로기’와 ‘반이데올로기로서의 언어’를 동시에 자각하는, 기존의 이데올로기를 뿌리로부터 뒤흔들지만 그 또한 이데올로기일 수 있음을 자각하면서도 소통 확산시키는 언어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합원이 자기의 목소리를 지니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언어가 표출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 목소리와 언어를 협동의 장으로 엮어내기 위해 전체를 생각하는 생협의 많은 분들이 목소리와 언어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조합원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는 것인 양, 조합원의 다양한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인 양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협에서의 자기표현은 또 다른 자기표현과 부딪힐 수 있으며, 생협의 자기표현은 또 다른 자기표현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싫다고 행하는 말없는 ‘언어’야말로 다양한 자기표현에 대한 보이지 않는 지배입니다.

언어에 여백을 두는 의식적 행위가 행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3) 소협운동과 생협운동은 같으면서 다른, 생협운동이 소협운동으로부터 나왔지만 소협운동과 같이 많은 모습으로 전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소협운동은 ‘소비’의 영역을 최초로 협동운동의 소재로 끌어들이는 운동이었습니다. ‘생산’과 ‘유통’에 의해 지배받아온 ‘소비’를, 변혁운동의 소재로 끌어올린 최초의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생협운동은 소협운동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지만 소협운동과 생협운동은, 우선 그 주체의 면에서 ‘여전히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화한 운동이었으며, 그 운동 소재에 대한 가치를 ‘여전한 교환가치의 회복’ 혹은 ‘협소한 사용가치의 추구’에서 소재의 생태적 의미를 발견한 ‘진정한 사용가치의 추구’로 변화한 운동이었고, 나아가 ‘여전한 계층적 동질성’의 시장 경쟁력 확보에서 생산과 소비를 연결시키는 ‘새로운 관계성의 모색’으로 변화한 운동이었습니다.

이러한 다른 면에도 불구하고 생협운동은 여전히 소협운동으로부터 나왔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소협운동으로부터 ‘소비’의 ‘협동’이 지니는 사회적 의미와 가치를 물려받은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한 운동이 다른 운동으로 변화하는 것, 그것은 이전 운동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이전 운동의 새로운 차원으로서의 ‘확산’이며, 이러한 시각에서 지금까지의 생협운동과 새로운 생협운동 또한 이해되어야 마땅합니다.

바른생협이 그 시작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으로는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인간관계와 자연 생태계의 파괴에 대해, 그리고 밖으로는 밀려오는 저가격 오염 농산물에 대한 자기 방어 운동으로서 1980년대 중반 생협운동이 태동하였습니다.

생협운동은 기존의 사회구조를 밑에서부터 뒤흔드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혁명적인 운동이었습니다. 기존의 사회가 남성인 직장인(=노동자)이 중심이었던 데 반해(기존의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했던 많은 정치운동, 노동운동 또한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생협운동은 생활자(결과적으로는 전업주부인 여성)를 운동의 주체로 전면으로 드러냈습니다. 누구누구 엄마, 주부, 시장경제체제 안에서의 피동적 소비자 등의 3인칭 대명사로밖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그들을, 의식 있는 개인으로서의 고유명사로 역사의 전면으로 부각시켰던 것입니다. 인류가 사회를 구성하고 문명을 태동시킨 이래로 여성이 한 운동의 주체로 전면으로 등장한 것은 아마도 생협운동이 최초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생협운동은, 산업화 과정이 한 인간에 대해 행해왔던 끊임없는 개인화, 개별화 과정을, 공동체속의 개인으로 재결합시키려 시도하였습니다.

생협운동은 사회의 변화를 모색하였지만, 지금까지의 사회운동과는 다른 생활운동이었습니다. 먹거리라는 아주 구체적인 생활의 영역에서 하나씩 새로운 사회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했으며, 이러한 ‘사업’은 다름 아닌 공동구입이라는 업태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산업화와 시장의 세계화 과정은 생산물의 본래적 가치와는 상관없이 교환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에만 몰두하였습니다. 인체나 환경에 어떠한 유해성이 가해지더라도, 전혀 생존이나 삶의 질과는 관계없더라도, 그것이 보다 많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준다면 아무 거리낌 없이 생산하고 유통하고 소비를 조작하여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환가치에 중심을 둔 사고이며, 마르크스경제학의 노동가치설 역시 계량화한 가치만을 사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경제적 가치(=교환가치)에 대해, 생협운동은 새로운 차원의 경제적 가치를 제기하였습니다. 경제행위를 통해 얻어지는 가치는, 단지 생산이나 교환을 통해 얻어지는 교환가치만이 아닌, 아니 오히려 하나의 생산물은 그 소비과정에서 진정한 가치가 창출된다는, 나아가 소비 과정을 통해 생산과 생산물이 변화할 수 있다는 사용가치의 중대성을 생협운동이 처음으로 제시

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협의 취급 물품을 ‘상품’이라 하지 않고 ‘생활재’라 하는 것은, 상품이 지니는 교환가치 중심의 자기운동에 현혹됨이 없이,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진정한 가치를 창출해가는 생활 소재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생협운동은, 생협내 사람과 사람의 관계, 생협과 외부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기존의 산업화 사회를 대체하는 새로운 관계론을 만들어나갔습니다.

산업화 사회에서의 개개인과 조직 간의 관계는 시장을 매개로 이루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손’인 시장 안에서, 개인과 개인은 경쟁적이고 대립적일 수밖에 없으며, 생산과 소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소비는 그대로인데 생산이 늘어나면 가격은 내리고, 생산은 그대로인데 소비가 늘어나면 가격은 오릅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안에서 한 개인은 생산자이거나 소비자, 생산자이면서 소비자인데, 어느 경우에서든 생산자는 생산자끼리 소비자는 소비자끼리 경쟁할 수밖에 없으며,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경쟁은 더욱 치열합니다.

생협운동에서의 ‘나’와 ‘타자’와의 관계는 대립적 경쟁적이지 않습니다. 타자 안에 숨겨진 나와 의 공통성을 발견하고 그 조직화를 추구하며, 나아가 조직화된 나와 타자와의 공통성, 즉 결집된 구매력을 통해 생산과 상품을 변화시켜갑니다. 나와 타자는 시장 안에서의 경쟁적 대립적인 관계가 아닌, ‘정직과 공개와 타인에 대한 배려와 나아가 사회적 책임’⁴⁾으로 묶여진 관계입니다. 이는 조직 내에서의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만 아닌, 생산과 소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내에서 생산과 소비는 익명성에 기초한 경쟁적 대립적 관계인데 반해, 생협에서의 생산과 소비의 관계는 회복된 대면관계를 통한 협의(協議)의 경제시스템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생협운동은 상품에 대해 생활재를 발견한, 산업화 사회에 대해 농업의 가치와 회생을 주장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작동되는 시장 경제에 대해 생산과 소비의 대면 관계를 통한 협의의 경제를 회복해가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여성에 의한, 새로운 사회적(→공동체) 생태적 관계를 모색하는, 구체적 생활영역에서의 운동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생활자(⇒운동의 주체), 일상생활(⇒운동의 영역), 생활재(⇒운동의 소재)로 구체화되는 ‘생활’의 재발견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4) 1995년에 개정된 협동조합원칙에서는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지니는 윤리적 가치를, ‘성실, 공개, 사회적 책임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 장면에 대한 ‘분화’ 관점에서의 이해

이러한 지향과 가치를 가지고 길게는 십여 년, 짧게는 몇 년 열심히 노력한 결과, 우리 생협운동은 내적으로는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고, 외적으로는 생협운동에 대해 사회적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 운동이 내적 자립과 외적 시민권을 획득하기까지 보이든 보이지 않든 수많은 분들의 피와 땀이 있었으며, 조합원 여러분들의 보이지 않는 지지와 참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립과 시민권 획득의 대가로, 지금까지는 별로 갈라져 보이지 않았던 생협의 모습이 차차 갈라져 드러나게 되었으며, 그 일부를 저는 위의 장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장면들을 ‘분화’의 관점에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장면1에서는 생협에서 사업과 운동이 분화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업적으로 안정되지 못했던 긴 기간을 거치면서 이제는 생협도 자립하고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업적 안정이 있음으로 해서 비로소 운동 또한 즐거운 마음으로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우리 안에서 사업은 사업이고 운동은 운동이다, 다만 사업만으로는 안 되는 부분을 운동이 충족시켜야 한다는 논리가 존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장면2에서는 생협에서의 활동가와 조합원이, 생협에서의 이념과 현실이, 생협에서의 생활재와 상품이 분화하고 있음을 봅니다. 초창기 생협에서는 모든 조합원이 곧 활동가입니다. 하지만 조합원이 늘고 다양한 생각과 계층이 참여하게 되면서, 조합원 가운데서 의식 있는 또 다른 조합원이 분화되기 시작하였고, 조합원과 또 다른 조합원인 활동가 사이의 관계 맺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대두되었습니다.

장면3에서는 생협에서의 직원과 조합원이 분화하고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생협을 처음 만들 때, 생협이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노동은 조합원이 담당해왔습니다. 그러나 생협이 차츰 자립해가면서, 생협의 조합원 노동으로부터 직원의 노동이 특화되어 나왔고, 이제는 많은 생협에서 직원 노동이야말로 생협을 유지하는 근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생협을 생협이게끔 하는⁵⁾ 노동의

5) 우리가 생협운동을 자본주의 시장경제 사회에 대한 대안운동이라 할 때, 이는 가장 크게는 생협운동의 조직원리가 경쟁이 아닌 ‘협동’이기 때문입니다. 생협운동에서 협동이 드러나는 모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에서의 협동이고, 다른 하나는 조합원과 조합원 사이에서의 협동입니다.

구매력을 결집하여 생활재를 개발 취급하는 행위, 그 안에서의 협동은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대부분은 조합원이 담당하고 있으나, 생협을 유지시키는 노동과 생협을 생협이게끔 하는 노동 사이의 충분한 관계가 설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면4에서는 생협의 조직적인 측면에서 공동체에서 개인과 개인이 분화하고 있고, 생협의 업태적 측면에서 공동구입에서 개인공급과 점포가 분화하고 있음을 봅니다. 처음 생협을 시작할 당시 대부분의 생협에서는 산업화 정보화 하는 사회 속에서 개별화 원자화 되어가는 개개인을 공동체 단위로 조직하려 하였으며, 생협과 조합원 사이의 사업적 관계는 공동체를 향한 공동구입의 형태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외부의 변화에 상당부분 기인한다 할지라도, 개개인을 소공동체 단위로 조직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그 결과로서 공동구입이 쇠퇴하고 개인공급과 점포가 대부분을 점유하게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변화에 따른 생협의 대응에 대해, 우리 스스로가 적당한 보완과 어쩔 수 없는 자구책으로밖에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는 데 있습니다.

장면5에서는 생협의 조합원 생활자가 경제인화한 조합원과 유상 노동의 조합원으로 분화하고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처음 생협운동이 시작할 당시의 조합원은 대부분 전업주부였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더 이상 농촌으로부터의 값싼 노동력을 유입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자) 점차 여성에게서 값싼 노동력을 확보하게 되었고,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여성 노동력의 임금 노동화로 여겨지는 경향 속에서, 생협의 조합원 또한 전면적 혹은 부분적으로 경제인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무상의 조합원 참여(=노동)는 점차 줄어들어 갔고,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그리고 조합원 스스로의 부분적 경제인화 요구에 의해, 조합원 노동이 점차 유상화되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상의 노동이 유상의 노동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생협 나름의 노동에 대한, 무상과 유상의 노동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한마디로 생협의 이와 같은 다양한 분화 과정은, 점점 더 세계화, 정보화, 단일

관계가 중심이며, 그 안에서의 조합원은 구매력의 소유자이기 쉽고, 그 과정의 노동은 점차 직원 노동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생협을 생협이게끔 하는 협동의 구체화는, 오히려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관계에서가 아닌, 조합원과 조합원 사이의 관계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조합원과 조합원 사이의 관계에서는 조합원을 단지 구매력의 소유자로 보지 않으며, 그 관계 형성의 노동 또한 직원 노동으로 대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서구의 수많은 생협들이 그 규모와 사회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생협으로서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은, 첫 번째 협동에서는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협동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화, 고도화해가는 현대사회의 흐름 속에서 생협이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추기 시작하면서부터 나온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1980년대에 시작된 생협운동은, 자립을 위한 긴 시행착오의 여정을 거치면서 이제 겨우 조직과 사업체로서의 내용과 형식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의식 있는 개개인의 클럽활동에서 ‘조합’으로 나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분화가 일어났고, 그 분화에 대해 많은 조합원들이 정체성의 상실과 관계성의 파괴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회한의 원인이 규모의 문제인 양 집약되었습니다.

‘품안의 자식’이란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하였을 때 그 아이는 어머니와 다르지만 다르지 않은, 두 몸이지만 둘이 아닌 존재였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오면서, 하나의 개체로서 자아가 형성되어가면서, 어머니와는 점차 분리된 독립적 개체로 분화합니다. 품안에 있을 때 사랑스럽고 다르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독립된 개체로 나아감에 따라 자식이 아닌 원수로 변해버립니다. 초창기 생협운동에서 ‘조합’이 분리 분화되어가는 과정이 이와 같으며, 그 과정에서 받는 초창기를 체험했던 분들의 느낌 또한 이와 같습니다.

생협운동이 자립적인 ‘조합’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에서는,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어가듯, 몸집도 자의식도 성장하기 마련입니다. 그걸 규모화의 비민주성, 규모화로 인한 정체성과 관계성의 상실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품안을 떠난 자식과 어떻게 새로운 차원에서 관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4) ‘분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저는 생협의 변화 과정을 ‘분화’로 표현했습니다. 분화 이전의 시각으로 볼 때, 분화란 해체와 분산의 과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변화’와는 같으면서 다릅니다. 분화는 생협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모든 생명의 본질에는 해체와 분산의 과정이 있고, 인류 문명 또한 분화의 과정입니다.

단세포생명체에서 다세포생명체로, 식물에서 식물과 동물로 분화하면서 더욱 복잡하고 유기화되어가는 과정이 곧 생명의 본질입니다. 분화의 과정을 거부하거나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생존의 문제입니다. 분화의 과정에 있는 모든 생명계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생명체 역시 분화의 과정을 겪어야 하며, 나아가 분화하는 각각의 생명체들과의 관계로 인해 모든 생명계는 변화·진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문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수렵과 채집으로부터 농경과 목축이 이루어지면서 집단에서 개인이 분화하였고 개인으로 구성된 사회가 형성되었으며 개인 간의 훨씬 복잡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농업사회에서 공업사회, 정보화 사회를 거치면서 더욱 확연해졌습니다. 집단에서 사회가, 사회에서 개인이 분화하는 과정은 다른 아닌 의식의 증대 과정이며, 이러한 개개인의 의식의 증대 과정을 통해 인류의 문명 또한 변화·진화해 왔습니다.

분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분화는 자유의 도정이며, 각자가 깨달아 근원적인 그 무엇과 합일을 이룰 수 있는 전제입니다. 문제는 분화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분화된 모습들이 실은 같은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공통의 유전형질을 지닌 서로 다른 형체임을 잊고, 두 모습들 사이의 관계를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 고착시켜가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를 그대로 둔 채 지배하는 자와 지배받는 자를 자리바꿈한다고,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를 조금은 평등의 관계로 되돌린다고, 생명계가, 인류의 문명이, 한 사람이 행복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은 해체와 분산이라는 분화의 과정을 거칩니다. 하지만 생명은 동시에 근원적이고 새로운 차원에서 유기화, 복잡화의 과정으로 나아갑니다. 이를 저는 ‘진화’라 표현하며, 단선적이고 계량적인 ‘발전’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현대사회는 분화의 과정이 만들어놓은 해체와 분산의 결과를, 서로 개별적 대립적 경쟁적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를 낳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생협운동은, 이러한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를 넘어서는, 지배하는 자와 지배받는 자의 자리바꿈도 아니고 지배와 피지배의 조금은 나아진 평등의 관계도 아닌, 새로운 관계론의 마련과 그 실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사회가 분화의 과정이 만들어놓은 해체와 분산의 결과를 서로 개별적 대립적 경쟁적인 것으로 보고 있고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를 낳고 있다고 했을 때, 이를 대체할 새로운 관계를 저는 ‘모심’ 즉 ‘포태’(胞胎)에서 찾습니다.

포태란 어머니가 아이를 가진 모습, 어머니가 아이를 안은 모습입니다. 어머니는 분화의 과정을 거쳐 어머니와 아이로 해체되었습니다. 분화하기 이전의 어머니는 분화한 이후 아이를 가졌거나 낳은 어머니와 같지만 다른 어머니입니다. 아이는 어머니로부터 나온 어머니가 아닌 존재이지만 또한 어머니입니다. 이를 동학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포태는 아이가 새천지와 부모를 포태한 것이며, 동시에 새천지와 부모가 새천지 부모인 아이를 포태한 것이다, 라고.

해체 분산하면서 동시에 근원적이고 새로운 차원에서 유기화 복잡화하는 생명의 과정을, 이제는 생협운동에 접목시켜야 할 때입니다.

위에서, 저는 생명은 해체 분산하면서 동시에 근원적이고 새로운 차원에서 유기화 복잡화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생협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해체와 분산이, 즉 분화가 문제가 아니고, 분화되어가는 개체들을 어떻게 하면 보다 근원적이고 새로운 차원에서, 유기화 복잡화시켜 가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러한 실천적 행위를 우리는 생협운동이라 부릅니다.

5) 다시 한 번⁶⁾ 분화는 진화의 기회이다

(1) 생협운동의 새로운 주체

지금까지 생협의 주체는 생활자(=결과적으로는 전업주부)였습니다. 하지만 전업주부에게서 무상의 노동과 유상의 노동이 전면적 혹은 부분적으로 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협의 주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저는 분화 이후의 생협의 주체는, 여전히 생활자이지만, 전업주부가 아닌 어머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생활자라 함은, 시장경제 상품경제로부터 내몰린 사람, 시장경제 상품경제로부터 스스로를 부분적이거나 전체적으로 이탈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전업주부가 아닌 어머니라 함은, 소비생활의 담당자가 아닌, 생명을 잉태하고(출산), 기르고(보육), 가르치고(교육), 보살피고 치유하는(간호) 모든 행위의 담당자임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그러한 어머니 역할의 중요함을 알고 그 역할의 확대

6) ‘다시 한번’은 다음의 두 가지 취지에서 붙였습니다.

먼저 하나는 생협의 분화가 생협만의 분화가 아닌 생명과 문명의 분화과정, 분화를 통한 보다 더 근원적인 유기화의 과정 속에 생협 또한 존재하며 존재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그 첫 번째입니다. 생협운동은 생태운동이며 사회운동이고 여성운동입니다. 이러한 생협운동은 생명과 문명의 전과정속에서 고찰되고 자기 역할을 부여받을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가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분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듯, 그 속에서의 생협운동도 마찬가지로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협운동이 자기 안에서 벌어지는 분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관계하게 하느냐에 의해, 생명계와 인간의 문명은 새로이 거듭날 것입니다.

두 번째 ‘다시 한번’은 생협운동의 운동사적 맥락에서 붙인 것입니다. 생협운동이 소협운동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소협운동과는 같으면서 다른 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생협운동은, 사회적으로 이미 분화하기 시작하였으나 소협운동에서는 아직 그 주체로 받아들이지 못한 여성의 남성으로부터의 분화 과정을 운동의 진화로 역전시킨 사례입니다. 사용가치가 교환가치로부터 분화하는 과정을 어느 누구보다도 빨리 운동의 진화의 기회로 삼았던 사례입니다. 이제 또 다시 여성에서의 분화가, 사용가치에서의 분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협운동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의 분화를 또 다른 운동의 진화의 기회로 활용할 것입니다.

확산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기도 하며, 나아가 생협운동의 주체들이 체득해야 할 인간상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앞의 두 가지가 주체화의 대상을 말한다면, 뒤의 한 가지는 주체화의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생협에는 다음의 세 어머니가 있습니다. 존재로서의 어머니(=대지인 어머니), 의식하는 어머니(=조합원인 어머니), 연대하는 어머니(=활동가인 어머니)입니다.

존재하는 어머니는 아직은 생협의 조합원은 아니지만 언제라도 생협의 조합원일 수 있는 지역의 주민이며, 생협이 향해야 할 바입니다. 의식하는 어머니는 생협의 조합원이면서 생협의 사업과 활동을 지탱시켜주는 분들입니다. 연대하는 어머니는 생협에서 행하는 모든 일의 중심에서 생협이 생협에게끔 드러내는 역할의 담당자입니다. 이 세 어머니는 서로 어떻게 같으면서 다른지, 또 서로 같으면서 다른 이 세 어머니가 어떻게 관계해야 하는지가 정체성 논의의 핵심입니다.

생협에서 말하는 지금까지의 주체의 형성이나 조직의 확대는, 존재로서의 어머니를 의식하는 어머니로 끌어올리는 과정이었습니다. 의식하는 어머니들 사이의 공통된 사적 영역의 확보와 확대가 생협의 운동과 사업이었습니다. 생협이 그 활동과 사업의 영역을 확대할 때, 즉 생활재를 소비재에서 그야말로 생활의 다양한 재화로 확대해갈 때, 따라서 지역 속에서 생협의 새로운 공간을 확보 확대해갈 때, 우리는 존재로서의 어머니에 대해 기존과는 다른 설정을 해야 하며, 사적 영역을 공적 영역으로 되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2) 생협운동의 새로운 인간

지금까지 우리는 생협에서의 인간을 공동체속의 개인으로, 공동체로 묶여야 할 개인으로 보아왔습니다. 따라서 이미 개념상으로만 존재하게 되어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생협에서의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는 공동체를 통해 가능하였으며, 생협은 공동체를 통해 개인과 관계하였습니다. 주체의 형성, 생협밖의 인간이 생협의 인간으로 되는 과정은, 타자와의 공통성을 발견하고 이를 조직하는 과정이었으며, 이와 같이 조직화된 개인의 공통적 구매력을 통해 생산과 상품을 변화시켜왔습니다. 그래서 생협은 의식 있는 개인(⇒의식하는 어머니)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지금, 생협 내 인간은 공동체라는 조직으로부터 분화된 자유로운 개인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생협에서의 개인은 공동체를 통하지 않고 생협과 직접 관계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방식이 공동구입을 대체하는 개인공급과 점포라는 형태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협동조합의 협동은 조합과 조합원의 협동뿐만 아니라 조합원과 조합원의 협동이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개인공급과 점포는 조합과 조합원의 협동의 한 방식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합원과 조합원의 협동은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이전의 생협에서는 ‘조합과 조합원의 협동’과 ‘조합원과 조합원의 협동’이 하나의 구조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공동체를 통한 공동구입이 그것입니다. 이제 공동체가 해체된 속에서, 조합원과 조합원의 협동, 개인과 개인의 관계망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에 대해 마을, 지구, 지역 모임을 통한 새로운 실험이 모색되고 있으며, 앞으로 있을 각론에서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제 생협의 개인에게 있어 생협이나 다른 개인과의 관계는 전제가 아닌 선택의 문제로 변화한 것입니다.

공동체로부터 분화된 개인은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출발합니다. 다름으로 인해 비로소 그 다양성은 존중받을 수 있고, 다양한 참여의 장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름이 다양성의 고착이나 개별화의 방향으로만 진행될 때, 그것은 체제(시스템의 소유자, 사업의 집행자, 경영관료)의 지배를 낳습니다. 일견 가장 다양성이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정보사회에서의 개인이, 실은 마이크로소프트라는 OS 시스템의 소유자로부터 모든 행동양태를 지배받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생협과 조합원 간의 협동은 있어도, 조합원과 조합원 간의 협동이 없이는 생협이 경영관료에 의해 운영되는 말뿐인 생협과 같습니다.

다양성 안에서 공통성을 찾아야 하고, 조직으로가 아닌 다양함 속의 자각적인 공통성의 인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차원에서 결합되어야 합니다. 다름을 전제로 하되 같음을 찾아가야 하고, 서로 다른 개인을 같음의 다른 표상(表象)이나 삼라만상(森羅萬象)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의미의 서로 다른 것들 간의 연대가 가능합니다.

이제 생협의 인간은 새롭게 조명되어야 합니다. 조직 속에 있는, 조직으로 묶여진 개인이 분화되어가고 있고, 그 분화된 개인에 대해 시장경제는 개별화, 상품화, 다양화, 경쟁화의 방향으로만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생협은, 내 안에 모셔진 천지부모를 각자가 깨닫고, 동시에 천지부모를 모신 또 다른 나가 내안에 모셔져 있음을 깨달아, 이러한 또 다른 나를 적극적으로 모시는 실천적 인간으로 새로이 태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⁷⁾

7) 여기서 잠깐 지난 특별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이 되었던 ‘모심’과 ‘섬김’, 그리고 ‘모심’과 ‘협동’의 관계에 대해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 생협운동의 새로운 운동

생협운동은 기존의 정치운동이나 노동운동과는 전혀 다른 생활운동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이러한 생협의 생활운동은 먹거리 영역에서 구체화되었고, 공동구입이라는 사업을 통해 운동을 실현시켜왔습니다.

하지만 생협 안팎의 상황은 새로운 도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세

먼저 ‘모심’과 ‘섬김’의 관계에 대해서입니다만, 동학에서는 ‘모심’ 즉 ‘시(侍)’에 대해, ‘내유신령(內有神靈) 외유기화(外有氣化) 일세지인(一世之人) 각지불이(各知不移)’, 즉 ‘안으로 신령(神靈)이 있고 밖으로는 기화(氣化)가 있어 온 세상 사람이 각기 깨달아 옮기지 않는 것’이라는 말합니다. 즉 ‘내유신령’은 내안에서의 ‘모심’이고, ‘외유기화’는 내 밖으로의 모심이라 생각하며, 내 밖으로의 모심의 다른 표현을 ‘섬김’이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심’이라는 언어구조와 ‘섬김’이라는 언어구조는 대칭적인 것이 아니라, ‘모심’이 밖으로 표현되는 형태를 ‘섬김’이라고 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즉,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 사람과 모든 생명과 관계 맺기의 다른 표현이 ‘섬김’이 아닌가 봅니다.

‘모심’과 ‘협동’의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복잡합니다. 위에서 저는 협동을 조합과 조합원 간의 협동, 조합원과 조합원 간의 협동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전자의 측면에서 볼 때, 조합원은 공통의 구매력을 지닌 대상으로서의 존재입니다. 이 때의 조합원과 조합원은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필요에 의해 묶여진 존재입니다. 이러한 조합원끼리는 조합의 입장에서는 협동하지만, 조합원 개개의 입장에서는 협동의 실체가 드러나지도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단지 필요의 결합이라는 당위와, 결합된 성과물의 향유가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경향이 극대화되었을 때, 우리는 이를 협동조합이 사업적으로는 성공하였지만 ‘정체성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협동의 실체는 조합원과 조합원 사이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조합원과 조합원 사이의 협동을,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라고 설명할 때, 그것은 조합이 조합원에게 부여한 협동이지, 조합원과 조합원 사이의 만남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개념으로서의 협동일 뿐, 현실적 관계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현실에서는 나와 다른 사람이 똑같은 위치에서 관계하지 않습니다. 이사장이나 임원은 조합원보다 더 낮은 자세로 이야기를 듣습니다. 현실에는 ‘섬김’이 존재하느냐, 아니면 ‘지배’가 존재하느냐가 있을 뿐입니다. 수평적 대칭 개념에서의 협동은 사실은 머리 속에만 있지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직원은 조합원에게 몸을 낮추는 것이고, 임원이나 활동가는 평조합원에게 몸을 낮추지 않습니까? 그들 안에서의 현실적 관계에 대한 보다 정확한 표현은 개념으로서의 ‘협동’이 아니라 실천으로서의 ‘섬김’이나 ‘모심’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협동의 개념은 확대 혹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협동의 개념을 이제는 확대 혹은 수정하여야 합니다. ‘개별화한 사람들’을 전제로 그들 사이의 ‘공통의 사회적 경제적 필요의 충족을 위해’라는 시각을 넘어, 사회경제적 필요 이전에 이미 나와 너가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공통성의 발견으로, 협동의 대상을 사람들 만에서 보다 확대된 생명계로, 충족되어진 필요를 구성원의 소유에서 구성원 아닌 자들에게로의 환원으로, 조금씩 능력만큼 의식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협동은 ‘개별화한 사람들’의 ‘공통의 사회적 경제적 필요의 충족’을 위한 행위로 이해되고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의 협동은, 개별화한 사람들이 아닌 틈과 거리를 둔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동역(同役)’에 가깝고, 주어지고 계량화되고 기호화된 필요의 충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 안에 숨겨진 전체성으로 자기조직화해나가는 과정이라는 의미에서 ‘자유의 진화’에 가까우며, 협동의 상대를 사람들 만에서 생명계 모두에게로 확대한다는 의미에서 ‘천지공사’에 가깝고, 노동의 성과를 내안에 모셔진 또 다른 나에게 되돌린다는 의미에서 ‘각비(자기부정)’에 가깝습니다. 생협의 협동이 ‘환경’과 ‘지역’을 살리는 원동력이라면 조금씩 능력만큼 의식적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모심’의 입장에서 ‘협동’이 재해석되어야 합니다.

계화의 의미가 단지 농업과 농산물 문제에 한정하지 않고 금융, 서비스, 교육, 보건과 복지, 노동의 전 영역으로 훨씬 다양하고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의 생활은 먹거리의 오염만이 아닌 다양한 영역에서 심각한 생존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운동’에서 출발하여 ‘조합’으로 성장한 우리의 생협이 주체와 요구의 분화 과정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생협운동이 단지 먹거리 운동에 한정하지 않고 생활의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 확산되어야 한다는 희망 섞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생각에 대해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운동 안에는 아름다운 (그 표현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는지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더라도) 마을을 만들어간다는 지향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내재해 있고, 이와 같은 내재한 지향이 먹거리 운동을 하면서도 지역의 쓰레기 문제나 환경문제, 아이들의 교육 문제를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였으며, 마포두레생협의 다양한 공동체운동의 사례들을 부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어떠한 협동조합운동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우리 생협운동만의 특이한 부분이며, 생협운동만의 탁월한 모습입니다.

이제 다시 되돌아와서, 지금까지의 생협운동은 의식적으로는 생활운동이었지만 실제로는 소비의 영역에 머물러 있었음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생활의 다양한 영역이 시장경제의 세계화 과정에서 생존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지금, 우리를 포함한 수많은 조합원들이, 생협운동에 이미 그 가능성이 내재하고 있으나 아직 그 실체를 구체화시키지 못한 새로운 운동으로의 확대 확산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 갈망에 부응하고 꿈을 구체화시키는 방향으로, 명실상부하게 생협운동을 생활운동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생협운동은, 기존의 소비 영역을 견고히 확대해가되 영역의 확대, 새로운 영역의 창조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영역의 확대와 창조를 모색하는 장은 다름 아닌 곧 ‘지역’⁸⁾입니다. 지금까지 생협운동에서 지역은 ‘운동의 대상’이었습니다.

8) 지역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의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지역을 다음과 같이 이해합니다.

지역(region)이란, 중앙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지방(local)을 의미하지 않으며, 따라서 그 범위를 행정구역으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지역이란, 각 사람들의 생활을 지탱시키는 순환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공간의 범위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지역이란 각각의 사람들이 그를 둘러싼 생활과정의 순환성, 다양성, 관계성을 파악할 수 있는 공간을 지칭하며, 따라서 생활과정의 확장과 더불어 지역의 범위 또한 확장되어 갑니다.

예를 들어 ‘부천지역’도 지역이지만 ‘동북아시아’도 지역입니다. 이렇게 너무나 다른 것을 같은 ‘지역’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것이 나름대로의 완결성을 갖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감하는 사람을 낚기 위한 바다였고, 생존을 위협하는 지역의 문제를 ‘제기’하는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역은 ‘운동의 무대’⁹⁾입니다. 이 무대 위에서 다양

부천을 지역이라고 보는 것은, 그 속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소들이 그 속에서 어느 정도 완결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세계화되어가는 시장경제 속에 사는 사람은, 중국의 원료를 우리나라에서 가공하여 일본에 수출하는 그런 사람이나 사회에서는 중국과 우리나라와 일본이 하나의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같은 지역이라 할지라도, 무엇을 가지고 순환성, 완결성을 찾을 것인가에 따라서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엄청나게 다른 ‘무엇’에 대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때입니다.

또 어떤 생활과정을 통해 지역을 보느냐에 따라 지역 개념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이라는 생활과정을 통해 지역을 생각해 봅니다. 유치원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 지역은 유치원을 중심으로 두는 그리 넓지 않은 범위의 지역입니다. 하지만 초등학교를 가고 중등학교를 가고 대학을 가면서 지역의 개념은 점차 확장됩니다. 교육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보면 지역은 또 다르게 보입니다. 다시 말해 무엇을 통해 지역을 보느냐에 따라 지역은 달리 보이지만, 또 같은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지역은 계속 확장되어간다는 점입니다. 지역이란 중층적 완결성과 확장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생협에서 보는 ‘지역은 무엇이나’는 곧 생협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지역과 관계할 것이냐의 다른 표현일 것입니다.

- 9) 지역을 ‘운동의 무대’로 보는 시각은, 이미 협동조합에서 ‘협동조합 지역사회론’과 ‘협동조합 부문(섹터)론’속에서 활발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기능별 협동조합의 계통간 수직적 관계는 협동조합의 안정과 성장을 가능하게 했지만, 다양한 지역주민들의 전 생활 영역을 협동의 원리로 조직하는 데는 많은 한계를 지녀왔습니다. 이러한 문제 의식에 기초하여, 협동조합운동의 역사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제기된 것이 협동조합 지역사회와 협동조합 부문론입니다.

협동조합이 그 조직 활동이나 사업경영의 종합적 전개를 통해, 혹은 다양한 협동조합 간의 협동을 통해, 그 지역의 사회 경제적 구조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 의미를 확립하고, 지배적이라고도 할 만큼의 영향력을 확보하는 경우를 가리켜 협동조합 지역사회(Co-operative community)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사회에서는 협동의 사상과 생활양식이 그 지역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협동조합 지역사회의 사례로서, 다양한 협동조합간 협동을 통한 사례로는 스페인의 몬드라곤이, 조직 활동이나 사업경영의 종합적 전개를 통한 사례로는 일본의 지역농협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편 협동조합 부문론은, 협동조합이 공적 부문, 사적 부문, 협동조합 부문으로 구성되는 혼합경제의 한 구성요소로서, 다른 부문과 나란히 서로 보완하며 발전하는 속에서 점차 그 영향력을 강화시켜나가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이러한 세 부문의 활발한 상호 보완에 의해서만이 사회가 가장 인간적으로 재편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출발합니다. 협동조합 부문론은 한 사회나 국가의 다양한 요구를 행정이나 사기업만으로는 충분히 담당하지 못하며 따라서 NGO나 NPO,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의 역할이 새로이 부각되는 경향과 연결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이 거시경제적 측면이나 국가경제적 측면에서 사회의 대부분을 점유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미시경제적 측면이나 소규모 지역 사회에서는 그 영향과 역할을 증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의 발견과 확인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사회 체제가 단지 국가와 시장만으로 구성되지 않고 오히려 협동조합과 같은 제3의 주체가 있음으로 해서 비로소 유지 발전될 수 있음을 발견하고 강조한다는 점에서, 협동조합 지역사회론과 협동조합 부문론은 협동조합 운동사에서 매우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7가지 원칙에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라는 원칙이 삽입되고, ‘협동조합간 협동’의 원칙이 다시 강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 지역사회론이나 협동조합 부문론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한 운동과 사업의 실험이 공연될 것입니다.

기존의 지역을 제1 공간이라 할 때, 지금까지의 생협운동은 대부분의 영역에서 제1 공간과 겹치지 않았으며 한 부분에서 제1 공간 밖에 존재 했습니다. 새로운 생협운동을 통해 창조하려는, 기존의 지역이라는 제1 공간을 변화시킨다는 의미에서 제1 공간과 대비되는 제2 공간은, 제1 공간 안에 있음으로서 제1 공간과 겹치며, 제1 공간을 극복 변화시켜감으로서 제1 공간 밖에 있습니다. 안에 있으면서 밖을 지향하고, 밖을 지향하면서도 끊임없이 안에 있으려 하는 운동의 과정, 그것이 바로 이전의 생협운동과는 다른 새로운 생협운동이 지역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새로운 생협운동이 지역 속에서 제2 공간을 무엇을 통해 어떻게 구체화시켜낼 것인가는 제가 얘기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기존의 먹거리운동과 새로운 생협운동의 관계에 대해서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협의 먹거리운동은 공동체로 조직된 공동구입을 통해 (최소한 개념적이고 의식적으로는)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제 생협의 먹거리운동은 생협의 생활재가 지니는 가치에 공감하는 지역 주민과 의식하는 모든 자유로운 조합원을 향해 열려집니다. 개인공급이 되었던 점포가 되었든, 의식 있는 어머니의 참여가 아닌, 참여를 통해 의식 있어지는 모든 어머니에게 열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다양한 참여의 열린 장은, 새로운 생협운동이 지역 내에서 제2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주체를 형성하고 확대해가는 매개로서의 의미를 지닙니다.

한마디로 생협운동은 이제 ‘공동구입에서 생활 모두로’, ‘생활협동운동에서 생활협동조합으로, 그리고 다시 생활협동운동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그리고 그 실험의 장을 ‘지역’에서 찾으려 합니다.

(4) 생협운동의 새로운 가치

지금까지의 생협은 주로 사용가치로서 그 경제적 가치를 발현시켰습니다. 시장

없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협동조합 지역사회론에서 말하는 협동조합간 협동은 지역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협동조합의 ‘섬’(Island 혹은 Colony)으로 향하는 경향이 있고, 협동조합 부문론에서의 협동조합은 전체 사회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단면적 보완’으로 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역 안에서 끊임없이 지역을 변화 극복시켜 지역 밖으로 향하게 하면서도 의식적으로 지역 안으로 다시 향하는 협동조합, 공적 부문과 사적 부문을 끊임없이 극복 변화시키면서도 의식적으로 그 부문들과 함께 하는 협동조합, 그것이 바로 지역밖에 섬을 만들어가는 협동조합이지 않는, 공적 부문이나 사적 부문과 단순한 보완으로 관계하지 않는 협동조합의 지역과의 새로운 관계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의 교환가치 중심에 대한 대안이었으며, 생산물에 대한 보이지 않는, 비공식적인, 계량화·화폐화 할 수 없는, 하지만 생명의 유지와 활동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가치의 재발견이었습니다.

이제 생협은 사용가치를 넘어 생활가치, 생명가치로 확대됩니다. 자기 통합성과 자기 정체성의 발견, 이웃과의 진정한 사귄, 자연과의 진정한 교감, 생산과 노동의 재발견, 생활복지, 생명교육 등, 생산물만이 아닌 생존에 필요한 모든 영역이 하나로 통합되는 생활가치(생명가치)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생활가치 생명가치는, 대인(對人), 대물(對物), 대자연(對自然)과의 관계에서 높여 ‘님’으로 모시고, 또한 진정한 친구로서 수평적으로 함게 도모하는(同役) 거리를 둔 윤리, 수평적인데도 높임으로써 도리어 진정한 수평을 확보해가는 윤리에 기초한 관계맺음에 의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5) 생협운동의 새로운 조직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관계의 망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하는 것이 조직일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생협에서 조직은, 나와 타자와의 공통성을 발견하고, 이를 공동체와 생협으로 묶어 구매력으로 결집하며, 이러한 구매력을 통해 생산과 상품을 변화시켜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생협의 조직은 훨씬 다양하고 복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공통성의 발견과 그 조직화 이전에, 나와 타자와의 이질성을 확인하고, 그 이질성 사이의 관계 형성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기존의 먹거리운동의 조직 방식, 즉 ‘생협↔(공동체)↔조합원’이라는 단선적이고 획일적인 방식은, 훨씬 다양하고 복잡하며 유기적인 관계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시켜야 합니다.) 아직은 방향만 정하고 실험의 연속이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구체적인 조직의 유형이 찾아져야 할 것입니다.

‘지역’을 운동의 무대로 다양한 생활의 영역을 재조직화 하여 제2의 공간을 창조해가는 경우에는, 이질적인 개인들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공통성 발견이 모색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생협의 안에 있으나 기존의 먹거리운동과 비교하여 지역에 보다 열려진 모습으로 관계할 것이며, 그 안에서의 개인과 개인의 관계는 먹거리운동에서의 그것보다 훨씬 강도 높은 관계성을 드러낼 것입니다.

(6) 생협운동에서의 포태의 주체와 대상에 대해

지금까지 생협운동의 새로운 운동으로의 전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환이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을 조금이나마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는, 먼저 ‘공동구입’과 ‘생활협동조합’으로서의 자립이 있어야 합니다. 거쳐야 할 분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그래서 스스로가 자립하지 못하면 이와 같은 실험은 말의 유희로 끝날 수 있으며, 그나마 유지되어왔던 먹거리운동도 쇠퇴시킬 것입니다. 분화를 두려워해서는 진화의 기회를 맞을 수 없으며, 분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종의 멸종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또 두렵습니다. ‘생활 모두’와 ‘그리고 다시 생활협동운동’이 ‘공동구입’과 ‘생활협동조합’을 포태하며 나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가 너무나 두렵습니다. 모셔야 합니다. 확대된 운동의 영역이 기존의 운동 영역을 더욱 치밀하고 탄탄하게 모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가 무척 두렵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포태한다고 했습니다. 나를 포태한 또 다른 나를 내가 포태한다고 했습니다. 형식논리상으로 이러한 서로의 포태(=모심)의 관계는 지극히 수평적입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이러한 수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우뚱한 균형이 존재할 뿐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포태하였습니다. 아이도 어머니를 포태하였습니다. 나를 포태한 아이가 내 배안에 있다는 사실의 자각이 운동의 출발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이가 나로부터 분화해나갈 ‘때’까지는 최소한 어머니인 내가 보다 더 보살피야 할 존재입니다. 기우뚱한 균형이란 이를 가리키며,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는 시(時)와 관계합니다.

생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까지의 생협운동과 앞으로의 생협운동의 관계가, 그리고 생협운동의 다양한 부문 안에서의 관계가 모시고 모셔지는 관계여야 합니다. 지금이 어느 단위가 어느 단위를 보다 더 보살피야 하는 때라면, 내일은 보살핌 받았던 그 단위로 인해 보살피 왔던 단위가 오히려 보살핌을 받을 때가 올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보는 ‘되먹임’(反哺)의 구조입니다.

지금은 단협이 연합에 대해 보다 더 포태의 실천을 행할 때입니다. 그래서 연합은 단협에 의지하고, 단협은 연합으로 인해 더욱 뜨거워져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단협이 마을 혹은 지부를 포태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마을이나 지부는 단협에 의지하고, 단협은 마을이나 지부로 인해 더욱 뜨거워져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먹거리운동이 다른 모든 지역생명운동에 대해 보다 더 포태의 실천을 행할 때입니다. 그래서 지역생명운동이 먹거리운동에 의지하고, 먹거리운동이 지역생명운동으로 인해 더욱 뜨거워져야 할 때입니다.

물론 보다 더 적극적인 포태의 실천이 구속이나 억압으로 작용해서는 안 됩니다. ‘품안의 자식’을 아무리 애지중지 키웠다 해도, 품안에서 벗어나는 자식이 그 동안의 보살핌을 억압이나 구속으로 느낀다면 그 속에서는 어떠한 서로간의 모심도 되먹임 구조로 이루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살피는 자가 보살핌을 받는 자보다 더 어려운 법입니다.

6) 맺음말

이상으로 제가 생각하는 생협운동의 정체성을, 분화의 과정 속에서 새로운 차원으로 자기조직화 하는 생명의 본질에 비추어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생명은 해체 분산하면서 동시에 근원적이고 새로운 차원에서 유기화 복잡화하는 과정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생협운동은, 전생활의 영역에서 개별화·상품화시키며 들어오는 시장 경제의 세계화 물결, 그 안에서 생명과 생존의 위기를 온 생활의 영역에서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어머니들이, 다르지만 다르지 않은 것을 모시고 있음을 스스로가 각자 깨닫고, 나와 나 아닌 것들 사이를 모심으로 관계하며, 공동구입을 모든 생활영역으로 확대하고 생활협동조합을 또 다시 생활협동운동으로 전환시키는, 그리고 그 창조적 모색을 지역이라는 새로운 장에서 실천하는, 한마디로 ‘지역생명운동’이라는 기치 아래 재조직화 되어야 한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 지역생명운동으로의 생협의 확산을 향하여

담론은 ‘확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생협운동은, 전생활의 영역에서 개별화·상품화시키며 들어오는 시장 경제의 세계화 물결, 그 안에서 생명과 생존의 위기를 온 생활의 영역에서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어머니들이, 다르지만 다르지 않은 것을 모시고 있음을 스스로가 각자 깨

닫고, 나와 나 아닌 것들 사이를 모심으로 관계하며, 공동구입을 모든 생활영역으로 확대하고 생활협동조합을 또 다시 생활협동운동으로 전환시키는, 그리고 그 창조적 모색을 지역이라는 새로운 장에서 실천하는, 한마디로 ‘지역생명운동’이라는 기치 아래 재조직화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미 담론과 각론의 논의를 통해서 생협의 사용가치 속에 내재한 생명적 요소가 어머니의 포태의 의지에 힘입어 한 차원 더 높은 ‘생명가치’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생협을 〈사업적 시스템〉이나 〈사업을 통해 일체적으로 구현해가는 운동〉이라고만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생협을 ‘무기물’로 바라보는 기계론적인 경향의 사고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역생명운동〉으로 새롭게 자기를 규정한 것은, 생협을 하나의 ‘생명’으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의 관계를 ‘생명적 관계’로 바꾸자고 하는 ‘생명의 각성’인 것입니다. (각론1에서)

1) 확산이란 무엇인가

(1) 확산은 생명의 본질

생명은 스스로 자라나며 자기의 구조와 질서를 스스로 조직하는 힘을 가질 뿐만 아니라, 주변 세계를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조직화함으로써 스스로 공진화의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협의 어머니들은 이제 일상생활로부터 솟구치는 생명포태의 의지를 ‘생명가치’로 승화시키고, 자신들의 관계망을 생명가치의 관계망으로 재편하며, 주체적이며 자율적으로 확산하여, 보다 다차원적이고 광범위한 어머니들의 관계망을 형성함으로써 공진화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본성적 요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2) 어머니들의 고조된 확산의 요구

80년대 이후 생활협동운동은 식생활의 영역을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대, 협동을 통해 재창조해 왔습니다. 시장이나 국가에 의해 일방적으로 조정되었던 삶의 영역에서, 가장 기본적인 할 영역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고 창조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안에서는 식생활 영역에서 새로운 영역을 창조해온 그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생활협동운동을 생활의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하려고 하는 지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생명과 생존의 위기를 온 생활의 영역에서 직면하고 있는 생협이 수많은 어머니들은, 지금까지의 먹거리 공동구입 사업을 해왔던 취지와 희망을 먹거리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생활영역에서 구체화시키고자 자발적인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¹⁰⁾

이처럼 공동구입을 모든 생활영역으로 확대하고, 생활협동조합을 또다시 생활협동운동으로 전환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 주체는, 바로 생명과 생존의 위기를 온 생활의 영역에서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어머니들입니다. 다양화 다핵화 복잡화된 현대 정보화 사회를 맞은 생협의 어머니는 더 이상 먹거리의 영역에만 머물러서는 스스로의 생명의지를 온전히 구현하기 어렵다고 자각하며 ‘확산’에 대한 자기조직화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3) 확산을 통해 강화되어가는 어머니들의 관계망

확산은 기존의 생협이 해왔듯이 사업의 아이템이나 대상으로서의 지역공간을 더 넓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협의 어머니들이 그들의 생명적 본성에 근거한 자기실현을 위하여 스스로, 다르지만 다르지 않은 어머니들과, 모심의 관계를 통해, 광범위하며 다차원적인 관계망을 확대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머니들은 ‘지역’속에서 마을모임과 분과모임, 문화모임을 통해 ‘연대하는 어머

10) 실제로 연합회 회원 생협들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조합원 활동의 중요한 영역인 교육 분야를 살펴보면 그 지향은 분명해 보입니다.

주민생협의 창조학교, 덩더쿵 어린이집, 살림터생협의 푸른나무공동체, 마포두레생협의 우리마을꿈터처럼 별도의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주체적이고 자유로우며 창조적인 아이로(창조학교), 자연과 함께 이웃과 더불어 사는 아이로(푸른나무공동체) 키우는 것을 목표로 교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교육 기관이 아니더라도, 먹거리, 생태, 환경, 건강, 자녀교육 등 삶의 내용과 질을 높이기 위한 다채로운 교육 활동들이 생협마다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린생협은 현재 지구별로 생태분과 중심의 생태교육을 비롯해 자연학교, 어린이역사교실 등이 운영되고 있고, 바른생협은 청계산생태공부모임, 참나무속 도토리(수원생태공부)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협 안에 있는 의식하는 어머니들 중 상당수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분들로서 먹거리 못지 않게 바른 교육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경쟁을 부추기는 교육 시장에 아이를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생협을 통해 새로운 교육이 실현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 즉 자신을 탐구하고 자연과 교감하며 세상과 소통하는 힘을 키워주는 교육에 대한 지향이 담겨 있습니다.

교육 활동만큼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문화 활동에서도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시도들이 있습니다. 스스로의 문화적 욕구를 생협을 통해 실현하고 조합원과 나누는 소모임 활동, 정월대보름, 단오 등 세시에 따르는 문화 활동, 전래 놀이의 보급을 위한 활동, 어린이날 지역행사, 마을축제 등이 생협마다 시도되고 있습니다.

니’들과 ‘의식하는 어머니’들, ‘의식하는 어머니’들과 ‘의식하는 어머니’들, ‘의식하는 어머니’들과 ‘대지로서의 어머니’들 사이에서 소통하고 자기를 표현하며 연대의 범위를 확장해 갈 것입니다.

생협에서의 어머니는 각자가 지니는 요구와 능력을 발견하여, 서로 다른 어머니들과 소통 연대함으로서 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공간을 창조해갑니다. 이와 같은 중층적 창조의 과정을 통해, 생협의 더 많은 어머니들이 삶의 현장에서 개인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회복해갈 것이고, 생명을 향한 자기조직화의 관계망으로서 이웃과의 공동체가 확장될 것이며, 나아가 우리 사회 속에서 강화된 자기 결정권으로 더 높은 생명적 자기실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확산은 생명가치의 지역적 실현을 위한 적극적 행위

지역은 인간의 문화적 삶과 생태적 삶, 사회적 삶들이 총체적으로 구현되는 어머니들의 생활 현장입니다. 지역은 어머니들이 일상의 생활을 영위하는 장소입니다. 동시에 지역은 개개인의 어머니들이 지니는 생명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모색하는 장소이며, 그 모색의 과정에서 더 큰 사회적 연대를 이루어내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역은 이러한 연대를 통해 이룩해낸 성과를 이웃과 함께 나누는 장이기도 합니다.

담론은 생협과 지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생협의 지역생명운동은 ‘지역’을 운동의 무대로 다양한 생활 영역을 재조직화하여 제2의 공간을 창조해가는 운동입니다. 기존의 ‘지역’이라는 제1 공간을 변화시킨다는 의미에서 제1 공간과 대비되는 제2 공간은, 제1 공간 안에 있음으로서 제1 공간과 겹치며, 제1 공간을 극복 변화시켜감으로서 제1 공간 밖에 있습니다. 안에 있으면서 밖을 지향하고, 밖을 지향하면서도 끊임없이 안에 있으려 하는 운동의 과정인 것입니다. 지역 안에서 끊임없이 지역을 변화 극복시켜 지역 밖으로 향하게 하면서도 의식적으로 지역 안으로 다시 향하는 협동조합, 공적 부문과 사적 부문을 끊임없이 극복 변화시키면서도 의식적으로 그 부문들과 함께 하는 협동조합, 그것이 바로 지역 밖에 섬을 만들어가는 협동조합이지 않는, 공적 부문이나 사적 부문과 단순한 보완으로 관계하지 않는 협동조합의 지역과의 새로운 관계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협이 지역과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 맺기를 할 때, 한 축으로는 지역의 다른

부문별 생활협동조합들과 연대하고, 다른 한축으로는 지역의 워커즈 컬렉티브들과 연대해야 합니다. 생협은 지방자치에의 참여를 실현하고자 하는 주체들과 연대하여 공공의 행정, 언론, 의회, 학교들과도 적극적으로 관계합니다. 생협과 연대하고 있는 의료생협과 복지 관련 워커즈를 통해 지역의 복지단체와도 관계합니다.

지역 생명운동은 어머니들이 연대하여 기존의 지역 안에서 새로운 공간을 창조한다는 점에서 생명의 자기조직화라는 특성과 일치하며, 지역 밖에 있으나 의식적으로 지역 안으로 다시 향한다는 점에서 생명의 공진화라는 특성을 보여줍니다. 만약 지역생명운동으로서의 생협이 내(內)적인 자기조직화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필연적으로 자족적인 운동, 우리들만의 운동으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실천을 통한 환경과의 상호작용, 사회적 의제의 제기를 통해 사회적 환경을 자기조직화가 가능한 쪽으로 유도하는 운동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생활 속에서 생명 평화의 지평을 창조적으로 확장할 뿐만 아니라, 반생명적인 것에 저항하고 변화시켜 감으로써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비전을 세상에 드러내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 확산의 방향

생협의 어머니들은 확산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표출하고 있으며, 이미 요구의 수준을 넘어 구체적 대안까지도 찾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이 이전에 비해 훨씬 고도화되고 복잡한 양상으로 관계하며 소통하는 정보화시대를 맞이한 어머니들은, 이전보다 더 자유롭게 소통-연대하기를 원하며, 보이는 공간과 형식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으나 훨씬 더 일상적이며 풍부한 소통과 연대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유형의 공동반을 통한 생활재의 공급방식이, 무형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되-더욱 풍부한 가치의 공유와 일상화된 생활적 소통이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생활재 나눔방식으로 전환된 것 역시 이러한 어머니들의 의지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생협의 공동체는 붕괴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와 소통을 매개로 하여 새로운 차원으로 증폭하는 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생협의 어머니들은 이러한 확산의 의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다차원적인 확산’을 진행해 갈 것입니다.

(1) 다양한 생활재로의 확산

생협의 생활재는 다양한 어머니들의 생활적 요구를 담아내는 방향으로 확산을 거듭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더 많은 어머니가 생협과 관계하게 될 것입니다. 생활재의 확산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생협 생활재를 먹거리와 친환경 생활용품에서 다른 분야로 확대하는 것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지, 의료 관련 생활재, 육아용품들을 일차적 대상으로 하고, 이를 장기적 과제로 설정하여 연구하고 기획할 수 있는 역량을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2) 다양한 생활영역으로의 확산

생협 안에 있는 의식하는 어머니들은 사적인 생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을 협동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보육과 육아 문제 측면에서 보면 직업이 있는 어머니들은 경제적 수익률이 낮은 영아 보육 같은 경우 대부분의 시설에서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비싼 비용을 지불하며 개인 타아를 하지만 이 또한 쉽게 구하기도 힘들고 늘 불안해합니다. 전업주부의 경우 잠깐 동안 아이를 돌봐줄 곳을 진정으로 원합니다.

믿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도시 한가운데서도 좀더 생태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마을’을 만드는 일에 대해서도 생협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영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머니들의 이러한 생활적 요구에 기반하여 생협의 사업은 다양한 생활영역을 향하여 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단계에서 생각해본다면, 이미 다수의 어머니들의 관심에 따라 생협 안에서 시도되고 있고 지역 사회로부터 나뉘는 인정을 받고 있다고 보이는 교육 영역을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로부터 이웃과 자연까지 확대되는 생명 존중의 교육을 담당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 바로 생협입니다. 어려서부터 생명의 가치를 몸에 익히도록 교육하는 것이야말로 지역생명운동의 새로운 주체들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배려입니다.

(3) 다양한 계층으로의 확산

다양한 생활재로의 확산과 다양한 생활영역으로의 확산을 위한 노력은 결국 다양한 계층을 어머니의 관계망 속으로 견인하게 될 것입니다. 육아와 보육사업의 영역은 미래의 어머니를 생협과 관계하게 할 것이며, 청소년에 대한 교육문화사업은 그들을 생명의 어머니로 길러낼 것이고, 현재의 어머니들의 아름다운 노년

을 준비하는 노인복지사업은 우리의 어머니들을 미래에도 우리들의 어머니가 되도록 보장해 줄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계층으로의 확산을 통해 지역생명운동으로서의 생협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어머니가 함께 호흡하는 폭넓은 관계망이 되어질 것입니다.

(4) 새로운 노동의 확산

생협이 지역 속에서 다양한 계층과 관계하며 다양한 생활 영역으로 확산해 갈 때, 구체적으로 그것을 구현해가는 노동은 더욱 일상화되고 조직화되고 강화되어야 합니다. 지역생명운동 안에 생명가치가 새로이 확립되고, 관계가 생명적 관계로 재정립되며, 이러한 관계가 생명가치를 확산시켜간다고 할 때, 그것을 움직여가는 중심축인 ‘생협내의 노동’ 또한 새로워져야 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생협안의 조합원 노동은 이러한 변화를 위하여 요동치고 있으며, 새로워지기 위한 힘겨운 모색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생협의 조합원 노동 - 여기서 조합원 노동이라 함은, 생활에 포섭된 노동(일명 조합원 활동)과 생활로부터 외화된 노동의 두 가지 의미 모두가 아닌, 생활로부터 외화된 노동만을 의미합니다 - 은 생활에 포섭되어 있는 생활 자체가 아니며, 생활로부터 소외된 임노동은 더더욱 아닙니다. 생협의 조합원 노동은 생활로부터 분화된 노동이지만, 지금까지 노동이라 불려온 임노동과는 전혀 다른 본질과 지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생협의 조합원 노동은 본질적으로 다양성, 관계성, 순환성이라는 생명의 본질을 담고 있는 노동입니다. 나로부터 출발하되 나 아닌 노동의 주체들과 모심으로 서 관계하고, 나아가 노동의 행위자만 바라보지 않고 그 수혜자까지도 시야에 넣는, 그럼으로써 나와 같은 일에 임하는 동료와 그 노동의 대상을 같은 주체로서 관계하게 하는 새로운 노동입니다.

또한 생협의 조합원 노동은 임노동과는 확연히 다른 지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임노동은 더 질적으로 높은 임노동으로 향하고 있는 반면, 생협에서의 조합원 노동은 조합원 노동이 분화하기 이전의 생활로 지향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노동을 분화시킨 생활이 끝없는 임노동의 확산 과정에서 생존의 위협에 맞닿고 있는 지금, 생협의 조합원 노동은 수많은 어머니들의 생활을 지키고 본래 그래야 할 생활 본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해 그들로 향하는 노동인 것입니다.

생협의 조합원 노동은, 창조성과 주체성이라는 노동이 지니는 본래적 가치를

되살린다는 측면에서 역사적으로 새로운 노동운동으로 등장한 자주관리 노동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지만, 동시에 자주관리 노동을 넘어섭니다. 넘어선다 함은, 창조성과 주체성의 지향과 함께, 아니 오히려 그 보다 더 크게 지역성과 생태성을 지향하고 있으며, 더 나은 노동자가 되기보다는 더 나은 생활자가 되기 위한 노동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생협이 안팎에는 이미 사회적, 경제적인 자립을 원하는 많은 어머니들의 요구가 있으며, 생협의 사업이 다양한 영역 - 다양한 계층을 향해 다차원적으로 확산해 갈 때, 이러한 어머니들의 자주노동에 대한 요구는 어머니들의 관계망과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는 힘 있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생협은 사회적 노동을 원하는 어머니들이,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워커즈 콜렉티브 차원에서 사업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어머니들의 노동은 좀 더 자주적인 노동으로 향하여 나아가고 궁극적으로는 전사회적으로 확산해 가야 할 것입니다.

3) 확산과 연대 - 확산은 힘차게, 연대는 성숙하게, 중심은 더욱 굳건하게

생협이 나아가고자 하는 ‘확산’은 관계망의 확산이며, 각각의 주체들 사이는 모심의 연대로서 서로 관계합니다. 따라서 확산은 단순한 평면적 확대를 의미하는 분산과 그 의미를 달리합니다. 확산은 주체적이고 자율적이며 무궁하게 펼쳐져가 되, 확산된 주체들 간의 연대는 생명가치를 중심으로 더욱 성숙하게 실현되어 가야 할 것입니다. ‘확산’을 행함에 있어서 연대가 얼마나 더욱 절실해지는가에 대하여 답론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운동으로의 전환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을 조금이나마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는, 먼저 ‘공동구입’과 ‘생활협동조합’으로서의 자립이 있어야 합니다. 거쳐야 할 분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그래서 스스로가 자립하지 못하면 이와 같은 실험은 말의 유희로 끝날 수 있으며, 그나마 유지되어왔던 먹거리운동도 쇠퇴시킬 것입니다. 분화를 두려워해서는 진화의 기회를 맞을 수 없으며, 분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종의 멸종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확산’을 행하기에 앞서 확산을 위한 우리의 연대가 잘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보고 다시금 정비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생명가치의 확산, 관계망의 확산을 위해서 그 중심이 되는 생활재 공동나눔사업의 연대를 보다 힘 있는 연대로 준비시키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또한 확산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심을 더욱 튼튼히 해야 할 것에 대하여도 다음과 같은 담론의 이야기를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두렵습니다. ‘생활 모두’와 ‘그리고 다시 생활협동운동’이 ‘공동구입’과 ‘생활협동조합’을 포태하며 나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가 너무나 두렵습니다. 모셔야 합니다. 확대된 운동의 영역이 기존의 운동 영역을 더욱 치밀하고 탄탄하게 모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가 무척 두렵습니다.

4) 생명가치 확산의 동반자 - 생산자

지역이란 각 사람들의 생활을 지탱시키는 순환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공간의 범위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지역이란 각각의 사람들이 그를 둘러싼 생활과정의 순환성과 다양성, 관계성을 파악할 수 있는 공간을 지칭합니다. 따라서 생활과정의 확장과 더불어 지역의 범위 또한 확장되어 갑니다. 생협은 생산자는 좀더 확장된 차원의 지역 생명운동의 한 주체입니다.

지금까지 생협운동은 상품에 대해 생활재를 발견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작동되는 시장 경제에 대해 생산과 소비의 대면 관계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정직과 신뢰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협의의 경제를 회복해온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협의의 관계는 때에 따라 두 가지의 얼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생산자는 정직으로, 소비자는 믿음으로’라는 구호에도 불구하고 생협의 어머니들이 생산자나 생활재에 대해 불신이나 불만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일련의 사고를 접한 이후, 생협 내부에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정기적 검사, 약정서, 리콜제, 첨가물 기준안 등) 부재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통해 식품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더러는 다른 생협의 생산자와 비교하며 신뢰성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마찬가지로 그 어머니들이 2004년 3월 폭설 피해를 입은 생산자

여러분을 위해 생산복구기금을 기꺼이 내주시고, 태풍 민들레로 피해 입은 생산자의 텃밭을 복구해 주시며 신뢰를 보내기도 합니다. 농작물을 키움으로 나의 생명을 키우고 있는 생산자에 대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이미 모심으로 관계하고 있는 어머니들입니다.

생협의 생산지와 생활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은 식품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조건일 뿐이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생명과 생계를 서로 책임진다는 정도의 관계는 협의의 관계를 넘어 서로 모심으로 관계할 때 가능해지며, 신뢰의 수준도 높아질 것입니다.

새로운 생협운동에서 생산자는 지역생명운동의 취지에 공감하고 생협의 어머니들과 함께 생명가치를 실현해가는 한 주체로 자리매김 되고, 현재의 관계로부터 신뢰성을 높여나가야 합니다.

5) 확산의 새로운 지평과 출발 - 국제적 민중교역에서 남북 민중교역에까지

이제 지역생명운동으로서의 생협은 다양한 생활재로, 다양한 생활영역으로, 다양한 계층에게로, 자주 자치의 워커즈 콜렉티브 노동으로, 지역 속에 살아 움직이는 어머니들의 생명의 관계망으로 확산해 갈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관계망을 통해 확산해 가는 ‘생명공간-생명마을’은 이미 우리가 첫발을 내딛은 민중교역을 통하여 지역의 의미를 국제적인 범주로까지 확장하며 남북 민중교역을 실현하는데 까지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무릇 생명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어져 나감으로써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퍼져나감으로써 지속되고 확장되니, 진보함으로써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확장함으로써 진보하는 것이다. ...

생명평화탁발순례, 길을 나서며

하늘에 아뢰는 글

2004년 3월의 첫날, 민족의 성지 노고단에 모인 지리산생명평화결사의 등불들은 삼가 하늘에 아뢰나이다.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이라크에서 저주스러운 군사폭력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인종, 종교, 계급, 성, 나이 등 우리들은 스스로가 만든 차별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인간중심의 세계관으로 만들어낸 문명은 못생명을 고통의 아수라장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하늘의 질서 아래 지구 위의 모든 생명이 살게끔 하는 길을 우리는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비롯한 대자연 천지의 노동을 인간이 질곡하고 착취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생명을 짓밟는 야만적인 행위가 끝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재화와 권력을 소수의 사람에게 집중되고 인간이 인간을 억압하는 대립과 갈등의 시대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기를 발원합니다.

땅 위에 밝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속에 이미 와 있는 밝은 세상이 우리를 손짓합니다. 세상의 질서를 하늘의 질서로 바꾸는 일은 어쩌면 생명을 바쳐야 하는 일입니다.

지금 이 지구상의 어디인가에 이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들과 도반(道伴)으로 연대하며 길을 걸어갑니다. ‘된다, 안 된다’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길이 옳은가, 아닌가’를 생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자 합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세상으로 이어진 길로 우리는 걸어갑니다. 사람 위에 오직 하늘만 있고, 사람 밑에 오직 땅만이 있는 세상과 만나는 길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있는 온갖 편견과 증오와 만나고 우리들의 꿈과 절망을 함께 볼 것입니다. 모심과 살림, 섬김과 나눔으로써 생명평화의 새날을 함께 열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가는 이 길에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함께 하기를... 비나리

천성산살리기운동 도롱뇽 소송인단 발족 취지문

지울스님의 청와대 단식이 52일째를 맞고 있다.

도롱뇽 소송을 중심으로 알려진 천성산 살리기 운동은 단지 천성산만을 살리기 위한 운동이 아니다. 천성산 살리기 운동은 생명의 소중함과 자연의 법적 권리에 대한 잔잔한 파문이다. 아직까지 한국사회는 개발과 파괴의 시대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

새만금 간척사업, 북한산 관통 도로 등 거대 토목공사로 인해 국토는 난도질당하고 있다. 또한 부안 핵폐기장 문제처럼 민중들의 거대한 반대에도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밀어붙이는 관행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지울스님과 도롱뇽의 친구들이 지금까지 벌여온 천성산지키기 운동은 이러한 개발과 파괴의 연장선상에 있다. 꼬치레도롱뇽을 비롯 환경영향평가 상에 누락된 각종 동식물, 터널공사를 둘러싼 전문가들의 상반된 의견 등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개발과 파괴에 얼마나 익숙해져 왔으며 이를 용인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도롱뇽 소송을 지원하고 천성산 살리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운동에 나선다. 이는 천성산이 정부의 대형국책사업에 의해 희생된 또 하나의 자연으로 기록되는 것을 막고, 생명과 자연의 소중함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또 하나의 활동이 될 것이다.

우리는 무엇보다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고속철도 천성산 관통구간의 공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현행처럼 공사가 계속 진행된다면 재판 결과와 상관없

이 천성산의 아름다운 산야는 파괴되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부실하게 진행된 기존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하여 천성산의 보존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부실한 환경영향 평가 재실시를 통해 천성산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인정받고 정부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함이다.

우리는 이를 위해 100만인 도롱뇽 소송인단 모집을 대대적으로 벌일 것이다.

현재 25만 명에 이르고 있는 기존 시민사회단체는 물론이고 이 운동을 종교계,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전체로 확대해서 생명의 소중함과 자연의 법적권리 옹호에 함께 나설 것을 촉구할 것이다.

100만인 소송인단은 천성산 반대운동뿐만 아니라, 이후 생명의 소중함을 함께 나누는 주요한 사람들로서 큰 힘이 될 것은 분명한 일이다. 이에 천성산을 비롯 생명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한 활동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함께 나설 것이다.

2004. 8. 20.

도롱뇽소송 시민행동

생명평화선언¹¹⁾

우리는 인간, 사회, 자연 전체가 오늘 겪고 있는 ‘대혼돈(Big Chaos)’을 극복하는 길이 다름 아닌 ‘생명과 평화의 길’임을 믿으면서 오늘 그 ‘길’을 함께 나아가기로 결의한다.

그 첫 걸음이 생명, 우주 생명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 평화의 심각성을 다짐하는 것이라 판단하여 생명과 평화의 길에 관한 우리의 견해를 표명하고자 한다.

우주 생성

큰 혼돈 가운데 그 나뭇의 질서를 향한 요동과 폭발이 전개되어 오늘의 우주가 탄생하고, 줄기찬 생성과 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태양계가 생겼다. 대략 45억 년 전에 탄생한 지구는 한결같이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으면서 10억년이 경과할 즈음 최초의 생명체를 탄생시켰다.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한 이후에도 태양의 열 에너지 양과 지구 대기권의 화학적 성분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지만, 화석의 기록을 해독한 바에 따르면 지구상의 기후는 대폭적인 변화 없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놀랍게도 지구상의 생명체가 생명의 터전인 자연환경과 교류하면서 생명적 안정성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진화를 전개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자연의 진화가 자연선택을 통해 진행된다는 다윈의 설명과는 달리, 지구에서의 복잡화가 조성되면서 지구 생명 시스템 속의 생명체가 창조적으로 스스로의 생명유지에 적합한 여건을 조성했고, 그 과정에서 숱한 생물 종의 다양화가 이룩되었음에 대해 깊이 주목하고자 한다. 인간의 이성에 의한 남김 없는 해명은 불가능하지만, 지구가 질적 차원변화를 겪으면서, 마침내 가장 고등한 인간이 출현했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자 한다.

11) (사)생명과 평화의 길 창립대회, 김지하 외

문화의 출현

지구상에서 현생 인류의 직접적 조상인 ‘호모 사피엔스’는 대략 20만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출현했고, 네이처지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에티오피아에서 발견되어 ‘호모 사피엔스 이탈두’로 명명된 화석은 아르곤 연대측정법에 의할 경우 16만 년 전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수백 점의 구석기 유물이 하마 및 물소 뼈 등과 함께 발견되었음에 비추어 볼 때 도구를 사용해 사냥을 했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20세기 초엽의 여러 고고학적 발굴과 고생물학 등에 의해 이른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의 출현이 약 5만 년 전이라는 학설도 세워졌음을 전제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빙하기가 끝난 1만 년 전부터 현재와 엇비슷한 기후 조건에서 인간은 본격적인 농경과 목축을 시작했고, 문자를 통해 역사를 고증할 수 있는 기원전 3천5백 년 전부터 인류의 4대 문명이 등장했다.

본래 문화(culture)는 어원학적으로 보면 직접적으로 자연을 일구는 것(agricultura)에서 유래했고, 이차적으로는 정신과 영혼을 계발하는 것(cultura anima)을 뜻했다. 따라서 인류는 그 진화 과정에서 인간에게 보다 특징적인 이성 과 정신, 그리고 영혼을 연마하여 자연을 인간의 생존에 알맞도록 조직 변형하여 문화를 구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좁은 의미의 문화는 정신적인 것으로서 지적 이고 예술적으로 진행된 추상적 실체를 의미하고, 문화인류학과 같은 사회과학적 차원에서의 문화는 감각적이고 경험적인 것으로서 눈에 보이는 구체적 실체를 지시한다. 넓은 의미의 보편적 문화 개념은 정신적인 문화와 구체적인 문화 모두를 아우르는 것으로서 타일러(E. B. Tylor)의 표현을 빌릴 경우, “문화 또는 문명은 지식과 신앙, 예술, 도덕, 관습 및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습득한 다른 모든 능력과 습관을 포함하는 복합적 총체”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편적 의미의 문화가 광의의 문명과 동일하게 쓰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19세기 독일 사상으로 인해 초래된 것이지만, 협의의 문명이 물질적 조직의 영역으로 국한되고, 문화가 가치와 의미의 영역으로 제한됨으로써, 협의의 문명이 정신적 의미의 문화와 대조적인 것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생겨났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여기서 우선 우리는 서구 사상사에서 문명(civilization) 개념이 매우 자기중심적이고 배타적으로 쓰여 왔으며 또 여전히 그렇게 쓰이고 있는 데 대해 새삼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자 한다. 18세기 프랑스의 사상가들은 유럽 이외

민족의 야만(barbarism) 상태와 대조적인 것으로서 문명 개념을 사용했다. 바로 그 서양의 문명이 한때 인류사회의 평화를 극심하게 유린하는 제국주의 양태로 발전했고, 20세기 들어서서는 환경 재난에 따른 막심한 생명 위기를 촉발하고 있지 않은가?

산업문명과 환경 재난

사실 환경 문제는 산업문명 이전에도 발생한 적이 있다. 예컨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그 양적 성장을 구가하는 과정에서 도시 비대화에 따른 인구집중, 많은 인구를 부양하기 위한 경작지 확충, 농수 확보를 위한 관개수로망의 확장을 과대하게 지속했다. 관개수로는 강에서 유입된 물을 경작지로 용이하게 이끌어 들이지만, 그 과정에서 물에 잔류하는 진흙과 모래가 쌓이고, 이것이 다시 수로 인근에 쌓임으로써 배수를 방해하게 되었다. 그 결과 역시 물에 함유된 소금기가 바다로 배출되지 못하고 경작지에 축적되며, 마침내는 염분에 민감한 밀의 작황을 떨어뜨리게 되었다. 당연히기도 도시에 빈곤과 분쟁, 전염병 창궐이 야기되면서 문명을 극도로 취약하게 만들고 거기에 외적이 침입하자 무기력하게 몰락하고 만 것이다. 여기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유지하게 해준 바로 그 요인 자체가 확장 일변도로 치달으면서 도리어 문명의 몰락을 재촉하고 말았다는 사실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농업문화가 유지되던 시절의 환경 재난은 우연적이었다. 문화가 존속하는 과정에서 그 터전으로 삼은 생태계에 과부하를 줄 경우 그 피해가 부메랑처럼 되돌아옴으로써 문화의 취약화로 귀결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오늘의 산업문명은 본디부터 이미 구조적으로 막심한 환경 재난을 초래함으로써 생명 일반의 위기로 치닫게 하도록 마련돼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산업문명의 자연 이데올로기는 자연을 자원(resources), 즉 인간의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로만 간주한다. 물론 인간의 목적 자체도 오로지 물질적 성장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도시와 공단으로 대표되는 인조환경 속의 인간은 논밭의 경작지와 야생 자연환경으로부터 자원을 채취하여 상품을 생산하고 유통·소비하며, 끝으로 폐기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공해와 오염 요인을 떠안은 생태계가

정화를 통해 감내할 수 있는 가능성을 훨씬 넘어서게 되는 정도로 자연 황폐화와 개체 동식물의 질병과 죽음, 동식물 종의 소멸로 이어진다. 그리고 미래세대 인류가 현세대와 같은 정도의 필요한 산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자유와 행복 추구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며, 더 나아가 방사성 및 유해 화학물질과 같은 요인에 의해 생명과 건강에 대한 권리를 근원부터 침해하는 방향으로 이행한다. 바로 이것이 구조적으로 진행되는 까닭에 물질적 행복 추구에 주안점을 두는 산업문명은 곧바로 생명 위기의 직접적 뿌리임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 선언하지 않을 수 없다.

산업 자본주의와 환경 그리고 평화 유린

산업문명의 핵심 체제인 자본주의를 비롯한 일체 물질문명이 자연을 착취하여 환경 문제를 초래하게 된 것은 그 안에 이미 그것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지배적 사회구조를 잉태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다. 토지를 비롯한 생산수단 일체에 대한 사적 소유를 허용함으로써 사회의 계급적 차별을 조성하고, 이에 도전하는 민중의 요구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자본가와 지배 엘리트는 국가에 의한 유형무형의 폭력을 법의 이름으로 정당화해왔다. 이것은 민족 간에도 역시 그대로 재현됨으로써 지구촌에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속의 무역 전쟁이라는 구조적·간접적 폭력의 형태로 후진국과 제3세계 민중의 삶을 도탄으로 빠뜨리기 일쑤였고, 심지어 자원 확보와 패권 유지를 위해서 비극적 전쟁을 벌이는 극단적 반문명의 양태까지 보여 왔다. 최근 미국의 부시정권이 9.11 테러에 대한 보복으로 저질러왔던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 침공도 그와 똑같은 선상에서 발생한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산업 자본주의는 민족 간의 평화 유린에 그치는 정도가 아니라 환경 위기를 부르는 주범임을 부인할 수 없다. 고전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Adam Smith)는 보이지 않는 손인 시장경제 체제 속에서 사회의 경제주체 각자가 오직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 영리 활동을 수행하면 결국엔 모두가 잘 사는 번영의 사회가 도래한다고 보았다. 그것은 귀결점을 모두가 잘 사는 공리주의 사회로 치장했지만, 자본주의 세계화가 촉진된 결과 30대 70의 사회가 20대 80의 대결구조 사회로 더욱 그 모순을 심화하여 빈부격차가 날로 커지고 있는 데서 보듯이, 출발

선상의 본질적 이기주의를 교묘하게 은폐한 감언이설에 불과함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더욱 참담한 것은 자본이 자연을 자원으로 적극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배타적으로 향유하는 과정에서 오염의 외부화를 통해 비용 부담을 최대한 기피하고, 그 결과 지구촌 생태 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자본과 권력은 자연적 존재와도 함께 공유해야 할 바로 그 산 생명인 자연에 대해 기계 장비류와 같은 시설을 들이대고 무차별 약탈 착취하여 이익과 혜택을 독점적으로 향유하는 반면, 그 과정에서 야기되는 생태학적 불이익과 부담을 오히려 힘없는 일반 민중에게 전가하는 생태적 부정을 자행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동료 인류와 함께 하는 평화, 자연과 더불어 사는 평화를 위해 산업 자본주의를 극복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을 선언한다.

산업 사회주의와 환경 그리고 폭력

그렇다면 산업문명의 또 다른 체제인 사회주의는 인류 평화와 환경 위기 극복의 유력한 대안일 수 있는가? 적어도 사회주의가 토지를 비롯한 생산수단의 공유화를 도모하고 또 계획경제에 의해 자연에 다가가고자 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생태 및 생명 친화적인 요소가 있음을 부인하지 않겠다. 그러나 우리는 야수와 같은 자본주의 생산양식을 사회주의의 그것으로 대체하면 문제가 풀릴 수 있으므로 새로운 형태의 생명 윤리나 동양적 신비주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따위의 매우 피상적인 주장에는 결코 공감할 수 없음을 밝히는 바이다. 왜냐하면 사회주의도 그 기본 착상이 생산력주의에 매몰되어 끊임없는 성장(sustainable growth)을 도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의 경제는 지구 생물권 경제의 하위 영역이고, 지구 생물권은 생태 경제학의 기본 전제에서 보이듯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결코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에는 또 다른 치명적 문제가 있다. 전체주의 사회를 지향하면서 드러났듯이 전체로서의 사회를 위한다는 미명 아래 개체 민중의 자유와 고통, 생명을 침해하거나 도외시해왔다는 점이다. 인간의 경우, 나 자신에게 좋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 예컨대 마음의 양식인 책을 읽기 위해서 내 신체의 일부인 눈의 피로를 마땅히 감수해야 할 것으로 여기는 어리석음과 같은 것이다. 현존 사회주의가 빠져든 전체주의에서는 사회가 목적으로 부상하고, 개개인은 부분으로 축소된다.

따라서 사회의 생산성 증진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일부 민중이 입는 환경 및 생태·생명학 상의 피해는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치부된다. 1986년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 발생과 사태 수습 과정에서 보듯이, 일부 민중의 환경상의 부담은 불가피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것은 전체를 대변하는 권위주의 질서, 예컨대 공산당과 국가관료 체제 등이 저지를 수밖에 없는 필연적 귀결이다. 따라서 우리는 또한 산업 사회주의를 극복하는 선에서 새로운 대안 문명을 추구하되, 그곳에서는 사회 구성원 각자의 개별성과 자율성이 근원적으로 존중되고 또한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지구, 즉 ‘생명지속적 발전(life-sustaining development)의 방향(백낙청 교수)을 만드는데 주력하지 않을 수 없다.

생명 위기의 근원적 뿌리

왜 자연에 대해 착취적인 문명이 서양에서 가장 강력하게 태동한 것인가? 그것은 산업문명의 자연 이데올로기인 산업주의(industrialism)를 천착할 때 드러난다. 산업주의는 자연을 인간을 위한 도구로만 여긴다. 여기서 주객 이분법적 사유체계에 의해 인간과 자연 영역이 둘로 분리되고 그리고 인간은 목적(ends), 자연은 수단(means)이 된다. 이런 유형의 사유체계는 멀리 플라톤적인 이원론의 회랍적 사유와 로마의 실용주의 사관, 그리고 중세 시절 진행된 유대교-그리스도교 자연관의 왜곡된 해석, 가부장제 의식 등에서 비롯되었다. 이에 따라서 산업문명과 자본주의, 제국주의가 출현하고 또 그 악순환을 더욱 강화해왔다. 자연을 착취 대상으로 당연시하는 인류 역사에서 계급 차별과 성 차별, 인종 차별에 따른 극심한 폐해가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했다는 것은 어찌면 당연하고 또 그 연장선상에서 막심한 생명 위기가 초래되었다는 것도 역시 당연하다 할 것이다. 지구촌 그 어느 곳에서나 잠재적으로 문제의 소지를 부분적으로 다 잉태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서유럽에서 가장 심각했던 것은 문제의 요소가 가장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분법적 분리주의 사유와 우열에 따라 지배-피지배로 고착화하는 지배체계가 핵심을 이루며, 이것이 역사 속에서 각양각색으로 현실화하면서 민중과 자연에 온갖 피해를 주게 된 원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 또한 거듭하여 그 진실을 선언하는 바이다.

근대 과학 및 현대 과학기술의 성격과 폐해

1967년 린 화이트 2세(Lynn White, Jr.)가 사이언스지를 통해 발표한 것처럼, 오늘날 환경위기가 가속화하게 된 것은 현대과학기술이 경제성장의 엔진으로 결합된 데서부터 비롯된다. 자연에 대한 사실 탐구를 목적으로 하는 과학과 문화적 도구 사용방식의 총체인 기술의 결합이 19세기 중엽 이후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자원으로서의 자연 수탈을 계속 심화시켜왔다. 이로써 옛 농업 등에서 관찰되듯이 인간이 생존 차원에서 자연에 부드럽게 다가가는 도구로서의 연장 문화는 실종되고, 흉물스러운 기계류 일변도의 자동 기계화 문명으로 전환되었다.

그렇다면 환경재난에 책임이 있는 것은 현대의 과학기술일 뿐 근대 과학은 관계가 없다고 단언할 수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근대 과학의 이상을 제시한 베이컨(F. Bacon)은 자연을 그대로 내버려두기보다 인위적인 도구(기계장치)로 시험하고 고문하고 괴롭혀야 스스로를 잘 드러내며, 그럼으로써 자연 이용을 촉진하여 인류 제국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데카르트(R. Descartes) 역시 정신과 물질을 이분법적으로 분리함으로써 정신을 지닌 인간이 기계론적 법칙이 적용되는 자연에 대해 아무 거리낌 없이 지배와 약탈적 오만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었다.

지배적 세계관 및 가치관과 기계론적 법치주의가 결합하여 조성된 기계론적 자연관은 현대의 과학기술에 그대로 전이되었다. 무엇보다도 그 선봉에 선 생명공학은 자연 생명은 물론 인간 생명마저 도구화하여 조작을 일삼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음을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늘 인류의 복지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외형적으로 내세우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오직 금력과 권력의 유지와 확장이 그 근본동기임을 고발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45억 년의 기나긴 지구역사에서 현대인은 거의 찰나에 불과한 현금까지의 불과 100여 년 만에 것처럼 생명력이 충만하던 지구 생물권과 각 생태계를 더 없이 황량한 불모지로 만들어버린 데 대해 다시금 경악을 금치 못한다. 보다 우려할 만한 것은 자연이 그 해법을 거의 알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단기간 시험한 유전자 조작 생명복합체가 기업에 의해 상품화되어 자연으로 대량 유출됨으로써 생태계를 극도로 교란시키고 나아가 인간에게 먹이로 되돌아옴으로써 인간의 생명피해를 가중시킬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며 이의 극복의 길에 대한 우리의 지속적 노력을 선언하는 바이다.

역사로부터 배워야 할 교훈

우리는 인류의 문명이 자연에 대해 짐을 지운 부담과 그에 따른 인류의 피해로부터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첫째, 한 문명 또는 문화와 그것이 터전으로 삼고 있는 생태계는 외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목적과 수단, 주체와 대상의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유기적으로 이어져 있음을, 달리 말해서 생명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한다. 둘째, 생태계에 기반한 문화 또는 문명이 그 생태계의 생명부양 여력을 넘어설 정도로 팽창하게 될 때, 그 문화 또는 문명이 몰락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셋째, 현 산업문명은 그 본질을 유지하는 선에서 어떤 체제를 구축하든 구조적으로 생명 위기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한다. 넷째, 향후 문명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자연적으로 지속 가능한 문화를 재구축해야 하는 바, 그것은 필연적으로 생명에 대한 존중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생명 지속적 발전’ 또는 ‘생명학’ 그리고 순정한 우리말로써는 ‘살림’이라고 표현하기로 한다.

자연 친화적 대안 문명을 찾아서

원시 자연 속에서 나타난 지구촌 인간의 문화가 서구적 길을 걸으면서 자연 억압적 형태를 취하게 되었고, 그 결과 생명에 대한 보편적 죽음의 문화로 더욱 변질되고 있다. 특히 오늘의 산업문명의 생활양식은 자원 채취에서 상품 생산, 그리고 소비를 거쳐 폐기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생명을 존중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오늘의 우리는 새로운 문명을 적극 개척창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역사적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생명의 살림에 바탕을 두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것을 새 문명 패러다임의 두 가지 원리로 분별할 수 있다. 하나는 이분법적 분리주의를 대체하는 것으로서 생명, 우주 생명의 유기적 관계성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것, 다른 하나는 우열에 따른 지배와 억압의 사유체계를 청산하고, 이를 대신할 호혜적 상생의 사유체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를 이성적으로 인식하는 지평을 포괄하되 더 나아가 자연적 감성과 생태적 영성의 차원에서 조망할 때, 바로 생명 윤리의 안팎인 ‘모심’과 ‘살림’으로 그것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다.

‘모심’과 ‘살림’이라는 새 문명의 두 화두는 생명적 기반인 자연과 인간사회의 관계에 대해 그리고 사회 내에서의 인간간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연속적 세계기를 포함한다고 본다. 한편으로 자연 생명을 존중함으로써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문화 즉 ‘생명지속적 문화’를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인간의 문화 구성원 각자가 개별성과 자율성을 갖고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되, 서로 협력적으로 기대어 살아가는 ‘생명의 분권적 융합’, 즉 ‘호혜관계망’을 구성하고 동시에 자연으로부터 얻는 혜택을 공정하게 향유함으로써 정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 생명호혜관계망으로 구성된 문화 민족이나 나라들 간에 앞의 두 원리가 반복 적용됨으로써 지구와 주변 우주 간의 평화를 포함한 일체 자연과의 평화는 물론 지구촌 인류간의 평화와 인간의 내면적 평화 등 모든 평화가 함께 이룩되도록 해야 한다.

서구 생태주의 사상의 존중

우리는 환경위기 시대에 서구에서 대안적 생태주의 사상이 등장한 것을 진실로 반갑게 여기며, 그 기본 정신을 존중하고자 한다. 다만 전통적인 분리주의 및 지배적 사유체계의 산물인 생물학적 인식과 과학기술에 의한 해법과 자본주의 경제학이 서로 합세하여 만들어 내는 기술 중심의 환경 관리주의에 대해서는 문제를 본질적으로 호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경계, 비판하고자 한다. 특히 ‘비용-이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에 의해 자연의 ‘이용’과 ‘보존’을 결정하려는 속 좁은 ‘환경경제학적 시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반대로 몇 갈래의 서구 진보적 생태주의 사상의 출현에 대해 우리가 이를 적극적으로 반기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속 좁은 자아를 넘어서서 이웃은 물론 온 인류 그리고 자연까지 하나로 이어지도록 하는 큰 자기실현(Self realization)과 지구상의 모든 생명이 말 그대로 평등하다는 생명 중심적 평등(biocentric equality), 이 두 규범을 초기에 천명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새 물꼬를 튼 심층 생태주의(deep ecology)의 기본 정신을 우리는 소중히 여긴다. 또한 지구를 가이아(Gaia) 생명체로 인식하여 우리가 목숨을 기대어 살아가는 지구의 소중함에 대해 영성적 통찰을 제공한 가이아 생명론에 대해 우리는 찬사를 보낸다.

또 달리 인류가 직면한 환경위기는 근원적으로 인간과 자연의 그릇된 관계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 오히려 인간 사회 내에서의 구조적 요인에 의해 초래되었다는 인식에도 상당한 정도로 공감을 표한다. 대표적으로 인간 사회의 서열화(hierarchy) 의식과 구조가 사회적 차별과 계급적 착취 그리고 자연 억압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인류 사회에서의 층층이하 서열구조를 혁파하는 선에서 인간의 절대적 자유를 존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자치주의와 연합주의를 구현하며 동시에 자연과 친화 관계로 들어가는 제3의 자연, 즉 자유 자연(free nature)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회 생태주의(social ecology)로부터 많은 것을 시사 받을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긍정한다.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hierarchy)가 여성 억압을 형성하고, 이것이 자연으로도 이어져서 남성적 인간에 의한 자연 억압으로 진행되었다고 보는 생태 여성주의(ecofeminism)의 통찰에도 역시 깊이 공감한다. 또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사회 내에서의 여성 차별을 초래하는 가부장제 의식과 제도를 원천적으로 청산하고, 그런 기반 위에서 자연에 대해서도 존중과 배려, 돌봄의 자세로 다가가는 페미니즘의 윤리적 자세를 새로운 생명학의 근거 위에서 참으로 높이 평가하고자 한다.

또한 대다수 환경단체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멸종에 처한 동식물 종을 보전하고자 환경운동을 전개할 때 상대적으로 선진국 백인종 남성의 시각으로 접근한 탓에 일부 놓치는 부분이 있었고, 이것을 인권 운동의 시각에서 환경적 사안에 동참하여 바로 잡은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조망을 존중한다. 실제로 자연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혜택이 주로 사회적 강자 집단에게 돌아가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태학적 피해와 부담은 주로 사회적 약자 집단, 예컨대 후진국·피지배계급·유색인종 · 여성·아동·미래세대 인류에게 전가되면서 자연으로 이행함을 적시하고, 이를 정의의 차원에서 바로잡고자 시도한 것에 대해서도 역시 경의를 표하고자 한다.

서양 생태주의 사상의 부분적 한계

우리는 기본적으로 서구의 다양한 생태주의 사상으로부터 소중한 정신과 실천적 내용을 배울 수 있었음을 고백하는 바이다. 그러나 서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자연 친화적이었던 문화권에서 살았고 또 풍성한 문화를 유산으로 물려

받은 동아시아와 한국인의 지평에서 바라볼 때 역시 그 심각한 한계를 느끼지 않을 수 없음을 또한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다. 서구에서 채워지지 않은 것을 동아시아와 한국에서 채우면서 서로 호혜적으로 창조적 협력 관계에 들어설 때 비로소 위기 극복을 위한 진정한 전 인류적 전 지구적 해법을 모색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예컨대 심층 생태주의는 인간 사회 내에 존재하는 불평등 구조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제대로 제시하기 어렵다. 가이아 생명론은 전일론적 생명론으로 이행하는 까닭에 지구 여신을 섬기고 숭배하는 데 적합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어도, 전체주의에 빠진 사회주의와 마찬가지로 인간 개체의 생명을 존중하는데 적합하지 않을 수 있고, 동아시아의 풍수, 특히 한국 자생풍수학을 그 근원적 바탕으로 적극 접수하지 않으면 지구 치유의 참된 심층적 지구생리학, 의학으로 양양될 수 없음을 우리는 직감한다. 심층 생태주의 역시 이런 한계 안에 머물러 있다. 사회 생태주의는 변증법적 자연주의에 의존하는 까닭에 생명사태가 자연스럽게 자유 자연으로 이행하게 될 수 있다고 봄으로써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인간의 자발적 노력을 고무시키기 어렵다. 생태 여성주의의 경우, 자칫 지구를 구하는데 여성이 더 나을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가부장제의 남성 우월주의를 똑같은 형태의 여성 우월주의로 역전시켜 버릴 수 있다. 그리고 이 역시 동아시아, 특히 한국의 여성생명학의 전통으로 남녀사이의, 여성중심의, ‘기우뚱한 균형’으로서 보완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환경정의 운동은 실천적으로 전개된 강점을 갖지만, 너무 인간주의적 접근이라는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

물론 여기서 행하는 비판적 지적이 서구의 생태주의 사상이 갖는 소중함을 폄하하는 것도 아니고 또 동아시아의 전통적 생명사상이 그런 한계를 모두 불식하는 최고의 해법을 갖고 있다고 말하려는 것도 아니다. 우호적인 비판은 위기의 깊음을 반영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서양의 생태주의 사상을 존중하되 분명 동아시아 생명사상 안에 서구의 한계를 불식시킬 명백한 실마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발하여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서구의 것과 호혜적이면서 창조적 협력적으로 문제를 함께 풀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동아시아의 우리가 제시하는 것은 물론 생명을 존중하는 지구촌 어떤 민족의 고유한 통찰도 역시 우리는 그 가치를 겸손히 평가할 것이다.

동아시아 생태주의의 원형

동아시아 문화권이 상대적으로 서구 문화권에 비해 자연 친화적일 수 있다. 그 이유는 문화를 이루는 핵심 요소인 종교와 종교 이전의 샤머니즘이나 신화 역시 매우 깊은 층위에서 자연 친화적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불교는 삼라만상이 모두 인연관계에 놓여 있다는 연기설(緣起說)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인간 생명은 인간 이외의 생명에 대해 신중함과 존중의 자세로 다가가지 않을 수 없다. 노장 사상 역시 생명 창조의 우주론적 원리로서 도(道)를 주창하고, 자연의 흐름에 일치하는 행위만을 무위(無爲)로 일컬어 도의 산물로 볼 뿐, 그 흐름에 역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인위적 작위(作爲)로서 도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유학은 그 안에 가부장제 요소를 간직하고 있는 만큼 자연 억압적일 수 있는 소지를 품고 있지만, 주역의 음양론 체계에 의존하는 정도로 자연에 부드럽게 다가갈 수 있고 공자가 논어에서 “도가 인간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도를 기른다”(子曰, 人能弘道, 非道弘人)라고 한 데서 보듯이 인간이 자연의 참가자이자 완성자일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실재의 역사에서도 제왕의 도덕정치는 ‘오역(五逆)’, ‘오사(五事)’ 등 정치의 철두철미한 환경오염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유불선에 영향을 받은 동아시아의 자연 친화적 문화를 복원하고 또 그것을 창조적으로 재차원에서 발전시킴으로써 서구의 지혜와 더불어 새로운 문명으로의 전환을 도모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 실현의 길이 바로 ‘생명과 평화의 길’이며, 그 길은 환경론과 생태학을 넘어서되, 그 뼈대와 진리는 그대로 제 안에 품어 안는 새로운 ‘생명학’, ‘우주 생명학’ 성립의 길인 것이다.

한민족 생명문화의 원류

동아시아 문화권을 대표하는 것이 중국 문명임을 부정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도 모든 것이 중화로 그 중심이 확정되거나 획일화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 전래의 풍류 사상은 매우 심오하고 고유한 특성을 지니면서, 장차 생명학, 생명사상의 모태로 작용할 수 있고 그 모태를 드러냄으로써 그 해석학적 촉발력에 의해 중국의 관료 지식인들이 수십 세기에 걸쳐 수직적 통치 체계로 봉인하여 사장한 고대 이래 유불선 모두의 깊은 생성론과 혼돈적 생명론을 부활시킬

수 있으며 또 실제로 근대의 동학사상을 통해 그 창조적 부활이 웅숭깊게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신라 말의 뛰어난 유학 사상가 고운 최치원은 「난랑비서」(鸞郎碑序)에서 “우리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으니 이를 풍류라고 한다. 가르침을 세운 근원은 선사에 자세히 실려 있는데, 사실 애당초 유불선 삼교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중생과 접촉하여 이를 교화한다.”(國有玄妙之道，曰風流，設教之源，備詳仙史，實乃包含三教，接化群生.) 계속해서 예를 들자면, 공자의 충효와 노자의 무위, 그리고 불교의 선행을 언급하면서, 이런 삼교의 정신이 이미 우리 고유의 전통인 풍류 사상 속에 담겨 있어서, 그것을 받아들이기에 용이했음을 적고 있다.

다소 고증이 취약해서 일 뿐이지, 우리 민족은 오래 전부터 어질고 착한 군자의 나라였다. 한때 허황된 위서(僞書)로 취급을 받았지만, 근자에 갑골문에 대한 해독을 토대로 동이계(東夷系) 방사(方士), 술사(術士)의 저작으로서 일부 신빙성이 확인된 요동의 지리서 『산해경』(山海經)은 동쪽 군자의 나라 사람은 천성이 유순(天性柔順)할 뿐 아니라 삶을 좋아하고 죽이지를 얹으며(好生不殺生) 사양하기를 좋아하고 다투지 않는다(好讓不爭)고 적고 있다. 『이아』(爾雅)에서도 동쪽으로 해 뜨는 곳에 이르니, 그곳이 태평(太平)인데, 태평 사람은 어질다고 적고 있다. 공자도 『논어』에서 바다 건너 군자의 나라에서 살고 싶다고 술회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하듯이 『한서』(漢書) 「지리지」에서는 공자께서 도가 행해지지 않음을 슬퍼하여 천성이 유순한 동이(東夷)에게로 가서 살고 싶어 했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 민족은 어질고 착할 뿐 아니라 죽음과 다툼을 싫어하였으니 이미 현대 인류와 지구 및 주변 우주 생명이 목마르게 기다리는 ‘생명평화의 길’을 애당초 포함하고, 또 유불선의 기본 정신을 담은 고유의 풍류 사상을 이전부터 갖고 있었으니, 한편으로 사회 속에서 정의를 실현하고 또 민족 간의 평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자연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깊고 넓고 높은 새 차원의 인류적·우주적 생명평화사상의 참다운 원형을 간직했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사료적 가치가 있는 문헌으로 전하는 것이 빈약하다고 해도, 그 기본 정신을 찾아 우리 민족 스스로 나아가 모든 동아시아 민족들의 참여 속에 동아시아-아시아의 고대 르네상스를 주도 촉발함으로써 환경위기 시대에 고유의 생명사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동풍(東風East Turning)에 관하여

목하 중국은 인류역사와 동아시아사상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일대 추문(醜聞), 문화적·역사적·사상적인 일대 조작극을 꾸미고 있다. 한민족의 역사적 하이라이트인 고구려사와 발해 및 부여사 나아가 고조선까지(이것은 한민족의 고대사 전부다)를 자기네 역사라고 주장하면서 기록과 유물, 유적 전체를 날조, 위조하고 있다. 이른바 ‘동북공정’이다. 우리는 이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정치적 전쟁이 아닌 일대 역사전쟁을 선포하는 바이거니와 이 전쟁은 곧 한국 민족과 중국 민족, 일본 민족을 포함한 모든 동아시아 내지 전 아시아 민족들이 다 함께 참가하는 (물론 아메리카와 유럽, 모슬렘과 남미, 아프리카 역시 참가해야 할 것이다.) ‘아시아 고대르네쌍스’를 통해 전 아시아, 전 동아시아 민족이 공동 창조한 고대 문명 및 역사로부터 인류가 앞으로 창조해야 할 21세기 신문명의 강력한 암시를 획득해내는 과정에서 특이한 창조력을 크게 발휘해온 한민족의 고대사의 정의를 탈환할 것이다.

그것이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의 역사라는 것 외에 또 무엇을 더 강조해야 할 것인가? 강조해야 할 것은 중국 고대사와 고대사상에 등장하기는 하지만(물론 한민족과의 공동창조 내용이므로) 실질이 없는 사상들, 그러나 한민족에게는 중심이요 주류를 이루었으되, 중국 사상사 안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3천년 전 주(周)나라 문명성립 이후부터 봉건제, 가부장제, 장자세습제, 천원지방(天圓地方)의 농업적 세계관과 억음존양(抑陰尊陽)의 남성우월주의 및 중국 중심주의의 관료지식인들에 의해 수직적 통치철학으로 단단히 왜곡·봉인되어 버린 채 ‘살아있지 못한’, ‘죽임당한’ 사상들을 그 ‘죽임’에서부터 풀어내어 ‘살려내는’ 일대 르네쌍스라는 점이다.

그것은 곧 중국 관료지식인들의 주류 통치철학인 존재론, 실체론과 로고스 및 코스모스적 우주론(유럽의 주류철학과 마찬가지로)에 가리워져 있는 생성, 혼돈, 과정, 생명, 변화의 사상 및 세계관, 우주관을 크게 들어올려 유럽의 경우 회랍의 스토아학과와 근세의 스피노자, 현대의 니체, 베르그손, 데야르, 푸코, 베이컨, 화이트헤드, 들뢰즈와 가타리 등의 비주류 생성 및 혼돈사상과의 결합(이중적 교호결합)을 통해 창조적 사상세계를 구축하며 대혼돈으로부터 인간, 사회, 자연을 구원할 수 있는 탁월한 통합적 과학 창조를 촉발하는 일이 된다.

목하 지금의 중국사상계는 르네상스는 커녕 참된 역사와 사상과 문화의 적(敵)인 거짓과 왜곡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고 일본 역시 크게 예외는 아니다. 오로지 한민족만이 분단되어 고통 받고 있으나 세계사의 새 차원에 등불을 켜야 하는 제 자신의 사명을 회미하게나마 깨닫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널리 알려져 있지만 지난 20세기 중반에 유럽에서 일어난 두 가지의 의미심장한 사건이 있다. 하나는 생태학과 녹색운동의 태동이요, 다른 하나는 생명의 내면인 영성(靈性)운동으로서의 ‘발도르프 학교’의 영성교육운동이다. 그 창시자인 위대한 신비주의자 ‘루돌프 슈타이너’의 다음과 같은 유언이 남아있다. “인류문명의 대전환기에는 인간의 새로운 삶의 양식을 결정할 원형(原型·Archetype)을 제시하는 성배(聖杯)의 민족이 반드시 나타난다. 그 민족은 본디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깊은 영성을 지니고 새로운 세계에 대한 이상을 갖고 있지만 거듭되는 외침(外侵)과 폭정(暴政)에 억압되고 훼손되어 그 이상을 쓰라린 내상(內傷)으로만 간직한 민족이다. 로마가 지배하던 지중해문명의 전환기에 나타난 그 민족은 이스라엘이었으나 그 때보다 더 근본적이고 광대한 전 인류문명사의 대전환기인 오늘에도 그 민족은 오고 있다. 그 민족이 지금 있는 곳이 극동인 것은 알겠으나 더 자세히는 나도 모른다. 그대들이 찾아내어 경배하고 배우라!” 이 유언에 접한 슈타이너의 일본인 제자이며 일본 인지학회(人智學會) 회장인 ‘다카하시 이와오(高橋巖)선생은 그 민족이 다름 아닌 한민족이며 근현대의 서세동점 등 문명사의 대전환기에 새 삶의 원형을 전 인류 앞에 제시한 것이 바로 동학과 동학계(최수운, 강증산 - 이와오의 주장)사상과 그 운동이라고 역설한다. 동학은 후천개벽(後天開闢)사상이요 원시반본, 무왕불복(原始返本, 無往不復, 원시가 그 근본을 되돌린다, 한번 간 것이 다시 돌아오지 않음이 없다)이라는 고대의 창조적 회복이다. 그렇다면 고대의 여러 동아시아 민족들과 함께 창조한 한민족의 독특한 세계관·우주관은 과연 무엇일까?

삼태극(三太極)에 관하여

북방 샤머니즘에 연계된 한민족의 고대 우주관의 핵심은 삼태극이다. 우실하(禹實夏)교수에 의하면 “태극의 한기운이고 셋을 품은 하나이며 그것은 동시에 동정과 음양(太極一氣, 含三爲一, 動靜, 陰陽)을 포함한다.”이다. 이것은 곧 천·지·

인(天地人) 삼극(三極)과 음양(陰陽) 이기(二氣)의 이중적 교호결합(二重的交互結合)이다. 우리 민족의 고서(古書)인 부도지(符都誌)에 의하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율려(律呂)’가 바로 이것이요 한민족은 물론 중국 등의 고대를 관통하는 우주 음악이요 세계의 정치경륜이며 인간내면의 가장 근본에 있는 무의식의 질서인 ‘율려’는 다름 아닌 ‘삼태극의 춤’인 것이다. 이것이 중국의 코스몰로지(혼돈을 억압하고 질서를 존중하는, 抑陰尊陽의 우주론)에 의하면 ‘12율려’이다. 그러기에 12율려의 중심음 또한 건괘(乾卦) 황종율(黃鍾律)로서 남자요 군자요 제왕이요 질서이며 중국이자 하늘이다. 그러나 한민족의 율려의 중심음은 황종이 아니라 협종률(夾鍾律)이다. 이것은 곤괘(坤卦)이니 황종의 반대이다. 더욱이 중국 사상 문화의 꽃인 율려의 철학 곧 주역(周易)이 끝나는 때(終萬物)요 새 우주만물이 일어서는 때(始萬物)의 역학(易學)으로 새롭게 탄생한 김일부(金一夫)의 정역(正易)에서는 우주의 질서인 율려를 거꾸로 뒤집어 여율(呂律)이라고 칭한다. 이것은 곧 율려의 코스몰로지에 대한 카오스모스(Chaosmos)의 탄생인 것이다.

이것이 다름 아닌 ‘생명학’이다. 이것은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인가? 이미 수 천 년 전에 한민족의 고전인 ‘천부경(天符經)’은 ‘한 처음이 처음이 없는 하나’요 ‘한 끝이 끝이 없는 하나다’라는 그야말로 ‘혼돈의 우주질서’를 제시하고 그 핵심명제를 ‘사람 안에 하늘과 땅이 하나다(人中天地一)’라고 규정하였다. 민족의 전통사상을 풍류(風流)라고 불렀던 대유학자 고운 최치원(孤雲 崔致遠)이 ‘이미 유불선의 이치를 애당초 다 갖추고 못 삶을 다 가까이 하여 감화·변화시킨다.’(包含三教接化群生)라고 말한 한마디에 이미 유불선 사이의 평화와 못 생명의 상호관계성이 제시되었고 벌써 삼태극의 춤이 작동하고 있으며, 대불교승려인 원효(元曉)안에 먼저 ‘부처와 불법과 스님의 세 가지 보물인 목숨의 진리에로 목숨을 들어 돌아간다(歸命三寶)’는 명제 속에 이미 삼태극이 나타나 ‘현실총괄의식인 칠식과 초의식, 무의식인 팔식을 깨달음과 어리석음의 양자가 다 들어있는 팔식에 터를 둔 한마음(一心)으로 통합한다’로 비약하고 ‘그렇지 않음과 그럴듯함의 양면에서 어우러지는 통합적 판단’에로 넘어가서 드디어는 십문화쟁(十門和諍)과 비승비속(非僧非俗)의 무애무(無碍舞)로 차원을 바꾸어 버린다. 이어서 한민족의 유불선 사상사와 역사, 문화의 절정에는 반드시 음양을 동반한 셋이면서 하나인 삼태극의 춤이 움직였음을 알아야 한다. 어찌 일연(一然)과 이승휴(李承休)만이랴! 현금 유럽의 선진과학이나 들뢰즈의 결론인, 카오스문화의 ‘삼축(三軸)-이축(二軸)’론 등이 바로 이 같은 생명의 춤 ‘삼태극’에 연속되어 있음은 전혀 놀랄만한

일이 못된다. 세계 사상사의 미래를 동아시아 고대 르네상스를 통해서 창조하려 할 때 반드시 한민족 사상사의 생명학의 근거인 ‘삼태극의 춤’을 제 길로 삼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동학과 생명사상

동학은 북방 샤마니즘의 ‘삼태극의 춤’과 천부경의 ‘사람 안에 천지가 통일되어 있다’의 명제와 함께 풍류의 생명사상을 중심으로 하여 안으로 유불선의 전통과 밖으로 기독교의 충격을 통합하면서 5만 년 전 원시를 새 차원에서 창조적으로 부활시켜 후천개벽을 주장하기에 이른 인류사상사 최고의 대변혁사상이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한 생명학으로서 대전환기의 새 삶의 원형을 인류 앞에 제시하는 성배(聖杯)의 민족사상이다. 동학은 선약(仙藥)이다. 고대의 풍류선도의 무병장수(無病長壽)의 생명학이다. 동학은 영부(靈符) 즉 천부(天符)를 제시한다. 루돌프 슈타이너가 예언한 바로 그 성배요 원형이라는 추론도 가능할 듯하다. ‘그 모양은 태극이요 또 그 모양은 궁궁.(其形太極 又形弓弓)’이라함이 그것이다. 그 뜻은 ‘코스모스요 동시에 카오스다.’ 그리고 ‘선천의 원형이요 동시에 후천의 원형이다.’(후천개벽은 선후천이 동시에 균형을 이루되 후천 쪽으로 무게중심이 기우는 ‘기우뚱한 균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태극은 주나라 이후 2천 8백년 선천(先天) 시대의 코스몰로지인 주역의 상징이요 궁궁은 19세기 말 서세동점의 지구변혁기에 민생의 비밀장소로서 정감록에 예언되어 나타난 혼돈의 구멍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동학의 원형은 다름 아닌 ‘카오스모스(들뢰즈, 가타리의 패러다임인 Chaosmos, 혼돈의 질서)’다. 그 이유는 다음에 아주 명백하게 밝혀져 있다.

동학은 하느님을 ‘지극한 기운(至氣)’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첫째, 1902년경 전주 모악산 밑 구릿골(銅谷)에서 천지공사(天地公事)를 집행하던 후동학(後東學)의 강증산(姜甞山)이 ‘수운(水雲)의 지극한 기운(至氣)이란 울려를 말하는 것이고 울려가 이제부터 후천세상을 다스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둘째, 이것은 수운에 의해 해설되기를 ‘혼돈한 근원의 질서(混元之一氣), 즉 혼돈한 태극일기(太極一氣)’요 이전의 성리학에서 주장하던 이(理)와 기(氣)의 모든 공능(功能)을 다 가진 것으로 극에 이르러 그 신령한 힘을 발휘한다 하였다. ‘혼원지일기’는 다름 아닌 ‘혼돈의 우주질서’이니 곧 ‘카오스코스모스’, ‘카오스모스’다. 셋째, 동학은 진화론

이며 더욱이 ‘창조적 진화론’이다. 수운의 모심(侍)에 대한 해설의 구조가 대고생물학자요 대진화론자인 페이아르 드 샤르탱의 ‘인간현상’ 중의 핵심사상인 ‘진화의 3대 법칙’에 그대로 일치하며, 수운의 ‘아니다, 그렇다(不然其然)’라는 글은 그대로 진화론, 특히 ‘창조적 진화론’인 ‘조화론(造化論)’으로서 유럽과학과 종교조차도 갈망만 했지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과학종교의 기원 곧 ‘창조와 진화의 통일’ 곧 ‘창조적 진화론’에 신령한 빛을 비추어주고 있다. 더욱이 진화의 주체로서의 하늘(天) 또는 신(神)을 일체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공(空), 허(虛), 무(無)로 남겨두고 그 공경에 가득 찬 ‘님’의 진화활동만을 해설함으로써 삶에 시시콜콜 간섭하는 고대적인 신이 아니라 ‘활동하는 무’, ‘창조하는 자유’로서의 신, ‘진화의 우주적 주체로서의 신’을 설정·인식할 수 있게 한 점이다. 다섯째, 동학은 다윈주의적 진화론의 한계를 일찌감치 벗어나 에리치 안치 등이 역설하고 있는바 선진적·통합적 진화론인 ‘자기조직화(自己組織化)’의 진화론을 이미 1860년에 인류사 앞에 제시하였다. 내면의 신령(神靈)과 외면의 기화(氣化) 사이의 이중적 교호과정을 진화로 봄으로써 자기조직화로서의 진화의 핵심을 찔렀다. 더욱이 그 다음에 페이아르까지도 잘못 인식한 바 있는 ‘군집(Union)은 개별화(Differentiation)한다.’는 법칙을 역으로 뒤집어 현대의 자유와 자기선택의 진화론에 여명을 비추듯이 ‘각 개체 개체가 제 안에서 움직이는 우주적 불가불리성(不可不離性·朱子の ‘不移’)을 나름 나름으로 깨달아 실현한다.(一世之人, 各知各移者也)’라고 명언함으로써 여섯째로 해체 및 탈중심과 함께 새로운 ‘배열’이나 ‘계열화’나 ‘축매’ 또는 ‘뿌리’의 탈중심적 중심성을 논구해 역시 생명과 영성의 ‘카오스모스’를 강조한 바 있다. 일곱째, 동학은 우주개벽과 사회혁명을 내면의 영성(靈性, 무의식)과 외면의 생명(生命, 생태학)사이의 ‘아니다·그렇다(不然·其然·no-yes의 생명 및 영성의 차원변화논리)’의 이중적 교호관계로, 그것을 드러난 차원과 숨은 차원 사이의 이축(二軸)적 교호관계 속에서 오행이라는 지구물질구성의 버리·법칙(綱·天)으로서의 하늘, 그 질료·물질(質·地)로서의 땅, 그리고 그 생명·주체(氣·人)로서의 사람의 삼축(三軸)의 요동으로 인식하고 있어 유럽철학 및 과학보다도 근원적으로 더 깊고 훨씬 더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는 점을 유럽의 과학·철학이 한참 차원변화한 오늘날에야 비로서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

생태학이 도달한 자연과 자유 사이의 통합, 혼돈과학이 결핍하고 있는 혼돈 나름의 독특한 질서, 생성철학이 갈망하는 삼축과 이축의 보다 긴밀한 통합과 거리(틈), 또한 창조와 진화, 의식과 복잡화, 개체와 융합 사이의 여러 가지 생명학적

명제에 대해 동학은 미래의 커다란 창조의 지평을 열어주고 있다.

동학의 평등주의와 페미니즘

동학과 동학계 사상들은 생명학에 입각한 평화와 평등의 사상이다. 최수운은 애당초 후천개벽의 밝고 밝은 운수를 각 개체 개체가 다 제 나름 나름대로 밝히라고 하여 개체의 중심성과 그 개체 개체들의 우주적 생명의 연속성을 함께 파악함으로써 평화와 평등을 보장한다. 내면의 정신과 외면의 물질복잡화, 내면의 수양과 외면의 사회적 변혁, 내면의 영성과 외면의 생명, 신(神)과 기(氣), 영(靈)과 화(化), 후천과 선천, 수련정진과 사회도덕, 숨은 차원과 드러난 차원, 개벽과 혁명, 접(接)과 포(包), 육임제(六任制)에서의 삼축(三軸)과 이축(二軸), 흥비(興比)와 비흥(比興) 등등, 이 모든 이항대립 사이에 ‘아니다그렇다’의 평등논리로 일관하여 근원적 평화 위에 삶의 평등한 변혁과 우주질서의 조율까지도 기도하였다. 포(包)가 유불선 삼교 명망가들을 포섭하는 네트워크였다면 접(接)은 호혜(互惠)관계인 계(契)의 공생(共生)적 형태를 띠었고 가장 혁명적 내용인 ‘안심가(安心歌)’를 최초의 신도인 자기 부인에게 헌사하고 노비 두 사람을 해방하여 딸과 며느리로 삼은 것은 물론 안심가에서 ‘어젯날 부귀자는 오늘날 빈곤자요 어젯날 빈곤자는 오늘날 부귀자’라는 개벽적 혁명내용이 모두 그러하였다.

수운 뒤 20년에 충청도 연산의 김일부(金一夫)선생은 자기의 후천역(後天易)인 정역(正易)에서 깨달은 자의 교화(教化) 및 문화론인 ‘십오일언(十五一言)’과 민중들 자신의 민주적 고대정치경제론인 ‘십일일언(十一一言)’ 사이에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근본에서 평등한 바른 체제를 세웠고 日月을 평등히 보았을 뿐 아니라 군자와 여인 등 소인 사이에서의 우주질서의 평등화의 기틀로서 율려를 ‘여율(呂律)’로 바꾸며, 주역의 ‘음을 누르고 양을 받들(抑陰尊陽)’의 체제를 변혁하여 ‘양을 고르게 하고 음을 춤추게 함(調陽律陰)’의 정역(正易)을 세움으로 ‘바름(正)’ 곧 평등을 취하여 생명평화의 기초 위에 정의를 굳혔다. 그러나 ‘혼돈의 질서’, ‘역동적 균형’, ‘해체적 계열화’ 등은 여율 만이 아니라 ‘여율적 율려’를 담은 민속학에서의 ‘본청(本淸)’에 와서야 비로서 활발히 표현되고 있는 한국 근대민중예술사의 필연적 차원변화론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일부 이후 20년에 등장한 강증산은 수운, 일부의 생명학에 기초한 평화와 평등

을 담대무쌍한 우주적 상상력의 차원에서 신비적으로 집행하였으니 그것이 바로 우주재판 즉 ‘천지공사(天地公事)’다. 강증산은 그의 제자 김형렬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인네들이 손으로 염주 굴리는 저 소리를 들어봐라. 수 천 년을 부엌데기로, 남자의 완롱거리로 구박받아 오며 쌓이고 쌓인 원한이 구천(九天)에 사무쳤다. 하늘이 이를 용납했으니 어찌 옛 여인네들만의 세상(母系)이 되겠느냐, 남녀가 동등한 세상이 오겠지!’ 강증산은 그 뒤 두 번째 부인인 고판례(高判禮)를 우주의 주체로 떠받드는 ‘천지곳’을 집행한다. 정읍 대흥리 차경석의 집에서 남자 수제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고판례의 누운 몸 위에 먼저 올라타고 식칼을 겨누며 증산은 왈, ‘천지대권을 받을 준비가 되었느냐’는 뜻의 질문을 한다. 그 뒤 자기가 스스로 눕고 그 위에 고판례로 하여금 올라타고 식칼을 겨누며 ‘삼계대권(三界大權)을 지금 당장 다 내어 놓으라!’라고 호통 치게 하고 거기에 대해 자기는 두 손을 싹싹 빌면서 ‘네에, 지금 당장에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한다. 그리고 난 뒤 마당에 불경, 성경, 사서삼경과 공명첩(功名帖), 계산서 등 온갖 서류를 다 갈기갈기 찢어놓고 고판례가 그 위를 밟고 다니며 걸땀이 각설이 타령조에 따라 춤추게 하였다. 증산은 제자들에게 이것이 바로 ‘천지곳’이니 천지태평의 길이라 말한다. 당시 강증산은 스스로 옥황상제 즉 하느님을 자처했으니 이 곳은 곧 그의 우주재판인 ‘천지공사’와 안팎을 이루는 ‘후천개벽의 페미니즘’인 것이다.

그러나 동학에서 평등, 평화, 페미니즘 사상은 사실 동학의 2대 교주인 해월(海月) 최시형(崔時亨)에 이르러 그 극치에 도달한다. 해월은 아예 동학의 명운을 ‘부인도통(婦人道通)’에 걸었다. 많은 부인들이 도통하느냐 마느냐에 동학의 흥망 성쇠가 달려있다고 볼 정도로 해월은 여성의 중요성 즉 여성, 여성성, 모성, 카오스 중심의 생명운동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해월의 가르침 가운데 핵심은 우선 ‘내측(內則·부인들의 행동지침)’과 ‘내수도문(內修道文·부인들의 수련교과)’ 두 개에 두었고 여성들의 임신, 즉 ‘포태(胞胎)’를 두고 ‘후천시대의 타고난 도인(道人)은 부인들이니 곧 천지부모라! 천지부모인 사람을 스스로 모셔 제 안에 잉태할 수 있으니 천지부모의 천지부모라’고 하였다. 자연히 집안 살림을 가장 중요한 생명운동 즉 ‘살림’으로 동일시하여 음식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였다. ‘밥 한 그릇이 만사지(萬事知)’다’라고 했으니 이 한마디는 20년 전의 ‘한살림’생활협동운동, 유기농운동의 케치프레이즈가 되었다. 현금에 있어서도, 전 세계적으로도 시민생명운동, 생태환경운동, 즉 ‘생협과 녹색운동’ 전체에 있어서 해월의 이 사상은 변함 없는 지침인 것이다.

제사에 있어서 위패(位牌·신위)와 멧밥의 위치를 벽을 향하여 설치하는 제사(向壁設位)에서 나를 향하여 설치하는 제사(向我設位)로 대역전시킨 1897년의 ‘앵산(鶯山)의 가르침’은 인류 오만 년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이요, 생명의 참다운 생성 즉 시간을 지식인들의 변조물인 역사와 구별하는 인류문화의 대구조혁명인 것이니, 그 앞에서는 평등이니 평화니 하는 자잘한 이념들이 모두 다 무색하다. 왜냐하면 나로부터 시작된 우주 생명의 시간적 의미는 천지만물과 고금역사가 신령과 함께 지금 여기 살아있는 나에게로 돌아와야 한다는 이 제사혁명에 다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소홀해질 때 노동정의도 민중의 내면적 삶의 생성과 그 충족도 없기 때문이니 도무지 어디에 평화와 평등이 있으랴! 또한 해월은 인간이 다른 생명을 먹고, 생명을 생명이 먹는 먹이사슬을 ‘한울이 한울을 먹는다(以天食天)’라 하여 명백히 우주적 ‘자기조직화’의 원리를 가르쳤다. 우리의 생명학, 우주 생명학은 바로 여기에 터를 잡을 것이다. 그러나 막상 해월사상에서 드러난 가장 감동적인 사상은 청주 서태순의 집에서다. 뜨거운 한여름날 집 뒷방에서 그 집 며느리가 덜거덕덜거덕 베를 짜는 소리를 듣고 있던 때다. 해월은 그 때 ‘며느리가 일하는 한울님이니, 일하는 며느리를 한울님으로 모셔라’고 말씀했다. 그 때나 지금이나 천덕꾸러기인 여성 중에도 가장 밑바닥의 천덕꾸러기가 며느리 아니었던가! 새벽부터 밤까지 끝없이 일하고도 밑바닥 대접 밖에 못 받던, 그 이름조차 없던 며느리를 그 시아버지인 서태순더러 한울님으로 모시라는 한 말씀에 생명의 세계관과 평등과 평화의 원천이 시퍼렇게 살아있지 않은가!

한민족 고유의 생명사상 방법론

참다운 생명과 평화의 길은 매일 매시간 우리의 삶에서 진행되는 생각과 인간 관계와 자연과의 관계 등에 일관하는 논리형태, 즉 삶의 방법론에 달려있다. ‘나는 네가 아니고 너는 내가 아니다’라거나 ‘이것은 저것이 아니고 저것은 이것이 아니다’라는 논리와 말과 삶. 그리고 ‘너와 나는 항구적으로 싸우거나 잠정적으로 화해하는데 결국 둘 중의 어느 하나가 승리해야 둘은 통일 된다’라는 논리와 말과 삶. 크게 보면 이것이 인류의 ‘죽임’의 논리요, ‘죽임’의 방법이다. 그리고 이 ‘죽임’은 ‘있음’을 목표로 하고 ‘있음’에 의해 합법화된다. 생명은 ‘있음’이 아니라 ‘살아있음’이다. 생명은 죽음과 대립하지 않는다. 생명은 삶과 죽음을 다 포함하

는 우주적 순환, 관계, 다양이다. 생명은 인위적 살해, 즉 ‘죽임’과 대립한다. 그리고 ‘죽임’은 목숨을 끊는 것만이 아니라, 억압, 착취, 구속, 멸시, 학대, 부자유, 차별, 강제, 세뇌 등 온갖 생명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하는 행위 등을 다 가리킨다. 바로 이 ‘죽임’에 대립하는 것이 곧 ‘살림’이다. 우리가 생명운동을 ‘살림’이라 부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나 ‘살림’은 ‘모심’을 전제한다. ‘모심’만이 ‘살림’의 길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논리, 방법은 모심, 타자의 생명의 모심, 양자 사이의 관계의 모심을 전제한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게 된다. ‘너는 내가 아니고 나는 네가 아니지만 너는 나이고 나는 너이다.’ 또는 ‘이것은 저것이 아니고 저것은 이것이 아니지만 이것은 저것이고 저것은 이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이렇게 말해야 한다. ‘너와 나는 서로 달라서 반대되지만 서로 상호보완적이다. 둘 사이의 관계가 바뀌어 새로운 사태가 나타나는 것은 제3의 지양과 통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동안 보이는 너와 나의 관계라는 보이는 차원 밑에 숨어있던 근본차원이 드디어 드러난 차원으로 차원변화하는 탓이다.’

외면의 생명도 내면의 영성도, 외면과 내면의 관계도 그 관계들의 차원변화도 다 그렇다. 우리는 형식논리, 배제의 논리와 변증법을 적극적으로 극복해야 한다. 아마도 유럽의 ‘모순어법(Oxymoron)’은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나 삶의 논리, 생명사상의 방법론을 변혁함에 다음의 세 가지 원리가 배경이 되고 기초가 될 것이다.

첫째

역(易)에서와 같이 음(陰)과 양(陽), 상생(相生)과 상극(相克)은 항시적, 잠정적 차이가 없고 언제나 상보(相補)적이다.

둘째

현대 생물학이나 물리학에서와 같이 만물만생과 영성은 드러난 보이는 차원과 숨은 보이지 않는 차원이 있다. 숨은 차원은 드러난 차원을 추동, 발전, 변화, 수정, 개입, 보조하다가 드러난 차원의 해체기에 가서는 숨은 차원 스스로 드러난 차원으로 눈에 보이게 나타난다. 차원변화요 ‘개시(開示)’이다.

셋째

동학의 ‘불연기연(不然‘其然’)'에서와 같이 드러난 차원의 상생과 상극의 상보적 관계에서도, 드러난 차원과 숨은 차원관계에서도, 숨은 차원이 숨어있을 때와 드러날 때의 관계에서도 언제나 적용되는 논리는 ‘아니다.그렇다(不然‘其然’)-no-yes’의 논리다. 모든 생명철학과 베르그손, 페이야로 드 샤르댕, 베이컨 등의 논리와 뇌활동의 원리이며 그 모방으로서의 컴퓨터의 이진법이 바로 이 논리이다.

한민족 고유의 자연친화적 문화통로

동아시아와 한국은 근대의 서세동점시대에 유럽의 과학에 밀려 자신의 과학을 망각하였다. 그러나 근대화, 유럽화 과정에서도 끝끝내 완전히 망각하지 않고, 또 수정이나 탈파(脫破)의 과정 없이 비교적 순정하게 전승해온 동양 나뭇의 과학이 있다면 두 가지일 것이다. 그것은 동의학(東醫學)과 풍수학(風水學)이다. 의학은 몸에 관한 것이고 풍수는 땅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몸 역시 마음에 연속되고 땅 역시 하늘에 연결된다. 그러므로 몸 안에서 마음을 보고, 땅과 함께 하늘을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동의학과 풍수학은 동양 나뭇의 자연과학과 인문학의 결합이요 앞으로 동서양 과학 및 인문학의 창조적 결합 또는 이중적 교호결합으로 나아가는 데에 있어 유용한 디딤돌이다. 우리나라의 옛 의학, 즉 동의학에서의 커다란 두 기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허준(許浚)의 동의보감(東醫寶鑑)과 이제마(李濟馬)의 사상의학(四象醫學·東醫壽世保元)이 그것이다. 우리는 이 두 기둥으로부터 우리 자신의 가장 결핍된 부분인 과학철학, 생명과학의 철학 원리를 이끌어 내야 한다. 그것이 어찌면 생명학 건설의 구체적인 첫 발걸음이 될 것이다.

천부경(天符經)에는 다음과 같은 기이한 구절이 있다. ‘셋과 넷이 고리를 이룬다(三四成環)’ 셋은 무엇이고 넷은 무엇인가? 단전과 경락계의 사정을 육체에 관한 한 거의 전 방면을 ‘산채로·일상적으로’ 기록하고 산채로 처방한 동의보감이 혼돈한 생명기운의 운동과 그 병적인 발현 및 그에 대한 살아 생동하는 처방이라는 ‘3수분화적(三數分化的)’ 과학이라고 한다면 태극사상의 역(易) 원리를 관통시켜 눈에 보이는 세포, 장기, 기관 등을 음양사상 체계적으로 분석 종합, 처방하되 심

장만은 ‘일묵(一默)’으로 ‘모심’ 처리한 이제마의 사상의학이라는 ‘2수 혹은 4수 분화적(二數或四數分化的)’ 생명활동의 과학이라고 구분할 경우 하나는 활동, 다른 하나는 위상(位相), 하나는 혼돈, 다른 하나는 균형, 하나는 카오스, 다른 하나는 코스모스, 하나는 ‘삼동계(參同契)’나 ‘단전법(丹田法)’ 등 선도풍류계 생명학이라면 다른 하나는 ‘황제내경(皇帝內經)’의 정통법을 음양사상으로 리모델링한 ‘사위생명체’의 우주적 신체학이라 할 수 있다. 한민족의 선도풍류와 노장학이 공유(共有)하는 ‘환(環)’ 또는 ‘고리’는 ‘끝난 곳에서 시작하는’ 이른바 ‘종시(終始)’의 사상으로서 ‘몸’의 율려를 가르킨다. 동시에 셋으로서의 보이지 않고 확정키 어려운 병기(病氣)의 혼돈이 넷이라는 사위체(四位體)요 눈에 보이는 균형 또는 위상과 연결되어 ‘환’ 또는 ‘환중’과 같은 미묘한 ‘혼돈의 질서’를 형성한다는 것은 천부경에서 ‘삼사성환’ 뒤에 붙어 ‘오칠일(五七一)’이라고 불리우는 뇌세포 및 무의식의 최심부의 치료, 즉 ‘지극한 치료(至療)’의 경지라 바로 최고의 치유를 율려라고 부르는 의학상의 비의(秘儀)에 가깝다고 하겠다. 이것이 아마도 우리의 구체적 생명과학의 첫 기초일 것이다.

풍수학은 문자 그대로 땅에 있어서의 바람과 물 즉 장풍(藏風)과 득수(得水)의 관계로부터 땅과 하늘의 관계인 좌향(坐向), 땅의 구심작용인 형국(形局), 땅의 경락(經絡)과 단전(丹田)을 심층 표층에서 물과 공기와 토질, 암석, 식생계를 연관하여 보되 기(氣)의 운동으로 밝히고 처방하는 것이니 왈, 땅의 생명학이다. 오늘날 유럽에서 제기되고 있는 제임스 러브록의 가이아학설, 일명 지구의학, 지구생리학도 유럽과학치고는 대단히 파격적이지만 지구풍수학의 도움 없이는 그저 지표(地表)에 대한 외과적 조치로 끝날 뿐 심층치유가 불가능할 것이다. 풍수의 형국론은 곧 생태학의 생물지역론(Bioregion)으로서 생명학에 입각한 지역자치제의 재구획활동에서 결정적 소의과학(所依科學)이 될 것이다. 풍수의 근본, 특히 한민족의 자생풍수(自生風水)는 그 바탕에 풍류(風流)를 깔고 있다. 우리는 땅과 흙과 지구의 생명학인 풍수를 재탐구하여 심지어 오늘날 유럽, 아메리카에서 인테리어나 도시설계에까지 활용되고 있는 이 분야를 러브록류의 지구과학과의 사이에서 창조적으로 탐구연찬하며 우선 그 사이에 끼어있는 천박한 오리엔탈리즘부터 제거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한국의 생명학은 백두대간(白頭大幹)을 분기점으로 하여 그 동쪽 서쪽으로 구별된다. 동쪽은 북방 대륙의 유목문화인 하느님숭배(天祭壇)와 천지인의 삼수분화론(三數分化論)이 지배적이며 여기에 이수분화론(二數分化論)이 배합적이며 서쪽

은 남방 해양의 농경문화인 고인돌(支石墓)과 음양의 이수분화론(二數分化論)이 지배적이지요 여기에 삼수분화론은 배합적이다. 이것은 불교와의 관계나 무속(巫俗)이나 기타 세시풍속(歲時風俗)에서도 그러하지만 민요의 장단이나 기타 여러 가지 민예(民藝)에서도 예외 없이 관통되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의 생명학은 바로 이 같은 백두대간 동서의 차별과 동일성을 북방 대륙계 고대유목문화와 남방 해양계 고대농경문화 사이의 이중적 교호결합을 중심으로 기타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여러 민족 문화의 제반 관계를 창조적으로 연결 탐색하는 과정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때에도 ‘균형의 기우뚱함’은 실재하는바 북방 대륙계 유목이동 문화의 천지인 삼수분화론의 혼돈지향의 카오스적 균형이 도리어 기초요 바탕을 이루고 있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호혜적 문화교류를 통한 지구촌 평화의 길

한국과 여러 동아시아 민족 전통의 고대에는 여러 부족 사이에, 그리고 해양과 대륙 사이에 산악과 벌판, 공급계와 수요계, 유목민과 농경민 사이에, 또는 신령한 하늘숭배문화와 지상적 신체적인 삶의 문화 사이에, 상호 혜택을 나누고 공유하는 호혜시장, 즉 ‘신시(神市)’가 유행했다고 한다. ‘신시’는 그 바탕에 여러 유형의 복합적인 ‘계(契)’의 기능을 갖고 있고 그 교차로, 융합권, 해방구, 융광로, 결절점(結節點)이 곧 솟대 또는 솔터였다고 한다. 고대민족들은 이러한 호혜(互惠)라는 인격교환과 생태학적 배려와 신성한 우주질서에 대한 엄중한 경배를 기본 성격으로 하는 ‘신시’를 통해 인간내면의 영성적 평화, 사회적 평화, 민족간의 평화, 농경정착문명과 유목이동문명 사이에 자연생명과 인간과의 평화를 성취하였으며 심지어 일월(日月)과 함께 지구중력권, 태양계, 은하계까지의 소위 ‘우주적 만물질서의 평온’을 누렸다고 한다. 이러한 생명과 평등, 평화의 정치적 반영이 곧 고대 직접민주주의와 전원일치제인 ‘화백(和白)’이었고 생명평화의 문화가 곧 ‘풍류(울러는 바람, 즉 풍류다)’이다. 또는 일본 아스카 고분에서 출토된 고구려 천상열차분야지도(天象列次分野之圖)에 의하면 거대한 성운군(星雲群)인 천시원(天時垣), 자미원(紫薇垣), 태미원(太微垣) 사이의 질서의 평온이 유지되었다고도 한다. 그리고 한국역사천문학회에 의하면 당시 지구중력권의 직녀성과 태양계 중심의 남두육성(南斗六星)과 은하계의 북두칠성(北斗七星)이 직렬(直列)함으로써

우주질서의 평화가 왔다고도 한다. 이 같은 일 만년 또는 일만사천년 전의 경우 천문에서 나타나는 우주와 지구의 평화는 우리에게 그저 신화에 불과하고 비과학적 미신에 불과한 것일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기상이변을 근본에서 극복하라는 화두(話頭)인 ‘그늘이 우주를 바꾼다(影動天心月)’에서 우리는 그 어떤 ‘우주 생명학의 길’을 찾아 나아가야 할 것인가?

생명학은 우주 생명학(일월을 포함한 중력권, 태양계, 은하계의 여러 성운군에 관한 직관과 과학적 참구(參究)에 의해 이루어질 ‘큰 살림’ 또는 ‘한살림’)에 와서야 그 극치에 이를 것이다. 지금의 불별과 열대야를 어찌할 것인가? 아니 무슨 현상인가? 이것을 몰라도 되는 것일까? 그저 속수무책으로 하늘에만 비는 것으로 아니면 바다와 산 속으로 도망가는 것이 능사인가? 참다운 평화는 우주만물질서의 평온에 이르러서야 이룩되는 것이며 다른 모든 인간적 평화가 모두 그것에 의거해 이루어지는 것이니 생명학은 곧 우주 생명학인 것이다.

모심을 통한 살림의 길

생명에 대해, 우주 생명에 대해, 혹은 무생명까지도 우주적 공동주체로 인정하는 넓은 인식의 지평 위에서 우리가 반드시 먼저 지켜야 할 윤리는 ‘모심’이다. 그러나 모심은 단순한 공경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창조적 배태이며 긴장의 지속이며 은혜에 대한 보은이며 산 것에 대한 지극한 관심과 기름(養)이다. 바로 이 같은 모심에 의해서만 죽음에 의해 위협받고 시달리는 생명, 우주 생명, 무생명과 모든 사물, 사태, 사유와 예감까지도 살아나는 참다운 ‘살림’에 도달할 수 있다. 오늘 한국인과 동아시아, 아시아인, 그리고 세계인의 생명운동은 결국 두 명제로 귀결되는 것이니 그것이 곧 ‘모심’과 ‘살림’이다. 바로 모심과 살림만이 성장의 한계와 질적인 성숙을 도모할 것이며, 이른바 생태정의를 구현할 것이며, 페미니즘의 근본자세를 정립할 것이며, 생태계의 문화를 보다 근본적인 생명문화로서 높이고 넓히고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생명과 평화실천의 선결과제 세 가지

첫째 과제, 천지인 삼수분화적 접근

천지인(天地人)이라는 삼수분화의 혼돈에 중심을 둔 이수분화 배합의 세계이해로부터 우주 생명학 성립이 가능한가를 물어야 한다.

그리고 생명학적 접근으로 인간 내면의 평화, 민족과 민족, 문명과 문명 사이의 전쟁 없는 영구평화, 우주만물질서의 근원적 평온의 회복, 인간과 인간의 사회적 경제적 평화, 인간과 자연의 생태학적 평화, 인간과 도구 사이의 경건한 평화가 참으로 가능한가를 거듭거듭 물어야 한다.

둘째 과제, 음양 이수분화적 접근

중심은 삼수분화에 두되 그 기우뚱한 균형 속에서의 음양(陰陽)이라는 이수분화에 또 하나의 중심을 둔 세계이해로부터 보다 체계적이고 카오스-코스모스적인 우주 생명학 성립이 가능한가를 물어야 한다.

생명과 영성의 관계정립, 에코와 디지털적 영적통신의 관계정립, 뇌(腦)에 대한 자연과학적 접근을 우리는 매우 비판적 자세를 견지하지만 뇌와 영성사이의 관계는 단 하나라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악학궤범에서의 이른바 ‘팔풍사위(八風四位)’에서의 사위(四位)의 과학적 중요성 등이 그것이다.

셋째 과제, 혼돈의 질서(Chaosmos)와 불연기연론(不然其然論)

‘혼원지일지(混元之一氣)’의 문제의식을 확실히 할 것.

혼돈적 질서를 통한 구체적 삶의 모습에 대한 지속적 논의가 필요하다.

‘한살림’의 한은 크게 세 가지 뜻을 가진다. ① 낱(개체) ② 온(전체) ③ 중간(관계) 이것은 여하히 논리적으로 인식되는가? 보이는 차원과 보이지 않는 차원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과학적 인식의 대중화가 필요하다. 예컨대 그레고리 베이츠의 생명차원변화론, 데이비드 봄의 드러난 차원과 숨은 차원의 물리차원 관계론과 함께 최수운의 불연기연론의 삼자비교분석이 실재화해야 한다. 생명, 물질, 영성의 삼자관계다.

그 위에서 김일부(金一夫)의 정역(正易)의 개괄적 인식과 ‘올려 밋 여율론’의 상세한 해석이 필요하다. 또한 강증산의 부인과 식칼의 의미, 페미니즘적인 반전(反轉)을 살펴야 하며 모악산에서 또는 정읍 대흥리에서 제자들에게 ‘나는 옥황상제다. 그러므로 너희도 옥황상제다’라는 파격적 선언이 오늘에 의미하는 것을 밝

혀야 한다.

허준(許浚)의 동의보감 연구가 위크샷의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동무(東武) 이제마(李濟馬)의 사상의학 위크샷, 혜강 최한기(惠崗 崔漢綺)의 기철학과 특히 그의 ‘운화론(運化論)과 인정(人政)의 관계’가 정역(正易)의 ‘십일일언(十一一言)’과의 비교 속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넷째, 해방 이후의 사상사에서

김범부(金凡夫)의 ‘제3휴머니즘’이나 ‘동방르네상스’, ‘사증론(四證論)’, ‘최재우론’과 ‘음양론’ 등은 심층 연구되어야 하며 한동석(韓東錫)의 두 권의 저서, ‘우주 변화의 원리’와 ‘동의수세보원주석’은 수차례의 위크샷을 통해 연찬 이해되어야 한다.

식민지와 해방 이후 시대의 동학계 사상 이해가 상세히 적시되어 현재와 보다 가까운 근대적 조건 안에서 생명학을 현재화하고 구체화, 실질화해야 한다.

다섯째, 일본과 중국으로부터의 참고

유럽사상에서의 생명학 연찬과 중국사상사에서 또는 모슬렘으로부터와 인도로 부터도 역시 그 사업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한민족의 촉발, 즉 ‘서울 발 고대아시아 르네상스’ 과정에서 탐구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전에, 예외적으로라도 검토되어야 할 필수적 학문 등이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16세기 북경에서의 마테오 리치의 활동에 관한 연구.

일본 기리스땅(切支丹·일본 카톨릭)연구.

중국 태평천국(太平天國)연구.

중국 담사동(覃嗣同)과 이대교(李大釗)연구.

일본 오모도교(大本教)와 ‘에자나이가 운동’ 및 일련정종(日蓮正宗)의 창가학회(創價學會) 그리고 니시다 기따로(西田幾多郎) 및 명치(明治)에 거역했던 다수의 일본 참회 귀족들의 사상모험에 관한 탐구.

기타 베트남, 인도, 몽골 및 티베트 불교의 연구 등이 지속적인 위크샷 등을 통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원주캠프의 생명사상과 ‘한살림운동’의 분석 평가

한살림생협과 카톨릭시습, 또는 동학.

한살림 생협과 일본 생협의 교류사.

한살림과 생협 일반.

한살림운동과 환경운동.

소비생산 유기농산물도농직거래와 생명문화운동의 교호관계 연구가 모두 관련자의 사망이나 자료 산실 이전에 생생한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결어

사단법인 ‘생명과 평화의 길’은 자기의 활동구호를 ‘그들이 우주를 바꾼다’로 결정한다. 이 말은 한시의 한 구절로 ‘影動天心月’이다.

1850년대 무렵 충청도 연산(지금의 논산) 인내강변의 ‘띠울’이란 마을에 한 기인(奇人)이 살고 계셨다. 전력은 참관까지 한 분인데 낙향하셨다. 연담(蓮潭) 이운규(李雲奎)선생이시다. 연담선생 문하에 세 사람의 제자가 있었다 한다. 최수운(崔水雲), 김광화(金光華), 김일부(金一夫)다. 연담은 최수운에게 선도(仙道)부활의 동학을, 김광화에게 불교혁신의 남학(南學)을, 김일부에게 유학의 꽃인 주역(周易)의 일대혁파에 의한 간역(艮易·즉 正易)의 길을 제시해주었다. 수운이 경상도에서 동학을, 광화가 전라도에서 남학을, 그리고 일부가 충청도에서 정역을 창조하였으니 격암유록에 의한 삼남후천개벽을 상기시킨다. 연담이 일부에게 새 시대의 대역(大易) 창안을 제시하면서 주신 화두가 ‘그들이 우주를 바꾼다’이다. 이것은 정역의 원리 중 ‘역수성통원리(易數聖統原理)’의 상징이다. 2천8백년의 나이를 먹은 중국역, 문자역, 남성역인 주역에서는 ‘참찬론(參贊論)’이라 하여 인간은 우주의 질서를 깨우쳐 배우되 그에 일치해서 도덕을 세우고 세상을 다스릴 뿐, 우주 질서를 바꿀 수는 없다는 것, 즉 참여할 뿐이라는 말이다. 뉴턴의 우주론과 흡사하다. 여기에 비교할 때 ‘易數聖統原理’는 우주변화의 진리를 인간이 깨우치고 나면 그 진리(물론 후천개벽의 진리다.)에 의해 우주질서를 조절하여 바꿀 수 있다는 엄청난 개벽적 혁명의 논리다. 심리물리학이나 관찰자참여우주론과 비교할 만하다. 천심월(天心月)은 우주핵이니 쉬운 말로 ‘신의(神意)’ 즉 ‘하늘의 뜻’이다.

후천개벽은 정역식으로 풀이하면 ‘천심월(우주핵)’이 ‘황중월(皇中月·존재핵·사람 마음의 중심)’로 ‘움겨움(動)’을 뜻한다. 그런데 사람 마음의 핵이 곧 우주의 핵인 것이다. 우주질서와 인간마음의 일치결합이니 이것이 바로 율려이고 개벽이니 오늘날 같은 후천개벽시대에는 그것이 바로 ‘여율’인 것이다. 바로 그 ‘여율’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이 또한 강증산의 표현이기도 하다. 그래서 ‘천지궐’도 있었다. 여하튼 ‘동천심월(動天心月)’은 개벽이요 우주를 바꾼다는 뜻이다. 무엇이 우주핵을 존재핵으로 바꾸는가? 율려요 여율로서의 율려다. 그 율려 또는 여율적 율려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늘’이다. ‘그늘’은 무엇인가? ‘그늘’은 물론 역학(易學)과 율려학(律呂學)에서는 그 나름의 복잡한 음악학적인 전문적 의미가 있다. 그러나 연담의 이 시구에는 그런 전문적 의미까지도 포함한 채 보다 대중적·민중적인 삶의 내용이 깊이 담겨있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늘’이 무엇인가?

이것은 차라리 판소리나 시나위나 산조(散調) 등의 속악(俗樂)에서 그 말의 참 뜻, 그야말로 말의 그늘을 찾아야 한다. 연담의 뜻이 ‘못 생명을 가까이 해서 변화 시킴(接化群生)’에 있지 전문적 학술에 있지 않음을 빨리 눈치 채야 한다. 그것이 스승에게 배우는 자세다. 소리에 있어서 그들은 미학의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이다. 우선 윤리적으로 인생의 쓴맛, 단맛의 신산고초를 피해버리거나 적당히 얼버무리는 사람에겐 ‘그늘’이 깃들지 않는다. 피하지 않고 받아내되 분노나 폭발이 아닌 ‘삭힘(견딤)’으로 인욕정진(忍辱精進)하는 삶의 자세에서 그들이 깃든다. 그것은 그윽한 슬기로운과 숨은 용기일 터이다. 예술적으로 그것은 피를 몇 대접씩 쏟는 독공(篤工)의 결과로 슬픔과 기쁨, 웃음과 눈물, 청승과 익살, 이승과 저승, 사내와 계집, 나와 너 등 온갖 상대적인 것들을 함께 또는 잇달아, 하나로 또는 둘로 능히 표현할 수 있는 성음(소리)인 ‘수리성’을 ‘그늘’이 깃든 소리라고 한다. 예컨대 임방울의 심청가에서 심봉사가 개굴창에 빠지는 청승스런 대목을 도리어 익살스럽게, 뽕덕엄씨와의 우스꽝스런 작회를 오히려 심각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재능이 끝없는 인욕정진의 ‘삭힘’에서 비롯된 ‘시김새’가 있음으로써만 가능한 것이다. 이것을 ‘그늘’이라 하는데 우리 소리의 미학에서는 바로 이 ‘그늘’이 결정적이다. ‘저사람 소리엔 그늘이 없어!’하면 예술가로서는 끝장이다. 바로 이렇게 윤리적 패러다임과 미학적 패러다임이 일치하는 데에서 우리 민족의 민중예술과 미학의 탁월함이 있는 것이다. 바로 이같은 ‘그늘’도 ‘귀신울음소리(鬼哭聲)’까지 표현할 정도래야 진정한 예술로서 ‘지극한 예술(至藝)’에 이르고 지예만이 참 도(道)

에 이르는 것이다.

‘귀곡성’까지 가려면 ‘그들’만으로는 부족하다. 우주를 바꾸려면 신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켜야 하는데 그러자면 그들이 있어야 하고 그 그들만 아니라 거룩함, 신령함, 귀기(鬼氣)나 신명(神明)이 그들과 함께 있어야 하며 그들로부터 ‘배어나와야’ 한다. ‘아우라’ 혹은 ‘무늬(文)’다. 바로 이 경지를 ‘흰 그들’이라 부른다. ‘흰’은 곧 ‘신’이니 ‘훈’ ‘불’ ‘불’ 등이 ‘흰’이다. 그들의 이중적 교호관계라는 드러난 차원과 함께 그 뒤에 숨은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흰 빛’ ‘신령하고 성스러운 흰 빛’이 눈에 보이게 배어나올 때에 적어도 ‘역수성통원리(易數聖統原理)’가 관통해서 우주가 바뀌는 명리가 된다. ‘귀곡성’이 좋은 예이다. ‘그들이 우주를 바꾼다’는 말은 우주를 바꿈, 즉 숨은 신령의 드러남인데 바로 우주를 바꿀 때의 그 주체인 그들이 곧 ‘흰 그들’인 것이다. 그것은 마치 몸은 낡고 줄기는 괴상하나가지는 깨끗하고 끝은 연하고 부드러우며 꽃은 기이한 그러한 매화의 경지나 바람과 란, 즉 난초의 움적임(飄然)과 뼈기운(骨氣)을 함께 포착하는 데에 사군자(四君子)의 의미가 있듯이 ‘우주를 바꾸는 그들’은 곧 ‘흰 그들’이니 말 자체로서는 ‘형용모순’이요 ‘모순어법’이나 우리가 내내 탐구해왔던 ‘상극 상생의 상보성’이나 ‘반대되는 것이 서로 돕는 것’, 즉 ‘아니다’이면서 ‘그렇다’이고 ‘그렇다’이면서 ‘아니다’인 것, 드러난 차원 밑에서 숨은 차원이 드러나 보이기 시작하는 차원 변화, 우주개벽과 사회혁명을 하나로 연속시키고 교호시키는 개벽적 혁명, 이 모든 모순어법이 ‘흰 그들’인 것이다. ‘그들이 우주를 바꾼다’는 생명과 평화의 길이 ‘흰 그들’을 목적으로 함을 뜻한다. 그러나 ‘흰 그들’이 까다롭고 어렵기만 한 고급담론에 그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월드컵 때 한 달 내내 전국의 거리와 운동장을 가득 메운 ‘붉은 악마’ 그 칠백만의 물결이 거둬 내세워 외쳐댄 세 가지 명제가 무엇이던가? 3분박 플러스 2분박의 혼돈의 질서(카오스모스)인 ‘대~한민국’과 ‘따따따 따따’의 이른바 ‘엇 박’이 아닌가! 과거 유목을 청산하고 농경에만 문명의 기초를 놓고자한 중국의 황제(黃帝)와 74회의 피투성이 전쟁을 치러낸 고조선 배달국 14대 천황 치우(蚩尤)의 시뻔건 로고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북방계 대륙의 유목이동문화(현실 유럽과 아메리카의 세계화 방향의 지배적 문명론)와 남방계 해양의 농경정착문화(현금 제3세계의 반세계화주의자들과 민족 및 지역주의, 생태주의와 농업주의자들의 문명론)의 이중적 교호결합을, 달리 말하면 도시중심의 디지털과 농촌중심의 에코가 우리의 신령한 육체 속에서 이중적으로 교호결합, 새로운 차원변화를, 새 문명의

모습을 현대세계에 제시한 집단적 예언이 아니었는가? 붉은 악마가 계속 밀고나온 상징이 무엇인가? 태극기 아닌가? 태극기가 무엇인가? 한민족의 태극기는 중국의 태극형상과 ‘같지만 다르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 중국의 태극도설이 나온 것은 송(宋)나라 때 주렴계(周濂溪)에 의해서이고 한국에서 태극 또는 삼태극은 북방 샤마니즘의 오랜 고대 문화, 바로 신석기시대의 홍산(紅山)문화에서이며 아주 가까운 물증으로라면 송대보다 수 세기 앞선 신라 때의 감포 감은사 두 탑사이의 두 땃돌위에 새겨져 있다. 중국의 태극형상은 흑과 백에 나누어져 좌우로 서있다. 그리고 흑점·백점이 있다. 그리고 첫째 건괘(乾卦)와 둘째 곤괘(坤卦)에서 63번 수화기제(水火既濟)와 64번 화수미제(火水未濟)까지의 역경 전 괘상을 모두 압축한 네 개의 괘상(卦象)이 동서남북 정방(正方)에 배치되어있다. 여기에 비해 한국의 태극기의 태극형상은 붉음과 푸름으로 점은 없고 위 아래로 나뉘어 누워 있다. 그리고 역경 전체를 압축하는 네 개의 괘상은 동서남북의 간방(間方)에 배치되어 있다. 역(易)은 읽는 방식에 따라 뜻이 같으면서도 또한 달라진다. 중국 태극과 한국 태극은 여러 가지 읽는 방식을 달리할 때 같은 뜻임에도 엄청난 차이를 드러낸다. 바로 이 같음과 다름을 큰 틀에서 함께 지니고 있는 것이 곧 한민족 고대의 ‘삼태극’이다. 이것이 어찌면 오늘 중국의 동북공정이나 역사왜곡의 근거인 동일한 사료(史料)에 대한 해석학(읽기)의 큰 차이요 역사전쟁의 전략인 사관(史觀)의 차이가 될 것이다. 바로 이 같은 뜻이 모두 담긴 용(用)이요 활동으로서의 ‘그들이 우주를 바꾼다’이고, 체(體)이며 상징으로서의 ‘흰 그늘’인 것이다.

생명과 평화의 길은 ‘그들이 우주를 바꾼다’는 새 시대의 생명학, 우주 생명학을 찾아가는 길이며 그 길 자체가 곧 ‘흰 그늘’인 새 삶의 원형을 제시한 성배(聖杯)의 민족노선이요 ‘흰 그늘’ 또는 ‘흰 어둠(白闇)’의 새로운 인류문명의 길, 카오스모스 문화, 역동적 균형에 가까운 새 문명의 길인 것이다. 앞으로 100년간 폭염(暴炎)이 지구를 지배하리라 한다. 어찌할 것인가? 이 길 뿐이다. 이 길은 ‘삼태극의 춤’이니 곧 옛 김범부 선생의 그 ‘동방르네쌍스’의 길이요 신인간에 의한 호혜세계창조의 길인 것이다. 흰 그늘이 붉은 악마의 눈빛에 서글서글한 아리따움으로 드리울 날. 그 우주가 바뀌는 날, 우리는 바로 그 날을 기다린다. 중력권 내부로부터 흰 빛 초월의 아우라가 솟아나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의 대개혁, 대자유의 날!

젊은 다중적민중(多衆의民衆)

10대, 20대, 30대의 카오스민중과 전 민족, 전 동아시아와 아시아, 전 태평양

주변의 민족들, 아메리카와 유럽과 모슬렘, 러씨아, 아프리카, 남미, 호주 등을 모두 다 끌어안은 ‘카오스민중’들 속에서 ‘흰 그늘’이 떠올라 드디어 ‘그늘이 우주를 바꾸는 그 날’이 오기를 인격, 비인격, 생명, 무생명 모두를 아우르는 우리, 그 우리가 기다린다.

‘생명과 평화의 길’은 바로 스스로 노력하면서 동시에 그것의 신령한 차원의 우주적 실현에 대한 바로 이 기다림인 것이다.

단기 4337년

서기 2004년 8월 26일

사단법인 ‘생명과 평화의 길’ 일동

생명평화 100배 서원문

- 1) 진리가 삶을 자유롭게 한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첫 번째 절을 올립니다.
- 2) 끊임없는 자기 성찰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임을 믿으며 두 번째 절을 올립니다.
- 3) 삶의 근본을 모르고 사는 나의 어리석음을 돌아보며 세 번째 절을 올립니다.
- 4) 스스로의 삶을 실사구시적으로 살지 못한 점을 반성하며 네 번째 절을 올립니다.
- 5) 생명위기, 평화위기라는 현대문명의 현실을 직시하며 다섯 번째 절을 올립니다.
- 6) 반생명, 비인간화의 모순과 위험이 내 안의 이원론적 세계관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며 여섯 번째 절을 올립니다.
- 7) 소유는 또 다른 소유를 낳고 전쟁은 또 다른 전쟁을 낳을 뿐,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진리를 가슴에 새기며 일곱 번째 절을 올립니다.
- 8) 부자와 일등이 행복하다는 것은 실현될 수 없는 관념의 환상일 뿐임을 가슴에 새기며 여덟 번째 절을 올립니다.
- 9) 세상에 대한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무지에 대한 부끄러움을 가슴에 새기며 아홉 번째 절을 올립니다.
- 10) 너에 의지해서만 내가 존재한다는 관계의 삶이 생명평화의 길임을 가슴에 새기며 열 번째 절을 올립니다.
- 11) 생명의 관점에서 자기를 잘 알고 가꾸는 것이 생명평화의 길임을 가슴에 새기며 열한 번째 절을 올립니다.
- 12) 세상의 모든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생명평화의 길임을 마음

에 새기며 열두 번째 절을 올립니다.

- 13)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게 된다는 진리를 마음에 새기며, 열세 번째 절을 올립니다.
- 14) 자기 삶의 실상을 응시하는 성찰이 생명평화의 길임을 마음에 새기며, 열네 번째 절을 올립니다.
- 15) 진리의 삶은 현실적으로 누구나 이해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열다섯 번째 절을 올립니다.
- 16) 존재의 진실, 삶의 진실을 사실대로 꿰뚫어 보는 것이, 생명평화의 길임을 마음에 새기며, 열여섯 번째 절을 올립니다.
- 17) 자신의 소리, 세상의 소리를 귀 기울여 경청하는 것이, 생명 평화의 길임을 마음에 새기며 열일곱 번째 절을 올립니다.
- 18) 자기 삶을 개혁하는 것이, 세상의 개혁을 이끌어내는 길임을 마음에 새기며, 열여덟 번째 절을 올립니다.
- 19) 안과 밖으로, 정직 성실하지 못한 삶을 반성하며 열아홉 번째 절을 올립니다.
- 20)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가치가 생명평화임을 마음에 새기며, 스무 번째 절을 올립니다.
- 21) 언어에 묶이지 않고, 존재가 언어를 규정하는 삶을 확립하기 위하여, 스물한 번째 절을 올립니다.
- 22)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가치의식과 삶의 방식을 확립하기 위하여, 스물두 번째 절을 올립니다.
- 23)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지 않는 삶의 철학과 신념을 확립하기 위하여, 스물세 번째 절을 올립니다.
- 24) 인간의 욕구가 만들어낸 인위적 질서를 극복하고, 우주자연의 질서를 존중하는 삶을 확립하기 위하여, 스물네 번째 절을 올립니다.
- 25) 생명의 실상을 통해 진리의 세계관을 설파한, 생명평화경의 첫 번째 단락을 음미하며, 스물다섯 번째 절을 올립니다.
- 26) 이것이 있음을 조건으로 저것이 있게 되는, 우주 생명의 진리를 가슴에 새기

며, 스물여섯 번째 절을 올립니다.

27) 저것이 없음을 조건으로 이것이 없게 되는, 우주 생명의 진리를 가슴에 새기며, 스물일곱 번째 절을 올립니다.

28) 서로 의지하고 도우며 생성·소멸하는 우주의 질서가 영원한 진리임을 가슴에 새기며 스물여덟 번째 절을 올립니다.

29) 그물코처럼 얹혀 존재하는 생명의 실상을 통찰하며 스물아홉 번째 절을 올립니다.

30) 우주 생명의 실상은, 본래 한몸 한생명 공동체임을 설파한, 생명평화경의 두 번째 단락을 음미하며, 서른 번째 절을 올립니다.

31) 못 생명은 자연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공동체의 존재임을 마음에 새기며, 서른한 번째 절을 올립니다.

32) 우리나라는 이웃 나라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국가공동체임을 마음에 새기며 서른두 번째 절을 올립니다.

33) 우리 종교는 이웃 종교에 의지하여 활동하는 종교공동체임을 마음에 새기며 서른세 번째 절을 올립니다.

34) 우리 마을은 이웃 마을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고향공동체임을 마음에 새기며 서른네 번째 절을 올립니다.

35) 우리 가족은 이웃 가족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가족공동체임을 마음에 새기며 서른다섯 번째 절을 올립니다.

36) 나는 그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공동체 생명임을 마음에 새기며 서른여섯 번째 절을 올립니다.

37)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서로 의지하고 도우며 살아가는 영원한 공동체의 존재임을 마음에 새기며 서른일곱 번째 절을 올립니다.

38) 공동체 생명은, 서로 의지하고 돕는 진리의 길을 걸을 때, 비로소 행복하게 됨을 마음에 새기며 서른여덟 번째 절을 올립니다.

39) 이기적으로 살아온 삶을 참회하는 생명평화경의 세 번째 단락을 음미하며 서른아홉 번째 절을 올립니다.

40) 생명의 뿌리인 자연을 함부로 취급해 온, 인간 중심의 이기적 삶을 참회하

며, 마흔 번째 절을 올립니다.

- 41) 우리나라의 의지처인 이웃나라의 중요성을 간과해온, 내나라 중심의 이기적 삶을 참회하며, 마흔한 번째 절을 올립니다.
- 42) 창시자의 본뜻을 어기고, 이웃 종교의 존귀함을 무시해 온 자기 종교 중심의 배타적 삶을 참회하며, 마흔두 번째 절을 올립니다.
- 43) 우리 가족의 의지처인 이웃 가족의 고마움을 외면해온, 내 가족 중심의 이기적 삶을 참회하며, 마흔세 번째 절을 올립니다.
- 44) 내 생명의 어버이이신 그대의 존귀함을 가볍게 취급해 온, 자기 중심의 이기적 삶을 참회하며, 마흔네 번째 절을 올립니다.
- 45) 내 나라, 내 종교, 내 가족 중심의 이기심으로 살아온, 왜곡된 집단 중심의 삶을 참회하며, 마흔다섯 번째 절을 올립니다.
- 46) 소유와 힘의 논리, 경쟁과 지배의 논리로 살아온 왜곡된 자기사랑의 삶을 참회하며, 마흔여섯 번째 절을 올립니다.
- 47) 모든 생명을 섬기고 모셔야 한다는 생명평화경의 네 번째 단락을 음미하며, 마흔일곱 번째 절을 올립니다.
- 48) 자연을 내 생명의 하느님으로 모실 때 비로소 인간의 생명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된다는 진리의 삶을 다짐하며 마흔여덟 번째 절을 올립니다.
- 49) 이웃 나라를 내 나라의 하느님으로 모실 때, 비로소 내 나라가 안전하고 평화로워지는 진리의 삶을 다짐하며 마흔아홉 번째 절을 올립니다.
- 50) 이웃 종교를 내 종교의 하느님으로 모실 때, 비로소 내 종교의 참다움이 빛나게 되는 진리의 삶을 다짐하며 쉰 번째 절을 올립니다.
- 51) 이웃 가족을 내 가족의 하느님으로 모실 때, 비로소 내 가족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되는 진리의 삶을 다짐하며 쉰한 번째 절을 올립니다.
- 52) 만나는 상대를 내 삶의 하느님으로 모실 때, 비로소 내 삶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되는 진리의 삶을 다짐하며 쉰두 번째 절을 올립니다.
- 53) 생명의 실상을 달관하고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다짐하는 생명평화경의 다섯 번째 단락을 음미하며 쉰세 번째 절을 올립니다.
- 54) 자연을 착취하는 인간중심의 이기적 탐욕을 버리기 위해 쉰네 번째 절을 올

립니다.

- 55) 이웃 나라를 불안하게 하는 내 나라 중심의 이기적 삶을 버리기 위해 선다섯 번째 절을 올립니다.
- 56) 이웃 종교를 불안하게 하는 내 종교 중심의 이기적 삶을 버리기 위해 선여섯 번째 절을 올립니다.
- 57) 이웃 가족을 불안하게 하는 내 가족 중심의 이기적 삶을 버리기 위해 선일곱 번째 절을 올립니다.
- 58) 상대를 고통스럽게 하는 자기중심의 이기적 삶을 버리기 위해 선여덟 번째 절을 올립니다.
- 59) 자연의 개성과 가치의 존귀함을 존중하고 감사하며 선아홉 번째 절을 올립니다.
- 60) 이웃 나라의 개성과 가치의 존귀함을 존중하고 감사하며 예수 번째 절을 올립니다.
- 61) 이웃 종교의 개성과 가치의 존귀함을 존중하고 감사하며 예수한 번째 절을 올립니다.
- 62) 이웃 가족의 개성과 가치의 존귀함을 존중하고 감사하며 예수두 번째 절을 올립니다.
- 63) 상대의 개성과 가치의 존귀함을 존중하고 감사하며 예수세 번째 절을 올립니다.
- 64) 전 존재를 바쳐 살아가야 할 진리의 길은, 서로 의지하고 도우며 사는 길임을 확신하며 예수네 번째 절을 올립니다.
- 65) 서로 의지하고 도우며 사는 진리의 길은, 성찰과 서원의 삶을 통해 실현 될 수 있음을 확신하며 예수다섯 번째 절을 올립니다.
- 66) 진리의 실천을 위한 생명평화 서약이, 나를 경영하는 지침임을 가슴 깊이 새기며, 선여섯 번째 절을 올립니다.
- 67) 어떤 명분으로도 심리적 물리적 폭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첫 번째 생명평화 서약을 마음에 새기며 예수일곱 번째 절을 올립니다.
- 68) 모든 생명에게 저지른, 언어 육체 성 심리 경제 사회적인 모든 폭력을 참회

하며 예수여덟 번째 절을 올립니다.

- 69) 자신의 불의에는 관대하고, 사회의 불의에 대해서만 분노한 것을 반성하며, 예수아홉 번째 절을 올립니다.
- 70) 언제 어디서나 모든 이에게 평화로운 마음과 태도로 대할 것을 다짐하며 일흔 번째 절을 올립니다.
- 71) 모든 생명을 우애로 감싸겠다는 두 번째 생명평화 서약을 마음에 새기며 일흔 한 번째 절을 올립니다.
- 72) 차별이나 편견 없이 생명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할 것을 마음에 새기며 일흔두 번째 절을 올립니다.
- 73) 내 안의 불의와 사회의 불의를 떨치기 위해, 겸허하고 치열하게 살아갈 것을 마음에 새기며 일흔세 번째 절을 올립니다.
- 74) 어떤 명분의 편견이나 폭력도 단호하게 거부할 것을 마음에 새기며 일흔네 번째 절을 올립니다.
- 75) 상대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만큼, 나의 삶이 더욱 빛난다는 진리를 마음에 새기며 일흔다섯 번째 절을 올립니다.
- 76) 대화와 경청의 자세를 갖겠다는 세 번째 생명평화 서약을 마음에 새기며 일흔 여섯 번째 절을 올립니다.
- 77)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를 미워하고, 나의 견해만이 옳다라는 생각이 폭력의 시작임을 가슴에 새기며 일흔일곱 번째 절을 올립니다.
- 78) 항상 역사의 진실을 분명하게 보고 기억하지만 언제나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을 마음에 새기며 일흔여덟 번째 절을 올립니다.
- 79) 모든 상대를 인내와 관용의 정신으로 대하며, 모든 문제를 솔직하고 겸허한 대화로 해결할 것을 마음에 새기며 일흔아홉 번째 절을 올립니다.
- 80) 모든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와 문화의 다양성을 옹호할 것을 마음에 새기며 여든 번째 절을 올립니다.
- 81) 나눔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소박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네 번째 생명평화 서약을 마음에 새기며 여든한 번째 절을 올립니다.
- 82) 적게 갖고 적게 쓰는 단순 소박한 삶이 영원한 진보임을 확신하며 여든두 번

째 절을 올립니다.

- 83) 상대에 대한 모심과 살림의 자세로 자신의 삶을 가꾸어 갈 것을 다짐하며 여든세 번째 절을 올립니다.
- 84) 나의 삶터부터 생명평화의 마을로 가꾸어가겠다고 다짐하며 여든네 번째 절을 올립니다.
- 85) 모든 생명의 터전을 보존하겠다는 다섯 번째 생명평화서약을 마음에 새기며 여든다섯 번째 절을 올립니다.
- 86) 나의 의식주 생활이 생태계를 병들게 했음을 참회하며 여든여섯 번째 절을 올립니다.
- 87) 자연, 농촌, 농업을 근본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나와 모든 생명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여든일곱 번째 절을 올립니다.
- 88) 생태계를 보존하고 생명의 순환질서를 지키는 일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여든여덟 번째 절을 올립니다.
- 89)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실현하기 위한 길에 앞장서겠다는 여섯 번째 생명평화서약을 마음에 새기며 여든아홉 번째 절을 올립니다.
- 90) 평화는 진실과 사랑의 실천인 비폭력 실천으로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마음에 새기며 아흔 번째 절을 올립니다.
- 91) 한반도의 전쟁을 방지하고 이 땅의 평화를 위해 비폭력적 실천으로 앞장 설 것을 다짐하며 아흔한 번째 절을 올립니다.
- 92) 삶을 불행하게 하는 어떤 권위, 제도, 관습, 폭력에도 비폭력으로 저항할 것을 다짐하며 아흔두 번째 절을 올립니다.
- 93) 끊임없이 깨어 공부하겠다는 일곱 번째 생명평화서약을 마음에 새기며 아흔세 번째 절을 올립니다.
- 94) 내 안의 평화를 일깨우는 공부와 수행을 꾸준히 하는 일이 세상의 평화를 이루는 길임을 마음에 새기며 아흔네 번째 절을 올립니다.
- 95) 먼저 자신을 정화하고 치유하는 일이 세상의 평화를 이루는 길임을 마음에 새기며 아흔다섯 번째 절을 올립니다.
- 96) 비폭력적인 몸짓, 말 한마디, 마음씀 하나하나가 세상의 평화를 이루는 기본

임을 마음에 새기며 아흔여섯 번째 절을 올립니다.

97) 내 스스로가 생명평화의 등불임을 선언하는 여덟 번째 생명평화서약을 마음에 새기며 아흔일곱 번째 절을 올립니다.

98) 내가 밝힌 생명평화의 등불이 이웃과 사회를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발원하며 아흔여덟 번째 절을 올립니다.

99) 우리 모두 생명평화의 등불이 되어 서로를 비춤으로써 온 누리가 생명평화의 세상이 되기를 발원하며 아흔아홉 번째 절을 올립니다.

100) 내가 밝힌 생명평화의 등불로 인해 온 누리의 모든 생명들이 진정으로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발원하며 백 번째 절을 올립니다.

21세기 문명사적 대 변혁운동 선도

생명공동체 대동세상을 향한 선언문

오늘 우리는 가톨릭농민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지금까지 전개해온 생명운동, 공동체운동의 지평을 확대하고 드높이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활동을 성찰하고 처음처럼 다시 시작할 것을 선언한다. 이는 생명공동체세상을 향한 문명사적 대변혁운동의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가톨릭농민회의 재창립 선언임을 확인한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정신에 따라 1966년 첫발을 내딛은 우리 가톨릭농민회는 "농부이신 하느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농민운동의 원동력으로 삼아 지칠 줄 모르는 활동을 전개해 왔다. 지난 시기 우리는 부당한 외세의 간섭과 침략에 맞서 민족농업을 수호하고 민중의 삶을 지키기 위한 지난한 투쟁과 함께, 군사 독재에 항거하여 이 땅의 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헌신적인 투쟁을 전개해 왔다. 또한 우리 사회 모든 고통과 모순의 근원인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신명을 바쳐 투쟁해왔다. 이 모든 것이 공동선을 위하여 가난한 이를 우선적으로 선택하신 예수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였으며 하느님나라를 지금 여기에 세우고자 하는 우리 신앙의 고백이었다. 또한 일찍이 산업문명의 폐해를 자각하고 예언자적 소명으로 하느님창조질서를 보전하고 생명공동체세상을 이루기 위한 생명운동, 공동체운동을 개척하고 전개하여 크고 작은 많은 성과들을 만들어 왔다. 도시의 수많은 형제자매들이 지원협력의 차원을 넘어 이 운동의 자랑스러운 주체로 나서고 있으며 방방곡곡 도처에서 생명의 땅이 살아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더 큰 위기에 처해 있다.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의 지난 세기는 하느님의 창조질서와 우주공동체를 파괴하여 생명의 터전이요 어머니인 땅을 심각하게 오염시켜 햇빛과 바

람과 비마저 그 질서를 잃게 하였다. 생명과 평화에 토대를 둔 상생의 조화로운 질서는 실종되고 전쟁, 테러, 착취, 독점, 종 다양성의 파괴, 자원고갈, 사막화, 난치병이 만연하고 있다. 한 세기가 지나도록 식민지, 분단, 전쟁과 대결의 쓰라림이 계속되고 있는 한반도는 현재도 북미 핵 대결과 남남갈등, 경제침체와 양극화, 고령화, 저출산, 이혼 급증 등으로 온갖 모순이 표출되고 있다. 이는 강대국의 초국적 자본이 신자유주의라는 탈을 쓰고 국제통화기금(IMF),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따위를 앞세워 식량, 에너지, 문화 주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다양하게 공존하던 각국의 고유한 농업을 축소, 해체시킨 결과이다. 우리 민족의 5천년 전통과 문화의 파괴는 물론이요, 생명, 환경, 농업의 위기가 내일을 장담할 수 없도록 증폭되고 있으며, 하느님 창조사업의 협력자이며 생명의 일꾼인 농민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반(反)생명, 반(反)인간, 반(反)공동체적 상황은 우리 운동의 사명과 역할을 다시금 대오각성하게 하고 보다 제대로 된 활동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시대는 우리에게 결단과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의 모든 상황을 넘어 모두를 살리고 함께 사는 길이 생명존중과 공동체적 삶의 실천에 있음을 다시한 번 깊이 자각하고 확신하며, 이의 실현을 위해 총 매진할 것이다. 이는 도농간의 깊은 형제적 우애와 연대, 하느님의 특별한 섭리와 구원의 역사 속에서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지난 40년의 역정은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수많은 경험과 교훈을 위대한 자산으로 남겨 주었다. 우리는 역사발전의 주체가 일하는 사람들임을 재확인하고 죽음의 질서를 생명세상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의 원천도 일하는 농민으로부터 나올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인 사랑과 정의를 따라, 농민 스스로의 각성과 공동체적 삶의 실천을 통해 농업, 농민문제를 해결하고 생명과 평화가 넘치는 인류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해야 함은 변할 수 없는 우리의 사명이다. 이에 대한 고백과 증거야 말로 제2창립 정신의 근간이다.

첫째, 우리는 생명의 일꾼으로서 안으로는 모든 생명을 아끼고 모시고 살리기 위해 공동체적으로 협동하며 생명의 특성인 다양성, 순환성, 관계성을 드높이고, 밖으로는 생명을 해치는 일체의 요소들과 치열하게 대결할 것이다. 생명과 평화를 해치는 일체의 전쟁에 반대하며 모든 핵무기는 당장 완전히 폐기되어야 한다.

우리는 민족의 통일 성업이 우리 민족의 평화와 함께 가난하고 고통 받는 이들을 위한 평화도 함께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둘째, 우리는 창조질서를 지키고 가꾸는 청지기로서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지구환경을 살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먼저 나부터 자연과 하나 되는 농사, 도시생활자와 함께 하는 농업을 실천하며, 지역생태계를 살리고 공동체적으로 협동하는 생명농업실천과 도농공동체운동을 확대, 강화할 것이다. 그 길은 지금의 우리농촌살리기운동을 <우리농운동>으로 발전시켜 개개인과 교구차원을 넘어 공동체적으로 전개하고 범교회적, 범국민적으로 확산하는 일이다.

셋째, 우리는 문명사적 대변혁운동의 주체로서 생명과 평화의 길에 함께 하는 세계교회와 협력하고, 뜻을 같이하는 국내외 민중세력들과의 굳건한 연대를 통해, 제국주의와 산업문명의 폐해에 대항하며, 독점자본의 농업지배를 척결하고, 각국의 고유한 농업이 다양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식량, 에너지, 종자, 문화 주권을 바로 세우는 자립적이고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한다.

오늘 우리의 결단은 무엇보다도 자신에 대한 큰 변화를 요구한다. 지금, 여기서, 나부터 생명공동체 대동세상을 앞당겨 기쁘게, 사이 좋게 사는 삶을 결심하고 선택하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를 생명 중심의 가치관으로 단단히 묶어세우고, 이웃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다시 출발하여 뜻있는 자 누구나 함께하는 조직운동으로 거듭나며 큰 걸음으로 전진할 것이다.

가톨릭농민회 만세! 생명공동체 대동세상 만세!

2006년 11월 8일

가톨릭농민회 창립40주년 기념대회 참가자 일동

생명학회 창립 취지문

시인 김지하는 현대 인류가 처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세계는 병들고 삶은 위태롭다. 인간 내면의 도덕적 황폐와 지구 생태계의 전면적 오염, 그 위에 세계 경제의 위기, 테러와 전쟁, 속수무책의 기상 이변과 온난화, 그보다 더욱더 심각한 전 인류의 깊이 모를 절망과 문명에 대한 회의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이른바 대혼돈(Big Chaos)이다.”

이것은 단순히 극동 아시아 한반도 어느 한 시인의 외로운 탄식이 아니다. 인류가 문명의 위기에 처해 있고 지구 생태계가 붕괴의 위험에 놓여 있으며 해마다 몇 천 종의 생물체가 지구상에서 사라져 가고 있고 우리가 마시는 물, 먹는 음식, 숨쉬는 공기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경종은 이미 사반세기 전부터 들어온 보고라서 새삼 새로울 것도 없는 이야기다.

독일의 주목받는 생태철학자 회슬레는 이렇게 말한다.

“생태학적 파멸은 아주 근접한 미래에서 우리를 노리고 있는 숙명적 사건이다. 이러한 파멸을 피하려는 모든 공동의 노력이나 이를 진정시키려는 모든 전략에도 불구하고 생태학적 파멸에 대한 확신은 그 사이 대부분 사람들의 의식에 자리 잡게 되었다.”

지구촌 시대에 더 이상 근대에서 통용되었던 삶의 원칙은 적용될 수 없다. 울리히 벡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 시대는 제1 근대와는 다른 제2 근대라고 규정하면서 제2 근대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제2의 근대의 관건을 이루는 질문에 대한 답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한탄한다. 그렇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여야만 21세기에 평화가 있을 것이다. 에른스트 울리히 폰 바이츠제커는 “21세기는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의 전망”이 열릴 것으로 보며 “경제 다음에 환경 또는 자연자원의 회소성이 우리 삶의 중심적인 동기”가 될 것으로 내다본다. 프리츨프 카프라는 『생명의 그물』에

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할 수 있다며 “발상의 전환, 인식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의 사고방식과 인식의 틀이 생명 중심으로 바뀌고 우리가 지구 위 모든 생명체와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공동 운명체임을 깨달아 그에 필요한 생명의 정치, 경제, 문화를 펼쳐나가는 생명 문화 공동체를 이루어나간다면 아직 지구 생명에 희망은 있다. 에드워드 윌슨은 생명의 패러다임으로 생명의 다양성을 살려 “생명의 미래, 인류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제레미 리프킨은 생명의 패러다임을 정치, 경제, 문화에 적용하여 “살아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하며 유럽 연합의 노력을 인류의 꿈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1차 세계생명문화포럼_경기2003은 2003년 12월 수원에서 <21세기의 문명의 전환과 생명문화>라는 주제 아래 문화학술마당을 펼쳤다. 이 대회에서 발표한 <수원 세계생명문화 선언문>에서는 “현대 과학과 기술의 문제점을 토론하고, 현대 환경사상을 포괄하면서 아시아에 고유한 창조적인 생명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토론이 이루어졌고, ‘생명학’이란 학문분야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아름다운 모심, 힘찬 살림. 21세기 문명의 전환과 생명문화』, 세계생명문화포럼_경기2003 자료집, 경기문화재단, 2004, 566.) ‘생명학의 정립’은 이런 배경 아래에서 우선 한국적인 전통 생명사상을 연구하여 한국인의 삶 속에 녹아들어 있는 생명의 문화를 이론적·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새로운 삶의 지표로 삼아보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생명학’이라는 이름은 그것이 또 하나의 생명에 대한 이론이 아니라 삶 속에서 삶을 위해 형성된 삶의 지혜를 생명운동의 차원에서 커다란 열개와 틀에서 정리하여 체계를 만들어서 다시 삶을 위한 지침과 가치로 삼아보겠다는 생명실천적 의도를 담고 있다. 삶과 얹이 분리되지 않고, 이론과 실천이 따로 놀지 않는, 삶 속에서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사람이 묻고 배운 그런 삶의 지혜를 지침으로 만들어 다시 삶 속에 되먹임시키는 것이기에 기존의 ‘생명론’이나 ‘생명관’ 또는 ‘생태학’과 차별화시키기 위해 ‘생명학’이라는 이름을 택했다.

‘생명학’에서 우리가 시도하고자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생명’에 대한 논의를 다른 관점이 아닌 생명의 관점과 삶[살아 있음, 살아나감, 살림]의 관점에서 개진해보자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생명에 대한 ‘과학적’ 논의라는 구실 아래 주로 서양의 논의들만이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지구촌 시대 동서 통합을 이야기하는 마당에서 다른 문화권의 생명에 대한 이해에도 귀를 기울여볼 때가 된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학문’ 내지는 ‘과학’에 대한 이해도 서양의 과학전통이 아닌 동양의 학문전통에서 새롭게 이해해보려 시도해 학문의 지평을 넓혀보자는 것이다. 더욱이 생명의 문제는 결국 삶의 문제이기에 삶에 되먹임되어 삶과 연결되지 않는 앎은 죽은 이론으로 남을 뿐이다.

동아시아, 특히 한국인의 생명이해에서 우리가 서양의 생명론과 연관 지어 우선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세 가지다. 첫째는, 우리의 ‘생명’이라는 낱말에는 ‘하늘의 뜻[명령]’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점이다. 거기에는 ‘생명(生命)’은 ‘살라는 하늘의 명령’ 또는 ‘웅일름[천명(天命)]에 따른 몸사름’이라는 의미가 간직되어 있다. 둘째는, 하늘의 명령으로서의 생명과 그 명령에 따른 개별 생명체의 구체적인 삶이 구별되고 있다. 생명은 생명체와 구별된다. [우주적] 생명과 [개별 생명체의] 삶은 구별해야 한다. 우리는 이것을 생명학적 차이라고 이름하고자 한다. 셋째는, 모든 생명현상에는 보이게 보이지 않게 하늘의 뜻이라는 지향성이 들어 있다. 이것을 하늘의 마음이라 부를 수 있고 학문적으로 생명학적 지향성이라 이름할 수 있다. 이것은 물론 첫째 것의 다른 면일 뿐이다.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명학적 차이와 생명학적 지향성이다.

그 다음 동아시아의 학문에 대한 이해에서 우선 강조하고 싶은 점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서양에서 ‘학문’ 또는 ‘과학’이라는 말은 라틴어로는 ‘scientia’, 독일어로는 ‘Wissenschaft’다. ‘Wissen’은 앎(지식)이다. 학문이라는 것은 지식(앎)의 체계다. 그런데 우리에게 ‘학문(學問)’은 말 그대로 ‘배워 물음[묻고 배움, 묻기 위해 배움]’이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묻고 배움[배우고 물음]으로 보았던 이 점을 우리는 오늘날 되살려야 한다. 묻고 배움의 의미는, 묻고 배워서 ‘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격물치지(格物致知), 성의정심(誠意正心), 수신제가(修身齊家),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 궁신지화(窮神知化)의 길속에 들어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학문의 길이다. 학문을 하는 것은 사물을 구명하고 앎에 이르는 사물에 대한 지식획득이라는 인식론적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더 나아가 거기에는 또한 반드시 나의 뜻을 정성되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는 방식으로 나의 몸과 마음을 닦는 일이 속한다. 그런 다음 가족을 돌보아 보살피 집안을 가지런히 하고 나라를 잘 다스려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 더 나아가 자연 자체의 변화를 알고 신의 뜻을 알아내 거기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을 궁극적인 학문의 목표라고 보았다.

1. 지구가 처한 환경 내지 생태의 위기를 생명의 차원에서 해결할 길을 모색한다. 인간의 생존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구 위 모든 생명체의 존립과 지구 생명 자체가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2. 생명에 대한 공부를 통해 생명 중심의 세계관, 인간관, 가치관을 도출해내야 한다. 그러한 정신과 태도 아래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생명문화의 살림살이를 펼쳐나가야 한다. 이러한 생명에 대한 공부와 일상에서의 실천을 우리는 ‘생명학’이라고 이름할 것을 제안한다.

3. 지구촌 시대 지구 위의 모든 생명체는 지구 공동 운명체를 이루고 있다. 생명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인류의 문화 속에 간직되어 온 다양한 생명사상을 공부하고 거기에서부터 현재 우리가 필요로 하는 생명의 패러다임을 구축하려 시도한다.

4. 오랫동안 자연과의 합일 속에 생명존중의 전통을 쌓아온 아시아의 문화유산에 주목한다. 전일론적 또는 통전적 세계관, 관계론적 사고방식, 그물망적 생명 이해, 공생과 상생의 살림살이 등이 우리가 거기에서 주목하는 특성들이다.

5. 현대 과학이 펼쳐 보이는 생명현상에 대한 연구성과를 고려에 넣으면서 그 한계 또한 인식하고 그것을 보완하려 노력한다. 우리는 생명의 역사와 진화, 그리고 그를 통한 다양한 자기전개 속에서 생명의 미학적 차원과 영성적 차원을 읽어내며 거기에 주목한다.

6. 생명의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이론과 지식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 자체인 것에 유념한다. 그리하여 일상의 살림살이에서 자기를 희생하며 약자를 감싸고 보살피며 생명사랑을 실천해온 여성들의 삶의 방식과 태도에서 생명실천의 본보기를 읽도록 노력한다.

7. 생명 중심의 생활을 위해서는 지구상의 모든 사물과 생명체가 서로 상호의존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생명[생물]권 보존에 책임을 다하겠다는 굳은 실천의지가 요구된다. 그렇지만 고통과 불편을 감수하지 않고 생명사랑의 이상은 실현될 수 없다.

8. 경쟁과 지배, 소유와 소비에 익숙해진 현대인의 심성을 바꾸지 않고는 생명문화의 전개는 불가능하다. 우주적 생명의 뜻에 맞추어 자신의 욕망을 억제하여 자신 안에 간직되어 있는 생명사랑의 씨알을 틔워야 한다.

9. 인간은 이제 더 이상 만물의 영장으로서 모든 생명체 위에 군림하는 폭군이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감싸고 보살피며 생명의 지속가능성을 염려해야

하는 관리인 또는 살림지기가 되어야 한다.

10. 세계생명문화포럼은 이러한 깊이 있는 논의 끝에 생명현상이 열어보이는 통전[온전]성, 영성 그리고 아름다움에 주목하면서 살림지기로서의 여성들이 보여준 ‘살림 · 모심 · 깨침’의 정신으로 생명문화를 펼쳐나가야 함을 재확인한다.

64억 인류가 지구상의 다른 생명체와 평화롭게 공존하며 상생해나가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발상[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그에 맞는 새로운 윤리의식과 가치관이 요구된다. 단순한 의식의 변화만이 아니라 그에 맞추어서 우리의 생활관과 생활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확고한 실천의지가 뒤따라야 한다. 이를 위해 네 차례의 세계생명문화포럼은 동아시아의 생명 중심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재조명해서 지금 인류가 봉착하고 있는 생태[생명]위기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를 연구하는 생명학을 정립하려고 노력하였다.

경쟁과 소비가 주도하는 문화에서 살림과 모심이 더불어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착되는 문명사회를 우리는 <21세기 생명 중심의 신문명>이라고 이름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념과 목적 아래 정치와 경제 그리고 문화의 틀을 새롭게 짜서 우리의 생활세계를 생명평화의 시각 아래 근본적으로 바꾸어나가려는 전지구적 살림운동을 펼치려고 한다.

생명학회에서는 어떤 이념적 틀 안에서 생명의 정치, 생명의 경제, 생명의 문화가 전개되어야 할지 그 이론적 토대를 점검하여 새롭게 구축하려 시도한다.

- 지구상의 모든 다른 생명체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생태[생명]중심의 도덕 또는 가치관은 어떠해야 하는가?

- 신을 경외하며 하늘 아래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사이좋게 살아가야 하는 인간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 이념과 성별 그리고 피부색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민족이 한데 어울려 함께 더불어 사는 상생과 공생의 정치는 어떠해야 하는가?

- 경쟁과 효율성만을 내세우지 않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아우르며 보살피는 살림과 돌봄의 경제는 어떠해야 하는가?

- 다양한 문화의 꽃을 피우며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신명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문법과 문화의 논리는 어떠해야 하는가?

-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생명과 평화의 시각 아래, 살림과 모심의 정신으로 지구차원에서 살림운동을 펼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인 고려와 대책이 [국제적

인 관계망, 호혜망]이 필요한가?

지구 생명 시대 지구 위의 모든 생명체를 보호하고 관리해야 하는 살림지기로서의 인간은 생명에 뿌리를 둔 삶의 진리, 삶앓의 진리, 살림의 진리를 묻고 배워서 생명의 진리에 부합한 살림살이의 규범을 정립해야 한다. 정치, 경제, 사회, 기술, 과학 모두 생명의 신명을 일깨우는 살림의 축제와 마당이 되어야 한다. 지구의 살육자인 인간은 한시바빠 살림지기로써 거듭나야 한다. 그래야 새 천년에도 인류는 인간이 포함된 우주 진화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2007년 5월 26일

<생명학회> 발기인들을 대표하여

이 기 상

생명평화경

나는 다음과 같이 들었습니다.

눈 내리는 한 밤중에 진리의 스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명평화 세계관)

생명평화의 벗들이여!

생명평화 길의 근본이 되는 존재의 실상인 상호 의존성, 상호 변화성의 우주적
진리를 설파하리니

그대들은 귀 기울여 잘 듣고, 깊이 사유 음미할지니라.

이것이 있음을 조건으로 저것이 있게 되고, 저것이 있음을 조건으로 이것이 있게
되며,

이것이 없음을 조건으로 저것이 없게 되고, 저것이 없음을 조건으로 이것이 없게
되나니라.

존재의 실상인 상호 의존성, 상호 변화성의 조건을 따라 생성, 소멸하는 우주의
진리인 이 사실은,

과거에도 그러했고, 현재에도 그러하며, 미래에도 그러할 것이니라.

(생명평화 사회관)

생명평화의 벗들이여!

서로 의지하고 변화하며 존재하는 생명의 진리는 우리 모두의 영원한 길이니,

지금 진리의 길에 눈뜨고 진리의 소리에 귀 기울일지니라.

자연은 못 생명의 의지처이고,
못생명은 자연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공동체 존재이니라.
이웃 나라는 우리 나라의 의지처이고,
우리 나라는 이웃나라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국가공동체이니라.
이웃 종교는 우리 종교의 의지처이고,
우리 종교는 이웃종교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종교공동체이니라.
이웃 마을은 우리 마을의 의지처이고,
우리 마을은 이웃마을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고향공동체이니라.
이웃 가족은 우리 가족의 의지처이고,
우리 가족은 이웃가족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가족공동체이니라.
그대는 내 생명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공동체 생명이니라.

진리의 존재인 못 생명은 진리의 길을 걸을 때 비로소 평화로워지고, 행복해지나
니,
그대들은 깊이 사유 음미하여 실행할지니라.

(생명평화 인간상)

생명평화의 벗들이여!
생명의 실상을 달관하는 안목으로 자족의 삶을 가꾸는 진리의 삶을 살지니라.

생명의 고향인 자연을 병들게 하는
진리를 무시한 인간 중심의 이기적 삶을 버리고
우주 자연을 못 생명의 하느님으로 대하는 진리의 삶을 살지니라.

우리 나라의 의지처인 이웃 나라를 불안하게 하는,
진리를 무시한 내 나라 중심의 이기적 삶을 버리고
이웃 나라를 내 나라의 하느님으로 대하는 진리의 삶을 살지니라.

우리 종교의 의지처인 이웃 종교를 불안하게 하는,
진리를 무시한 내 종교 중심의 이기적 삶을 버리고
이웃 종교를 내 종교의 하느님으로 대하는 진리의 삶을 살지니라.

우리 마을의 의지처인 이웃 마을을 불안하게 하는,
진리를 무시한 내 마을 중심의 이기적 삶을 버리고
이웃 마을을 우리 마을의 하느님으로 대하는 진리의 삶을 살지니라.

우리 가족의 의지처인 이웃 가족을 불안하게 하는,
진리를 무시한 내 가족 중심의 이기적 삶을 버리고
이웃 가족을 내 가족의 하느님으로 대하는 진리의 삶을 살지니라.

내 삶의 의지처인 상대를 불안하게 하는,
진리를 무시한 자기 중심의 이기적 삶을 버리고
상대를 내 삶의 하느님으로 대하는 진리의 삶을 살지니라.

모든 생명의 의지처인 우주 자연과
내 나라의 의지처인 이웃 나라와
내 종교의 의지처인 이웃 종교와
내 마을의 의지처인 이웃 마을과
내 가족의 의지처인 이웃 가족과
내 생명의 아버지신 그대의
개성과 가치의 존귀함과 고마움과 소중함에 대하여
지극히 겸허한 마음으로 존중하고 감사하고 찬탄하는 진리의 삶을 살지니라.

진리란 지금 현재 존재의 실상을 뜻할 뿐 그 밖의 다른 것이 아니므로
언제나 지금 여기에서 볼 수 있고 이루어지고 증명되도록 해야 하느니라.
진리의 길은,
현재의 삶을 진지하게 성찰할 때 그 실상이 드러나고
진리의 서원을 세울 때 생명평화 삶이 실현되나니 항상 깨어있도록 할지니라.
생명평화경은 지금 여기 너와 나의 삶의 실상을 비추어보는 거울이니

항상 생명평화경의 사상과 정신에 어긋나지 않도록 명심하여 깨어있을지니라.

(생명평화 聞·思·修)

거룩하십니다.

진리의 스승이시여!

진리의 가르침을 귀 기울여 잘 듣겠습니다.

깊이 사유 음미하겠습니다.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실행하겠습니다.

생명평화선언문

생명평화탁발순례 5년 전국순례를 마치며

일찍이 통찰력이 뛰어난 옛 스승들과 21세기 첨단과학은 온 우주를 우리 모두 함께 살아야 할 한 집, 무수한 그물코로 이루어진 하나의 그물임을 밝히고 있다. 인류 문명은 우주의 존재법칙과 시대정신의 무지함으로 인하여 자연을 버리고 인간만의 길을, 이웃 나라를 버리고 내 나라만의 길을, 이웃 종교를 버리고 내 종교만의 길을, 이웃집을 버리고 내 집만의 길을, 상대를 버리고 나만의 길을 향하여 질주해왔다. 그 결과, 자연재앙이 인류문명을 위협하고 일상화된 폭력이 우리 사회를 공포에 떨게 하고 사회 양극화가 우리 모두의 삶을 황폐화시키는 생명위기·평화위기 상황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본래 우주 전체가 한 집 · 한 그물인 것처럼 지구 전체도 한 마을 · 한 집이었다. 어느 한 곳도 내 집과 무관한 곳이 없고 그 누구도 내 식구와 연결되지 아니한 존재가 없다. 오랜 역사경험은 우주의 존재법칙과 시대정신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됨을 잘 보여주고 있다. 21세기 현대사회는 우주의 존재법칙이 현실 삶으로 이루어지는 지구촌 시대가 되었다. 21세기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은 기존의 세계관과 가치의식과 삶의 방식을 버리라고 요구하고 있다. 만일 우주의 존재법칙과 시대의 요구를 무시하고 기존의 입장을 고집하는 한, 인류문명의 파멸을 면할 길이 없음을 여러 형태로 경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위기의 나락으로 질주하고 있는 현대문명의 모순과 위험을 깊이 인식한 우리는, 우주의 존재법칙과 21세기 시대정신에 따라 인간과 자연 · 동양과 서양 · 종교와 과학 · 종교와 종교 · 도시와 농촌 · 이웃과 이웃 · 너와 내가 공존과 조화를 이루는 길을 가고자 한다.

이에 생명평화세상을 염원하며 걸어온 생명평화탁발순례의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함께 한 생명평화의 염원을 모아 기존의 파괴적이고 야만적인 싸움과 죽음의 문명을 넘어 평화와 살림의 길인 생명살림 · 평화살림의 대안문명의 길을 가꾸고자 아래와 같이 뜻을 밝히고 다짐을 한다.

1. 한반도 우리 민족 사회가 자연과 더불어 함께하는 농자천하지대본을 근간으로 하는 생명평화공동체임을 선언한다.

2. 이웃과 더불어 함께하는 민주주의의 생활화를 통해 생명평화공동체 사회를 실현한다.

3. 더불어 함께 잘 어울리는 단순소박한 삶의 생활화를 통해 생명평화공동체 사회를 실현한다.

4. 21세기 인류의 희망인 생태자립 주민자치의 마을을 통해 생명평화공동체 사회를 실현한다.

5. 진실과 사랑의 길인 비폭력 불복종 실천과 대안모색으로 우리 사회가 생명평화공동체가 되도록 진력한다.

2008년 12월 14일

생명평화탁발순례를 마치며

생명평화결사 생명평화탁발순례단

생명운동 관련 매체



생활공동체운동, 그 평가와 전망

때 : 1985년 2월 10일

곳 : 대전 가톨릭농민회 본부

참석자 : 박재일(농민운동가, 강원도 원주 거주), 최재영(농민운동가, 충북 음성 거주), 이병철(가톨릭농민회 조사연구부장), 홍석화(연극인, 자유기고가), 정성현(가톨릭농민회 사무국장, 사회)

정성현 : 공동체운동, 특히 생활공동체운동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서울권에서 많은 이야기가 되어온 것 같습니다. 특히, 사회과학적 인식을 바탕으로 운동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생활공동체운동 자체에 대해서 대체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듯합니다. 그 뼈대를 추려 보면, 첫째로 공동체란 원론적으로 추상적인 개념이지 실제로 구조 또는 구조악을 극복하기 위한 실천적 집단운동으로서 자리하기는 힘들다는 것이고, 둘째로 대부분의 공동체운동이 종교적 동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실 내용은 종교적인 것이면서 겉질만 ‘공동체’라는 형태로 둘러싸운 것이므로 공동체라는 것 자체가 일반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 있지요. 세 번째는 좀 근본적인 이야기인데, 역사발전단계와 관련하여 볼 때 지금에 와서 공동체를 운운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며 더욱이 과거의 원시공동체나 특히 민족공동체 같은 것들 자체가 억압과 지배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었던 점이 없지 않다는 점, 그리고 설령 미래지향의 공동체 논의가 가능하다 해도 그것은 추상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그야말로 ‘논의’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박재일 : 가톨릭농민회에서 애초에 이 생활공동체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은 전체 운동을 깨고 방향을 흐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발전시켜 보자는 뜻에서

나온 것 아니었습니까?

정성현 : 그렇지요. 그러나 이 자리에서는 ‘공동체란 무엇인가’하는 식의 무익한 개념 정의나 추상적인 논의보다는 현재 이 땅의 구조적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싸움에서 요구되는 공동체운동은 무엇이고 실제로 우리 현장에서는 무엇이 요구되고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이 이 자리를 마련한 취지에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여러 곳에서 이야기되어 온 현실적인 필요성 내지는 생활공동체운동이 하나의 운동의 정착할 수 있는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아울러 외국에서의 사례라든가, 요즘 많이 논의되고 있는 도·농협의회 등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논의해 보았으면 합니다.

홍석화 : 사실 안팎의 독점자본과 파쇼권력 아래 짓눌린 상황에서,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반독점, 반파쇼투쟁이 필요한 상황에서 엉뚱하게 이런 것이 튀어나와 결집해야 할 사회운동의 역량들을 분산시키고 운동에 혼선을 가져오며 작게는 농민운동에 있어서도 농촌 내외의 모순에 대한 투쟁이 진력하지 못하도록 힘을 빼고 방향을 호도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상당히 있어 왔던 것도 사실이지요.

박재일 : 이제까지 농민운동을 전개하는 과정 속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갈등과 어려움을 크게 느꼈던 부분이, 이들 농민들 속에서 공동체적 연대감이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농민은 땅을 기반으로 하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협동적 생산활동이 필요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 삶의 물질적, 정신적 관계에서도 풍요로울 수 있는 것인데 점점 그 삶이 개별화되고 개인적으로도 메말라가고 있던 말이지요. 농민운동을 같이 해나가는 사람들끼리는 사실 논리보다는 깊은 인간적 연대감과 삶의 일상적 과정 속에서 생겨나는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하나의 껍질들을 깨쳐 나가면서 하나(일체)되어가는 것인데, 실제로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안타까움과 고민에서 이러한 논의가 출발한 것이라 할 수 있지요.

또 하나는 도시에 살고 있는 공장근로자 내지는 도시주민들과 농민들 간의 연대 문제인데, 예를 들을 농촌에 부모를 두고 도시 공장에 돈 벌러 간 아들, 딸들을 생각해 봅시다. 대부분 농민의 아들, 딸들이 농촌을 떠나 근로자로서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고통 받으며 일하고 있는데, 결국 근로자들의 문제도 농촌문제와

한 뿌리에서 자라난 또 다른 가지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인식을 떠나 일상적 삶으로 돌아와 보면, 쌀 값, 농산물 값을 정당하게 받자는 농민들의 주장이 제기되었을 때 과연 눈앞의 이해관계를 떠나 그것을 바르게 인식하고 지지하는 근로자가 몇이나 되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이렇듯 매사가 추상적인 운동논리나 당위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게 저희들의 고민이었습니다.

이병철 : 그래서 같이 모여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속에서의 협동적 삶을 만들어가는 운동이 되지 않으면 운동 자체가 실상과 유리된 ‘똥 것’이 되어버리고 설령 세력이 형성되어 하나의 힘이 된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가서는 그것이 농민의 현장엿 떠버리고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흩어져버린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면서 이제까지 쌓아왔던 힘을 바탕으로 운동을 보다 폭넓게 발전시키고 바른 방향을 모색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출발하여,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환이 아니라 운동을 보다 심화시키고 현실에 접근시키고자 하는 우리들 나름대로의 모색 속에서 나온 표현이 ‘공동체’라고 할 수 있지요.

운동의 구체적 공간 획득을 위하여

박재일 : 오히려 과거의 촌락공동체랄지 민족공동체 등의 기존 용어들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지향하는 하나의 대안적인 표현으로서의 공동체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공동체라는 표현 역시 운동 속에서 나온 것인데,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역동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굳이 “이러이러한 것이 공동체다”, “이러 이러한 공동체를 우리는 지향한다”라고 정의하게 되면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를 고정화시켜 죽여 버리는 결과가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직 내부에서조차도 “공동체는 이런 것이다”라고 정리된 표현을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공동체라는 말, 자체를 거부하던 사람도 실제로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아, 이런 것이 바로 공동체구나”라고 느껴 가고 하나씩하나씩 거들쳐 올라가는 속에서 저절로 공동체가 되어 가는 과정을 경험해 가는 것이지요.

정성현 : 저 같은 경우는 공동체운동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끼는 편인데. 우선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 구체적 형태는 어떤 것이 될 수 있을 것

인가, 그리고 그것이 전체 운동에 기여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쉽게 말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운동인데, 지금까지는 사람 사는 것과 운동을 갈라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지요. 소위 운동한다는 사람들이 사회구조 운운하면서 세상 이야기만 하고 종교 쪽에서는 또 세상 이야기는 외면한 채 개별적인 사람 이야기만 하는 식이었습니다. 세상과 종교, 운동과 삶을 동떨어진 논리로서가 아니라 총체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생활과 분리된 운동은 생명이 길 수 없다는 현실적인 경험 속에서 출현한 것이 바로 이 생활공동체 운동인 것이지요.

박재일 : 농촌에서는 그래도 공동체의 필요성이 생활 속에서 쉽게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농업노동에서 가래질 같은 것은 혼자 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히 몇 사람은 당기고 몇 사람은 대고 하면서 하나가 되어 일하는 것인데 이제는 기계가 들어와 그런 협동적인 노동방식이 다 사라져버렸지요. 또 옛날부터 농민들은 땅을 죽은 것이 아닌 ‘살아있는 생명’으로 보았고 서로 이익을 주면서 땅과 공생하던 관계였는데 이제는 “내가 필요하면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든 상관없다”는 식의 약탈관계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땅으로부터도 보복을 받게 되는 정도로까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비단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까지 몰고 간 세상을 바로잡지 않고는 치유가 불가능한 것이지요. 치유가 되지 않으면 농민은 계속해서 제대로 농사도 못 짓고 못사는 거고, 비료문제도 마찬가지지요. 비료회사가 농민을 골탕 먹이고 있는데, 비료회사는 왜 생겨났느냐, 원래의 농사는 비료가 필요 없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정부는 왜 비싼 비료 쓰기를 권장하고 강요하다시피 하는가 이런 식으로 생활 속에서 이야기를 풀어 나가면서 오늘의 농촌이 왜 이렇게 되었나 이야기하다 보니까 속속들이 농촌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는 큰 힘들이 있었더라 이런 말이지요. 저 힘에서 벗어나야 농민이 살겠는데 그러려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천만 농민이 다 똘똘 뭉쳐야 되겠고 그 방법은 단순한 부정이 아닌, 보다 근원적인 것을 보는 눈을 갖고 문제해결을 위해 실제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 가는 것이지요. 그런 시각에서 보다 보면 문제를 뚫고 들어갈 만한 일들이 참 많아요. 미원이나 미풍 등 화학조미료가 이제는 필수품이 되어 버렸는데 옛날에는 그런 것을 안 먹었던 말이지요. 왜 우리들의 입맛이 그것에 길들여지게 되었는가, 안 먹으면 안 되는가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나가다 보면 그것을 판매하

는 거대한 독점재벌에까지 이야기가 미치고 해결방안까지도 나오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다 보면 농사짓는 사람이건 아니건 배운 사람이건 못 배운 사람이건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모습도 바로 보게 되고 부락이 되어가는 모습도 보게 되고 나아가서는 농민들 살아가는 것하고 관계되는 바깥세상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무슨 농민들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 또는 전술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 자체가, 구체적으로는 작은 문제에서 시작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큰 어떤 것이지요. 살아가는 생활의 문제를 놓쳐버리고 그것을 뭉뚱그려 전체로서만 운동을 생각하다가는 뜬 이야기가 되고 말아요.

삶의 현장에서 출발하는 운동

정성현 : 현재 구조가 지탱하고 힘을 발휘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 없이 그저 살아가기 때문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농촌형편이나 생활 조건이 극복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농민운동에 협력하고 동참해야 된다고 믿으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드러나 보이는 운동의 장에서 많은 이들이 모여 외치는 것만을 중요시하고 생활을 통해서 할 수 있는 폭넓은 운동,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출발하는 문제는 도외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문제를 풀어나가는 하나의 고리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몫인데도 말이죠. 예를 들어 외국농산물 도입이 계속 우리 농업을 망가뜨리고 농민생활을 파괴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걸 먹여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걸 먹여주는 사람은 과연 누구냐 하는 것까지 생각해야 하는데, 그런 데는 미처 관심을 안 가졌었지요. 그런 미세한 곳까지 관심을 갖고 보기 시작하면 어떤 경우, 어느 장소, 어느 사람도 실질적인 생활을 통해서 ‘만남’이 가능한 것이지요. 작은 일상 속의 일들을 통해서 농민끼리, 농민과 도시 주민이, 도시사람들끼리, 남자와 여자가 서로 폭넓게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실질적인 틀이 꾸준히 깔려나가면서 자꾸 퍼지게 되고 그럼으로써 운동을 계속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박재일 : 우리가 하고 있는 생활공동체운동이 지금까지 각 부분에서 해오고 있는 운동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발 더 나아가고 폭을 넓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동체적인 만남을 통해서 여태까지 같이 만나고 일해 나가는

데 있어 도저히 서로 간의 벽을 허물지 못했던 다수의 역량들이 같이 연결되면서 서로 힘이 되어질 수 있고 그렇게 연결된 각자의 힘을 통해 자기를 다시 세워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특히 도시에서는 많은 힘의 요소들을 발굴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관’을 만들어 가는 속에서 공통의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해나가는 것이 바로 공동체 운동이지요. 농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특히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접 만남은 아주 중요하며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또 모든 문제가 복합되어 나타나는 것이 공해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구체적인 내 문제로 보고 내가 깨져가면서라도 내 주변에 대해 관심을 갖고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도시면 도시, 농촌이면 농촌의 현재 있는 그 생활조건에서부터 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정성현 : 70년대에 구조적인 모순, 특히 농민문제에 대한 크고 작은 싸움들을 해 오다 보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운동이 궁극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생활에 깊숙이 뿌리내린 운동이 되어야하지, 원칙론적인 운동방식만으로는 안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 몇이 나서면 해결은 빠르고 부분적이거나 얻어지는 성과가 있긴 하지만 일반 대중의 생활과 유리된 것이어서는 절대로 진정한 목표발성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머리로는 독점자본에 반대한다 하면서도 실제 생활에서는 그들의 충실한 소비자 역할을 다하고 있다면 무슨 운동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 사회의 경제적, 구조적 모순을 해결해나가는데 있어서도 그런 큰 틀과의 전면적 싸움과 아울러 개개인의 사고방식, 생활방식 속에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겠지요. 좀 늦더라도 농민대중들이나 주민들이 힘을 합쳐 스스로 싸움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운동은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까지도 포함한다는 것을 체험 속에서 느꼈다고나 할까요.

공동체, 전술적 과제만은 아니다

이병철 : 생활공동체라는 것을, 그리고 운동이라는 것을 그럴듯한 이상의 모습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오늘날 농민이면 농민, 노동자면 노동자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 문제해결이 가능한 것이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소위 민주화를 위한 싸움과 계급적 이해관계를 위한 싸움의 힘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지금처럼 문화통치에 의한 대중조작도 기본적인 생활단위의 건전성을 통해서 그 해독을

피할 수 있다고 봐요.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다 보면 모든 문제가 구조적 모순과 직결되기 때문에 결국 그 틀을 받아들이는 상태에서는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그런 걸 깨달아 가다보면 농약문제로부터 공해문제, 세계자본주의문제까지 하나의 큰 문제의 고리들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결국 현장 최말단까지 모순은 연결되어 있던 이런 말이지요.

정성현 : 예를 들어 노동자를 놓고 보더라도, 노동자는 노동자로서 노동력을 팔고 있는 사람인 동시에 소비자이자 도시주민이 아닙니까? 이것을 떼어놓고 보아서 안 된다고 봐요. 여러 가지 외부적 조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운동하는 사람들도 초조하고 살아가는 구조 자체가 하도 희한하게 되어 버렸으니까 여유를 갖는다는 게 상당히 힘이 들긴 합니다만, 운동이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조건이 어려울수록 문제를 총체적으로 보아야만이 뚫고나갈 길이 열린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총체적으로 문제를 파악하는 데서 출발하여 구체적인 방향으로 풀어나가기 시작하면 생활공동체운동은 우리 운동력을 키우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홍석화 : 명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밀한 전략, 전술적 차원에 들어가 일상 공간 하나하나 심고 풀어나가는 것이 생활공동체라면, 사회과학 논리에 바탕을 둔 운동은 정치적 명분투쟁이라고 볼 때, 생활공동체운동이 공동체적 일상성을 너무 강조함으로써 대의를 약화시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이 부분에 대한 해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병철 : 우선 농민운동이나 노동운동 같은 기층 민중운동과 지식인 운동 내지는 정치운동을 싸잡아 놓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운동들 각각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리시켜 보면 구체적인 생활, 삶 자체를 떠날 수 없는 것이 바로 기층 민중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첫째 공동체 운동 자체를 하나의 전술적 과제로만 보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보는 데 이것은 공동체운동의 목표가 바로 사회구조적인 모순으로 인해 파괴된 삶을 회복한다는, 삶의 본질적인 가치추구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회구조 속에서 왜곡된 삶을 강요하고 진정한 삶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한 싸움은 당연한 것이되 생활 속에서 기본적인 토대를 갖추므로써만 삶을 억압하는 사람구조나 세력을 깨뜨릴 수 있는 힘이 나온다

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음성 대중집회나 마을 단위의 농민대회가 가능했던 것도 그것이 기본적인 삶을 토대로 했기 때문이듯이 운동 주체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생활단위에서 구체적인 영향력을 가질 때 실제적인 힘이 형성되고 싸움이 가능해진다고 봅니다. 오히려 생활공동체운동을 통해서 각각의 운동이 고립,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인 운동역량으로 커 가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따라서 전술적 차원에서 볼 때도 특히 80년 이후 민중운동세력을 고립시키려는 술책이 강화되고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도시문화의 변방, 농촌

정성현 :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들은 대강 나온 것 같습니다. 공동체운동에 대한 몇 가지 사례를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갔으면 합니다. 최 회장님께서서는 음성에서 농민회 활동을 하시면서 공동체운동을 위해 애쓰고 계신데 그동안 겪고 느낀 바를 좀 얘기해 주시죠.

최재영 : 지금 농촌에서는 실제로 협동생활이나 협동정신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을 정돕니다.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두레나 품앗이가 성행했었는데 이제는 거의 사라져버리고 일을 해도 혼자서 따로따로 해요. 제가 천주교회에 다니면서 공동체 이야기, 사랑 이야기도 많이 듣고 했지만 실제로는 찾아볼 수가 없어서 회의도 많이 느끼고 했는데 78년도에 농민회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일도 해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무렵에도 이미 농촌이 해체되어 사랑방도 사라지고 TV가 들어와 안방에 자리 잡게 되어 이제는 이유도 모르고 사는 농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삶의 고독감을 느끼게 되고 보람도 없고 저녁 먹고 가족이나 이웃끼리 모여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는 대신 TV나 보고 있다가 프로가 끝나면 잠가는 거고.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참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웃 간의 인정도 찾아 볼 수가 없게 되어 모였다 하면 싸움거리나 찾고, 앉으면 남의 홍보고 험담이나 하고 말이지요.

풍물 같은 것도 이젠 다 사라져 버리고 오히려 농민 아닌 남의 것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런 걸 벗어나서 농민이 하나 되어야 하겠다 싶어 먼저 풍물만이라도 되살리려고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거부반응이 굉장

히 일어납니다. 안방에 앉아 TV나 보고 모여서 화투나 치고 하는데 익숙해 있던 사람들이라 풍물 치는 게 시끄럽다고 싫어하더군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매일 막걸리를 사다 놓고 오는 사람들에게 주어가면서 설득해 보고 매년 정초에는 율놀이도 시작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옆 동네에서도 노인네들이 풍물소리를 듣고 마실을 오게 되고 마을사람들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뛰어나와 막걸리잔도 나누고 안 올라가는 팔도 올려 경중거려 뛰어도 보고 내가 모르면 저 사람이 알려주고 저 사람이 모르면 내가 알려주고 하면서 하나가 됨을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무슨 실수를 해도 오히려 이해해주고 감싸주게 되었지요.

정성현 : 농민들의 생활양식이나 의식 속에 외부의 영향이 깊숙이 침투해 있다는 것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작년 9월에 강원도 고령지체소 재배 지역에 갔었는데, 그 무렵 다른 지역이 수해로 농사를 망친 바람에 그 지역 농민들이 상대적으로 엄청난 이익을 봤어요. 단기간에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한 큰돈이 들어오니까 제일 경기가 좋은 곳이 생맥주집이하고 카세트 녹음기 가게더군요. 그곳에 카세트 가게가 네 군데 있는데 한 군데서 물어 보니까 그 며칠 사이에 1백 50개를 팔았대요. 돈이 딱 생기니까 그동안 갖고 싶던 것을 다들 샀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작년에 당진에 갔을 때 보았던 건데, 낮에 일을 하다가 새참을 먹고는 리 단위에 들어와 있는 다방에서 커피를 시켜다 먹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자주 있냐고 물으니까 가끔 그런대요. 이런 식으로 TV를 통해서 보고 들은 도시의 소비풍조가 농민들 생활 깊숙이 침투되어 있는 거죠. 이런 일에서부터 하나하나 고쳐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체험을 통한 운동으로

최재영 : 농민들에게는 말보다도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서 얻어지는 게 있어야 하나하나 먹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 부락에서 제일가는 문제는 농약공해문제인데 총알보다 더 무서운 게 농약공해 아닙니까? 지금 농촌에서 농민들이 농약을 쓰는 정도가 아주 심각해요. 농약은 주면 줄수록 더 쥐야 하게 마련이라서, 과거에 한 가지 농약을 20cc정도 쓰면 되던 것이 이제는 너덧 가지를 각 50cc씩 섞어도 안 될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농민들은 농약을 무슨 치료약 정도로 생각하고, 또 지도소에서는 “다른 데는 다 주는데 이 논만 안 주면 버리게 된다”는 식

으로 이야기를 해요. 농민들이 너무나도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모르고 그저 관에서 좋다면 좋은 줄 알고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늘 안타깝던 차에 ‘무공해 농산물로 값 더 받기’를 시도해 보자는 생각이 나더군요. 저 자신이 몇 년 전 농약 때문에 죽을 뻔 하다가 살아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각성은 누구보다 절실하지요. 사람들에게 농약이 해롭다고 뿌리지 말라고 아무리 해 봐야 처음엔 말이 먹히질 않습니다. 그래서 “농약 안 준 고추를 재배해서 값을 더 받아보자”고 설득했더니 한 아홉 가구가 따라오더군요. 83년도에 고추 값이 폭락해서 한 근에 최하 4백 원으로까지 떨어졌는데 제 말을 듣고 농약을 안 주고 수확한 사람들은 청주 시내에 가서 그 당시에 1천원 이상씩 받았어요. 그런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저희 부락에 농약 안 주고 농사짓는 사람이 많아요.

또, 제초제를 뿌리지 말자고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던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제초제 안 뿌린 논보다 오히려 역센 풀만 많아지니까 이제는 “아차 저 사람들 말이 옳구나”하면서 따르게 됐지요. 작년 한 해 동안 그제 제일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오히려 우리에게 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묻게까지 되었습니다.

제 자신도 농사지으면서 이태 동안은 조롱도 많이 받고 했지만 부락민들 찾아다니면서 “우리 농민은 농사지으면서 앞으로 남는 것만 생각하고 뒤로 밀지는 것은 생각 못한다. 농약을 쳐서 설령 수확이 좀 많다 해도 농약 값, 비료 값 빼고 나면 얼마나 남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 그리고 농약을 먹고 자신도 모르게 죽어가고 있대도 병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지 않는가. 또 그 공장들은 결국 외국 사람들이 투자한 것이니 우리가 농약 값 낸 것은 다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들 수긍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다 보면 우리 경제와 세계자본주의 구조에까지 이야기가 미치게 되는 것이죠. 아마 우리 부락이 농약 안주기로 전국에서 꼽히는 부락일 겁니다. 요즘 웬만한 농촌 부락에서 매미 소리나 여치 소리 듣기도 힘든데 우리 마을에서는 점점 매미도 날아오고 미꾸리도 있고 해거름에는 지렁이 함창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옛 풍경을 조금씩 엿볼 수 있게 되었지요. 이렇게 하나하나 일을 해나가고 체험을 통해서 사람들이 흡수되어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이제는 의식도 상당히 깨어가는 듯합니다.

박재일 : 경북 의성군 쌍호부락이 생활공동체운동과 관련하여 많은 것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좋은 사례일 것 같은데, 최 회장님이 살고 계시는 성미부락처럼 그

부락도 골짜기 맨 꼬트머리에 자리 잡고 있는 외진 곳이고 독을 넘으면 낙동강인데 거기서 농민회가 시작된 지 7년이 넘었습니다. 천주교 공소가 있는 곳이라 처음에는 그걸로 연결되어서 교육이 시작된 곳입니다만 지금은 생활공동체운동이 상당히 성공적으로 정착된 곳으로 자타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땅 한 필지를 딱 모아서 공동으로 경작하는 식의 고급 협동체는 아니지만 배추를 공동으로 재배해서 대구에 있는 천주교 소비자들과 연결, 직거래를 해 본 경험도 있고 풍물도 되살렸는데 인근 부락사람들까지 합쳐 안 5백 명 정도까지 모인 적도 있더군요. 농촌에서 5백 명이 모인다는 게 보통일이 아니에요. 또 여름철에는 노인들을 전부 모셔서 경로잔치도 하고 그럼으로써 서로 간에 살아가는 데 힘이 되고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죠. 앞으로는 신자 아닌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모두 모일 수 있는 터를 회관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보자는 것이 가장 큰 계획이고 또 하나는 생산이나 판매를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가 보자는 포부를 갖고 있더군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회원이 하나둘 늘어서 이제는 자연스럽게 분회가 하나 더 생겨나 새끼를 쳤어요. 이런 일을 통해서 조직이 자연스럽게 확대되는 모범적인 사례로서 안동 같은 데도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지요.

실제로 그 공동체(자기네들 스스로 자랑스럽게 공동체라고 이야길 하는데)가 잘 유지되는 이유를 자체 내에서 이렇게들 원인 분석을 하더군요. 첫째로 그 마을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이 농민회 교육을 받는다는 점이 성공의 가장 큰 이유라 보고 있어요. 단계별로 나눠서 수준에 따라 교육을 하고 자체 내에서 “올해는 무슨 현장교육을 해야겠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필요한 사람을 불러다가 자기네 실정에 맞는 교육을 합니다. 내리먹이는 식의 교육이 아닌 것이죠. 또 하나는 농민회가 봉사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생색이 나건 안 나건 동네 장마 때 길을 고친다든가 어려운 일을 도와준다든가하는 등의 일을 솔선수범하면서 마을의 신뢰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원론보다는 방법이 문제다

최재영 : 운동하는 사람들이 자기 몸을 던져 헌신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농민회 회원들이 앞장서서 큰 일을 해결하고 개인적인 일들은 일일이 이익을 따지지 않고 양보하면서 억울해도 참아내고 하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로부터 신임을 얻게 되고 신임을 얻게 되니까 다 따라오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 분회를 만들 때 좀 특이하게 17세에서 47세까지 가장 신입 받을 만한 사람들만을 두레로 묶었고 지금 현재도 들어오려는 사람은 많지만 오히려 관에서 제압하기 쉬운 사람, 마을에서 농땡이나 치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되도록 가입시키지 않고 있어요. 뒤에서 그냥 후원만 하라고.

정성현 : 농민에의 접근방식에 시사적인 한 사례를 얼마 전 성환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농민회 회원 중 하나가 성환에서 침술을 하는데 환자에게 침을 놓고 치료하는 동안 이러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흥미롭더군요. 우선 “왜 아프냐”고 물으니깐 “못 먹고 일이 고되고”하는 이야기는 당연히 나오고 그 다음엔 “마음이 불편하고 뭔가 울컥하고 치미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하고 쪽 이야기하다 보니까 농사지어서 제값 못 받는다는 이야기부터 의사가 시내에만 있다는 것, 농민은 의료보험이 안 된다는 문제까지 깊이 있게 나와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쉽게 체험 속에서 저절로 이야기가 풀려나 오게 하지 않고, 농민운동 하다는 사람들이 농민들을 앞에 놓고 “제도적으로 이러이러하게 나쁘니 농민은 피해자다. 그러니까 모두 힘을 합쳐 의료보험을 요구하고 농민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외쳐 봤자 안 먹혀 들어가요. 사실 농민들이 체험 속에서 알고 있는 게 무진장 많기 때문에 분위기만 잘 맞으면 스스로들 이야기를 다 해요. 농민들과 소소한 데서부터 말을 풀어나가기 시작하면 “우리들끼리라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건강을 지켜야한다”는 해결 방안까지 다 나오지요. 그걸 실제로 조직화에 어떻게 연결시키느냐의 여부는 시간이나 여건 등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것이지만 어쨌든 생활상의 구체적 요구로부터 접근하면서 원론적인 것으로까지 나아간다는 데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말로는 ‘민중교육’, ‘민중운동’ 운운하면서도 실은 위로부터 내리먹이고 대리모 시키고, 잘 안되면 “농민들이 이러이러해서 잘 안 된다”고 판단하여 심지어는 무시하는 경향까지도 있었던 게 사실 아닙니까? 접근방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반성을 안 하고 말이죠.

이념공동체와 생활공동체

홍석화 : 경기도 양주에 있는 풀무원 같은 경우는 무공해식품 재배에 의미를 두기 보다는 공동체생활을 현실화해 본다는 하나의 실현체로서 있는 건데, 여러 가

지 요소랄까 종교적인 면, 더 나아가 원리 혹은 논리 같은 것이 조합되어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요. 그 자체가 들여다 볼 수 있는 하나의 틀이랄까를 제공해 준 측면은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것이 일반화될 수 있는 틀이나 하면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는 일본의 야마기시(山岸) 협업농장도 마찬가지로 사례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에서의 생활공동체운동 실체라든지 보편적 원리, 혹은 일반화될 수 있는 양식 같은 게 추구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재일 : 야마기시농장이나 풀무원 같은 데는 일종의 이념에서 출발한 공동체라 할 수 있겠고 성미부락이나 의성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에서부터 출발한 생활공동체라고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구체적 생활공간에서의 공동체운동이 어떻게 일반화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정성현 : 풀무원 같은 것은 일종의 폐쇄적인 공동체인데, 이런 것은 일반화될 수 없다고 봅니다. 또 실제로 공동체가 어떤 특정한 이념을 내걸고 시작해서도 안 될 것이고, ‘생활 중심의 작은 공동체’가 자꾸 살이 찌고 확대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낮은 단계의 ‘경제적 필요’에서 출발해서 나중에는 꽤 높은 단계의 ‘공동체적 삶’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경험적인 시행착오도 해 가면서, 결국 자기 생활상의 문제를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그 근처에 깔린 구조적 모순을 해결해야만 하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이지요.

홍석화 : 이념을 앞세운 공동체운동의 경우 대개 처음에는 서로 간에 이념이 맞아서 일정기간 동안은 아주 잘되어 나가다가 오히려 일정한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면 그 단계에서 와해되어버리는 경향이 공동적으로 나타납니다. 이야기가 좀 다르기는 하지만, 일상 생활인들의 경우는 먼저 경제적 이해관계에서 출발해서 좀 더 깊은 방향으로 진전되기하고 방금 말한 경우처럼 이념적으로 출발했다가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와해되기도 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정성현 :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나타나는 이기주의를 극복하는 문제도 무시할 수는 없는 문제죠. 예를 들어, 전남 구례에 농기계 공동이용 사업이 상당히 성공한 지역이 있는데, 처음에 경운기로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웬만한 것은 다 갖춰졌

어요. 그런데 문제는, 확실히 이익이 많이 생기게 되고 돈도 약 4백만 원쯤 적립이 되니까 이제는 “우리끼리만 하자”고 해요. 남이 끼면 자기 몫이 줄어들 것 같으니까 그런 거죠. 이런 것은 공동체라고 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그 집단의 과정은 스스로들 그런 말을 하던데, 이 문턱을 어떻게 낮추느냐하는 거라고 하더군요.

도·농 간의 협동문제 - 도·농협의체

정성현 : 생활공동체운동 논의에 있어 농촌에서의 움직임 못지않게 중요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도·농 간의 협동문제, 즉 도·농협의체의 필요성과 그 가능성에 대한 문제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계층 간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고 각자 분산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조건, 특히 도시생활이라는 조건 속에서 공동체운동의 현실화가 가능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많았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 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해보았으면 합니다.

박재일 : 도시와 농촌 간의 문제를 생각할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실제로 많은 사람이 함께 만나는 것이라고 봅니다. 무공해농산물의 직거래라든지 소비자협동조합 등을 통해서 일상생활의 구체적인 요구에서부터 출발하다 보면 문제의 핵심에까지 이를 수 있는 에너지와 안목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요즘 우유를 먹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배합사료를 먹여 대량으로 나오는 우유가 과연 인체에 유용할 것인지 생각해 보지도 않고 기업의 선전광고에 끌려 우유를 먹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나라에서의 예인데, 시중에 판매되는 우유의 성분을 분석해본 결과 우유를 먹은 어머니의 젖에서 농약 성분인 BHC가 나오자 어머니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우유처리 공장에 직접 찾아가서 “우리에게 주는 우유는 이러이러하게 처리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이 공장제품을 모두 소비해 주겠다. 그리고 어느어느 농가에 서만 우유를 수거해 달라” 이런 식의 교섭을 하면서 서로 자주 만나게 되니까 그 다음엔 옆집 갑돌이 엄마도 소문을 듣고 끼어들게 되고 하면서 확산되는 것이죠. 이렇게 작은 일상문제를 놓고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들 스스로 “여태까지는 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이 수동적인 소비자로서 그냥 먹어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큰 힘을 내게 되었나?”하고 스스로들 놀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모

든 것이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TV에서 선전하는 약품이나 코카콜라 그밖에 당연하게 알고 소비하고 순응해 왔던 모든 것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주체로서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둘씩 모이는 사람들이 생겨, 개별적으로 갈라져 있던 무력한 개인들이 만나서 하나가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의 머릿속에서 좋은 생각들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힘을 가진 덩어리가 되어 가는 일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60년대와 70년대 고통을 당하면서 해왔던 사회운동이 상당한 부분에서 기여하고 축적해온 역량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들이 시도될 경우 빠른 속도로 퍼져나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농촌도 또한 든든한 힘을 얻게 되는 거고.

정성현 : 농촌과 달리 도회지는 생활공간 자체가 개별분산적이라는 특성이 있고 사람마다의 생활공간이나 정서적 공간의 차이도 크다고 봅니다. 서민이나 영세층에 있어서는 혹 가능하더라도 아파트 단지의 주민이나 중산층 같은 경우는 거의 이웃과 단절된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도시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공동체운동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지요. 문제는 하고자 하는 의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아파트 단지의 폐쇄된 공간에서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던 주민들이 서로 알게 되고 만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지요. 원주에서 도·농 간의 연결을 시도해 본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작은 모임을 통한 공동체운동

박재일 : 원주 근처에 천주교 공소가 있는 조그마한 부락이 하나 있는데 고추농사를 많이 해요. 작년에 천주교회 내부에서 이야기가 되어 직거래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다들 흔쾌히 ‘하자’고 하더니 막상 하려고 드니까 품질문제가 나오고 가격, 수량문제가 나오고 시간문제가 나오는 등 참 복잡해지더군요. 정말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병들어 있는 것이죠. 대의를 위해 서로 한발 물러서서 양보하고 뜻을 모으면 서로 흐뭇한 일인데 말이지요. 그런 보기 좋은 협동의 사례를 하나 소개하고 싶은데, 한번은 가락도 천주교회에서 원주에 내려와 “진짜 매주를 좀 해줄 수 없겠느냐”고 하기에 그 부락에

연결시켰는데 아주 잘되어 가고 있어요. 콩 51가마로 메주를 썬어가지고 한집 두집 연결해서 메주를 만들고 있는데 한번은 도시 측 사람들이 못 미더웠던지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한다고 내려왔어요. 와서는 집집마다 메주 널린 걸 보고는 좋아서 “앞으로도 서로 연결을 해서 잘 해보자”고 하더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만 할 것 아니라 이웃 부락도 참여시키자” 이런 식으로 되면서 농촌과 도시가 생활 공간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었습니다.

최재영 : 저희 부락에서도 직거래를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농약 안 준 고추를 원하는 사람도 많고 지금도 앉아서 고추 갖다달라는 사람도 꽤 있으니까 개인적 이익을 따지자면 거래가 이루어지긴 하겠지만 저희 농민들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직접들 내려와서 만나보고 연결을 갖자는 것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 서울 사람들이 내려왔었어요. 몇 군데서 결연해서 손을 잡아보려고 했었는데 도시 측에서는 거의 장사하는 식으로 이익을 따져서 참 어렵더군요. 그래서 청주 같은 인근의 지방도시를 상대하는 게 더 낫겠다 싶어 추진 중인데 그것이 단번에 쉽게 이루어지리라 보지는 않습니다. 3, 4년 더 노력을 해보아야겠지요. 앞으로 직거래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운동이라는 것이 제대로 될 수도 없다고 봅니다.

정성현 : 작년에 서울에서 정호경 신부님하고 직접 겪었던 일인데요. 면목동성당에서 생활공동체운동을 해보자는 이야기가 나와서 한 스무 명쯤 모았었는데 잘사는 사람들은 “돈 내고 좋은 것 먹으면 되지”하는 식이 되어 골치 아파지니까 생활정도가 중·하 정도의 사람들끼리 모였어요. 처음에는 서울 살면서 느끼는 문제라든지 보람 같은 것을 하나 이상씩 말해 보기로 해서 한 30여 가지가 나왔는데 ‘보람’은 딱 한가지더군요. 이를테면 ‘선택의 기회가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문제점들을 보니까 공해문제가 제일 많아요. 안심하고 먹을 게 없다는 등 하이타이가 어떻다는 등 참 많이들 나오더군요. 그다음 문제가 ‘이웃 간의 단절’인데 “놀러갈 데가 없다”, “노인네들이 같이 어울릴 상대가 없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해결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 일단 모임을 정상적으로 이끌어 가도록 노력하자는 결론을 내리고 우선 첫 과제로 오늘밤 집에 돌아가서, 가족회의를 열어 화학조미료 안 먹기부터 시도해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모이기로 했어요. 모임 때는 콩 한 되씩을 거둬서 두부를 만들어놓고 남편들을 데려와서 소주 몇 병

하고 곁들여 시식하면서 이야기했지요.

거기서 우리가 놀랐던 것은 그 분들이 문제에 대해 상당히 깊이 알고 있다는 사실이었는데, 신문이나 책을 꽤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정도의 화제가 전부 나오더군요. 결국 문제가 무엇이라는 건 자기 문제로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 볼 기회는 없었다는 것이고 교회가 공동의 문제를 의논하고 해결하는 장(場)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그저 미사나 드리는 장소였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공해문제를 꺼내니까, 그것이 결국은 재벌들의 문제더라는 데로 합의되고, 그러면 이걸 막아야 되는데, 우리가 물건 살 때 판단기준이 되는 것은 주로 광고와 풍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기업들이 TV광고를 손에 다 쥐고 있으니 우리가 앞으로는 “무슨 무슨 제품 불매운동 내지는 부당광고 폐지 압력을 넣자, 염서보내기 운동도 가능하다” 그런 식의 제안까지 나왔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조금만 노력하면 자생적으로 상당히 많은 모임들이 생겨날 수 있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런 작은 모임들을 통해서 도시에서도 생활공동체운동이 가능하고,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모임이 정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틀만 갖춰진다면 많이 커져 갈 가능성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직거래는 의식변혁운동이다.

이병철 : 직거래는 단순히 유통문제는 아니지요. 그저 생산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파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누군가에게 파는 가족적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유통마진을 없애기 위한 직거래 형태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논리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 자본주의 하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만나 알고 이야기를 나누고 관심을 갖는 인간적으로 가족적인 유대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성현 : 직거래를 단순히 유통문제로 생각하게 되면, 잘못된 세상을 고치는 데에 자본주의적 논리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모순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설령 구조가 바뀐다 해도 근본적인 생활과 의식의 변화가 없으면 진정한 의미의 변화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박재일 : 무공해식품의 직거래뿐만 아니라 생활이 어려운 이들이 모여 직접 필요

한 물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생활상의 절실한 요구에서 만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이겠지요. 또 소비자로서 노동자들이 그런 총체적인 존재로서의 자기존재를 자각 하고 모여 노력하면 도·농 간의 교류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또 소비자협동조합 같은 것도 한 예가 될 수 있겠지요.

오히려 농촌측보다 도시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물건을 비싸게 구입해야 하는 실정에 있는 분들이 모여서 뭉치게 되면 경제적인 이익도 상당하리라고 봅니다. 우선 중간상인의 농간을 배제하고 직접 생산자와의 연결이 가능한 것이고 그 밖의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들을 모임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교회가 실생활의 연결과 만남의 장으로서 적극적으로 기능했다면 실제로 엄청난 힘이 되었을 겁니다.

홍석화 : 도·농 간의 직거래 같은 걸 통해 도시 소비자들도 의외의 자신감이나 에너지 같은 것들을 깨닫게 되고 그것들이 결집되어 하나의 운동성을 갖는 형태가 생겨나야 되지 않을까 싶고, 또 그렇게 되는 게 가능할 것도 같은데요.

정성현 : 도시, 농촌 만남의 예는 아니지만, 제가 살고 있는 대전시 변두리지역 사람들이 한 2년 가까이 모여왔는데 매달 한 40명 가까이 모입니다. 대개 공장 노동자들 부부인데 성당 모임에는 빠져도 부담 없는 이 모임에는 나와요. 한 10 개월쯤 되니까 “다음 달에는 농민회 활동에 대해서 1시간쯤 소개해 달라”고 하 더군요. 그래서 간간히 소개해 준 적이 있고, 작년에 노동법개정운동 때에 유인 물을 주어 봤더니 자기들 문제라 그런지 잘 받아들이더군요. 인간관계들이 형성 되니까 요새는 서로들 잘 알게 되었고, 또 그런 관계를 통해서 대중운동의 확산 도 용이하다고 보아요. 무슨 유인물이 나와도 고정적인 그룹 사람들 외에는 사실 볼 기회도 없고 특히 도시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문만 닫아버리면 완전히 폐쇄된 개인들 아닙니까? 평소에 인간관계들을 맺고 있다면 그런 것들도 나눠보고 확산 될 수 있을 텐데 말이지요. 뭐 운동을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요 운동은 퍼져야 하는 건데. 우리 동네 같은 경우, 이제는 도시인데도 문들을 잘 안 걸고 자고 물건 매입 때도 “내가 시장에 가는데 필요한 것이 있으면 사다 주마”고 묻게까지 되었습니다. 이런 식의 공동체의식으로 커나가면서 작은 문제부터 조금씩 확대되면 운동이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퍼져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병철 : 경남 고성에서 있었던 일인데 도시에서 못 입는 헌옷을 갖다가 농촌 자연부락에서 헌옷 장보기를 했었습니다. 도시와 농촌 간의 만남으로서, 시혜가 아니라 서로 안 입는 옷 바꿔 입기 식으로 시작해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뒀지요. 농민회 부녀자들이 이 일을 주선했는데, 실제로 농촌에서는 못 입는 옷이 없으니까 바꾸기는 안 되고, 그래서 도시에서 가져온 옷들을 깨끗이 손질하고 옷걸이에 걸어서 한 벌에 1백 원 최고 7백 원까지 파는 식으로 해서 농민 측에서 거부감을 안 갖도록 했어요. 판매 수익 16만원에 찬조금도 내놓고 해서 그 돈으로 막걸리 풀고 잔치 겸해서 마을 경로잔치를 했지요. 마을사람들이 다 참여하고 돼지도 잡고 놀았는데 아주 멋진 마을잔치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마을 부녀자들이 답례로 쌀 한 되씩을 모아서 옷을 모아준 도시 사람들에게 갖다 주려고도 하고 했는데, 이런 걸 계기로 도시 사람들과고 결연해서 우리 부락을 생산물을 그 사람들에게 직접 공급하는 게 어떠냐 하는 식으로까지 이야기들이 발전했지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씀’의 형태로 만남의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데서부터 출발해서, 도시 사람들이 모내기 지원을 한 후에 자기들이 모내기한 그 쌀을 사먹는 등의 시도는 가능성이 있고 또 시도되고 있는 듯합니다.

야마기시즘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정성현 : 이제까지 생활공동체운동의 사례라고 볼 수 있는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정확하게 비교될 수는 없겠지만 일본의 야마기시 농장 사례가 우리에게도 상당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야마기시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데요.

박재일 : 일본 사회의 특성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지금 일본 사회에서 야마기시(山岸)가 놓여 있는 상황을 보면 이제는 깨어질래야 깨어질 수 없이 확고부동한 것이 되어 버렸어요. 한 곳이 아니고, 형태도 다양해서 4백 명이 한 식구인 규모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가 본 데는 네댓 집의 자연농가로 이루어져 있기도 하더군요. 그게 쪽쪽 퍼져 나가는데 그 세가 대단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한 힘을 형성해가고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다시 농민적인 생활로 돌아가서 다른데 뺏기는 것 없이 같이 살면서 제대로만 보존할 수가 있다면 크게 공헌

할 수 있겠다는 것을 재확인했지요.

정성현 : 언젠가 듣기로는 야마기시에 직접, 간접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30만이 넘는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자기네가 앞으로 몇 년 안에 동경 인구의 3%를 장악한다나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30만 운운하던 때가 몇 년 전이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을 것이고 과거에 안보 투쟁하던 학생 출신들도 많이 들어가 있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만.

박재일 : 한 곳에 가니까 회원이 13만인데 어지간한 것은 자체에서 다 해결해버리고 압력단체의 역할까지를 하는 걸 봤어요. 그 정도 되니까 국회의원도 자체 내에서 뽑을 정도가 되고 말이죠. 한 예를 들면 일본에서는 의료문제가 큰데, 어느 병원에 가니까 불친절하고 비싸다는 이야기가 문제되어 이 사람들이 안가기 시작하면 그 병원은 문을 닫아야 돼요. 그래서 서비스도 좋아지고, 이렇게 문제를 하나하나 개선해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정성현 : 야마기시 사례가 우리가 취할 만한 모범을 제시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들의 움직임을 통해 배우고 생각해보아야 할 것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홍석화 : 하지만 야마기시즘이라는 이론 자체도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기계적인 자연순환론에 둘러앉은 듯한 측면이 강하고, 생산물 수요층의 성향도 사람 간의 운동성보다는 그 자체가 관념적인 측면으로 해석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점들이 보수적인 일본 사회의 일반적인 사회분위기에 맞아 떨어지고, 운동성이 주는 부담 같은 것 없이 편히 그 관념을 받아들이는 조류가 강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들은 농업생산뿐 아니라 가공 공장들도 갖고 있는데 다 합해서 생산부분에 속한 이들이 한 2천명 되고 다른 부분의 호응자, 또는 무공해 식품 수요층들까지 합하면 상당한 숫자가 되죠. 저 자신의 경우 단적으로 이야기 해서, 야마기시즘의 특수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폐쇄적이고 ‘우리끼리만’의 사고에서 출발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과 더불어 일본이니까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들더군요. 그렇지만 전체에 다 연결될 수 있는 종합적인 판단에 근거한 결정이 작업현장, 즉 닭 키우고 소 키우는 현장

에서부터 올라간다는 상향식 의사결정 방식은 중요한 시사를 준다고 봅니다.

박재일 : 기계농업 운운하기 이전에, 농업이 하나의 종합적인 생산 형태 없이는 원래 모습을 잃어버리고 농사짓는 사람들도 원래 모습을 잃어버리는 게 오늘날의 현실인데 그게 다시 회복되면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간단한 가공부분이 농민 아닌 사람들의 손에서 농민의 손으로 되돌려지는 등 이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을 보니까 생각해야 할 점들이 많더군요. 그러나 꼭 야마기시 식으로 농촌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또 그것이 외부나 주위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야마기시라 해서 피할 수는 없겠지요.

이병철 : 야마기시농장은 대표적인 형태라기보다는 하나의 사례인데, 일본의 중산층이 안정되어 있다는 상황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생활이 안정되어 있지 못하며 기본적인 여러 가지가 우선 충족되지 못한 우리의 경우에도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하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일본의 경우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당히 건강하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구체적인 현실의 삶이 오늘의 병적인 삶의 양태를 깨고 나가는 하나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니냐 하는 점이고 그 속에 종교적인 것 이외에 상당한 다양성을 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공동체운동은 어떤 특정종교를 표방한 것이 대부분 아니었습니까? 덧붙여 구체적인 의사 결정도 자유롭게 드러낼 수 있다는 점도 방법적으로 중요시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홍석화 : ‘연찬’(研鑽)이라는 것이 자본주의사회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문제제기를 계속해나가는 형태이므로 반론 제기가 힘든 독특한 형태인 것 같습니다. 애초에 그 개념 속에 운동성이 내재되어 있는데, 그 내부적인 운동성에 방향을 모아 가면서 우리가 하나의 과정 또는 하나의 사례로서 연구할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공동체, 인간다운 삶의 의지

정성현 : 야마기시 사례는 참고가 될 부분도 있고 문제점도 있긴 하지만 농업의 참모습을 나름대로 연구 실천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하겠죠. 이제는 우리 현실로 돌아와서 결론 부분으로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병철 : 공동체적 삶은 당위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될 삶의 조건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 생명의 보존욕구가 그런 삶을 요구한다고나 할까요? 이 시대에 살면서 환경 파괴에 왜곡된 사회, 정치적 상황 등 모든 면에서 위기를 느끼는 우리들이 보다 건강하고 인간답게 살아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바람에서 나오는 것들이고, 그런 것들은 도시에 갈수록 심화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도시에서는 그것들의 결집이 용이하기 때문에 일단 시작되면 커져나갈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하고자 하는 의지’이지요.

박재일 : 이념을 떠나 생활 속에서 같이한다는 눈으로 보면 얼마든지 연결의 ‘관’은 가능합니다. 거기서 해나가는 방법 같은 것은 그 나름대로 훌륭한 것이 얼마든지 찾아지리라고 보아요.

정성현 : 생활공동체의 필요성, 또는 그것을 하나의 가능성으로 인정하는 눈에서 보면 방법은 다 찾아지리라고 봅니다.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홍석화 : 마치고 전에 이것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두어야 될 것 같은데요. 공동체 운동만이 마치 모든 문제해결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성현 : 그 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토론 자체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겠지요. 이제 대강 이 정도로 끝내죠. 수고들 하셨습니다.

문명의 위기에서 생명의 질서로

한살림선언의 이념적 배경을 중심으로

일 시 : 1990년 1월 4일

장 소 : 한살림모임 사무실

사 회 : 이명현(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

참석자 : 김지하(한살림모임 연구위원장), 최혜성(한살림모임 사업위원장), 김상중
(서울대학교 미생물학과 교수)

이명현 : 오늘 이 자리는 한살림모임이 어떠한 경로로 만들어졌으며, 또 그동안 어떤 일을 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하는 문제와 더불어 한살림선언에 핵심적으로 나타난 한살림모임의 기본적인 정신이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합니다. 우선 이 한살림모임이 언제 어떤 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루어졌는지 그 발단에 대해서 우선 김지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김지하 : 1970년대 원주에서 무위당 장일순 선생님을 중심으로 김영주 씨, 박재일 씨, 이경국 씨, 그리고 그밖에 다른 분들과 제가 강원도와 충청북도 지역의 농민과 광산근로자를 중심으로 협동운동을 조직했던 일이 있습니다. 특히 협업운동과 신용협동조합운동에 힘을 많이 쏟았지요. 그러다가 저는 민청학련 사건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지요. 그런데 1980년에 제가 출옥한 후, 그동안 추진해 오던 1970년대의 협동운동을 평가한 결과 신탁운동을 제외하고는 모두 실패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이념적 토대가 취약했던 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생명을 억압하고 소외시키며 분열시키고 죽이는 삶의 질서

에 대항하여 살아 있는 생명으로서의 인간의 생명을 회복하는 광범위한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농촌과 도시, 생산과 소비를 연대시키는 광범위한 협동운동을 생각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인근 농촌의 농민운동과 연대하는 원주소비자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오랜 농민운동을 통하여 땅과 생명이 화학농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던 박재일 씨는 땅과 인간의 순환에 기초한 유기농을 농촌에 보급하고 확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문제라고 생각하여 이 유기농 운동을 도시 소비자와 연대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 서울에 와서 소비자 협동조합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박재일 씨와 제가 만나서 생명의 세계관에 입각해서 새로운 삶의 양식을 찾는 운동이라는 뜻에서 이 운동에 <한살림>이란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60년대에 학생운동을 같이했던 최혜성 씨가 이 운동에 합류하게 되자, 한살림운동이 유기농운동과 소비자운동의 연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생명을 소외, 분열시키고 억압, 파괴시키는 ‘죽임의 질서’인 산업 문명 전반에 대항하여 생명을 총체적으로 살리는 전면적인 생명운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선 그 이념과 실천방향을 찾는 연구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한살림 연구회」라는 이름으로 여러 사람들이 모여 공부모임을 계속 가져오다가 지난 1989년 10월 29일 「한살림모임」을 창립하게 된 것입니다.

이명현 : 한살림이 노리는 것은 총체적인 생명운동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생명운동과 한살림이라는 말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최혜성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총체적인 생명운동의 필요성

오늘날 세계 여러 곳에서 태동하고 있는 신과학과 녹색운동은 생명운동 또는 생명의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60년대에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학생운동은 기존의 권위와 체제에 저항하는 커다란 역사적 물결인 동시에 산업문명에 반대하는 문명비판운동이었습니다.

최혜성 : 박재일 씨와 김 시인이 생명운동의 일환으로 농민운동과 도시소비자운

동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서울에서 소비자협동조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기농하시는 농민과 도시소비자가 하나의 큰 살림으로 연대하고 협력해서 더불어 살아갈 때 비로소 죽어가는 땅과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의미로 <한살림>이라는 명칭을 쓰게 된 줄로 압니다. 간단히 말해서, <한살림>은 산업화로 파괴되어 가는 자연의 생태적 균형을 회복하고 새로운 인류공동체를 구현하려는 이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 여러 곳에서 태동하고 있는 신과학운동과 녹색운동은 서구적 합리주의와 산업화에 대항하여 새로운 삶의 질서를 지향하는 일종의 생명운동 또는 생명의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계가 본래 서로 분리되어 고립된 존재들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분할될 수 없는 하나의 유기적인 전체로서 생성, 진화하는 생명과정이라고 이해하고 있지요. 그리하여 인간과 사회 그리고 자연은 서로 분리되어 고립된 체계가 아니라 우주적 연관 속에서 상호작용하면서 하나의 생명으로 통합되어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산업화된 인위적인 환경은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을 분열시키고 고립시킴으로써 못 생명을 그 본성으로부터 소외시키고 있는 기계적인 틀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욱이 기계와 같은 고립된 체계는 엔트로피의 법칙에 의하면 열의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인간은 근원적으로 진화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기계의 질곡으로부터 해방되어 공동체적, 생태적인 통일을 구현하고 새로운 삶의 질서를 창조할 수 있다고 하는 새로운 녹색의 비전을 제시하고 또 이를 꾸준히 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신과학과 녹색운동을 생명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러한 생명운동을 녹색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한살림>이라고 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이라는 우리말은 수사(數詞)로서 서로 상반된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지요. 즉, 부분으로서의 날개를 지칭하면서 동시에 온전한 전체를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개별성과 전체성의 유기적 통합으로서의 전일성(全一性)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이러한 전일성이 바로 모든 생명의 본모습입니다. 그리고 <살림>이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들이 다른 생명과 더불어 공생하며 그 환경과의 에너지순환을 통하여 생명다운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활동, 즉 ‘살림살이’를 뜻하며 또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낸다는 구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웃사람들과 협력하고 공생하는 공동체적인 삶과 자연과 조화된 생태적 균형 속에서만 진정한 자기를 실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산업사

회는 인간의 자기소외, 공동체의 상실, 생태적 균형의 파괴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선 생명의 질서를 지향하는 총체적인 생명운동이 요청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한살림운동>이라 하겠습니다.

이명현 : 그러니까 한살림모임은 결국 생명파괴, 죽음의 여러 가지 사회적 현실을 극복해보자 하는 운동을 전개하는 모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한살림모임」이 하는 운동을 이른바 학생운동권, 또는 재야운동권과 동일한 범주의 운동권으로 봐도 좋을는지 아니면 기존 운동권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지 하는 문제가 제삼자의 입장에서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지하 선생님이나 최혜성 선생님은 저와 비슷한 시대에 대학을 다녔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1960년대에 있었던 학생운동에 중요한 역할들을 하신 분들인데, 지금 50대가 되어서 새로운 운동을 하시면서 젊었을 때 하던 학생운동과 지금 하시는 운동의 관계를 어떻게 보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김지하 : 1960년대에 우리가 대학을 다닐 때, 4.19가 있었고 그 반동으로 5.16 군사쿠데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사정권에 반대하는 운동들이 계속 있었는데 군정연장 반대운동에서 시작해서 한미행정협정촉구, 굴욕적 한일회담반대, 한일조약비준반대와 같은 운동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운동이 있었을 때 세계적으로 보면 구라파, 미국에서도 반체제운동, 반전(反戰)운동, 민주사회를 위한 학생운동, 신좌파 학생운동이 상당히 고조돼요. 1960년대 한국 학생운동이 한참 고조되다가 3선 개헌을 고비로 탄압받으면서 퇴조할 때 구라파에서는 1968년에 불란서 5월 혁명, 그리고 프라하의 봄이라는 것이 있었고 미국에서는 반문화운동, 반전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서 일어났던 학생운동은 기존의 권위와 체제에 저항하는 하나의 커다란 역사적인 물결이었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기존의 문명에 반대하는 문명비평적인 커다란 운동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비록 표면적으로는 한일회담문제에 압축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한일회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제 식민지체제 이후에 생긴 미국에 의한 예속적인 문화풍토, 정치풍토에 대항하여 민족주의와 통일문제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면서 미국과 일본의 이중예속에 반대하는 운동으로 발전해 갔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마디로 민족주의적인 각성이 전문명적인 비판의식과 함께 일어났

다고 하겠습니까.

저는 학교를 떠난 이후에도 문학인으로서 반파쇼운동에 관여를 했고 박재일 씨는 농민운동을 하고 최혜성 씨는 사업을 해오다가, 1980년대 후반에 다시 만나 환경문제, 문명사적 문제, 새로운 세계관의 문제, 그리고 민족주체의 문제, 동양전통사상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와 마주하면서 새롭게 생명운동을 전개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이상하게도 1960년대에 구라파나 미국에서 활동하던 학생운동그룹들의 운명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다니엘 콩방디나 루디 두츠케 같은 친구들이 반체제운동을 하다가 잡혀간 뒤에 1980년대에 다시 녹색운동으로 등장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세계사적인 사이클에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새로운 운동은 첫째는 생명에 대한 관심에서, 둘째는 문명사의 전환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명현 : 예. 과거에 4.19를 기점으로 해서 시작된 학생운동이 적나라한 정치적 폭력, 즉 정치체도가 가지고 있는 군사적 폭력에 저항한 생명운동이라고 본다면, 지금 실천하려는 생명운동은 직접적인 군사적인 형태의 폭력보다는 문명 자체가 가지고 있는 포괄적인 반생명적 폭력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다시 갱신시켜보려고 하는 한 차원 높은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그런데 그 당시의 한국 학생운동이 세계 학생운동의 역사적인 지원이 되었다고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4.19 이후에 각국의 학생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른바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에 있어서는 학생운동의 충격에 의해서 진보세력들이 정치적 무대에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지만 이른바 정치적인 후진국, 아시아와 그 밖의 나라들, 즉 남미, 남유럽, 또한 아프리카 등지의 나라들에서는 학생운동이 진보세력을 역사의 전면으로 부각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보수적인 세력, 즉 총칼을 가진 사람들을 정치무대로 등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군사통치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한국에서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반군사운동이 전개되어 온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던 것이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사태가 역전되어 남유럽에서부터 시작해서 남미, 필리핀, 한국을 거쳐 드디어 이른바 공산권에 이르기까지 민주화운동, 말하자면 독재정치가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회오리바람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공산권에서의 제도폭력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차우셰스쿠정권이 극적으로 몰락하는 데까지 이른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때 지난 30년간의 운동이 세계사적 변혁

을 일으키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한살림선언이 담고 있는 사상적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지요. 우선 한살림선언을 보면 거기에 선언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것이 인상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슨 독립 선언, 공산당선언과 같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한살림선언도 선언이라는 말이 붙었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신선한 느낌, 어떤 의미에서 고고한 느낌까지 주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세 가지의 사상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첫째로는 20세기에 나타나게 된 새로운 과학사상들을 그 배경으로 삼고 있는 것 같고, 다음으로는 서구라파에서 일어나고 있는 녹색운동과도 연관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구요, 세 번째로는 한국의 최근세에 일어난 동학사상과도 깊은 관련을 갖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사상과 어떠한 연관을 갖고 있는지 하나씩 차례로 말씀을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과학사상과 관련해서 김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죠.

김상중 : 이제까지의 자연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과학기술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생태학적인 입장에서 보는 생태주의입니다.

과학기술 우선주의의 문제점은 일반적으로 자연을 관찰할 때 미시적인 시각으로 분석을 하는 환원주의적 태도를 취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에는 생물학적인 면들과 무생물학적인 면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데 본질을 파악하려면 그 전체를 봐야 합니다. 그러나 기존의 과학적인 입장은 모든 것을 너무 미분화시키기 때문에 어떤 사물을 기본단위로 분석해서 이해하게 될 경우 전체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었지요.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본질을 파악하는 데서 벗어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환원주의적 태도가 과학기술만능적인 사고를 유발시켰고 그 결과 오늘과 같이 무분별하게 자연을 이용하고 수탈해서 황폐화시키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입장이 최근에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신과학운동인 것입니다.

한살림에서 주목하는 것은 인간과 자연을 살아 있는 체계로 보는 생태론입니다. 생태주의는 결국 인간이 자연의 한 부분이라는 것, 인간과 자연이 동등하다는 것, 인간이 자연을 지배한다는 근대 과학사상으로부터 다시 자연에로의 복귀를 의미합니다. 신과학사상은 계몽주의 이래 발전되기 시작한 산업화가 인간의 도덕성과 사회질서 그리고 건강한 가치관의 파괴를 초래했다고 보는 데서 시작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명현 :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뉴턴 이후에 형성된 서양의 근대산업기술은 합리적인 과학에 토대한 기술입니다. 이 과학기술은 놀랄 만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인간이 가진 방만한 욕망들을 최단기내에 채울 수 있는 물질들을 생산해내는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인간을 포함한 많은 생명들을 살육하고 생명이 제대로 존속할 수 없게 하는 현상, 우리가 흔히 공해라고 말하는 반생태학적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신과학적 사고는 자연을 단기적이고 단편적인 눈앞의 이익만을 충족시키는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보다 거시적이고 우주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재정립하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혜성 선생님께서 선언문의 근본취지와 관련해서 신과학의 구체적인 이론들을 부연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학기술주의에서 생태주의로

핵공포와 환경파괴, 자원고갈과 인구폭발, 인간소외와 사회분열 등의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되자 사람들은 과학적 세계관과 성장만을 추구해 온 기존의 가치관을 반성하고 재평가하면서 세계에 있어서의 인간의 위치를 공동체적, 생태론적, 우주론적 시각으로 재조명하게 되었지요.

최혜성 : 이 교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근대과학기술과 산업사회는 이성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에 기초하여 합리와 성장을 추구함으로써 엄청난 생산력의 발전과 물질적 풍요를 가져 왔습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들어오면서는 사정이 많이 달라져 이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게 되었지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진전되어 온 산업화가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고 사회진보의 추진력으로서 이성의 궁극적 승리를 가져올 것이라고 맹신하였던 근대적 낙관주의가 뿌리에서부터 동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류를 추구한다는 자본주의나 평등사회를 구현한다는 공산주의나간에, 지금까지 사람들이 이성의 실현으로 굳게 믿어 왔던 산업화된 세계가 오히려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간을 그 본성으로부터 소외시키며 공동체적 삶을 해체하고 인류의 생태적 기반인 자연환경을 파괴함으로써 근본적으로 인류의 생존과 지구의 존립에 대한 위기의식이 환산되게 되었습니다. 산업문명의 파국을 경고하면서 ‘성장의 한계’(The Limits of Growth)를 지적하고 있는 로마클럽의 보고서는

바로 이러한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핵공포와 환경파괴, 자원고갈과 인구폭발, 인간소외와 사회분열 등의 위기 현상에 직면하게 되자 사람들은 과학화, 근대화, 산업화에 대한 신뢰를 철회하고 이에 대해 저항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문명의 기술적 이데올로기적 토대가 되어 온 과학적 세계관과 합리와 성장만을 추구해 온 기존의 가치관을 반성하고 재평가하면서 세계에 있어서의 인간의 위치를 공동체적 생태론적 우주론적 시각으로 재조명하기에 이르렀지요. 이러한 사상적인 흐름에 따라 1970년대 과학의 영역에서 태동한 것이 새 시대의 과학, 즉 신과학인 것입니다. 신과학은 아직 완성한 이론으로 정립되지 않은 새로운 과학사상운동이라 하겠으나, 산업문명의 한계를 넘어서 새 지평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대과학은 이원적(二元的), 분석적 방법으로 물질현상뿐만 아니라 생명현상 심지어 인간정신현상까지도 탐구하여 결정론적인 기계론의 모형으로 우주와 자연 그리고 인간을 이해하고 있는 뉴턴-데카르트의 패러다임의 기반 위에 성립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지금까지의 과학은 어떤 사물을 인식하려 할 때 그 사물을 분할하여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요소들로 환원하고 다시 이 요소들을 산술적으로 집합시킴으로써 그 사물의 성질과 구조를 파악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물의 운동은 조건이 같으면 언제나 같은 결과가 일어난다고 하는 기계적인 인과법칙에 따라 일어나기 때문에 수학방정식으로 기술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근대과학의 세계관은 인간과 자연을 포함한 우주를 단편적으로, 단시간적으로 그리고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분석적 이성과 실증적 경험만을 존중하는 근대과학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산업기술의 진보를 가져왔지만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회, 인간과 자연을 분열시키고 인간을 자신과 공동체 그리고 자연으로부터 격리된 존재로 전락시킴으로써 생태적 불균형, 공동체 상실, 자기소외의 문명사적 위기를 조성하게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과학은 사물을 분할하고 구성요소들로 환원하여 인식하는 분석적 방법을 거부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새로운 과학의 시각은 사물의 상호관계 전체의 문맥을 그 역동성에서 읽으려고 합니다. 신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세계는 분할될 수 있는 무수한 부품이나 단위로 구성된 기계가 아니라 분할될 수 없는 하나의 살아 있는 전체로서, 상화관계의 그물 속에 그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우주의 역동적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과학의 패러다임은 사실

첨단과학이론이라 할 수 있는 전자정보이론의 핵심인 ‘일반체계이론’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체계이론에서는 전체 시스템 내에서 서로 작용하는 요소들 간의 상호관계가 특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과학은, 잘 알려져 있듯이, 기계론적 세계관을 거부하고 자연을 다양한 중들이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는 생태론적 세계관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양종교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 또한 이 신과학의 특징 중의 하나인데, 세계가 단편적으로 분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살이 있는 신적인 생명인 우주의 마음에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는 통합된 유기체라는 지혜의 가르침에 깊이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역(易)사상에 대한 관심도 지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이명현 : <한살림선언>을 읽어보면 생명의 창조적 진화를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한살림에서 말하는 진화란 무엇을 의미하는 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최혜성 : 근대과학은 기계처럼 움직이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는 적절합니다. 또 고층건물이나 기계를 설계한다든가 거대한 관리조직을 만들어내는 데도 아주 유용하지요. 그러나 근대과학은 태어나 성장하다가 노쇠하고 죽어가는 비기계적 시스템, 즉 생명현상을 설명하는 데는 적절치가 않습니다. 근대 과학적인 방법으로는 성장과 쇠퇴, 급작스러운 발전과 파국, 우발적인 작은 사건의 폭발적인 확대와 같은 현상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실 뉴턴의 역학은 시간을 공간화함으로써 시간을 무시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지요. 그리고 다윈 이래의 생물학도 진화를 자연도태라는 기계론적인 메카니즘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근대과학에는 생성, 변화, 진화를 이해할 수 있는 패러다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화를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명하려고 한 사람이 화학자인 일리야 프리고진(Ilya Prigogine)입니다. 프리고진은 근대과학의 체계 안에 커다란 모순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즉 열역학에서는 우주가 엔트로피법칙에 의해 소멸돼 가고 있으며 모든 존재는 궁극적으로 소멸해 버린다고 하는 데 반해, 생물학에 의하면, 생명체는 끊임없이 보다 높고 복잡한 조직으로 진화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에 대해 프리고진은 물질현상을 지배하는 엔트로피 법칙과 생명의 진화법칙을 통합하여 진화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과학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반체계이론에 피드백(feedback)이라는 개념을 빌려서 창조적 진화를 설명

하고 있지요. 그에 의하면, 액체의 분자에서 뇌세포, 도시체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복잡한 시스템은 그 내부에 항상 소규모의 요동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비평형의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시스템을 막론하고 그 내부의 요동으로 일어나는 변화가 시스템 전체의 평형을 위협하게 되면 변화를 억제하는 부(負)의 피드백이 작용하여 그 구조의 안정을 유지하는데 이러한 안정유지의 시스템을 생명체의 체온조절, 경제의 경기순환 등과 같은 현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모든 시스템은 변화를 억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하는 정(正)의 피드백에 의하여 요동이 증폭되기도 하는데 요동이 어느 한계 이상으로 커지게 되면 결국 전체의 평형이 파괴되어 그 구조가 붕괴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피드백 시스템은 평형이 깨진다고 해서 단순히 혼란과 붕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번번이 새롭고 높은 차원의 질서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창조적 진화의 패러다임으로 볼 때, 우리들은 기계와 같은 닫혀진 세계에 갇힌 것이 아니라 항상 새로운 진화의 열린 불안정성 가운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는 이처럼 요동을 통하여 자신을 새롭게 조직하는 생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진화란 물질이나 생명이 다 같이 변화의 확대를 통하여 단순하고 부질서한 낮은 구조를 벗어 버리고 복잡하고 다양하면서도 높고 새로운 질서로 향하는 사회적, 생태적, 우주적 창조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명현 :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 교수님께서 녹색운동이 자연과학적인 측면에서, 특히 생물학 내지는 생태학적인 측면에서 지니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고 이것이 어째서 오늘날 그렇게 절실한 인류의 문명사적인 문제로 등장하게 되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중 : 우선 자연 속에서의 인간의 위치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는 인간의 능력을 과신해서 인간이 과학문명의 발전을 통해서 자연을 마음대로 조종하고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로 오늘날처럼 도처에서 자연파괴와 훼손과 오염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인간은 자연의 일부분이지요. 그리고 자연은 여러 종류의 생물과 무기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식물이 있고 동물이 있고 또 미생물이 있습니다. 식물은 광합성을 통하여, 즉 태양광선을 에너지로 이용해서 스스로 필요로 하는 유기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을 생산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식물체가 만들어낸 유기

물질들을 바탕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동물들이지요. 동물은 자기가 필요한 핵심적인 물질들을 합성하기 보다는 식물체가 만들어 놓은 것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소비자라고 하지요. 그런데 인간은 바로 이러한 동물의 한 종에 속하는 것입니다. 지구상에는 굉장히 많은 종의 동물이 존재하고 있는데 인간이 그중에 한 종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계에서의 소비자로서의 위치를 다시 재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미생물인데 미생물은 자연계 안에서 분해자의 역할을 합니다. 즉 동물이나 식물들이 생산해낸 여러 가지 폐기물들을 분해시켜서 다시 그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원소로 되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미생물은 자연계의 리사이클링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인간은 자연계의 생물집단 중에서 고작 소비자의 일원이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자연 안에서 인간의 위치

자연계 안에서 생물들은 미생물학적, 물리적, 화학적 또는 지질학적, 기상학적 요인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하여 이들 요인과 조건들을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생명을 멸종시키게 되었습니다.

자연계 안에서 생물들은 미생물학적인 환경요인, 그 밖에 물리학적 요인, 화학적인 요인, 또는 지질학적인 요인, 기상학적인 요인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이러한 지구상의 생물학적인, 물리화학적인, 기상학적인 요인과 조건들을 스스로가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과 같이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생물 종들을 멸종시키게 되었습니다. 이제 인간은 단기적인 안목에서 자연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질서 속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살도록 노력을 해야만 한다고 하는 인식의 전환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명현 :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인간이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살았다, 자연은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마구 이용하고 파괴해도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고 과학기술의 체계에 매달려서 파괴에만 열중하는 동안에 오늘날과 같은 엄청난 생명파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특히 재미있는 것은 미생물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미생물은 결국 인간과 생물들이 만들어낸, 말하자면 자연의 똥이라 할 수 있는 몹쓸 물건을 다시 분해해서 자연의 원초적인 상태로 되돌려놓음으로써 자연 자체가 본래의 상태로 살아 움직이도록 하는 순환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녹색운동의 초점은 미생물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만. 한살림운동이 살리는 운동인데, 이 살리는 운동이 인간의 소비자로서의 위치를 인식하는 것, 그래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똑바로 정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것은 인간의 측면에서 본다면 윤리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이 과학기술을 통해서 자연을 이용해 무조건 생산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는 지금까지의 생각을 바꾸고 우주적 관념에서 인간의 욕망을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살림운동이 인간의 탐욕을 줄이는 마음의 태도와 더불어 그에 합당한 여러 가지 삶의 양식을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미생물의 이러한 역할이 어떻게 한살림운동에 기여할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김 박사님 좀 더 말씀해 주시지요.

김상중 : 근대과학의 기계론적 자연관은 자연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연의 피상적인 모습만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는 리사이클링의 개념이 도입될 여지가 없지요. 그래서 대량생산과 소비가 권장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리사이클링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가적 이해에 반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미생물의 존재가 자연생태계에 있어서 리사이클, 피드백을 시켜주는 것이 자연의 질서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도처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유기농법은 생물체가 배설하는 폐기물 속에 들어 있는 유기물질들을 미생물에 의해 분해시켜서 식물체들이 필요로 하는 질소나 인산염과 같은 중요한 영양물질을 다시 공급시켜 줌으로써, 다시 말하면 많은 폐기물들을 하천에 배출시켜 자연생태계를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재활용함으로써 다른 생물체들에게 유용한 원소로 이용될 수 있게 하는 농법으로써 대표적인 리사이클링 과정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리사이클링은 인간이 퇴비를 만드는 과정 말고도 자연계에서 늘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지요. 우리가 숲에 가면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낙엽이 토양 속에 존재하는 미생물들에 의해서 분해되지 않는다면 몇 년 만 지나

면 낙엽이 산을 덮게 되겠지요.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어디서도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위적인 퇴비와 같은 것들을 만드는 작용이 자연계 안에서 스스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이 바로 자연과학에서 말하는 자정(自淨)작용입니다. 자연계는 많은 인위적인 폐기물질들이 하천이나 토양이나 바다에 버려지더라도 그 안에 들어 있는 많은 종류의 생물체들의 활동에 의해서 그 물질들이 분해되고 그것이 다른 생물들에게 재이용되는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조절함으로써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리사이클링하고 피드백해서 조절되는 이러한 자연의 기본적인 원리를 재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명현 : 말씀을 듣다보니 앞에서 말한 한살림이라는 말이 다시 생각나는데, 결국 자연의 전체질서가 서로 살림을 주고받는 하나의 커다란 고리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런데 혼자서만 살려고 하는 알곳은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생산체계와 삶의 질서를 만들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풀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최 선생님께서 더 말씀을 해주시지요.

최혜성 : 김 교수님께서 자연계에는 식물과 동물과 사람 사이의 생산자와 소비자로서의 역할이 있고 그 속에서 생명의 에너지가 순환된다는 생태론적인 자연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이러한 생태적인 순환과 균형은 자연의 질서일 뿐만 아니라 인간 삶의 질서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후기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산업화는 특히 사회적 분열과 대립 그리고 갈등과 충돌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왜 인간의 사회적 삶의 장(場)이 투쟁과 갈등의 세계가 되어버렸는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인간이 자연이 갖고 있는 생태적인 균형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인간이 생각하고 활동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연의 생태적 균형이나 순환의 원리는 자연과 인간 사이의 문제만이 아니라 바로 인간과 인간 간의 삶의 질서를 옹계 질서 지워줄 수 있는 원리가 아닌가, 다시 말해서 인간의 공동체 원리는 바로 이 생태적 균형과 순환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미생물의 기능은 분해자로서의 역할 이외에 또 다른 기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흔히들 식물이 생산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식물세포 안에 공생하고 있는 미생물들이 광합성을 통해서 생명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점을 생각할 때 자연이 갖고 있는 오묘한 진리를 깨닫게 되

지요. 그러한 원리는 우리 사회에 적용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미생물하면 인간의 기준에서 보면 상당히 미천하고 가치가 없는 것, 심지어는 악이라고까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미생물이야말로 생태계의 에너지순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요. 마찬가지로 인간사회에 있어서 공동체적인 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많은 미생물적 기능을 하는 사회의 많은 부분과 역할들이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명현 : 동양 사람들은 옛날부터 자연운행의 원리로부터 인간사회의 원리를 찾으려 했고 양자의 원리를 거의 구별하지 않은 채 하나의 통합된 원리로 이해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와는 달리 자연운행의 원리와 인간사회의 실천원리를 다르게 생각을 했던 것이 서양의 근세 이후의 뿌리 깊은 전통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도덕적 질서에 관해서는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20세기에 나타난 가치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종의 가치 허무주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어떤 변혁이 일어나고 있긴 합니다만 서양철학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자연 생태계의 운행의 원리를 인간의 사회조직, 즉 인간들 사이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사람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느냐 하는 점에 관해서 많은 새로운 시사를 얻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김지하 선생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김지하 : 뭐 별로 보태고 싶은 생각은 없고 다만 동양의 전통적인 사상에서는 자연적인 질서에 합당한 삶을 도덕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도덕이라는 것은 우주, 천지자연의 운행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세계는 자연의 질서와 도덕적인 질서의 합일을 요청하기 때문에 동양 사상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동양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과학적인 세계인식과 도덕적 문제 등을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점에 있어서는 서양인들보다는 좀 더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명현 : 한살림운동이 동양의 전통, 특히 한국의 전통인 동학사상에서 어떤 배움을 얻으려고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지하 선생님 좀 말씀해 주시죠.

새로운 우주종교로서의 동학

동학은 자연과 인간과 사회의 커다란 울타리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 바로 공생과 협동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산업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죽음의 질서를 돌아볼 때 전 인류가 새롭게 요구하는 우주종교가 바로 동학 안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지하 : 금방 도덕적 질서와 자연의 운행질서 사이의 합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합일의 원리가 우주차원에서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도 우주종교가 새로 나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기독교 신학자들도 범신론적인 우주종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주적 차원의 종교와 윤리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 여기에 부응하는 사상이 동학이라고 봅니다. 동학은 사람이 한울님, 우주 생명을 모시고 있다, 그리고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동식물, 무생물까지도 우주 생명을 모시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흔히 서양적인 사고방식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자칫 진부한 범신론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단순한 범신론으로 치부할 수 없는 놀라운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불교의 연기론적인 세계관에 가깝다고나 할까요. 그러면서도 불교보다 훨씬 더 생동적인 세계를 보여줍니다. 동학에서는 불교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천지만물이 서로 함께 나누지 않은 것이 없고 서로 공유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지요. 물질적으로는 물론이려니와 생물학적으로도 사회학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그리고 심지어는 마음으로까지 천지만물이 서로 의지하지 않는 것이 없으며 어느 것 하나 나와 무관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곧 천지(天地) 속에 내가 있고 천지가 내 안에 있으니 천지와 내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학에서는 이를 시천주(侍天主)사상이라 하고 천지만물을 모신다고 합니다. 내 안에 우주 생명을 모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세상의 모든 관계, 즉 자연과 인간과 사회의 커다란 울타리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 바로 공생(共生)과 협동(協同)의 관계임을 동학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은혜와 되갚음의 원리로 풀고 있지요. 자연과 인간의 일치된 삶 속에서, 그리고 조화로운 사회생활 속에서 종교의 이상을 실현한다고나 할까요. 이러한 세계관은 가장 발달한 고등종교에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산업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죽음의 질서

를 돌아볼 때 전 인류가 새롭게 요구하는 우주 종교가 바로 이 동학 안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학은 진화론적 종교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가 진화론적인 종교가 아닌데 비해서 동학은 진화론적인 종교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현대가 요구하는 우주종교로서 합당한 측면을 동학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전 세계 인류, 특히 서구인들이 동양 사상에 많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전일적이고 역동적인 우주의 인식이나 우주적 삶에 대한 관심과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동학은 인간이 우주를 모시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주운행에 합치하는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화정(造化定)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여천지합기덕(與天地合其德), 즉 천지와 그 덕에 합일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점이 동양 사상에 대한 일반적 관심에 대해 동학이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 봐도 19세기 이해 잃어버린 사상적 주체를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동학의 새로운 부활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야 보국안민(輔國安民), 광제창생(廣濟蒼生), 즉 민중해방, 생명해방, 민족통일을 주체적으로 이룩할 수 있을 것 아닐까 하고 말합니다. 실제로 동학은 한살림의 중요한 사상적 배경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명현 : 최 선생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최혜성 : 요즘 산업사회가 문명사적인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됨으로써 선진공업국이나 제3세계국가, 자본주의사회나 사회주의사회에서 큰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산업사회가 추구해 왔던 가치와 그로 인해서 형성되었던 질서가 생명의 본원적인 모습으로부터 많이 이탈했기 때문에 일어난 동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동요 속에서 많은 세계인들, 특히 서구인들은 새로운 문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세계관, 가치관들을 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신과학운동과 녹색운동이 바로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들이 공동적으로 갖고 있는 이념적인 지향점이 있는데 인간, 자연 그리고 우주를 하나의 생명으로 통합적으로 보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향은 사실 동아시아권에서는 상당히 뿌리 깊은 역사적 맥락을 갖고 있는 사상이지요. 그러한 사랑이 아시아의 질서가 서구의 제국주의 충격

으로 붕괴되기 시작한 19세기에 우리 한반도에서는 동학의 모습, 즉 인내천(人乃天)사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인간과 자연이 모두 하나의 우주적 생명의 관계망 속에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각성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모든 인간의 삶을 새롭게 조직하려는 노력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바로 동학입니다. 문명사적인 전환기에 서서 새로운 문명에 대한 요구가 일어나는 이때, 우리 민족의 어려운 역사적 시기에 태동한 동학사상이야말로 산업문명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문명을 준비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명현 : 서양에서는 회람시대에도 그러했습니다만, 특히 근세 이후 서양사상은 인간중심적인 세계관이 강했습니다. 특히 자연에 대한 인간 우위의 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자연은 인간의 정복의 대상이다, 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인간의 오만스러운 자세가 뚜렷이 드러난 문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능력의 상징으로 표현되는 이성, 바로 그 이성이 가지고 있는 묘한 재주를 잘만 이용하면 이 세상에 유토피아가 온다고 생각한 점에 있어서 서양 근세사상의 두 아들적인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다 같이 그러한 기반 위에 서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산업문명은 반생명적인 여러 가지 현상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오늘하신 말씀들이 자연과 인간을 하나의 생명의 근원 속에 서로 얹혀 있는 관계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세 이후에 서양인들이 생각해 온 발상법과는 기본적인 궤를 달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지하 선생님께서 동학에 주목하는 것은 19세기에 잃어버린 사상주체의 회복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을 동학의 바깥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살림운동이 동학과의 거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종교운동이나 혹은 사회운동이나 혹은 무슨 과학사상이나 하는 의문입니다. 여기에 대학서 김지하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지하 :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학을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학은 과학과 철학과 종교를 통합하고 있는 큰 배움이며 가르침입니다. 앞서 김 교수님께서 리사이클링, 피드백이라는 생태계의 순환원리들을 말씀하셨는데 동학에서는 밥 한 그릇을 천지, 즉 우주의 젖이라고 하고 이것을 우리가 얻어 먹었으므로 갚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갚아야 하는 원리를 반포

지리(反哺之理)라고 하는데 되먹임의 원리에 따라 사람은 천지자연에 이 밥을 다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되먹임의 원리에 의해 바로 동학의 종교성이 발생합니다. 즉, 천지를 섬기는 도다, 천지를 부모와 같이 섬기는 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까마귀는 부모가 가져다주는 먹이를 먹고 자라지만 커서는 먹이를 스스로 물어다 부모를 먹입니다. 이것을 ‘반포’(反哺), ‘되먹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동학에서 중요한 원리로서 생명의 기본원리입니다. 오늘날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생태론적 세계관과 맥이 통하는 사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학에 대한 이 같은 관점으로부터 시작하다면, 다른 종교와 사상들도 역시 이와 같은 관점에서, 곧 생명과 공생, 협동이라는 이치에서 다 함께 훌륭한 배경으로 평가할 수 있지요. 생명이라는 관점과 이치에서 본다면 모든 종교와 사상이 다 함께 필요합니다. 연대해야지요. 한살림해야지요.

이명현 : 우리의 전통사상의 하나인 동학사상에서 우리의 삶의 중요한 원리가 될 수 있는 생각의 뿌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뜻에서 동학은 한살림운동의 사상적 배경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살림운동이 자본주의적 체제와 공산주의적 체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시각은 양자를 넘어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지요.

근대 산업사회를 뒷받침하는 세 기둥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근대국가이며 두 번째는 산업이고 그 다음이 과학기술입니다. 그런데 이 셋은 모두 성장, 진보, 팽창만을 추구해 왔습니다. 이점에 있어서는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최혜성 : 근대 산업사회를 뒷받침하는 큰 세 기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째는 근대국가이며 두 번째는 산업이고 그 다음이 과학기술입니다. 그런데 이 셋은 모두 성장, 진보, 팽창만을 추구해 왔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성장만을 추구하던 산업문명이 오늘날 인간을 비인간화하면서 생태적 불균형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켜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사회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에 있어서 커다란 전환을 가져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요즈음 구라파에서 나타나고 있는 녹색운동이지

요. 그들은 산업사회가 추구해 왔던 경제의 성장, 과학기술의 발전, 사회의 진보를 절대적인 가치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 것보다 소외된 인간성의 회복, 사회의 공동체원리, 생태적인 균형, 문화적 주체성과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우리는 산업문명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기존의 자본주의사회는 무분별하게 물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정도의 물질적 풍요를 가져오기도 했지만 그로 인하여 자연파괴, 인간소외, 사회분열, 경제적 재해 등의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출현한 사회주의도 근본적으로 산업주의라는 기반에 서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와 마찬가지로 인간소외와 생태적인 불균형 등의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를 혁명적으로 전복시키고 사회주의 질서를 수립한다고 해서 곧바로 인간화, 공동체와 생태적 균형의 회복과 같은 인간생존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들이 해결된다고는 생각할 수 없고, 오히려 인류 진화에 역기능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즈음 나타나기 시작한 동구권의 변혁이 그것을 잘 대변해 준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살림 운동은 기존의 산업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자본주의사회나 사회주의사회를 동시에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추구한다는 자본주의나 평등을 지향한다는 사회주의가 생명의 기본 조건이고 본래 하나인 자유와 평등의 원리를 둘로 나누어서 추상화하고 적대시킴으로써 오늘날과 같은 위기를 초래했다고 볼 때 자유와 평등이라는 근본적인 생명의 원리의 실현은 결국 사회주의나 자본주의를 가지고는 해결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문명사적인 넓은 시각에서 산업사회가 제기하는 인간소외, 공동체의 해체, 자연파괴와 같은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한살림운동이 지향하는 바입니다.

이명현 : 한살림이 근세 서양사상의 자연에 대한 이해, 인간에 대한 이해를 넘어 서려고 한다고 볼 때 서양에 의해 주도된 두 체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비판적 시각에 대해서도 자본주의가 그랬고 특히 사회주의가 그랬던 것처럼 명시적인 새로운 강령을 포괄적으로 내놓고 이러한 원리의 사회를 구현해야 한다는 식의 경직된 교조화보다는 구체적인

인 삶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씩 대응해 가는 입장을 취하려고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한살림운동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시는지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지요.

공동체적 삶과 생활문화운동

생명에 대한 각성과 생활문화운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실천운동은 생태적 균형, 사회정의, 인간화를 목표로 하는 시민운동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환경운동, 지방자치운동, 여성운동, 청년운동, 복지운동, 그리고 평화운동과 통일운동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김지하 : <한살림>에서는 그 선언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생명에 대한 각성과 실천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한살림모임」은 전 생명에 대한 우주적 각성, 자연에 대한 생태적 각성, 사회적 삶에 대한 공동체적 각성에 기초하여 심신수양활동, 생활문화운동, 사회실천운동을 통해 생명의 전일적인 통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세계관에 기초하여 세계를 진정한 삶의 질서로 만들자면 무엇보다도 인간을 포함한 자연의 모든 생명들이 하나의 우주 생명에 합일되어 있고 이 우주 생명이 바로 내 몸과 마음 안에 모셔져 있다는 깨달음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각성은 세속을 떠난 산사(山寺)나 수도원에서만 아니라 숨 쉬고 밥을 먹으며 이 밥을 얻기 위해 노동하고 이웃사람들과 부며대는 일상생활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에 대한 우주적, 생태적, 공동체적 각성은 바로 진정한 자아실현의 길이며 이웃과 협동하는 공동체적 삶의 기반이 되고 사회정의와 생태적 균형을 실현하는 사회실천운동의 출발점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각성은 자신의 마음을 닦고 몸의 기운을 바르게 조율(調律)하는 심신수양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 검소한 소비생활, 협동하는 삶, 단순한 노동과 신체단련, 명상과 기도를 통해 지혜롭고 거룩한 영성, 즉 진정한 인간성을 회복하는 일, 특히 우주 생명과 자기의 합일, 생명에너지의 생태적 순환, 되갚음의 윤리를 묵상하는 밥 먹기 전의 식고(食告)와 매사를 하기 전의 심고(心告)를 실천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연과 조화된 가운데 내면의 성장을 추구하고 건전한 식생활을 함으로써 인체의 균형을 회복하여 면역과 자기치유의 힘을 기르는 전일적인 심신건강운동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생태적 균형과 공동체적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생산, 유통, 소비의 전 생활과정에서 자연과의 조화, 이웃과의 협동을 구현하는 생활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생산자운동, 소비자운동, 이 양자의 연대와 통일운동이 필요하지요. 노동운동은 지금까지 산업화의 주도권을 잡고 자기의 몫을 키우기 위해 투쟁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습니다만 앞으로 노동자 자주관리운동, 즉 생산자 협동조합운동이나 노동자의 경영참가운동을 지향하면서 환경문제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운동의 전위인 농민에게는 화학영농으로 파괴되고 있는 자연의 생태적 순환 질서를 회복함으로써 인간의 생명을 살리는 유기농운동이 우선되어야 하고 신토불이(身土不二)의 정신으로 그 지방의 농산물을 그 인근지역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방향의 농민운동은 효과적인 수입농산물반대운동이 될 뿐만 아니라 산업화로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 농업을 회생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농민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문명사적 변혁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소비자들은 자기 일을 스스로 하고 소비를 검소하게 하는 개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면서 이웃과 협동하여 그 고장을 일을 자치적으로 결정, 운영하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나아가서 유기농 하는 농민운동과 자주관리하는 노동자운동과 연대하여 자원재생운동(Recycling Movement)을 전개해야 될 줄 압니다. 이와 같은 생활운동과 아울러 인위적으로 산업화된 환경 속에서 죽어가는 생명에 대한 감각과 정서를 되살리고 삶의 양식을 바꾸면서 생명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전반적인 문화운동을 펼쳐가야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한 바와 같은 생명에 대한 각성과 생활문화운동을 기반으로 하여 반생태적, 반공동체적, 비인간적인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제도와 정책을 개혁하고 개선하는 사회실천운동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사회실천운동은 생태적 균형, 사회정의, 인간화를 목표로 하는 시민운동, 정치운동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반핵, 반공해를 지향하는 환경운동, 민초(民草)민주주의를 목표로 하는 지방자치운동, 모성과 주부로서의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고양시키는 여성운동, 사회 주변부로 소외된 청소년과 노인 그리고 장애자들의 복지운동, 평화와 통일을 동시에 실현하는 평화운동과 통일운동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특히 <한살림>은 민족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만의 문제로 고립시켜 보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의 분단은 산업문명의 물리적인 힘에 의해 강요된 것이기 때문에 민족통일은 산업문명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문명을 창조하는 인류사적 과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이 두 개의 과제를 같이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류공동

체를 지향하고 자연과의 생태적 균형을 회복함으로써 성취될 수 있는 새로운 문명, 지구공동체를 준비하는 가운데 민족의 통일도 이룩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명현 :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공해에 대한 인식은 많은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반핵운동이 의미하는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핵발전소를 만드는 것에 반대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전쟁무기로서 핵개발을 반대하는 경우인데, 핵발전소의 건설문제는 ㄷ口당자들이나 전문가들에 의해 안전하다든가 효율적이라든가 하면서 변호되고 있으며, 핵무기에 대한 반대는 사상적으로 불온하다는 시각으로 보는 면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운동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와 노력 그리고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 선생님과 김 박사님 말씀해 주시죠.

최혜성 : 한살림운동은 한마디로 말해서 생명운동이지요. 산업사회가 만들어 놓은 질서는 생명을 소외시키고 억압시키고 파괴시키기에 이르렀는데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인류가 그 생존마저 위협을 당하는 지경에 이르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러한 우려와 불안에서 생명에 대해 새롭게 자각하는 운동이 나타나게 된 것이고 이러한 운동은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태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운동이 산업사회가 오늘날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을 사회구조의 모순으로만 보지 않고 문명적인 차원에서 보려고 하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특정한 이데올로기의 시각에서 보면 제국주의와 전쟁, 인간에 의한 인간의 정복, 지배, 수탈과 같은 현상들은 특정한 이데올로기나 역사적 단계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이러한 문제들은 문명이 발생된 이후 계속해 발생했던 문제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체제가 극복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극복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지요. 그런 의미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통하여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것은 인류 문명의 사회, 문화적 진

화의 과정 속에서 생명의 근원적인 질서로부터 이탈함으로써 생긴 불균형의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회복될 수 있다고는 물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부터라도 우리 모두가 생명에 대한 생태적, 공동체적 그리고 우주적 각성을 함으로써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사회실천활동에서, 그리고 자기 내면에서 이러한 운동이 동시에 일어나야만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각성을 가지고 세계를 개혁하려는 사회운동이 꾸준히 지속될 때 비로소 균형에서 이탈된 역사의 진로를 다시 균형된 방향으로 돌이킬 수 있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운동과 반핵운동은 일시에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여 전개하는 반대투쟁만으로는 그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봅니다. 물론 그러한 투쟁은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에 대한 각성을 불러일으켜 새로운 생각을 갖도록 하는 효과는 있겠죠.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렇지만 그러한 운동만 가지고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우리들 각자가 생명에 대한 각성에 기초하여 자기 내면으로부터 자신을 변혁시키고 새로운 세계관에 기초하여 생활양식을 바꾸어가면서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변혁시키려는 사회적 실천을 꾸준히 지속할 때만이 환경문제와 핵위협을 극복하여 생명의 본원적 질서에 합당한 새로운 문명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상중 :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우선 환경문제에 국한시켜서 본다면 산업화 과정에 서구의 선진국가의 발전 형태를 분석하고 관찰했으면 피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짧은 시간에 선진국이 겪었던 길을 그대로 답습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도를 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살림이 운동방향도 앞서 일어나 유사한 운동의 사례들을 분석하는 데서 그 방향성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가 서구 사회의 발전적인 모습과 비교해 볼 때 어떠한 위상에 놓여 있는가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1970년대부터 서구사회에서 원자력발전소의 반대를 공개적으로 다루어 왔었는데 우리의 경우는 소수의 과학기술자, 소수의 경제관료들에 의해서 모든 정보가 독점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그들 소수집단의 특권계층을 위한 편파적인 사고방식에 쉽게 오도가 되어 왔습니다. 일례로 핵발전소문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건설하고 있는 핵발전소

는 앞으로의 경제발전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다른 발전소에 비하면 공해도 적게 유발된다고 하는 일반적인 생각을 일반 국민들에게 주입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핵발전소문제는 핵무기의 개발과 떼어 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핵발전소의 성격상 핵무기와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평화운동에서는 핵무기와 핵발전소의 문제를 분리해서 거론할 수가 없습니다.

이명현 : 인류 역사를 보면 아이러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세의 서양 사람들은 인간을 자연의 예속으로부터 해방시킨다는 기치 아래 과학기술, 산업문명을 해방자로 인식하고 문명의 이기를 노래했는데 그 결과는 무서운 공해현상, 생명과 파괴현상들을 낳게 되었고 오늘날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에 대한 우리 인간의 생각이 너무 좁은 데서 자기모순적인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가지중심적인 시각으로 자연을 보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잘 살게 되고 자연의 구속과 사회적인 억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이제는 오히려 자연이 인간에게 반격을 가한다고 하는 역사적 딜레마 앞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한살림운동은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제2의 인간의 해방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이 그렇게 충분하게 된 것 같지는 않지만 적어도 한살림모임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만들어졌으면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모임인가 하는 기본적인 성격을 드러내는 데는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믿고 오늘의 대화를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새로운 삶의 이해와 생활협동운동

생활협동운동, 특히 유기농업과 소비자운동의 연대를 중심으로

일 시 : 1990년 1월 8일

장 소 : 한살림모임 사무실

참석자 : 김영원(한살림생산자협의회 회장), 이순로(한살림공동체소비자협동조합 이사장), 박재일(한살림모임 의장, 한살림농산 대표)

한살림모임이 결성되기 전부터 이미 생산자인 농민과 도시 소비자들 사이에 유기농 산물을 매개로 한 직거래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었다. 1986년 12월에 서울의 제기동에 <한살림농산>이 개설되어 생산지와 소비지가 연결되는 창구역할을 담당하였고, 이것이 발전하여 1988년 4월에 <한살림공동체소비자협동조합>이 창립되었다.

그와 더불어 처음에는 개별적으로 참여하던 농민들이 조직적으로 연대하여 1988년 11월에 100여 농가가 중심이 되어 <한살림생산자협의회>를 창립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이러한 활동은 농촌과 도시의 직거래운동 차원을 넘어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대와 만남, 생산과 소비의 통일을 지향하여 상품사회를 넘어서 새로운 경제 질서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또한 생산자인 농민들은 생명의 농업인 유기농업을 통해 공동체를 형성해가고 있으며, 주부들이 중심인 소비자들은 유기농산물을 사먹는 데 그치지 않고 환경문제, 교육문제 등 우리 사회에 팽배하고 있는 죽음의 질서를 극복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 생활공동체를 형성해 가고 있다.

그리고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도 농촌과 도시,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대운동을 통한 생활협동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런 활동들을 중심으로 생활협동운동의 구체적인 현황과 가능성 모색을 위해 이 활동들에 직접 참여하고 계신 세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박재일 : 먼저 멀리 경상도에서 농시 지으시라, 유기농업을 펼치시라 바쁘신 데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영원 회장님께서 <한살림생산자협의회>(이하 생산자협의회로 줄임)에 관하여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김영원 : 생산자협의회는 지난해 2차 총회를 치루었을 정도로 역사가 짧습니다만, <한살림농산>이 활동을 시작할 때부터 기존 농민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농민 가운데 유기농업을 하고 있던 농민들이 중심이 되어 <한살림농산>활동에 참여를 해왔습니다. 지난 2차 총회 및 연수회에 참여한 인원이 100여명이요 회원은 거의 전국 각지에 고루 퍼져 있습니다. 지역중심 운동이 활발하고 지금은 한살림 유기농산물의 규격을 제정할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회원은 연수, 교육과정을 거쳐야 할 정도로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유기농업은 기술과 함께 자연과 인간에 대한 믿음과 올바른 마음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박재일 : 유기농업을 하시는 농민들이 이렇게 땀 흘려 생산한 소중한 농산물을 <한살림공동체소비자협동조합>(이하 한살림소협으로 줄임)에서 그동안 공동으로 구입해서 나누어 먹는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순로 이사장님께서 소협의 모습과 활동 상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이순로 : 1986년 12월에 시작한 <한살림농산>을 이용하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1988년 4월 21일 70여 세대가 모여 한살림소협을 창립하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조합원이 약 2천 세대에 이르렀습니다. 규모가 커짐에 따라 보다 원활한 활동을 하기 위해 관악구 봉천동과 강남구 대치동에 공급소를 마련하고 지역에 따라 협의회도 구성했습니다. 5~10세대가 함께 생활공동체를 만들어 이 공동체를 단위로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일주일에 한 번씩 공급을 받아 서로 나누어먹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공동구입 활동을 통해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즐거움을 느끼면서 단절되고 폐쇄된 도시생활을 나눔과 친교의 마당으로 바꾸어 나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또한 교육을 중시하고 자기발견과 이웃과의 새로운 만남의 기회를 통해 보다 커다란 공동체 사회를 향해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김영원 : 저희 생산자협의회가 100여 농가에 이르고 한살림소협은 180여 공동체에 2천여 세대가 조합원으로 되어 있는데 불과 2, 3년 사이에 이렇게 발전한 까닭을 알아볼 필요가 있으리라 봅니다. 이 활동은 먹을거리, 특히 일차 농산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국의 농민운동이나 농촌현실과도 깊은 연관이 있을 듯한데 이 운동의 산파역할을 해오시며 고생이 많으셨던 박재일 한살림모임의장님께서 지금까지의 한국농민운동의 흐름과 이 운동과의 맥락을 설명해 주시길요.

도시와 농촌,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대

박재일 : 제가 참여했던 운동은 가톨릭농민운동과 천주교 원주교구가 강원, 충북, 경기지역을 대상으로 전개한 농촌개발활동이었습니다. 먼저 가톨릭농민운동은 농촌현실과 자기 자신에 대한 각성으로부터 출발하여, 농업, 농민 문제의 해결과 잘못된 구조, 제도, 정책의 개선과 민주화를 위한 활동으로 전개되어 이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운동과 삶의 일치, 자연과 함께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사람을 이루어내는 데는 미진했습니다. 1980년대로 들어오면서 평가와 반성의 과정을 거쳐 ‘공동체적 삶과 사회의 민주화’라는 큰 방향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 생활운동의 일환으로서 유기농업운동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겨나게 되고 지역에 따라 실천에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아직 농민운동 내부에 깊숙이 뿌리박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앞으로 중요하고 절실한 운동으로 크게 자리매김 되리라 봅니다.

1973년부터 시작된 강원도 지역의 농촌개발운동은 일을 같이하는 생산협동활동이나 그것과 연관된 신용협동, 기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이용협동, 나아가 생활물자를 공동구입하는 소비협동 등의 협동운동과 마을 민주화운동이었는데, 이 운동 또한 농업정책, 경제정책, 급격한 사회변화 등으로 농민이 농촌을 떠나게 되고 농촌의 공동체 삶과 공동체문화가 붕괴되면서 마을 규모의 협동운동은 와해됩니다. 지역권으로 발전한 운동은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형편이었습니다. 1980년대 들어오면서 반성과 새로운 방향모색을 한 결과 ‘생명의 세계관’에 기초하여 ‘협동적인 삶’을 실현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지요. ‘세상을 보는 눈의 변경’이지요. 이때부터 생명의 세계관을 확립하고 공동체 삶을 실현해 가는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유기농업에 대해 바른 인식을 갖게 되면서 실천하게 되고, 도

시와 농촌, 생산과 소비가 만나고 연결되고 연대해 가는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운동을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1985년 6월에 창립된 원주소비자협동조합운동입니다. 그 후 1986년 12월에 서울에서 한살림농산이 문을 열고 활동하게 되었고, 1988년 4월에 한살림소협이 창립되어 현재 크게 확산,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김영원 : 1980년대 중반부터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해서 오늘과 같이 생산과 소비의 연대, 농촌과 도시의 농산물직거래를 통한 연대가 나타나기 전에도 도시 나름의 공동체운동이나 생활협동운동이 여러 가지 형태로 이 땅에 있어왔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이 종교단체이건 자생적인 모습이건 농촌과 연대는 되지 않았더라도 생활공동체의 모습을 담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시지요.

이순로 : 교회나 성당은 반조직이 잘되어 있지만 각기 방향과 뜻이 달랐습니다. 사회운동, 도시빈민운동, 노동운동 등 다양한 내용의 활동들이 있어왔지만 이런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드물고 대부분은 교회 소모임이나 계모임, 헬스클럽, 각종 문화센터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정신을 차린 사람들이 모여 천주교민족자주생활운동을 조직하게 되면서 생활공동체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공부모임을 해오다가 1987년 1월 정호경 신부님과 박재일 의장님을 만나 한살림운동을 소개받고 지역 중심으로 본격적인 생활공동체 운동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박재일 : 농촌과 도시의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유기농산물인데 김 회장님께서 어떤 계기로 유기농업에 손을 대셨으며 그리고 종전의 관행농법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김영원 : 앞서 박 의장님 말씀대로 1980년대 농민운동의 방향이 사회저의 실현과 공동체의 구현이었습니다. 그러나 농민운동에서는 유기농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관행농법의 피해 속에서 생존의 위기감을 느낀 현장 농민들이 농약의 심각성을 깨닫고 유기농업으로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저의 경우도 신문을 통해 공해문제와 농약문제의 엄청난 피해상을 알게 되었는데 제 주변의 여러 사람과 가족이 농약으로 인해 죽거나 병 때문에 쓰러지는 것을 보고 하나뿐인 생명이 죽음에 이르는 생산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여 유기농업을 시작했습니다. 벌써 12년 전의 일이지요. 저도 중독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아내의 권고가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 이젠 과수에도 전혀 농약을 치지 않고 있습니다.

관행농법은 증산과 신품종개발을 이유로 화학비료와 독성농약을 사용케 하여 농촌경제를 가난에 허덕이게 하고 농민의 건강과 생명을 해치고 있습니다. 정부나 기업, 관변학자들은 항상 농약의 무해성을 주장합니다. 농약을 사용함으로써 해충이 제거되고 농업생산성이 비약적으로 증가해서 농가소득이 오르며, 농약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해도 좋을 만큼 작다, 즉 지연분해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단지 농약사고는 농민들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농민을 계몽하고 교육하면 피해를 없앨 수 있다는 겁니다. 경제기획원 공식통계에 의하면 농약으로 인한 사망자는 1년에 평균 1,200명 정도입니다. 1985년도엔 1,561명(여자 455명)이 농약중독으로 죽었습니다. 그밖에 비공식 사망자나 만성중독환자는 셀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이런 피해를 입게 되자 농민 스스로 각성을 하고 유기농업으로 전환해야 삶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지요.

생활공동체

이순로 : 유기농업 이야기를 들으니 단순한 도농직거래나 경제적인 의미의 생산과 소비의 연결을 한 차원 뛰어넘어서는, 생명을 살리는 운동이 절실하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유기농운동을 통해 어려운 농촌과 도시 현실을 통합하는 새로운 생명문화의 큰 판이 있어야겠다고 느낍니다. 이에 대해 박 의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박재일 : 기나긴 인류문명의 역정(歷程) 속에서 자연과 인간이 서로 어울려 친교를 이루면서 살아왔는데 최근 수세기 동안 공업기술문명이 고도로 발달하면서 농촌에서도 농민들이 땅을 죽여 가면서 약탈농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사람들은 편리만 추구하여 자신의 본성으로부터 멀어지고 이웃으로부터

터 단절되고 있으며 먹을거리는 독극물에 오염되고 생태계, 즉 물, 공기, 땅, 오존층 등의 생존환경이 오염 파괴됨으로써 인류의 생존 자체가 근본적으로 위협받게 되지 않았나 할 정도의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자연스런 모습을 되찾기 위해 생활공동체운동이나 유기농업운동 그리고 그 둘의 연대에 관심을 가지게 됨은 물론, 총체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생명운동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어 생명을 살리자는 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먹을거리를 서로 나누는 일이 그 시작입니다. 앞으로 생활 전반, 삶 전체에 관련된 운동으로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김영원 : 사실 생태계의 파괴, 죽임의 환경도 무섭지만 인간의 본성이나 도덕성의 파괴 또한 그에 못지않습니다. 농촌에선 농민들이 구분농장(區分農作)을 합니다. 시장에 내다 팔 농산물은 농약을 듬뿍 치고 자기와 가족이 먹을 것은 농약을 안 뿌리죠. 그러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조차 생산량과 돈에 집착한 나머지 반생명적 농사에 매달리는 것을 보면 신앙도 삶과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조그만 이기심이 자신과 이웃 모두를 죽이는 것인데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 한살림운동은 유기농산물을 매개로 해서 가치관과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순로 : 소비자도 마찬가지지요. 소비자 측이 차라리 생산자인 농민보다 편의주의와 개인주의 그리고 가족 이기주의에 더 심하게 빠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태계의 파괴나 인간관계의 단절, 구조적인 사회악을 해결하려면 생활공동체운동밖에는 길이 없을 것 같은데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마음을 갖기가 제일 힘들지만 중요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 사회와 남을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책임을 느끼며 남을 받아들이고, 보람 있는 일들로 생활을 채워나가도록 해야 할 텐데 이것이 무척 어려운 일이지요.

김영원 :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산업위주의 기계적인 사고를 어떻게 바꾸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석유를 에너지의 기반으로 삼고 있는 산업사회는 이미 한계에 와 있고 앞으로 공생의 사회만이 지금의 죽임의 사회를 살려낼 수 있는데 편리함과 물질적 풍요를 꿈꾸는 허위의식을 버리지 않고는 이 공생의 사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생산자교육에서 심성의 변화를 무척 강조합니다. 생산자의 의

식의 변화가 있어야 소비자도 변한다는 생각이지요. 소비자와의 연대를 위한 새로운 차원의 농민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산업문명의 뿌리와 한계를 명확히 깨닫고 농업생산, 유통, 소비 등 전 과정에서 마음과 시각의 근원적인 변화와 각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육에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되겠어요.

이순로 : 동감입니다. 교육을 하면서 사람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지요. 처음엔 이웃도 필요 없고 자신이 공해를 만들어낸다는 사실도 모르고 이기적인 생각에서 무농약농산물을 사먹겠다던 사람들이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먹을거리가 농약과 식품첨가물로 뒤범벅이 되어 있고, 수입농산물이 무서운 독성식품이란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지요. 그러면서 원인을 캐어가다 보면 산업사회가 만들어낸 밥상, 먹을거리, 인간관계, 사회구조 등을 알게 되고 자신이 사회 속에서 할 일을 찾게 됩니다. 가정에서 사회로 뛰어들면서 가정과 사회가 생활공동체를 통해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처음엔 사회와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이기적 욕심으로 살아오던 사람들이 소공동체 중심이 활동을 하면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런 깨달음에 이른 사람은 소수이고 더군다나 인간본성과 도덕성을 온전하게 각성하고 활동하는 사람은 더욱 드물지요. 서로 교육하고 배워가면서 가다듬어 가야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일 크게 겪고 있는 어려움이 편의주의에 빠진 습관을 고쳐 자발적으로 공동체 활동을 하도록 이끄는 일과 불신풍조에 사로잡힌 마음들을 물건과 인간에 대한 신뢰감으로 바꾸는 일인데 소공동체운동을 통해 세계관과 가치관을 생명의 세계관으로 바꾸고, 일에 참여하면서 자주성과 믿음을 키우도록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원 : 이러한 운동이 일본의 생활구락부 생활협동조합 같은 데서도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생활협동운동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참고할 만한 것은 없는지요. 그리고 그쪽의 현황은 어떤지 박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박재일 : 일본의 생활구락부 생활협동조합은 1965년 우유를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활동으로 시작해서 1968년에 생활구락부 생활협동조합을 창립하여 생활운동을 하고 있지요. 약 25년의 역사를 지녔는데 주로 반조직을 중심으로 자기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공동으로 계약주문해서 나누는 것이 주요한 활동이고 자신

이 생활의 주인이라는 자각에서 출발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운영방식은 한살림소협과 비슷하나 처음부터 생산자를 직접 만나 필요한 물건을 구입해 먹는 방식이었고 우유부터 시작한 것이 농산물에 이르러서는 땅과 생태계를 살려내는 유기농업과 연관을 갖게 되어 갈수록 운동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단위조합이 있고 몇 년 전 자료에 따르면 조합원은 14만 명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놀란 것은 그분들이 25년 동안 운동을 해오면서 생활에 꼭 필요한 기본적인 물자를 하나씩 확정짓고 이용하는데 현재 취급하는 물품수가 340가지 정도밖에 안됩니다. 한 백화점에서 보통 수천 가지의 물건을 취급하는 것과 비교한다면 불필요한 낭비 없이 필수품만 구매 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영원 : 정말 소비자운동은 소비물자 총량뿐만 아니라 소비품목수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합니다. 물론 꼭 필요한 것은 늘려야겠지만요.

이순로 : 한살림도 1990년도에는 백여 가지 품목을 취급하는데 굉장히 많지요. 일본의 경우 340개 품목이라면, 생산공장에 위탁한 것과 소협 안에서 출자해서 직접 생산한 것이 있을 텐데 그 비율이 어느 정도 일까요?

박재일 : 자료를 종합해 보면 주종을 이루는 것은 생산자가 직접 생산하는 것입니다. 농산물은 농민이나 농민단체와 연대를 하고, 공산품의 경우는 자기들이 필요한 물자를 주문해서 생산을 위탁하는 주문, 계약생산을 합니다. 품목에 따라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동으로 생산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의 생활협동운동은 일본의 생활구락부생활협동운동을 연구하여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활주체로서 필요한 물자를 결정짓고, 생산하고, 소비하기 위해 구매력을 집중시켜 생산을 가능하게 하거나 자치의 원리에 근거해서 생산자를 직접 찾아가 의견을 나누고 꾸준히 출자하여 필요한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등의 활동은 본받을 만합니다.

유기농업 - 생명의 회복을

이순로 : 한살림식구들도 생활주체의식이 강합니다. 공동체생활 속에서 자신이 자기 삶의 주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크게 발전하거든요. 인간으로서, 여성으로서, 생활의 주체로서의 자각이지요. 그래서 한살림소협에서는 여성운동이라는 말

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성, 남성을 넘어선 삶 차원의 운동이고, 의식의 성숙과 정을 통해 자기 나뉠대로의 삶을 창조해 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한살림소비자운동 안에는 공해운동, 여성운동, 교육운동, 반핵운동 등이 다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재일 : 그러니까 유기농업운동도 연관이 있겠지요. 농촌과 농민운동에서는 유기농업운동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운동이 되리라 보는데요, 예를 들어 화학영농, 기계영농과 같이 자연과 인간을 파괴하고 죽이는 일을 방조하는 삶이 아니라 자연과의 생태적 순환을 균형 있게 유지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서로 협력을 하면서 살아가는 유기농적 삶의 방식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유기농업운동은 농촌과 도시가 서로 연대하여 협동하는 구체적인 생명운동이라 봅니다.

김영원 : 유기농업을 하려면, 죽음의 질서와 구조를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제적인 다국적 기업의 지배 때문에 우리 농민이 농약을 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됨으로써 이익은 외국자본이 챙기고 우리나라 농민은 생산의 도구로 전락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화학비료공장은 자기들이 갖고 있으면서 화학비료를 많이 써야만 하는 품종을 권장하고 농약을 팔아먹지요. 거기에서 유통까지 장악을 해서 수입농산물을 들여오거나 개방정책으로 농민은 생산비도 못 건지고 부채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위기, 농업위기를 국제화와 개방이라는 미명 아래 한국 농업이 떠받치면서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하고 신음하는 꼴이 되었지요. 이렇게 독극물에 오염된 수입농산물을 들여올 수밖에 없고 농약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인식인 선행돼야 합니다.

이순로 : 유기농업 생산자 조직과 거기에서 생산되는 유기농산물 먹을거리를 나누는 소비자협동조합이 서로 의지하면서 도움을 주고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소비자 활동이 커질수록 생산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반면에 유기농업생산자들의 노고로 저희 소비자들의 생명이 보장되는 공생의 관계가 더욱 광범하게 확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기농업을 하시면서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김영원 : 농민들도 농약의 무서움을 알고 유기농업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런데 확산이 잘 안 되는 것은 첫째 노동력의 부족입니다. 관행농법보다 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데 농업정책의 부재와 도농 간의 불균형 심화로 일손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다음은 농민들도 상당히 편의주의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힘들여 농사짓기보다 재수 좋게 수지 맞춰 파는 게 더 주요 관심사가 될 정도니까요. 정부의 농어촌발전 종합대책이라는 것도 농촌인구로 줄여가면서 전문농업을 권장합니다. 이와 같이 노동력 부족과 농민들의 편의주의와 사행심, 정책부재가 유기농업운동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의 개선을 위해 앞으로 농민운동은 기필코 사회정의와 생명회복을 위한 공동체 운동을 펼쳐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방향 이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주부들의 역할과 여성운동

박재일 : 도시나 농촌에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사회운동단체와도 열린 가슴으로 연대하여 새로운 차원의 운동을 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영원 : 우선 유통과정도 협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살림을 생명운동의 하나의 커다란 지체로 보고 겸허한 자세로 다른 유통단체와 연대를 맺어야 된다고 봐요.

박재일 : 연대란 주체성을 지켜 나가면서도 서로 돕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교단체 같은 경우, 소모임이 많은데 그런 종교운동과 생활운동을 엮어 풍성한 생활종교운동으로 이끌어가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이순로 : 한살림소협의 경우 80%가 천주교 신자입니다. 생활의 진리로써 삶의 내용을 채우는 교육이 중요합니다. 신천동 본당 같은 경우 지역주민 교육을 한살림공동체운동으로 채우겠다는 요청이 있었고 필리핀의 기초공동체운동 연수프로그램을 옥수동 성당에서 가졌는데 거기에서도 한살림이 교육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기업화된 교회, 성당 등이 바로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재일 : 또 탁아소운동과도 연결이 되리라 봅니다. 건강하고 밝게 자라야 할 새싹 같은 어린이들을 보살피는 지역탁아소 활동과 가능한 연대를 맺는 것이지요. 그리고 국민학교 급식과 관련하여 국민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한살림운동을 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의 결과물인 많은 폐기물, 즉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일에 소비자공동체운동이 자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순로 : 그럼요. 쓰레기를 줄이려면 불필요한 소비생활을 줄여야 하고 생활 속에서 비닐사용을 안하고 자연스럽게 보자기와 장바구니를 써야 되겠지요. 합성세제도 안 쓰고요. 그런 것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서 기쁨을 느끼고 체험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운동이고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재일 : 더불어 사회적인 각성을 촉구하는 운동단체와도 연대가 필요합니다. 생활혁신도 중요하지만 사회실천 운동단체의 역할도 소중하니까요. 삶과 운동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농민운동도 유기농업운동의 완성이 아니라 인간다운 농민생활을 가로막는 구조나 제도, 불합리한 정책 등을 같이 깨쳐나가야 합니다.

김영원 : 쓰레기나 학교급식문제는 정책이나 문화제국주의와도 관계가 깊어요. 쓰레기 재활용문제는 학계와 정치권에서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입농산물이나 외국식품 전시회에 가보면 입맛까지 바꾸어 소비성향을 바꾸려고 하는 의도가 식생활문화까지 침탈하려고 하는 것같이 보여지는데 이것이 결국 농촌을 파괴하고 도시에서는 소비자의식까지 좀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순로 : 아이들의 입맛이 햄, 치즈에 길들여지고 있잖아요. 고추장, 된장 소비가 줄고 전통음식문화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국산식품의 애용과 유기농산물의 사용으로 수입농산물, 농약, 인스턴트식품의 무서움을 일깨워야 하지요. 이를 위해서는 다른 여러 소비자운동단체와 연대가 필요합니다.

박재일 : 한살림생활공동체운동은 먹을거리를 통한 생명문화운동인데 여기에서는 밥상문화의 주역인 주부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한살림정신은 주부와 어머니로서의 여성의 심성을 가지고 세상을 가꾸려는 운동을 전개하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이 운동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 여성들의 사회활동의 폭이 넓어지고 스스로 바람직한 활동을 찾아나가면서 기존의 남성적인 사고가 빚어낸 지배와 대립의

산물인 사회의 병폐를 고치는 주체로서 여성운동의 자리매김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생활양식의 창조

김영원 : 이런 연대를 바탕으로 한 한살림소협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이순로 : 전에 고추가 대풍이 되어 가격이 폭락했을 때는 소비자들이 울면서 연초 계약가격으로 사서 먹고, 배추 값이 폭등했을 땐 싼 값으로 웃으면서 사먹은 일이 있었잖아요. 이런 새로운 경제관념과 더불어 먹을거리의 나눔을 넘어서는 새로운 차원에서의 생활협동운동이 필요합니다.

이순로 : 소협은 동네단위의 공급장을 늘려갈 생각인데 단순히 물건만 주고받는 공급장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어 자신감과 희망을 가지고 밝은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광장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박재일 : 생산자협의회 쪽은 어떤가요?

김영원 : 농업을 산업본위로 보는 사고방식부터 고쳐야겠지요. 생명과 건강을 지켜나가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것으로 보는 올바른 농업관의 정립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생산을 자연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인위적인 계획생산이 불가능하고 항상 과부족과 과잉이 있기 때문에 생산자가 피해를 입기가 쉽습니다. 유통과정을 더욱 발전시켜 해결을 해야지요. 그리고 이렇게 도농직거래와 협동조합운동을 통하여 결국 시장경쟁원리 자체를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표어인 “생산자는 소비자의 생명을 책임지고 소비자는 생산자의 생활을 책임진다”는 것도 결국 시장경쟁 원리를 극복하려는 노력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계획생산이 어려운 만큼 소비자와 함께 협력해서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해 가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서로 어려운 만큼 이해를 바탕으로 가격을 조정하고 먹을거리를 나누면서 삶 전체를 공유하고 믿음으로 서로 하나가 되는 데까지 나아가려 합니다.

이순로 : 한살림소협과 생산자협의회 그리고 다운 운동단체가 서로 연대를 하면

서 정보를 교환하고 자기 일을 책임지며 보다 큰 공동체사회를 지향해 나가야겠지요. 교육운동에 보다 충실하고 세계관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있으리라 봅니다. 박의장님께서 생명의 세계관을 기초로 하는 새로운 생활양식 창조를 위한 여러 가지 운동을 종합적으로 포괄해서 결론을 맺어 주시길요.

박재일 : 우선 이 지구상의 만물 중에서 가장 소중한 생명의 가치, 특히 인간생명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소중한 생명이 기계문명, 산업문명의 문제와 전체 구조의 잘못과 인간 자신의 욕심으로 자기도 모르게 죽어가는 현실에 대해 모두가 각성을 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운동을 통해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내야 된다고 봅니다.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생활 속에서 마음을 모으고 삶을 나누는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일하시는 분의 고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작지만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나가는 출발단계에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모색한다면 꼭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기본적인 먹을거리인 농산물은 물론이고 생명의 원천이면서 인체에 불가결한 물이나 다른 여러 가공품에 대한 문제들도 관심을 가지고 보아서 생산이나 소비생활 속에서 그런 것을 오염시키는 원인들을 찾아내어 일상생활 속에서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물을 오염시키지 않는 비누나 세제를 만드는 일 같은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만약 확실한 소비가 보장되고 가격이 보장된다면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처럼 다른 것도 생산이 가능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운동을 통해 깨닫게 되는 새로운 생각과 가치를 바탕으로 다양하게 새로운 생산, 유통, 소비양식, 생활양식을 창출해 가야 합니다. 또한 생활이 정치에 종속되어 있던 것은 정치가 생활에 필요한 도구가 되도록 바꾸어 나가는 새로운 삶을 지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래 삶이 정치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삶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정치와 삶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지요. 이런 시각에서 언론이나 교육 그리고 문화 전체를 제 모습으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밥이 밥답게 공기, 물, 흙, 자연이 자연답게 사람이 사람답게 온 생명이 제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같이 활동해 나갈 때 생활협동운동, 생명운동, 한살림운동이 제자기를 찾고 발전해 나가리라 봅니다.

김영원 : 우리의 동물적인 본능인 욕심을 버릴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거기에 이
웃이 있고 공동체가 있잖아요. 생산활동이나 소비활동 모두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며 책임감과 긍지를 가지고 마음들을 서로 나눌 때 살림운동이 발전하고 뿌
리를 내릴 수 있으리라 봅니다. 중요한 것은 모두가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말씀 나누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녹색평론 창간사: 생명의 문화를 위하여

김종철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

지금부터 이십 년이나 삼십 년쯤 후에 이 세상에 살아남아 있기를 바라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 것인가?

범람하는 인쇄물 공해의 시대에 또 하나의 공해를 추가하는 것에 불과할지도 모를 이 조그마한 잡지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무겁다. 거의 파국을 향하여 질주하고 있는 산업문명의 이 압도적인 추세 속에서 우리의 보잘것없는 작업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게다가 이 작업이 불가피하게 삼림파손에 이바지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은 실로 착잡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시도하려는 작업이 어떤 의미가 있든지 간에 이것이 생태계의 훼손을 조금이라도 수반하는 것이라면, 이 작업은 정당화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망설임 끝에 결국 이 잡지를 내기로 결정한 것은 그것이 크게 가치 있거나 많은 사람들의 필요에 부응할 수 있으리라는 자기도취적인 낙관이 있어서가 아니다. 점점 가속적으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환경문제를 보면서, 그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인간을 포함한 수많은 생명체들이 지구상에서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불투명해지는 현실에 직면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

은 그렇다 치고 우리의 아이들은 어떻게 될지, 그 아이들이 성장하여 사랑을 하고 이번에는 자기 아이들을 가질 차례가 되었을 때 그들의 심중에 망설임은 없을까--하는 보다 절박한 심정에 시달리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아마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라면 회피하기 어려운 당면 현실일 것이다. 우리가 《녹색평론》을 구상한 것은 지극히 미약한 정도로나마 우리 자신의 책임감을 표현하고, 거의 비슷한 심정을 느끼고 있는 결코 적지 않을 동시대인들과의 정신적 교류를 희망하면서, 민감한 마음을 지닌 영혼들과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이야기를 나누어보고 싶은 욕망 때문이었다.

우리는 우리가 느끼는 절박한 심정이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공유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러한 심정이 단지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의 예외적인 판단에 기인한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다지 상상력이 풍부하지 않은 마음으로도 지금 상황은 인류사에서 유례가 없는 전면적인 위기-정치나 경제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문화적 위기, 즉 도덕적 철학적 위기라는 것을 막연하게나마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들의 대부분은 오늘날 우리의 삶이 일종의 목시록적 상황에 임박해 있다는 사실에 직면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애써 이것을 부인하거나 외면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스스로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안팎의 모든 체험에 비추어 다소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 각자는 저마다 내심 깊은 공포를 느끼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렇게 때문에, 지금 환경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지배적인 논의 방식에서 보는 것처럼 이것을 단순한 외부적 재난이 아니라 삶에 대한 우리 자신의 기본가정 자체의 결함으로 인식하는 데 무능력을 드러내는지도 모른다. 근원적인 공포가 사태의 정당한 인식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무엇인가 본질적인 결핍을 느끼면서도 환경재난에 대한 기술주의적 접근방법만이 활개를 치고, 또 그러한 현실에 대체로 묵종해 버리는 것인지도 모른다.

하여튼 환경재난이 제기하는 보다 근원적인 물음으로부터 자꾸만 도피한다면, 모처럼 이 위기가 인간의 자기쇄신이나 성숙을 위하여 제공되는 진정한 도전에 성실하게 응답하지 못하는 결과가 될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전대미문의 이 생태학적 재난은 결국 인간이 진보와 발전의 이름 밑에서 이룩해온 이른바 문명, 그 중에서도 특히 서구적 산업문명에 내재한 논리의

필연적인 결과로서의 사회적, 인간적, 자연적 위기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사람이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지구상에서 사람이 삶을 영위하는 올바른 방식은 과연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근본적으로 성찰할 것을 요구하는 진실로 심오한 철학적, 종교적 문제에 직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백여 년 간 서양문화로부터의 충격 속에서 거의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근대화 콤플렉스에 깊숙이 젖어온 민족의 입장에서, 하나의 인간공동체로서 번영을 누릴 뿐만 아니라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서도 모든 사람의 에너지를 경제성과 산업화에 쏟아 부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그 결과 어느 정도는 물질적 성공과 서구적 생활방식의 모방의 가능성이 주어지는 것으로 기대되는 바로 그 시점에서, 다름 아닌 그러한 성공의 대가로 인간생존의 터전 자체의 붕괴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은 한국 사람들로서는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고통일 것임이 분명하다. 이 시점에서 대다수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못보고, 적당히 짜깁기함으로써 위기를 벗어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오랜 기간 의심할 나위 없이 믿어왔던 삶의 목표와 우선순위에 대한 관점을 근본적으로 변경할 만한 심리적 준비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환상을 갖고 싶어도, 이대로 간다면 머지않아 생존의 자연적 토대가 완전히 허물어지고 만다는 냉정한 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지금 온갖 곳에서 매 순간 끊임없이 불거져 나오는 환경재난과 생명훼손의 사례들은 이 추세에 강력한 제동이 걸리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나 다음 세대들의 이 지상에서의 생존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는 불길한 징후들이다. 물론 오랜 옛날부터 예언자들은 흔히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해 왔다. 그러나 그러한 예언은 무엇보다 종교적 열정에 근거를 둔 것임에 반해서 오늘의 묵시록적인 전망은 다분히 과학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과학자들 간에는 토양오염이나 온실효과나 오존층 고갈이나 세계의 사막화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한 방법에 대한 기술적 탐색에 골몰하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지만, 인간 자신이 생물학적 존재조건을 변경시킬 수 없는 한, 어떠한 기술적 재간으로도 생물체로서의 생존조건을 파괴하면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남는다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맑은 공기도, 푸른 하늘도, 숲도, 강물도 없는 세상에서 사람은 살고 싶은 욕망을 느낄 수 있는가?

과학기술이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는 어리석은 믿음이 지배하고 있다는 점도 오늘의 크나큰 비극을 가중시키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과학도 기술공학도 결코 만능이 아닐 뿐더러 오히려 사태의 악화에 훨씬 더 많이 기여해 왔다는 것을 알기 위하여 우리 각자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과학에 대해 품고 있는 맹목적인 숭배나 신뢰는 과학은 거짓이 없고 실패가 없다는 전연 근거 없는 미신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런 터무니없는 미신이 널리 유포된 데에는 이 시대에 만연하고 있는 비역사적 사고가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과학사의 관점에서 볼 때, 과학의 진리에 대한 관계는 언제나 잠정적이고 모색적인 것이었지 결코 항구적인 절대성을 갖는 것은 아니었다. 진정하게 과학적인 태도는 그러니까 늘 열려있는 겸손한 태도일 수밖에 없으며, 자신의 현재 능력이나 인식방법으로써 포착할 수 없는 경험이라고 하여 그것을 무시하거나 비과학적이라고 매도하거나 적대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참다운 과학정신과 인연이 먼 태도라 해야 옳다.

오늘날 과학기술의 힘이 막강하고, 부분적이거나 과학기술 수준이 찬탄스러운 것이라 해도, 과학은 여전히 우리의 삶의 바탕과 이 세상과 우주의 근원적인 진리를 해명하는 데에는 너무나 미약하고 부적절한 수단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하물며, 기계론적 우주관과 선형적 진보사관에 의지하여 전개되어온 지난 수 세기의 근대과학기술의 성과는 이제 인류의 과멸까지도 배제하지 않는 지구생태계의 대 재난을 초래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해 온 것이 아닌가? 삶의 태반을 망가뜨리면서 그것을 진보와 발전이라고 믿어온 것은 실로 우매의 극치라 할 만하고, 완전한 미치광이 짓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과학과 기술에 대한 인간의 본질적 관계, 그리고 근대과학의 근본가정에 깔려 있는 폭력성에 대한 뿌리로부터의 철저한 반성 없이, 계속하여 더 많은 과학과 더 정교한 기술만을 구한다면 과멸은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보다 우리는 지금 닥친 위기가 민족단위로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인류사 전체의 경험으로서도 미증유의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하고, 그러니만큼 여기에 관한 한 어디에서 빌려올 수 있는 손쉬운 처방이 없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유례없는 위기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상적 측면에 대한 이러저러한 부분적, 임시적, 외면적 수습책으로는 절대로 극복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똑바로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날 우리의 생활공간에 빚어지고 있는 공해, 오염, 자연파괴의 문제는 우리의 일반적인 사회관계가 견디기 어려울 만큼의 적의와 긴장에 차있을 뿐더러 우리의 사회상황이 극심한 부패와 윤리적 타락으로 고통당하고 우리각자의 내면이 날로 피폐해져 가고 있는 상황에 정확히 대응한다고 할 수 있다. 자연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그러니까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 그리고 개인의 자기 자신에 대한관계의 문제와 근본적으로 일치하는 문제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치 경제의 문제이자 동시에 철학과 도덕과 종교의 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사람 사이의 불평등한 관계를 예의주목하고 그것을 혁파하는 일에 주력해 온 전통적으로 진보적인 사회사상은 그것이 사람에 의한 사람의 지배, 착취를 반대해 왔다는 점에서 존경 받아 마땅한 사상이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디까지나 인간중심의 관점에서 머무르고 있는 한, 특히 자연세계와의 조화가 중심 문제로 된 오늘날 그것은 크게 미흡한 사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무엇보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때때로 인간과 자연의 동시적인 해방에 관한 언급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맑스주의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삶을 생산과 소비의 측면에 제한하여 본다는 점에서는 부르주아 철학과 궤를 같이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역사를 수렵채취의 생활양식으로부터 산업적 생활방식에 이르는 직선적인 진화의 흐름으로 파악한다는 관점은 이 지구상에서 오랜 세월을 걸쳐 이어져온 인류생활의 최신의 전제가 반드시 바람직한 생활형태를 기록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로 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관점이다. 생산과 소비의 양적 증가는 도리어 인간생활을 비참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비극적인 경험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바로 오늘의 현실인 것이다.

전통적으로 산업화의 이데올로기로 봉사해 왔다고 할 수 있는 맑스주의에서 인간 속에 뿌리깊이 내재한 정신적 종교적 욕구가 흔히 등한시되어 온 것은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영국의 작가 로렌스는 볼셰비키 혁명 후 러시아의 민중이 빵을 고르게 먹는 것은 가능해졌으나 그 빵이 맛이 없어졌다고 말함으로써 인간 영혼의 근원적 요구를 외면하는 사상이나 사회운동에 대한 그 자신의 불신을 표명한

바 있지만,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하는 불가결한 차원의 하나가 초월에 대한 욕구라는 것은 아무래도 부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사람의 초월에 대한 욕망은 인간성에 깊이 내재하고 있는 충동인지도 모른다. 이것은 자연이나 우주적 연관에서 자신의 삶을 돌이켜봄으로써 획득되는 정신적 체험을 통해 비로소 충족될 수 있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윤리학에서 삶의 최고 형태를 명상하는 삶에서 찾았을 때, 이것은 일반적으로 고대인들이 품고 있었던 조화와 균형과 통일의 세계관을 요약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고대문화에서 흔히 그러했듯이, 사람의 명상할 수 있는 능력은 개인이 자기보다 더 큰 전체, 공동체나 자연이나 우주적 전체 속의 작은 일부로서 스스로의 존재를 느끼고 사색할 줄 아는 습관 속에서 길러지는 것일 것이다. 인간은 좁고, 미약하고, 일시적인 자기의 개인적인 삶의 테두리를 늘 보다 큰 지평 속에 관계시킴으로써 영속적인 거대한 우주적 생명활동에 스스로를 참여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고대사회에서나 토착전통사회에서나 혹은 이른바 미개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실현하는 방식이었다. 현대 산업사회의 핵심적인 비극은 이러한 의미에서의 인생의 의미를 완전히 몰각해 왔다는 점에 있다. 따지고 보면, 인류의 오랜 역사에서 삶의 우주적 연관이나 자연적 근거를 완전히 망각한 문화라는 것은 거의 낯선 것이었다고 할 수 있고, 사람의 에너지를 온통 소득과 소비의 경쟁 속에 쏟아 붓도록 강요하는 오늘의 지배적인 산업문화는 인류사에 극히 예외적인 생존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생태학적 위기로 요약되는 이 어처구니없기도 하고 끔찍스럽기도 한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결국 우리들 각자가 자기 개인보다 더 큰 존재를 습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문화를 회복하는 일일 것이다. 우리가 생명의 문화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문화의 재건은 우리 각자의 인간적인 자기채신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음이 분명하다.

따지고 보면, 현대 기술문명의 기저에는 정복적 인간의 교만심이 완강하게 버티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때문에, 자연의 도를 따르는 순리의 생활을 우습게 여기면서,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의 통제와 조종 속에 종속 시키려고 하는 야만적인 폭력이 끝없이 창궐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자연적 환경이든 인문적 환

경이든 나날이 지옥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와 우리들의 자식들이 살아남고, 살아남을 뿐 아니라 진실로 사람다운 삶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협동적인 공동체를 만들고, 상부상조의 사회관계를 회복하고, 하늘과 땅의 이치에 따르는 농업중심의 경제생활을 창조적으로 복구하는 것과 같은 생태학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조직하는 일밖에 다른 선택이 없다. 그러나 그러한 사회생활의 창조적 재조직이 가능하려면,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겸손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한 겸손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정신적 자질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보인다.

민들레 창간사

현병호

지금 젊은 부모들은 대부분 '필승' 세대에 속하는 사람들이지요. 오나 가나 '필승' 참고서를 끼고 살면서 인사를 할 때도 '필승'을 외치며 학창시절을 보냈던 세대. 그렇게 앞뒤 돌아보지 않고 달려서 가까스로 선착순 대열 어딘가에 끼어들었구요. 그러나 또다시 숨 가쁜 선착순은 시작되고... 그렇게 끝없이 뱅뱅이를 돌면서 학창시절을 다 보내고 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학부모가 되고 교사가 되어 자신이 뱅뱅이 돌던 그 운동장에서 또 우리 아이들을 돌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무엇을 위해 이렇게 숨 가쁘게 살아가는지... 아이들을 제대로 기르자고 그런 것이 아닌가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 일을 그저 학교라는 괴물에 맡기고서 스스로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애써 진실을 외면하려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는 동안 오늘도 수많은 아이들은 괴물의 밥이 되어 갑니다.

교육의 권리! 우리들은 이제까지 그 권리를 학교라는 거대한 괴물에게 저당잡히고서 해마다 자신의 귀한 아이들을 제물로 바쳐왔습니다. 그저 우리 자신의 안녕을 바라면서... 하지만 그 안녕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를 제물로 바치고서 어느 누가 안녕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과연 지금 그 누가 안녕합니까? 이제 그만 꿈에서 깨어납시다. 저 괴물에게 아이들을 바치기만 하면 우리 자신이, 우리의 마을이 안녕하리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아이들이 없는 마을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 괴물이 다름 아닌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괴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우리의 탐욕이 만들어낸 허깨비 괴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꿈을 꺾습니다. 어디선가 불칼을 든 영웅이 나타나 저 괴물을 무찔러주기를... 꿈에서 깨어납시다! 영웅은 결코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끔씩(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 앞에 나타나 녹슨 칼을 휘둘러보이는 저 영웅들 역시 허깨비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학교에 기대를 걸지 않으려고 합니다. 학교에 힘을 실어주지 않기. 그것이 또한 학교를 바꿀 수 있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교육은 곧 학교교육'이라는 관념에서 벗어나야 할 때라고 봅니다. 학교가 바뀌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만큼 우리는 학교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학교의 교육 독점을 막고 우리 자신들의 교육의 권리를 되찾고자 합니다. 그럼으로써 학교도 그에 맞는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민들레가 지향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기쁨 속에서 꽃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삶은 이 세상의 모든 존재와 더불어 기뻐하는 삶일 것입니다. 다른 존재를 불향하게 만들면서 자신의 참된 행복을 이룰 수는 없다는 진실을 깨닫고,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 속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또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서로가 서로를 복돋우면서 즐겁고 진지하게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마당을 만들어가려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육은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는 분이라면 함께 손을 잡읍시다. 삶과 분리된 의미 없는 지식과 정보는 우리 삶을 메마르게 할뿐임을 믿는 분이라면, 누구나 함께 손잡을 수 있습니다.

길은 어디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들이 곧 길인 것입니다. 이 길은 어디나 있고 모든 곳으로 통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잘 닦여져 열려 있는 그런 길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열어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자기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래서 삶을 꽃피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교육의 본질임을 잊지 않는 한, 우리는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진정한 교육을 시작할 때입니다. 아직 늦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지금'이 가장 빠른 때인 것입니다.

1998년 12월 5일

민들레 발행인 현병호

민들레, 이 꽃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기를

김희동

민들레

땅 속으로 곧게, 그리고 깊이 깊이 내린 뿌리와
땅 위에 바싹 붙어 땅을 억척스레 움켜쥔 그 톱니 잎들은
이 땅에 대한 사랑이다.
이렇게 땅을 사랑하는 풀을 본 적이 있는가
버려진 땅, 신음하는 땅을 끝까지 사랑하는 이 풀을 보라.
남들 픽픽거리며 돌아보지 않는 흙덩이 조그맣게 드러난 틈에도
이 사랑 밖에 모르는 풀은 뿌리를 내린다
'강아지똥', 그 업신여김 받아온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버림받은 것들의 아낌없는 사랑을 받아 싹을 틔운다

민들레

약한 듯 살며시 휘어 뺨어 꽃봉오리를 받치는 줄기는
땅에만 머물지 말고 꿈을 가지자는 꽃에게는
더할 수 없는 믿음이다.
얼마나 솔직한 줄기인가.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며
비록 약하나 굴하지 않고 꿈을 피우려 한다.

꽃은 다만 이 줄기만을 믿을 뿐이다
줄기는 결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며
꽃 또한 그 소망을 모른 채 하지 않는다.

민들레

그래서 해같이 노랗고 꿈같이 환한 꽃이 피는 것이다.
뿌리가 땅을 부둥켜안으며 젖을 빨아올리고
약하나 결코 꺾이지 않는 줄기가
꿈을 향한 믿음 다한 헌신을 바치기에
이 소망의 빛깔이 그토록 진하게 피는 것이다.
하늘을 향한 소망,
저토록 푸른 평등과 끝없이 열린 자유,
그리고 별빛같이 숭고한 존귀를
꿈꾸는 것이다.
보잘 것 없는 땅에서
이 안타까움과 한스러움의 땅에서
이토록 고운 꽃이 피어나니
그래서 모든 땅의 소망은 꽃이다.

민들레

하지만 더욱 놀랄 일은 뒤에 일어난다.
꽃이 지고 줄기 넘어져
우리의 소망이 사라지고 삶의 어깨가 처져
다들 돌아서 깊은 한숨 쉴 때에
소리 없이 기적이 일어난다.
쓰러졌던 줄기 일어나며 시들은 꽃잎들 다 풀어헤치고
더 없이 순수하고 평화로운 홀씨덩이가 일어난다.
부활! 죽음을 딛고 일어서는 빛나는 삶에 대한 열정.
있는 그대로 우주의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니
우리가 어찌 절망할 수 있단 말인가
이 꽃 앞에서, 이 우주의 진리 앞에서.

민들레

꿈은 제자리에 머물기를, 현실에 묶여 있지 않는다.
'지금 여기'에서 이 얼룩진 땅을 사랑하면서도
결코 지금 여기에 붙박히지 않는다.
모든 것 다 바친 줄기는 무엇을 얻고자함이 아니었기에
망설임 하나 없이 아름다운 흙씨들을 훌훌 날려보낸다.
가진 모든 것 가볍게 떨치고 자유와 평등과 존귀의 세계로
흙씨들은 오르고 오르며, 날고 또 난다.
그렇게 하늘 높이 올라 이 땅을 바라본다.
지금껏 이 땅 어디에 자리 잡고 있었는지
이제 다시 어디에 뿌리를 내려 새로운 꿈을 피울지
흙씨는 안다. 민들레는 안다.

민들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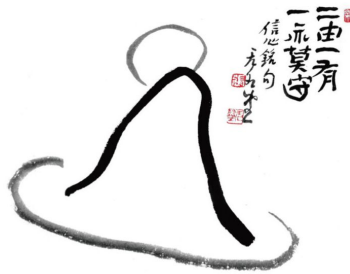
아아, 그리고 진정 놀라운 일은 정녕 그 다음에 일어난다.
하늘 높이 날아 오른 흙씨들이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버림받고 보잘 것 없다 여김 받은 곳이면 어디든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모든 것 아낌없이 바치는 믿음의 줄기를 올리고
평등과 자유, 존귀를 향한 노랑디 노란 소망의 꽃을 피우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땅의 오랜 절망의 역사를 딛고
부활의 흙씨덩이를 일으키는 것이다.
그것이 그토록 짓밟히고 천히 여김 받아도
끝까지 피고 피고 피고 피고 또 피는 까닭이다.

민들레

스스로 자라 온 땅을 사랑하는 이 여리나 강한 꽃.
간힘을 넘어 죽임을 넘어 참되지 않음을 넘어
서로를 살리는 진리의 길 위로 끝없이 피는 꽃.
민들레 민들레 민들레

이 꽃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기를.

생명담론 관련 주요 문헌



생명의 세계관 확립과 협동적 생존의 확장¹²⁾

원주사람들

1. 개요

죽음의 먹구름이 온 세계를 뒤덮고 있다. 수많은 재래식 무기 뿐만이 아니라 핵병기, 생물학, 화학무기, 레이저 광선, 무장 우주선이 온 지구상의 생명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 인류를 비롯한 전 생명계는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비명횡사의 가능성에 떨고 있다. 현재 그들은 삶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 아니라 급속한 죽음과 완만한 죽음 사이의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대다수의 인류들에게는 실로 두 가지 길 밖에 남아 있지 않은 듯하다. 억압과 착취 속에서 일하고 굶주리고 병들어 천천히 죽어 가느냐, 증오와 갈등과 의혹과 좌절과 원한과 불신 속에서 서로 팽팽히 맞서다 어느 날 불시에 죽어 가느냐, 또는 가스, 중금속, 일산화탄소, 유황, 유기수은을 먹고 마시고 숨 쉬다 죽느냐, 집단학살, 폭동, 혁명, 전쟁판에서 죽느냐.

산업재해, 식량위기, 화학비료 남용에 따르는 토지 생산력의 감퇴, 농촌과 도시

12) 이 문서는 1980년 그동안 원주캠프에서 진행되었던 두 가지 사회운동(민주화운동과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성찰의 결과로 작성되었다. 1980년 9월경 김지하 시인에 의해 초고가 마련되었으며 무위당 장일순 선생을 비롯하여 원주캠프의 활동가들이 모두 읽고 토론하며 수정가필하여 1981년 상반기에 완성된 문서이다. 이 문서로부터 구체적 실천지점에 대한 토의와 연수가 시작되었다. 81년 82년 83년 84년까지 이어진 일본 및 유럽, 대만 등지의 사회운동 연수도 이 문서가 시발점이 되었다. 또한 1985년 원주소비자협동조합(현 원주한살림생협)의 창립과 86년 한살림농산의 설립으로 이어지는 운동론적 근거가 되는 문서이다. 이 글은 이후 1984년 김지하 시인에 의해 주요내용이 재정리되어 산문집 [남녘땅땀노래(두레출판사)]에 '삶의 새로운 이해와 협동적 삶의 실천'이란 제목으로 수록되었다.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문화적 격차, 교역불균형, 자원고갈, 노동소외¹³⁾, 매스미디어를 통한 대중 조작과 기만, 물신숭배¹⁴⁾, 군비경쟁과 대량살상 무기개발, 정치적 탄압과 고문, 선진 자본주의의 제국주의화 및 신식민주의화-이들은 모두 생명 대신에 죽음이 우리의 삶의 질서로 들어서고 있음을 증언한다.

뿌리 뽑힌 민중적 삶, 인간성의 상실, 폭력숭배, 소비숭배, 가학, 피학증세의 보편화, 인간 및 범생명의 물질화¹⁵⁾, 테러리즘, 복수의 악순환, 이러한 집단적 정신 분열의 현상은 죽음의 옆얼굴이다. 이렇듯, 빈부의 격차에서부터 생태계의 파괴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지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부조리한 현상의 내부를 꿰뚫어 흐르고 있는 것은 생명경시, 생명파괴, 반생명의 악마적 경향이다. 이에 대응하여 역시 전 세계적인 범위에서 그리고 전 사회적 규모에서 생명회복과 생명의 본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요청되고 있으며, 생명을 일체의 가치관, 인생관, 사회관, 역사관, 세계관, 우주관의 중심으로 파악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기존의 모든 문화, 과학, 기술의 성과들을 창조적으로 통합할 것과 협동적 삶의 확장에 의한 개인 및 사회적 생명의 진정한 부활, 해방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면 생명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빛이요(요한1장5절), 말씀이요(요한1장4절), 진리요, 길이요(14장 6-7절), 썩는 밀알이요(12장 24-26), 사랑이다.

많은 측면에서 20세기는 역사의 밤에 견주어질 수 있다. 밤은 그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한 치의 앞도 내다보지 못하게 한다. 그것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우리의 발길을 멈추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목표를 밖에 둘 수 없게 하고 우리를 고립시키고, 우리를 잠들게 한다. 밤은 죽음의 세계이고 따라서 물질적인 질서가 유일한 질서가 되는 세계이다. 밤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물질로 환원된다. 가장 확실한 것은 촉각에 닿는 것이요, 소유될 수 있는 것이며, 자신의 피부에 직접적으로 와 닿는 것이다. 밤의 어둠 속에서 개인은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격리되어 있다. 그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모두 그의 존재에 대한 위협의 대

13) 노동소외 : 노동하지 않는 인간은 자기 삶을 꾸려나갈 수 없다. 따라서 노동의 인간의 삶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노동을 상품으로 취급하여 화폐를 대가로 교환하는데, 그 과정에서 노동이 그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할 경우 노동에 대한 천시가 일어난다. 가장 존경 받아야 할 노동이 가장 열등한 대우를 받는 상태가 노동의 소외이다.

14) 물신숭배 : 인간의 삶의 수단이 되는 돈, 상품, 학식, 명예, 권력들을 인간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태도를 가리킨다.

15) 인간 및 범생명의 물질화 : 인간이나 동물, 식물, 자연 등 그 자체의 생명으로 움직이는 모든 유기체를 인간의 이기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파악하여 그 자체의 이용가치만으로 평가, 교환하는 상태이다.

상으로 여겨진다. 어디로 발걸음을 내디디어도 확실하지 않다. 따라서 밤은 단절의 영역이다. 이 극한적인 단절의 영역에서 이성온 잠들고자 하는 욕망으로 대치된다. 개인들은 모두 그의 시선을 내면으로 집중한다. 그 어두운 무의식의 심층에서만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한다. 그는 내면의 기괴한 그림자놀이에서 빠져 나중에는 외계와의 유일한 통로인 그의 촉각과 청각마저 버리게 된다. 그리하여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잠에 빠져든다. 그것은 악몽으로 누벼지는 고문 같은 잠 일뿐, 생명의 기운을 모으고 축적시키는 숙면이 아니다. 그러나 밤의 어둠 속에서는 말로 의식은 그 어느 때보다 성성히 깨어 있어야 한다. 20세기의 밤은 잠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다. 만일에 이 밤의 성격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으면, 인류 그리고 지구상의 생명 전체는 영원한 죽음의 잠속에서 깨어나지 못하게 되고 말 우려가 있다. 밤에는 밤의 행동양식이 있다. 이제까지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여겨졌던 것, 내부로 돌려진 시선, 촉각을 통한 세계 이해, 청각을 통한 외계의 인식 등은 평소의 상황에서는 모두 극복되어야 할 것이나 밤의 행동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생명의 고유한 기능은 자기 집중성에 있다. 모든 생명은 종마다 다른 형태를 띠는데, 그것은 바로 생명의 자기 집중의 양상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시각을 상실함으로써, 외부의 표적을 잃어버림으로써 인간은 비로소 스스로의 상황에 대한 재인식의 필요를 느끼게 된다. 이제 그를 이끌어갈 것은 그의 내부의 소리이다. 또 어떤 것도 확실하지 않으므로, 그는 모든 것을 피부로 느끼고, 겪고, 확인해야 한다. 이 시대에 있어 육체성의 중요함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말의 기능에 새로이 주목하게 된다. 시각적 보조물이 완전히 없어진 상황에서 말은 어떻게 해야만 올바른 의사소통의 수단이 되는가? 공동의 체험이 빠진 상황에서, 공동의 지표가 없는 상황에서 너와 내가 한마디 말로 각각 다른 것을 지시하지 않고 꼭 같은 것을 지시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가? 말은 어둠 속에서 그 원초의 상태로 되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곧 그것은 모든 생명체를 생명체에게 한 기본법칙에 이르러야 한다. 이러한 원형의 획득은 깊은 내성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둠 속에서 신에게 이를 수 있는 길, 말씀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영혼의 내부를 관통하는 길 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시각적 보조물이 없이 영혼에서 영혼으로 생명에서 생명으로 전달되는 메시지를 해독하는 방법을 새로 익혀야 한다.

‘한 처음’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 길은 동시에 빛으로 돌아가는 길이기도 하다. 그러나 돌아가서 원형에 이르는 것으로만은 부족하다. 기본적으로 말씀은 너

와 나의 의사소통의 수단이다. 의사소통을 통해서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다. 따라서 그것은 입 밖으로 나와야 한다. 그것을 통해서 세계는 밝혀지고 바뀌어야 한다. 말씀이 진리로서, 길로서, 상대방에게 전달되려면, 그것은 내성을 통한 사변의 단계를 넘어서야 한다. 그것은 동시에 구체적인 현실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한다. 어둠 속에 고립되어 있는 사람에게 구체적인 현실은 촉각을 통해서만 주어진다. 따라서 그는 촉각을 최대한으로 이용해서 자기가 놓여있는 상황을 진단해야 한다. 촉각이 가장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우리가 엎드려 포복할 때이다. 우리는 ‘엎드리고’ ‘기어감으로써’ 곧 우리를 낮추고, 우리를 밀바닥 현실과 밀착시킴으로써 비로소 구체적 현실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어둠은 적과 아군을 구별하지 못하게 한다. 우리가 맞고 있는 이 밤의 세계는 빛이 생기기 전의 세계의 상황과 같기 때문에 전선이 나뉘어 있지 않다. 모든 것은 뒤섞여 있고 전방과 후방의 구별이 없다. 나는 일차적으로 잠재적인 적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이다. 나는 원자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나 밖의 어떤 것도 믿을 수 없으며, 이 세계는 나의 존재를 위협하는 거대한 물신의 형상으로 나에게 압도해 온다. 나는 내 숨길마저 외계와 맞닿는 내 살갓마저 나를 적에게 밀고하는 배신자가 될지 모른다는 극한의 불신 속에서 전전긍긍한다. 그리하여 나는 한자리에 얼어붙어 화석이 된다. 이것이 밤의 어둠 속에서 생명이 물질화되는 과정이다. 그러나 잠든 자, 물질로 바뀐 자에게는 새벽은 영원히 찾아오지 않는다. 빛은 갯 자의 몫이다. 밤은 한가운데에서 우리의 의식은 결정적으로 깨어나야 한다. 갯 의식이 어둠 속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밤을 물리치고 생명을 앞당기는 데로 기우려 져야 한다. 곧 그의 모든 행위는 생명을 부활시키는 활동이어야 하고 진리의 구현이라야 하고 빛이어야 한다. 이러한 행위가 어떻게 가능한가? 우선 그는 이 밤이 잠정적이고, 그 안에서 가사 상태에 있는 모든 생명은 부활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형식 논리적인 이분법에 속아서는 안 된다. 낮과 밤을 같은 힘을 지닌 실체로 보는 흑백논리, 어둠의 세력을 빛의 세력보다 더 압도적인 것으로 보는 자기패배의 논리는 철저한 반성과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밤은 모든 것을 숨김으로써, 그들을 모두 자기편으로 삼았다고 여긴다. 그리고 밤의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의 시선에는 과연 모두가 어둠의 편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어둠은 빛을 이겨내지 못한다. 빛은 어둠에 둘러싸여 있으나, 빛은 어둠에게 저본 적이 없다.(요한1장5절) 빛은 충만이고, 어둠은 결핍이기 때문이다. 어둠의 세력은 사실은 소수이다. 그들은 우리의 공포를 통해서 자신의 크기

를 과장할 뿐이다. 우리가 어둠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생명의 기능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서 주어진다. 생명은 고립을 거부한다. 생명은 일원성, 통일성, 역동성, 전일체성, 협동성, 확장성, 유연성, 지속성, 친화성, 주체성, 다양성과 저항성을 그 본질로 삼고 있다.¹⁶⁾ 생명은 그것이 운동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이원적인 분리를 인정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요, 하나로 뭉친다. 우리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손과 발, 입과 귀, 정신과 육체, 너와 나, 생물과 무생물, 음과 양 같은 차별상이지만, 이러한 차별상의 밑을 꿰뚫고 흐르는 것은 끊임없이 역동하는 생명 그 자체이다.

다양하게 변화하면서 지속하고, 지속하면서 변화하는 생명에는 잠정적인 위상이 있고 그 위상에는 저마다의 주체가 있다. 그러나 이 저마다의 주체는 고립된 것이 아니다. 생명이 물질을 매개로 해서 시간 속에 지속되고 공간 속에 확장된다는 것을 우리는 종의 보존과 삶의 사회적 통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어둠이 빛과 맞서는 자체적 존재가 아니고 빛의 결립이듯이 물질도 자체적인 존재가 아니고 생명의 잠든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고립되어 잠든 생명은 물질의 모습을 띤다. 생명은 실체화된 물질과 물질의 벽에 막혀 원자적으로 고립된 폐쇄된 계(系)인 것처럼 보인다.¹⁷⁾ 그러나 바위 끝에 뿌리내린 한포기의 풀이 그에게

16) 생명은 일원성, 통일성, 역동성, 전일체성, 협동성, 확장성, 유연성, 지속성, 친화성, 주체성, 다양성과 저항성을 그 본질로 삼고 있다 : 생명은 하나이신 하느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며(일원성) 물질과는 달리 여러 가지 기능이 유기적으로 한데 합쳐져 있으며(통일성), 끊임없이 목적과 방향을 지닌 운동 속에서 있으며(역동성), 궁극적으로는 생명의 고리들은 모두 다른 생명의 고리들과 이어져 있으며(전일체성), 식물은 동물에, 동물은 식물에 기대어 살아가듯이 모든 생명이 다른 생명들과 서로 도우며 살고 있으며(협동성), 끊임없이 물질의 저항을 이겨내며 자신의 영역을 넓혀가며(확장성), 외부의 상황의 변화에 따라 자신의 기능과 구조를 조절할 수 있으며(유연성), 개체들을 고리로 삼아 과거에서 미래로 연속되며(지속성), 생명들 사이에는 종과 류가 달라도 영성적 교류가 가능하며(친화성), 일정한 종으로서, 개체로서 스스로의 운명에 책임을 지며(주체성), 상황이 다름에 따라 거기에 맞춰 스스로의 기능을 새로운 구조로 변형시키고(다양성) 이러한 생명의 본성적인 여러 활동을 파괴, 억압, 약탈하는 반생명적 장애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반복적, 확장적으로 저항, 극복하는(저항성), 능동적인 힘을 지니고 있다.

17) 생명은 실체화된 물질과 물질의 벽에 갇혀 원자적으로 고립된 폐쇄된 계(系)인 것처럼 보인다 : 본디 물질은 자체 구조를 지니지 못한 것이므로 일정한 형태를 지니지 못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물질의 기본적 특질이 물질의 형태를 마음대로 바꾸어서 생명활동의 보조물로 쓰는 기술의 발달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인간은 물질세계를 인간의 생명활동이 거기에 부여한 형태 이상의 자체성을 지닌 고유한 세계로 잘못 인식하기 쉽다. 여기에서 다양한 생명활동에 대한 경이 대신에 그 결과로 빚어진 물질의 형상들에 대한 우상화가 생긴다. 이러한 물질적 형상들이 궁극적으로는 생명활동의 피조물임이 인식되면, 물질들의 벽에 갇힌 듯이 여겨지는 생명은 사실은 하나로 연속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직접적으로 주어진 모든 것, 햇빛과 대기와 물을 자기편으로 이끌어 들여 돌로 얼어붙은 생명력을 되살려내어 스스로를 키워나가는 데에서 볼 수 있듯이 물질은 자기 동일성을 지니고 있지 못하고 궁극적으로는 생명에 의해서 극복되고 지양되는 주변적 생명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밤의 죽음이 낮이듯이 물질의 죽음은 생명이다. 이렇게 볼 때 물질은 죽음의 원리에 바탕을 둔 반생명 현상이다. 삶은 죽음의 죽음으로써의 죽음의 극복이기 때문이다. 바위로 응결된 물질의 힘은 스스로의 자기 동일성을 상실함으로써 삶의 질서 속으로 들어오고 활성화된다. 생명의 원리란 바로 이런 것이다. 그것은 그것이 접촉하는 모든 것을 이용하고 되살려낸다. 그런데 생명의 기본적 특색은 자율성이며 모든 기계적 법칙을 벗어나고 극복하고자 하는 자유 의지이다. 생명 진화의 역사는 따라서 자율성 확장의 역사이며, 자유 확대의 역사이다. 남이 내 앞을 가로 막고 있으면 내 자율성은 침해 받으며, 내 자유는 그만큼 한정된다. 그러기 때문에 자율성과 자유는 남을 남으로 남겨두지 않는다. 그것은 남을 자기 속에 흡수하고 스스로 남에게 동화된다. 생명은 이처럼 전일체성을 지향함으로써 자신을 해방시키고 궁극적으로 평등에, 충만에, 빛의 영역에 이르게 된다. 밤의 세계에서 벗어나고 어둠을 극복할 당면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에게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끝없이 지속 변화하며 자신을 확장시키는 이 생명을 어떻게 볼 것이냐이다. 근본적으로 일원적, 통일적인 것으로 보고 통일적인 전일체적인 생명 운동 속에서 분리를 보느냐, 아니면 분리 그 자체를 근원적인 것, 이원적인 세계의 자체 구조로 보느냐, 만일에 우리가 이원적인 세계구조를 인정할 경우, 빛의 영역과 어둠의 영역은 절대적인 대립 모순관계에 서게 된다. 그리고 생명 보존과 확장의 노력은 명백한 한계를 갖게 된다. 생명의 한계에는 죽음이, 생명과는 엄연히 구별되는 적대 세력이, 생명을 끊임없이 노리며 대치하게 된다. 과연 오늘의 우리 상황을 이 양국의 팽팽한 대치 상황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아니다. 양국의 팽팽한 대치 상황에서는 어떤 운동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생명현상 그 자체는 운동이다. 끊임없는 자기 극복과 자유 확장의 노력이다. 그 노력이 끝나는 순간 생명은 이미 물질화 하게 된다.

분명히 오늘의 상황은 위기이다. 인류가 맞고 있는 최대의 위기이자 지구상의 생명계 전체가 맞고 있는 총체적인 위기이다. 그러나 위기는 긍정과 부정을 그 안에 동시에 포함한 가능성이다.¹⁸⁾ 가능성이므로 그것은 생명의 승리로 끝날 수

18) 위기는 긍정과 부정을 그 안에 동시에 포함한 가능성이다 : 위기라는 말에는 아직도 결말나지 않은 상태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서양말인 crisis에도 역시 같은 뜻이 들어 있다. 이

도 있으며 죽음의 승리로 끝날 수도 있다. 죽음의 질서에 종사하는 독점자본주의자들, 제국주의자들, 사회제국주의자들, 신식민주의자들, 사회주의 파시스트들, 무기상인들, 관료주의자들, 정상배들, 매판자본가들, 극좌, 극우 모험주의자들, 기회주의자들, 독재자들, 왕조 공산주의자들, 국수주의자들, 분파주의자들, 부정과 악덕에 눈감는 종교인들, 도구화 된 이성을 섬기는 지식인들 - 이들은 어둠 속에서 인류의 멸망, 생태계의 파괴, 생명의 종식을 노리는 악마적 경향의 대변자들이다. 그들은 역사에 어두운 밤의 장막을 내리고 이성과 생명의 빛을 차단함으로써 죽음의 승리를 확보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들의 목적은 자기모순이므로 필연적으로 실패로 끝나게 된다. 그들은 그들이 섬기는 물신이 생명의 왜곡된 형태임을 간과하고 절대적인 것으로 본다. 어둠속에서 스스로를 고립된 것으로 파악하고 공포에 사로잡혀 있던 개개의 생명체가 자신을 거대한 생명의 흐름의 한 위상에서 연결된 범생명의 한 고리로서 파악하고, 포복을 통해서 파악한 밑바닥의 실정을, 생명의 실정을 감연히 이웃에 있는 또 하나의 고리에 알리게 될 때, 그리하여 처음에는 어두운 밤을 찢는 목 졸린 외침의 형태를 띠지만, 차츰 조용한 속삭임으로, 여기저기의 수군거림으로, 너와 나의 웅성거림으로, 마침내 집단적인 함성으로 울려 퍼질 때, 밤의 지배는 처음에는 완강히 버티는 듯하지만, 결국은 천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다.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생명은 개체를 초월한다. 기독교의 역사는 억압과 착취와 물신에 대한 저항과 순교로부터 시작한다. 순교는 강요된 죽음의 허구성을 폭로하는 생명활동의 극치이다. 육신에서 해방된 생명의 힘은 찬란한 빛이 되어 어둠에 갇혀 있던 이웃의 의식을 깨어나게 하고, 억압자의 수중에서 억압의 효율성을 박탈한다. 순교자는 순교를 통하여 억압자를 과대평가하고 있던 민중들에게 억압자의 실체를 재인식시킨다. 그들은 어둠을 이용하여 자기들을 고립시키고, 자기들을 포위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졌던 적의 정체가 정면으로 맞서는 순간 갑자기 거꾸로 고립되어 있으며 자기들에 의하여 포위당해 있는 소수의 왜곡된 생명현상임을 발견하게 된다. 그들은 이미 더 이상 밤을 무서워하지 않게 된다. 밤은 이제 가능한 낮이다.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어둠 속에는 적들이 숨어서 그들의 가슴에 총구를 겨누고 있으나, 더 많은 동지

crisis라는 말은 본디 그리스 말로서 “가르다”, “관가름한다”, “선택한다”, “결단한다”라는 뜻을 지닌 동사에서 나온 명사이다. 위기는 따라서 살판과 죽을판을 가름하는 분기점이라 할 수 있다.

들이 그들을 감싸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들은 이제부터 두려워하지 않고 말을 하게 된다. 그가 말을 거는 상대는 물론 적일수도 있다. 그러나 동지일 가능성이 더 많다. 아니, 이제 그는 그가 말을 거는 대상이 적이든 동지든 크게 패념하지 않는다. 그가 패념하는 것은 그의 말이 진리인가 아닌가 뿐이다. 생명은 어둠 속에서도 협동적 삶을 지향하고, 바로 그 때문에 어둠속에서 우리의 귀는 더 크게 열리는 것이다. 생명이 곧 말씀이요 진리라 함은 생명이 지향하는 보편성이 추상적으로, 연역적으로 도출된 절대적이고 시공을 초월한 형상적인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나와 나의 삶의 경험이 얹히고설키는 가운데 짜여지는 역동적인 운동으로서 귀납적으로 얻어지는 것임을 뜻한다. 이처럼 말씀은 곧 생명의 근거이기 때문에 개체의 삶의 문제 해결은 공동의 삶의 문제 해결을 전제로 하고, 공동의 삶의 문제 해결은 필연적으로 생명 전체 문제의 해결을 함축한다. 말씀은 곧 대화이며, 그것은 나와 나의 영성적 만남이다. 개체는 대화를 통하여 공동의 삶에 관여함으로써 비로소 생명을 유지하게 된다. 우리는 말씀에 참여함으로써 개체적 생존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본질에 접근한다. 보편적 진리의 지평에 이르고자 하는 열망, 범생명체의 참여가 없이는 나의 개체적 삶은 불가능하다는 각성 속에서, 대화를 통한 공동문제의 해결이라는 협동적 삶을 지향하는 모든 개체는 이리하여 하나의 생명현상의 역동적이고 다양한 국면이 된다. 대화는 참이 참임을 거짓이 거짓임을 밝히는 작업일 경우에만 가치가 있다. 대화는 숨기는 수단이 아니고 드러내는 수단이다. 대화는 밤을 낮으로 전환시키는 생명의 본질적 기능이다. 대화 속에서는 이성과 감정, 사유와 믿음이 하나로 통합된다. 직감이 따르지 않는 이성도 도구화되기 쉬우며, 믿음이 뒷받침 되지 않은 사유는 왜곡되기 쉽다. 대화의 주체들 사이에 자유, 평등, 우애, 관용의 정신이 없이 대화가 지속될 수 없으며, 화제에 대한 동일한 관심이 없이 대화가 이루어 질 수 없으며, 한 문제에 대한 의견의 일치가 없이 대화가 다른 문제로 옮겨갈 수 없으며, 협동을 통한 공동문제의 해결이 없이 대화가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없다. 이처럼 대화는 작게는 인간과 인간을 맺어주는 생명의 유대이고 크게는 범 생명을 연결하는 인 기능으로써의 말씀이다.

“목숨을 지키기 위하여 폭탄과 무기를 만들어야 하고, 자식을 올바르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아비가 불의와 부정을 저지를 수밖에 없고, 쓸모없는 새것을 생산하기 위해서 요긴한 옛것을 파괴해야 하고, 원조와 자선을 베풀기 위해 먼저 착취해야 하고, 더 튼튼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오염된 음식을 먹고 마셔야 하고, 불

확실한 미래의 복지와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확실한 현재의 복지와 건강과 안전을 포기해야 하고 더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더 기계화된 세계를 만들어야 하고...” 지금 이곳의 삶을 집약하는 표현은 모두 이처럼 이율배반적인 모순의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모순은 범생명이 하나의 말씀의 마당에서 진리의 빛을 받으며 대화를 통해 협동적인 삶을 모색하는 대신에, 물질의 질서에 종속된 자신의 고립된 정체를 진정한 생명 현상으로 오인하고, 타인의 죽음을 자신의 생명의 확장으로 잘못 파악 하는 데에서 생긴다. 그것이 비록 한 낱의 이름 없는 잡초라 할지라도 생명체는 신적인 것이고, 빛의 영역에 속해있는 진리의 구현물이다. 그런 뜻에서 잡초의 절멸은 생명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하나의 고리를 없애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생명계 전체의 재난으로 귀결된다. 하물며 생명의 가장 진화된 형태인 동료 인류의 생명을 해치는 대가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려는 요소론적인, 정태적인 반생명적인 세계인식 태도¹⁹⁾야 말해 무엇 하랴. 이제 죽음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 시대의 뒤뜰어진 삶을 꾸려가는 데에 빠질 수 없는 수단이자 동료로 등장한 것이다. 사람에게 가장 불행한 사태는 스스로 죽고 싶지 않을 때, 자기의 생명을 보람 있게 꽃피우고 싶을 때, 자기의 소망과 의지에는 상관없이 억눌리고 죽음을 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형태의 삶을 거부한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오직 한가지뿐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몫을 우리의 능력대로 가꾸어서 굳게 닫힌 천국의 문이 열리도록 커다란 소망의 불꽃으로 키우려는 것뿐이다. 우리는 우리의 귀중한 생명이 가난과 억눌림 속에서 시들고 짓밟히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우리는 이웃의 생명이 우리의 무관심 속에서 싸늘하게 식어 증오의 덩어리로 응어리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우리는 본래 하나의 유기적 생명체인 우리 민족이 허리를 절단당한 채 단말마의 고통 속에서 잘려진 토막끼리 서로 할퀴고 물어뜯고 자멸적으로 찢어 가르는 피바다의 지옥을 바라지 않는다. 민족들 사이의 일체의 멸시, 차별, 불신, 증오와 착취, 억압, 세뇌, 병탄, 학살, 보복, 전쟁의 악순환을 바라지 않으며 그로 인한 민족들 전체의 상호 멸망을 바라지 않는다.

스스로 신령한 생명체이며 우리 인류에게 먹이를 제공해 주는 동료 생명인 미

19) 요소론적인, 정태적인, 반생명적인 세계인식 태도 : 세계는 불변하는 원자적 단위들의 이합집산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이 단위들 자체는 고정되어 그 안에 어떤 운동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오로지 자신의 생명만을 유지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부차적인 것으로 밖에는 보지 않으려는 태도이다. 이러한 태도를 지닌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물질화함으로써 스스로의 생명도 물질화 된다는 것을 모른다.

생물, 풀, 벌레, 새와 물고기와 짐승과 숲들과 산맥들이 확대당하고 약탈, 파괴, 멸종당하고 죽고 썩어서 부패오염물질로 비참하게 전락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며 또한 전락 그 자체가 이미 인류생명의 부패, 오염, 죽음이므로 이를 바라지 않는다. 스스로 신령한 생명체이며 우리 인류와 모든 중생의 삶의 터전이요, 어머니인 물과 토지와 공기, 그리고 대기 전체와 태양과 달과 별들과 우주전체의 파멸을 바라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인간 자신과 삼라만상 안에서 쉴 새 없이 활동하고 있는 신령한 생명 그 자체의 어떠한 형태의 파괴도 바라지 않는다. 생명은 알파요 오메가다. 그것 말고 다른 것은 없다. 재난에 부딪친 생명의 창조적 부활을 위해 생명파괴와 죽음의 실상에 정확한 진단을 내려야 한다. 생명파괴의 역사는 이미 오래 전에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전면화의 절정에 달한 것은 20세기다. 우리는 여기에서 20세기에 절정에 달한 생명파괴의 역사가 현대사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를 밟아 진행되었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파시즘과 민주주의의 대결이라는 외관을 띠고 있었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세계는 역사상 유래 없는 평화의 시대로 들어서는 듯 했다. 자유의 적들은 민주연합 세력의 단결과 선진된 과학의 힘 앞에 무릎을 꿇었으며, 식민지에서는 민족해방 운동이 불붙기 시작했다. 자본주의는 다가올 시대에 더 많은 분배와 정의를 약속하고 공산주의는 평등하고 계급 없는 사회의 실현을 선언했다. 진정한 평화는 강대국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러 민족의 자율과 평등을 바탕으로 한 유대 위에서만 실현될 수 있으며, 사회정의와 복지는 권력자의 자선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민과 민중의 각성에 의해서만 현실에 뿌리 내릴 수 있다는 생각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자본과 무기와 기술은 원조와 협력이라는 이름으로 선진국에서 이른바 개발도상국으로 엄청나게 이동하고, 선진사회를 풍요롭게 한 부와 이념이 후진 사회도 살찌게 할 수 있다는 낙관이 온 세계를 부풀게 했다. 그러나 4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눈앞에 전개된 사태는 예측과는 엄청나게 다른 것이었다. 우선 민주와 자유와 평등과 정의를 표방했던 선진 사회의 위선적인 태도가 표면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20세기 초까지 미국과 유럽을 지배했던 독점 자본주의는 부의 지나친 집중으로 말미암아 계층 사이의 이익대립을 양극화 시키고, 세계를 국가 간의 제국주의적 이익대립의 난장판으로 바꾸고, 거대한 신식민지 체제를 재편성하면서 세계 인구의 대다수를 노예상태로 전락시켰다. 과학, 기술, 학문, 교육의 발달로 해방에 대한 전망과 가능성이 극도로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가능성이 소수의 계층과 민족의 손에 높이게 됨으로써 전쟁과

공황과 불신은 이제 일상적인 삶의 환경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렇듯 파탄에 빠진 사회와 국가를 재정비하기 위해 선진 자본주의 진영에서는 수정자본주의가 대두하여, 국가가 사이에 들어 계층 간의 타협을 주선하였으며, 뒤떨어진 자본주의 국가들 안에서는 공산주의와 파시즘이 뿌리를 내렸다. 공산주의는 타락한 봉건, 식민잔재와 무능하고 부패한 자본가의 일소를 기치로 세우고, 파시즘은 독재자 한사람의 영도 아래 국가 이익을 국경 밖에서 건져내려는 목적으로 사회를 유기체적 기능 집단으로 재편성 하였다. 격렬한 투쟁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손잡고 싸웠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사이의 모순은 완전한 정산을 보지 못했다. 이 전쟁 중에 성립된 전시 체제는 양상을 달리하여 냉전체제로 개편되고, 파시즘과의 투쟁과정에서 국민총력전의 형태로 굳어진 국가의 기본 골격은 전후에도 그대로 존속되어 민중은 자신의 양심과 이익에 관계없이 군부, 관료, 자본가의 연합세력이 주도하는 이 총력체제에서 병사와 군수 노동자와 저임 생필품 생산자로 동원 되었다. 구식민체제에서 형식상의 독립을 얻은 신생국가들은 민족적 차원의 자주적 발전 양식을 모색할 틈도 없이 이 냉전체제의 뒤편에 걸려들었다. 냉전체제 하의 평화는 군사력의 균형 위에서 유지되는 것이어서 평화의 고유한 요소인 안정성과 확실성을 지니고 있지 못하며, 이에 따라 세계의 북쪽인 동서양 블록, 즉 강대국의 이해 대립이 당사자들 간의 직접적인 전쟁 행태로 나타나는 대신에 지구를 몇 번이나 황폐시키고 남을 핵무기 및 재래식 군비의 끊임없는 확산, 대리전쟁, 국지전쟁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신생독립국은 그들의 후진성 탈피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강대국의 자원과 기술에 의존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냉전체제에 자연스럽게 편입되어 정치적, 경제적 위성국으로 전락하게 되며, 이에 따라 구식민잔재 세력은 강대국의 비호 아래 고스란히 온존하여 독립국가의 사회적 기강을 어지럽히고 경제적으로는 매판세력으로 나타나 신생국가에서 가장 강력한 조직인 군부와 결탁, 후진국 파시즘을 정착시킨다. 정통성이 없는 식민지 잔재 세력의 존재는 개발도상국의 건전한 국가발전을 해치는 가장 큰 장애요인이다. 이들은 정통성의 확립에 협력하기보다 식민지 체제의 유산인 탄압, 고문, 음모, 학살, 보복의 정치 전통을 계승하여 제나라 민중을 억압하며 그 결과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폭동, 테러, 무장반란, 혁명의 직접적 책임 소재가 된다. 이러한 부작용의 저류로 작용하는 냉전질서는 대결을 최선을 정책으로 삼는 자신의 성격을 반성하여 고쳐나가기 보다는 자신의 모든 힘을 기존의 가치 유지에 얹어매는 경직현상을 보인다.

우선 선진 자본주의 체제에서 이윤추구의 동기는 국가의 지도아래 새로운 운동 방향을 모색하게 되고, 상대적인 과잉생산과 국내시장의 포화로 투자 기회를 해외에서 찾게 된다. 이렇게 해서 다국적 기업의 형태로 확대 개편된 독점기업은 이제 막 식민지적 수탈에서 벗어난 신생독립국들의 취약한 생산 기반을 무너뜨림으로써 그들의 자생적 역량을 꺾어 버린다. 정치적 목적과 밀착된 원조와 경제협력 관계는 매판세력을 더욱 살찌게 하여 냉전과 자본운동의 대리인으로 나서게 하고, 이런 신식민주의 확대 재생산의 구조 위에서 자기나라 안에 계급적 갈등을 무마시킨다. 고도산업 사회의 거짓과 위선은 바로 여기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들은 풍요의 의미를 더 많은 상품의 소비에 국한시키고 인간이성을 능력을 마비시키면서, 자기들이 해결해야 할 근본문제들을 저개발국들에 떠맡긴다. 상품소비로 대표되는 풍요의 체제는 자본가의 손에 그 운명을 맡기기 때문에 모든 가치는 이윤추구의 동기라는 척도에 의해서 우선 위가 정해진다. 그들은 거기에서 이윤만 생긴다면, 인간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공기와 물이 더럽혀지는 것마저 아랑곳하지 않으며, 자연 자원의 고갈이나 화학비료, 농약의 남용으로 인한 지력의 쇠퇴, 생태계의 파괴에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 도시의 밀집된 생활공간에서 인간의 심성이 일그러지고 알콜이나 환각제가 시민의 몸과 마음을 황폐시키는 것을 도외시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매스미디어를 총동원하여 인간의 의식을 상품가치 하나에 집중되도록 마취시키는 데에 혈안이 된다. 결국 저개발국가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선진 사회의 부가 아니라 쓰레기일 뿐이다. 이렇듯이 냉전의 뒷에 걸린 저개발국은 자신에게 맞는 발전양식을 개발하기 보다는 선진 사회의 모형을 그대로 수용하게 되고, 자생적 발전의 바탕이 되는 식량생산, 생활필수품의 자급, 문화적 전통의 발전적 계승, 삶의 질적 향상 등에 시선을 돌릴 줄 모르게 되었다.

현시점에서 공산주의 체제의 가장 큰 문제는 빠른 시일 안에 자본주의와 어깨를 겨눌 수 있는 생산력의 확충이 민중에 대한 이데올로기의 강요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자본주의에 대해 일종의 피해의식을 가지고 출발하는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어느 면에서 자본주의보다 더 빠르게 국민 총동원 체제가 완성된다. 현재까지 나타난 양상으로부터 일반화하자면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의 이념은 혼란에 빠진 사회를 배경으로 일당 독재의 이데올로기로 변질되고, 폐쇄된 당 질서 안에서 급격히 일인 독재의 정치를 탄생시킨다. 빠른 시일 안에 자본주의를 따라 잡으려는 목표 아래 그 목표에 대한 어떤 비판이나 일탄도 허용하지 않고

속청과 초과노동을 일상적 정치문화로 정착시킨다. 생산의 우상화는 국민의 소비 생활을 고도로 제한하고, 노동은 강제성을 띠게 된다. 추상적 목표의 우상화로 빼놓을 수 없는 폐해이다. 소련의 일국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의 세계 지향성을 일종의 패권주의로 전락시키고, 많은 위성국을 출현시켰으며, 위성국의 국민에게 소련에서 수입된 일인 독재체제 아래서 강요된 경직된 이데올로기를 따르도록 강요했다. 주권제한론 따위 후안무치한 궤변으로 한 민족의 주체와 존엄을 말살할 전략적 필요에 따라 민족들을 서슴없이 약탈, 유린, 학살하는 고대적인 제국주의로 둔갑했다. 봉건제도의 기반은 무너졌으나 봉건제의 전제주의적 가치는 그대로 보존된 셈이다. 지도자가 제 자식에게 통치권을 계승하는 따위 시대착오적 왕조 공산주의마저 출현하게 까지 되었다. 비밀경찰제도, 지식인 억압, 심지어 국가관리 경제에 대해 회의를 표명하는 노동자의 탄압이 체제의 지속에 대한 대가로 치러지고 있다. 잉여의 절대량이 군비경쟁과 우주적인 초무기 생산과 생명파괴를 위한 조직적 음모에 소비되고 있다.

현대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와 마찬가지로 유럽 합리주의, 유물주의 전통의 산물이며 뉴턴, 데카르트, 로크, 그리고 스미스와 헤겔의 후계사상이다. 그것은 자본주의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헤겔로부터 세속화된 신학마저 박탈함으로써 유럽으로부터 기독교와 함께 일체의 영성적인 것을 마지막으로 제거했다. 자본주의와 똑같이 인간중심주의에 돌아감으로써 봉건제적 질곡을 무너뜨리고 풍요한 세계건설을 예언하며 유물론에 의한 유물론적 질곡으로부터의 해방을 약속했으나 자본주의와 똑같이 인간중심주의의 그 중심성에만 초조하게 집착함으로써 유물론적 질곡과 범생명 파괴의 물신지배를 확대시킨다. 역사적 유물론의 이른바 자기소외다. 오류는 그 이론의 전개과정의 산물이지만 동시에 그 이론 자체의 자기모순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것은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며 변화하는 인간과 생명현상에 대한 역시 살아 움직이는 총체적 이해에 실패했고 인간과 자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우주자연 사이의 근원적인 유기적 총체성에 대한 역시 살아 움직이는 총체적 인식에 실패함으로써 당연한 결과로 그것의 개조에 있어서 실패하고 있다. 유럽사상의 한계다. 그것은 정도와 구조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는 자본주의와 똑같이 인간의 사회적 해방을 소유의 근원적 인정과 소유의 분배조정에 고정시킴으로써, 그리고 형태와 표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는 자본주의와 똑같이 세계의 혁명적 개조를 산업주의와 기술 개발, 생산속도의 가열화에 고정시킴으로써 인간의식을 더욱더 단단히 소유에 결박시키고 진정한 사회적

해방을 저해하며 인간생명과 자연생명을 똑같이 물질화시키고, 범생명의 모든 고리들을 분해, 고갈, 변질, 파괴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극단적으로 우상화 시킨 추상적 목표인 이른바 자유의 왕국이 한낱 망상적 미궁임을 그들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 자본주의와 더불어 존재와 소유 사이의 갈등을 더욱 더 첨예화 시키고 있으며 존재를 분배된 소유, 증대된 소유의 총체로 오해하도록, 그것을 위해 자신과 이웃과 대지의 생명을 파괴하는 폭력의 정당성을 맹신하도록, 분리, 분열, 대립, 갈등, 투쟁, 정복을 열사의 잠정적이고 상대적인 현상이 아니라 생명의 항구적이고 절대적인 본성으로 착각하도록 세뇌시키고 그것을 실천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인간과 범생명의 물질화를 극단적으로 심화시킨다. 그것은 자본주의와 더불어 회랍 이래 유럽사상의 본질적 측면인 수직적, 선적, 단계론적, 물질주의적, 공리주의적, 진화론적, 진보주의적, 인간중심주의적, 상승주의적인 세계관, 그리하여 결국은 이원론적, 요소론적, 형상론적 세계관의 휘황찬란한 영웅서사시적인 완성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여기 자본주의와 더불어 범생명을 파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세계 질서 안에서 그 속에서는 인간다운 삶의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광범한 대중 집단, 곧 ‘민중’이 나타난다. 민중이란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에서 고립시켜 지칭하는 사회적 계급이라기보다 왜곡된 역사 속에서 모든 형태의 억압자들과 실천적으로 대결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피억압자들의 세력 일반을 지칭하는 말이다. 거기에는 고전적인 계급의 도식으로 파악할 수 있는 노동자, 농민, 도시영세민, 양심적인 자본가, 지식인, 성직자 및 차별받고 냉대 받는 인종 전체가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민중은 제국주의 및 냉전의 질서에 시달리고 그에 대해 저항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제3세계의 실체이다. 그들은 새로운 세계, 빛과 생명을 약속 받은 인간들이다. 이점에서 그들은 정복전쟁의 산물인 고대의 노예와 구별된다. 그들은 제국주의가 전 세계적인 영역으로 확장되었을 때 새로운 압제의 멍에를 짊어진 것이다. 그들의 힘에 넘치는 노동에도 불구하고, 또 그에 따라 사회적인 부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및 자연생명의 가공할 파괴, 고갈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만성적인 빈곤과 비참과 죽음 속에서 허덕이고 있다. 한 사회의 총체적 부가 증가하면 구성원도 저절로 그 혜택을 입게 된다는 가설은 적어도 제3세계에서는 허구로 판가름이 났다. 저개발국들은 그들의 모든 역량을 경제개발에 집중했으나 분배체제를 염두에 두지 않고 진행된 개발 정책은 이자라는 형식을 빌어 경제잉여를 대부분 해외로 유출시키는 데에 그쳤으며, 그나마 남은 얼마 안 되는 경제잉여도 국내에서 자본가적 이윤을 보전시키는

데에 돌려져서 결국 소수의 손에 독점되고 말았다. 경제적인 불평등은 빈부의 격차라는 물질적 삶의 국면에만 머물지 않는다. 후진 자본주의 체제는 가혹한 수탈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민중의 자각을 억누르지 않을 수 없으며, 그들의 단결된 행동을 폭력적으로 탄압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억압의 강화를 통하여 국가 권력은 민중들 사이에 무력감으로 대표되는 피압박 심리를 내면화시키고 유효수요를 강제로 창출하기 위한 악순환적인 소비문화의 조장, 농촌파괴, 농업생산력격감, 대규모의 국내이민, 농업노동력의 도시집중, 실업, 고향상실, 비인간화, 전통단절, 민중의식의 뿌리 뽑힘을 가속시키고 미디어와 교육에 의한 산업주의 세뇌 및 상호불신 풍조를 조상하고 자원을 고갈시키며 생태계를 파괴하고 오염과 공해의 지옥으로 대지를 황폐화시키면서 실업자를 구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대신에 그들을 노동시장 조작에 이용함으로써 비인간적인 고용구조를 상대적으로 안정된 것처럼 위장시키고 있다. 반면 이 악순환의 혁명적 극복을 기치로 내세우는 전투적 혁명집단은 민중을 증오와 생명파괴, 학살과 집단보복의 악순환 속으로 또다시 밀어 넣는다. 국가의 통치 역량은 국민의 복지와 생명의 본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장시키는 데에 기울여지는 대신, 제국주의적인 외국산업 군사 자본과 결탁하여 민중의 수탈에 동원되거나 혁명의 수술과 피비린내 나는 숙청작업에 동원되고 있다. 그러나 민중의 삶에,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비로소 가능해지는 전체적 생존에 필요한 것은 이윤의 보전이나 권력의 유지나 혁명의 수출이 아니라 생명의 본성을 지키고, 협동적 생존의 확장으로 사회적 해방을 수행하려는 각성된 의식과 단결된 행동이다. 필요한 것은 유럽적인 자본주의, 제국주의, 신식민주의와 그와 결탁한 소수매판 군부세력 대 유럽적인 공산주의, 사회제국주의, 패권주의와 그에 지원받는 무장폭력 혁명집단의 폭력대결의 악순환, 그 피비린내 나는 상대연기(相對緣起)가 아니라, 모든 생명, 일체인간, 특히 제3세계 민중자신의 전통적 지혜와 창조적 노동 속에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고 있는 그 보편적 생명에 대한 존중과 사랑, 그리고 그 다양한 협동적 생산 및 생존의 전통에 단단히 뿌리내린 영성적이면서도 공동체적인 새로운 세계관 확립과 그러한 생명의 세계관에 일치한 전 사회적, 전우주적인 다양한 협동적 생존의 확장운동이다. 이러한 세계관과 운동은 결코 기존의 학문, 과학, 기술의 성과들을 소박하게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는다. 본래 학문, 과학, 기술의 가치는 생명의 유지, 보존, 확장의 함수이다. 기술은 그 본성이 언제나 실패하는 곳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점에서 생명 지향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어떤 세계관, 어떤 가치관에 의해 통어되고

지휘되며 관통되고 촉진되는가에 따라 죽음의 힘으로 역전될 수도, 생명의 힘으로 회복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새롭고 민중적인 생명의 세계관, 생명의 존재양식을 기본가치, 중심가치로 확립하고 그 토대위에서 유럽과 더불어 온 인류가 창조하고 성취시킨 학문, 과학, 기술, 문화와 민중운동의 여러 역사적 경험들을 생명의 기본 가치관에 의해 엄중히 판단하고 비판적으로 수렴, 통합하여 생명의 방향으로 재활성화하고 생명의 방향으로 재활용하는 창조적 통일이 실천되는 과정으로부터 제3세계 민중자신을 비롯한 전 인류와 전 생명계, 전 우주적인 생명의 부활, 해방, 완성을 향한 세계사적 대전환에 대해 제3세계 민중운동이 짊어진 역사적 책임의 내용이 그 확실한 모습을 들어 낼 것이다. 이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광활한 대륙에서, 수십억 민중의 일상적인 영성과 생존 속에서 생명운동이라는 대전변이 일어나야 하고 또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신념이야말로 죽음에 직면한 전인류 전종생의 유일한 희망이다.

죽음은 생명의 대치물이 아니다. 죽음은 역동적, 창조적으로 운동하는 생명의 한 반대계일 뿐이다. 생명은 죽음의 죽음으로서의 죽음의 극복이며 죽고 부활하는 생명이야말로 영원하고 무궁하며 참으로 살아있는 참생명인 것이다. 창조적 생명운동과 그 운동의 실천 속에서 자기 안에 영원무궁한 생명이 우주의 주체로서 살고 죽고 또다시 거듭거듭 부활하면서 쉼 새 없이 활동하고 지속하고 있음을 확신하고 그 활동이 매일 매일의 협동적 생존 속에서 끊임없이 확장하고 신선했고 있음을 경험하는 민중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핵전쟁에 의한 전지구의 파멸, 우주전쟁에 의한 천체의 파단, 그 파천황의 죽음도 그 뒤에 율회황찬란한 범생명의 해탈과 부활, 즉 현실적인 후천개벽의 한 반대계일 뿐 두려울 것은 아무것도 없다. 민중은 그 부활의 씨앗을 매일 매일의 생명운동의 실천 속에서 지금 여기 자신과 사회에 뿌림으로써 지금 여기 끝없이 부활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명의 진리는 중도다. 그것은 양쪽 가장자리를 떠나면서도 가운데가 아니다. (離邊非中), 그것은 모두(全)이며, 모든 것이 생명의 씨앗임(處處皆佛)을 믿는 것이며 이 믿음으로부터 오는 사랑의 실천(慈悲行)이다. 제3세계 민중운동서의 생명운동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다 같이 떠나면서도 그 중간 길이 아니다. 이것은 어떤 것, 어떤 사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모든 사람 속에 활동하는 반생명적 경향을 반대하고 모든 것, 모든 사람 속에 숨은 채 드러나는 생명의 씨앗을 현실적으로 꽃피우는 일이다. 절충이나 셋길은 이 운동과 인연이 없다. 제3세계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 모든 민족, 모든 계층, 모든 인종과 나아가

모든 유정, 무정(有情, 無情)의 생명체와 존재들 속에 생생히 살아계신 영원무궁한 총체적 생명이 이 죽음의 시대에 있어 그 생명의 참된 담지자이며 그 실천적 전위인 민중이 지금 여기 협동적으로 그러나 다양하고 개성 있게, 확장적으로 그러나 진취성 있게 과학적으로 일체의 생명파괴에 저항하며 서로 존중과 사랑으로서 공동체적 삶을 건설함에 의하여 모든 적대적인 또는 다양한 기존의 이데올로기와 물신의 지배아래 있는 생명이 있는 그대로의 체제 속에서 스스로 창조하고 스스로 해방하고 반생명에 저항하다 죽고 다시 부활하여 스스로 확장함으로써 자신을 변화시키고 체제자체의 역사적 한계를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철저히 소멸시킬 전면적인 부활과 해방과 개혁을 가져오는 변혁운동이며 동시에 자비와 사랑의 운동인 것이다.

한국의 사회와 인간은 일반화된 생명경시, 생명파괴, 반생명현상 위에 분단 상황까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여 어떤 점에서는 보편적인 생명파괴의 가장 적나라한 전시장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러한 현상을 인식하고 척결하려는 이념적 및 실천적 대응으로서의 수많은 운동들이 있어 왔으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현상의 인식에 국부적, 요소론적이었고 그 척결의 실천에 있어 순환적, 이원론적이어서 총체적인 생명의 회복에 있어 오히려 생명의 원리나 생명의 실상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가기도 했다.

이것은 물론 상황자체의 복잡하고 어려운 점들 때문이기도 하겠으나 상당한 정도로 이 운동들을 지도한 지식인들의 세계관, 운동관의 내용에 그 원인이 있다. 서구 사회를 휩쓴 진보주의의 이름 아래에 강요된 선적, 수직적, 단계론적, 공리주의적이며, 결국은 형상론적인 세계관과 운동관²⁰⁾에 그 원인이 있다. 이러한 이념, 사상 등은 생명파괴를 극복하기보다 가속시키는 작용을 더 많이 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독초가 무성한 곳에는 반드시 영험한 약초가 있는 법이다. 생명과

20) 선적, 수직적, 단계론적, 공리주의적이며 결국은 형상론적인 세계관과 운동관 : 사태의 물량적 증대와 확장이 곧바로 질적인 변화로 이어진다(선적사고), 세계의 질서는 사다리꼴로 되어 있어서 가장 훌륭한 것은 맨 위에 자리 잡고 있다(수직적사고), 다윈의 진화론에서 보듯이 생명의 진화에는 단계가 있고 따라서 생명의 문제해결도 낮은 단계의 문제부터 점진적으로 단계를 밟아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단계론적 사고). 애초부터 고립된 것으로 보이는 개개의 생명에 모두를 만족시켜 줄 문제해결 방법은 없으므로, 최선의 길은 소수의 생명을 희생시키더라도 다수의 생명을 유지하면 그것이 바른길이다(공리주의적 사고). 모든 생명체는 각각 독특한 개성을 지니고 있는 독립된 단위이므로 이들의 특성을 충분히 존중하려면 그들에게서 어떤 가변성과 역동성도 배제하고, 하나하나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불변하는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형상론적 사고)는 세계관 및 운동관으로서 이것은 모두 생명의 본질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부터 생겨난 부정적 세계관이요 운동관이다.

괴, 반생명현상이 극심하고 보편화된 한국 사회, 특히 민중의 생존 속에 일상화되고 있는 생명파괴를 극복할 슬기와 힘은 민중 자신의 개인 및 집단적인 노동 체험과 지혜의 전통 안에 숨겨져 있다.

토지를 살아있는 생물로 보고 물과 바람과 대기, 빛과 그늘, 변화하는 기후와 계절, 풀, 곡식, 나무와 벌레, 짐승들을 하나의 총체적인 통일된 생명체로, 하나의 통일적인 기(氣)의 운동으로 인식하고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일체생명을 신령한 것으로 존중하는 전통과 이웃을 한 형제, 한 가족처럼 가깝게 느끼는 전통 속에 이미 영성적이면서 공동체적인 세계관이, 생명의 세계관과 그에 입각한 전 사회적, 전 우주적인 협동적 생존의 확장 가능성이 “숨겨진 채로 드러나”있다. 물론 이러한 공동체적 세계관이 가진 봉건유제와의 일정한 관계와 그에 관련된 한계성, 그리고 미신적인 세계인식에서의 경계범람과 어떤 형태의 보수성 등에 대한 날카로운 과학적 비판을 조건으로 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체적 세계인식과 영성적인 인간이하라는 초미한 현실적 도전에 대한 창조적인 응전의 기초는 이 민중적 세계인식과 보편진리로서의 생명의 사랑 이외에서는 발견하기 어렵다. “숨겨진 채로 드러나고 있는” 이러한 민중적 세계관, 생명의 세계관을 기초로 하여 현대 서양 철학의 생물학적 전환²¹⁾, 물리학 및 제과학 사상의 혁신적인 변화, 기술의 놀라운 발전성과들과 제반 민중운동의 역사적 경험들을 새로운 비판적 조명 아래 자각적, 창조적으로 통일하여 심화 확대시키는 곳으로부터, 그러한 민중적 세계관에 입각한 전민중적, 전사회적, 전인류적, 전생명계적인 협동적 생존²²⁾

21) 현대 서양 철학의 생물학적 전환 : 철학의 전통 속에서 우주의 생성을 생물학적 관점에서 해명하려는 시도는 서양에서는 탈레스의 물활론(物活論) 이래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거쳐서, 그리고 동양에서는 불교나 도가사상 이래로 태극설과 이기논쟁(理氣論爭)을 거쳐서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 왔으나, 계몽기 이후로 자연과학이 급속히 발달하고, 특히 물리학의 법칙이 자연과학 일반의 법칙의 효용성을 대변하게 되면서 철학의 물리학적, 기계론적 전환이 급속하게 일어났다. 그러나 1900년대 초에 양자역학, 빛의 파동설, 불확정성 원리 같은 물리학 자체 안에서의 기존 물리학 이론의 완벽성에 대한 강력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또 궁극적으로 생명현상, 정신현상이 물리학적, 기계론적 법칙으로 환원되기 어렵다는 각성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정신현상과 생명현상을 물질의 원리와는 다른 생명의 원리에 의해서 해명하려는 시도가 딜타이, 베르그송, 화이트 헤드, 샤르댕 같은 철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다. 현대 분석철학에서 끊임없는 논쟁의 대상이 되는 몸과 마음의 문제(mind-body problem)도 이러한 전환의 고비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22) 전 생명계적인 협동적 생존 : 공해문제는 본질적으로 생존의 문제를 인간이라는 폐쇄된 종의 울타리 속에 집어넣고, 해결하려고 한 데에서부터 일어난 것이다. 범생명에 대한 존중, 자연은 인간의 생존의 필수적 동반자라는 각성은 넓게는 동양문화권 전체, 좁게는 한반도의 역사적 전통 속에 이미 깊이 뿌리내린 민중적 지혜의 결정체이다. 농촌 공동체적 삶에서 모가나 파리 같은 해충의 생명까지도 존중하여 멀리 쫓아버릴 뿐 잔혹하게 죽이지는 않는 관습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음에 주목하라.

의 확장과 영성적이면서 공동체적인 새로운 생존방식을 창조 발전시키는 운동을 제3세계 민중운동과의 공고한 연대 속에서 수행하는 곳으로부터 한국 사회의 극심한 일체의 생명파괴 현상과 분단 상황에 대한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해결책, 대응책이 찾아질 수 있다.

8.15 광복 이래 진정한 해방이 계속 지체되는 악조건 속에서 이 땅의 양심적 지식인과 학생, 성직자들은 민중의 고뇌를 정의의 이름으로 대변해왔다. 또 외세의 힘을 업은 매국적인 억압 체제와 맞서오면서 민중은 이 민족의 정기를 보존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려 왔다. 민중은 자신의 노동을 근대국가의 건설에 쏟아 부었으며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고 있을 때 죽음을 무릅쓰고 저항해 왔다. 그리하여 이제 어떤 지배자도 민중과 민족을 도외시하고 군림할 수 없다는 사실이 국민전체의 의식에 뿌리내리게 되었다. 이와 같은 거국적 자각은 앞으로 전개될 민족사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규정할 것이다. 억압을 일삼고 허위의식으로 국민을 오도한 불의하고 악덕한 집단은 더 이상 민중을 기만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타협을 모색하고 있다. 앞으로 전개될 어떤 운동도 이와 같은 역사적 좌표 위에서 자기의 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다. 우선 지금까지 운동을 주도해 왔던 소위 선진 집단들은 오랜 저항과 그에 따르는 희생에도 불구하고 왜 민중의 비극을 구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는지를 근본적으로 반성해야한다. 이들 집단은 모든 행동을 민중과 민족의 이름아래 해왔으면서도 민중과 민족이 겪고 있는 역경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들은 사회적 모순에서 발생한 개인의 고난을 민중의 총체적인 움직임으로 활성화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한다. 우리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민중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외국으로부터 관념적으로 배운 우리의 매편적 급진적 지식을 민중에게 강요 하지나 않았을까? 우리 자신이 한 사람의 민중으로 민중의 삶을 스스로 살며 민중의 호흡을 자기 자신의 호흡으로 숨쉬기보다 몇 가지 학문적 도식에 빠져 상황의 핵심을 전혀 오해하지는 않았을까? 가장 큰 고난의 담당자가 민중임에도 불구하고 민중의 피압박 심리에 지쳐 우리들 즉 지식인들만이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는 독단적 아집에 빠지지 않았을까? 우리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소위 운동의 담당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은연중에 엿보이는 민중의 잠재력에 대한 불신임이다. 민중의 삶에서 생명 보존의 본능적 충동으로부터 튀어나오는 거친 행동과 말투에 근거 없이 압도되어 말로는 민중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도 전 민중과 진정한 하나가 되어야 할 때 소심하게 움츠러드는 패배주의가 우리의 실천을 저해하는 암적인 요소로

작용 해 왔다.

우리는 지금까지 민중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데 실패했고 민중 속에서 즐기차게 살아 생동하는 근원적 세계관, 가치관을 인식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자신을 얻을 수 없었다는 점을 시인해야 한다. 우리는 민중을 당면한 피압박 상태의 피해자로만 볼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미래에 억압의 무거운 멍에를 벗어버리고 민족적 현실의 주체자로 등장할 중심 세력이며 그 해방의 주도적 이념의 실질적인 담지자임을 깨달아야 한다. 역사의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의 모순과 주체의 의지이다. 의지는 그 진정한 목표와 그에 이르는 방법이 모순 없이 통합되었을 때 비로소 힘을 발휘 할 수 있다. 그러면 현재의 시점에서 주체적 의지의 진정한 목표는 무엇인가? 전세계적으로 전사회적으로 허무하게 짓밟히고 시들어가는 생명을 되살려내는 일이다. 악마에의 저항에서 악마 편에 가담하는 자에 못지않게 악마와 맞서서 저항하는 쪽도 생명자체를 추상적 이념과 소외된 욕망에 종속시킬 위험이 크다. 그러나 목적을 망각한 저항은 반드시 저항 자체를 배반하게 된다는 점에서 생명에 대한 사랑으로 뒷받침되지 않은 저항은 무엇보다 경계해야 한다. “우리가 추구하는 방법은 목적을 배반하지 않으면서 궁극적으로 민중적 합법성”을 띠고 있어야 한다.²³⁾

2. 본문

1) 오늘날 전 세계적인 범위에서 그리고 전사회적 규모에서 심각하게 문제시되고 있는 노동소외, 빈부격차, 무역불균형, 소비의 악순환, 생산속도의 가속화, 분업의 극대화, 전자 기구에 의한 인간노동의 고용축소, 사회제도 및 구조적 모순의 심화, 법률의 사회통제도구로서의 전략, 산업재해, 식량위기, 화학비료의 남용에 의한 토지생산력 감퇴와 토지의 사멸과 생태계 파괴, 식품전반에 있어서의 독물의 문제, 농촌과 도시 및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문화적 격차와 길항, 세계적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의 편입, 인간노동과 인격의 상품화, 농촌의 도시문화에의

23) 우리가 추구하는 방법은 목적을 배반하지 않으면서 궁극적으로 민중적 합법성을 띠고 있어야 한다 :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은 평등한 인간관계에서 출발한 생명 존중, 협동적 삶이다. 따라서 이 목적에 맞는 방법을 선택할 때는 그것은 반드시 민중적 합법성, 곧 민중에 의해서 전폭적으로 지지받게 됨으로써 소수의 악마적 세력으로 하여금 용납하고 타협적 태도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강력한 뒷받침을 얻어야 한다. 우리의 행동이 급진적 성격을 띠므로써 운동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불필요한 공포심을 주지 않아야 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일방적 편입, 자원고갈, 대기 및 수질오염, 인구의 도시집중과 교통, 건축 등 도시설계의 문제점, 군중의 분해, 집단적 이동, 온갖 형태의 혼효현상, 제도교육과 매스 미디어와 종교의식 등에 의한 세뇌, 인간의 정체상실, 정신분열, 도착, 상호 불신과 갈등의 일반화, 사회적 적의의 압도, 물신숭배, 속도숭배, 폭력숭배, 소비 숭배, 알콜중독, 약물중독, 피임약 남용과 소파수술 남발에 의한 여성 생체의 파괴, 임신중절과 낙태의 반복, 영아살해의 합법적 보편화, 가학, 피학증세의 보편화, 대중적 기만의 만연, 군비경쟁과 대량살상용 무기개발과 무차별한 군사장비 판매, 전쟁, 핵확산, 정치적 탄압, 고문, 대량학살, 음모에 의한 인간의 물질화, 폭동, 무장반란, 폭력혁명, 테러리즘, 복수의 악순환, 대량숙청, 강제노동, 속도전략에 의한 초과노동, 이데올로기 강요, 새로운 형식의 세계분할, 이념으로서의 요소론, 이원론, 상승주의적 진화론, 욕망의 체계로서의 사회인식의 일반화, 전체민중에 대한 과대한 엘리트지배의 패해, 레크노크라시의 과도한 압도와 기술 숭배 및 관료주의의 횡포, 경제지상주의, 제국주의, 신식민주의, 사회제국주의, 팽창주의, 패권주의, 국수주의, 군사주의, 국가지상주의, 인간의 시간과 공간의 자의적 약탈과 분할 그리고 이 세력의 자체논리에 입각한 물량 대형화, 조직화와 동시에 개체의 철저한 고립과 입자화 등 오늘날 지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부조리한 일체현상의 내부를 관통하고 있는 것은 생명경시, 생명파괴, 반생명의 악마적 경향이다. 이에 대응하여 역시 전세계적인 범위에서 그리고 전 사회적 규모에서 생명의 회복과 생명의 본성에 대한 인식이 요청되고 있으며 생명을 일체의 가치관, 인생관, 사회관, 역사관, 세계관, 우주관의 중심으로 파악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기존의 모든 과학기술의 성과들을 창조적으로 통합할 것과 협동적 생존의 확장에 의한 개인 및 사회적 생명의 진정한 부활, 해방이 요구되고 있다. 한 포기의 배추에 있어서의 참된 생명력의 문제로부터 이론 물리학의 “장”의 원리나 철학에서의 범주론과 연표방식에 있어서의 생물학적 전환에 이르기까지 생명의 세계관 확립과 그에 입각한 일체 인간과 자연생명체까지를 포함하는 협동적 생존의 확장이 기대되고 있다.

2) 한국의 사회와 인간은 일반화된 생명경시, 생명파괴, 반생명현상 위에 주종적 의존관계, 소위 근대화의 이상화 및 선진, 후진국간의 불평등 관계, 그리고 분단 상황까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여 어떤 점에서는 보편적인 생명파괴의 가장 적나라한 전시장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러한 현상을 인식하고 척결하려는 이념적 및

실천적 대응으로서 수많은 운동들이 있어 왔으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현상의 인식에 국부적, 요소론적이었고 그 척결의 실천에 있어서 순환적, 이원론적이어서 총체적인 생명의 회복에 있어 오히려 생명의 원리나 생명의 실상과 반대되는 방면으로 나가기도 했다.

이것은 물론 상황자체의 복잡하고 어려운 점들 때문이기도 하겠으나 상당한 정도로 이 운동들을 지도한 지식인들의 세계관, 운동관의 내용에 그 원인이 있다. 서구사회를 휩쓴 진보주의의 이름아래 강요된 선적, 수직적, 단계론적, 공리주의적이며, 결국은 형상론적인 세계관과 운동관에 그 원인이 있다.

이러한 이념, 사상 등은 생명과괴를 극복하기보다 가속시키는 작용을 더 많이 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독초가 무성한 곳에는 반드시 영험한 약초가 있는 법이다. 생명과괴, 반생명현상이 극심하고 보편화된 한국사회, 특히 민중의 생존 속에 일상화되고 있는 생명과괴를 극복할 슬기와 힘은 민중 자신의 개인 및 집단적인 노동체험과 지혜의 전통 안에 숨겨져 있다. 토지를 살아 있는 생물로 보고 물과 바람과 대기, 빛과 그늘, 변화하는 기후와 계절, 풀, 곡식, 나무와 벌레, 짐승들을 하나의 총체적인 통일된 생명체로 하나의 통일적인 기(氣)의 운동으로 인식하고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일체생명을 신령한 것으로 존중하는 전통과 이웃을 한 형체, 한 가족처럼 가깝게 느끼는 전통 속에 이미 영성적이면서 공동체적인 세계관이 생명의 세계관과 그에 입각한 전사회적, 전우주적인 협동적 생존의 확장 가능성이 “숨겨진 채로 드러나”있다.

“품앗이”와 “두레”에 협동적 생산활동의 전형이, “대동국”에 영성적이면서도 공동체적인 생존의 전형뿐만 아니라, 생산노동과 집단논리, 일상생활과 신예의 전례(典禮), 개인생존과 사회적 생존의 통일적 인식 및 실천, 우주자연의 운동과 인생변화의 일치된 파악, 삶과 죽음과 부활의 운동으로서의 범생명의 파악 및 그에 대한 합일, 사회적 대화이면서 생명의 자기순환, 자기회복 및 창조적 확장으로서의 말과 춤과 음악의 유기적 기능의 인식과 그 실천의 전형이 있으며 이것과 더불어 민요일반과 노동요, 가사, 민담, 속담, 격언, 수수께끼 등 일체 민중의 구비전통 문화 가운데에 그리고 지금도 활동되고 있는 전통적 농사방법 일반 속에 이러한 유기적 세계관의 전형이 드러난다.

“씨김국”에는 정화 즉 세례의 전형과 더불어 삶과 죽음의 차별을 넘어서는 범생명적 인식 및 그 생활화의 전형이 있고, 세시풍속과 통과례, 지신밟기와 마당씻이, 액막이와 살풀이, 무속일반과 최수운의 칼춤 등 속에 반생명, 생명과괴의

힘, 죽음의 힘, 상극하는 힘, 즉 재앙과 원한과 죽음에 대한 거부와 해소의 전형이, 탈출 속에는 사회적 모순과 민중의 적이 전형성(典刑性)을 통해 반생명의 죽음의 모습으로 형상화되며 그것에 대한 저항양식과 저항 뒤의 승리와 화해의 양식이 있고, “화합국”에는 상급하는 음양의 통일로서 생명의 부활, 확장을 인식한 지혜로운 세계인식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민중 자신의 생각과 말과 이야기와 생활 속에 이러한 생명의 세계관과 협동적 생존의 깊은 경험 및 지혜와 신념이 드러나고 있다. 이조 중후기에 급속히 발전된 자영농(自營農)과 공인(工人)들의 공업기술의 아직 남아있는 형태 속에는 유럽적인 생명과 과학적, 비유기적 산업화나 농업 기계화가 아닌 생명지향적, 유기적인 기술 체계 발전의 놀라운 전형이 보이며 과학사(科學史)와 함께 그러한 기술 및 생산체계가 가진 민중 자신의 생명의 세계관, 협동적 생존과의 연관을 검토함으로써 앞으로의 민중적 생명운동에 있어서 과학기술, 생산노동과 협업 및 분업 등의 관계와 그 가치 내용 및 한계 등에 대한 과학적 유기적인 판단기준을 창조적으로 인식하고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숨겨진 채로 드러나고 있는” 이러한 민중적 세계관, 생명의 세계관을 중심 기초로 하여 역학(易學), 대승불교와 선사상, 노장철학과 주체적으로 수용된 기독교 신비사상, 동학과 증산교의 가르침을 배경으로 하고 그리스도의 삶, 죽음, 부활의 신비와 신구약의 생명의 복음의 인도를 받아 현대 서양철학의 생물학적 전환, 물리학 및 제 과학사상의 혁신적인 변화, 기술의 놀라운 발전성과들과 제반 민중운동의 역사적 경험들을 새로운 비판적 조명아래 통일하여 자각적, 창조적으로 심화 확대시키는 곳으로부터 그러한 민중적 세계관에 입각한 전민중적, 전사회적, 전인류적, 전생명계적인 협동적 생존의 확장과 영성적이면서 공동체적인 새로운 생존방식을 창조 발전시키는 운동을 제3세계 민중운동과의 공고한 연대 속에서 수행하는 곳으로부터 한국 사회의 극심한 일체의 생명파괴 현상과 분단 상황에 대한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해결책, 대응책을 찾아야 한다.

3) 우리의 바람직한 활동은 단순한 자선, 구빈, 자금 지원 등 소위 사회사업만이 아니라, 인간해방과 사회개혁, 즉 인간의 영성화와 사회적 생존의 협동적 재건에 그 주된 목적이 있다. 따라서 경제사업과 사회운동, 현장활동과 교육, 교육에 있어서의 양과 질, 영성운동과 협동운동, 농촌생존과 도시생존, 농업노동과 농외노동, 농민운동 노동운동, 정착농민과 도시이농민, 취업근로자와 실업자, 산업노동자와 도시 빈민, 농촌과 광산, 광산노동과 도시노동, 지도자와 군중, 어업노

동과 농업노동 또는 광산노동 또는 공업 노동 또는 자유노동 등 상호간의 다양한 유기적 상관관계와 유동성, 도시학생, 지식인 운동과 민중운동, 도시청년과 농촌 청년, 도시여성운동과 농촌 및 광산 또는 어촌 또는 공장여성과의 다각적인 유기적 상관관계, 교회 기초공동체 운동과 협동운동, 교회의 신학방향과 운동기초로서의 민중적 세계관, 제3세계운동과의 관계, 구미공업사회와의 관계, 공업사회 내부의 민중운동과의 관계, 생태생물학적 신연구와 농법, 신탁, 소협, 노청, 가농, 기농, 도산, 사선, 노총 그 밖에 각종 교회단체 및 기구들과 각종 사회단체 및 그룹들, 학생, 지식인들과 사회개발 단체들 사이에 다양하고 복잡한 유기적 상관관계 등을 통일적, 총체적, 일원론적, 동시적, 확장론적, 수평적으로 인식²⁴⁾하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활동에서 나타나는 것은 여러 면에서의 많은 성과와 힘겨운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사업과 운동, 현장상황과 교육, 영성과 협동, 농촌생활과 도시생활, 농민운동과 노동운동, 교회의 개발활동, 활동자와 부락주민, 현지도자와 기타주민, 각종 유관단체들 사이와 각 계층들 사이에서의 분리현상이 아직도 극복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물론 이제까지의 활동기간 중에 일어난 정치, 경제, 사회적인 복잡하고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들 때문이기는 하나 상당한 정도로 활동을 주도해 온 활동자들 자신의 세계관, 운동관, 사업관과 일에 임하는 태도 즉 작품의 내용과 구조에도 그 원인이 있다. 사업과 운동, 영성과 활동들을 분리해서 보는 이원론적 사고, 경제적, 물질적 문제의 해결 뒤에 서서히 사회적 정신적 또는 정치적, 영성적인 변화가 온다는 단계론적 사고, 강력한 지도자가 확신을 가지고 대중을 끌고 갈 수 밖에 없다는 수직적 사고, 현장에 거주하는 사람의 이동 가능성, 가변성을 보지 않고 한 부락, 한사람을 고정적인 사업단위로 파악하는 정태적 사고, 이 계층과 저 계층, 도시와 농촌, 이 단체와 저 단체를 서로 분할된 독립적 존재로 보는 요소론적 사고, 사업의 양을 물리적으로 축적하는 과정은 결국 필연적으로 운동이 미래의 방

24) 통일적, 총체적, 일원론적, 동시적, 역동적, 확장론적, 수평적 인식 : 생명의 본질에 대한 바른 통찰에서 출발하는 인식은 모든 생명의 왜곡현상과 그것을 바로 잡으려는 생명활동을 자신의 문제로 환원시키게 되며, 그렇게 되면 어느 하나의 문제도 고립되거나, 부분적이거나, 고정되거나, 독자적인 것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문제의 해결도 생명계 전체의 역량을 결집시킴으로써 비로소 가능하다는 자각을 갖게 된다. 이것은 주(註)8의 인식과 상반되는 진실한 인식으로서 모든 판단의 기준은 생명의 보호와 창조에 있다. 생명은 모든 생물의 상호 부조와 보완으로 유지되며, 생명은 결코 머물러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 쇄신의 운동 가운데 있음으로써 비로소 변화의 방향자체를 바람직하게 설정할 수 있을뿐더러 자신의 활동범위를 넓힘으로써 생명 그 자체를 안전하게 만든다.

향으로 진보되어 나가게 하기 마련이라는 선적사고 등이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사고들은 모두 서구적인 형상론적 세계관의 산물이며 상승주의적, 파상적 진보사관의 필연적인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 이것들은 결코 전면적인 생명파괴에 대한 근본적 대응책,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생명파괴, 반생명 현상을 심화하거나 은폐시킬 수 있는 이념이요 관점들이다. 이러한 모든 바람직하지 못한 이념, 관점, 견해들은 한꺼번에 총체적으로 극복해야 한다. 어떻게 한꺼번에 총체적으로 극복할 것인가? 문제의 중심, 중심문제의 해결은 자동적으로 주변문제의 해결을 동반하는 법이다. 문제의 중심, 중심문제는 외래의 매판적, 반민중적 이념, 관점, 견해의 척결이다. 따라서 진정하고 근본적이며 총체적인 해결책은 민중자신의 지혜와 활동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모든 지식에 있어서 말과 글의 차이는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 낸다. 민간전승의 지혜, 구비(口碑)적인 지혜는 생활, 노동, 저항, 죽음과 부활의 희망을 포함한 민중의 역사적 지식의 축적물로서의 지혜다. 그 지혜와 그 활동,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세계관이며 협동적 생존의 전통이다. 민중의 이러한 전통적 세계관은 가치판단과 사실판단, 종합판단과 분석판단의 합일에서 성립하는 역동적인 세계관이다. 이것이 문제해결의 중심 고리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문자로서 정착되고 사유로써 발전되어온 전통을 전면 무시해도 안 되며 외래적인 사상을 전면 무시해서도 안 된다. 주체와 중심을 분명히 하며 이것을 토대와 기준으로 삼아 광범위하게 비판적, 선택적으로 수용, 재활성화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한다. 동양적, 전통적 지혜에 입각한 진보적인 대중 노선의 확립으로써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민중의 전통적인 생명의 세계관을 현대과학의 발전 속에서 재조명하고 자각적으로 이론화 하며, 거기에 입각하여 민중의 협동적 공동체적 집단생존의 전통을 현실상황에 알맞게 확대 발전시키고 민중 자신이 주체적, 자각적으로 과학적, 창조적으로 실현하도록 축성함으로써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형상론적 세계관은 생명의 세계관에 대한 반대 입장이다. 생명은 일원성, 통일성, 동시성, 수명성, 약동성, 전일체성 또는 총체성과 다양성, 협동성, 확장성, 반복성, 친화성, 주체성, 저항성 등을 본질로 가지고 있다. 그러나 생명이 일원적이고 통일적이라해서 그것이 운동하는 과정에서의 잠정적인 이원적 분리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일기인 태극이 움직일 때에 음과 양의 대조가 나타나는 것처럼, 또한 음 안에도 음과 양이 있고, 또한 태극이 있으며 양 안에도 마찬가지로 음과 양이 있고 또한 태극이 있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끝없이 변화하는 이 생명, 즉 기를 태극 즉 근본적으로 일원적, 통일적인 것으로 보고 통일적인 전일

체적 생명운동 속에서 음양의 분리를 보느냐 아니면 분리 그 자체를 근원적인 것, 이원적인 세계구조로 보느냐의 차이다.

생명이 전일체적이라 해서 그때그때마다의 운동하는 생명의 잠정적인 위상에 주체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생명에도 중심과 둘레가 있다. 마치 원에 중심이 있고 둘레가 있는 것처럼, 생명이 확장적으로 운동한다고 해서 진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생명은 사방팔방십방으로 쉴 새 없이 신선한 생명의 물결을 확장함으로써 진보하는 것이다. 이 확장이 바로 참된 역사의 진보다. 생명은 확산하고 외화하고 소진되는 것만은 아니다. 생명은 또한 확산하면서 동시에 수렴하고 소외되면서 동시에 자기회귀하며 굳어지고 고갈되면서 동시에 부활하고 신생한다. 그러나 이때에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창조의 기능으로서의 생명의 활동은 현실적으로 대상에 대한 기능이라는 것이다.

대상이 없는 기능은 없다. 생명이 구체적으로 그 기능을 발휘한다면 그것은 어떤 대상을 전제로 해서이다. 반생명적인 기능이 없는 곳에서는 생명의 기능은 사라진다. 역으로 반생명적 기능이 보편화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따라서 생명은 그 구체적인 현실적인 모습으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다. 빈부의 격차는 빈곤만이 아니라 부유까지도 반생명적 기능으로 작동하게 하여 양측을 다 파괴하고 비인간화 시킴으로써 생명 에너지를 구조적으로 낭비 시킨다. 따라서 빈부격차의 근본적 해소를 위한 활동은 생명에너지의 구조적 충만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생명운동의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다.

역학의 음양의 원리 등을 실천방법에 광범위하고 지혜롭게 응용, “수동적 적극성”의 방법 등을 개발, 활용하여 협동활동에서 제기된 제반 모순과 생명파괴를 해결 극복하게 하는 대중노선을 취함으로써 우리가 부딪힌 분리를 넘어설 수 있으며 우리 자신도 민중의 한 사람으로써 생명파괴로부터 우리를 해방하고 자기쇄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4) 활동자 자신들의 연수와 자기변화를 위한 노력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인간과 사회와 세계를 보는 눈, 즉 중심가치관과 세계관이 변화되면 민중관, 운동관이 따라서 바뀐다. 근원적인 가치로서의 생명에 귀의하여 생명의 운동과 운동법칙에 충실하며 일체 인간과 중생의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협동하여 살고자 하는 방향으로 중심이 변화하면 기존의 모든 기술과 조직과 체계들은 있는 그대로 새로운 힘으로써 재활성화 할 수 있다.

먼저 생명의 실상과 정체에 대한 묵상, 독서, 토론과 대화가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과 이웃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그리고 현장 민중의 지혜와 생활과 여러 활동에서 생명에 대한 지혜를 얻어내야 하고, 또 얻어낸 지혜를 실천적 논리로 정식화하여 민중에게 다시 되돌려 주어야 하며 되돌려진 그것이 다시금 민중자신에 의해 재창조 되고 변형되는 과정을 관찰하는 방법을 통해 생명을 공부하고 체득해야 할 것이다. 생명의 실상에 맞게 근로민중의 세계 내 존재를 재규정하게 하는 것도 되돌리고 재창조하는 일의 하나이다. 우리는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생산에 참여하는 세계 안에서의 노동자, 농부, 어부의 생명의 구체적 기능에 주목해야 한다. 생명의 세계관에 서서 볼 때에 노동자 또는 광부는 생명을 깨는 자이며, 잠자는 생명의 에너지를 일깨워 인간을 위하여 봉사하게 함으로써 산천초목 등의 많은 실존하는 생명의 보존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자이며 생산이 이 생명보존확장과 모순될 때 이 모순을 가장 예리하게 느끼고 반발하는 자이다. 왜냐하면 그는 노동을 통해서 대지의 총체적 생명에 친화해 있기 때문이다. 어부는 생명을 건져 올리는 자, 생명의 전환을 통하여 생명전체의 확장 해방 완성에 봉사하는 자이다. 농부는 생명을 길러내는 자, 생명이 자기 기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게 하여 그 결실을 거두어 나누는 자, 곡식이 스스로 자라는 것을 옆에서 거두고 도와서 그 가운데 일부를 보상으로 얻는 자이며, 인간 동료들과 그 보상을 나누어 먹어 동료들의 생명을 확장시키는 자이다. 이때 생명의 학살이나 생명의 전용이나를 판가름 하는 것은 그가 석탄이나 철이나 고기나 곡식 속에 깃든 생명력을 섭취하여 어떤 목적 어떤 용도에 쓰느냐에 달려있다. 생명에는 핵과 여백이 있다. 생명은 자기 핵, 자기 종(種)을 유지보존하기 위해 “먹이사슬”에 따라 다른 생명체의 생명력을 섭취하나 자기 핵 밖에 엄청난 여백을 창출함으로써 또 다른 생명체에게 되돌려 주고 갚아준다. 하나의 생명체가 다른 생명체의 생명력을 섭취하는 것은 그 생명체의 핵 또는 종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백을 관여하는 것이다. 도태이론이나 약육강식, 종족살인 따위와는 전혀 무관한 해월(海月) 선생의 이른바 “한울(생명)이 한울을 먹는다”(以天食天)는 원리인 것이다. 그리고 이 원리는 우리나라 민중의 전통적 지혜의 하나다. 이 원리가 여백의 원리요, 먹이사슬의 원리이며, 상부상조의 원리이자 협동의 원리이다. 생명은 각 세포들의 유기적 결합, 연관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협동적 생존방식의 창출과 발전이라는 활동도 이와 동일하게 이해되고 결합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민중에 대한 지도자라는 수직적 관계를 수평적 관계, 봉사자, 협조자, 축성자로 실질적으로 변화시

켜야 한다. 민중이 요구하는 소박하면서도 현명하고, 완만하면서도 용의주도하며, 오래 견디고 잘 참으면서도 차근차근하고 치밀하며, 몇 시간이고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도 그 이야기에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내는 재빠름이 있는 민중적 인격자 상을 체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생명과 협동운동의 기본적인 구조를 이루는 원리요 “수동적 적극성”이다. 끊임없이 민중적 지혜를 개발하고 체득하며 민중적 가치관을 탐구하고 민중적 생존방식을 공부해야 한다. 그리고 그 속에서 깊은 의미를 찾아내야 하고 그것을 현장 활동이나 교육에 응용하는 방법을 통해 민중에게 되돌려야 한다. 근원적 일원론에 입각한 역동적 이원론적 사고, 총체적이고 유기적인 현실인식, 역동적이면서 유연한 활동방식 등은 활동자들에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들이다.

활동의 방향은 생명의 세계관 확립, 의식화와 협동적 생존의 확장으로 그 방법은 역의 음양원리를 다양하게 응용하여 현실의 복잡성에 대응하는 “수동적 적극성”과 같은 방법의 꾸준한 개발에 의해 당면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 일단 결정하는 것이 좋다.

현장지도자 양성과 활동후계자 발굴문제는 서로 깊이 관련된 문제다. 현장지도자는 고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활동과정에서 많은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의식화시키는 과정과 연결시켜서 역동적으로 보아야 한다. 농촌, 광산, 도시 등 모든 지역에서 생명의 세계관, 가치관과 협동적 생존의 확장에 관한 교육과 상담활동, 대화, 토의, 개인적 및 집단적 시적 및 공적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생명과 협동을 중심으로 의식화시킴으로써 현장지도자와 후계자를 준비시켜야 한다. 상담과 교육활동을 질적으로 심화시키고 강화할 뿐 아니라 어느 계층을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그 기능을 확대해야만 한다. 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교육은 바로 이러한 관점과 직결시켜서 그 구체적 방향과 방법을 잡는 것이 옳다. 결국 활동자는 자기 자신의 상담과 교육, 대화와 활동을 통해 그 대상들 속에서 자기 자신의 발전적 분신을 창조해 냄으로써 자기 자신의 일상적 활동과 현장지도자 및 후계자 양성 문제를 하나로 통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교육에 있어 먼저 중요한 것은 교육의 내용, 즉 질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다. 생명에 대한 존중과 사랑, 생명의 가치관, 세계관을 내용으로 의식화 시켜야 하며 협동적 생존의 확장의 가치인식과 더불어 현장 협동 활동을 조직 전개 할 수 있는 실천적 기능을 체득토록 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생명의 세계관, 가치관의 보편적 측면의 내용과 특수한 한 계층도 활동방법의 일반 보편적 측면과 특수현장의 구체적 특수적 측면이

함께 고려되고 양 측면을 구분과 연관의 원리에 따라 잘 배합해야 한다. 교육대상은 농민, 노동자, 빈민, 청소년, 학생, 가정주부 등 각 계층 모두에게로 확대하고 교육 계획 진행 임원들과 예컨대 농민회, 신협, 노동운동 단체, 교회 등에서 나와 공동으로 진행을 집행함으로써 총체적인 민중교육, 민중운동으로의 연결을 확대하고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교육의 질과 양에 있어서 양자의 관계를 역시 음과 양의 상관원리, 상호진화 원리 등에 입각, 그 관계를 조정해야 한다. 교육방법에 있어서 이제까지 지배적이었던 수직적 방법, 강의식 방법을 지양 또는 부수적인 것으로 하고 이제까지의 부수적 방법인 수평적 방법, 즉 그룹토의와 의견발표 등의 방법을 더욱 발전 심화시켜 전면화, 또는 지배적인 방법으로 변혁해야 한다. 활동자들이 생명의 세계관, 가치관 그리고 협동적 생존의 확장이라는 방향과 수동적 적극성 따위의 방법 등에 따라 민중 스스로의 잠재적 세계관, 가치관과 전통적 생존방식을 논리화 시킨 내용을 역시 수평적, 상향적, 확장적 교육방식, 교육 분위기를 통해 민중에게 되돌려 주고 민중 자신이 자기 자신의 잠재적인 생각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주체적으로 발전시키는 자기교육 방법을 교육방법의 골자로 해야 한다. 그들 자신의 개인사나 가족사 등 자기 이야기와 의견을 개방적으로 하고 싶은 만큼 하도록 하는 방법이 채택되어야 하고, 모든 면에서 자발성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시청각 매체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탈춤이나 민요, 굿, 놀이 등을 지혜롭게 활용하는 문화활동, 문화운동 측면을 강화하는 것은 교육의 효과에 있어 관건적인 것으로 될 것이다.

5) 오늘날과 같이 민중의 운명이 전변무상하고 모든 인간의 생존형식이 덧없이 바뀌는 시대, 사회에서 노동운동, 농민운동, 빈민운동 등을 고립적인 자기완결성을 가진 폐쇄적 단위로 인식하는 것은 오류다. 물론 특수성과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요구되는 것은 민중의 총체적 운명에 대한 민중 전체의 총체적 통일적 협동적인 운동의 인식이며, 민중 자신의 자발적인 그 조직 실천이다. 이것은 오늘날 생명과괴가 분리, 분열, 분할, 고립, 격차, 길항 등을 특징으로 나타내고 심지어 각 계층 운동권 내부에 있어서까지도 그룹 간에 단체 간에 불열과 고립, 분파주의 현상이 두드러지며 모든 인간이 요소화, 입자화,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 물질만능, 경쟁, 타인 도태 등을 가(假) 모랄로 받아들이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생명의 참된 존재양식은 협동이며 총체요, 통일이요, 친교요, 역동이다. 민중운동 특히 생명과 협동을 가치와 실천의 핵심으로 하는 민중운동은 마

땅히 총체적인 연대운동이어야 한다. 따라서 농민회, 노조, 신협, 소협, 노청, 사선 등은 전체적인 운동과정에서 협력과 연대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 유관단체들과 긴밀한 정보 교환 및 프로젝트 내용의 동일성과 호흡의 일치를 협의해야 하며 동일한 운동을 동시에 집행토록 제도적 보장과 자금지원 등 여러 문제들의 해결점을 협의하여 찾아야 한다. 생명운동은 또한 사회운동이며 동시에 영성운동이다. 따라서 여러 종교단체와 신구기독교회 및 수도단체나 수양단체들과 협력, 연대가 강화되어야 하고 다른 행동단체나 일반사회단체 및 기구와 연대를 강화하고 이것을 지식인, 청소년, 직업여성, 주부, 소시민, 상인, 군인, 학생, 언론인, 연예인, 실업인, 공무원, 문인, 예술가들 속으로 지속적, 적극적으로 확장시켜야 한다. 나아가 외국의 민중운동 및 교회운동, 생명보호운동, 평화운동 등과의 연대강화는 당연한 일이며 생명과 협동의 확장적 총체성이 그대로 요구하는 바이다. 이 모든 경우에 있어 조건은 가장 먼저 스스로 우리 자신들의 영성적 차원의 변화, 영적 능력의 증대, 즉 생명에의 귀의, 의식화가 얼마만큼 빛나게 이루어지느냐에 있다.

3. 각론

1) 농민

(1) 농촌은 마음의 고향, 대지는 종자를 보존, 성장, 확대하는 어머니이다. 농민은 생명을 길러내고 생명이 자기 기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게 하여 그 결실을 거두어 나누는 자, 곡식이 스스로 자라는 것을 옆에서 거들고 도와서 그 가운데 일부를 보상으로 얻는 자이며, 인간 동료들과 그 보상을 나누어 먹어 동료들의 생명을 확장시키는 자이다.

농업노동은 그 자체가 생명의 연속적인 창조과정의 진리에 일치하는 체험을 통해서 농민이 영성적인 삶을 살게 하고, 물, 햇빛, 토지, 공기, 계절의 변화, 농작물의 종자 등을 노동과정을 통해 그 능력이나 자원을 소모,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 확장, 성장시키고 상부상조적으로 협동하게 하며, 동시에 인간 동료와 협동하므로써 원초적으로 협동적 생존을 확장하는 노동이다.

또한 자연생명의 종자를 유지 보존하므로써 생명을 지속시키고, 자연 생명의

여백의 창조와 그 창조과정에서 협동적 생존을, 즉 각 생명고리들을 통합 교류 상호 적극적 접촉에 의한 자기발전을 능동적으로 조직하므로서 인간 및 자연생명 등 일체의 생명을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노동이다. 이것은 합법칙적이고 과학적이며 자각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이다. 따라서 생명의 세계관 확립과 협동적 생존의 확장이라는 새로운 민중적 세계관 확립운동을 전개함에 있어 농민과 농업은 원초적 의미와 그 전형을 보여준다. 농촌은 농민의 생산과 생존의 터전이며 더욱이 인간 동료와의 공동체적 생존의 근거이다. 농민은 자연과 우주, 신의 창조적 활동과의 일상적 접촉을 통해서 영성적인 해방과 협동적인 생존의 일상적인 전개를 통해 근원적인 생명체험을 하는 자이다. 농업은 인간전체에 대해 영성체험의 역사적 근거인 동시에 인간생존의 기본조건으로서의 식량, 목축 및 여러 가지 채취물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인간 일반의 사회적 생존의 근거가 된다.

이와 같은 농촌은 역사적으로 보아 토지에 대한 고대국가적 소유, 봉건제적 소유의 확대 과정에서 농민 및 인간의 생명체험과 농업노동, 농업생산의 협동적, 능동적인 생명 창조활동을 억압, 변질, 왜곡당해 왔으며, 자본제적 소유의 급격한 확대에 이르러 생명체험과 협동에 의한 생명창조 활동과정에 심각한 소외현상이 심화되었다. 농업소출이라는 결과가 목적 즉 교환가치로 전환되어 영성적인 생명 체험과 협동적인 생존의 확장이라는 농업노동의 근본이 도외시 되고 파괴되므로서 농민 자신의 영성과 농업생산의 사회적 연관이 병적인 상태로 기형화 되었다. 오늘날 인간노동의 특징적 내용이 되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우주 자연생명, 인간과 자아영성 사이의 분리 갈등은 소유욕과 소유 및 소유의 확대와 동시 쌍생아이다. 또한 인간과 자아영성,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사이의 분리는 소유욕과 소유 및 소유의 확대를 촉진하고 소유욕과 소유 및 소유의 확대는 인간과 자아영성,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사이의 분리를 가속시킨다. 양자는 하나의 현실이며 그 근원은 분별지의 시작, 즉 생명활동의 이원적 분리의 극대화로부터 시작된다.

자본제적 소유의 확대와 외래적인 매판적 산업화의 급속한 강요과정은 곧 농민 및 모든 인간의 생존의 터전인 토지로부터 농민 및 인간의 이탈분리 과정이며 영성적이면서 협동적인 근원적 세계관의 기초 담지자인 농민이 토지로서 표상되는 세계 자체로부터 뿌리 뽑힘으로서 인간사회 전체의 참혹한 소외현상이 가속되었다.

사회주의 사회의 농업문제 해결은 농촌, 농업, 농민의 문제는 봉건제 및 자본

제적 소유관계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고, 그 소유구조의 변혁, 지주적 내지 농업 자본가적 독점소유의 일반화로부터 토지의 전 인민적 소유, 전사회적 소유로 변혁시킴으로서 농민문제를 해결하려는 점에 있어서 농촌문제의 근본원인을 토지 소유에서 찾아낸 점, 그것을 변혁시키려 한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내려질 수 있다.

그러나 토지에 대한 고대국가적, 봉건제적, 자본제적 소유의 확대 이전에, 확대와 함께 확대과정 근처에, 노동주체인 농민과 노동대상인 자연 사이에 공동노동체인 농민들 상호간에, 농민 개인 내부 및 농촌 공동체 내부의 집단적 영성 속에서 줄기차게 활동해 온 유기적인 생명연관, 총체적인 생명체험이 가진 힘과 문제점, 그리고 그 안에 작용하는 근원적인 생명의 법칙과 진리에 대한 관점을 놓쳤거나 혹은 잘못된 인식, 그리고 그 잘못된 인식에 토대를 두어 농업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려 한 점에서 부정적인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또한 근본적으로 현대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구라파 사상의 선적, 형상론적, 역사주의적 세계관의 새로운 복제품이다.

공업생산력의 극대화에 의해서 역사를 진보시키고, 지주적 농업자본가적 소유를 전 인민적 소유, 전사회적 소유로 소유구조의 변혁을 통해 인간을 사회적으로 해방시킬 수 있다는 일면적 유물주의적 낙관론이 바로 그것이다. 생산력 증대에 있어서 생산력 등대 그 자체와 생산기술 및 과학의 활용은 바람직하나, 그것이 인간과 자연생명을 보존, 유지, 성장, 확장, 완성시키는 근원적인 생명운동의 진리에 일치하여 증대시키느냐? 아니면 그것을 역행하여 인간과 자연생명을 파괴 소모시키고 고갈시키거나 그 진리를 잘못 인식하는 방향에서 생산력 증대를 극대화 시키느냐에 차이가 있다.

사회주의 농업문제 해결은 그들이 내세우는 주장과는 달리 다분히 후자의 길을 걸음으로서 생산력 증대의 극대화 자체를 농업노동의 목표로 두고 인간의 사회적 해방을 소유의 사회적 구조의 변경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은 점에서 인간과 농민을 새로운 형태의 소유 집착, 개인 소유 및 집단 소유에 대한 이기주의로 둘러놓았다.

이런 점에서 사회주의도 또한 농업을 중공업의 우선적 건설이라는 공업중심주의에 예속시키고 희생시키는 세계관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생산력 증대는 농업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생명의 유기적 연관과 운동이라는 근원적 진리에 입각하여 농업생산의 유기적인 살아있는 노동 및 생산구조의 연장 확장 선상에서

해결되어야 하며 인간의 사회적 해방을, 인간의 개인 및 집단적인 생명체험의 개방 즉, 새로운 형태의 영성운동, 공동체 운동의 적극화에 의해서 소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함으로서만 성취시킬 수 있는 것이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제3세계의 농업문제 해결방법은 사회주의 방식이거나 자본주의 방식이고, 또는 양자의 희생물이 되고 있고, 다만 부분적으로 알제리, 탄자니아 등의 경우가 긍정적인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 경우들은 아직 진정한 근원적 세계관에 입각한 적극적인 운동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 경우에 농촌, 농업, 농민의 생명의 세계관에 입각한 생명운동의 옛 뿌리 혹은 새 씨앗이 민중 속에 살아있는 점이 지적될 수는 있으나, 봉건제(왕조)시대, 일제, 분단, 근대화 과정에서 생명파괴, 농촌파괴, 농업파괴, 농민파괴가 절정에 이르는 것이 나타난 현실이다.

남과 북이 이상에 적시한 현상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 또 하나의 현실이다. 그 원인은 소유 및 소유의 확대와 생산력 증대의 극대화와 공업우선주의적 세계관, 이기적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그 무비판적 답습에서 비롯된다.

(2) 토지의 사멸, 생태계 파괴, 비료, 농약, 비닐공해, 천적소멸, 식품잔류 독성 문제, 농산품의 창조적 개성파괴, 농촌공동체 분해, 가족 해체, 인간영성의 타락, 노동가치가 실현 안 됨, 사회적 소외, 전통문화의 상실, 외래문화, 도시문화, 소비문화, 지배문화에 의한 농촌문화의 파괴, 농민의 정체상실, 농촌 농업에 대한 희망 애착상실 고향상실, 토지와 생명적 친화감 연대감 파괴, 공동체적 삶 파괴, 절대다수 농민의 궁핍 농업노동의 생계유지 노동화 농업노동소외, 절대다수농민의 영세 소농화 소작농증가 독점자본의 투기목적의 토지소유와 그 확대, 원야, 임야의 독점소유로 농업생산과의 연관 단절, 토지제도 문제, 농업, 농지개량조합 등 농민관계조합의 관료화, 농민지배도구화, 도시화, 공업단지화, 관광지화, 골프장화, 댐건설 등으로 인한 토지의 상실, 생존터전의 파괴상실, 생태계의 변화, 비교우위론, 저농산물가격정책, 외국 농산물 수입정책, 격심한 이농, 청소년 장년 이동, 농업노동의 노령화 부인화, 농민건강악화, 증산일변도의 시책, 전시효과 행정, 공업중심의 경제개발 정책, 산업주의, 땅과의 생명적인 연대감 친화감 상실, 약탈농업, 제도 교육, 텔레비전 등 매체의 악영향, 관료주의, 흑백논리, 패배주의, 피학 가학증세, 학벌, 지벌, 족벌주의, 이기주의, 새마을운동, 주택개량, 물질주의, 출제주의, 권력금력승배, 도시동경, 자기비하, 팔자소관, 체념, 관광병, 봉건적 잔

재 유지조성, 농민의 증산도구화 등이 농촌, 농업, 농민에 있어서 오늘날의 생명 파괴의 실상으로 지적될 수 있다.

(3) 이제까지의 농민운동은 땅, 자연과의 연대성, 친화감을 회복하고 인간 동료와의 협동적인 노동과 공동체적 삶을 회복하고, 농민 스스로 자기정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유기농업, 생산협동, 구매 판매협동, 이용협동, 신용협동, 문화 활동과 정책, 제도, 시책 개선과 각종 농민조합 민주화, 부락 및 농촌사회 민주화를 위한 활동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와 같은 활동은 농민의 인간회복과 경제적 이익 실현, 정치적 권리실현이 그 동기가 되고 주된 관심사였다. 그러나 그 커다란 성과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가격과 경제적 처지개선이라는 농민운동은 생명의 세계관과 협동적 생존의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재평가 되고 농민운동의 동기와 목표가 재조정 부여되어야 한다. 정치적인 주장투쟁에서 시작하는 것 보다는 일상적인 내부적인 협동활동에서부터 시작되고, 스스로 먼저 대내적인 생명운동을 실천함으로써 대외적인 활동을 하게 될 때에도 권력실천이라는 관점보다는 전 사회적 협동적인 생존의 확장이라는 관점으로 동기가 재부여되고 재정립되어야 한다.

현재 농민운동의 당면과제인 외국농산물도입반대, 생산비보장, 조합의 민주화 등은 전사회적 공동체적 삶의 장애를 극복하고 공동체적 삶의 사회적 확장을 기하는 활동으로 재인식 실천되어야 한다. 땅과의 연대, 자신의 생명유지, 인간 동료와 나누는 과정에서 협동적인 생존을 확장해 가는 관점이 아닐 때 정당한 이익이 실현 안 되면 활동을 포기하게 되고, 실현되었을 때는 그 동기가 경제주의, 이기주의로 변질된다.

생명의 세계관을 확립하고 공동체적 삶의 확장이라는 관점을 가질 때, 농업노동, 농업생산 과정과 농촌생활에서 연대, 교감, 친교, 친화, 생명체험이 그들의 존재에 근거를 주게 되고, 끈질긴 희망을 갖게 한다. 또한 타계층과의 유기적 연관에 의해 협동적인 생존을 확장해 가는 과정에서 생명의 가치관의 사회적 확대를 가능케 한다.

우리나라 농촌 공동체의 민중적 지혜와 노동 및 생활체험 가운데는 토지를 살아있는 생물로 보고 물과 바람과 대기 및 그늘, 변화하는 기후와 계절, 풀, 곡식, 벌레, 미생물, 짐승들을 하나의 총체적인 통일된 생명체로 인식하고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일체 생명을 신령한 것으로 존중하는 전통과 이웃을 한 형제 가족처럼 가깝게 느끼는 전통 속에 이미 영성적이면서 공동체적인 세계관이, 생명의 세계관

과 그에 입각한 전 사회적, 전생명계적, 전우주적 생존의 확장이 농업노동, 생활, 삶의 근원이 되고 있다. “품앗이”와 “두레”에 협동적 생산 활동의 전형이 있으며, “대동국”에 영성적이면서도 공동체적인 생존의 전형뿐만 아니라, 생산노동과 집단놀이, 일상생활과 신예의 전례, 개인생존과 사회적 생존의 통일적 인식 및 실천, 우주자연의 운동과 인생변화의 일치된 파악, 삶과 죽음과 부활의 운동으로서의 범생명의 파악 및 그에 대한 합일, 사회적 대화이면서 생명의 자기 순환, 가지회복 및 창조적 확장으로서의 말과 춤과 음악의 유기적 기능의 인식과 그 실천의 전형이 있으며 이것과 더불어 민요일반과 노동요, 가사, 민담, 속담, 격언, 수수께끼 등 일체 민중의 구비전통 문화 가운데, 그리고 지금 활용하고 있는 전통적 농사방법 일반 속에 이러한 유기적 세계관의 전형이 있다. 이와 같이 농업생산 관계 속에, 노동체협 속에, 농촌 공동체 삶 속에, 농민문화 속에, 농민의 지혜 속에 숨겨진 채로 드러나 있는 생명의 세계관과 공동체적 삶의 확장이 드러나고 실천되며, 농민운동의 중심으로 되어 확장되고 나아가 전민중운동, 전사회적인 삶의 중심으로 되어 확장되어 갈 때 전사회적인, 전생명계적인, 전우주적인 생명 파괴를 근원적으로 극복할 수 있게 된다.

(4) 이러한 생명운동, 협동운동의 전개 확장에 장애가 되는 문제점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지적된다. 산업 우선주의병폐, 공업우선주의의 팽배, 농업천시풍조, 국내의 독점자본과 관료의 결탁, 경제제일주의, 경제개발정책, 농민관계조합, 단체들의 반농민적 관료성, 농업희생정책, 외국농산물 수입정책, 여러 가지 형태의 농민운동, 집단에 대한 이해부족, 그릇된 식품선호 문제, 농민 및 활동단체의 생명의 세계관 및 협동적 생존확장에 대한 이해부족

(5)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예상된다. 기존 활동, 운동에 새로운 동기와 새로운 민중적 세계관, 가치관, 운동관을 부여해서 변화를 촉진해야 한다. 농민자신이 생명의 세계관을 확립하고 협동적 생존의 확장을 실천함으로써 농업관, 농민관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기존매체이용, 반매체 개발, 활용, 현장의 모임, 교육 활동, 농촌공동체 문화회복 활동을 통해서 의식의 변화를 확대시켜 간다. 생산, 이용, 구판, 신용 등 각 분야의 협동 활동을 적극화하고 확장해 감으로서 이웃농민 공동체들과의 협동적 생존을 확장해 가야한다.

유기농업, 자연농업, 확대를 통해서 땅의 생명력을 되살리고, 먹이사슬의 끊어진 고리들을 회복시키고 농민과 자연의 상관관계, 교호관계, 친화감, 연대감을 회복시켜 나가야 한다.

농산물의 개성을 살리고, 건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도시민에게 공급하는 활동, 농촌 공동체와 도시공동체의 만남과 나눔을 통하여 하나가 되는 활동을 확장해 가야 한다. 안전하고 건강한 식탁확보 운동이 그 일환이다.

농민운동은 노동운동, 여러 계층의 민중운동과 통일적인 생명운동, 협동적인 생존의 확장운동으로 연대해야 한다.

교회의 복음의 핵심은 생명이다. 농민의 근원적 세계관은 생명이다. 동양 전통적 지혜의 핵심은 생명이다. 따라서 농민운동, 생명운동을 적극화함으로써 교회는 동양정신과 결합할 수 있고 제3세계와 인류에 대한 생명의 메시지가 가능해질 것이다.

2) 어민

(1) 어민은 생명을 건져 올리고, 키우고, 보호하고 나누는 자, 생명의 전환을 통하여 전체 생명의 확장, 해방, 완성에 봉사하는 자이다.

생명엔 핵과 여백이 있는 바 그 생명의 여백을 채취하여 먹이 사슬에 관여, 큰 고리로 전화하는 과정이 생명의 본성인데 어업, 채취 노동은 이 여백, 이 먹이사슬과 이 전화과정에 적극적, 능동적으로 관여하는 것이다.

인간과 고기가 친화하는 과정이 바로 채취이다. 먹고, 나누고, 나누는 과정에서 장이 서고 하는 과정 자체가 노동을 통해서 전일체적, 유기적, 생명활동을 능동적으로 적극화하는 것이다. 또한 종을 파괴하지 않고 어류를 풍성히 하면서 보호하고 여백을 창출해서 채취한다. 어민과 바다와 고기간의 연관, 친교, 연대성, 생명적 친화 속에서 먹이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로 생명력을 충전시키고 그것을 나누어 먹음으로서 생명의 교감을 체험하고 집단적 생명으로 확장함으로서 또한 먹이사슬이 확장되고 생명의 순환이 활성화된다.

(2) 이기적인 인간중심주의가 소유와 독점, 그 확대와 전면적 이익추구로 나타나 자연파괴, 바다의 생태계 파괴, 생명의 순환을 단절시키고 생명파괴를 초래하며 인간과 바다 간의 교감, 연관, 친교, 친화력, 연대성을 파괴하고 어민과 고기

간의 생명적 친화, 연관을 파괴하고 고기와 사람을 동시에 물질화 시킨다. 독점 자본은 현대 어로기술, 장비, 탐지기술 등을 총동원하여 남획결과 어자원 전체를 고갈, 멸종 위기에 몰아넣고 있으며 어장의 독점, 어로 채취권의 허가제, 소유, 독점, 판매, 공급의 제도적 통제 등으로 맘대로 못 잡고 맘대로 못 판다. 따라서 절대다수의 어민에게는 바다가 그들의 참된 삶의 터전으로서의 바다, 생명을 키우는 바다가 아니라 단순한 생계수단으로서의 어로 작업장으로 변해간다. 점차 바다와 멀어지고, 바다와 어로활동, 생업자체에 진저리를 내게 되며, 풍요한 생명의 바다가 한낱 구경의 대상으로 전락되고 있다.

절대다수의 어민의 계속적인 궁핍, 어로 노동의 소외, 생계유지 노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절대다수 어민이 생산자의 위치에서 어업노동자로 전락한다. 수협은 법과 제도에 의해 어민의 생산과 생활을 보장하는 기구가 아니라 그들 위에 군림하는 횡포의 도구로 변해 버렸다. 그 결과 인간과 삶의 터전으로서의 바다와의 연관, 친교, 연대성, 친화성은 파괴되고 어민의 고향상실, 정신분열, 정체상실, 협동적 생존터전 상실이라는 전면적인 분열, 상실현상이 지배적 현실로 되었다.

어업에 있어서 과학, 기술의 문제는 그 사용방향, 동기에 좌우된다. 현존어업에 있어서 과학, 기술의 문제는 그 사용방향, 동기에 좌우된다. 현존의 해양과학, 조류학, 어로장비, 기술 등은 인간과 고기, 물과의 관계를 죽음과 관계로 만들고 있다. 과학과 기술의 성과 자체는 인정하지만 그 사용방향과 동기가 바뀌어야 한다. 어업관련의 과학, 기술이 반생명적 방향으로 발전함으로써 자연과 바다에 친화된 인간의 오랜 지혜가 전면적으로 무시되고 있다. 어촌 공동체가 파괴되고, 모두가 경쟁관계로 변화했으며, 어민 스스로 협동적으로 생산, 공급하는 삶을 상실하고 파괴당하고 있다. 인위적인 남획과 멸종위기가 양식을 대두시키고 있다. 단순히 이익추구만을 동기로 하는 이러한 양식방법은 물기기와 패각류, 해초류를 기형화시키고 그 본래의 생태를 파괴시키고 흐름을 차단함으로써 천연의 맛을 상실시키고 물고기의 생명을 파괴하고 공해를 발생시킨다.

이기적인 민간중심, 공업중심 풍조가 바다의 오염과 공해, 생산공해, 생활공해, 관광공해, 전쟁공해, 석유공해, 농약공해, 비닐공해, 공장폐수공해를 유발시켜왔고 공업중심, 편리위주의 국토개발(댐 등) 결과 기존 생태계 파괴, 새로운 생태계 출현, 풍토병 발생, 물 자체의 부패, 프랑크톤 전멸, 서식어류의 멸종 등을 낳았다.

식생활의 편리위주 경향, 장기냉동보관, 필요한 건전한 식생활의 형태가 아닌 입맛위주, 과잉영양 등을 위한 욕심에 의해 대량 남획이 불가피한 현실이다. 편

리, 욕심, 정력 숭배가 지배적 유행으로 되어 건전한 식생활의 실질적 파괴, 신선한 어류를 과도하게 소비하는 식생활의 기형적 확산을 만들었다. 인간 육체의 왜곡에 따른 질환의 속출은 이 같은 정력숭배와 기형적 식생활의 결과다. 또한 어촌, 어민 공동체의 문화는 바다와 노동, 전통과 현재의 삶이 하나로 되는 생산적, 공동체적 문화, 일과 놀이가 하나 되는 문화가 아니라 외래문화, 도시문화, 소비문화, 지배문화의 유입범람으로 잡문화(雜文化)의 형태가 되었으며 또한 어촌에서 계속되는 불구자, 과부, 고아 등의 대량 출현의 양태와 그들에 대한 대책 부재는 심각한 문제다.

(3) 생명의 교감 체험과 전화, 순환, 완성과정에 대한 진실한 인식에 입각한 생명의 확립과 바다, 어류, 어민과 이들의 공동체와 이들이 제공하는 신선한 수산물을 먹는 인간 동료들과의 근원적인 협동활동을 능동적으로 적극화 하는 데서 생명파괴를 전면적으로 해결, 극복하는 것이 가능하다.

어업종사자들, 어민 자신의 생명의 실상에 대한 인식, 바다와의 교감에 입각해서 어촌, 어업에 있어서의 독점과 소유문제도 해결토록 활성화 하고 어민 주체적인 어협, 수협의 공동체적 삶의 확장이 백방으로 촉진되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타계층과 협력해서 정책 등에 변화를 가져 오게끔 연대적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어촌의 전통과 어민의 노동생활에 기초를 둔 생산적이며 영성적인 공동체 문화의 회복 또한 반드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문제다.

3) 이농, 도시빈민, 서비스부문 종사자

(1) 생산계급이면서도 그 결과를 수렴하지 못하고 뿌리 뽑힌 계층, 극도의 소외, 불안, 방황, 동요 등이 극대화되어 있는 계층, 역사와 생명의 전위이며 주체이면서도 역사적, 사회적, 영성적으로 잘못된 세력, 경향 등에 의해 그 영성 및 사회적 생명이 전면적으로 파괴된 전형, 분해되고 분열되고 천시되고 박탈당한, 밑바닥 계층이 바로 이들이다.

이농은 서구의 세계 지배의 산물이며, 잠재적 유민상태로서 이러한 문명의 그늘 아래서 세계도처에 이러한 운명의 형태와 집단이 확대되고 있다. 구조적 압력에 의해 재래적 생산활동의 기반으로부터 뿌리 뽑혀져서 새로운 생활토대를 확보, 그 토대에 안정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동요, 분열, 분리되어서 사회적으로

파괴당하고 생명과 영성이 적나라하게 부패되고 있으며, 생명에 대한 인식도 희미해지고 각종 각양에서 윤리적으로 붕괴되고 있다. 극단적 범죄, 도박, 마약, 알콜, 매춘, 폐결핵, 정신질환, 위장, 간, 진장 질환, 주체, 정체상실, 그날그날의 생존의 압력, 이농 후 도시 생활에의 적응력 결핍, 도시생활의 경제적 부담의 가중, 심리적 억압 및 혼란증대, 사회적 소외의 심화, 주거조건의 협소화에 따른 인간관계의 윤리적 문제, 문화 양태의 변화에 따른 감수성의 평형 파괴, 위생문제의 심각한 위협, 뿌리 뽑힌 채 끊임없는 동요 속에 있음으로 해서 나타나는 희망과 계획의 불가능성, 생명파괴의 극대화된 상태, 공동체적 삶의 완전해체, 가정공동체의 분해, 개인 입자화, 정신분열, 증오심 적대감의 극대화, 외부접근자 불신, 도생주의, 내부분열, 상호 분해, 폭력지향적 성향의 일반화, 강자를 적으로 간주하면서도 존경하는 심리적인 분열, 생산기초로부터의 이탈, 천태만상의 생활방법으로 인한 조직화의 난점 등이 그 특징으로 지적될 수 있다.

극도의 소외와 생명파괴를 경험하는 중에 끊임없는 직접전환, 실업, 빈번한 이동, 분해, 분열, 상호적대, 불신, 윤리적 타락, 동요, 불안, 범죄가능성, 적응거부 등이 심하면 심할수록 생명 회복에의 잠재적 갈망이 크다. 동시에 폭력, 범죄 및 폭동의 가능성도 크다. 폭력적 파괴의 반대급부가 확산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내연할 때는 윤리적 타락, 자기비하, 자기분열로 나타난다.

자기 안에서 무규정적으로 움직이는 유동성과 내부분열 하는 그 근원적인 폭력적 힘에 생명의 저항성이라는 표현을 주고 그 힘의 연소방향을 전환시켜야 하고 생명운동의 가능성을 스스로 자각케 해야 하며, 강패들에게도 소속감과 소속단체가 있듯이 각각 조건의 특수성에 따른 여러 형태의 소집단으로 묶어서 소속감을 주고 서로 상부상조토록 축성해야 한다.

도시빈민의 속성은 단결력이 없고 돈과 권력에 약하고, 그룹화, 조직화보다는 급격한 변화를 빨리 보여줘야 한다는 점과 온건한 진행 중에서의 문제해결이 아니라 반생명현상에 대응하는 긴장감 있는 대응형태를 바란다는 점, 그리고 이들은 숫자가 많고 매우 다양하면서도 일치하게 극단적이라는 점 등이 심각한 고려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폭력 혁명적 방법이 아니라 참된 의미에서의 근본적인 인간혁명을 목표로 하는 진정한 종교운동이 이들 속에서 일어나야 한다. 함께 부대끼면서, 같이 살면서 그 폭력성을 조절 지양하여 영성적 차원으로 끌어 올려서 모든 자신의 당면문제들을 협동적으로 해결하도록 축성해야 한다. 자기 전체를 그들 속에 집요

하게 헌신하는 사람들의 지속적 희생에 의한 운동이라야 이 부분의 운동은 가능하다. 극단적인 파괴현장이기 때문에 혁명적 방법은 오히려 악순환이 될 뿐이다. 끈덕지고 열렬하게 인격적으로 신뢰를 획득하여 인간 내부의 질적 비약을 모색하도록 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회복해야할 바람직한 인간의 생활상이 생생하게 창조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즉 그들과 완전히 하나이면서도 오류 없는 모범의 제시가 강력히 요구된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은 매우 신중, 예민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일거리와 수입, 주택, 위생, 자녀교육, 생존의 자신감, 공동체의 소속감, 무명성(無名性)에서의 해방.

바로 이러한 것들을 스스로 획득하도록 해줌으로써 진정한 교회가 그들 속에 건설되어야 하고 또 건설될 수 있다. 여러 형태의 자생적 집단들에게 바람직한 새생활에 대한 새로운 동기 부여의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 산업노동자, 서비스, 3차 산업 종사자, 이농민, 실업자 모두가 이리저리 복잡한 형태로 혼효돼 있기 때문에 교회도 진정한 투신과 모험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교회의 기존 빈민운동 쪽에 생명의 가치관을 축성해서 확대하는 방안이 찾아져야 한다. 예수의 제자들은 세리, 창녀 등 불가촉천민이었다는 복음의 내용은 바로 이 거대하고 복잡한 민중집단에 대해 교회와 모든 민중운동 활동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결정적 암시를 제공할 것이다.

(2) 이농과 인구의 이동 및 유동은 현시대 특히 한국 사회의 중요한 특징적 현상이다. 이농이나 직업전환을 단행하지 않아도 모든 민중이 심리적으로 이미 자기의 생산과 생존 토대에서 뿌리 뽑혀 있다. 이 덧없는 인간운명의 전변과 유민 현상에 대응하는 활동은 농촌, 광산, 어촌, 도시 어느 곳의 민중을 막론하고 통용될 수 있는 총체적인 가치관과 보편적인 생존방식을 깨닫고 익히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은 생명의 세계관을 확립하고 협동적 생존의 확장을 어느 곳, 어느 환경에서든지 실천 체득하도록 해야 한다.

이농민에 대해서 그들의 가치관을 포기하지 않은 채 발전적 지양을 통해서 도시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시적 삶과 농촌적 삶의 차이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앞으로 모든 계층의 운동이 총체적인 민중운동으로 연대 통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4) 산업노동자 일반

(1) 노동자는 생명을 캐는 자, 생명의 가공자, 창조자이다. 잡자는 생명의 에너지를 일깨워 인간을 위하여 봉사하게 함으로써 산천초목 등의 많은 실존하는 생명의 보존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자이며 생산이 이 생명보존 확장과 모순 될 때 이 모순을 가장 예리하게 느끼고 반발하는 자이다.

왜냐하면 그는 노동을 통해서 대지의 총체적 생명에 친화해 있기 때문이다. 목재, 광석, 철, 석유, 아연 등이 땅, 산림, 들판에 있는데 이것을 채취해 올릴 때까지는 그것은 적극적으로 활용됨으로써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상태는 아니다. 이것을 타생명과의 관여를 확대시키는 과정에서 정태적으로 원료상태에 있는 상태적인 잠으로부터 깨어나게 하고 적극적으로 활동케하는 자가 바로 채취노동자다.

생산재 생산 노동자는 원료가 가진 생명력을 가공해서 활용이 되도록 만들어 인간에게 이용되게 하고 실제 생활에서 인간이 그것을 활용토록 한다는 점에서 스스로 적극화되기를 기대하는 생명에게, 여러 공정으로 통해 질적 변화를 주어 생명의 순환, 전화를 적극화시킴으로써, 생명의 확장, 축성 변모를 현실화 하고, 또한 협동적으로 생산하는 자이며 노동력이 외화 하여 만든 가치를 자기와 인간 동료에게 되돌리는 자이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과 재료 및 생산재 상태의 타생명의 해방을 체험하는 자이다. 또한 현대 세계에 있어서의 노동자는 창조적 생명활동에 동참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생명을 소외시키고 분열시키며 인류와 세계의 생명을 파괴시키는 모순된 존재이다.

(2) 근로조건인 지속적인 악화, 근로시간 연장, 작업량과다, 혹사, 기계의 노예화, 물건을 새것을 만드는데 그것을 만드는 노동자는 걸레가 되나오는 모순, 일반화된 노동소외, 전자 기구에 의한 인간 노동의 고용축소, 저노임정책, 노조의 어용화, 민주노조 부재, 노동삼권박탈, 산업재해, 속도 전략에 의한 초과노동, 가난, 생활고, 인간성의 상실, 노동과 인격의 상품화, 주택문제, 건강문제, 해고, 민주적 자율적 협동적 활동의 제한, 파괴, 유기적 협동생산의 파괴, 협동적 생존의 파괴가 오늘 이 땅 노동자의 일상적 현실이며 자원을 소모, 고갈, 파괴하고 자연 환경오염, 공해, 생태계파괴를 유발하며 무기, 핵무기, 극독물 농약, 유해성 식품 등으로 생명을 파괴하는 공업 생산노동에 스스로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생명과 전체 생명을 파괴하는 데에 공범으로 일함으로써 반생명적인 힘의 활동에 편입되는

극심한 자기파괴, 자기소외를 경험하는 것도 또 하나의 일상적인 현실이다. 또한 역사적, 사회적 생명 활동의 적극적 주체인 노동자가 창조한 생명 자치가 마땅히 그 가치를 되돌려 받음으로써 확대 재생산을 통해 더욱 더 창조적 생명활동을 해 나갈 노동자에게 수렴되지 않는 현상, 즉 소외는 한마디로 확장, 수렴, 외화, 회귀의 생명 본성이 어떤 악마적 세력, 경향에 의해 차단, 파괴, 약탈당하고 있는 현상이며 이것은 전 세계 특히 제2세계와 더불어 한국 노동자의 생명파괴의 일상적 현실이며 제3세계 자본주의 사회 모순의 일반적 양태이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세계혁명을 향한 초과노동이 일상화되고 있어 역시 자본주의 사회와 마찬가지로 총체적 생명의 일부인 노동자 자신의 생명과 타 생명을 파괴, 분열시키는 소외노동에 빠진다.

노동자의 무기, 초무기 등의 대량 생산 공정에서의 참여는 세계혁명 따위 추상적인 목표 따위에 의해 합법화 될 수 없는 명백한 생명파괴의 공범적 죄과로 된다. 따라서 오늘날 전 세계와 제3세계 특히 한국 노동자들의 이 같은 생명파괴는 이중삼중의 복잡성을 띄우는 전문명사적인 모순의 결정적인 자기폭로의 양상이다.

(3) 노동관의 핵심이 되는 가치관의 변경이 필요하다. 생명의 세계관과 협동적 생존의 확장이라는 세계관, 가치관, 노동관을 확립해야한다. 생명의 보호, 성장, 확장과 타생명과의 유기적 연관 하에서 참된 노동관이 확립되어야 한다. 앞으로의 노동운동은 건설되어야 할 세계의 미래에 대한 바람직한 상을 지니고 전면적인 생명파괴에 대해서 전면적인 생명운동의 관점에 입각, 탄력성 있게 대처해 나가야만 그 창조적 역할과 함께 현실의 극악한 제반조건에서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임금중심의 경제주의, 정치투쟁 중심의 일면적 운동은 비판되어야 하고 생명운동으로 그 관점의 변경이 일어나야 하며 노동자 자신의 창조적 역할과 동시에 반생명적 활동 가담에 대한 명백한 각성이 병행돼야 한다.

(4) 생명의 가치관 및 세계관과 산업, 공업과의 관계에 대한 물이해, 공업우선주의의 팽배와 국제적 독점, 국내적 독점의 관료결탁, 노동관계악법, 노동운동에 대한 이데올로기 편향, 경제주의(임금, 이익추구), 생명의 본성과 생명의 품위에 대한 인식부족, 노동자의 생활총체에 대한 이해부족, 노동자의 개인사에 대한 관심결핍, 통일적이고, 총체적이며, 전인격체적인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노동자 이해부족, 노조단위, 계열별 투쟁단체의 한 소속분자로서 일면적인 노동자파악, 민중

운동, 활동 집단에 대한 이해부족 등이 이 같은 해결방향에 있어서의 문제점이다. 새로운 노동운동의 시작이 필요하다. 자기의 삶을 새로이 구상하면서 그 삶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총체적으로 해결하는 새로운 노동운동에로의 기본관점의 변경이 필요하다. 이것이 없으면 집단 운동 안에서 자기인격이 보장되는 것은 필연적 결과다. 사회주의 사회 내에서도 이 점이 해결 안 되고 있다. 노동자 자신이 모든 현실과 사태의 실상과 본질을 파악하고 활동해야 하며 근원적인 용기가 발생할 수 있도록 노동과 노동운동에 대한 관점이 확고해져야 할 것이다.

새로운 것만 계속 찾을 때 낡아빠진 세대론에 봉착한다. 사람만 계속 교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5) 노동조합운동은 이제까지와 같은 임금, 노동삼권을 주 문제로 하는 주장투쟁을 하기 어려워진 반면 신협 등의 협동조합 활동은 활동에 활기가 있다. 단위 노동조합이 한 기업체 안에 폐쇄되고 제한되는 반면 협동조합활동은 단위의 제약성, 폐쇄성에서 벗어나 총괄적인 활동을 통해 민중의 총체적 생활에 관련을 맺을 수 있다. 그리고 노동조합을 통해 다른 산업노동자와 신협을 통해서나 소비조합을 통해서 다른 계층의 민중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이 모든 특징들을 종합하여 생명의 세계관과 협동적 생존의 확장이라는 방향을 그 지역의 모든 민중, 노동자 민이 아니라 영세상인, 부녀자, 아동, 다른 산업노동자와 다른 계층의 사람들 전체의 총체적인 생존에 있어서의 일체의 생명과괴 현상에 대해 통일적이고 단합되면서도 다양한 생명운동을 전개할 수 있으며 또 해야 하고 그 과정과 총체적인 생활적 협동운동을 각계각층 민중들 속에서 광범위 하게 벌일 수 있고 또 벌여야 한다. 이 문제는 산업노동자들의 공장 밖에서의 생활 총체가 일반적인 도시 빈민권에 속해 있고, 그들의 가치관과 생활감각은 그 기초에 있어서는 농촌적이면서도 그 외피에 있어서는 도시 빈민적, 소시민적 또는 룸펜적 소비 지향적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는 점들과 연관시켜 볼 때 문제의 심각성과 아울러 문제 해결의 가능성의 씨앗도 찾아낼 수 있다는 희망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또한 이 활동은 다른 도시의 다른 부분 노동자나 여러 가지 다른 계층의 민중과 통일적인 생명운동, 협동운동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고 또 확장해 나가야 한다.

오늘날과 같은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의 대변동, 그 자체에서 끊임없이 민중의 총체적 역량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긍정적 징후들을 분석하고 활용해야 하며 근로자들의 역량성장의 전화위복적인 계기를 발견 활용해야 한다. 비록 사

용자 측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활동 속에서도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가장 반생명현상이 판치는 바로 그곳에 그 현상을 타개할 열쇠가 있다는 것을 믿고 노력하는 것과 그곳에 나타난 반생명 에너지를 생명에너지로 전화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은 노동자 문제 해결에 있어 하나의 열쇠가 될 것이다.

5) 광산 노동자

광산노동자의 그 노동과 활동의 의미는 산업노동자 일반의 경우와 그 기본에 있어서 일치한다. 광산은 생명파괴, 반생명현상이 집중적으로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현장이다. 즉, 생명파괴가 밀집된 지역 내에서 총체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노동운동과 사회활동의 일반적 방향과 방법은 광산의 경우에서도 원칙적으로 전혀 동일하다.

6) 여성

(1) 여성은 가족생명의 출산자, 양육자, 보호자, 매개자, 위안자, 수렴자이다. 따라서 여성은 생명의 세계관에 서서볼 때, 근원적으로 창조적 생명활동 및 생명운동의 가장 중요한 전위적인 담지자이며 반생명 경향에 대한 생명본성적인 저항에 있어서 최전선이라고 할만하다. 인간의 본성과 심층심리 안에 뿌리 깊이 활동하고 있는 생명근원 및 고향에의 향수는 구체적으로는 어머니, 또는 여성에 대한 깊은 감정복합의 형태를 띠고 있다. 바로 이 점이 자각적, 적극적으로 인식되고 그 인식을 확장한다면 문명전체와 인간의 사회적 의식에 중요한 평형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은 대지와 창조와 생산의 이미지로서 생명의 동의어라고까지 부를 수 있다. 또한 역사적으로나 현 우리사회에 있어서 여성은 가장 나쁜 조건에서 가장 부담을 많이 짊어진 노동자이다.

(2) 성차별주의, 가부장제적 제도, 구조, 관습은 가정과 사회와 교회에서 철저하게 전면적으로 여성의 생명을 파괴한다. 봉건적 가족 구조 속에서의 비인간화, 억압, 속박의 제물의 표본이 여성이다. 기존의 법률, 관습, 규범, 관례에서의 여성 차별은 일반화된 역사적 모순이다. 임신중절과 낙태의 반복, 영아살해의 합법적

보편화, 피임약 남용, 소과수술 남발에 의한 여성생체의 파괴는 오늘날 생명파괴의 가장 직접적이고 근원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남성의 성적 요구의 대상화, 남성의 노리개감화, 여성 스스로의 인간적 품위 상실도 또한 보편화되어있는 생명파괴의 전면적 현실이다. 남녀불평등, 사회활동 기회의 제약, 노동에 대한 차별 평가와 차별대우, 여성자신의 자기비하, 패배의식, 열등감, 팔자소관, 주체성 상실, 숙명주의, 그리고 그 반대 콤플렉스 표현으로서의 남성에 대한 여성 도전 형태의 현존 여성해방운동 등은 모두 다 음양과 태극이라는 총체적인 생명균형을 파괴해온 오랜 가부장제적 문명의 역사, 사회적 모순의 심각한 결과다.

(3) 여성의 모든 성차별에 따르는 질곡으로부터의 해방은 전체 인간과 생명의 본질적 질곡으로부터의 해방과 그 뜻과 목적이 완전히 일치한다. 여성 해방이 무절제한 자기 방종이나 여성의 남성화인 것처럼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 여성은 여성으로서의 독자적인 역할과 특성적 기능이 있으며 이러한 기능의 자각적인 수행속에서 그와는 다른 독자적, 특징적 역할을 수행하는 남성과의 평등, 평화, 균형, 조화, 배합과 통합 그리고 인류와 생명계 일반의 평화가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이다.

가사노동, 주부노동, 가족 공동체와 어머니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혁명적 평가변화가 있어야 한다. 바로 이러한 혁명적 평가변화에 의해서만 여성해방 여성노동의 창조적 방향과 참된 가치가 드러날 것이며 사회전체의 문화적 평형과 새문명의 기틀이 열릴 것이다.

여성문제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은 생명운동에 있어서는 여성들이 오히려 남성보다 더 열성적인 입장에 서야 한다는 점이다. 생명이나 협동이나 모두 음이 그 기본이다. 즉 총체성과 조화성이 그 본질적 측면이다. 미래에 도래할 생명과 협동의 시대는 부드러움, 관대함, 사랑, 조화, 포용, 행복, 화해, 친교, 자비, 평등, 자유와 해방, 통일의 시대다. 여성들은 명실공히 생명과 협동운동에 있어서 남성과 상보적 역할을 맡아야 하고 또 맡게 될 것이다. 생명운동에 있어서 여성들의 적극적 활동이 줄기차게 가열되어야 한다.

7) 청소년

(1) 청소년은 생명은 신선성, 발랄성, 역동성, 가능성, 순결성, 친화성, 자율성, 진리지향성 등이 굳은 껍데기를 쓰지 않고 그대로 눈에 보이는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생명 그 자체이고 동시에 커다란 위기를 경험하는 시기이다.

옹게 성장할 가능성도 크지만 감염의 가능성, 일탈의 가능성도 크다. 지극히 생명적이지만 반생명적인 악마적 경향으로 빠져 버릴 가능성도 있다.

(2) 방향, 반향. 기계 및 전자장치에 대한 매혹, 폭력, 찰나주의, 쾌락주의, 편리주의, 정신적 분열, 피억압심리, 로봇, 컴퓨터, 우주전쟁, 마징거제트, 광고 등은 청소년들에게 침투력이 강하며 그 본질은 생명 파괴적이다. 도시생활의 리듬, 욕망충족에 대한 병적인 집착, 서구문명과 서구적 생활, 외국취향에 대한 일반화된 동경과 모방 등이 청소년 속에 나타난 일반적인 생명파괴의 실상으로 지적될 수 있다.

대중 매체는 청소년에 대해서 생명 파괴적 과학기술 문명의 경향, 산업주의 세뇌, 경쟁심리, 이익추구, 영웅심리(인기인 숭배), 폭력, 권력, 소비, 물신숭배 등을 조장한다.

성문제에 대해서 호기심 강하나 처리할 능력이 없는 청소년에게 일방적으로 호기심만 자극하며 장애에 부딪친 생명의 본성적 저항의 동기를 여러 가지로 왜곡해설, 주입시킨다. 제도교육은 그 내용에 있어서 분단사고, 흑백논리, 물량주의, 민족이기주의, 산업화 제일주의, 실천적 유물론, 편리주의를, 그 방법에 있어서 교육과정의 비민주성, 엘리트주의, 입시제도 상의 질곡 등이 본질적으로 통합적인 인간이성과 감성, 판단, 정서 등에 분열을 조장하고 반생명적 세계관을 주입시키며 반생명적, 물질주의적, 약육강식적, 경쟁적, 폭력적 가치관으로 세뇌시키고 있다.

일반사회는 그 경험과정을 통해서 일반화된 부정부패, 기만, 입신출세주의, 경쟁, 독점, 폭력, 빈부격차, 저소득층에 대한 멸시, 고소득층에 대한 숭배, 관료주의, 외래상품 선호 등 왜래풍조, 혼음문화, 잡문화, 관광병, 무분별한 성개방, 도시중심주의, 대형화 숭배, 도생주의, 불신, 사회적 적의, 극단적 이기주의, 시대착오적인 충효관념의 강요와 세뇌, 학벌, 지벌, 족벌 중시(봉건잔재와 엘리트주의)의 풍조를 청소년에게 무분별하게 후안무치한 형태로 감염시키고 있으며 가정은 가

족공동체의 실질적 분해, 정서적 경제적 분열, 형식적 부권, 가정부화, 가출, 각기 독립적인 생활권 확대, 제사(祭祀) 퇴화, 통과의례 부재, 가족의 위기극복의 단합된 유기적인 체험 결핍 등을 청소년에게 선사하고 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다 음과 같이 네 가지로 지적될 수 있다.

① 생명의 본성으로서의 세계 내 생존양식, 지식, 지혜, 기술, 소망, 판단 등의 세대전승성 파괴(전통단절, 파괴)로 결과적으로는 생명의 연속성이 파괴되고 있 다.

② 전 사회공동체 파괴 분해, 특히 전통적인 농촌 공동체의 급격한 해체와

③ 무분별한 외래 물질문명의 유입 확산

④ 그리고 분단시대의 특징적인 사회병리의 영향 등에 의한 사회적 생명의 장 기적이고 광범위적인 전명 파괴 등이 그것이다.

(3) 생명의 세계관, 가치관 확립과 협동적 생존의 확장으로 이 모순들을 지양, 극복해야 한다.

생명의 본성으로서의 세대전승성을 사적, 공적, 개인적, 집단적, 가족, 사회, 교 육, 매체와 문화일반을 통해 새로운 형태로 회복 강화해야 한다.

공동체적 삶을 확장해 가야한다. 공동체적 삶은 가부장제와 공존 할 수 없다. 봉건제적 잔재 및 질곡을 청산함으로써만 생명의 본성에 입각한 진정한 공동체적 삶이 가능하다.

생명의 파장이 가시적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사회적인 공동체이고 가족공동체 는 그 최소단위이다.

가족공동체가 생명력이 있으려면 마을 공동체 및 사회공동체와 그 양식 및 그 질적 가치내용의 변화에 있어서 확장과 수렴의 긴밀한 상관관계가 전제되어야 한 다. 즉 소공동체는 더 큰 공동체로 확장되고, 큰 공동체는 소공동체를 질적 변화 를 시키는 긴밀한 상관관계를 유지해야한다.

가족 이기주의와 한편 가족공동체를 질곡으로 보는 가족 해체라는 이 상반된 양자의 오류는 똑같이 지양되어야 하며 그 지양을 위해서는 생명의 본성으로서의 상관관계에서 문제들을 보아야 한다. 타공동체와의 연대, 국제적 공동체와의 협 력 관계에서도 이 관점을 타당하다.

가족공동체 내의 가사노동, 주부노동의 사회적 의미, 가족생명의 출산자, 양육

자, 보호자, 매개자, 위안자, 수렴자인 어머니의 의미에 대한 혁명적 평가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런 성질의 가족공동체가 강화되고 이러한 가족공동체의 새로운 영성적, 협동적 윤리가 조장되고, 가족이기주의와는 인연이 없는 참된 모성이 확립되어 청소년에게 영향을 주어야 한다. 어머니로서의 여성과 청소년 문제는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가족공동체는 무분별한 외래문화의 영향과 부권의 질곡을 청산케 하고, 청소년의 개인적 성장과정에 있어 그 판단과정에서 이성과 감성에 협동적 생존의 우월성과 통일의 희망과 전망을 줌으로써 분단에서 오는 여러 가지 형태의 심리적, 사회적 불균형에서부터도 벗어날 수 있게 한다. 또한 이런 가족공동체를 통해서 청소년이 생명의 본성 가치에 대해 이해가 높아져 갈 수 있다.

청소년이 생명의 가치관에 입각해서 모든 안팎의 문제들에 대응해 갈 때 그들이 갖는 순결, 정열 등의 장점이 발양될 수 있게 된다. 제도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구체적인 삶이 제도, 구조,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4) 보이스카웃, 제도교육, 제도매체, 청소년 선도사업, 각종 청소년 활동, 교회의 청소년 활동 등이 생명운동으로서의 청소년 활동의 구실을 못하고 있다. 이것들은 모두 체제화된 교회와 제도교육과 매체의 반동적인 영향이다. 기존매체의 새로운 각도에서의 원숙한 이용, 학교 교사이용, 가정교육, 어머니 교육, 소매체, 반매체 등을 광범위하게 이용해야 한다.

기존 청소년 운동에 새로운 내용과 동기를 주고 신선한 충격과 새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앞으로 농민, 노동자, 이농, 문화 등의 전 방명, 전 계층 운동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적극화 시키고 생명의 세계관에 입각한 전체 민중운동의 일환으로 새로운 청소년 운동을 일으켜야 한다.

청소년의 성문제에 있어서는 지나친 금기, 억압 또는 성성(聖性) 강요와 그 반작용으로서의 방종, 문란한 욕욕집착과 성변태 등 윤리적 해체 등은 둘 다 동시에 지양되어야 한다.

남녀는 성문제는 생명의 자연스런 사회적 표현으로서의 에로스(eros)의 가치를 강조, 확대함으로서 에로스와 직결된 친교와 협동의 사회적 확장을 통해서 욕욕의 승화 계기를 만들고, 자연스럽게 “아가페”에로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 때 진리에의 공동참여와 사회적 사랑에의 관심 및 개인의 내적해방이 가능해질 것이다.

특히 교회는 그 자신의 청소년 운동을 형식적인데서 탈피시켜야 한다. 내용에 있어서 생명, 협동뿐만 아니라 그 전개 방법에 있어서도, 살아있는 방법과 민주적이고 공동체적인 방법이어야 한다. 예수가 어린이, 청소년의 구원가능성을 강조한 것은 생명의 역동성, 순결성, 친화성, 유희성, 자율성, 진리지향성이 굳은 껍데기를 쓰지 않고 그대로 눈에 보이게 나타나고 있는 시기라는 점 때문이다. 교회의 청소년 단체운동도 이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으로 강조되어야 할 것은 본당에서의 교리교육과 유치원 등등에서의 수녀의 역할, 교회공동체 안에서의 어머니의 역할로서 수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점은 여성 및 가족공동체에 있어서의 어머니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이상에서의 강조와 그 원칙적 의미가 전혀 일치한다. 교리내용과 교육방법은 살아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가톨릭 산하 교육 기관 및 홍보매체를 전면적으로 이 방향과 이 방법으로 나가도록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8) 대학생, 지식인, 문화관계 종사자, 종교인 일반

(1) 이 분야의 활동은 각기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생명주체가 자기 생명의 활동을 객체로 대상화하여 총체적으로 관찰하고 표현하며 또한 자기가 관찰하고 표현한 기지의 것과 아직도 관찰, 표현할 수 없는 미지의 것 즉, 현상적인 것과 본체적인 것의 관계를 이성 또는 감성을 통해 이해하는 활동인 바, 이것은 인간 일반의 기능인데 이런 기능을 집약화 하여 연구, 분석, 판단, 과학적 탐구, 문화적 활용, 예술적 표현등이라 부르는 정신노동, 또는 영적활동으로서 이러한 활동을 통해 인간은 가지생명과 세계생명의 실장을 자각으로서 인식하고 그 인식을 토대로 생명활동의 현실을 확장적, 지속적으로 총체적, 창조적으로 완성시켜 나간다.

한편 이런 기능, 이런 활동의 일면적, 자의적, 독점적 극대화는 역사와 사회생활, 과학과 학문기술의 진보를 통한 근원적 생명운동의 파괴, 차단, 왜곡, 변질, 은폐, 결국은 반생명적 활동으로 전화하며 생명과 민중에 대한 반역, 억압기능으로 물질화 또는 자기소외를 하기도 한다. 결국 생명파괴의 동기요 힘으로 자기소외하게 된다. 지식인의 깊은 본체인식의 지혜가 수반되지 않는 맹목적인 사회과학적 지식 숭배는 생명파괴의 주범 또는 공범을 처지를 면할 수 없다.

(2) 이데올로기의 기초 제공자, 반생명적인 그릇된 문명과 생명파괴 활동의 세계관적 기초를 제공하는 자로서 특히 회랍 이래 서구의 선적, 수직적, 형상론적, 단계론적, 요소론적, 정태적, 상승주의적, 진보주의적, 이원론적 세계관은 이들이 제공한 바로서 바로 생명파괴의 장본인이다.

그 결과 이들은 스스로 생명으로부터 자기를 소외시켜 물질화 시키고 민중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자기 자신 분열되고 파괴됨으로써 동시에 생명과 민중과 사회전체를 파괴하고 물질화하고 분열시키며, 제도적 억압, 독점, 독재 등의 반생명적 구조의 기초를 제공한다.

사회와 역사현상의 인식은 동태적 분석방법에 그 기초가 있다. 따라서 그 이론은 분열적, 분리적이며 대립과 파동의 형식이다. 이것은 생명운동의 구체적 실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생명파괴 현실에 대한 과학적 인식에 거대한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현상적 분열과 대립 파동의 근원에서 끊임없이 힘차게 활동하고 있는 본체적인 그리고 총체적인 생명운동의 통일성을 인정하고 명확히 인식하며 그것을 모든 사회, 역사, 자연과 정신현상의 중심 기초로 하여 그 위에서 현상적인 분열, 분리, 파동을 인식할 때에만 도움이 된다.

만약 현상의 기초인 본체적이고 총체적인 생명운동의 통일성을 보지 않고 역사, 사회, 자연의 현상적인 분열 대립 파동만을 세계의 자체 본성으로 믿고 실천한 경우에는 일체의 과학적 이성과 그 인식론, 존재론, 동태적 방법론 등은 생명을 파괴, 물질화, 분열, 소외시키는 악마적 활동으로 전락된다. 반성적 자각 즉 생명의 고도의 발전단계인 이성의 분별활동은 일면에 있어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것이 소유의 확대처럼 어떤 지점에서 그 근원으로부터 소외되고 자체존재로 독립되어 물질화 한다. 분별지의 극대화가 그 분기점이다. 분별지는 일면 긍정적이거나 이것이 일면적으로 극대화 될 때 분열 또는 소외라는 반생명 현상이 시작되며 악마적 활동으로 발전한다. 종족우월론, 사회적 도태원리 등은 모두 이것을 전제하고 있다. 근본은 하나인데, 그 현상에 있어서 둘로 나타나는 분리로 보지 않고 분리 자체를 근본적인 것으로 생각한데서 과오를 범하고 있다는 말이다. 분별지를 극대화시킨 그들의 활동을, 민중의 지배, 지도 기능으로 오해, 악용한데에 문제가 있다.

이들은 자기들의 기능이 생명운동의 한몫, 총체적 민중 활동 속의 한몫으로 생각지 않고, 그것을 극대화해서 민중에 대한 지도자, 선각자, 지배자, 요구자, 앞선자 등의 위치로 착각하므로써 생명파괴와 자기소외를 초래하고 있다. 모든 민중

은 이미 알고 있으나 자각하고 환기하고 정식화시키고 언표하지 못한 것에 대해 축성하고 봉사하는 자로서 자기 몫을 인식했어야 마땅하다.

(3) 자기가 생명의 본성에 따른 민중의 한 부분이요 자기의 활동이 전민중활동 속의 한 몫이라는 가치관의 확대에 의해서 이들 활동의 반생명적, 반민중적 모순을 극복해야 한다. 자기 자신 근원으로서의 생명을 회복하고 생명의 근원성에 대한 인식을 철저히 해야 한다.

총체적 생명운동의 통일성과 전일체성 위에서 현상적 분리를 보아야 한다. 현상적 분리가 생명과 역사의 자체 본성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깨닫고 그것을 표현하고, 매체, 교육, 과학, 기술, 문화 활동, 사회활동, 스포츠, 학생운동, 종교운동 등 일체의 인간 활동에 널리 유포시키고 관통시켜야 한다. 민중의 지혜로부터 끊임없이 배우고, 그것을 자각적으로 정립하여 실천 논리로 되돌려 줘야 하며 민중, 민족의 전통문화를 생명의 세계관과 협동적 생존 확장의 방향에서 과학적이고 실천적, 역동적으로 현대의 민중문화, 살아있는 문화, 생산적 문화로 재건 확장시켜야 한다.

(4) 이들의 반생명적 활동의 실상은 다음과 같이 지적된다. 먼저 대학생, 지식인의 경우 이기적인 인간중심주의, 산업우선주의 선전, 생태계 파괴, 자원약탈, 공해남발, 대기오염 등의 합리화, 외래 이데올로기 편향, 우월감, 전위주의, 지도자 이론, 소수정예부대이론, 직업혁명가 이론, 상대방견해 매도하는 분파주의, 대부사상, 해결사사상, 노동귀족화현상, 엘리트사상, 이론 날조, 선비의식, 국사근성, 기회주의, 권위주의, 권력밀착, 금력밀착, 외세밀착, 민중멸시 사고방식, 지식인의 이중성, 지도자의식 종교인의 경우, 구세주 예언자 자처, 종교의 기업화, 금력밀착, 권력밀착, 외세선호, 신식민주의의 축수역할, 민중 경멸, 민중 죄인시, 민족 전통파괴, 농촌공동체 파괴, 제사파괴, 가부장제적 신앙강요, 외래의식의 일방적 강요, 외래문화에의 종속강요, 사회전면의 매판화(습관, 정치, 경제, 문화 등)

문화관계 종사자의 경우 퇴폐문화, 반민중적 반생명적 외래문화, 지배문화, 소비문화, 도시문화, 물질문화, 분단문화, 권력도구로서의 문화, 소비촉진과 유효 수요 강제 창출 도구로서의 문화, 소외노동 촉진문화, 세뇌문화, 가부장제적 문화의 유지강화, 냉전 문화, 폭력 예찬, 남성예찬, 여성도구화, 여성무력화, 사랑의 상품화, 무분별한 성 개방, 보편적 욕욕 조장, 미의 상품화, 성의 상품화, 잡문화, 전

자문화, 혼음문화, 관광문화, 대형화, 속물적 국제화, 전문화, 임신출세주의, 이기주의, 가지 중심주의, 스타숭배, 환각문화

스포츠 관계자의 경우 스포츠의 사회적 환각제화, 민중의 무력감 강화, 스포츠의 독점 상품화, 수탈 강화 수단화, 정치적 무관심 조장, 유한 숭배, 영웅숭배조장, 사회심리적 폭력에 그릇된 배설 파이프 설치, 열빠기 작전, 창조시간과 기회 박탈, 생명력 소모 이러한 모든 점의 기초에 있는 기본문제점을 제도 교육 독점, 매체독점, 권력, 금력, 외세밀착 당사자(지식인)들의 민중경멸, 생명에 대한 무감각, 정치경제 사회 문화의 구조적 압력에 대한 민중 자신의 무기력과 심리적 열등의식, 공포, 자기비하, 일방적 수동성, 패배주의, 오랜 역사 경험의 타성으로서의 도식화된 엘리트주의, 지식인 자신의 신념 및 결단력 부족, 무사인일주의, 대세 편승주의, 패배주의, 금력, 권력 외세에 대한 기생적 생활습성, 각 방면의 일제 식민잔재 이러한 현상과 문제점의 해결방법은 다음과 같이 예상된다.

(5) 기존매체와 제도교육에 생명과 협동이라는 새로운 동기, 세계관, 가치관을 부여해서 변화를 축성한다. 소매체, 현장교육의 확대로 새롭고, 광범한 민중문화를 창조해야 한다. 지식인, 스포츠인, 문화인, 종교인 등등이 권력, 금력, 제도, 외세 등예의 기생충적 생활습성을 청산하고 독립적 생활을 확보함으로써 창조적 주장, 실천이 가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민중에 대한 자기역할을 지도자, 선각자가 아니라, 생명운동과 민중운동의 한 몫으로 생각하는 관점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일제식민 잔재 청산과 기타 외래 매관경향 청산, 민중 민족적 주체문화를 건설해야 한다.

각계각층의 민중 및 민중운동 그리고 주체적인 민중운동과 철저한 연대와 구체적인 운동경험의 축적이 필요하다. 생명에 대한 확신, 협동실천을 통해서 살아있는 집단적 주체로서의 총체적인 민중 주체사상을 명실공히 확립하고 우선적으로 자기 자신의 관(觀)의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

생산현장의 문화운동과 지식인의 문화운동은 생명의 세계관에서 출발하여 상호 병행, 상호교류, 생명운동의 큰 차원에서 통일되어야 한다. 복음과 모든 고등종교의 모든 중요한 경전의 핵심은 생명과 협동이다. 종교인들은 이러한 근원과 핵심에 귀의하여 철저히 반성하고 반성한 만큼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특히 생명운동으로서의 문화활동에 있어서 극력 주목해야 할 것은 말의 기능이

다. 말은 그 자체로서 살아있는 생명체이며 사회적 혈액이다. 말은 본래 그 안에 진리가 살아 활동하는 산 집이며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유기적 생물이다. 말 특히 대화는 생명의 본성적인 협동적 생존을 가능하도록 추동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말은 생명을 파괴, 절단, 분해, 왜곡, 진리를 기만하는 역할로 타락할 수도 있다. 이러한 말의 기능은 바로 오늘날의 문화, 교육, 예술, 학문, 과학 등의 반생명적 세뇌와 기만의 형태로 나타난다. 말의 진정한 생명력 회복은 문화 일반의 관건적인 문제다.

그리고 생명의 본성을 인식하고 표현하고 실천하는 말, 협동적으로 생존하고 협동적 생존을 성취시키는 말의 기능을 탈환할 때 비로소 참된 문화는 부활한다. 생명운동으로서의 문화활동은 밤과 죽음과 기만, 왜곡, 세뇌와 분단의 말의 가면을 벗기며 빛과 생명과 진실과 통일 협동의 살아있는 말을 신선한 피처럼 모든 영혼과 사회 속에 활발히 순환시킴으로서 자기의 몫을 다해야 할 것이다.

9) 타 계층과의 연대

오늘날과 같이 민중의 운명이 전변무상하고 모든 인간의 생존형식이 덧없이 바뀌는 시대, 사회에서 노동운동, 농민운동, 빈민운동 등을 고립적인 자기 완결성을 가진 폐쇄적 단위로 인식하는 것은 오류다. 물론 특수성과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요구되는 것은 민중의 총체적 운명에 대한 민중 전체의 총체적 통일적 협동적인 운동의 인식이며 그 조직 실천이다.

이것은 오늘날 생명파괴가 분리, 분열, 분할, 고립, 격차, 길항 등을 특징으로 나타내고 심지어 각 계층 운동권 내부에 있어서까지도 그룹 간에 단체 간에 분열과 고립현상이 두드러지며 모든 인간이 요소화, 입자화, 이기주의적 자기중심주의, 물질만능, 경쟁 타인 도태 등을 가모랄로 받아들이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현실은 생명파괴 현상으로서의 분열, 고립적 자기주장, 고립주의 등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이를 극복하려는 활동자와 단체 자신마저 상호분열 고립, 분파주의의 오류에 빠지고 있다. 이것은 생명의 세계관과 협동적 생존의 근본적 가치관에 입각하지 않고, 이원론적, 수직적, 분열적 세계관, 운동관에 입각한 때문이다. 이것은 오랜 역사 안에서 소위 지도자, 소위 활동가들의 일반적 타성이며 오만과 자기 중심주의적인 사고방식에서 연유된다. 이것은 반민중적 반생명적이다. 또한 이것은 구라파의 이원론적 세계관의 영향과 그 세계관에 입각한 물질문명의 세계

지배와 그로인한 이 사회의 전면적 분열현상과 민족분단에 그 원인이 있다. 이러한 현상을 생명의 세계관과 협동적 생존의 확장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 그룹, 각 주장과 각 계층의 총체적, 유기적 연대로서만 가능하다.

그 극복의 방향은 각 계층의 총체적인 연대운동이며 생명운동으로서의 통일적 민중운동이어야 한다. 민중운동 특히 생명과 협동을 가치와 실천의 핵심으로 하는 민중운동은 마땅히 총체적인 연대운동이어야 한다.

따라서 농민회, 노조, 신협, 소협, 노청, 사선 등은 전체적인 운동 과정에서 협력과 연대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 유관단체들과 긴밀한 정보교환 및 프로젝트 내용의 동일성과 호흡의 일치를 협의해야 하며 동일한 운동을 동시에 집행하도록 제도적 보장과 자금지원 등 여러 문제들의 해결점을 협의하여 찾아야 한다.

생명운동은 영성운동이다. 따라서 모든 종류의 고동종교, 수도단체, 수양단체들과의 긴밀한 유기적 연락과 협조, 통일과 총체적 영성운동으로서의 확장이 요구된다.

생명운동은 또한 사회운동이다. 따라서 일반사회 단체 및 기구와 연대, 학생, 언론인, 연예인, 실업인, 공무원, 문인, 예술가들 속으로 지속적 적극적으로 확장시켜야 한다.

나아가 외국의 민중운동 및 교회운동, 생명보호운동 등과의 연대강화는 당연한 일이며 생명과 협동의 확장적 총체성이 그대로 요구하는 바이다.

10) 민족통일

민족분단은 역사적 타성의 핵심으로서의 지도층, 지식인, 지배층의 분별지의 극대화, 사회공동체의 분해, 해체과정, 특히 구라파의 이원론적 세계관과 그에 입각한 물질문명, 제국주의, 강대국에 의한 세계 분할에 그 원인이 있으며 분단으로 인해 그러한 현상은 또한 더욱더 확대심화 악화되는 과정이며 전면적인 생명 파괴의 형태로 절정에 달한 것이 오늘의 세계 현실이요 그 세계 현실의 모순이 압축된 적나라한 전시장인 우리민족의 분단현실이다. 세계와 인류 및 우주와 생명계 전체가 그렇듯이 민족과 국토도 공동의 역사공동의 생활양식, 공동의 문화 및 언어와 공동의 추억을 가진 유기적인 한 생명체다.

이 생명체의 유기성의 파괴가 소수의 강대국 패권의 자의에 의해 강행되고 계

속 강행되고, 그 분단 파괴가 고정되고 계속 고정되는 것이야말로, 인간 역사상 가장 끔찍한 생명 파괴요 죽음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분단된 반도를 둘러싼 미국, 소련, 중국, 일반과 구라파는 그들 자신의 생명 파괴의 문명을 유지, 보존, 확대시키기 위해 이 민중의 분단을 고정시키고 있으며 이 민족의 분단 고정을 통해서 전세계 인류와 생명계의 분할, 파괴, 죽음의 지배를 유지 보존 확대 시키고 있다.

미국, 일본, 구라파의 다국적기업의 이익과 그들의 정치 군사, 문화적인 세계 패배를 위해, 소련, 중국의 자국의 경제적 이익과 이른바 세계혁명의 정치, 군사, 문화적 전술의 필요에 따라 이 민족, 민중의 참혹한 장기적, 전면적인 생명파괴와 죽음이 대가로 치러진다. 이것이 현대세계에 나타난 악마의 모습이며 악마에 의해 파괴되는 한 집단 생명의 구체적인 모습이다.

이러한 강대국 패권에 정치적 흥계에 등을 대고 분단고정에 힘입어 민족 생명력의 전면적, 지속적 약화와 민중의 분열, 해체, 무기력에 기생하여 남북 양 정권은 극소수의 독점지배 그룹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장기독점을 유지 보존 확대 하면서 민중과 생명을 무차별 파괴하고 있다.

남북한 두 사회에 있어서의 독재와 독점, 매판적 문화, 사회적 공동체의 실질적인 분해 특히, 정치에 있어서의 전면적이고 항속적인 비민주적 현상은 바로 강대국 패권과 그와 결탁한 국내 독재, 독점 세력에 의한 민족 민중 생명 파괴의 전형적인 증거이다.

이 땅에서의 분단 즉 생명파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와 전사회 계층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자행되고 나타나고 있는 일체 부조리한 모순현상의 내부를 관통하고 있는 현실의 특징이다.

생명운동으로서의 통일운동, 통일운동으로서의 생명운동은 세계인류와 우주 생명계와 마찬가지로 자기의 국토와 민족이 잠시도 갈라져 있을 수 없는 유기적인 생명체라는 기본적 인식과 통일적인 생명체는 협동적으로 생존할 수밖에 없다는 실천적 요구를 가지고 지금, 여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 전 방면과 전 사회 계층의 일상적 생활 속에서 생명의 가치관 확립과 협동적 생존의 확장을 목표로 적극적, 지속적, 확장적으로 진행하므로써 이 과정 전체를 민족의 통일, 민중과 생명의 해방운동으로 철저히 일관하는 운동이다. 매일 매일의 생명운동은 그 본성과 동기에 비추어 바로 민족통일 운동이며 민족통일 운동은 그 전개와 폭과 길이와 구조의 특성에 비추어 바로 매일매일의 전민중의 일상적인 생명운동,

협동운동 그 자체의 동기요, 그 자체의 목표요 결과인 것이다.

따라서 현재 이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반독재 민주화의 요구와 운동은 바로 통일운동으로서의 생명운동, 생명운동으로서의 통일운동의 당연한 해결 과제라는 점은 당연한 것이다.

생명운동은 일상적 민중 협동운동으로서의 민주화 운동과 실천적 민주화 운동으로서의 민중 협동운동의 확대 발전 심화를 통해서 비민주적 독재 독점 풍토와 국제적 패권지배를 극복할 것이며 이 과정을 통해 진정한 민중 주체의 살아있는, 역동적, 지속적 확장적 민족통일 운동을 실천한다.

따라서 이제까지 논의해온 바와 같이 전면적 생명파괴를 극복하기 위한 생명운동 즉, 생명의 세계관 확립과 협동적 생존의 확장이라는 총체적 통일적 민중운동은 바로, 그 지속적 발전과 그 확장적 성숙을 통해서 일관하게 바로 민중주체의 평화적인 민족통일 운동인 것이다.

이러한 생명운동에 의한 민족통일은 그 대상인 생명파괴가 창궐하고 있는 제3세계를 비롯한 전 세계 인류와 생명계 전체의 총체적 통일적 민중운동, 생명운동일 수밖에 없다.

생명운동에 의한 민족분단의 극복과 민족통일의 성취는 바로 보편적 생명파괴의 극복이며 우주적 생명계의 부활운동이다. 따라서 이 운동의 국제적 확대와 국제적 연대 및 지원의 강화는 당연한 것이다.

또한 이 운동은 우주규모의 부활운동이며 동시에 인간 개개인의 내적 영성 해방운동이므로 죽음에 대결하여 죽음을 극복하는 세계의 생명이신 예수를 따르는 교회가 이 운동을 바로 자기의 가장 중심적이고 일상적인 운동으로 삼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은 또한 당연한 것이다.

특히 가톨릭 교회는 신이 창조하신 생명과 그 생명의 현실적 활동인 사랑을 행으로 하는 지상과 천상의 도구요 표지로써 현대세계의 사회생활과 인류 및 전생명계의 영성생활을 통일적, 일원적으로 복음화 할 것을 자기의 소명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가톨릭 교회는 교회안의 모든 공동체와 교회 밖의 모든 민중과 함께 나아가 전생명계와 더불어 전 사회적, 전우주적 생명운동을 백방으로 지속적으로 확장적으로 적극 실천함에 의해 죽음과 대결하여 죽음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는 세계교회와의 공고한 연대 속에서 바로 생명파괴, 생명말살, 죽음과 억압과 분단의 사막인 이 땅에서 범생명의 부활과 존중, 공동체적 삶과 해방 그리

고 민족 통일을 위한 생명운동의 즉각적, 적극적 실천 속에서 자기의 십자가를 발견해야 할 것이다.

한국 교회는 극대화된 분별지, 즉 원죄로부터 비롯된 분열적, 분단적 세계관의 산물인 물질주의적이고 쾌락주의적, 소비적인 생명파괴의 분단문화를 혁신 할 영성적이고 협동적, 공동체적, 생산적인 생명부활의 통일 문화를, 경쟁, 폭력, 약육강식, 불평등, 불신, 증오, 고발, 대립, 투쟁과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분열, 분단의 생명파괴 사회를 변화시킬 사랑과 친교, 평화, 평등, 신뢰, 화해, 협동, 통일의 생명부활 사회를, 다국적 기업의 지배와 외채의 악순환 아래 산업주의 우선, 군방경제 우선, 독점, 물량주의 경제와 공해경제, 남북한의 중복 구조, 경쟁 구조의 생명파괴 경제를 극복할 민족자립, 경제, 반공해적 유기적 생산경제, 민중 평등경제, 민족평화 경제, 창조적 경제, 남북한 통일적 통합적인 전 인간적 생명부활 경제를, 강대국 패권정치, 매관정치, 독재즉벌, 중앙집권적 억압과 분단 고정적 생명파괴 정치를 지양할 민족 자주정치, 주체정치, 민주적이며 지방자치적이며 탕평적인 해방과 통일을 실현하는 민중주체의 생명부활 정치를 실현할 총체적인 생명운동을 이 땅에 선포하고 생명운동을 자기의 공동체적 삶과 그 사회적 확대를 통해 스스로 살고 남북한 양쪽에서 강대국 패권과 그와 결탁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각 방면의 독점세력 속에서 활동하는 반 생명의 악마에 저항하다 수난하고 이국토, 이민족, 이민중 전체와 더불어 민족통일, 민중해방, 전인류와 전생명계의 개벽 속에 찬란한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범생명의 역동적 전변에서 자기의 십자가를 순교자들의 거룩한 피의 자취를 따라 확신에 차서 즐기게 실천해야 될 것이다.

삶의 도량에서²⁵⁾

장일순

세상에 태어난다는 사실은 대단한 사건 중에서도 대단한 경사입니다. 태어난 존재들이 살아간다는 것은 거룩하고도 거룩합니다. 이 사실만은 꼭 명심해야 할 우리의 진정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가끔 한밤에 풀섶에서 들려오는 벌레소리에 크게 놀라는 적이 있습니다. 만상(萬象)이 고요한 밤에 그 작은 미물이 자기의 거짓 없는 소리를 들려주는 것을 들을 때 평상시의 생활을 즉각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부끄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면 내 일상의 생활은 생활이 아니고 경쟁과 투쟁을 도구로 하는 삶의 허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삶이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하나의 작은 벌레가 엄숙하게 가르쳐줄 때에 그 벌레는 나의 거룩한 스승이요, 참생명을 지닌 자의 모습은 저래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가슴깊이 새기게 됩니다.

나는 귀천(貴賤)이나 남녀노소를 가릴 것 없이 많은 사람들과 일상생활을 즐기고 생활을 나누며 삽니다. 저녁으로는 대체로 박주일배(薄酒一杯)를 나누는 형편인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혼자 걷는 방축(防築)길은 나의 도량(度量)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저녁밥과 술자리에서 나누었던 좋은 이야기와 못마땅했던 이야기를 반추합니

25) 출처 : 나락 한알 속의 우주(녹색평론사, 1997)

다. 이런 것 저런 것을 생각하다가 문득 걸어가는 발밑의 풀들을 접하게 되는 순간 나는 큰 희열을 맛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짓밟아서 풀잎에 구멍이 나고 흙이 묻어 있건만 그 풀은 의연하게 대지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상처와 먼지에 찌들린 풀잎이 하늘의 달과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형편없는 나의 그날의 생활이 떠오릅니다.

그 밥자리에서 술 한 잔에 거나해 가지고 제대로 생활화하지 못하고 다만 머리에 기억만 남아있는 좋은 글귀를 동학(同學) 또는 후배들에게 어른처럼 말했던 몇 시간 전의 나의 모습을 생각할 때 창피하기 이를 데 없음을 누가 짐작하겠습니까. 정말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길가의 짓밟힌 풀들이 말없는 나의 위대한 스승님들이라는 사실을 취중에 알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은 말로는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맞본 후로는 길가의 모든 잡초들이 나의 스승이요, 벗이요, 이 미약한 사람의 도인(道人)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길 걷는 동안 참 행복한 세상에 살고 있구나 하고 즐겁게 길을 걷습니다.

나는 아침에 일찌감치 손님을 전송하기 위해서 역이나 고속버스터미널에 가는 때가 있습니다. 오신 손님을 전송하고 나서는 가끔 근처에 있는 젊은 친구를 만납니다. 젊은 친구들은 오래간만이라고 차 한 잔이나 대포 한 잔을 권하는 일이 많습니다. 대개는 아침이라 사양하지만 같은 이에게 번번이 사양하면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 번의 권고가 되는 경우에는 부득이 사양을 하지 못하고 응합니다.

아침부터 대포집에 들어가서 두 홑들이 소주를 각기 한 병씩 나누면 오전 중에 이미 거나해서 노상(路上)에 나옵니다. 나는 술을 마시면 주로 걷습니다. 술도 깨고 운동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보면 70대가 넘는 노선배님들을 노상에서 만나뵈웁게 됩니다.

“청강(靑江—제 아호임)께서 백주에 이렇게 대취하면 어떻게 되는 거요”라고 노선배는 걱정 반 애정 반으로 물으십니다. 나는 그렇게 걱정하시는 선배님께,

“치악산 밑에서 이 청강이 백주에 취하지 않으면 누가 취하겠습니까?” 하고 대답하곤 합니다.

“그건 그래! 그러나 청강이 건강해야 되지 않아?”

노선배께서는 웃으시며 애정 어린 말쑼을 주십니다.

역 앞에서 대포를 한잔 하자고 권하는 젊은 친구의 대접도 애정이고 노선배님

말씀도 애정입니다.

언젠가 원주에 있는 지하상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하상가를 거쳐 필방(筆房) 앞을 지나자니까 필방 주인 박 형이 “선생님 잠깐만 저 좀 보고 가세요”하기에 필방에 들렀습니다. 그는 옛날 편지 하나를 내놓고 초서(草書)로 써서 도무지 알 수 없는데 편지내용이 무엇이나고 물어왔습니다.

들여다보니 친구가 병환 중에 있는 벗에게 약재와 그 처방을 자세히 일러주고 복용법까지 어떻게 하라는 사연의 편지였습니다. 원체 나도 단문(短文)하고 무식한 사람이라 그 편지에서 다섯 글자를 알 길이 없었습니다. 모르는 다섯 글자를 초서에서 해서(楷書)로 고쳐 써주면서 옥편을 보라고 하였습니다.

필방 주인은 고맙다고 하였는데 느닷없이 고등학생이 그 편지를 필방 주인인 박 형한테서 받아들였습니다. 그 학생은 옆에 있는 소파에 나를 앉으라 하더니 그 편지를 다시 풀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 형에게 일러준 대로 다시 풀어서 일러주고는 다섯 글자를 모르니 옥편을 찾아보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학생은 “그것도 모르면서 서예가예요, 예잇”하고는 횡하니 필방을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필방 주인은 무안해서 미안하다고 두 번 세 번 인사를 하는데 나는 명한 순간이 지나자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저런 젊은 학생이 아니면 누가 이 바닥에서 시원하게 나를 혼낼 것인가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지하상가를 나와 대로를 걸으면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살아가면서 배운다는 것이 노소(老少)가 없을진대 아까 그 학생이 선생님이고, 이 못난 사람이 학생 중에서도 덜 떨어진 학생이로구나 하는 것을 선연히 느끼게 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나는 어려서 ‘상하소반(上下所反)’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말로, 우리집에서 어른들이 말씀하신 것으로 압니다. 특히 그것은 나에게 잘 들려주신 말씀이기에 지금까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 일인데 아버님께서 싸리나무를 여러 단 장에서 지게꾼을 시켜서 사가지고 오셨습니다. 아버님께서서는 나와 동생에게 뒤뜰 안 채마밭에 병아리들이 들어가는 어린 배추와 무를 뜯어먹으면 김장은 낭패니 너희 형제들이 싸리바자를 엮어서 울타리를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내 나이가 열두 살이었고 동생은 아홉 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동생이 엮은 바자는 곳곳하게 서 있고 내가 엮어 세운 것은 서있지를 못하고 학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돌아오신 아버님께서 보시고,

“이놈아 네가 해놓은 것은 그게 무엇이냐, 병아리들이 다 드나들게 만들었으니 동생만도 못하고 참 답답하구나. 무엇에나 상하소반이니 이 다음에 무엇을 제대로 하겠느냐.”

아버님의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지금 생각하니 참 고마운 말씀이었다는 것을 잊을 길이 없습니다.

어려서 나는 학교에 다닐 때 1등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껏 해야 3등 그렇지 않으면 5~8등 정도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돌아가신 형님과 누님은 매번 1등만 하셨습니다. 우리 집안에서의 별명은, 특히 아버님으로부터 얻은 내 별명은 먹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조부님께 성적표를 보이면 “잘했다. 앞으로 더 잘해라”하시면서 격려해주셨습니다. 형님이 15세에 이 세상을 떠난 후 조부님께서는 둘째 손자인 나에게 한문과 붓글씨 쓰는 것을 가르쳐주셨습니다.

아마도 내가 5세 때인 것 같습니다. 조부님 앞에서 천자문의 한 구절을 외우는데 수십번을 가르쳐주어도 단 석자를 외우지 못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아주 머리가 둔한 아이가 있었는데 천지현황(天地玄黃)을 삼년동안 꾸준히 익혔었다. 그래서 나중에 문장을 지었는데 ‘천지현황(天地玄黃)을 삼년독(三年讀)하니 언제호야(焉哉乎也)는 하시독(何時讀)일고’라고 했단다. 너도 그러면 된다. 책 덮고 나가 놀아라.”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아이들이 밖에서 놀자고 부르는 소리를 조부님도 알고 계셨기에 사정을 보아서 해방을 시켜주신 것이라고 지금에서야 생각합니다.

이렇게 미련한 나에게도 낮에는 하늘의 태양이 밝게 비추어주시고 밤에는 달이 자정(慈情)의 빛을 주시며 땅은 필요한 만물을 제공해주십니다. 이 못난 남편을 아내는 주야로 걱정하면서 건강하게 좋은 일 하기를 바랍니다. 내 자식 삼형제는 훌륭한 아비되기를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내 아우들은 이 무능한 형을 공경하며, 세상의 많은 선배, 후배, 친지들은 건강하고 도통하여 세상만민에게 많은 복을 베풀기를 바라니 나의 인생이 이 이상 더 행복하고 기쁠 수 있겠습니까?

시(侍)에 대하여²⁶⁾

장일순

한살림 공부모임에서 여러 번 제 차례가 왔는데도 말씀드릴 건테기가 없어 미루다 보니 마지막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정말 할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어려서 지내던 이야기 몇 마디 하는 것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아마 서너살 때인 것 같은데 명절이 되면 별식이 많잖아요. 이것저것 먹다 보면 배탈이 나지요. 요즘에야 뒷간이 집안에 다 있지만 그때는 30-40미터 떨어진 곳에나 대개 있었습시다. 불일은 낮이나 아침에 흰할 때 보는 법인데 밤에 배탈이 났으니 뒷간엔 가야겠고 뒷간엔 불도 없는데다 너댓살의 아이들은 가래이를 쪽 벌려야만 널판지에 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칭얼거리면 어른들이 등불을 켜서 변소 앞까지 데려다주면서 "저기 닭장 앞에 가서 구부렁 구부렁 큰절을 세 번 해라. 밤똥은 닭이나 누지 사람도 밤똥을 누느냐"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밤똥은 닭이나 누지 사람도 밤똥을 누느냐" 하면서 세 번 큰절을 하고 후련하게 방으로 들어와 잠을 잔단 말이에요. 그런 생활을 어려서 했지요. 그러니까 동심의 세계에서는 "내가 인간인데!" 하고 잘났다는 생각이 없었다고요. 이 점에 있어서는 닭이 나보다 낫구나 하고 생각했지요.

그리고 학교를 다닐 때였는데 집에 일찍 돌아오면 어머니는 개울가에 가서서 빨래를 하시고 빨래가 많아서 늦게 돌아오시면 배가 고프니까 울타리 밑에 가서

26) 1989년 10월 28일, 한살림모임 창립기념강연 기록

살구를 따먹지요. 그러면 수염이 이만한 할아버지가 "일순아 뭐해, 이리와" 하신 단 말씀이야. 그래서 "예" 하고 가면 "너 뭐하는 거냐" 하시지요. 그래 내가 "배가 고파서 살구 좀 따 먹어요"라고 하면 "그 살구는 익어야 따먹는 거야. 살구는 니 아빤이 심은 거지 니가 심은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따먹으면 안 돼. 살구가 익으면 그걸 다 따서 할머니 할아버지 너희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그리고 같이 일 봐주시는 분들과 나눠먹어야지 그것을 지금 따먹으면 되는가, 알았지" 하셨어요. 그럼 "예" 할 수밖에요. 어떤 분 말씀이라고 안들을 수 있어요.

어려서 학교를 가기 전에는 글방에 다녔고, 예닐곱살 때에는 놀지도 못하게 하시면서 집에서 자꾸 글씨를 쓰라고 하셨는데 나보다 서너살 많은 사람들이 놀러와 같이 붓글씨를 썼거든요. 그런데 붓글씨만 쓰면 심심하고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울타리 밑에다 1평이나 2평씩 2패로 조를 짜서 밭을 조금 일구어 완두콩이나 강낭콩을 심고 어느 쪽이 먼저 나나 보자구 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어느 편에 소속되었고 우리집 울타리 안이니까 어느 쪽이 먼저 나나 맨날 지켜보는데 다른 패 쪽에서 먼저 완두콩싹이 나더라 말이야. 그래서 슬그머니 가서 완두콩 대가리를 딱 잘라버렸지. 이것은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고백을 못한 하나의 사실인데 엄청난 거란 말이에요.

또 사다리를 놓고 알을 꼬집어내거나 새를 꼬집어내는데, 그러다 보니 서툰 솜씨에 알도 깨뜨리고, 새를 서로 주무르다 보니 할딱거리고, 새가 할딱거리니까 죽을 것 같아서 살라고 똥구멍에 바람을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가 팔딱거리어서 살 것 같은데 죽는단 말이야. 이런 짓을 꽤 했어요.

일상생활 속에 대단치도 않은 것 같던 일들이 그 안에 엄청난 이야기들이 다 있더라 말이에요.

해월 선생님의 말씀에 보니까 '천지만물 막비시천주야(天地萬物 莫非侍天主也)'라. 하늘과 땅과 세상의 돌이나 풀이나 벌레나 모두가 한울님을 모시지 않은 것이 없다. 그래서 제비알이나 새알을 깨뜨리지 말아야 하고 풀잎이나 곡식에 이삭이 났을 때 꺾지 말아야 되거든요. "새알이나 제비알을 깨뜨리지 않으면 봉황이 날아 갔들 것이고, 풀의 싹이나 나무의 싹을 자르지 않으면 숲을 이룰 것이고, 그렇게 처세를 하면 그 덕이 만물에 이른다. 미물까지도 생명이 함께 하신다고 모시게 되면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셨더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알을 깨고, 틈을 나눠 경쟁해서 남이 안 보니까 남의 밭에 나는 콩 싹을 잘라버리는 것들이 제국주의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국주의란 것이 바로 이런 데 있는 것 아니

겠어요? 그러니까 모신다는 기본적인 이야기는 아주 자연스러운 작은 것부터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侍)'자를 들여다보니까 엄청나요. '시'자 안에는 '시양(侍養)한다'거나 '시봉(侍奉)한다'(봉양해서 먹여 모신다)거나 '사양(飼養)한다'(아랫사람을 먹여 잘 키운다)는 일체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산에 가봤느냐. 산이 어떻더냐." 산에 가면 산이 둥그렇고 위는 뽀족하고 밑은 넓지. "산에는 뭐가 있더냐." 바위도 있고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산이 되는 조건은 여러가지지요. 바위도 있어야 하고 나무도 있어야 하고 나무도 한 가지가 아니라 수만 가지여야 하고 풀도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가 다 있어야 산이 된단 말이거든요. 그 각자는 산이 되는 조건으로 빠질 수가 없으면서도 서로를 무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착한 분들이 써놓은 책들을 보면, 특히 우리나라의 성인이라 할 수 있는 수운(水雲) 최제우(崔濟愚) 선생이나 해월(海月) 최시형(崔時亨) 선생의 말씀을 보면 그 많은 말씀이 전부 시(侍)에 관한 말씀이라. 그러니까 이 구석을 들여다봐도 시(侍)고 저 구석을 들여다봐도 시(侍)고 시(侍) 아닌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구석에 가셔도 그저 하나만 보고 앉아있으면 편안한 거라.

사람이 일상생활에 있어서 만 가지를 다 헤아리고 갈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러나 자기가 타고난 성품대로 물가에 피는 꽃이면 물가에 피는 꽃대로, 돌이 놓여있을 자리면 돌이 놓여있을 만큼의 자리에서 자기 몫을 다 하고 가면 모시는 것을 다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딴 사람이 모시고 가는 것을 잘못 됐다고 할 수도 없지요. 있음으로써 즐거운 거니까. 동고동락(同苦同樂) 관계거든요. 요샌 공생(共生)이라고도 하는데 본능적으로 감각적으로 편하고 즐거운 것만 동락(同樂)하려고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苦)가 없이는 낙(樂)이 없는 거지요. 한살림 속에서도 고(苦)와 낙(樂)이 함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불어 함께 하는 것이지요. 즉 공생하는 건데, 공생관계는 각자를 긍정해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각자를 긍정해줘야 모시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 주머니에 넣으려고 하지를 않겠지요. 상대방이 있게끔 노력하는 거니까. 그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侍)의 극치가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동고동락한다는 것 자체가 생활이지 동락만 한다면 생활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월 선생은 "시(侍)는 무위이화(無爲而化)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공자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이 뭘 애기가 있더냐. 그래도 사철은 돌아가

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이 나지 않느냐." 그러면 '무위이화'속에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 그 조화속이란 것이 '무위이화'란 이야긴데, 그 '무위이화'속에서 사람은 그 이치를 알고 참여하는 것, 그러니까 일꾼자면 창조적인 참여라고나 할까요. 사육을 차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가 본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이치를 깨달아 자기도 거기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천주조화정(侍天主造化定)'의 핵심이지요. '조화정(造化定)'은 시(侍)가 움직거리는 것, 즉 모시는 근원에 있어서의 하나의 태도이지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새알이라든가 나무의 싹을 잘라서는 안 된다거나 하는 이치가 살아있는 것에 대한 존경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가 시(侍)의 문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나. 생산활동도 돈을 벌기만 하면 되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돈 벌기 위한 생산만을 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공업이 중점적으로 되는 생산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농업은 경제활동 자체에서 사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농민회에서 쌀값 보장해달라고 해도 그것이 인정이 안 되는 거라. 그런데 공업이라는 것은 원료 자체가 살아있지 않아도 되지요. 그렇게 해서 계산만 맞추면 돼. 그런데 농업이란 것은 어떻게 되어있나. 씨알 자체에서부터 살아있어야 돼. 사람의 입에 들어갈 때까지도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경제는 협의의 경제라고요. 생명을 모시는 경제가 아니라고요. 바로 씨지 않도록 방부제를 치고 한 것 가지고 돈만 벌면 된다구요. 그러니까 "시장경제라고 하는 것은 돈을 모시는 경제지 생명을 모시는 경제가 아니다" 이 말씀이야. 그러니까 문제는 농민들이 스스로 오늘날의 공산품 틀 속에 들어가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니까 본원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라.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천지자연의 원칙대로 그 돌아감을 깨닫고 이해하면서 그것에 맞춰서 생활에 동참하는 것, 그 속에서 일을 처리해 나갈 때 어떻게 되느냐, 그때 자기의 본의든 본의가 아니든 시(侍)의 틀 속에서 자기도 생활하고 나아간단 말이지요.

오늘 이렇게 같이 모인 여러분들은 그것을 정성들여 해결하려고 더욱 이해하면서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깊이 이해를 하고 가시면서 생활의 틀을 그렇게 하니까 더욱 좋더라 하게 되면 나중에 오는 분들로 하여금 더욱 쉽게 하게 해줄 수가 있겠지요.

천지자연(天地自然)의 평이(平易)하고 간단(簡單)한 법칙(法則)에 따라 이척이지(易則易知)하

고 간척이종(簡則易從)하고 이지척유친(易知則有親)하고 이종척유공(易從則有功) — 이간이천하지이득의(易簡而天下之理得矣)니라. 《易經》

모든 일상생활에서는 모든 것을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는 것인데, "쉬우면 쉽게 알 수 있고 간단하면 쉽게 따를 수 있고 쉽게 알 수 있으면 친할 수 있고 쉽게 따를 수 있으면 공을 이루리라 — 쉽고 간단함속에 천하의 이치를 얻을 수 있나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시(侍)라는 것이 어렵게 이야기가 되는 방향보다는, 생명운동이란 어차피 모든 문제가 생명 속에 하나 둘 살아나는 것인데 그것을 쉽게 따라갈 수 있게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이 뭐냐 하면 원래가 전체를 모시고 갈 수 있는 하나의 생활태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석을 봐도 시(侍)고 저 구석을 봐도 시(侍)고 시(侍) 아닌 게 없는 데 그것을 모신다고 하고, 함께 사는 관계를 키워간다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시(侍) 아닌 것이 없지요. 전부가 시(侍)지요. 그렇게 됐을 때는 쉽게 알 수 있고 쉽게 행동할 수 있고 쉽게 따를 수 있고, 그렇게 처리가 되었을 때에 그 일은 비로소 제자리에 크게 돌아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오늘 여러분을 모시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살림운동, 생명운동, 이 모임이 이것이 어렵게 이야기가 되지 않고 쉽게 이야기가 되고 또 서로 모시는 입장으로 되고 일체를 모시는 입장으로 되고 해서 결국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거예요.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이야기지요. 더구나 이것을 정반대의 문명, 문화 속에서 처리를 해가자면 많은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쉬운 가운데서 처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슬기를 가지고 모든 것에 고개를 숙이고 모시는 자리에 있게 되면 결국은 깃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복이 함께 하기를 빌면서 저의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개혁과 생명운동²⁷⁾

김지하

안녕하십니까! 실은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거룩한 자리에 섰고, 박수까지 받고 보니 죄송할 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겸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저는 인격적으로 통합된 사람도 못 되며, 갈기갈기 찢어지고 파괴된 사람입니다.

지난 젊은 시절 감옥과 병원, 술집을 전전하면서 살아왔고 온갖 신경질환이나 초조감, 불안, 여러 가지 욕구불만에 시달리면서 술로 마음을 달래고 그 결과 병을 얻고, 입원하고, 퇴원하고, 여러 가지 불만이나 이런 것 때문에 격렬하게 나 자신을 난파시키는 식으로 세상에 부딪혀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한 마디로 저는 찢어진 사람입니다. 생명력을 상실하고 생명이 파괴된 사람입니다.

지난 5년 동안 혹독한 병에 시달리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산 속으로 들어가 중이 되든가, 자살을 하든가 두 길 밖에 없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명이 파괴된 인간이 그래도 대지를 딛고 이 세상, 이 장바닥에서 숨을 쉬며 살아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옥중에서 읽었던 수운·해월 선생의 시천주 사상, 그로부터 내 안에 무궁한 우주 생명이 살아 있고 내가 비록 병들고, 못나고, 윤리적으로 타락한 인간이라 하더라도 나의 근본에는 한도 없고, 처음도 끝도 없는 우주 생명이 살아 있다는 생각, 그리고 모든 이웃들과 동식물,

27) 출처: 김지하 전집 제 2권, 실천문학사.

무기물, 우주 전체에까지 나의 생명은 연결되어 있어서 과거·현재·미래가 내 안에 하나로 연속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병들거나 죽더라도 결코 소멸하지 않는다는 생각, 바로 이 생각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격도 없고 자신도 없는 사람이지만, 천도교의 부탁을 끝내 거절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선 것도 해월 선생님에 대한 평소의 존경심과 그것 때문입니다.

만연된 병적 현상

말씀드린 대로 저는 파괴된 인간이고 별 보잘것없는 허름한 뒷골목 사람입니다. 인격자도 아니고 사상가도 아닙니다. 다만 파괴된 생명, 갈기갈기 찢겨진 영혼, 이것이 수운 선생이나 해월 선생이 가르쳐주신 대로 우주 생명이 내 안에 살아 있다는 생각, 이것에 의해서 구원받을 것이라는 한 생각, 그래서 이 생각에 불이 붙는다면, 이 생각이 적극화된다면, 나에게 있는 죄 체험, 어둠의 체험, 죽음당한 체험, 이 풍부한 부정적 체험을 삶의 정열로, 개혁의 정열로, 생명의 정열로 바꿀 수 있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살아 있고 또 이 자리에도 나왔습니다.

제 자신이 병들었기 때문에 세상이 다 병든 것으로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내 이웃의 모든 동료들, 동포들의 생활을 보면 나와 똑같은 형태는 아닐지라도 여러 가지 형태로 병들고 생명이 파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가 매일 먹는 밥 한 그릇 속에 들어 있는 수은이나 중금속에 의해서 또는 채소나 과일 속에 들어 있는 방부제, 착색제, 첨가물 등 온갖 형태의 유해 물질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병이 들고, 성인병, 현대병, 암이라든가 불치병들이 온갖 모양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땅은 죽어가고 농민들은 화학 영농으로 생태계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고 자기 자신까지 병들며 소비자들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단 우리 눈에 보이는 가장 가까운 생명파괴의 현실입니다.

사회적인 생활은 복잡할 대로 복잡해졌고, 약육강식, 경쟁, 타인도태, 임신출세주의, 가혹한 이기주의, 불신, 반목, 모략중상 등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잊어버린 데서 오는 것이며, 모든 사람이 신령한 우주 생명, 한울님을 모신 존재임을 모르는 데서 오는 것이고, 또 그래서 사회적 생명 자체가 여지없이 파괴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자기 자신 속의 무궁한 생명의 근원을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물질적 존재로 생각한다면 고립된 입자로서 생각하는 사상과 경향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정신적 소외감, 고립감, 신경질환, 정신병, 온갖 형태의 자기분열과 자기상실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밖에 섹스, 폭력, 살인, 인신매매와 같은 생명정시·생명망각·생명파괴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대로 밥도 먹게 되었고 돈도 벌 수 있게 됐지만, 돈을 많이 쓰고 과소비를 한 후에 오는 불안감이나 허망감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들대로 소위 상대적 빈곤에 시달리고 있으면서도 눈은 높아져서 소비문화와 낭비적인 풍조 때문에 생활과 의식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황폐한 인간의식, 소외감, 병적인 자기분열 현상은 한없이 만연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자원을 약탈하고 고갈시켜서 생태계는 파괴되고 생물들은 멸종 위기에 이르고 공기와 물, 땅은 오염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런 형편에 있지만 우리나라는 뒤늦게 시작한 산업화 과정으로 불과 20~30년 만에 엄청난 환경파괴와 인간파괴, 생명파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밥 한 그릇이나 채소 한 포기 를 놓고 이것을 먹어도 될까? 이 안에 이상한 유해물질이 들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의심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밥도 좀 먹을 수 있게 되고 돈도 좀 벌 수 있게 되었지만 도대체 이것이 사람 사는 세상인가, 살 맛이 안 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생명의 상실

이러한 형편, 이러한 전면적인 생명파괴와 생명상실, 무엇인가 근본에서 이탈되어 있다는 깊은 소외감, 고립감과 불행의 감각 등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서양의 산업문명, 기계문명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서양의 기계문명, 산업문명이 그 원인이겠습니까.

그러나 그와 동시에 보다 더 깊게 보면 인간의 자의식이 발생하고 문명이 시작되고 언어가 발생하고 노동이 조직화되고 공구가 발전하면서 시작된 인류의 오만

년 문명사 전체를 관통해 온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점차 근본적인 우주 생명의 질서로부터 인간의 문명이 이탈하기 시작했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수운 선생께서는 바로 이러한 현상을 두고 “한울의 이치를 따르지 않고 한울의 명령을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한울의 이치, 한울의 명령은 쉽게 이야기하면 우주를 지배하는 생명의 질서와 생명의 이치입니다. 생명의 질서, 생명의 이치로부터 이탈한 결과 수운 선생이 표현하고 있듯이, “각자 각자가 자기 주장대로 놀아나고 마음이 불안하고 황폐해져서 갈 바를 모르고 헤매”는 사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19세기의 조선의 형편만이 아니라 오늘날에 있어서 한국의 형편이요, 또한 전 세계 인류의 형편입니다. 19세기에 이 같은 생명질서로부터의 소외감, 불안, 초조, 고립감, 개체분열, 사회체의 분열과 같은 현상은 서세동점, 서양 세력이 천주교와 대포와 군함을 앞세우고 전 제3세계와 특히 동양을 침략해 온 것에서 그 절정에 달했습니다. 수운 선생님의 표현을 한 번 더 빌리자면, “그들은 이르는 곳마다 쳐서 무찌르고 정복했다. 그러나 그 서양인들에게는 기화신령(氣化神靈), 기화지신(氣化之神)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기화지신을 간단하게 바꿔 말한다면 바로 신령한 생명 또는 신령한 생명력입니다.

서양의 기계문명은 동양을 침략하고 전 제3세계에서 인간과 사회, 문명과 문화와 자연생태계를 파괴하고 자기들의 문명을 강요했지만 그들의 기계문명, 산업문명 속에 기화신령, 즉 활동하는 우주 생명을 상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운 선생은 이와 같은 현상을 ‘개벽의 조짐’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생명질서로부터의 극심한 이탈과 기계문명, 서양의 제국주의적 침략과 인간 파괴, 생명파괴 속에서 수운 선생은 또 하나의 개벽, 후천개벽의 조짐을 보았던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스물 한 자의 주문, ‘지기금지 원위대강 시천주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至氣今至 原爲大降 侍天主造化定 永世不忘萬事知)’의 그 뜻 속에 개벽의 성취, 개벽을 성취할 수 있는 인간의 수행방법, 인간의 실천방법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 주문의 뜻은 제 식으로 생각한다면 잃어버린 우주의 생명을 자기 안에서 다시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질서에 일치해 살며 타인 속에도 이웃 속에도 그와 같은 무궁한 우주 생명이 있음을 인정하고 서로 공경하며, 동식물 속에도 우주 생명이 살아 있음을 인정하고 동식물을 공경하며, 흙이나 물과 같은 무기물 속에도 생명이 살아있음을 인정하고 또한 공경하는, 그리하여 우주 생명과

일체로 천지를 공경함으로써 천지와 일체가 되는 그러한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생명사상에 의해서 극심한 선천시대의 생명파괴를 극복하고 못 생명을 공경함으로써 생명의 생태적 질서가 회복되는 후천의 시대를 열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개벽사상

개벽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개벽이란 한 마디로 말해서 우주질서 전체가 바뀐다는 뜻이며 우주질서의 변화 속에서 인간의 질서, 인간의 역사적인 모든 조건도 또한 변한다는 뜻이며 5만 년의 인류문명사 전체가 대전환한다는 뜻이겠습니다. 동학에서는 5만 년 개벽이라고 말합니다. 5만 년이란 숫자는 언뜻 듣기에 그저 굉장히 큰 숫자, 긴 세월이라는 막연한 말로도 들립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많은 고고학적 발굴에 의해 역사가들은 인류 문명의 시작, 즉 직립적 인간 속에서 사고하는 인간, 슬기 사람, 호모 사피엔스의 출현, 자의식의 발생, 반성의식의 발생과 때를 같이하는 언어 발생, 노동의 조직화, 공구의 발생, 문명의 시작, 이것을 대개 구석기 시대의 중간쯤, 지금부터 5만 년 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학에서 이야기하는 5만 년이라는 숫자는 명백히 과학적으로도 매우 의미 깊은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수운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후천개벽이 5만 년 이전 선천개벽을 다시 반복하는, 뒤집는 그러한 개벽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 개벽은 크게는 우주적인 사건이면서 동시에 가장 구체적으로는 인류문명사에 있어서의 대전환이며 인간 자신의 정신혁명과 사회적인 적극적 실천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할 전환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벽의 조짐

그러면 오늘날 수운 선생이 예언하신 개벽의 조짐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과연 현대는 엄청난 우주개벽, 인류 역사 개벽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다면 인간의 우주탐험, 우주과학, 천문학이나 물리학, 탄도학 등의 발전에 따라서 공간에 대한 인류의 정서와 사고활동 등은 엄

청나게 넓어졌습니다. 은하계까지는 못 미친다 하더라도 해왕성, 명왕성까지 인류의 정서와 사고가 미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 보더라도 탄소연대 측정 방법의 발견과 그 적용에 따라서, 고고학적 발굴과 탐색에 따라서 과거 수십만 년 수억 년 정도에까지도 시간에 대한 사고와 정서와 감각의 크기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인간이 이전의 역사시대에 있어서 자기 민족이나 자기 문명권 정도로 정도로 사고와 정서가 한정되어 있던 것에 비한다면 놀라운 변화입니다. 또한 무역, 통신의 발달, 수많은 여행자들의 왕래와 인공위성의 출현, 정보의 대중화, 온갖 형태의 상호접촉에 의해서 전 지구는 하나의 복잡한 그물로 변해가고 있고 지구촌이란 말은 이제 상식적인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이와 같은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전 지구적인 생활권이 나타남에 따라서 전 지구적인 정신권, 전 지구적인 영적 공동체가 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 러브록이라는 영국 학자는 지구는 하나의 유기체, 하나의 생명체로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학설을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가이아 가설입니다. 이것은 초기에는 과학자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아왔으나 작년 1989년에는 미국 지구물리학회에서 공식적인 토론에 부쳐지는 사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구에는 마음이 있고 지구 전체는 하나의 살아 있는 유기체, 살아 있는 생명체라는 이 가설은 과학과 종교를 결합시킬 수 있는 길을 열고 있습니다.

1970년 미국과 유럽에서 반전운동, 반인종차별운동 또는 반체제 운동이 격렬해짐과 동시에 히피가 출현하고 온갖 형태의 새로운 문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체제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재래의 서양문명 전체를 부정하면서 새로운 문명을 요구하는 대안 생활집단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명상, 요가, 동양의 신비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점성술이 인기를 끌고 우주 속에서 자기의 위치를 재발견하려는 사람들의 갈증이 커졌습니다.

이 결과 근세 서양의 인간중심주의, 과학주의, 산업주의 이래 자취를 감췄던 새로운 형태의 종교적 인간, 영적 인간들이 다수 출현하기 시작했고, 그러한 영적 인간들에 의한 새로운 문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동시에 새 과학, 새 시대 과학, 이른바 신과학이라고 보르는, 특히 물리학 분야에서의 새로운, 날카로운 연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원시적 생활, 자연적 생활, 문명 이전의 생활에 대한 동경이 일반화하고, 이런 동경심이 일반화하는 데 따라서 동양의 전통 사상에 대한 관심이 서양 세계에서 높아지고 있으며, 이것을 생활화하는 공동체

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문명 전체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원시생활, 원시공동체를 새 시대에 알맞게 창조적으로 부활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이미 역사적 타당성을 잃고, 붕괴하고 있는 것은 여러 분들도 잘 아시는 사실입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제 3의 운동이 녹색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서양 공업 세계 전체에 번지고 있습니다. 이들 역시 새로운 문명을 요구하며 인류의 역사 전체를 바꿀 것을 요구합니다.

천주교 예수회 신부이면서 고생물학자였던 테야르 드 샤르댕이라는 과학자는 우주의 진화가 5만 년 전에 인류의 반성의식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인류의 문명적인 생활과 영적 내지 정신적 활동을 통해서 진행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현대는 그 진화, 즉 인류문명사, 인류 정신활동을 통해서 진행되는 우주 진화의 전 과정이 새로운 비등점, 소위 오메가 포인트라는 극점, 하나의 전환점에 이르고 있으며 인류문화사 전체가 전 지구적인 생존을 하나의 커다란 영적 공동체로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단계에 도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태계의 커다란 변환

이것은 인류문명사 전체가 하나의 시대 단위이거나 세기 단위가 아니라 전 문명 시기, 에포크 전체를 뒤집는 파천황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것들 모두가 개벽의 조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요즘에도 혹심한 더위를 경험하고 있지만, 이 혹심한 더위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과학자들은 아직 상세히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주 절기 전체가 이상스럽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북반구와 남반구의 기후 질서가 변동해서 예전에 있을 수 없었던 일로서, 파리에서 수십 명이 얼어죽는 사태가 나타나고 그런가 하면 아프리카 밀림이 사막화하고 해수면이 높아지고 조수가 변동하며 시베리아의 동토대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강물과 바다의 높이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프레온 가스에 의해 대기권의 오존층에 구멍이 뚫리고 이산화탄소, 메탄 가스에 의한 온실효과 같은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만 꼭 그것만은 아니고 더 큰 어떤 변동이라고 생각됩니다.

선인들이 이야기하듯 지구 전체의 축대가 변동한다는 식의 대개벽과 유사한 형태로 지구 전체의 환경과 지구의 지각 등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가 변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인류가 자연생태계 파괴와 지구 환경오염, 공해의 남발이라는 전 지구적인 범죄를 저질러놓은 것과 물론 관련이 있습니다만 그것까지 포함한 우주 전체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개벽의 조짐입니다. 아마도 생명을 파괴하는 인간의 죄악은 끝없이 차원을 변경하는 우주 진화의 한 틈이요, 또 그 죄악이 그 틈을 더 크게 확대·심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인간은 신령을 가졌기에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드시피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프레온 가스 남용에 의한 오존층 파괴나 이산화탄소 등에 의한 온실효과 같은, 바다의 오염, 강에 대한 오염, 밀림의 벌채, 생물들의 멸종, 이와 같은 현실, 이와 같은 생명파괴라는 전면적인 파괴야말로 개벽의 가장 큰 조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법이 극에 달하면 정법이 출현한다”는 불교의 이야기도 있고, “선천시대가 극점에 달하면 후천시대가 열린다”는 동학적 표현도 있습니다. 이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생명은 신령합니다. 그래서 ‘기화신령’입니다. 신령, 영성이 사방에서 여지없이 쇠퇴하고 빈곤해져 정신이 부패할 뿐 아니라 도덕이 타락하며 생명 파괴가 극에 이르렀기 때문에 사람들 모두가 생명은 무엇인가, 자기와 생명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생명의 본성은 무엇인가, 인간과 자연, 우주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 이 생명에 대한 관심, 새로운 생명의 세계관에 대한 갈증이 제 생각으로는 개벽의 가장 큰 조짐입니다.

개벽과 그 실천

개벽은 잘 아시다시피 천도입니다. 우주진화의 필연적 대세이며 역사 변화의 필연적 추세입니다. 운수, 시공연속체로서의 우주운행의 도수, 그 도수를 결정하는, 즉 천도입니다. 그러나 수운 선생은 “운수야 좋거니와 닦아야 도덕”이라고 했습니다. 필연적 대세가 개벽으로 접근하고 있고, 결정적인 개벽을 향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만 년 후천개벽이라고 했을 때 인류 역사를 통한 전 우주적 개벽의 진행, 우주적 개벽의 진행은 인류 자신이 자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생각에 우리는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천도는 인간의 적극적 노력, 즉 인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류의 영성 쇠퇴와 생명파괴가 전 우주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한다면 인간의 ‘인내천’ 윤리는 전 우주적 실천 윤리인 것입니다. ‘무위이화(無爲而化)’라고 해서 앓아만 있어 가지고 개혁이 우리가 바라는 그대로 진행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주적 개혁 전체의 질서로부터 또 한 번 이탈하는 결과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주 진화에는 차원 변화의 틈이 있으며 이 틈을 넘어서는 인간의 학습, 즉 수양과 실천은 무작위적이고 확률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만 필연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연적·필연적’이라고 보아야 하며 여기에 인간의 윤리와 창조성이 함께 있습니다. 자연성이 있습니다만 잘못될 수도 있으며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천도는 ‘무위이화’지만 그 무위이화, 즉 우주 생명의 조화에 합기덕(合基德)해서, 일치해서 살려고 한다면 인위적 무위, 즉 적극적으로 그 무위를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천도, 즉 우주 생명의 질서를 인식하고 그 질서에 맞춰서 사는 사회생활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운동이 실천적으로 벌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실천운동의 방법과 방편을 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늘 천주교에 대해서 큰 존경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한 늘 가지고 있는 중요한 불만 중의 하나는 백여 년 전 이전 혹은 의암 손병희 선생 시대의 교리와 교리 실천, 특히 사회적 실천의 방편들을 그대로 온존시키면서 그 태두리 안에 머물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온존적 태도, 수구적 태도로서는 오늘날같이 복잡하게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사회 현실에 대응할 수 있는 적극적 방편을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해월 선생은 “천 년 대일변, 백 년 중일변, 십 년 소일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동학과 천도교의 역사도 백 년이 넘어서 백수십 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크게 한 번 변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동학은 종교적 형이상학이 아닙니다. 동학은 살아 있는 사상입니다. 때와 민심에 짝하여 나아가고 들어가는 산 생명체입니다. 이 점 때문에 동학이 위대한 것입니다.

개혁의 때가 자꾸만 늦어지기 때문에(淸風之徐徐兮) 동학은 자기 사상의 주체가 지향하는 대로 자기의 살 방법과 체계를 자꾸 바꾸어야 합니다(五柳先生覺非). 철저한 반성과 쇄신, 교리의 재해석, 개편이 필요합니다. 인간이 개혁을 자각적으로 실천할 그 때에 맞는 방법을 찾지 않으면 개혁의 질서로부터 우리 또한 이탈해 갈 것이며 생명의 질서로부터 이탈해 갈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그 구체적인 실천의 방편과 방법을 찾을 것인가?

오늘은 해월 선생이 수운 선생으로부터 도통을 전수받은 날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아까 말씀 드렸듯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해월 선생에 대한 무한한 존경심 때문입니다.

저는 평소 해월 선생님으로부터만이 개혁의 새로운 실천방법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믿어왔던 사람입니다.

향아설위사상

해월 선생님의 사상이, 중요한 사상들이 여러 가지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도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향아설위 사상과 밥 한 그릇의 사상, 그리고 삼경사상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맞물려 있는 이치로서 우선 향아설위에 대한 제 생각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동서고금의 인류문명사, 인류의 정신적인 역사는 한 마디로 말해서 향벽설위의 역사였습니다. 벽 쪽으로 위패를 놓고, 메밥을 벽 쪽으로 놓고 상제가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비는 그러한 제사 방식의 역사였습니다. 이 제사 방식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동과 사회생활 전체, 인간의 희망과 꿈, 욕구 그리고 고통, 온갖 형태의 인간의 감정과 이성적인 활동, 우주와 자기와의 관계, 이웃 사람들과 자기와의 관계, 모든 타 생명체와 자기와의 관계들을 포함하는 일체의 것을 이 제사 속에 의탁해 왔던 것입니다. 간단히 이야기해서 인간과 우주자연 그리고 신과의 관계가 이 향벽설위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향벽설위는 저 벽 쪽에, 내 시선의 저쪽, 시간적으로는 미래에, 내일에 신이 있고, 천국이 있고, 약속의 땅이 있고, 행복된 낙원이 있다는 제사 구조입니다. 신이 내 눈의 저 앞편에 계시다는 생각은 그 신이 내일 약속의 땅을 나에게 주리라는 생각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노동의 결과와 자기의 꿈과 모든 희망을 미래에로, 저 벽 쪽으로 갖다 놓고 그쪽에 절하면서 오늘을 견디고 오늘을 희생하는, 오늘을 없이하는, 오늘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생활을 하도록 민중에게 요구해 온 것이 인류 고금동서의 역사 전체를 통한 모든 사상들의 총체적 내용입니다.

자본주의는 미래에 어마어마한 물질적 성장·발전과 함께 낙원이 오리라는 약속을 함으로써 온갖 형태의 공황과 노사분규의 위기를 넘어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사회주의 역시 어마어마한 생산력 증대와 함께 실현될 공산주의의 자유의 낙원을 약속함으로써 오늘 모든 노동자들을 초과노동으로 몰아 넣었습니다. 모든 약속과 행복은 미래에 있으며 신과 질서와 가치는 미래에 있는 것으로 착각되어 왔습니다.

해월 선생의 향아설위 사상을 통해서 볼 때에 향벽설위는 허구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마치 과거라는 시점으로부터 미래라고 부르는 어떤 시점을 향하여 진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주의, 생명의 진행 과정도 거기서부터 미래로 화살 방향으로 직선적으로, 시간주의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눈의 착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수운 선생의 시 가운데 ‘월전고후 매시전’이라는 시구가 있습니다. 달 앞에 서서 뒤를 돌아보면 그 또한 달 앞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진리는, 생명은 ‘지금 여기’ 전방, 곧 모든 방향에 살아 있으며 상하좌우, 동서남북, 시방 전체에 생명이 움직이고 있고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다만 단순히 시간적인 과거에서 시간적인 미래로 진행한다기보다는 사방 팔방 시방으로 시공 연속적으로 무한히 분산하면서 동시에 무궁무궁하게 질서를 형성하면서 복잡화하는 것이며 그것이 차원을 변경하면서 끊임없이 반복 확장, 확장 반복하면서 창조적으로 순환하며 신령한 생명이 질적으로 확산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향벽설위는 착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제사 방식 속에 내포되어 있는 문명사 전체의 잘못된, 시간적 착각이라는 사상구조를 혁파한 것이 향아설위 사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제사를 드리고 있는 상제, 즉 사람, 나, 우리 속에 살아 있는 신, 우리 속에 살아 있는 우주 생명, 우리 속에 지금 여기서 마치 작은 씨앗처럼, 비록 낮은 차원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현실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무궁한 우주 생명, 이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따라서 향아설위는 메법의 위치를 벽에서부터 제사 지내는 상제 앞으로 돌려 놓음으로써 인류 문명사 전체를 개혁시키는, 상상적으로 개혁시키는 일대 전환점을 만든 것입니다.

더욱이 죽은 귀신의 시간인 밤이 아니라 산 한울님의 사람의 활동이 가장 왕성한 대낮 정오에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모든 종교와 사상의 ‘피안’을 ‘차안’으로 혁파한 것이며 살아 생동하는 산 사람, 산 민중의 생명 종교의 창조를 뜻하는 것

입니다.

아시다시피 제사는 가장 성스러운 것입니다. 가장 성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제사 지내는 사람의 가장 속된 노동과 분리돼서 그 노동을 포섭하는 상부구조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향아설위에서는 가장 성스러운 신의 활동과 가장 속된 인간의 노동이 아무런 격차도 없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인류문명사의 구조를 전체적으로 변혁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생활에 있어서 모든 인간의 노동의 결과를 자기 자신 속에 살아있는 노동 주체인 한울님에게 되돌리는 것이며, 우주 생명이 우주 생명에게 되돌리는 순환을 실현하는 창조 행위, 확대재생산 행위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사인 동시에 노동이며 사회 정의 실현인 것이며, 사회 정의의 실현인 동시에 문화적인 자기 실현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에 조상의 혼령이 자기 안에 살아 계신다면 우주 전체의 생명들도 자기 안에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밥 한 그릇의 사상

밥 한 그릇을 자기 앞에 갖다 바치는 그 제사를 지낼 때에 자기 앞에 갖다 바치는 밥 한 그릇, 삼시 세 끼 먹는 밥 한 그릇 속에는 우주 전체의 삼라만상의 협동적인 노동이 들어 있습니다.

농사는 인간이 혼자 짓는 것이 아닙니다. 메뚜기와 지렁이, 거미의 도움이 필요하며 물과 흙과 바람과 태양의 작용이 있어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수의 변동과 달의 변화에 따라서 농사는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천지 삼라만상의 협동적인 움직임에 의해서 쌀 한 톨, 밥 한 그릇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밥을 우주의 온갖 생명이 자기 안에 계신 우주 생명에게 갖다 바침으로써 우주 삼라만상의 공동의 노력을 통해 나타나는 천지의 생명 운동을 자기에게 통합시키는 것이며, 순환을 통해서 다시금 노동력의 외화를 통해서 우주의 삼라만상과의 빛나는 생명체협으로서의 창조적인 생산노동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창조적 진화, 창조적 순환의 매일매일의 구체적인 성취인 것입니다. 제사와 식사는 여기서 하나가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인간 안에 살아 있는 우주 생명은 처지 삼라만상과 일치되어 있으며 자기 안에는 수천억 은하계까지 포함하는 전체 생태계,

전체 생명의 운동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안에 먼 조상, 가까운 조상, 십대와 백대조, 백대조 이전의 한울님, 즉 요즘 말로 하면 우주 전체의 진화의 역사가 포유류, 파충류 단계, 식물과 바이러스와 무기물까지 포함하는 전체 진화의 역사가 자기 안에, 현재 안에 살아 있다는 생각과 일치합니다.

이것은 현대 정신과학, 뇌생물학, 무의식 연구에 의해 밝혀진 인간의 심층의식 안에 전 진화의 기억이 축적되어 있고 예감이 움직이며 인간의 두뇌활동 안에 전 우주 삼라만상의 생명활동이 다 그대로 일어난다는 보고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시천주’요 ‘인내천’이며 ‘시’ 안에 우주 신령·생명의 전체 진화·기화 활동, 곧 ‘내 유신령 외유기화’를 포함하여 설명한 이유입니다.

조상이 내 안에 살아 있다는 이야기는 바로 이것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조상이 살아 있다는 생각은 미래에 태어날 자손들의 혼백의 씨가, 생명의 씨가 이미 현재의 자기 안에 살아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 살아있는 인간, 제사 지내는 사람, 식사하는 인간의 그 마음과 기운 안에는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생명의 전 우주적인 역사가 살아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현실의 생활 속에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삼세실유(三世實有)의 사상과 그대로 일치할 뿐만 아니라 아인슈타인이나 민코프스키가 이야기하는 4차원 세계와도 그대로 일치합니다. 따라서 향아설위 사상은 전 문명사의 구조를 개혁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 긴급히 요청되고 있는 과학과 종교의 통일, 결합에 대해서 커다랗게 문을 열어놓은 사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삼경사상

그리고 천지공경이라는 사상에서 특히 우리가 중요시해야 할 것은 삼경사상(三敬思想)입니다. 그것은 곧 오늘날 급박한 인간 정신의 주체분열, 사회윤리 타락, 환경오염에 대답하는 탁월한 생명사상이며 그 안에 들어 있는 경물, 제 안에 살아 계신 한울님을 공경하여 우주으로 해방되며, 모든 사람 안에 살아 계신 한울님을 공경, 이웃을 한울처럼 공경할 뿐만 아니라 물건을 한울처럼 공경한다는 사상, 이것은 그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상으로 생각됩니다.

물건을 공경하는 데까지 나아갈 때 비로소 도덕의 극치에 이른다고 하였는데,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 산과 바다, 그리고 온갖 동식물들에 대한 파괴가 엄청나게 진행되는 현실에서 볼 때, 물건을 공경하고 땅을 공경하라는 이 사상이야말로 오늘날 환경보존을 위해서도, 생태계의 균형 회복을 위해서도 중요한 사상이라고 봅니다. 이 때의 그 물건은 동식물만 아니라 흙·돌·바위 같은 무기물까지 말할 뿐 아니라, 인간이 생산해 낸 농산물·공산물·수예품, 유형·무형의 문화적 재화나 예술작품 전체를 말합니다.

노동은 사실 화합이며, 공경 지극한 사랑으로서의 성교인데 그 결과 생산된 생명체이기 때문에 물건을 신령한 생명으로 공경하라는 뜻이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새로운 노동관과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상으로 평가될 것이며, 소위 환경운동의 기초 윤리관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해월 선생의 사상 모두가 그렇겠지만 향아설위와 밥 한 그릇의 사상, 삼경사상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것은 이른바 생명의 세계관이고, 생명운동의 기본 원리입니다. 해월 선생님의 이와 같은 생명사상은 그럼 구체적인 운동과 실천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올해가 「내칙(內則)」과 「내수수문(內修道文)」 반포 1백 주년이라고 합니다. 「내칙」과 「내수도문」은 포태(胞胎)와 가정생활, 식생활, 그리고 심고에 관한 수양지침인 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내칙」과 「내수도문」에 나타나 있는 것은 포태, 즉 임신을 하거든 모로 눕지 말고, 기운 자리에 앉지 말고, 무거운 것을 들지 말고, 나쁜 생각을 하지 말고, 육고기나 해물을 먹지 말라, 대개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것이 그저 간단하게 보입니다마는 전혀 간단한 생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선 생명에 대한 공경을 밑에 깔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포태된 바로 그 생명이 무궁하고 신령한 우주 생명임을 인식하라는 것으로서 천지조화가 「내칙」과 「내수도문」에 다 들어 있으니 신실봉행하라 그랬는데, 천지조화가 바로 이 「내칙」과 「내수도문」에 들어 있다는 이야기는 천지우주의 생명의 비밀, 그 무궁진화, 창조적 진화, 즉 조화의 내용이, 그것을 부녀가 포태와 출산을 통해서 실천하는 방법이 「내칙」과 「내수도문」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태극이 움직여 음양이 상보적으로 화합함으로써 만물을 낳는 것처럼 부부가 화순하여 아이를 낳는 것을 두고 흔히 명제가 반명제가 합명제로 창조적 통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물주의나 실재론·형상론자들의 눈입니다. 사실 아기의 포태와 출산은 우주의 차원 변화이며 새 차원이 열리고 새 시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이의 출산은 만물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수도문」에서는 아시다시피 부모님을 공경하고, 가장을 공경하고, 아들들을 사랑하고, 노비를 자식처럼 아끼고, 육축을 아끼고, 손님을 한울님으로 대접하고, 아이들을 한울님으로 대접해서 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상들은 며느리를 한울님으로 보라는 이야기와 다 한 가지 이야기로 보입니다. 바로 이 사상은 자기 안에 있는 우주 생명이 타인에게도 있으며 가족 전체에게도 우주 생명이 있으며 가족 전체는 하나의 거룩한 생명공동체라는 사상을 밑에 깔고 있습니다. 오신 손님도 한울님이요, 이웃도 모두 한울님이라는 뜻입니다.

개혁의 실천적 방편은 생명운동

이 모든 우주 생명에 대해 공경하라는 가르침은 환경보존과 위생에 관한 이야기로 발전합니다. 가래침을 멀리 뱉지 말라, 물을 멀리 뿌리지 말라, 만약 가래침을 뱉으면 닭아라, 이 이야기는 요즘 이야기로 바꾸어 말한다면 환경보존에 대한 사상입니다. 가래침을 뱉어서 자연생태계를 더럽히지 말라, 이 이야기는 자연생태계, 흙과 물은 한울님의 얼굴이요, 천지의 얼굴이기 때문에 한울님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심고를 하라, 끊임없이 심고를 하라, 매사를 심고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살아 계신 한울님에게 모든 것을 고해바침으로써 끊임없이 공경하는 마음으로 일치해서 자기 스스로 우주 생명에 일치함으로써 우주적 주체를 세우고 우주에 스스로를 해방하는 첩경이 심고입니다.

삼시 세 끼 밥, 밥을 먹을 때에 여러 가지 주의할 사항, 이 빠진 그릇, 금 간 그릇에 먹지 말라, 묵은 밥을 새 밥에 섞지 말라 등등. 이것은 밥을 먹는 한울님이 지극히 거룩할 뿐만 아니라 그 한울님이 잡수시는 밥도 또한 지극히 거룩하다는 사상입니다. 따라서 밥 먹는 일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으며 하물며 그 밥에 농약을 집어넣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울님을 해치고 천지를 병들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삼시 세 때의 식사를 부모님 제사 봉행하듯이 거행하라. 여기서 식사와 제사는

일치하며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은 하나가 되며 일상 생활과 우주 생명의 창조와 순환 질서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심고를 통해서 실천되고 여러 가지 조심하는 행위를 통해서 실천된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수양의 내용이기에 때문에 학질당학에 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간질이나 문둥병까지도 낫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 생각하면 허황하게 들릴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여기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병이 낫는 것뿐만 아니라 대도를 속히 통할 것이라는 말 속에 생명과 생명체험의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이 「내칙」과 「내수도문」에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실천해야 될 개벽운동의 실천적 방안을 찾을 수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해월 선생의 사상은 제 식으로 바꾸어 이야기한다면 생명사상이요, 「내칙」과 「내수도문」에 나타나 있는 실천적 방안은 생명운동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개벽은 천도요, 인사는 생명운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인간, 사회, 자연생태계의 파괴와 근원적 우주 생명의 질서로부터의 이탈이 극에 달한 현실 속에서 그 생명의 본성을 인식하고 그 생명의 본성과 질서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생명운동을 통해서만이 개벽을 실천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부와 생명운동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할 사항은, 「내칙」과 「내수도문」이 극히 중요한 생활지침이며 실천방편이라는 점인데, 이것을 특히 부인들 여자들에게 주었다는 점, 여자들 주부들을 중요시했다는 점에 앞으로 생명운동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명심해야 할 사항이 들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성은 개벽운동, 곧 생명운동의 앞장입니다. 주체라고까지 부를 수 있습니다. 모든 중생, 모든 민중, 모든 인간이 주체이지만 여성과 주부는 주체 중의 주체입니다. 오늘날 실제로 주부들이 생명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 단체가 있지요.

우선 주부들이 자기 집 밥상, 밥그릇과 반찬 속에 중금속과 수은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유해물질이 들어 있지 않은 밥, 유독물이 들어 있지 않은 채소를 먹음으로써 자기 생명과 가족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운동으로부터 이것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유기농산물을 유기적 방법, 생명의 농법에 따라서 농사를 짓

는 농민 생산자들과 직거래를 틈으로써 채소와 쌀을, 또는 기타 과일들을 직접 구매하여 자기 집 밥상을 꾸리는 운동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운동은 급기야 자기 생명이 소중하고 가족의 생명이 소중할 뿐만 아니라 채소와 쌀 속에도 어떤 신령한 생명이 살아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구미가 먹지 않는 쌀은 이미 오염된 쌀이며, 방부제가 들어 있는 쌀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쌀이란 것은 바구미가 꿀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쌀은 살아 있는 생물이라는 것입니다. 쌀이 살아 있는 생물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그의 의식은 모든 물질 속에 보이지 않는 어떤 생명이 살아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인식은 그 단계를 넘어서 쌀을 소출하는 땅도 또한 살아 있는 생물이며 거기에 움직이고 있는 지렁이, 메뚜기, 거미들이 모두 다 신령한 생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살아 있는 땅이 지나친 농약과 비료를 주었을 때 죽어가는 것은 그 비료가 살아 있는 생명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화학영농방법을 버리고 자연농법이나 유기적인 농법에 의하지 않고는 땅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농민들과 함께 연대해서 땅을 살리는 운동으로까지 공동체운동을 벌여나가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해월 선생님의 생명사상, 생명운동의 방법을 자기들 나름대로 실천하고 있는 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주부들이 중심이 되어서 생활운동 속에서 생명의 고귀함과 우주생명의 통일성, 전체성, 편재성(偏在性)을 깨닫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운동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의 위험과 한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많은 운동권 사람들이 지적하듯이 소득 수준이 높은 중산층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 이기주의, 개량주의 운동으로 머물 가능성이 있습니다. 빈민층이나 저소득층에게 그러한 운동이 퍼져나가기에는 힘든 조건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용조합운동과 같이 경직된 틀 속에 미구에는 갇혀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에코 비즈니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에서 생태산업, 환경산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유기농산품이나 저농약·무농약 농산물을 대규모 자본을 투자해서 대기업이 독점해서 시장에 내놓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독점 재벌이 이미 손을 대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대기업들이 대규모 자본을 투자해서 생태산업을 독점할 때 주부들을

중심으로 한 소비자운동이나 열세에 있는 생산자들의 유기농운동은 파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한계를 극복하자면 광범위한 각계 각층의 사람들 속에서 그리고 다방면에 걸쳐서 생명의 세계관에 대한 각성운동, 생명의 중요성과 그 총체성·통일성에 대한 각성운동, 하나의 문화운동이 나타나야 하고 이것이 생활운동과 결합되거나 병행되거나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는 관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즉, 사회적 가치관이 변해야 합니다.

문화운동의 출발점

그런데 이 경우에 생활과 결합되는 문화운동의 출발점은 역시 자기 안에 무궁한 우주 생명이 살아 있으며 그 우주 생명은 또한 이웃 속에도 살아 있으므로 이웃을 거룩한 존재로, 한울님으로 공경할 뿐만 아니라 동식물 무기물 속에서까지 살아 있는 한울님을 인정하고 그 우주 생명을 공경하며 공간과 시간 전체, 과거·현재·미래의 온 삼라만상을 모두 한 생명의 순환과 연속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생각과 각성, 이것이 문화운동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고 생활운동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른바 운동권 사람들이 많이 그러는데, 유사종교다, 신비주의다, 관념적이다, 현실 외면이다, 전열 이탈이다 하는 그런 비난을 많이 합니다. 생명운동을 이야기해 온 지 10년이 되지만 10년 동안 줄기차게 끝없는 비난과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과연 이와 같은 생명운동 또는 생명운동으로서의 문화운동, 세계관 운동이 관념적이에요, 비현실적이에요, 비과학적이며 흑세무민하는 그런 것에 불과한가! 이 점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여러 가지 현실 운동들을 생명의 사상, 생명의 세계관, 생명운동의 관점에서 한 번 살펴봄으로써 여기에 대한 대답을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며 사실상 오늘 제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세계관과 통일운동

통일운동, 지금 아시다시피 통일논의는 무성하고 정부와 재야, 국내외를 막론하고 왕성하며, 통일운동도 활발합니다. 전민련, 사제단 등이 이북을 간다고 하고 천도교에서도 이북 사람들과 만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북에 가고자 신청하였으며 국민들의 통일 열의는 엄청나게 높습니다.

이러한 운동들은 매우 중요하고 이것은 미래에 있을 완전통일에 접근하기 위한 중요한 전 단계적인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운동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점점 발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빠뜨려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완전통일에 대한 우리의 비전, 즉 전망이 이 운동 전체를 인도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완전통일에 도달할 희망은 없습니다. 자본주의적 사회양식이나 사회주의적 사회양식으로 민족통일을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이 오류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자본주의적 사회양식이 틀려먹었다는 것은 우리가 철저히 느끼는 바요, 사회주의적 사회양식이 실패했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으며 이미 동구 사태와 소련의 변화가 증명합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나 사회주의 체제를 자꾸만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그것을 강화시키는 방향이 통일운동과 병행되리라는 생각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양 체제는 접근해야 하며 평화와 군축, 불가침 조약의 체결, 남북의 문화교류와 경제교류 등의 성취, 그리고 많은 이산가족들의 재회 등은 추진되어야 하며 이루어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평화공존을 위해 연방제든 공동체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남북연합은 추진되어야 하고 유엔 개별 가입 또는 동시 가입 등은 추진되어야 하며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장점을 결합하는 수렴체제와 같은 것이 경제구조에서 정착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것 또한 부분적으로는 긍정적인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것만으로 완전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 나라를 분단한 것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양 종주국입니다. 그것은 국내파 사회주의자, 국내파 자본주의자들이라기보다는 강대국, 미·소라는 양 패권주의, 자본주의 종주국과 사회주의 종주국의 세계 분할지배 구도에 따른 기하학적인 절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그 형태는 약간 다르나 동일하게 산업문명, 기계문명, 기계론적 이데올로기에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문명과 기계문명이라는 이 큰 세계 지배의 궤를 어떤 방식으로든 극복하지 않고서는 민족통일, 특히 완전통일은 기약하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우리의 통일논의는 이제부터는 기계문명·산업문명의 폐해, 끊임없는 생명파괴와 환경파괴·인간파괴를 하고 있는 산업문명·기계문명과 그 이데올로기적 기초와 그것에 연관된 사회주의적 방식, 자본주의적 방식, 파시즘, 수렴·수정주의 등과 앞으로 생겨날 생태사회주의, 생태파시즘, 신좌익, 신우익, 민주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등 온갖 것들의 이합집산 일체에 대한 비판적 극복, 물론 장점은 수용하겠지만 그 단점은 여지없이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 새로운 사회양식, 새로운 문명양식에 대한 드넓은 창조적 전망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통일에는 통일의 사상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장준하 선생도 “우리의 민족통일은 통일 이상이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국토 통일, 민족의 재결합으로 통일이 되리라는 생각은 너무도 소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통일에는 통일의 사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통일을 창조적 통일로, 이상 사회 실현의 길로 연결시킬 수 있는 창조적인 철학이 밑에 깔려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것을 일단은 수운과 해월 사상에서 발견합니다. 그것은 생명의 세계관이요, 생명운동에 의한 인간과 자연과 우주질서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개혁의 실천이며 생명을 공경하는 새로운 문명의 창조와 결합된 민족통일이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남북 민족의 삶의 현실은 엄청나게 황폐해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멸시와 착취, 억압이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온갖 형태의 노동 소외와 사회적 소외가 나타나고 있으며 자연파괴가 심화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면적 생명파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회복시키고 인간과 자연을 화해시키며 인간과 인간을 공동체적으로 결합시키는 커다란 생명의 세계관이 나타나고 그 생명의 세계관에 입각한 살아 생동하는 통일사상, 통일철학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되며 그에 따라서 새로운 생활양식과 사회제도의 틀이 씨앗부터라도 나타나서 남한 사회에서만이라도 확대되고 발전하는 과정을 통해서 점차 남북 사회에 확대될 때에만이 그 과정에 있어서의 공존도 지킬 수가 있으며 점차 완전통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통일논의를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논의와 노력은 계속되되 그것의 밑바닥에 오히려 그것을 선도하는 전망으로서, 그것을 인도하는 비전으로서 생명의 세계관, 생명의 생활양식 창조라는 중요한 과제와 그 실천운동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민중운동의 물결

민족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민주화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봅시다. 지금 민주화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장애에 걸린 것 같습니다.

6·29 이후 조성된 좋은 분위기를 민주 세력들은 잘 활용한 것 같지 않습니다. 민주 운동 단체들이 대체로 체제 도전이나 정권 도전에 집착함으로써 일상 생활과 민중의 삶의 속속들이까지도 퍼져있는 비민주적·군사적 요소에 대해서 척결하는 감시자, 철저한 감시자·개혁자로서의 역할은 놓쳐버렸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역할을 새롭게 회복하며 일상적인 민중의 삶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는 비민주적 요소에 대한 극복의 방향에서 민주화 운동은 재편되어야 하며, 광범위하고 다양한 그리고 신선한 시민·주민·민중운동이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월 항쟁은 제가 그 때 병중이었습니다만 나중에 신문을 검토한 결과 어떤 지도부에 의한 기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 광범위한 민중의 자발적 힘에 의해 이루어진 이상한 혁명이었습니다.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주의해야 합니다. 이 점을 주의한다면 민중의 생존 전체에 걸친 여러 가지 복잡한 요구를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민주화 운동을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에도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현실에 있어서 지금 민중들의 삶의 내용은 매우 복잡합니다. 돈도 조금 벌 수 있고, 밥도 조금 먹을 수 있지만, 그것을 벌고 밥을 먹는 데까지에 이르는 사람들의 노고는 말할 수 없이 복잡합니다. 엄청난 정신적 소모를 동반해야 하며 엄청난 자기파괴, 이웃과의 경쟁, 가족의 해체, 친척과의 반목 그리고 자기 자신의 상실 없이는 돈도 벌 수 없고 밥도 먹기가 힘든 세상이 오늘날의 형편입니다.

지역과 지역 간에, 계층과 계층 간에 말할 수 없이 복잡한 관계가 형성되고 있으며 인간의 사회생활 전체가 복잡하기 짝이 없습니다. 복잡다단하고 다양한 이 현실의 삶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탄력 있게 대응하고 다양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살아 생동하는 삶의 정치적 견해가 나타나지 않고서는 민주화 운동도 민중생존 그 자체에 직접적으로 결합되기가 힘들며 법이나 제도를 참으로 민중의 생활에 연결시켜서 혁파하거나 창제하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생명의 세계관에 입각한 민주화 운동

특히 지금 중요한 것은 민주적 대연합이라는 것입니다. 민주적 대연합, 이것이 요구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힘든 이유는 지역 간의 문제, 계층 간의 문제, 물질 생활과 정신 생활의 문제 등등 복잡한 민중적 삶에 총체적으로 대응하고 현실의 삶에 적정한 정책을 내세우고 제도와 법을 창제할 수 있는 살아 생동하는 폭넓은 정치적 견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런 정치적 견해가 성립된다면 보수와 혁신, 경상도와 전라도 따위로 크게 갈라져 있는 세력들을 하나의 포괄적 전망 밑에 통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살아 생동하며 총체적인, 탄력 있는, 살아 있는 사람들의 삶의 정치학, 삶의 정치적 견해라는 것은 살아 생동하는 생명에 대한 이해, 생명의 세계관에 밑바탕을 두지 않고서는 나오기 힘듭니다.

따라서 우리의 민주화 운동은 한편으로는 현 정부의 여러 가지 시책에 대해서 감시·비판·저항하는 운동도 진행되어야 하지만 일상적 생활의 감시자, 전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구체적 감시자의 역할을 하며 동시에 생명의 세계관 발견에 노력하며 여기에 기초한 통일적인 삶의 정치적 견해를 찾아내도록 노력함으로써 실질적인 민주화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생명, 삶 이런 이야기를 하면 반드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명은 누구나 가진 것인데 생명운동에는 적이 없단 말이나? 대답은 ‘아니다-그렇다’입니다. 적은 있습니다. ‘그렇다’입니다. 적은 바로 우주 생명의 질서를 왜곡시키는 과학자, 세뇌 지식인과 아편 종교가, 생명의 질서에서 이탈·소외되어 오히려 생명의 질서를 역습 파괴하고 억압·착취·세뇌·감금·분단·분할하는 제국주의자·패권주의자·다국적 기업 총수·군벌·공산당 정치국·독점재벌·매판 에이전트·파쇼 권력과 고급 관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인간파괴·자연파괴·환경파괴·생명파괴를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에 대해 저항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암세포적 조직과 그 조직의 확장 기능을 해체해야 합니다. 그러나 역시 그들도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명을 파괴할 것이 아니라 한방이나 동의학 등의 방법과 같은 활인처방으로 전향 부활시켜야 합니다. 즉, ‘아니다’입니다.

노동을 통한 자기실현

요즘 가장 민감하고 심각한 문제는 노동문제입니다. 노동운동 역시 현실에 있어서 많은 노동자들의 각성과 좋은 성과들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도 향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노동운동의 지도부에 문제가 있습니다.

노동운동은 대개 두 갈래로 갈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임금상승과 처우개선 등 권익보호의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경제 투쟁 방식이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혁명적 폭력에 의해서 노동자 주권국가를 건설한다는 사회주의적 정치투쟁 방향이 다른 하나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노동이란 것은 우주 생명의 끝없는 창조적 활동이 인간을 통해서 나타나는 가장 거룩한 활동입니다. 노동은 자연자원과 마찬가지로 시장원리로 환원될 수가 없습니다. 임금이나 화폐에 의해서 노동은 평가될 수 없는 것입니다. 노동자는 노동을 통해서 자연생명체와 적극적으로 접촉하며 이웃들의 생명활동과 일체로 공동체적으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이른바 주관적 생명력과 객관적인 대상의 생명이 통일되어 빛나는 생명체임을 함으로써 노동자가 자기 실현, 인격 실현을 하고 노동을 통해서 자기를 해방하는 활동인 것입니다. 한 마디로 노동자는 노동을 통해서 세계와 연결되며 자연과 화해하며 생명에 일치하여 새로운 생명체를 생산해 냄으로써 자기의 세계 내 존재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체험을 통해서 인간의 인격적 실현을 하는 것이며 자기를 해방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것이 임금 속에서 평가됩니다. 임금투쟁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의 물신숭배적인 삶의 틀 안에서 몇 푼의 임금이 상승되었다고 해서 노동자의 인격이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보다 높은 임금에 의해서 중산층과 같은 생활을 하겠다는 그러한 방향으로 운동이 진행된다면 임금투쟁 그 자체는 매우 중요하지만 거기에 목표를 고정시키는 지도부의 생각은 옳바르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혁명적 폭력을 통한 노동자 주권국가의 건설이라는 사회주의 노선은 이미 동유럽에서, 소련에서 본 바와 같이 중앙집중적 지시체제에 의한 노동의 조직화, 관료주의에 의한 노동의 계획, 그 성과의 사전 조직 등에 의해서 진행된

결과 엄청난 노동소외를 일으켰고 노동자의 생명체험의 파트너인 자연 생명은 단순한 정복대상·약탈대상이 됨으로써 노동자는 자연 생명과 분리되며 그 결과 노동자의 사회적 해방이나 인격 실현과는 거리가 먼 아주 지루한 사회로, 종교라는 환상적 아편 대신 알코올이라는 물질적 아편에 의해 자기를 환상적으로 해방하는 그러한 사회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인간 생명의 리듬에 맞는 노동 구조

바로 이와 같은 현실을 보면서도 우리나라에서 똑같은 오류를 범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노동운동은 진정한 노동자의 인격 실현, 노동의 성스러운 본질의 실현, 자연생명체와 노동을 통한 인간생명 활동 사이의 적극적 연관을 통해서 노동자가 세계와의 창조적 관계를 확립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해방하는 새로운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제가 우선 제안하고 싶은 것은 노동자 자주관리, 소위 위커스 콜렉티브, 생산자 공동체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스페인 바스크 지방에서 진행되고 있는 실험인데 몬드라곤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는 우선 노동자들이 자기 임금의 얼마 만큼씩을 모아 저축조합을 만들고 그 저축조합을 노동자 은행으로 발전시킵니다. 그 노동자 은행에서 노동자에게 자금을 대출해 줌으로써 이들이 새롭게 자기들이 출자자가 되고, 경영자가 되어 협의체를 구성해서 직접민주주의 방식으로 회의를 운영하며 이 회의의 결과를 가지고 생산에 임하는 그러한 생산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공장에서는 맨 처음에 몇 사람을 공업 학교에 보내기도 하고, 차차 공장학교를 소규모로 만든 뒤에 젊은이들을 흡수해서 새로운 생산기술을 습득시키고 그 숫자가 불어나면 다시 분리시켜서 공장을 설립하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그러한 체계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자 자주관리 생산자 공동체는 오늘날 대량생산 상품, 공해상품이 판을 치고 있는 시장 한 귀퉁이에서 노동자의 정신과 생명력이 살아 있는 상품, 즉 유기적인 생산방식과 유기적인 질 높은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는 공산품을 생산해 냄으로써 시장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이 우리 조건에 알맞게 더욱 연구되어서 노동운동의 새로운 방향으로 정착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 밖에도 생산공정, 생산관리, 생산내용, 양과 질 등에 대한 노사 공동결정권의 획득, 또는 대기업에서의 경영

참가와 같은 것이 요구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빈번하고 심각한 산업재해에 대해서 보다 날카로운 반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이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서도,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도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대들어야 할 것이며 대규모 생산공정, 오토메이션 구조에 대해서도 그것을 소규모적인 그리고 유기적인 생산공정으로 바꾸도록 압력을 가하여 인간이 기계의 리듬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의 리듬에 맞도록 생물학적 원리에 의해 기계를 제도·제작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산업재해를 전면적으로 없애는 방향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농민과 연대하여 유기농산품을 집단적으로 구매하는 운동을 벌이면서 사회적인 그리고 자연적인 생명을 회복하는 운동에 노동자도 기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공장 안에서 생산하는 상품이 소비자에게 막대한 생명의 피해를 주고 있고 심각한 생체파괴를 유발하고 있고 거기서 나온 폐수가 자연을 오염시키고 있는 현실에 눈을 돌려야 합니다.

노동자는 자기의 노동을 통해서 자기의 인간적 자부심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자기가 생산하는 상품이 자기의 생명을 해치고 남의 생명을 파괴하는 공업, 자연을 훼손시키고 오염시키는 공업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생산에 참여하는 자기 자신이 역사 전진의 주체라거나 문명건설과 전 인류 해방의 주체라고 하는 등의 자부심을 얻을 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일차 재료, 즉 노동 대상인 자연생명의 약탈적 채취·절단·파괴에 반대해야 하며 폐수·매연·소음으로부터 유해물질을 이용하는 공산품, 나아가 무기·폭탄 제조 따위 일체의 생산과 그 결과에 의한 환경파괴 내지 인류생명의 파괴 등은 날카롭게 거부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생산공정 전체를 생명의 원리에 맞게 뜯어고치는 운동에는 노동자들이 보다 더 주의를 집중시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자연이나 세계와 이웃 동료들, 동포들과의 자기 자신의 살아있는 생명관계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노동운동을 집중시킴으로써 자기의 인격적인 완성과 해방의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노동자가 무궁한 우주생명을 제 몸에 모신 신령한 존재요, 그의 노동이 생명의 가장 적극적인 창조적 생산활동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처우와 임금의 내용, 즉 노동자의 생명과 노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혁명적으로 변화해야만 할 것입니다. 산재·부상·생리문제 등은 물론이며 강도 높은 노동, 분진과 매연이 휩쓰는 작업장에서의 노동은 말할 것도 없고 기계의 리듬이 인간생체의 리듬에 어

곳날 때 생기는 신경장애나 아주 섬세한 정서나 무의식에 있어서의 상처까지도 모두 다 계산되고 지불되며 치료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체제가 아니라 문명이 바뀌어야 해결될 문제이나 지금부터라도 낮은 단계, 제한된 범위에서라도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노동자의 운동 지도부의 새로운 구상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 사무직 노동자, 정보, 과학, 유통, 금융, 문화, 서비스 부문 등 광범위한 화이트 칼라의 운동이나 문제도 이와 같은 시각에 입각하여 특히 생명의 영성에 입각, 정신노동 등에 일어나는 심각한 소외나 분열, 장애, 질환 등의 문제가 다방면으로 검토되고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생명과 인간의 신령함에 관심이 없어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정신노동의 영성, 창조성, 인간신령의 사회적 생태성, 통신하는 생물 본성, 삶의 네트워크적 본질 등에 대한 가치평가에 혁명적 변화가 있어야 이 부분의 해결도 가능합니다.

농민운동과 생명운동의 관계

농민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지금 크게 말썽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물론 저항해야 할 것이며 농산물 가격문제라든가 농업보조금, 구조조정문제, 농정 전반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 계속 여러 가지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 우루과이라운드는 약소국, 제3세계에 대해서는 치명적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제현실로 볼 때 우리 농업은 일종의 함정에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동차, 섬유, 가전제품 따위를 미국이나 유럽에 수출하고 있고, 경제성장정책의 핵심을 수출에 두고 있는 한 이 함정에서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물론 정부가 우루과이라운드를 무효화하도록 국민적 압력을 가하는 과정에서 농업정책을 개정 또는 전향적으로 확립하도록 해야합니다만, 농업을 아예 청산하려드는 현 정부에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동시에 농민 자신들이 농산품의 질, 품질, 고부가가치에 대해서 착안하지 않고서는 농업이 부활할 길이 현실적으로 없으며 농민들이 살아갈 길도 원천적으로 찾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전 국민적으로 신토불이의 생명사상, 사람은 자기가 태어난 땅에서 나는 농산물을 먹어야 건강하다는 사상을 선전하면서 우리 농산물 사먹는 운동을 벌여야 합니다. 이에 대응하여 농민은 협업적인 유기농공동체운동을 벌임으로써 품질 높은 농산물, 소비자가 요구하는 살아 있는 생명의 농산품을 생산해 내는 운동 그리고 생물학, 미생물학 분야의 새로운 과학적 기술을 보다 과감하게 전통적인 유기적 농업방법에 결합하는 쪽에서부터 활로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가톨릭농민회 같은 단체에서는 생명공동체운동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더욱 넓어져야 하고 깊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방향은 농민들의 생명에 대한 자각, 이른바 유기농 철학이 없이는 어렵습니다. 이제부터의 농민운동은 생명운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광범위한 소비대중, 국민 전체의 생명 각성, 생명의 가치관이 확립되는 생명운동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여성의 역할과 여성운동

여성운동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봅시다.

이제까지 여성은 한편으로는 수천 년간 계속된 바와 같이 남성의 성적 노리개, 부엌데기, 또는 애 낳는 씨받이 정도로밖에는 평가되지 못하고 있었고 오늘날 여성들을 보는 눈이나 여성운동의 일부도 이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형태로 여성에 관한 신보수주의적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항하는 새로운 진보적인 여성운동, 서구의 사상가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진보적인 여성운동은 그러나 여성노동의 사회적 해방만을 주장하면서 모성, 어머니로서의 여성, 주부로서의 여성에 대한 평가를 전혀 놓쳐버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TV에서 한 진보적 여성운동가가 말하기를 “우리 어머니는 나까지 포함해서 네 자녀를 낳고, 기르고, 먹이느라고 무의미한 세월을 보냈습니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무의미한 세월, 낳고 기르고 먹이고 가르치는 이 일이 무의미하다고 하면 자기 자신의 근본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만약에 어머니의 그 같은 노력이 없었다면, 어머니로서의 모성의 역할이 없었다면 자기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여성의 모성, 어머니로서의 역할과 주부로서의 역할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은 생명의 출산자요, 양육자이며 보호자요, 교육자입니다. 또한 위로자입니다.

다. 이와 같은 여성의 모성과 여성의 주부노동 또는 가사노동에 대해 단순한 감상적 평가가 아니라 과학적·객관적인 사회적 평가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한 혁명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생명의 세계관이 뿌리를 내리고 그에 입각하여 생명의 공경이 일반화되며 어머니와 주부로서의 역할이 중요시된다면 여성의 사회적 노동에 대한 평가와 그 노동의 내용 및 시간은 당연히 가벼운 노동, 여성에게 알맞은 노동이 되어야 하며 그 시간은 남성의 절반 이상 정도로 줄어들어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여성은 가정에서 어머니와 주부로서의 중요한 노동과 역할을 또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생리 휴가, 출산 휴가 등이 훨씬 더 길어져야 할 것입니다. 미혼여성에 대한 경우 이에 준해야 하며, 취업하지 않은 주부의 경우 그 노동평가는 남편의 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혁명적인 사회적 평가 변화를 통해서 여성의 주부로서의 역할과 어머니로서의 역할, 모성이 강조되는 방향에서 여성의 사회적 해방도 통일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성의 사회적 모성이 중요시되고 중심 가치관이 되는 새로운 문명사회 건설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여성은 단순한 해방이 아니라 지금의 ‘엔트로피 노동’을 사회생명의 창조노동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새로운 사회, 새롭게 생명이 존중되고 공경되는 사회에 대한 요구와 그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과 여성운동이 결합되지 않고서는 여성해방운동은 매우 어렵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방향으로 나갈 때 여성은 생명운동의 중요한 전위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죽임의 문화, 생명파괴의 문화

문화와 교육 일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시다. 고급문화가 이른바 서양을 흉내내는 박제된 문화요, 이른바 유한층의 장식품 문화라는 점은 여러분이 더 잘 압니다. 서양의 오페라나 심포니나 가곡들은 대중의 생활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장식 위주의 그림이나 여러 가지 철학들도 민중의 생활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한편으로 산업주의 문화, 산업주의 교육은 인간을 경쟁과 약육강식, 출세주의

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쟁과 입신출세주의로 내몬 결과 어린 아이들 속에서 자비로운 마음이나 이웃에 대한 사랑, 생명에 대한 외경심 등이 완전히 고갈 되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주의 문명은 소비적 대중문화를 동반합니다. 이것은 섹스, 폭력, 살인, 방화 등을 선전합니다. TV를 통해서, 비디오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와 같은 미국식 폭력문화, 소위 산업문화의 한 면인 섹스 영화, 살인 영화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젊은이와 어린이에게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아파트 꼭대기에서 어린이들이 병아리를 내던져가지고 내기를 하는 유행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조그만 어린이들까지도 생명에 대한 사랑은 눈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십대들의 폭력, 살인, 강간 등은 이제 매일매일 신문의 기사거리로 나타나고 산과 들, 강과 바다에 젊은이들이 놀러 다니며 파괴하고 훼손하고 오염시키는 것은 이 시대의 혼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한술 더 뜨는 것은 군사문화입니다. 파시스트 군사문화가 오랫동안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군사문화는 한 마디로 죽음의 문화이며 생명파괴의 문화입니다. 총, 칼, 조직의 폭력, 그것에 의해서 인간은 마땅히 굴복해야 한다는 군대식 문화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고 군대식 행정이 우리를 누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슬기로워야 할 학생운동마저 마치 군대조직마냥 변하고 있습니다. ‘전사’니 뭐니 하고 서로를 부르고 군대행진곡 같은 것을 매일 부르며 ‘죽음’을 미화 찬양하고 있습니다.

온갖 형태로 군사문화가 우리를 좀 먹고 있는 위에 일본 문화가 상륙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소련 상품이나 소련 문화까지도 받아들이는 개방화, 국제화 시대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것이라 해서 덮어놓고 반대한다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능했습니다. 오늘날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일본 문화의 핵심, 그 내용과 질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여기에 대응하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문화의 핵심은 한 마디로 말해서 죽음의 문화, 생명파괴의 문화입니다. 우리나라 영화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데 칼로 찌르면 그만이지만 일본 영화에서는 칼로 찌렀을 때 그 찢어지는 살이 얼마만큼 벌어지며 그 속에서 내장이 튀어나오고 피가 어떻게 흘러나오는지를 카메라가 낱낱이 포착합니다.

대중적 상상력을 촉발시키는 문화운동

일본 문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일본의 건국신화에까지도 피가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본이 자랑하는 선 사상, 선불교 사상의 정점이라고 부르는 추수선(秋水禪)의 핵심 내용도 일도양단, 캐도난마의 무사도 정신에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들의 감상주의입니다. 벚꽃으로 상징되는 감상주의는 폭력의 뒷면일 뿐입니다. 허무주의, 그리고 난류, 병적인 섹스, 모두 반생명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칼의 문화, 무사도 문화, 살인과 폭력, 생명파괴, 생명경시 문화를 적시하고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통문화, 특히 기층문화, 민요·민예·탈춤·판소리·시나위 풍물·민화·온갖 굿들 속에 들어 있는 생명에 대한 존중과 무궁한 우주 생명에 대한 찬양, 그리고 신명, 삶과 죽음의 곳 속에 들어 있는 신명 사상 등을 오늘의 현실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강조하며 과학적 조명 아래 우리의 새 문화의 핵심 내용으로 하고 형식 원리로 하는 광범위한 민족문화운동을 새롭게 일으킴으로써 일본 문화의 침식에 대응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명만이 아니라 일본인까지도 구원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문화를 일본에 강력하게 수출해야 합니다. 민족의 적까지도 문화적으로 구원하는 대인적인 태도로 일본 문화에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젊은이들, 특히 운동권의 이른바 저항문화·혁명문화는 또 다른 의미에서 반생명적이며 비민족적입니다. 끝없는 투쟁과 증오, 복수, 혁명적 파괴의 선동은 폭력의 악순환에 불과하며 또 하나의 생명파괴요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 일반적 형식은 거의 대부분 소련풍, 슬라브풍으로 일관하고 있어서 민족 형식과는 촛수가 멍니다. 노동자 농민의 인간해방, 자주적 민족통일의 동기와 정열만은 인정하지만 그 내용, 형식, 그 미학적 견해에 나타난 폭력적 인간 이해는 남김없이 비판해야 합니다.

교육과 문화 전체에 생명에 대한 공경이 결핍되어 있는 현실에서, 생명에 대한 공경, 생명의 세계관을 기본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며 이것이 새로운 통일문화, 새로운 사회적 이상으로 연결되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일반 대중들이 생명의 소중함과 자기 자신이 모신 생명의 무궁하고 거룩하고

위대함을 깨우치는 운동, 타인을 공경하고 동식물과 무기물과 자연을 공경하는 운동, 이러한 생명문화운동을 건설해야 하고 새로운 사회를 창조하고 그 사회로 통일시킬 수 있는 민중 자신의 대중적 상상력을 자극하고 촉발시키는 문화운동이 나타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운동은 더욱 각 방면으로 확대되면서 특히 산업주의 교육, 폭력교육 또는 입신출세주의, 경쟁, 약육강식, 도태와 같은 이론에 토대를 둔 생명경시 교육에 대해서 강력한 대안으로 제시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열린 체계로 파악

마지막으로 과학이나 학문 전체와 관련해서 한 번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지금 우리의 과학과 학문을 지배하고 있는 사상은 낡고 외래적인 방법론과 사상체계들입니다. 뉴턴의 기계론적 세계관, 폐쇄적 체계로 세계를 이해하는 정태적 세계관, 데카르트의 이원론적 세계관, 영혼과 물질, 정신과 육체를 분리해서 보는 이원론적 세계관, 다윈 이후의 적자생존이론, 도태이론, 그리고 변증법적 유물론, 자연 변증법, 사적 유물론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 모두가 이미 낡았고 적합성이 없다는 것은 서구의 새로운 사상계의 동향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구의 사상계, 특히 물리학의 발전에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라든가 장(場) 이론, 에너지와 물질을 동일시하는 새로운 이론들의 발전,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원리의 등장, 닐스 보어의 소위 음양론의 물리학적 적용 등에서 보이는 것은 모두 다 동양 정신과의 결합을 통해서 우주 전체를 생명의 끊임없는 변화 활동으로 보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여기에는 변증법적인 구조 파악 같은 것은 미칠 도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음양과 같은 역(易) 사상, 주역에 나타난 역 사상에 보이는 기의 사상체계, 기의 사상체계에 서양의 새로운 과학들, 학문들이 접근하고 있는 것이 두드러지는 현실입니다.

기론에서는 물질과 정신을 대립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음양은 상호보완적입니다. 기 안에서는 물질과 정신은 하나이며 기는 닫힌 체계가 아닙니다. 열린 체계로서 우주 전체와 삶 전체가 순환하고 역동하는 살아 있는 체계입니다. 따라서 서양의 물리학, 생물학 등이 바로 이와 같은 기나 역 사상 등에 노장철학이나 불교사상과 마찬가지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

다.

아시다시피 지기일원론(至氣一元論)이 동학의 기본 사상입니다. 기의 사상을 한 걸음 더 나아가 개벽시대의 성숙한 영적 높이에까지 끌어올린 것이 지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기론에 대한 과학적 평가가 우리나라 과학계와 여러 학문 분야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길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전 세계가 요구하는 새로운 과학, 새로운 기술, 환경오염과 파괴에서 벗어날 새로운 과학기술의 중요한 기초사상이 이 지기론 안에 숨어 있다는 것만 말하고 넘어갑시다.

서양 사상계, 과학계에서 예를 들어서 다윈의 도태원리를 부정하는 이론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물계·생태계의 기본 질서는 약육강식이나 도태, 또는 적자생존의 원리가 아니라 공생원리이며 상부상조의 원리라는 주장들이 줄지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약육강식이나 도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비정상적이거나 부분적 현상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약육강식이라는 것도 인간이 자기의 견해를 감정이입해서 파악한 결과이지 사실은 먹이사슬의 순환질서에 불과하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직 근본적이고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질서는 공생이며 상부상조이며 먹이사슬, 즉 종속영양의 체계라는 것이 계속 주장되고 있습니다.

‘아니다-그렇다’의 논리

그런가 하면 인간과 우주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칼 프리브람과 같은 뇌생물학자들은 인간 뇌수의 정신활동 속에 전 우주적인 생명활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현대 첨단과학의 상징적인 존재는 무엇입니까? 현대 첨단과학의 상징적 존재는 컴퓨터입니다. 컴퓨터를 움직이는 기본 원리는 무엇인가를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컴퓨터에는 변증법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컴퓨터에는 변증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컴퓨터를 지배하는 원리는 ‘아니다-그렇다’의 원리입니다. 컴퓨터는 ‘노’ ‘예스’ 아니면 ‘예스’ ‘노’의 원리로 움직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자동온도조절기와 같은 구조도 그 기본 원리는 최고 온도와 최저온도 사이에서 끊임없이 진동 순환하는 ‘아니다-그렇다’의 원리입니다. 그레고리 베이즌이라는

미국의 생물학자는 자동온도조절기와 컴퓨터를 예를 들면서 ‘아니다-그렇다’ ‘그렇다-아니다’의 반복적인 순환원리가 바로 생물학의 기본 원리라는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생명의 원리는 기초적으로는 ‘아니다-그렇다’의 원리로서 진행됩니다. 생물학자였던 테야르 드 샤르댕은 인간의 자의식이 발생한 순간을 고생물학적인 과학적 방법으로 접근할 때 ‘아니다-그렇다’의 문법으로 접근했습니다. 즉, 인간이 자의식을 가진, 반성의식을 가진 존재로서 이른바 슬기인간, 호모사피엔스로서 처음 출현했을 때 그는 직립인간, 호모에렉투스의 무리들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나타난 호모사피엔스의 외모는 호모에렉투스, 직립인간의 외모와 아무것도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신 가운데서 발생한 반성적 의식, 자기 의식, 자의식을 생각한다면 다른 직립인간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였던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이 현상에 접근할 때는 인간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직립인간의 외면적 현상을 볼 때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현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약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중 하나의 뇌수 속에, 정신작용 속에 자의식, 반성적 의식, 즉 정신이 출현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아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다’ 그렇죠. 이 현상을 동시에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니다-그렇다’라는 살아 있는 이중 논리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테야르 드 샤르댕의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아니다-그렇다’는 생물학적인 질서에만 통용되는 논법은 아닙니다. 물론 서양에는 옥시모론이라는 모순어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과 ‘아니다-그렇다’에는 비슷한 점도 있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없고.

물리학에 있어서 위상과 운동을 동시에 측정할 수 없다는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원리도 불가지론으로 떨어져 버렸지만, 만약 이 위상과 운동을 동시에 측정 가능하게 하는 논법이 있다면 ‘아니다-그렇다’의 논리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 입자의 그때그때의 위치와 그 위상을 본다면 우리는 ‘그렇다’라고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중성자로 볼 때에는 중성자였다, ‘그렇다’입니다. 그러나 이 중성자는 중성자라고 부르는 순간에 이미 양자로 변신합니다. 바로 그것은 운동하는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아니다’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위상과 운동을 동시에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니다-그렇다’ ‘그렇다-아니다’라

는 살아 있는 이중 논리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불연기연의 진화사상

이 문제에는 아까 기론, 동양적인 기학, 동학에서 이야기하는 지기일원론에서 볼 때 정신과 물질을 하나로 통합하며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또는 양의 운동과 음의 운동을 상호보완적으로 보면서도 또한 대조적인 것으로 보는 그 구조 속에 이미 ‘그렇다-아니다’의 논법이 들어 있습니다.

생물학, 물리학에서 적용되는 ‘아니다-그렇다’의 논리는 예를 들어서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토대와 상부구조 사이의 갈등관계, 생산력과 생산관계 사이의 모순관계 등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물질과 정신이 상호 보완적인 하나의 기의 활동일 뿐만 아니라 상호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현상에 대한 동시적 파악의 방법으로서 ‘아니다-그렇다’의 방법으로 접근할 때는 생산력과 생산관계, 토대와 상부구조 사이의 관계도 대조적이면서 동시에 상호보완적인 관계일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통일적인 한 기운의 운동이요, ‘아니다-그렇다’의 상보적 이중성과 그 복잡화, 그리고 끝없는 다중적 차원변화의 생명 원리에 따라 상호 조건적으로 끝없이 순환하며 변화하는 한 생성활동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즉, 대립, 투쟁과 종합, 그것의 파동만으로 보는 관점의 한계 및 새로운 형태의 극단화된 모순의 구조적 이원론의 오류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토대와 상부구조는 상하관계가 아니라 내외관계로 보아야 합니다. 구조론적인 파악이 아니라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수운 선생의 ‘내유신령 외유기화’의 진화사상에 비추어보아야 이 문제는 제대로 풀릴 것입니다. 이 관계를 파악하는 문법 역시 ‘아니다-그렇다’ 또는 그 역이나 복잡화의 생명논리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생산적 결과를 사회운동 전체에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아니다-그렇다’의 논법은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안과 바깥, 또는 인간과 환경 사이의 순환관계 등에도 그대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 범위는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러면 ‘아니다-그렇다’와 같은 새로운 생명의 논리, 물리학이나 생물학 전체에 있어서 최근에 사용되고 있고 적용되고 있는 이 논리를 우리는 우리의 전통 가운데서 어디서 확실한 형태로 발견할 수 있는가? 현대 서양 과학 사상을 접하기 이전인 백수십 년 전에 수운 선생의 「불연기연」 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불연기연, ‘아니다-그렇다’입니다. 불연기연은 진화론, 동양 최초의 진화사상입니다. 동양 최초의 진화사상이면서도 창조론과 진화론을 결합시키는 이상한 비유 방법, 이상한 은유와 암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은유와 암시의 체계는 앞으로 자연과학자들이나 사회과학자들에 의해서 과학적으로 해명될 필요가 있으며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수운 선생의 ‘아니다-그렇다’의 논리에 의한 인류 역사와 우주 생명의 진화사에 대한 파악 방법을 우리가 연구하고 발전시키고 실천에 활용함에 의해서 우리들이 앞으로 실천해야 할 생명운동을 보다 높은 탁월한 과학의 수준에 접근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 과학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동양사상에서 과학적 방법론 터득해야

21세기는 동양사상에 의한 기술문명의 시대라고 합니다. 21세기에는 세계 문명의 중심이 이동하여 동북아시아에 새 문명이 성립되리라는 예언이 무성합니다. 해월 선생은 ‘궁을(弓乙)’ 두 글자가 문명을 되돌린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문명은 새로운 문화, 새로운 세계관만이 아니라 새로운 과학 및 기술과 직결되어 있는데 새로운 과학기술과 첨단기술의 개발을 우리 식으로 하려면 우리 자신의 전통적인 사상으로부터 꼬트머리를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의 전통적인 사상으로부터 꼬트머리를 찾아내려면, 과학이 철학 내지 전통적인 종교사상의 핵심 안에 들어 있는 과학적인 실마리에 착안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저는 동학만이 이러한 과학 사상을 안에 씨앗으로서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장자가 이야기하는 ‘이시(移是)’, 이것을 이것이라고 이야기 했을 때 이미 이것이 아니다라는 사상, 즉 이것이라는 판단은 끝없이 변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 또는 역려(逆旅), 여관이라는 말,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도가 움직여 기운이 물질화될 때, 그것은 마치 우주 나그네가 물질이라는 여관에 잠시 머물렀다 또 떠나간다는 이야기. 모든 생명체는 물질이라는 여관 안에 잠시 들어가 있는 나그네 같은 존재입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일본의 유가와 히데키가 자기의 소립자이론을 발견하는 데

응용했던 아이디어, 장자에서 응용한 아이디어입니다. 또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이것과 저것 사이의 차별을 넘어서는 무차별한 경지에 대한 선 사상의 여러 표현들, 제행무상의 사상, 색과 공이 같다는 사상, 연기설, 특히 수운 선생의 불연기연, ‘아니다-그렇다’의 생명진화의 원리는 창조적 진화논리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과학과 기술개발의 꼬트머리를 찾는 사람들이 주목해서 보아야 하고 또 우리들의 생명운동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과학적 방법론으로서 착안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동학의 부도인 ‘궁을’은 인간정신, 기화신령, 진화하는 신, 신령한 생명의 질적 확산진화, 천지의 움직이는 형체를 표현한 것으로 또는 ‘네거티브 피드백’과 ‘포지티브 피드백’의 통일적 이중활동의 상징, 나선적 원 운동 등의 ‘형태 없는 형태’로서, ‘아니다-그렇다’의 압축으로서, 앞으로의 과학이 새롭게 우주와 생명진화와 역사를 파악하는 데에 있어 심리물리학의 통일적 건설, 동시성에 입각한 새 우주관 등의 중요한 꼬트머리가 되라라고 믿습니다.

이 모든 운동들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차원의 생명의 세계관 확립과 그에 입각한 새로운 살아 있는 사회양식을 창조하여 이것을 민족통일의 실천 방향으로 밀고 가기 위해서는 먼저 한 계기로서 생활운동이 중요합니다. 생활 속에서 생명의 귀중함을 깨닫는 소비자운동, 깨끗한 자연 농산물을 구입하는 운동이나 협업적인 공동체 유기농운동, 따라서 농민 생산자들에 의한 유기농산품의 생산 등은 매우 중요하며 이것과 소비자 운동을 결합하는 생명공동체운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과 함께 이것에 앞서서 혹은 이것과 병행해서 더욱 중요한 것은 세계관운동이며 가치관운동, 정신운동, 각성운동, 하나의 생명의 문화운동입니다. 생명의 문화운동을 진행하려면 여섯 가지의 중요한 내용을 그 안에 간직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간의 자기실현

첫째, 인간의 자기실현입니다. 인간의 자기실현, 인격적 통합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미 수운 선생의 시천주, 내 안에 무궁한 우주생명을 모시고 있고, 해월 선생님의 양천(養天)사상, 그것을 길어냄으로써 내 자신이 우주 생명의 질서에 일치하여 우주와 같이 무궁한 존재로 자기실현할 수 있다는 생각, 이 생각을 보다

더 강력한 수양운동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 수양운동으로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너무 고전적인 수양 방법에 의존하는 것은 조금 재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카를 융이 이야기하는 집단무의식과 시천주 사상은 매우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집단무의식, 원형, 민족적 무의식의 단계로부터 우주적 무의식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시천주사상에 들어 있는 과학적인 인간 이해, 인간의 마음에 대한 이해에 합당한 방향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류 진화에 있어 포유류 단계의 기억들, 파충류 단계의 기억들까지 넘어서서 무기물 단계에 있어서까지도 있었다는 생명의 초기 의식작용, 이 모든 의식의 역사를 되살려내며, 자기 안에 들어와 활동하는 우주 삼라만상의 생명활동의 상을 한꺼번에 의식하는 그러한 수양운동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무기물에 생명이 있느냐? 있다고 합니다. 자본주의 세계의 많은 과학자들도 공산주의 세계의 많은 과학자들도 대체로 유물론자들은 무기물 속에는 생명이 없고 유기물만 생명이 있다고 하는데 무기물로부터 유기물로의 전환 과정을 자본주의 권에 있는 유물론 입장의 과학자들은, 유물론자들은 해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마르크스주의 과학자들은 변증법, 양과 질의 변증법적 법칙을 사물현상에 외삽법적으로 적용시켜서 외삽법, 사물 그 자체의 법칙이 아니라 그 바깥에 있는 관념적인 법칙을 그 사물의 운동에 집어 넣어가지고 거꾸로 되받아 이해하는 방법으로 무기물의 양적인 전개·배열·축적 과정에서 유기물이라는 질적 비약이 일어났다는 식의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물 그 자체에 대한 과학적 접근이나 탐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발견이 아니라 외삽법, 헤겔의 관념적인 변증법적 법칙을 무기물과 생명 사이의 상관관계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거꾸로 되받아 이해한 결과입니다. 무기물은 그러면 어떻게 전개·배열·축적되는가? 그것을 그렇게 하게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무엇인가? 여기에 시원한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도 생명에 대해 진정한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서양의 화학자, 물리학자 중에서 에리히 얀치나 일리야 프리고지네와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물질이나 무기물에도 정보교환이나 통신과 같은 생명활동이 있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제임스 러브록의 가이아가설은 이제까지 무기물 덩어리로 보았던 지구가 하나의 유기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천체생물학자들은 이 우주 공간에는 수없이 많은 미세한 유기물질이 가득 차 있다고도

말합니다.

과학적으로 이제는 무기물에도 생명의 활동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단계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재생산기능, 복제기능이 없다 하더라도 진동·순환·생성하는 모든 것이 생명이라는, 개념 수정의 필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동학이나 불교, 노장철학에서만 물질에도 생명활동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과학 까지도 무기물도 생명운동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식과 몸 안에는 처음도 끝도 없는 전 우주 삼라만상의 총체적 진화의 역사가, 그 신령한 생명의 역사가 유전과 에너지 순환에 의해 함축되어 있습니다. 시천주란 이 모든 것을 말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무기물 속에서의 생명활동의 기억까지도 우리가 살려내는 수양 방법 쪽으로 시천주 수양활동이 확장됨으로써 무궁한 우주 생명의 활동의 기억을 되살려 내어 자기의 우주적 생명을 확인하는 자기 실현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에서 새로운 우주시대에 있어서의 인간의 광활하고 깊은 개방적 주체성과 도덕적 윤리적인 기초가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공동체 건설

둘째로 문화운동이 지녀야 될 기본 내용 중의 하나는 생명공동체 건설입니다. 생명의 원리, 생명의 사상은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구체화되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수운 선생의 각지불이(各知不移)는 공동체의 원리이며 공동체들의 연결 원리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생물학적 ‘종 다양성’의 원리, 생태학의 기본 원리, 동학의 ‘포접’의 생명원리입니다. 전체와 개체, ‘종·속·문·개’등의 다차원적 중층적인 네트워크의 원리에 입각한 다양한 단수, 또는 복수 생명공동체의 건설입니다.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 생명의 원리를 적용시켜서 이해한다면 지방자치제와 같은 것이 생명공동체의 형태로 보장돼야 하고 실시되어야 합니다. 풀뿌리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자치권, 자율지배권, 분권화는 생명생태의 기초 원리입니다. 전체와 개체, ‘종·속·문·개’ 등의 다차원적 중층적인 네트워크의 원리에 입각한 다양한 단수, 또는 복수 생명공동체의 건설입니다.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 생명의 원리를 적용시켜서 이해한다면 지방자치제와 같은 것이 생명공동체의 형태로 보장돼야 하고 실시되어야 합니다. 풀뿌리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참여민

주주의, 자치권, 자율지배권, 분권화는 생명생태의 기초 원리입니다.

생명은 개별성과 통일성을 다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은 중심과 둘레를 동시에 가집니다. 그러나 나를 중심으로 해서 볼 때 이웃은 둘레이고, 이웃을 중심으로 해서 볼 때 이웃이 중심이고 내가 둘레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은 자기가 중심이면서 모든 전체 속의 하나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기본 원리입니다. 개별성과 전체성은 한 본성의 두 측면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개방계로서의 생명의 주체성, 비평형의 평형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모든 지역과 지방에는 그 지역 중심의 독특한 민주주의적 질서, 특히나 직접민주주의의 구조가 정착되는 방향으로 한국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일궈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민주화운동은 이와 같은 생명의 원리에 알맞은, 사람의 생태적 삶의 역사와 조건에 알맞은 정치적 생명공동체의 건설, 즉 지방자치제의 보다 높은, 보다 창조적인 단계의 실천으로 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저는 정치적인 생명공동체운동이라고 부릅니다. 경제적인 운동이나 노동운동에 있어서도 농민들의 협업적인 유기농공동체, 지역 농산물 유통공동체, 지역 농산물 가공공동체 운동이 계속 확대되고 발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산업화가 강요되면서 자연적 생활공동체로서의 마을은 붕괴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롭게 생산·생활·자연을 일치시키는 자각적인 마을, 즉 다양한 유기농 협업공동체를 세워야 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문명사회가 도래했을 때 우리가 건설해야 될 농촌공동체의 한 전초적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운동과 관련해서 볼 때 아까 말씀드린 생산자공동체, 소규모의 생산자가 바로 경영자, 출자자가 되는 노동자 자주관리의 방식, 소규모의 생산자공동체와 같은 것이 시도되어야 하며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한 국가 전체를 공동체화하려다 실패했습니다. 공동체는 소규모여야 하며, 복수 또는 단수적 내용을 가진 공동체들의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네트워크에 의해 연결해야지 공동체 문제를 국가권력이나 국가적 규모에만 연결시켜서는 안 되며, 사회주의의 민주집중제는 생태학적 원리가 아니라 구조·체계·기계의 원리입니다. 소련을 보십시오. 그것은 이미 완전 실패했습니다. 또한 대기업에서는 생산공정을 대규모의 대량생산체계에서 소규모의 생산공정으로 분할시키고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압력을 넣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유기적인 생산공정의 확대와 발전을 요구해야 될 것입니다.

유기적인 생산공정이란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로 예를 들면, 조선 후기에 나타

난 매뉴팩처적인 생산공정 같은 것입니다. 안성 유기막에서 나타나는 유기적인 유기 생산공장 같은 것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기적인 공업 생산구조를 장인공장, 매뉴팩처 단계에 나타난 기술과 공정들을 끌어내려서 첨단 과학기술들, 특히 생물학적 원래, 생명의 원리에 입각해서 개발된 첨단 기술들과 결합하는 방향에서 새로운 생산공정, 소규모의 생산공정이 이루어지도록 생명공동체 운동을 노동 분야나 일반 경제 분야에서도 요청해야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역 경제 중심체, 유통, 금융, 서비스 등 전 분야에 걸쳐 지역 주민들의 살아 있는 경제생활에 대응하는 살아 있는 지역 경제를 목표로 한 지역 규모의 경제공동체의 건설운동도 지방자치체와 함께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경영은 자주관리체계이어야 합니다.

이것들이 모두가 생명의 개별성과 전체성이라는 기본 원리,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화엄사상의 원리와도 통하며 수운 선생이 이야기하는 ‘밝고 밝은 운수를 각각 자기 나름대로 밝혀 실현한다(明明期運 各各明)’ 또는 ‘한 세상 사람이 옮길 수 없음을 각각 안다(世之人 各知不移)’로서의 동귀일체의 기본 정신과 일치하는 생명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문화공동체 문제, 예를 들어서 케이블 TV나 지역정보화 같은 것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것은 도시에서나 농촌에서나 소규모, 지역규모의 문화공동체의 건설문제 등과 관련해서 어떤 방향이 나와야 하고 움직임이나 요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문화공동체 등이 조그만 매체들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생명운동에 있어서도 이 방향을 잘 인식해서 취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또한 의료공동체, 보건조합 운동이 이제 말씀드린 여러 생명공동체운동과 결합되어야 합니다. 한방과 동의학, 민간처방, 단방약 등이 생채식 등과 함께 새롭게 활용되고 이것이 서양 의학과 기술과 탁월하게 배합되어 대중 보건의 예방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정은 다시 부활되어야 합니다. 핵가족이 좋은 것인지 대가족이 좋은 것인지는 아직도 논란의 대상입니다. 대가족과 핵가족의 단점을 버리고 장점을 취합하는 방향에서 새로운 시대, 정보화 등의 새 사회 요구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생명공동체로서의 가정의 재건이 연구되고 실천되는 방향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도 삶의 중심이었고 변화하는 현재 및 미래에서도 역시 삶의 중심이 가정이라는 근본 견해 위에서 생동하는 현대 인류의 삶의 내용에 잘 대응하는 방

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가정은 모든 생명의 받이요 굴이요 등지입니다.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또한 중요한 것은 시장의 축소, 생산자와 소비자를 분열시키고 분리시켜서 그 사이에서 확장되어 온(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랜 것이지만) 이 시장 구조가 축소되지 않으면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리가 좁혀질 수 없으며 살아 있는 생산과 유통생활이 보장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장은 누군가가 이야기했듯이 굉장히 큰 문명적 과장입니다. 따라서 없앨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과 같이 엄청나게 확장되어 있고 독과점이 판을 치는 시장 구조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가정과 직장이 보다 더 접근하여 소비자와 생산자가 더욱 더 직거래와 같은 협동적 공동체 운동을 통해서 접근하는 방안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실현됨으로써 시장 기능에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그 압박에 의해 구조와 질서가 개편되고 질이 향상되며 양적으로 축소되도록 해서 자본주의 내지 시장사회주의와 같은 어떤 형태로든지 나타나고 있는 시장제일주의를 넘어설 때에만 진정한 의미에서 새로운 문명창조의 사회적인 기초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명공동체의 건설에 있어서 우리가 바탕을 두어야 할 기본 사상은 사인여천의 정신입니다. 타인에게도 무궁한 한울님, 우주 생명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상호공경하는 정신 위에서 생활공동체, 생명공동체 운동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문화운동은 바로 이 정신에 따라 생명공동체 건설운동으로 나아가는 정신적 내용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생태계의 균형 회복

셋째는 생태계의 균형 회복입니다. 해월 선생은 어린아이가 나막신을 신고 땅위를 소리 내서 달려갔을 때 땅이 울리는 소리를 듣고 가슴을 쓸어 만지면서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즉, 해월 선생은 이미 땅과 하나의 생명으로 일치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월 선생께서는 땅을 어머니 살처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 무기물인 땅마저도 어머니의 살처럼 공경한다면 나무, 풀, 벌레, 짐승들과 같은 유기적인 생명체에 대해서 공경해야 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땅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회귀처이며 우리가 생겨난 고향입니다. 만물이 생

성하는 자궁이며 우리들 어머니의 자궁입니다. 따라서 결코 독점, 투기는 물론 오염·훼손·파괴될 수 없는 거룩함 그 자체이며 신령함 그 자체입니다. 땅을 독점, 이용 파괴하는 자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사상에 입각하여 생물학·미생물학·생태학 등을 발전시켜야 하며, 밭의 독초나 독충을 구제하는 데 오리를 활용한다든가, 강물의 오염을 정화하는데 수초를 양식한다든가 하는 등, 생명에 의한 생명의 구제 혹은 한울이 한울을 먹는 이치, 먹이사슬의 원리를 이용하여 환경과 생태계 문제를 해결하며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치우며 합성세제를 쓰지 않는 등, 여러 운동의 정신적 기초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환경문제 해결에 대해 풍수사상을 새롭게 과학적으로 조명·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산천을 신령한 생물로 보고 인간생활과 기의 흐름으로 연결된 생태적 공동체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경사상 특히 경물, 흙에 대한 공경, 물건에 대한 공경과 같은 사상을 발전시켜서 환경보존운동, 공해추방운동, 자원재생운동, 대체에너지 찾는 운동, 나아가 반핵·반원자력발전운동 등 전체 운동에 있어서 생명운동의 사상적 기초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도적 민족통일

넷째는 민족통일문제로서, 저는 일단 중도적 민족통일이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도란 불교에서 이야기하듯이 이변비중(離邊非中)입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양극단을 배제하되 중간 사잇길도 아닙니다. 중간의 기회주의적인 사잇길이나 절충주의적인 수렴체계로는 완전통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해월 선생은 기운과 영(靈)이 중(中)에 이르면 백체백사(百體百事)가 다 신령하다고 했고, 수운 선생은 집중을 특히 강조하셨습니다. 중은 전(全)입니다. 진정한 중도는 전체를 의미합니다. 전체란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새로운 방향에서 운동이 시작돼서 양극단까지도 중간까지도 흡수 포섭하여 아우러지게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새로운 창조적 방향이 바로 중도이며 참된 중도적 민족통일 노선입니다.

이러한 민족통일 노선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명운동과 생명사상에 입각해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공동체적 정신과 인간 내부의 자기의 인격실현과 인간과 자연 사이의 생명의 균형, 공생원리에 입각한 생태계의 균형 회복, 이와 같은 것

을 동시에 보장하는 생명의 사회, 생명이 공경되고, 생명의 원리가 존중되는 그러한 새 문명을 창조하는 전망 아래 민족이 통일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운동의 정신적 기초를 생명의 세계관에 놓음으로써 개체와 전체, 자유와 평등이 한꺼번에 보장되는 그러한 살아 있는 해방된 사회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통일을 ‘하나됨’이라는 국적불명의 말로 흔히들 바꿔 말하는데, 민족통일은 ‘하나됨’이 아닙니다. 획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각지불이’이어야 합니다.

새로운 문명의 창조

다섯째는 새로운 문명의 창조입니다. 토인비 같은 사람은 문명의 중심이 유럽과 북미 대륙으로부터 동북아시아 쪽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예언적으로 말한 바 있습니다. 지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태평양 일원에서 새로운 문명의 건설, 새로운 경제권의 구축, 새로운 정치권의 구축이라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단지 예언 단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수운 선생과 해월 선생께서도 개혁, 새로운 문명의 시작은 우리나라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차 세계로 퍼져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사상은 현실에 나타나고 있는바, 동북아시아 쪽으로 세계 문명의 중심이 이동한다는 현상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토인비처럼 동북아시아에 문명의 중심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 중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국가가 새롭게 나타나 제국주의적으로 세계에 군림하고 지배함으로써 그 지배 아래 평화를 유지하는 그러한 형태로, 로마제국이나 유럽 또는 미국 제국주의와 같은 그러한 형태로 문명의 중심이 이동하고 완성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아시아, 동북아시아의 하나의 정치·경제적 생활 블록이, 북미 대륙과 남미 대륙의 하나의 블록이, EC와 소련을 포함하는 하나의 블록이, 중동 근처의 또 하나의 블록이, 어찌면 이런 식으로 몇 개의 생활 블록의 분권화 현상이 앞으로 21세기에 나타날 문명의 모습이 될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분명한 것은 세계 전체와 인류를 우주와의 연관 속에서 새롭게 방향 짓고 새로운 방향으로 사회를 건설해 나갈 정신적 내용, 문화적 내용, 세계관적인 내용이 성숙할 곳, 즉 문명의

중심이 나오고 성숙할 곳은 어디냐 했을 때 그것이 동북아시아에 새롭게 형성될 문명의 중심으로부터 나올 것이라고 생각되며 바로 이런 점에서 볼 때, 수운·해월 선생이 말씀하신 ‘용담수류사해원 구악춘회일세화(龍潭水流四海原 龜岳春回一世花)’정신, 또 “다시 개벽에서 아국운수 먼저 하네”와 같은 사상 속에 담겨 있는 예언과 결코 관계가 없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새롭게 창조되어야 할 새 문명, 이 문명은 내 안에 우주생명이 있음을 인정함으로써 자기 공경과 자기 실현의 길로 나아가며 타인 속에 우주 생명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공경함으로써 진정한 공경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며 동식물과 무기물 속에 다 같이 우주 생명이 살아 있다는 인식, 우주 생명을 모시고 있다는 생각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정신적으로 굳게 믿고 공경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인간의 화해와 공생관계를 원천적으로 회복하며 우주시대에 알맞게 우주 전체와의 과학 내지 종교적인 긴밀한 상호 연관관계에서 자기의 위치를 파악함으로써 우주적인 생명질서와 자기의 생명질서를 연결시키는 것이 전 사회적으로 보장되는 문명사회, 이런 사회가 새로운 문명이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 정의와 인권이 기초적으로 보장되고 아까 말씀드린 자연과 인간과의 공생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공생관계, 민족과 민족과의 공생관계, 문명 블록과 블록과의 공생관계가 네트워크로 연대하여 기본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새로운 문명시대라고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즘에 와서 현대사를 세 단계로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현대사의 제 1단계는 강대국들에 의한 제국주의적인 세계전쟁 시대였다고 보며 세계 분할지배의 시대였다고 봅니다. 제 2단계는 경제대국들에 의한 경제적인 세계 지배의 시대라고 봅니다. 지금이 그 시대라는 겁니다. 그 시대의 다음 단계인 현대사회의 마지막에서 21세기에 연결되는 새 시대에는 사회정의와 인권, 민족의 주권과 각 민족들의 독립적 생존이 보장되며 인간과 인간, 자연관계 사이에 공생관계와 생태적 균형이 보장되는 사회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물론 차원변화에 따른 혼란과 파국이 있을 것입니다만 기본적인 전망으로서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새로운 문명사회에 있어서는 민족들에 주어진 독특한 역사, 문화적·생태적 조건에 알맞은 독립적 생존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아르메니아, 우크라이나 등 소련의 수많은 지역에서 민족주의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소비에트 연방 제국주의에 의해서 억압된 인간 생존의 기본 요구, 즉 민족들의 생명 자체의 생태적 양식의 요구입니

다. 민족은 반드시 하나의 민족들의 생명 자체의 생태적 양식의 욕구입니다. 민족은 반드시 하나의 생명공동체이고 자기들의 독립적인 생태계, 즉 독자적 생활양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생존양식은 독립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새 시대에는 이런 독립적인 생존이 넉넉히 보장되고 이 보장을 통해서 각 민족들은 호혜평등의 조건 속에서 공생과 상부상조적으로 공영해야 할 것입니다.

소련만이 아니라 캐나다에도 분리주의가 있고 세계 각처에 분리주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지도를 보십시오. 마치 기하학적인 절단선에 의해서 잘라져 있는 것이 현대의 세계지도입니다. 근세 이후 민족 국가의 출현에 의해서 수많은 부족들과 민족들이 기하학적인 선에 의해서 자기의 생태계적인 생명체를 절단 당했습니다. 우리 민족만이 분단 당한 것이 아니고 세계의 수많은 민족들이 근대 민족 국가의 출현과 함께, 나아가 서양 제국주의의 세계 지배와 함께 그들의 기계문명, 기계론적 이데올로기에 의한 기하학적인 분할선에 의해서 민족의 생태계적인 생명이 분단당했습니다.

지금에는 그 기하학적인 분단에 저항하는 민족들이 생명의 몸부림이 요동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이 민족들의 독립·분리운동은 앞으로도 더욱 거세게 일어날 것이며 새로운 창조적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와 함께 새로운 민족 생존의 생명 원리에 알맞은 실현을 요구하고 나설 것입니다. 이것은 질적으로 확산·진화하는 우주와 인류 생명의 현 단계의 막을 수 없는 분류입니다.

새로운 문명은 이것을 보장해야 하며 각 민족간의 공생과 각 국가간의 공생을 통해서 제국주의와 패권주의, 분할·절단에 의한 세계 생명의 획일·분단·분열·파괴의 시대를 마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문명을 동북아시아 쪽에, 우리나라와 중국 등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사상, 특히 동학의 생명관, 생명의 세계관을 기초로 새로운 생활양식을 창조함으로써 이 문명을 창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문명창조의 전망은 반드시 민족통일과 연결될 것입니다.

우주와 인간 간의 관계 정립

여섯째는 우주와 인간 사이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우주시대입니다. 수많은 우주선이 발사되면서 1970년을 고비로 수많은 위성들이 날아다니는 시기에 미국과 유럽쪽에서 점성술이 대유행했

습니다. 새로운 우주시대에 광막한 우주공간 속에서 자기의 위치를 다시 찾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이 새로운 종교적인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시대입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한편으로 젊은이들 속에 굉장히 급진적인 사회변혁에의 열정과 투쟁이 번지고 있지만 반면에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자기 자신의 우주적 존재로서의 인식에 대한 요구, 자기 내면의 보다 깊은 성찰, 자기실현에 대한 욕구, 정신적 분열을 극복하고자 하는 새로운 정신적 욕구와 같은 것이, 종교적 욕구와 같은 것이 번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점성술에 의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역점에 의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즉 우주시대에는 무궁무궁한 시간의 연장선까지 확장되고 있는 인간의 체험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광막한 공간과 시간 속에서 인간의 정체와 위치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는 새로운 우주 종교가 필요합니다.

일찍이 아인슈타인이 이 같은 요구를 표현한 적이 있지만, 새로운 우주 종교는 종교가 새 과학을 촉발시키고 과학이 새 종교를 성립시켜, 양면 모두가 창조적으로 통일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 이래 인류 고통의 하나인 정신과 물질, 개체와 전체, 인간과 우주 분열을 극복할 것입니다. 진화하는 우주, 우주의 진화하는 마음을 신으로 보고, 신을 진화하는 마음의 주체, 진화하는 우주의 주체로 보는 새로운, 과학적이면서도 신비주의적인 우주 종교의 출현이 요청됩니다.

이러한 우주 종교는 우선 과학과 종교의 절충으로 나타나겠지만 이미 과학과 종교가 하나이며 진화하는 우주 질서와 신령한 생명활동이 하나로 결합된 사상의 한 가능성이 역사 위에 나타났습니다. 나는 그것을 감히 수운 선생의 동학이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동학이 참으로 오늘날 인류 전체가 요구하는 우주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결정적으로 자기쇄신과 개혁을 단행해야 합니다. 현대화·대중화·과학화되어야 하며 영적으로 보다 심화되고 확장되어야 합니다. 큰 개혁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생명현상에 대한 여러 과학적 이해와 깊은 공부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생명운동의 촉매

마지막으로 저는 이와 같은 생명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생명운동을 생활과 결합한 각성운동·정신운동·세계관운동, 한 마디로 문화운동이 먼저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화운동은 각양각층의 사람들 속에서, 각 계층 속에서, 다방면으로 모든 사람 속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하게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양한 생명운동을 촉매하고 촉발시키는 문화운동이, 특히 세계관의 문제나 문명의 변동, 체제의 변화, 제도의 혁파, 민족의 통일, 삶의 내용과 조건 변화 등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청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위운동이 나타나야 합니다.

청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생명운동으로서의 전위적인 문화운동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 전위적인 청년 학생들의 생명의 문화운동이 천도교 쪽에서부터 제일 먼저 시작되기를 저는 희망하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 운동은 물론 민족적인 전통사상의 뿌리에서 출발하여 보편적인 인류정신의 지평선으로까지 확장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동학은 민족적 전통사상의 주체로서 역사적으로 찬란한 위치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너무 주장하거나 자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고립을 자초합니다.

지금 시대는 다양성의 시대, 복합성의 시대이며 엄청난 광활성의 시대, 한 마디로 화염의 시대입니다. 따라서 상호공경에 입각한 다른 모든 종교와의 다원주의적인 연대가 필요합니다.

모든 종교는 생명의 세계관·가치관이라는 기본 사상에 입각할 때 일치할 수 있으며 그에 알맞은 인간의 생활양식을 찾고 그것을 확장시키는 운동에 연대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생명의 사상이나 화염경에 나타난 생명의 사상은 그다지 먼 이야기가 아니며 동학의 기본인 시천주사상과도 먼 이야기가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생명경시·생명망각·생명파괴가 만연하여 도덕은 여지없이 타락하고 있습니다. 사회 공유의 가치관으로서 생명의 가치관을 유행시키는 새로운 도덕운동, 새로운 사회윤리 건설운동을 각 종교가 다원주의적 네트워크로 연대하여 벌일 수 있도록 청년들이 촉매해야 합니다. 다른 종교 및 사회집단들과 생명의 사상에 입각한 생명운동을 연대해서 벌이는 문제는 생명운동, 생명의 문화운동이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갈림길이 될 것입니다.

21세기는 영의 시대, 정신의 시대라고 합니다. 영적 인간, 정신적 인간의 출현 없이는 21세기는 무의미합니다.

영성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기이하고 신비로운 어떤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우주 생명이 살아 있고 모든 사람 안에 우주 생명이 살아 있음을 인정함으로써 서로 공경하며 동식물과 무기물도 우주 삼라만상 전체의,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광활한 적막 속에서 끊임없이 창조적으로 활동하는 하나의 큰 생명의 테두리 속에, 영겁의 한 흐름 속에 일치되고 있다는 이 믿음을 각성하고 실천할 때, 바로 그것이 영성이며 영적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각성된 인간이 나타날 때 새 문명이 나타날 것이며 새 문명의 씨앗 모습이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남과 동시에 민족통일의 새 지평이 열릴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생명운동이 초기 단계부터라도 일단 나타나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들 속에 있는 부정적인 체험, 죽음의 체험, 어두운 체험, 종교적으로 이야기 하면 일종의 죄 체험, 그 풍부한 체험들이 삶의 정열로, 개혁의 정열로, 생명의 정열로 뒤바뀔 것이며 강력한 우주적 낙관주의 위에 서서 삶을 재건해 나갈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지금 다가오는 혼란과 전면적 파괴, 파국을 바로 그 ‘대전향’의 영성적인 열기로 극복하여 개혁을 성취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운동의 물결 속에서 제 자신도, 파괴된 제 자신도 회생되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의 마음과 생명공동체²⁸⁾

김종철²⁹⁾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특별히 아는 것도 없고 말주변도 없는 사람인데 ≪문화비평≫쪽의 간곡한 부탁 때문에 이 ‘문학의 밤’ 행사에 나오기는 나왔습니다. 오늘 저녁 귀중한 시간에 여러분들이나 저에게 무언가 좀 보람 있는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썩 걱정스럽습니다.

오늘 말씀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제목을 ‘시의 마음과 생명공동체’로 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사회 보시는 분의 소개 말씀에도 나왔습니다만, 요즘 생명운동이니 생명사상이니 하는 말이 별로 낫설지 않게 쓰이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이런 용어를 가끔 사용할 때가 있기는 합니다만 실은 스스로 이런 말에 약간 거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가진 존재들로서 산다는 것 자체가 근원적인 현상인데, 생명이라는 용어의 새로운 유행은 모든 것이 자칫하면 소비 상품으로 떨어지기 쉬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말 상품으로 되어서는 곤란한 생명의 문제조차 그렇게 되어버릴 염려도 있고, 또 우리의 삶 자체가 부단한 움직임이고 운동일 것인데 새삼스럽게 우리 삶의 어떤 절박한 위기를 생명운동이라는 말로써 분리·부각시키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하는 의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차라리 녹색운동이나 녹색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겸손하게 들리기도 하고 어떻든

28) 출처: 녹색평론선집1

29) 김종철(金種哲) - 녹색평론 편집·발행인. 이 글은 1991년 7월 대구에서 발행되는 교양지 ≪문화비평≫ 주최의 ‘문학의 밤’ 행사에서 행하였던 강연을 정리한 것임.

좀 더 적절한 용어가 아닐까 싶습니다만, 그러나 녹색이라는 말에 대하여 아직 우리 주변에는 약간의 저항이 있는 모양입니다. 아무래도 그것은 구미 쪽에서 건너온 말이 틀림 없는데요.

아무튼 지금 생명 운운하면 누구든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대개 알아차릴 수 있게 되었는데, 실은 이렇게 되어버린 상황 자체가 정말 두려운 것이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참 기가 막히게 대규모로, 조직적으로, 그리고 설사 없이 우리의 일상생활은 생명에 대한 파괴를 자행하지 않고는 영위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제 생명공동체라는 개념이 꽤 절실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기왕에 우리가 흔히 얘기해온 그냥 공동체라는 개념과는 조금 다른 내용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대개 언어습관상 우리가 공동체라고 할 때 뜻하는 것은 인간공동체 또는 사회공동체이기 쉽지요. 요컨대 인간 중심의 공동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긴데요. 그런데 지금 인간공동체나 사회공동체가 불필요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개념만으로는 우리의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굉장히 미흡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으로부터 바로 나오는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우리에게서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오늘날 환경이나 생명에 가해지고 있는 엄청난 위협에 대하여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어떤 불길한 느낌이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여기로 오면서 석간을 훑어보니까 어김없이 환경재해에 관한 보도가 또 나와 있더군요. 경북 지방 공장노동자들의 직업병에 관한 기사인데, 심각하게 중금속에 오염되어 있다는 통계가 발표되어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종류의 기사는 요즘 와서 하루도 빠지는 날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저께에는 어떤 것을 읽었느냐 하면,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만 3천명, 부상당한 사람이 25만명에 이른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십여년 전에 있었던 광주 사태로 인하여 그동안 굉장한 마음의 고통을 겪어 왔습니다. 지금도 그 고통은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그런데 다른 것은 일단 괄호 속에 묶어두고 인명이 변칙적으로 폭력에 의해서 박탈된다는 점만을 고려한다면,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상자의 수효로 보면 우리가 광주 사태를 끊임없이 경험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천재지변이듯이 별로 문제 삼지 않고, 기껏해야 도로 확장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정도입니다. 자동차 특히 개인 승용차의 사회적 생태학적 비용은 실

로 엄청난 것인데요. 과연 우리 사회가 그러한 교통 수단을 보편적인 것으로 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회인지 어떤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따져보는 노력 한 번 없이 그런 생활이 진보이고 선진화나 되는 듯이 무턱대고 확산되고, 자동차 기업은 번창하고, 자동차 기업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는 그나마도 비좁은 국토에 어지럽게 도로망을 뚫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보면, 광주 사태 때는 말이지요, 그 때는 인명은 크게 손상되었지만 자동차로 인한 재해에서 보듯 사람 아닌 다른 생명체에 대한 손상은 그다지 큰 것이었다고 할 수 없는지도 모르지요. 자동차라는 것은 사람도 사람이지만 생명 일반에 대하여 치명적인 해를 끼치거든요. 대개 승용차 한 대가 일 년 동안 내뿜는 유독성 오염물질이 1톤에 이르고, 자동차를 한 대 생산하는 공정에 소모되는 물이 4톤 정도나 된답니다. 지금 물이 점차 귀해지고 있고, 생수값은 실제로 석유값보다 비싼 셈입니다. 물이나 공기 같은 것을 단순히 화학적 물질구조로 생각하기 쉽지만, 따지고 보면 물이나 공기나 모두 생명입니다. 거기다가 눈에 안 보이는 무수한 미생물, 작은 풀, 나무들, 날벌레, 새들, 산성비와 독가스로 인하여 죽어가는 토양과 숲과 강물, 이 모든 것이 생명입니다. 근원적으로 볼 때 사람보다 대우를 못 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 목숨불이들입니다. 신문이나 방송에 보도되는 것과 같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생명의 피해 옆에는 항상 이와 같은 중생들의 억울한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대개 생각하지 않고 지내지요. 자기들 당장에 괴로운 것만, 자동차가 정제되고 도로가 비좁은 사실에만 열을 내고 비판도 하고 그러합니다. 불과 십년 전에 개인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극소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대부분은 자가용 없이는 못 살 것처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이 추세대로 가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식들이 성장해서 자기 생애들을 개척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가지고, 또 그 아이들이 커서 이번에는 자기 자식들을 낳고... 이런 식으로 인류생활은 지속되어야 하는 것인데, 우리 자식들에게 그러한 기회가 과연 주어질 것인지 점점 불투명해져 가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인류의 종말은 흔히 이야기되었습시다만, 그것은 일반적으로 종교적 열정에 바탕을 둔 종말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과학적인 근거에서 종말이 이야기되고 있던 말입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미래가 없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미래가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 우리의 가장 비참한 실존적 위기는 우리에게 미래

가 없다는 데서 주로 연유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록 말은 안 하지만 마음 속으로는 커다란 공포를 느끼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사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만큼 정면으로 보지 않으려 하고 될 수 있으면 회피하고자 하는 심리도 작용하고 있겠지요.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시대이든 그 시대를 지배하는 주도적인 분위기 혹은 기분이라는 것이 있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세계에 대한 경탄 혹은 외경의 기분이 있었고, 17세기 이래 데카르트 이후에 서양에서 지배적인 기분은 확실성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합리적인 기획과 실천에 의해서 말하자면 지상천국의 건설이 가능하다는 확실한 믿음이 존재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2차 대전 이후 그러니까 히틀러에 의한 유대인 학살과 히로시마 원폭투하라는 끔찍스러운 재난이 있는 뒤부터는 인류사회를 지배하는 주된 분위기는 공포와 권태라는 것입니다. 공포와 권태의 감정은 실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실로 형언하기 어려운 두려운 사태에 직면하여 자기 운명에 눈을 감고자 하는 근원적인 무책임과 무관심이 여기에 작용하는 것일 테지요. 여러분이 짐작하다시피, 하이데거는 현대 기술문명에 커다란 반감을 느끼는 철학자인데요.

그런데 물고기가 폐죽음 당하고 있다는 보도를 그저께도 보았습니다만, 지난번 폐놀오염사건 같은 것 말입니다. 이런 것이 자본이나 기술의 투입에 의해서 어느 정도 땀질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날이 갈수록 생태계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새삼스럽게 예를 들어가며 할 필요는 없겠지만, 기본 방향이라 할까 지금과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어떻게 될지 조금 말할 필요는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마 가장 난감한 문제는 쓰레기 처리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언론에서는 지역 이기심을 버려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요. 각 지역에서 쓰레기 처리장이나 매립지를 건설하거나 유지하는 데 따른 피해를 예상하고 지역민들이 단결된 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한 상황을 두고 이기심을 벗어나야 한다고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하는 논자들도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과연 얼마나 철저히 인식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도대체 쓰레기나 각종의 산업폐기물이 단순히 매립되거나 불태워진다고 해서 해결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폴로 우주선이 달에 갔다는 사실로 해서 인류에게 어떤 기여가 있었다면 아마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외계에서 인간이 지구를 볼 수 있었다는 점에 있으리라

고 생각됩니다. 그 때 탑승했던 우주선 조종사 한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달에서 돌아오면서 지구를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작고, 가냘프게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구에서 달을 볼 때와 같이, 달쪽에서 지구를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는 별은 허공에 외롭게 떠 있는 작은 공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그 우주선 조종사의 말에서 주목되는 것은 그러한 별을 작고 가냘프다고 하는 표현방식입니다. 특별히 시적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도 아닌 우주선 조종사로 하여금 그러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는 지구라는 별을 하나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위에 자기의 가족, 친구,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명을 영위하고 있는 터전으로서의 지구가 허공 중에 아슬아슬하게 떠 있는 것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요컨대 그는 전 지구적인 관점에 자연스럽게 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대체로 전 지구적인 관점에 서서 사물을 파악하는 순간을 드물게 밖에 가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 개개인은 사회적 인간관계의 복잡한 연관 속에 살면서 갖가지 모순, 갈등을 일으키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지구적인 관점은커녕 작은 공동체 입장에 서기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선 조종사는 마치 어머니가 어린 자식의安危를 걱정하는 심정과 같은 것으로 외계로부터 지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폴로 계획의 유일한 성과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데 돌이켜보면 옛날부터 현명한 사람들이나 시인, 예술가들, 예언자들, 신비가들, 그리고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늘 이러한 관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 과학기술시대에 순전히 과학기술의 현대적 성과에 힘입어 이루어진 아폴로 계획의 실현 속에서 한 조종사가 확인했을 뿐입니다.

지구는 하나라는 것,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생존의 절대적인 터전이면서 어디까지나 유한한 체계라는 것이 아폴로 계획을 통하여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볼 때,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이러한 체계 속에서 쓰레기를 치워보았자 어디로 보낼 데가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 집니다. 어느 잡지에서 읽은 기억이 납니다만, 70년대에 캘리포니아에서 일본까지 요트로 단독 항해한 경험이 있는 어떤 사람이 80년대에 다시 그 항로를 거쳐 여행을 하면서, 태평양이 온갖 오물로 뒤덮여 있는 것을 보고 크게 낙담했다고 합니다.

결국 쓰레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분해되기 어려운 쓰레기를 생산하지 않는다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생활은 너무나 많이 쓰레기 투성이거든요. 어쩌다가 우리 생활이 이 지경으로 산적한 쓰레기더미 속에 허우적거리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여러 가지로 강구되는 대책이라는 것들, 예를

들어 분리수거라든지, 썩는 비닐 제품의 연구개발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임시적으로 약간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문제의 본질을 흐려놓기가 쉽다고 봅니다. 모든 것을 새로운 기술의 도움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한, 또 다시 새로이 불거지는 문제에 끊임없이 직면해야 합니다. 썩는 비닐만 하더라도 그것이 천연물이 아닌 합성품인 한 그것이 더욱 생태적으로는 유독한 것일지 모르고, 지하수 오염을 비롯하여 어떤 예측하지 못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환경 오염에 대하여 우리는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지 않는 양비론이라면서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실대로 말해서 기업이나 정부의 책임 못지 않게 우리 자신의 욕망의 문제가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합성세제를 대량 생산하는 자본가나 이것을 목인 혹은 보호하는 정부를 비난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 자신의 욕망의 구조도 냉정하게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사회정치적 변화와 동시에 우리 자신의 인격적 쇄신이 이루어짐으로써만 비로소 오늘의 위기 변화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경제와 정치권력의 결합은 막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규정하는 산업적 생활 방식에서 거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 발전소, 컴퓨터 같은 현대 산업의 복잡하고 대규모적인 기술체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술체계는 권력의 중앙집중 없이는 불가능하고, 또 권력의 중앙집중을 끊임없이 확대하는 데 이바지합니다. 요컨대 우리들이 지금 찬연한 과학기술의 성과라고 찬탄하면서 편의주의적 생활의 안락을 도입하고 있는 기술문명은 그 자체 인간을 부단히 소외시키는 중앙집중적 권력을 기초로 한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는 것과 같은 산업적 생활방식과 참된 민주주의적 생활은 결코 양립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 것은 물론 생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분권적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아니라 풍력과 조력과 태양열 발전소가 지역마다 설치되어서 우리가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할 때 그러한 대체에너지는 단순히 생태학적으로 지탱가능한 에너지원을 유지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외부적인 강제나 통제 없이 우리 생활을 자치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는 산업적 기초를 확보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쓰레기는 영어로 웨이스트, 그러니까 낭비라는 말인데, 이것은 결국 따져보면

인생의 낭비를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렇게 볼 때 쓰레기 문제는 단순히 우리의 생활에서 나오는 부산물 찌꺼기라는 정도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규정하는 오늘의 지배적인 산업체제 자체가 인생의 낭비를 구조적으로 강제한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령 실업 문제라든가 노인 문제 같은 요즘 흔히 이야기되고 있는 사회 문제 등과 쓰레기 문제는 본질적으로 같은 뿌리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른바 노인 문제를 두고 생각해보면, 사람이 단순히 늙었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은 인류역사상 일찍이 없었던 일이지요. 이것은 산업사회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는 노인 문제라는 것은 성립할 수 없는 말입니다. 전통 사회에서 노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들에게 맡겨진 보람 있는 사회적 역할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거리가 있었다는 얘가지요. 지금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논의가 분분한 이른바 여성 문제만 하더라도 그 문제의 본질은 산업 문명과의 관련 속에서 보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흔히 산업화 내지는 근대화를 통해서 여성들의 지위가 봉건적 질곡에서 많이 벗어나옴으로써 크게 향상된 것으로 평가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매우 피상적인 관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서 이 문제에 대하여 길게 언급할 여유가 없지만, 한 마디만 한다면 오늘날 여성 문제는 본질적으로 여자들에게 보람 있는 일거리가 주어져 있지 않다는 점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전 농업사회에서는 농사일과 같은 기본적인 생산 활동은 가족 단위의 노동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실을 기억해 보면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노동으로부터의 소외라는 현상은 생겨날 수 없지 않을까요? 예전 농사일이 고통스런 중노동이었다는 주장도 있겠지만, 과연 그렇게만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그것이 사실이라 해도 안락과 편익이 비교할 수 없을만큼 증대된 오늘의 상황이 오히려 노동소외와 거기 따른 비참을 구조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사실이라고 할 때,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보아야 할 지는 건강한 상식을 지닌 사람으로서는 자명하다고 여겨집니다. 인간은 생활수준의 향상이라는 어리석은 욕망을 추구하다가 이제 가장 비참한 재난에 봉착한 것입니다.

우리는 노동이 인간 행복에 대하여 갖는 관계를 새롭게 조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노동이란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도식이 통하지만, 실은 일 없이 안락하게 지내는 것보다는 조금 고통스럽더라도 일을 가지고 사는 것이 참다운 행복에 이른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사람이 창조적인 노동을 누리는 것은 도덕적 설교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생활이 그것을 요구해야 하고, 공동체적인 삶이 가능하려면 공동체적인 노동을 필요로 하는 생활상의 긴요한 요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할 일 없이 텔레비전이나 보면서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텔레비전이 있어서 외로움을 달래준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뒤집어 생각해 보면, 텔레비전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별 수 없이 소외되고 외로운 생활을 강요당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인간성의 황폐를 암시하는 사례들이 수없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런 것을 개탄해 보았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끼리 뜻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경제구조에 있어서의 혁신이 있어야 하고,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정치적 행동의 구조가 충분히 민주적으로 개변되는 것이 선결조건이라고 해야 하겠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혁신적 노력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은 아마 가능한 한 자치와 자율의 생활을 보장하는 구조로의 발전, 즉 권력의 분산, 소규모 경제생활 단위, 협동적 공동체가 존중되어야 할 거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정치철학에 관한 문제이니만큼 여기서 길게 논하지 않겠습니다.

쓰레기 문제에서 보듯이 지금 우리가 당면한 위기는 기술이나 자본의 힘으로 결코 극복될 수 없는 인생의 낭비의 문제인데, 이러한 낭비는 물론 이것을 강제하는 사회경제체제의 문제이지만, 더 깊이 생각하면 이것은 본질적으로 문화적 위기라고 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결국 가해자나 피해자가 따로 확연히 분리될 수 없을 만큼 거의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공통하게 나누어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기본적 가정, 기대에 근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삶이란 무엇인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참다운 삶이냐 하는 것에 대한 관점의 문제, 혹은 감수성의 근본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상이야 알 바 없고 지금 당장 안락과 편의를 누리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하고 산다면, 아무리 구조를 개혁하고, 사회경제공학을 정교하게 적용해본들 사태가 나아지는 것은 아닐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자꾸만 문화적 위기에 대하여, 문화적 가치의 혼란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은 까닭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보면, 정치적으로는 매우 진보적이고, 체제비판적인 사람들 중에서도 환경문제나 기술공학의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둔감한 것을 자주 목격하게 되는데요. 하다못해 합성세제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

다. 이런 문제에 관심을 표하면 체면에 손상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별로 이렇다 할 발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에 진지한 관심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소시민 취급하기 일쑤인 듯 합니다. 저는 결국 이 모든 것이 세계관과 감수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환경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만은 종전보다 높아진 게 사실입니다. 이제는 합성세제가 강물을 오염시키고, 그 물이 수돗물로 되돌아와서 자기 가족과 자기 자식들의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거라는 인식까지 할 수 있게 된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비해 확실히 이것은 진일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이야말로 이기주의적 고려가 아닐까요? 나아가서는 지나치게 인간중심의 사고방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선 그러한 수준 정도로는 문제해결이 극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물 오염으로 인하여 무엇보다 단순히 수소 분자 두 개와 산소 분자 하나로 이루어진 물질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물이라는 생명체가 죽고, 강에 서식하는 모든 크고 작은 생물들과 강 주변의 오랜 세월에 걸친 문화가 죽는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문제는 만물이 하나이고, 형제라는 생각이 있어야 하고, 생각보다는 감수성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인간 공동체나 사회 공동체라는 것으로는 어렵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는 자각이 필요하고, 감수성의 대전환이랄까, 하여튼 이제는 생명체 전체를 하나로 보는 생명공동체의 개념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자연 현상이란 참 신비스럽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기억하실 분이 계시겠지만,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보니까, 연어 말인데요. 북미 쪽에서 잡히는 연어들이 말입니다. 그 동안 사람들이 키가 큰 놈들만 잡아가는 것을 알아차린 연어들이 이제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일정한 길이 이상으로 더 자라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낸다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를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식물들도 그렇다고 하지요. 난초 같은 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집에서 키우는 화초들이 키우는 사람에 따라서 성장을 잘 하거나 못 하거나 하는 것은 우리들이 늘상 경험하는 일입니다. 말 없는 식물들도 자기에게 애정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는 법입니다. 이런 예는 사실 수도룩하지요.

제가 오늘 제목에서 그냥 ‘시’라고 하지 않고 ‘시의 마음’이라고 한 것은, 지금 중요한 것은 문학 형식으로서의 시가 아니라 누구나 갖고 있는 시적 마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이것을 말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실제로 시작품을 읽거나 쓰거나 하는 일과 관계없이 시적 마음이라는 것은 인간 누구나가 소유하

고 있는 근원적 심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언젠가 미국 노동사를 읽다가 재미있는 얘기를 접한 기억이 있습니다. 미국 노동사에서 19세기 말이면 탄압이 극심하던 때였는데요. 기아 임금을 받던 이 무렵 보스턴 근교의 어떤 공장 노동자들이 파업을 일으켰습니다. 그 시절의 미국 노동자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대우를 받고, 노동쟁의가 얼마나 혹독하게 규제되고 있던가는 지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바로 그런 시절인데, 이번에는 임금투쟁도 아닌 아주 특이한 색다른 이유로 파업이 단행되었고 그 때문에 미국 노동문화사에 중요하게 기록된 것입니다. 무엇이나 하면, 그 때 공장의 마당에 한 그루 오래된 느릅나무가 있었는데 이것을 공장 증축을 이유로 기업주가 베어버리려고 하는 것을 노동자들이 반대하여 파업을 결행하면서까지 그 나무를 지키려고 한 겁니다. 이 사건은 노동자들은 밤만 해결해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때 파업을 했던 노동자들 자신은 그들이 그 느릅나무를 지키려고 했던 이유를, 우리는 저 나무를 볼 때마다 우리들이 죽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라는 말로써 밝혀왔습니다. 제가 시적 마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결국 이러한 노동자들의 말 속에 담겨 있는 마음이 아닐까요?

사람이 생리적 순환만 원활히 하면 인간문제는 대체로 해결된 것이라고 보는 것은 산업문화의 지배적인 가정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의 크기를 최대한으로 하려거나 그것을 고르게 나누고자 하는 일이 그 동안의 근대사회 발전과정에서 집중적인 과제로 인식되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보스턴 근처 노동자들이 대 탄압 속에서 관철시키고자 했던 저 정신적, 철학적 요구야말로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면서 인간 생존에 불가결한 요소를 구성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것에 의해 대체될 수 없고, 억누를 수도 없는 근원적인 욕구라고 생각됩니다.

나무 한 그루가 상처를 입으면 자기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고, 고통을 같이 하는 감수성이 중요합니다. 얼마 전 서울의 방학동에서 오래 묵은 은행나무를 지키기 위하여 단식 투쟁도 한 사람이 있지만, 그런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위대한 시인들의 마음이 대개 그러한 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위대하다는 말이 거슬린다면 일반적으로 좋은 시에서 우리가 느끼는 마음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은 시적 사고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모든 생명을 하나로 보는 사고방식이거든요. 우리는 시의 사고는 주로 은유적 사고에 의존한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아까 어느 노시인께서 낭독하신 시

구절 가운데, 늙은 호박이 다리 밑에서 자기를 물끄러미 바라본다라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노정에 접어든 시인의 감정이 무엇인가 손에 잡힐 듯이 느껴지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늙은 호박이라는 하나의 사물은 흔히 하는 말로 나와 그것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그대의 관계로 포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상호의존의 빈틈없는 관계 속에 존재하는 것일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모두 한 뿌리를 공유하고 있고,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만물은 형제라는 관점이야말로 모든 시적 은유의 근거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상호 이질적인 사물들 사이에 유사성이나 일치성을 발견하는 능력이 은유적 사고라고 한다면, 은유라는 것은 원래 만물을 하나로, 형제로 보는 마술적 사고 혹은 신비적 직관에 뿌리를 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신라 향가 중에 <祭亡妹歌>를 보면, 죽은 누이를 추모하면서, 한 가지에 난 두 개의 잎사귀로서 남매간의 관계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럴듯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 향가를 지은 시인의 직관이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시적 비유를 다분히 형식적인 것으로 보는 습관에 젖어 있지만, 그것은 사물들간의 내재적 친연성을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마음을 전제로 하지 않고는 성립하기가 불가능한 것이니까요.

언젠가 김범부(金凡夫) 선생이 쓰신 음양론이라는 글에서 재미있는 대목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영국 철학자 러셀이 만년에 평화운동에 헌신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이 러셀이 북극의 빙하를 녹여서 인류의 산업복지를 위해 이용하자는 제의를 한 적이 있다는군요. 저는 금시초문이지만, 하여튼 러셀의 그와 같은 제의를 두고 김범부 선생은 그것이 얼마나 우매한 생각인가를 지적합니다. 즉, 지구의 북극에 두텁게 얼음이 덮여있는 것은 범부 선생의 말로는 ‘태양계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이야말로 바로 오랜 세월 동안 시인들이 늘 보여준 은유적 사고의 바탕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다못해 가을날 나뭇잎 하나가 떨어지기 위해서도 온 우주의 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조화와 균형 속에 하나로 뭉어져 있다는 생각이 여기에 들어있는 셈입니다. 이것은 시적 감수성의 본질이고, 시의 마음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견 다른 존재, 다른 생명으로 보이는 것들이 결코 나와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라 내 생명의 일부라고 보고, 시인은 생명에 가해지는 상해에 마음 아파하고,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아메리카 인디언은 모두가 시인이라고 할 만합니다. 인디언의 문화는 어떤 의미에서 거의 완전히 시적 은유체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인디언의 언어관습에 따르면, 예를 들어 자기 자식이 아프면 자기가 아프다라는 뜻으로 말을 한다고 해요. 우리는 동양 사람들이고 그래서 서양문화에 있어서보다는 훨씬 비폭력적인 토착문화전통을 누려왔지만, 그런 우리들에게도 내 자식이 아플 때 그것을 자기 자신의 아픔으로 표현하는 습관은 없거든요. 그런데 영어로 번역된 인디언의 말을 다시 우리말로 번역하면, 인디언은 이런 경우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내 아들에 관계해서 내가 아프다 - 이렇게 말 한답니다. 그러니까 아픈 것은 어디까지나 자기이고, 참조 사항이 자기 아들이라는 것이지요.

지난번 인기를 끈 영화 <늑대와 춤을>에서도 잠시 엿 볼 수 있었지만, 인디언은 짐승을 죽일 때 결코 불필요하게 남획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버팔로 같은 것을 사냥하게 될 때 그들은 반드시 제사를 지냅니다. 버팔로의 영혼이 인간의 영혼과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디언들은 사냥한 버팔로의 살을 먹는 사람에게는 바로 버팔로의 영혼이 들어온다는 믿음을 갖고 있고, 먹는 행위를 통해 버팔로와 인간이 일체화 된다는 경험을 갖게 된다는 것이지요. 겉으로는 백인의 경우와 다를 것이 없는 잔인한 사냥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내면적으로는 이와 같은 자연관, 우주관, 생명관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인디언 문화는 여러모로 참으로 흥미로운 게 많은 것 같아요. 평원 인디언의 어떤 부족의 풍습에는 말이지요, 집을 지을 때 집도 생명체니까 뿌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집터의 바닥에 선인장 몇 뿌리를 반드시 먼저 파묻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집이라는 것을 단순히 사람이 거처하는 물리적인 공간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니 인디언들이 거대한 콘크리트로 빌딩을 세우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들이 과학 기술의 빈곤으로 빌딩을 세우지 못하고, 거대한 도시문화를 건설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은 사물의 핵심을 놓치는 관점입니다. 아메리카 인디언은 어떠한 반생명적인 테크놀로지나 문명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세계관과 감수성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인디언들이 집을 짓기 위해 선인장을 심는 행위를 두고 이것을 비합리적인 미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인디언의 문화에는 거의 경탄할 수밖에 없는 자연과 세계에 대한 근원적인 겸손과 외경이 깔려있다는 것을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현대 과학기술문명은 따져보면 부분적 합리성의 추구가 총체적인 비합리성에 직결되어 있는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합리성이니 과학성이니 하는 용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근본적인 반성 없이 이른바 통속적인 합리성이나 찾고 기술주의적 해결을 고집한다면 인디언식의 감수성이나 시적 세계관은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하겠지요. 그러나 오늘의 이 가공할 위기를 진지하게 돌아볼 때 지금 도처에서 불거지고 있는 환경재난은 산업문화의 퇴폐성과 직결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그것은 또 우리 자신의 개개인의 인간성이 극도로 피폐해져버린 것과 완전히 내면적으로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환경 파괴와 문화와 인간성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동일한 문제임을 인식할 때, 철저히 변화되어야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사회의 외면적인 구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의 구조 즉 감수성과 욕망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감수성의 변혁이 가능할까라고 회의적인 사람도 많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럴 용의를 갖느냐 안 갖느냐 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그렇게 하는 길만이 활로라고 한다면 우리 자신이 인디언식으로 느끼고 사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오늘날 산업문화가 우리 생활을 거의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는 잠꼬대 같은 소리로 들릴지 모르지만, 인간 누구에게나 결정적인 마음의 변환, 일종의 정신적 개종의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으로 우리는 믿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러한 믿음이 근거 없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인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조금씩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시를 좋아하고 시적인 분위기를 향수할 수 있는 기회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시라는 것은 우리 시대에 아까 본 것과 같은 인디언식의 사고방식이나 감수성을 그 편린이나마 간직하고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세계이거든요. 어떤 점에서 산업문화의 압도적인 지배 밑에서 우리가 시라는 형식을 유지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인간으로서의 근원적인 감수성을 습관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의 구원인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전대미문의 엄청난 위기를 헤쳐나아가기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나침반은 은유적 사고를 본질적인 생명으로 하는 시적 사고, 시적 감수성이라고 해도 되겠지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근년에 발표된 우리나라 시작품들을 조금 훑어 보았습니다만, 어떤 일인지 특히 지난 80년대 이후 작품들에서 여기서 인용하는데 적합한 것들이 별로 풍부하게 눈에 띄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오늘의 우리 문화 전반에 비추어 조금 깊이 들여다보아야 할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여하튼 시인들조차도 이른바 과학주의라거나 하는 메마른 합리주의에 깊이

감염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굉장히 중대한 논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고, 여기서 무책임한 얘기를 늘어놓아서는 안 되겠지요. 어쨌든 제가 학생 시절부터 즐겨 읽어온, 한 세대 전의 시인들이 제게는 더 풍부한 인용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가령 다형(茶兄) 김현승의 시 <無等茶>를 읽어봅니다.

가을은
술보다
차 끓이기 좋은 시절 ...

갈가마귀 울음에
산들 여위어 가고

썸바귀
마른 잎에
바람이 지나는,

남쪽 십일월의 긴 긴 밤을,

차 끓이며
끓이며
외로움도 향기인 양 마음에 젖는다.

김현승 선생께서는 술을 전혀 안 하시면서 커피를 굉장히 즐겨 드셨다고 하는데요. 늦가을에 차를 끓이면서 시인은 외로운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부르조아적인 시라고 해야 할까요? 하기가 지금 그런 지적이 무슨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작품이 특별히 감동적이라기보다 누구에게나 대체로 별반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근원적인 정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 인용해 보았습니다. 특히 “갈가마귀 울음에 / 산들 여위어 가고”라는 구절을 보면, 시인의 마음이 본질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우리가 엿 볼 수 있습니다. 자, 조금 자세하게 한 번 보십시오. 가을, 그것도 깊은 가을입니다. 새들이 이동하는 계절이고, 산들로서는 자기 품에 데리고 있던 새들을 떠나보내는 계절입니다. 갈가마귀는 지금까지의 보금자리를

떠나면서, 울면서, 어디론가로 갑니다. 그들을 떠나보내는 산의 마음이 여위어 간다고 했습니다. 상심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물론 합리적인 산문의 언어로는 넌센스인지도 모릅니다. 산이 어떻게 여위어 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기는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나무들이 벌거벗으면 산도 여윈 모습으로 비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이 시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은 그런 산문적인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갈가마귀가 우는 소리를 들으며 여위어 가는 산(山) - 이 때 그 산은 어느새 어머니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시가 다 그런 것도 아니고, 또 그러해야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시의 오랜 역사를 통해서 보면, 대개 시인들이 어머니의 마음을 표현해왔던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결국 이러한 어머니의 마음이 아닐까요?

살아있는 생명을 돌보고, 보살피면서, 어느 하나도 상처받지 않게 마음 쓰며, 상처 받은 것은 깊이 위무하고 품속으로 거두어들이려고 하는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명 가진 존재들 사이의 조화로운 관계의 유지를 늘 중시하는 정신 - 이것은 예전 전통문화에 풍부했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문화가 발달하면서, 특히 한국 사람들의 경우에는 개화 이래 서양 문화에 대한 깊은 열등감에 사로잡혀 오면서 우리 자신의 토착 전통문화를 깡그리 내던지면서, 결정적으로 잃어버린 것이 바로 그런 정신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곳이든지 토착문화 전통에서는 자연 생태계와의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시키는 생활방식이 지켜지고 있었고, 그러한 문화의 내면에서는 거의 예외없이 비폭력적인 사회관계의 원칙들이 보존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이란 간단히 말하여 비폭력의 정신이고, 겸손과 자기희생의 마음이겠지요.

아까 하이데거의 말을 잠시 소개했습니다만, 하이데거는 현대 기술문명의 바탕에는 기술주의적 사고방식이라는 것이 완강하게 버티어 있는데, 그 기술주의적 사고에는 본질적으로 타자를 자기의 의지 밑에 종속시키려는 지배와 권력의 의지가 내재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산업문명을 발전 시켜온 원동력인 테크놀로지에 내재한 기본적 경향이란 권력에의 의지의 끊임없는 확대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력과 지배의 욕망은 끝이 없는 것이어서 다른 사람, 다른 생명체와 물건은 말할 것도 없고 드디어는 죽음조차도 지배하려 든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아무리 인간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된다고 해도 회피할 수 없는 근원적인 인간조건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도 테크놀로지에 의해서 극복이 가능할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요즘 우리 주변을 보더라도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인간적 품위를

유지하면서 자손들에게 무언가 기억할 만한 유연도 남기고 삶의 불가피한 일부로서의 죽음을 성숙하게 받아들이는 경우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우리들 가운데 자기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어딘가에 돌아가신 분의 임종의 기억으로 서려있는 방을 가진 사람은 매우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집이라면 적당히 물건을 쌓아두고 살다가 적당한 시기에 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변화되어버린 사회에서 집은 이제 인간에게 아무런 정신적인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집의 의미가 이런 식으로 전락했다는 것과 오늘날 사람들이 점점 신비로부터 멀어지고 삭막한 정신 공간 속에 살며 풍부한 인간성으로부터 소외되어버린 것은 내밀한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죽음에 임박한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서둘러서 병원으로 옮기고 단 몇 시간, 며칠이라도 목숨을 연장하려고 기도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애정 때문이라고 편리하게 변명되고 있지만 실은 죽음을 정당하게 대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이 대개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옳겠지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가급적 죽음에 대한 의식을 배제하려고 합니다. 회피하기가 절대로 불가능한 것을 마치 그것이 불상사이거나 한 듯이 될 수 있는 대로 죽음을 외면하려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결국 그것은 우리들이 지나치게 물질주의적 가치만을 가치로 인정하는 생활방식, 다시 말해서 산업문화를 전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화에서는 죽음을 삶의 불가결한 요소로서 파악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 길러질 수 없음이 분명합니다. 죽음이란 그냥 불안스러운 어떤 재난으로 인식될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소유한 것들, 사회적 성공, 명예, 이런 것들에 집착하면 할수록 죽음은 단순히 두렵고, 자꾸만 외면하고 싶은 대상이 될 뿐입니다. 사람이 성숙하게 된다는 것은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유한성을 인정하고, 인간은 죽는 존재라는 사실을 냉철하게 자각할 수 있을 때만 아마 죽음을 수용할 수 있는 성숙한 인격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우리의 나날의 삶에 대한 우리 자신의 태도가 좀 더 관용적인 것으로 변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조금 역설적이지만, 그러니까 결국 현대 산업기술문명 속에서 사람들이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막연한 불안이나 공포를 느끼는 것은 지배하고 복종시키려는 기술주의적 사고의 확대에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자연에 대한 지배와 장악의 크기가 확대되면 될수록 인간은 자유를 느끼기는커녕 도리어 죽음이라는 순수한 자연 앞에 과거 어느 때의 인간보다도 더 무력한 겁에 질린 불쌍한 인간으로 떨어

저버린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컬합니다.

비겁한 마음이 폭력을 불러들이는 것처럼, 죽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의 쇠퇴는 죽음에 대한 맹목적인 두려움을 증가시키고 그 결과 안팎의 자연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인간 상호간에도 폭력이 난폭하게 행사되는 것이 당연한 삶의 관행으로 굳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나 사회적인 차원에서나 진정한 평화를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죽음에 대한 태도가 훨씬 더 성숙한 것으로 바뀔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늘에 있어서 죽음조차도 하나의 상품이 되어버린 것 같고, 생명의 신비라든지 죽음에 대한 명상이라든지 하는 것은 우리의 지배적은 삶의 운용방식 속에서는 극히 이색적인 체험이 되고 만 것은 분명합니다. 오히려 그러한 명상적인 태도의 원천적인 거부를 진보나 선진화의 표지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일체의 자연의 도(道)를 근원적으로 무시하는 것을 생리화하고 있는 산업문화 속에 깊이 세뇌되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습관인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에 관련하여, 시인 김수영의 명상을 조금 생각하면서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선생이 68년에 돌아가시기 몇 해 전부터 죽음에 대한 심상치 않은 많은 발언을 남기고 있는 것에 대하여 저는 그 동안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지금에 와서 이 궁금증이 해소되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 분이 그 무렵 하이데거를 집중적으로 읽고 있었다는 점과 결부하여 생각할만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수영 선생의 말년에 쓰여진 산문들을 보면, 현대기술문명의 기본 노선에 대한 깊은 우려가 담긴 생각들이 여기저기 나타나있는 것이 주목됩니다. 가령, 그는 혼란이 없는 발전소의 건설보다는 발전소가 없는 혼란이 더 바람직스러운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단순한 문명 혐오증의 표현이라고 가볍게 대할 수 있는 생각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지배와 군림의 욕망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하이데거가 파악한 현대적 테크놀로지의 기본 노선이 품고 있는 인간 및 생명파괴 경향을 김수영 선생 나름으로 간파하고 있는 발언으로 생각합니다.

김수영 선생은 그동안 한쪽에서는 참여시, 민중시의 선배라고 주장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자유로운 정신의 옹호자였다고 주장되어 왔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그런 주장들이 옳다 그러다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죽음에 대한 그의 명상을 깊이 고려하지 않는 한 별로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죽음에 대한 치열한 관심으로 미루어 보건대, 시인 김수영은 말년에 이르러 점점 더 가열하게 비인간

화를 반드시 수반하는 근대화, 산업화, 혹은 산업문화의 문제를 그의 사상적, 시적 주제의 중심으로 삼고 있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모든 시는, 맑스주의 시까지도 포함해서, 어떻게 자기 나름으로 죽음을 완수했느냐의 문제를 검토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도 된다”라고 했고, “이 시에서는 죽음의 음악이 울리고 있다”라는 말로써 좋은 시를 평가하는 척도로 삼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물론 죽음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 실제 작품도 있습니다. 어느 시에서는, 이제 나에게 남아있는 확실한 유일한 질서는 죽음의 질서라는 선언도 보입니다. 저로서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러한 죽음에의 관심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할 때, 그것이 결국 하이데거적인 사고방식과 매우 가까운 근거에 연유하는 것이라는 점은 부인되기 어려울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데거적인 의미의 기술문명이란 끊임없이 인간조건의 원천적인 테두리인 죽음을 부정하려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인간의 인간됨의 마지막 거점의 수호는 이 죽음에 대한 의식에 있다는 것이 김수영 선생의 생각이었을 거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어처구니없는 생명파괴, 생태계 위기의 한 가운데에 살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본질을 바로 보기 위해서는 이것이 단지 외면적 환경의 재난이 아니라 근원적으로는 우리 자신의 인간다운 자질 자체의 어떤 심각한 결손과 직결된 문제라는 것을 철저히 자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이데거나 김수영과 같은 시인이 현대적 상황 속에서 죽음의 의미에 관해 보여준 치열한 명상은 결국 자연과 인간을 수단화, 대상화하려는 근대적 유물론적 산업문화에 맞서서 궁극적인 인간가치를 수호하고자 하는 노력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물을 정복하고 지배하려는 교만의 정신이야말로 모든 위기와 파국의 진정한 원인이라고 할 때, 또 그것이 현대적 과학기술의 억제를 모르는 자기확장의 가공할 원리라고 할 때, 우리가 단지 살아남기 위해서도 이제 무엇보다 필요한 자질은 겸손을 배우려는 태도일 것입니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로서의 자기 위치를 깨닫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 겸손이라는 것은 오랜 옛날부터 인류의 스승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해왔고, 따져보면 모든 진정한 시적 노력의 근본에 있는 감수성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김수영 선생이 되풀이하여 죽음을 언급했을 때 그는 죽음을 삶의 제일의적(第一義的) 질서로 수용하는 겸허한 마음이야말로 바로 보람 있는 인생과 시의 중심적 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생두레농 - 농업위기와 그 대안³⁰⁾

천규석³¹⁾

왜 우리 농업이 위기인가

시장에는 절없는 전천후 농산물들이 넘치다 못해 썩어나고, 요즘에는 중국 농산물들까지 합세해서 농산물들이 지천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 농업이 위기라면, 대다수의 도시인들은 고개를 가우뚱거릴 것이다. 하긴 농업 문제뿐 아니라 사람이 영위하는 모든 일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 어느 때든 위기일 수도 있고, 무사태평연월일 수도 있다. 농산물도 물량적 측면에서만 보면 과거 어느 때도 맛보지 못한 태평연월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필자처럼 농업문제를 환경적, 생태적, 공생적 측면에서 전체 삶의 문제로 보는 사람에게는 바로 이 썩혀 내버리는 시장적인 풍요가, 더구나 그것이 과거의 보릿고개 같은 상대적 결핍과는 전혀 달리 수입개방에 따른 결핍적 과잉이란 점에서 일찍이 경험한 바 없는 위기로 파악된다.

우리 농업을 위기로 몰고 가는 첫 번째 요인은 흔히 공업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화학농법, 기계영농, 단일작물의 밀집, 연작농법 등 한 마디로 부존 에너지 파괴적 규모 지향의 농업에 있다. 이 같은 파괴적 농업생산양식으로서의 근대농법이 지금과 같이 농산물의 양적 풍요를 일시적으로 몰고

30) 출처: 녹색평론선집2

31) 천규석- 대구한살림·공생농두레 이사. 《쌀과 민주주의》, 《유목주의는 침략주의다》, 《소 농 버리고 가는 진보는 십리도 못 가 발병난다》 등 저자.

온 것을 부인할 수야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허용된 이 지나친 풍요의 대가가 우리로부터 무엇을 빼앗아가고 있는지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앞서는 두려움은 먹을거리의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불신이다. 도시의 소비자뿐 아니라 생산자 자신도 자기 농산물의 안전성을 믿지 않는다. 농약과 비료라는 화학물질에 절여낸 농산물을 안전하다고 믿고 맛있게 먹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다. 농약은 말할 것도 없고, 유기농으로 지은 농산물보다 무려 열배 이상 질산염을 축적시킨다는, 비료로 기른 농산물이 인체의 소화흡수 과정에서 청색증을 일으키고 니트로소아민이란 강력 발암물질을 만든다는 외국의 연구사례는 국내 학계에서도 단국대의 손상목 교수에 의해 확인되어 우리에게 또 하나의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특정 작물의 연차적 또는 계기적 과잉 생산에 따른 또 하나의 두려움은 시장경쟁에서 언제나 약자인 농민의 농산물 값에 대한 만성적 불안이다. 시장성과 경제성에 따라 다품목 소량생산을 기피하고 단일 작물을, 그것도 자연의 섭리보다 인간의 기술에 의존하여 전천후적으로 대량생산한 결과 특정작물의 과잉생산이 필연적이며 그에 따른 가격불안은 농민의 가슴을 언제나 짓누르고 있다.

이보다 더 본질적인 두려움은 부존에너지 의존형 농업의 환경파괴로 인한 자원의 한계에 있다. 어차피 농존분해와 환경파괴가 목적인 공업생산이야 가외로 쳐놓더라도 농업마저 공업적 생산양식을 그대로 따라간대서야 이 세상에 살아남을 것이 무엇 하나 있겠는가.

땅도 면적에서만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질적 면에서도 분명한 한계가 있다. 사람들이 전천후적으로, 그래서 고마움도 맛도 없이 먹어 치우는 참외와 수박의 하우스 재배 주산지인 경북 성주에 가면 평당 5만원 이상 하는 논값보다 산흙값이 몇곱절이나 비싼 기이한 현상을 알게 될 것이다. 단일 작물을 연작하게 되면 아무리 퇴비나 다른 유기물질을 많이 넣어도 3년 거리로 생흙을 객토하지 않으면 농사가 전혀 되지 않는다. 이 죽어버린 참외, 수박 밭에 객토용으로 그 산흙을 팔아먹기 위해서 그렇다고 한다.

벼농사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당국에서는 모든 논에다 몇 년 거리로 번갈아 객토사업이란 것을 벌이고 있다. 화학물질과 기계 자체도 분명히 제한된 에너지요원이겠지만, 설사 그것이 상대적으로 무한하다 해도 그것만으로 영원한 증산, 다수확을 기약할 수 없다. 그렇다면 오늘의 부존에너지 의존형 다수확은 결국 농토에 남은 지력과 농토 아닌 산 등 다른 흙의 이동을 통하여, 곧 생태계의 대량

학살의 한도 안에서만 한시적으로 얻어진 다수확일 뿐이다. 산도, 강도, 반드시 거기에 있을 생명질서의 정합성에 따라 있는 것이지 자연에 불필요한 잉여물은 어디에도 없다.

우리 농업 위기의 두 번째 요인은 이런 농업의 여러 문제에 대응해야 할 농업 정책의 부재에 있다. 정책의 부재라기보다 위에 열거한 먹을거리 안전성, 농산물 가격불안, 농업생태환경 파괴를 미리 방지하고 해소하기보다 오히려 부추기는 반 농정에 있다고 해야겠다.

이 나라에도 농정이 있긴 있는가? 오로지 산업화만이 살길이라고 공업발전과 그 자본축적을 위해 농업과 사람을 제물로 바쳤던 지난날의 개발전체주의 시대에 야 그렇다 치더라도, 대선공약을 ‘돌아오는 농촌’으로, 이 나라를 신한국으로 만들겠다고, 그 모든 정책에 신자(新字) 갓을 씌운 신 한국의 신 농정의 실체는 무엇인가?

《신동아》 93년 7월호 <르뽀 농민후계자>에는 그 들머리에 다음과 같은 기사를 실고 있다.

정운천 씨. 우리나라 나이로 마흔 한 살의 젊은 농민이다. 전라남도 해남에서 ‘한국 참다래 유통사업단’이라는 독특한 형태의 생산자 단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는 시쳇말로 요즘 잘 나가고 있는 ‘농민스타’이다.

정씨는 지난 4월 6일 과천 정부 제2종합청사에서 허신행 농림수산부 장관을 비롯한 8백여 명의 농림수산부 관리들을 상대로 ‘특강’을 했다. 주제도 거창했다. 한국농업의 진로에 관한 것이었으니까. 그는 1시간 20분 동안 농업 전반에 관한 그의 소견을 피력했는데 관리들은 별다른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보름쯤 뒤인 4월 24일 이번에는 허신행 장관 등이 전남 해남군 화산면에 있는 한국 참다래 유통사업단을 찾았다. 이 날은 이 유통사업단의 농민 교육장과 저온창고 준공식 날이었다.

정씨가 회장으로 있는 한국 참다래 유통사업단은 허신행 장관이 부르짖고 있는 ‘신농정(新農政)’의 방향과 일치하는 대표적인 성공사례다. 생산자들이 스스로 협동하여 생산과 출하를 조절하는 한편, 저장과 가공등의 유통기능을 확대하고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것은 ‘신농운동’의 주요 골자 중 하나다. 한국 참다래 유통사업단은 바로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형태의 생산자 조직이다.

모처럼 탄생한 농민스타에 대해 시기하는 심보에서 남의 글을 옮겨베끼는 지루함을 무릅쓰고 이렇게 긴 글을 인용한 것은 아니다. 이 기사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것으로 허신행 농림수산부장관의 이른바 신 농정의 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가

늑해볼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이다.

농민도 개인적으로는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처럼 남이 미처 생각 못한 기발한 착상을 먼저 실행에 옮겨서 성공한 스타가 얼마든지 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예전에 그것 없이도 잘 살았던 새로운 종류의 농산물을 남의 나라에서 수입하거나 재배하여 한때 반짝 재미나 보고 사라져갈 농민스타를 농정의 모델로 삼아 “이런 사람이 신한국민이다” 또는 “모든 농민이 이렇게만 하면 잘 살 수 있다”는 허위의식을 조작하는 것이 한 나라의 농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한 나라의 농정은 개인보다 농민 전체의 안정된 생활 뿐 아니라 국민 모두의 건강한 삶에 필요한 식품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생산과 소비를 총체적으로 조정하여 자급자족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어야 한다. 그런데 참다래로 이름을 바꾼 키위가 우리 국민에게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 국민의 배가 고무풍선이 아닌 한 키위가 수입되고 재배되는 동안 그것으로 득을 보는 사람만큼의 다른 과수 생산 농민이 보는 손해를 도의시하는 농정은 이미 농정이 아니다. 우리 국민이 열대산 냉성식물인 키위를 못 먹어 무슨 염병에라도 걸렸단 말인가? 특정 농민의 특정 성공사례를 농정이 정책적으로 확대시키고, TV 등 모든 매체들이 맹목적으로 선동한 결과 소, 돼지, 닭, 하우스 채소, 고추, 양파, 마늘 등 거의 모든 농산물들이 차례로 또는 동시에 과잉 생산되어 시장에서는 한 때의 과잉으로 지나가지만, 생산 농민에게는 고통과 죽음인, 지난날의 과잉생산 교훈을 그새 잊었던 말인가?

먼저 치고 달아나는 약삭빠른 극소수의 농민의 경제적 이익을 제외하고, 국민 건강생활에 오히려 없어서 좋을 식물들을 그 생산과 가공 유통 등의 방식이 순전히 경제적 합리성을 갖고 있다고 해서 정부까지 나서서 부추길 이유가 없다. 농민끼리 하는 생산, 가공, 유통의 협동적 방식만 해도 우리에게겐 새롭고 없는 것보다 혹시 나올지 몰라도, 이른바 선진국에서는 이미 실험을 통해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낡은 방식이지 결코 새로운 삶의 방식은 아니다.

먹을 소비자들의 의사는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고 단지 그 농작물이 농민 개인 대신 협동으로 생산된다고 해서 그 생산의 일방성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일방적으로 과잉생산한 농작물을 제조, 가공해서 저온창고에 보관해두고 출하 유통만 조절한다고 해서 자원낭비의 경쟁적 과잉생산 자체가 원천 해소되는 것도 아니다.

소비자의 생물학적, 정신적 건강보다 경쟁적 대량생산과 소비충동 이기주의에

빠지기 쉬운 생산자만의 단체들 - 이 땅의 대표적인 농민생산자 단체라 할 농협이 지금까지 해온 일이 무엇인가. 농민의 이름을 팔아 정부에 의해 거대화된 이 제도는 농협관료 이기주의와 권력 이기주의의 관철을 위해 농민 이기주의는 고사하고 반농민적 경영을 확대해가고 있다. 이번 국회의 농협감사에서도 지적됐듯이 농협은 삼양식품 등의 재벌식품 회사에 농산물 수입 추천이나 해주고, 올해만도 7억 4천만원어치의 수입쇠고기를 그 직영 슈퍼마켓에서 팔고, 자신의 투자로 만든 산하 법인을 통해 농산물의 수출보다 수입에 더 열 올리는 반 농민극을 연출하고 있다. 변명이야 농축수산물의 안정된 수급조정을 위해서라고 하겠지만, 쇠고기 모자라서 시장파동이야 일어나도 소비자가 배탈 날 일 없는데도 농협관료를 위한 돈벌이에 나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농민을 위해 있어야 할 농협은 오히려 자기 조합원조차 짓밟는 관료체제의 본질을 드러내었다.

보라! 사회주의 국가의 계획경제란 것조차 인간집단의 끝없는 탐욕을 어찌지 못해 침몰하고 있지 않느냐? 물량의 풍성한 수급을 위해 시장체제를 넘어서 다른 대안이 있거든 어디 한 번 내놓아보라. 수출을 하자면 수입을 해야 상호주의에 맞지 않느냐? 수출이든 수입이든 시장을 키우지 않고 GNP를 키울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 얼씨구 시장 확대만이 우리가 잘 사는 길이로다!

그렇다고 개인이나 국가가 사는 데 도움은커녕 오히려 해로운 반민족 생명적인 농산물까지 함부로 수입, 개발, 재배하는 기업이나 생산자 조직을 키워, 시장을 경쟁적으로 확대시키는 것만이 참으로 사람을 잘 살리는 길인가? 시장의 확대란 자원(생명)파괴의 확대의 다른 말이다. 생태계의 파괴가 긴박성을 더해가고 생명 자원의 바닥이 훤히 들여다보이는데도 시장의 확대 - 욕망의 확대-충동만이 잘 사는 길이라는 환상조작은 결코 미래를 바라보는 한 나라의 농정이 될 수 없다.

이른바 선진국의 첨단기술농업, 수입을 전제한 수출농업, 고품질농업, 규모영농(기업농) 등을 열심히 모방하고 있는 지금의 신농정으로서도 소수 기업농, 학사영농후계자, 정운천같이 한 때 반짝이다 사라지는 농민스타 등을 탄생시킬 수는 있어도,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는 대선공약과는 정반대로 대다수의 농민을 농토로부터 추방시키는 반농정이 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신농정 내용 전반에 대한 필자의 견해는 《녹색평론》 1993년 7-8월호(통권 제11호)에서 비교적 상론한 바 있기에 여기서는 그 원칙에 따라 구체적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신농정의 엘리트주의에 관해서만 한 마디 하기로 한다.

대학 출신에게 1억원의 농촌정착금을 주어 귀농시킨다는 발상은 이 농정의 엘

리트(농민스타)주의를 전형적으로 드러낸다. 필자도 농정당국과는 다른 생각에서 대학 출신 젊은이의 귀농을 열렬히 권장시키고 있고, 영원한 정착은 두고 봐야 알겠지만, 실제로 몇 사람을 귀농시키기도 했다. 필자가 생각하는 학사의 귀농은 다른 농민이나 업종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농민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농업과괴 - 생명에너지파괴형 화학 기계적 경쟁농업을 인류공생의 본디 농업으로 살리는 데 헌신하는 것이 보통 농민들보다 많이 배웠다는 것만도 기득권자인 학사들로서는 당연히 싫어져야 할 고난의 길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못 배운 무식이야 어쩔 수 없다지만 배웠다는 무식이야 구제불능으로, 이 세상 망치는 화근의 불씨다. 농업을 파괴한 산업화만이 잘 사는 것이라고 잘못 배운 자 마땅한 속죄의 길은 농업을 살리는 것밖에 더 있겠는가?

농촌과 농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학사든 박사든 젊은이가 돌아가지 않으면 안된다. 파괴적 도시의 삶과 교육이 잘못임을 깨닫고 돌아가는 젊은이에게 그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하는 영농에 정착금을 주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 나쁠 것은 없다.

그러나 어느날 <한겨레>에 투고한 농촌독자의 분노처럼 수십년간 농촌에서 온갖 풍상 겪으며 묵묵히 농사 지어온 기존 농민과 차등지게 (기존 영농후계자가 받는 정착금 액수가 얼마인지 필자는 정확히 모른다) 정착금을 준다는 것은 참으로 부당하다. 중요한 것은 학사고 국졸이고가 아니라 그 후계자가 본질적으로 공생적인 농업을 지키고 살리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경쟁적 환경파괴로 한 때 스타가 되는 반농업을 하거나 그도 아니면 다른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편법인지 그 태도의 진위를 판별해서 지속적으로 뒤를 보살펴주는 일이다.

실지로 농촌정착금을 탄 영농후계자가 그 돈으로 농사는 눈가림으로 짓고 농약 방과 종묘상을 경영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심지어 시골에서 유선방송사를 운영하는 사람도 없지 않다. 정착금을 타서 농사 대신 딴 짓을 한다는 것은 다른 산업은 물론 농업끼리의 경쟁에서도 농사 짓는 것만으로는 버티기가 어렵다는 사실의 확인이자, 정착금을 학벌, 나이, 체제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줄 게 아니라 농업에 임하는 사람의 태도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새 농지법 제정을 통해 농업생산 법인 제도를 도입해서 이 회사에 여의도 면적의 3분의 1정도인 최고 30만평까지의 농지소유를 허용하겠다는 방침 또한 전통의 가족농들을 포기시키고 국토 넓은 소수 나라의 규모영농에 대한 열등의식에 빠진 이 나라 농정의 소수 엘리트주의의 변형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가족농은

비효율적이다, 그러니 능력 있는 소수의 기업농민만 농촌에 남아 농사지어라!

물론 규모 큰 기계기업농이 양적인 경쟁에서 유리할 수 있다. 정책이 현실의 반영뿐이라면 우리 영농규모도 키울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규모를 아무리 키워봐도 광역국토의 대규모 농장과 규모로서는 경쟁상대가 아니다. 패배가 뻔한 경쟁인데도 시도도 안 해 보고 미리 단념하는 것을 패배주의로 간주하고, 영원히 남의 흉내나 내는 (패배를 전제한) 경쟁을 시도한다는 것은 진짜 패배주의다.

이때야말로 발상의 대전환이 요청되는 것이다. 양적 경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면, 질적 경쟁으로 - 누구의 패배를 딛고 넘는 죽음의 경쟁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협동공생으로 가치의 대전환을 모색하는 길밖에 없다.

지속적 삶의 대안 - 공생두레 농업공동체

이 같은 삶의 근본가치 전환을 물론 한 나라의 농정이 모두 감당할 수야 없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우리의 삶을 제약하는 모든 체제의 가치전환과 함께 하지 않고 농업의 여러 문제와 위기를 농정이 홀로 풀고 넘어가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더구나 공업개발 지상주의가 완강하게 지배하는 우리 정부 안의 농정의 위상이 공업개발과 그 시장확대로 변형·붕괴되는 우리 농업과 농민의 딱한 처지를 그대로 반영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농민과 소비자의 눈치나 보고 경제부처, 청와대 등의 개발기류에 휩쓸리는 무소신 부품농정으로서의 진정한 생명의 농업은 영원히 되살리지 못할 것이다.

농정은 다른 어떤 기류보다 농업의 특수성 - 그 생명성에 먼저 눈을 돌리고 거기에다 무게 중심을 잡아야 한다. 적어도 공개적으로는 농업의 중요성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한다. 문제는 농업을 보는 입장이고 시각과 태도이다. 공업개발론자들은 농업의 공업에 대한 예속을 농업발전이라고 우긴다. 그러나 삶의 문제를 환경과 생태계와 공생의 전체 전망에서 보는 우리들은 그것을 농업의 부정이자 생명의 부인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제까지 공기나 물처럼 너무 당연한 생명요소여서 오히려 무시되고 천시된 농업, 개발의 회오리 속에서 시장 종속과 파괴의 대상이었던 농업, 이제 외면할 수 없이 환경과 자원위기의 벼랑에 서고서야 지속가능한 삶의 유일한 방식

으로서 농업, 특히 공생농업의 중요성이 그 파국의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농업 부활이 역사적으로 필연이라 해도, 그 실천의 1단계를 위해 그 누가 먼저 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줄 것인가.

악순환은 약한 고리부터 먼저 끊어져야 비로소 반전이 기약된다. 개발 성장의 고리 중에 가장 약한 고리는 말 안 해도 ‘농’자 붙은 사람과 농정 당국이다. 농생활로 일관해온 필자의 기나긴 신고(辛苦)는 농업살림의 근본이고도 구체적인 대안으로 공생두레농업의 현재적 재건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했다는 것을 다른 지면을 통해 여러 차례 상론한 바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중복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될수록 요약하기로 한다.

공생두레농이란, 지금의 비료와 농약과 농기계가 출현하기 전에 농업부산물과 인근 산야의 풀과 나무를 거름으로 해서 사람과 소의 재생가능한 에너지로 먹을 거리를 자급했던 농사다. 그래서 힘들 수밖에 없던 농사일들이 마을의 총경작지를 하나의 경작단위로 하고 마을 주민의 공동노력으로 이루어졌던 두레농업은 다른 어떤 민족도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 민족 고유의 독특한 생활양식이다. 그러나 아무리 아름다운 우리 전통이었다 해도, 모든 사람이 농민이었던 전통시대와는 달리 이미 도시화가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 된 오늘날에 와서 자급자족이 원칙이었던 전통 두레농의 부활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미 구조화된 도시의 축소는 모르되 전면 해체가 불가능한 이상, 자급자족의 전통 공생농으로는 우선 농민을 제외한 도시인은 모두 굶어 죽을 수밖에 없고, 제한된 토지가 부양해야 할 식구도 너무 많이 늘어났다.

이래서 도시의 소비집단을 전제하지 않고 농민끼리 자급자족하는 오늘의 공생두레농은 설사 가능하다 해도 농민의 위상과 권익 회복을 위한 도시인 길들이기 농민운동 과정일 수는 있어도 그것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다. 그렇지만 자급자족이 불변의 원칙일 수밖에 없는 공생농으로 도시 소비자까지 같이 살자면, 인구에 반비례하는 경지면적도 문제지만 가장 어려운 문제는 농업 사회적 덕목으로 생활양식과 가치가 대대적으로 먼저 전환되어야 하고, 농산물 소비자가 소비관계로만 참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기 소비량만큼의 농업 노동과 영농 자금까지 농민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처럼 도시에서 돈만으로 구입하는 이른바 무공해 농산물은 또 하나의 생명파괴적이고 독점적인 생산형태라고 할 수 있는 대규모 축산의 부산물, 즉 쇠똥, 닭똥, 돼지똥으로 양산된 유기농산물 일지는 몰라도 지속가능한 공생농산물일 수는 없다.

새로운 공생두레농을 재건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이미 공생농을 시도하고 있는 농촌마을이 있다면, 조직된 소비 집단이 같은 구성원으로 동참하는 것이 가장 손쉽겠고 소비 집단 스스로 주체가 되어 두레농지를 구입해서 뜻 있는 현지 농민과 더불어 점진적으로 온 마을에 확대시켜갈 수도 있다.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필자가 이사의 한 사람으로 관계하고 있는 대구 한살림에서는 이 일을 위해 모금 운동을 오래전부터 전개 중이고, 이 글을 쓰고 있는 중에 대구의 어느 고등학교 교사들이 두레 농지를 사서 농사를 짓고 싶은데 의논을 좀 하고 싶다는 전화가 걸려 와서 만날 약속을 해두고 있다.

그러나 일찍이 없었던 새로운 모형의 도농공동체가 별난 소수 농민과 시민들만의 현실 개혁적 운동차원으로 정착되고 지속적으로 확대되기란 쉽지 않다. 바람직한 인간사회의 모습은 운동으로 시작해서 제도로 정착시키고 개혁으로 되살려가고 다시 운동으로 확대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면 이 같은 공생적 삶의 전부를 모두 담아낼 수는 없다 해도 비슷하게나마 수용해 낼 현존의 제도적 틀이 있긴 있는가. 다급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필자는 몇해 전 농축수산물의 전면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우리 농업·농민을 보호하겠다고 특별히 제정한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의 한계에 대한 안타까움을 다시 토로하고자 한다. 이 법인은 물론 3년 이상 농사에 종사한 농민만이 할 수 있는 생산자 단체다. 생산자든 소비자든 또 다른 어떤 것이든 특정 목적에 국한된 단체는 원칙적인 의미의 공동체는 아니다. 공동체는 구성원 모두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자율적으로 자급자족시키는 전인성과 공생성이 철칙이다.

협업이나 공동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농민 생산자 단체는 생산에 관한 한 농업 노동력이 턱없이 부족한 지금 농촌에서 개인 농민보다 유리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개인보다는 크다 해도 대기업보다 작은 생산자 단체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생산량을 늘린다고 한들 그보다 더 큰 기업 - 예컨대 앞으로 시행 예정인 영농기업법인이나 외국 대기업농과 물량 면에서는 경쟁할 수 없을 것이고, 더구나 소비가 보장되지 않는 경쟁적 과잉생산은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자원 파괴, 쓰레기 생산밖에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들일 것 다 들이고 할 것 못할 것까지 다 해놓고 썩혀버리는 농사, 안 지어본 사람 그 처참한 심사 알 리 없다. 더구나 그것이 비료와 농약으로 땅을 소금밭, 빙초산밭으로 만들어 죽이는 일이라고 할 때 땅에 맨살 대고 살아보지 못한 사람, 그 끔찍한 전을 모를 것이다.

생산효율주의 원칙만 살린 생산자 단체의 경쟁적 조직은 생산 이기주의에 빠져 오늘의 농업위기를 오히려 더 확대시킬 수도 있다. 거듭 말하거니와 오늘의 모든 농업위기는 물량의 과소보다 경쟁적 과잉 낭비체제에서 비롯한다. 공동체는 원칙적으로 농업 중심이라야 하고 특히 작아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영농조합법인도 공동체적인지는 몰라도 자급자족의 원칙 즉 생산과 소비의 통합 원칙이 배제된 한에서 그것은 공동체와 한참 먼 거리에 있다. 하지만 현존의 제도 가운데서 그나마 가장 공동체적인(농업중심의 작은 규모라서) 이 영농조합에 대한 미련을 떨치지 못한 필자는 여기에 기대를 걸고 지면을 통해, 그리고 농수산 당국에다 직접 전화를 통해 이 영농조합에 소비자의 참여도 개방할 것을 몇 차례나 역설한 바 있다.

이 제도에서 소비자(도시인)를 배제한 가장 큰 이유는 경자유전 원칙과 도시인의 농지투기 방지를 위해서라고 한다. 지난날 자신이나 선대가 농민 아닌 도시인이 대체 얼마나 되는가. 도시인도 농사 지으면 경자이지 어디 경자의 씨종자가 따로 있는가. 그런데도 이런 주장은 주로 농업과 농민을 스스로 위한다는 농업 학자들과 농민 운동권이 거세게 하고 있다. 그런데 그들이 언제 교수직이나 운동 버리고 스스로 농업을 살리기 위해 생산 농민으로 신분전환을 해 보인 적이 있는가? 그럼에도 농민끼리만 농토를 사고 팔라니 - 지금 농민이 농사 좋아서 짓는 사람 누가 있는가. 엄청난 농토값 상승으로 농민이 땅 사기는 다 틀린 세상이다.

더 값이 오르면 팔아 언제든지 전업할 속셈으로 마음이 이미 농촌을 떠난 현실 농민을 두고 농지개혁 때의 낡은 경자유전 원칙을 명분으로 농민끼리만 땅을 사고 팔라고 되뇌이는 것은 농업포기를 의도한 것이 아니면 결과적으로 선의의 귀농도시인의 농지소유를 억제해서 탈법적 투기꾼에게 농토를 독점시키는 반농지정책이 될 수도 있다. 투기 의도가 있는 힘 있는 도시인은 이번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드러났듯이 이미 토지를 지나치게 독점하고 있다. 또 이번의 금융실명화를 통해 검증되고 있듯이 토지의 독점투기는 의지만 있다면 법과 제도로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무슨 특별명령으로라도 독점은 막아야 한다.

도시 소비자의 출자로 구입한 농지는 영농공동체법인의 소유로 해서 공생농업 목적 이외에는 영원히 전용도 매매도 못하게 법제화하면 된다. 도시인의 농지매입은 이러한 법인을 통한 소유밖에는 사유를 못하게 하면 된다. 이 법인의 소유면적도 여기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자급범위 안에서 제한하면 될 것이다.

농지투기를 걱정해서 영농조합법인에 도시 소비자 참여를 봉쇄하고 있는 당국

이 무슨 영문인지 2백평 이내의 이른바 농림지역 밖의 농지를 도시인에게 개별 주말 농장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농지법 제정을 논의하고 있고, 잘못하면 그것이 곧 실현될 단계에 있다. 그러나 이런 개인 주말 농장이야말로 안 그래도 너무 작게 분할된 우리 농토를 2백평 이하로 다시 동강냄으로써 이른바 경작효율성을 떨어뜨리고, 현지 농민과 여유 있는 도시인 사이의 위화감이나 조장하고, 쓸모없는 관상수 식재와 관리사, 농막이란 이름의 별장 등, 실질적 농지 전용을 통하여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시켜 그나마 상대적으로 깨끗하게 보존된 상류 지역 농토를 황폐화시키는 등 농업적, 정신적, 생태적 파괴를 가속화 시키는 해악이 더 클 것이다.

스스로 파괴해 놓고서도 염치없이 그리워하는 모순된 도시 사람들의 농촌지향 정서를 이런 개인 주말 농장 소유로 분산시키는 농지법은 거둬들이고, 그 대신 기왕에 있는 영농조합법인에 이를 유도 통합시키는 영농공동체의 조직은 법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농민과 도시인이 함께 일하고 거기서 나온 농산물을 모두 책임지고 적절한 값에 소비시켜주는 도농공동체 말고는 더 심화될 농촌 노동력 부족, 농산물 시장파동, 먹을거리 안전성 문제, 도시적 삶의 특징인 신체적·정신적 불구 등 만성적으로 중첩된 우리 삶의 위기를 동시에 근원적으로 해소해 갈 다른 방도는 없을 것이다.

이런 도농공동의 두레농장은 여기 참가한 도시 소비자들이 도시 쓰레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음식 찌꺼기와 자기 분노 등 유기물이 될 수 있는 모든 쓰레기를 발효시키고 가져와서 거름으로 쓰는 대신 화학물질은 전혀 쓰지 않는 진짜 유기공생농장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붙이면 더 좋겠다.

지금 온 국토를 뒤덮어가는 쓰레기 문제로 대통령이 몸소 국토 청결 운동에 앞장서고 있지만, 글썽 쓰레기 생산체제인 공업 중심의 도시적 삶의 양식을 이대로 두고, 쓰레기의 공간적 이동과 시간적 유예에 지나지 않는, 눈앞에서 안 보이게 다른 곳으로 치우는 청결 운동만으로 국토가 근본적으로 청결해질 수 있을까?

쓰레기 정책의 근본은 쓰레기를 원칙적으로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만부득이한 쓰레기는 그것을 만든 자가 책임지고 수거 재활용이라도 하게 하는 생산자 부담원칙을 관철시켜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공업 쓰레기는 그 생산업체로 하여금 모두 책임지고 회수 재활용시킨다. 도시의 음식 쓰레기와 인체 배설물은 도시 소비자가 책임지고 거름으로 만들어 반드시 그 농산물이 나온 땅으로 되돌려주게 해야 한다.

일회용 이쑤시개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조차 거름으로도, 가축사육용 짬밥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면, 이쑤시개의 생산과 사용을 금지시켜야 한다. 이 같이 원인을 추적해 잘라내지 않고 만들어 버리는 사람 따로, 여기 것을 저기 땅 속에 감추는 사람 따로라는 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쓰레기 수거 매립정책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보다 큰 파멸을 예비하는 우둔일 뿐이다. 그렇지 않아도 할 일 많은 이 땅의 대통령이 스스로 도덕적 - 자연적인 삶의 모범만 보여주면 됐지, 쓰레기 치우는 일일까지 몸소 나서고서야 언제 이 난마보다 더 얽힌 부도덕 - 반자연의 무질서를 바로잡아 미래지향적인 개혁적 새 삶을 열어 보일 것인가?

법제는 없을수록 자유롭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자연의 자정법을 파괴하는 폭력적 인간에게 꼭 필요한 보편타당한 도덕적 법제란 바로 이런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정부는 자연의 자정법에 따라 그 공정한 대행자 구실만을 맡는 대신 쓰레기를 치우는 일로부터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 그래서 자연법칙을 무시한 온 도시와 농촌에 쌓이고 썩어가는 쓰레기만으로도 우리의 분수 모르는 이 풍요가 얼마나 허망한 도깨비 방망이이고, 지금의 삶 자체가 얼마나 절박한 벼랑 끝인가를 깨닫는 스스로가 깨닫게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처럼 광란적으로 생산해내는 공업 쓰레기 처리와 시민의 뒤담기까지 정부가 모두 해주기로 든다면, 이 지구상의 모든 정부는 모두 쓰레기 분뇨 수거 대행사업만 하다가 지구와 함께 사라질 것이다.

기업이 지금도 비용절감을 위해 이미 설치된 오염방지 시설도 가동 안 하고 있는 이 판국에 그렇게 되면 아무도 기업을 안 할 것이고 경제성장은 당장 뒷걸음치거나 끝장날 것이라고 모든 성장론자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날 것이다. 아니 무슨 잠꼬대냐며 차라리 목살할 것이다. 이것이 두려워서 온갖 환경기술주의, 환경개량주의가 다투어 창궐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을 기술만으로 해결하려는 그 기술개량주의가 다시금 환경을 파괴하는 악순환을 자초하고 있다. 생명을 파괴하는 기술, 그 파괴를 방지한다는 기술, 쓰레기 성장을 위한 성장이 우리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바로 이런 물음으로부터 삶의 근본가치 - 도덕적 삶의 문제가 등장하게 된다. 김영삼 정부의 개혁을 통한 도덕정치가 국민 80퍼센트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반면에, 부도덕한 쓰레기 양산 부패세력으로부터 문민독재니 감썩쇼니 하는 음해성 여론에 부딪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부패한 기득권을 보호해주리라 기대했던 이 정부가 예상을 뛰어넘어 이제 언론의 재산공개까지 요구하는 수준에 이르러, 인쇄쓰레기의 주범이란 점만으로도 이미 부패체제인 언

론은 개혁보다 건설과 경제성장 쪽으로 국민의 관심을 분산시키는 여론조작을 연출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론이란 이름의 이 시대의 여의봉으로 남을 비판하면서 자기 비판은 수용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현대판 우상으로 등장한 거대언론이야말로 대중의식을 붓끝으로 조작하는 진짜 문민독재인 것이다.

침묵하는 다수보다 비록 소수라 해도 언제나 시끄러운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 정치의 고뇌와 한계를 이해 못할 바 아니로되, 사실 지금의 개혁정치에는 만인을 공감으로 침묵시킬 확실한 잣대와 기준이 없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체제와 산업구조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것이 땅을 딛고 땅과 더불어 영위되는 한에서, 땅의 질서와 자연의 정합성을 무시한 어떤 인간의 영위도 결코 도덕적인 것이 될 수 없다. 만일 이 정부가 언제나 말 많은 소수 기득권자들이 주도하는 당파적 여론에 굴복하여 땅의 질서, 자연의 정합성에 기초하는 도덕적 정치를 중도 포기하고, 오늘 우리가 마땅히 치러야 할 도덕사회를 위한 비용을 치르지는 않고, 자손만대가 공유해야 할 국토를 당대에 모두 파괴하는 공업성장 위주의 바겐세일 정치로 돌아간다면, 한 때의 개혁은 진짜 깜짝쇼로 끝날 것이고, 그 정치적 전망은 도덕적 공생의 미래가 아닌 성장쓰레기 속의 파멸일 것이다.

그림다고 옛날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 어제가 옛날의 세상이 되고 말았다. 농업공동체 시대만 사라진 게 아니라 개발성장의 독점시대로 이미 끝이 났다. 잠자던 제 3세계 모두도 개발의 광기를 뿜어내고 있다. 자원은 한계를 드러냈고 맹목이 된 인간의 기술은 이미 진보도 발전도 아닌 전면파괴로 질주하고 있다.

공업화는 쓰레기장화와 같은 말이고 도시화란 사막화 자체이다. 도덕적 원칙 없는 쓰레기 성장 사회가 물리적,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을 수 없다. 부패 자체인 쓰레기 양산 구조를 이대로 두고 전 국토 공간의 질산화, 부영양화, 중금속화, 폐질화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지켜갈 수 없고 경제적, 정치적, 사회문화적 부정부패로부터 정의와 도덕을 바로 세울 수 없다. 도덕성 없는 기술 모방으로는 뱀새가 황새를 따라잡는 날이 오기는커녕 가랑이만 찢어지는 영원한 예측으로부터 결코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삶의 진보’는 고사하고, 다가오는 생명위기로부터 결코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구원과 진보의 여명은 오히려 새로운 공생두레 농업공동체로부터 비쳐오고 있다. 땅으로 돌아갈 자격 있는 생명 쓰레기의 부패만 있는 공생농업 두레의 재건을 위한 ‘반혁명’이 불가능하거든, 쓰레기라도 최소화시켜 철저한 재활용이라도

할 수 있는 재생순환의 경제, 정치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말이 쉬워 개혁이지 무엇을 어디로부터 어떻게 개혁해야 할지 실로 막막할 만큼 우리 모두는 총체부패의 소용돌이에 휩쓸리고 있다. 보는 관점과 서는 입장에 따라 개혁 과제의 우선순위는 다를 수밖에 없지만, 개혁의 종착점이 정의와 도덕이 바로 실천되는 인간사회라고 보는 우리로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앞서는 개혁과제가 욕망 축소의 제도화라고 감히 주장한다. 그 중 구체적 대안 하나가 필자가 실현의 그날까지 거듭 주장하게 될 농민과 시민이 자기 쓰레기까지 함께 책임지는 공생두레농업의 제도적 허용이다.

그러나 도시 소비자가 유기물화 할 수 있는 자기 쓰레기와 함께 참여하는 그 같은 도덕적 내용의 두레공생농 법인의 법제화만으로 우리 농업의 문제가 다 해소되고 우리 밥상이 금방 되살아나고, 이 광란적인 파괴행위가 모두 끝날 것인가? 우선은 이러한 새로운 삶의 방식의 모범을 통해, 모든 도시인들이 본래의 농심을 회복한 도덕적 인간으로 거듭나야겠지만, 얼마쯤의 도시인을 실제로 농촌에 되돌리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의 농촌 문제를 농민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듯이, 도시문제 - 쓰레기 문제를 비롯한 교통 문제, 주택 문제, 교육 문제 등 일련의 반 환경, 반 생명적인 모든 도시적 삶의 위기는 도시 안에서 도시인만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일방적, 강탈적으로 도시에 집중되고 있는 부, 권력, 교육, 나름대로의 안일과 소비문화 등의 도시적 기득권 중에서 적어도 본디 농업에 속한 부(富)만이라도 농촌에 실지로 되돌려주지 않고서 도시 문제는 절대로 못 풀 영원한 수수께끼가 될 것이다. 농사에 속한 일들을 빼앗아 생명을 죽이는 공업의 일자리는 이제 그만 늘리고 사람 살리는 농사에다 일자리를 다시 돌려줘야 한다. 다시 말하면 공업이 모두 뺏아간 농사일을 농업에 되돌림으로써 그 농사일과 함께 도시인을 농촌으로 되돌아가게 하라. 농사일의 공업화를 강요하는 지금의 신농정은 돌아오는 농정이 아닌 축농 정책일 뿐이다.

농촌과 도시 간에 줄어든 소득격차로 도시인을 귀농시킴으로써 도시 문제도 축소하면서 시민과 농민이 이웃으로 함께 사는 참으로 건강한 도농 두레밥상을 차리기 위한 가장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관건은 현행의 규제 일방통행으로 거대 기업의 기득권만 보장해주고 있는 농축수산물의 제조, 가공, 유통 등의 모든 농축수산 관련 산업을 개별 농민과 이 영농공동체에게 실질적으로 되돌려주는 법제의 전면적 개혁에 있다. 물론 지금의 어떤 법제에도 농민 개인이나 생산단체에 이를

규제하는 대목은 없는 줄 안다. 앞서 말한 영농조합법인의 모범정관의 제 5조 6항에는 농산물의 가공 및 판매를 특별히 명기해놓고 있다. 그러나 이 정관이 무슨 소용인가? 그 모든 법규의 외형적 평등성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특별한 사람이나 대기업이나 감당할 수 있는 규제와 규모 일변도의 ‘산 넘어 산’인 관련법규 모두를 이 영농조합들도 똑같이 넘지 않으면 안 된다.

영농조합법인과는 비교할 수 없이 막강한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농협(경북 울릉)이 호박엿 공장 하나 만드는 데도 30여개가 넘는 관계 법령과 40여개의 인허가 절차를 뛰어넘기 위해 1년 6달이 걸렸다고 한다. 그 동안 소요된 공식·비공식의 비용을 걱정하기 전에 그 길고도 복잡하고 험난한 법령의 관문을 통과하는 기간만으로도 농민은 이미 주눅이 들어 나가떨어지고 있다. 호박엿이 무엇인가. 호박 심은 농민이 호박 조청 고아서 물 바른 손으로 씹 먹던 그 엿 만드는 데 이렇게 까다롭게 훼방만 놓는 법령은 대체 누구를 위한 법령인가? 이래 가지고서야 제조, 가공과 유통이 본 농사인 식품기업과 돈놀이라도 하는 농협 같은 관변단체는 모르되, 스스로 일 많은 농사를 직접 짓는 농민이나 영농법인의 가공유통 참여는 그야말로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기보다 더 불가능한 일이다.

60년대 말에 민간기업으로서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과채류의 저온저장으로부터 출발하여 그 가공업에까지 사업을 확대해 온, 필자가 잘 아는 중소기업이 있다. 그러나 이 중소기업의 가공품은 이제까지 전량 일본 등지에 수출만 할 수 있었고 독자적인 자기 상표로 국내시장에는 진출할 수 없었다. 거대 식품기업의 생리와 논리가 해외수출을 할 만큼 비교적 안전한 중소기업의 가공식품도 내수시장 진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린다고 한다. 예컨대 일화식품의 ‘맥콜’이 시장에서 자리를 잡아가자 대기업 식품이 개발한 유사 제품들로 집중 포화를 퍼부어 하루 아침에 중소기업 하나를 침몰시킨 것에서 보듯이 이 나라에서는 ‘작은 것’은 공존의 대상이 아닌 파괴의 대상이고, 오로지 큰 것만 생존할 수 있는 규모의 약육강식만 관철되고 있다. 그러니 이 중소기업도 최근에 수출이 여의치 않자 자기 스스로 개발한 양질의 사과즙과 딸기잼 등의 가공품을 대기업에 납품하여 대기업의 저질상품과 희석시켜주지 않고는 존립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이 땅 농산물 가공유통의 실상이고 허상이다.

공산품이야 생명 없는 많은 부품들로 조립된 것이기에 그 많은 부품들은 대기업이 다 생산하지 못해 중소기업의 하청으로 조립생산해도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그것 자체로 완결된 생명의 생산인 농산물과 그 가공을 하청으로 대량 생산해

서 단지 대기업이란 상표만으로 장기간 유통시킨다는 것은 있어서 안될 생명과괴행위인 것이다.

이 같은 농수산물, 그 가공품, 음료수 등 모든 시판 식품의 안전성과 건강성에 의문을 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동안 단절되어온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유기농 직거래 운동을 통해 중국에는 도농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는 한살림공동체가 있다. 이 공동체에서는 경북 일월산 뒤편 깊은 오지에서 어려운 자연농을 하는 농민 형제에게 생계에 보탬도 줄 겸 스스로 안전한 음료수를 마시고자 산기슭에 자생하는 야초와 유기농 채소로 효소음료를 만들게 하여 공급받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식품가공위생법인가의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그러나 그게 시판 목적이 아니라 생산자 자신도 회원인 비영리 소비조합에다 자기의 인건비 정도나 받고 공급한 회원용인 줄 알게 된 경찰의 정상참작으로 다행히 벌금형으로 처리되긴 했다.

같은 한살림 회원이 5회 이하의 저농약 사과를 생산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부실과와 병충과가 너무 많이 나기 마련이다. 공들인 유기농 사과를 버리자니 너무 아깝고 팔자니 상품이 안 되어 고심하던 우리는 이것을 즙으로 가공하여 나누어 먹고 있다. 야채효소 생산회원의 경찰 연행 소식을 전해 듣고 겁이 난 사과 생산자는 그날 당장 도청에 들어가 사과즙 생산 허가요건과 절차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허가요건 시설을 갖추기 위한 엄청난 자본금도 문제지만, 그 절차를 다 거쳐 허가를 얻자면 농사는 그만두고 가공업으로만 나서면 모를까 직접 농사를 짓는 농민으로서는 결코 못 해내겠더라며 풀이 죽어 되돌아갔다.

설사 가공을 전업으로 시작한들 앞서 말한 이미 자리 잡은 중소기업의 실상이 그러한데, 하물며 농민의 영세가공이야 대기업의 십자포화 한방에 침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나라 생명산업의 과거이고 현재이다.

그러므로 농민 개인이나 소비자가 자주관리적으로 참여하는 영농법인의 식품제조, 가공, 유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산 넘어 산인 식품가공위생법 등의 법적·행정적 규제를 완전히 철폐하는 일대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실현의 그날까지 거듭 말하지만 식품의 진정한 안전성과 건강성은 법이나 당국이 보장해주는 법규나 생산업체의 시설규격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생산동참과 필요할 때 즉석 제조해서 먹는 직거래만이 보장해줄 것이다. 식품의 시장 유통은 식품의 죽음밖에 아무것도 아니다. 소비자의 자주관리적 생산, 가공 참여로 일체의 반생명적 화학첨가물을 쓰지 않고 정말로 안전하게 제조한 가공식품은 자연조건에 따

라 변색, 변취, 변미 등의 자기 변질을 통해 스스로 시장 유통을 부정하게 된다. 이 변질이 그 식품 본래의 생명성과 안전성을 역설적으로 반증할 것이다.

그러나 자급용과 공동체 내의 직거래 이외의 시장 유통에 따른 식품의 안전성을 위해서, 그리고 버려질 자원낭비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농민과 영농공동체에 서 하는 가공 뿐 아니라 모든 식품가공은 반드시 일정 규모 이하로 제한시킬 필요가 있다. 그 일정 규모는 우리들의 직거래 경험에 비추어 농민 개인의 경우 동참 소비자 20세대 이하, 소비자와 함께 하는 영농 조합법인의 경우는 농민 5세대에 동참 소비자 2백 세대 이하가 적정선일 것 같다. 20세대의 소비자가 십시일반으로 농민 1인의 모든 생계를 책임지는 공동체적 삶의 회복이 없는 한, 농산물의 가격 안정, 소비자의 먹을거리 안전, 농토의 사막화 방지 등은 결코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

이처럼 제조, 가공, 유통 등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농촌 농민에게 분산, 되돌리지 않고, 농민이 뼈빠지게 지은 본디 농산물의 생명가치를 규모의 경제라는 약육강식의 논리에 종속시켜서는 ‘돌아오는 농촌’은 고사하고, 이나마 남아있는 우리 밥상인 농촌을 온전히 잃고, 마침내 닥치고 말 지구파멸로부터 아무도 안전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

육망확대 → 생산확대 → 시장확대 → 생명자원파괴가 마침내 제 생명 파괴를 통한 육망해방은 실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살아 있는 생명을 결코 자유롭게 해방하지는 못할 것이다. 시장 자체인 도시가 현존하는 한 시장은 필요악이다. 그렇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기초적 생명필수 농산물들은 오히려 작은 도농공동체의 자급자족적인 생산 소비에 맡기고, 공동체가 스스로 자족 못하거나 남을 수 밖에 없는 생필품과 적정기술의 공산품만의 시장으로 축소되지 않으면 안 된다. 끝없는 육망확대, 시장확대로 얻을 것은 생명축소·파멸과 지구의 황폐화밖에 없다.

뒷이야기

위 글은 지난 10월 30일 단국대 학생회관에서 한살림공동체가 주최한 농업정책 토론회의 발제문을 보완한 것이다.

이 토론회에 초청된 농림수산부 구조조정 국장이란 관리는 다음과 같은 요지의

반대토론을 했다.

최 박사(최양부 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의 발제에는 별로 할 말이 없고, 천규석 선생의 발제에 대해 말하겠다. 한 마디로 몽유병자가 본 환상의 잠꼬대를 들은 느낌이다. 모든 생산단체의 구성원은 인근지역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거리가 멀리 떨어진 도시 소비자를 영농조합법인에 참여시키자는 것은 아무리 좋게 봐줘도 실현 불가능한 이상주의다.

본인은 오랜 기간 일본 등지에서 해외파견 근무를 해왔는데 우리나라에는 도대체 토론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다. 이곳은 토론장이 아니라 농정의 일방적 성토장으로 끝날 뻔했다.

우리 농업이 위기라니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시장에 농산물이 풍부하고, 또 농산물 없이 어떤 시대도 사람이 못 사는 한 농업은 지속될 것인데 농업이 왜 위기이고 또 어떻게 파괴되어 없어진다는 것인가?

2백평 이하의 주말농장 소유를 도시인에게 허용한다고 농업과 생태계를 파괴하거나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도시인의 퇴직 뒤의 노후보장 차원에서도 오히려 적극적으로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농산물 가공 유통문제는 구라파의 경우에 생산농민이 직접 하는 가내 공업규모가공이 일찍부터 정착되어 왔지만, 우리는 미국식의 대규모 기업형 농산물 제조 가공 유통이 일본을 통해 들어와 이미 정착되어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

약정된 토론시간을 이미 1시간 정도 넘기고 있는 시점에서 이 반대 토론에 대한 반대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 분위기 때문에 쫓기듯 간신히 얻어낸 짧은 발언 기회를 통해 행한 다음과 같은 필자의 반론으로 이 토론 없는 토론회는 끝이 났다.

본인의 발제가 몽유병자의 환상과 잠꼬대로 취급당했는데, 그러나 직접 농사 지으며 농촌에서 살아남기 위한 수없는 고민과, 농민회·한살림 등의 자구, 자생활동의 축적에 따르면 결코 그것은 실현 불가능의 환상이 아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정부가 나서서 소비자가 참여하는 영농조합법인 등을 온 농촌에 타율적·획일적으로 조직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농민이나 시민의 자구, 자생노력을 제도적으로 막지 말고 자유롭게 허용해 달라는 것뿐이다. 그리고 농축수산물의 가공, 제조, 유통은 생산 농민이 직접 하는 유럽식의 가내공업방식이 바람직하다면, 일제 지배 이전까지 우리 농촌에서도 자생했던 가내공업적 자가 가공을 인허가 등의 제도적 제약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당국이 긍정적으로 검토 허용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

필자에게 주어진 발제와 반론의 시간이 겨우 30여분. 이 시간 동안에 기회 있

을 때마다 온몸으로 간곡히 되풀이해온 이 한마디를 겨우 하고, 발제 도중 꾸벅 꾸벅 졸고 있던 사람으로부터 갠 사람이 되려 몽유병자 취급이나 당하려고, 석유 자원 태우고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와 기차를 번갈아 타며 왕복 8시간 더 걸리는 그 지긋지긋한 서울을 오가야 했던가? 밤 11시 20분에 서울역을 출발하여 다음날 새벽 3시 넘어 대구역에 도착한 밤 기차간에서 다른 승객들은 잘도 자는데 나는 이 땅의 한심한 관료주의, 패권주의, 성장주의로부터 우리 농업과 모든 생명·환경문제를 어떻게 구출해야 할지를 골몰하느라 벌겍게 뜬 눈으로 자신을 소모하며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을 씹어야 했다. 그리하여 나는 원님 행차 뒤의 나발이라도 붙어야 했고, 아무도 없는 대숲에라도 가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외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그래, 중인환시의 연단 위에서 참으로 배짱 편하게 졸고 있던 사람이, 한평생 고통스런 농업생활에 부대끼고 찌든 농민이 모처럼 주어진 기회에 들려주는 현장의 목소리를 몽유병자의 잠꼬대라니 적반하장이라도 분수가 있지 않는가? 등뼈 휘어지는 농사일과 개발독재에 찢어지고 깨어지는 이 땅 생명산업의 희생과 세상의 민주화를 위해 우리 농민들이 수없이 하얀 밤과 검은 낮은 갈망과 통곡과 감시의 폭압과 신음 속에 지새우는 동안 국내에서, 해외에서 오로지 태평연월과 출세가도만을 추구했던 독재체제의 기술관료가 아직도 백성을 우습게 보는구나. 고통과 갈망으로 이 평생 다 보낸 세월 끝에 맞은 ‘문민정부’라는데도, 청와대 주변 말고 이 땅의 관료주의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구나.

농사 창고 하나 짓는 데 제 땅이라 해도 3미터 진입로와 창고터의 농사 전용에 허가를 받게 한 것은 무분별한 농지 파괴가 계속 자행되는 이 시점에서 그 규제를 위해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아득한 옛날부터 사람이 다닌 길이라서 지적도면상에도 있는, 따라서 합법적인 길의 도랑(溝)에 내 돈 들여 토관을 묻는데도, 이유와 절차를 설명해주는 대신 ‘구사용허가’ 없이 절대 안 된다는 면서기의 위압적 관료주의는 어디에 있는 법이고, 그 법 절차를 통과하기 위해 1년이 넘게 걸리게 하는 법은 무슨 법인가?

주민 동태를 손바닥처럼 알 수 있는 시골 면소재지에서 명색 인간문화재인 사람이 와병 때문에 노인들에게 주는 버스표를 받으려고 자녀를 두 번씩이나 면사무소에 대신 보냈는데도, 상부 지시라며 본인이 직접 안 오면 절대 못 준다는 담당 면직원의 관료주의는 무슨 법으로 다스려야 하는가?

재벌이나 중소기업보다 농민이 내는 직접세액이 작다고, 두레 노동과 자급자족

의 농업공동체의 살림경제를 모르는 서양의 경제학에 잡히는 GNP의 수치가 낮다고, 더 솔직히 말해 관료 개인이나 기업이나 상인처럼 별도의 국무로가 떡고물을 못 챙겨주는 농민의 목소리라고 귀 막아 토론문화의 싹을 아예 키우지 않은 장본인은 누구인가? 외국유학이나 파견 근무가 무슨 자랑이라고 앞세우며 남의 땅 농업이론모형을 사다가 내 땅의 자생 토착농업에 억지로 두들겨 맞춰 죽이고 있는 농업관료, 학자, 정치인이 그들이 아닌가? 이 정부가 내세우는 개혁을 통한 정의사회 실현과 도덕정치란 법과 제도에 앞서 사람의 양심과 도덕성에 기초한 공동체적 삶의 질서의 창조일 터인데, 그렇다면 이런 도덕사회 건설이란 것도 그들에겐 청와대 몽유병자들이 본 환상의 잠꼬대로밖에 안 들리겠구나.

우리는 이미 한살림 등의 생명농산물 직거래운동을 통해 도농공동체의 가능성 실험을 축적해가고 있고, 옛 농촌마을의 동답처럼, 그러나 지금의 시민사회에서는 시민과 농민이 함께 지어 먹을 도농두레답을 사기 위해 뜻 있는 시민으로부터 비록 아직은 많이 모자라지만 얼마쯤의 모금을 이미 해두었고, 보다 많은 시민의 동참운동을 전개 호소하고 있는 중이다. 이미 저질러놓은 일, 작든 크든 두레답을 사지 않을 수 없는데, 이의 법적 소유권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가 우리에게 농장구입 기금의 모금 못지 않게 당면한 골치 아픈 문제다. 옛 농촌의 마을답처럼 대표성 있는 현지 농민 개인이나 전체 농민에게 증여 또는 위탁 소유시킬 수도 있으나 그렇게 되면 증여세법에 걸리고, 현행의 명의신탁제도조차 재산 은닉 토지투기 방지 차원에서 법 개정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지 않는가?

사실상의 도농공유지를, 도시인의 농지 소유를 금하는 법 때문에 농민 개인에게 명의 신탁시키는 데는 법률적인 문제뿐 아니라, 고전적 자산성밖에 옛날과 달리 상품성, 투기성까지 부가된 농토를 신뢰하고 맡길 농민이 있는 시대도 이미 아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굳이 도농공유지를 만들어서 함께 농사를 짓고자 하는 데는, 우리 당대만의 식품 안전을 위한 일시적 장난이 아니라, 우리 선대들의 가장 아름다운 두레 전통을 지금 이 시대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의 모형으로 재창조해서 우리 후대를 영원히 사회화 시키자는 데 보다 큰 궁극의 목적이 있다.

그런데 아무도 묘수를 찾지 못하고 아무런 대안 없이 갈팡질팡하고 있는, 우리의 농업 농촌 문제에 자발적 시민 참여로 중지를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허용 유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영농조합법인 법 개정엔 타 부처도 아닌 농정 당국이 춤을 댔으면 댔지 앞장서 반대할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농번기엔 공무

원, 학생, 예비군, 현역군인까지 동원할 만큼 심각한 농촌 일손 부족을 시민 참여의 제도화로 해소시켜서는 안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영농자금 부족으로 농민들이 농정 당국을 향해 늘상 아우성치고 있는데, 시민들이 제 돈으로 땅 사주고, 영농자금 거들어주고, 부족한 대로 농사일도 함께 거들고, 그 생산물까지 책임지고 사먹어 주겠다는 데 - 그래서 장사 못해 배 아파 소리 지를 소수 힘센 사람 이야 있겠지만, 그러나 누가 무슨 권리로 이 같은 시민과 농민의 자구 자생요구를 법률적으로 제약할 수 있는가?

올해도 버냉해 문제로 농민과 농정의 갈등이 첨예화되어 있고, 시민과의 사전 소비약속 없이 농민과 자연조건이 일방적으로 과잉 생산한 배추파동은 대부분의 배추를 발패기째 수매 폐기시켜야 할 만큼 끔찍한 자원파괴와 재정낭비를 자초했다. 역시 소비자의 동참 없는 농협들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UR의 극복대안으로 삼겠다고, 농산물의 가공 공장들을 텅달아 설립하고 있지만, 자금난으로 공장 준공도 하기 전에 경매 처분을 하거나 경영난에 허덕임으로써 뒤이은 신규 설립계획을 백지화하는 해프닝을 연출하고 있다.

그러나 한살림 형태의 시민 참여로 소비가 미리 약속된 농민들의 모든 농산물은 그 나름의 어려움이 없지않지만, 적어도 그 같은 파동과 낭비의 단계는 이미 넘어서고 있다. 그런데도 시민 모금으로 사는 두레농지를 합법적으로 귀속시키고, 거기서 시민과 농민이 함께 지은 농산물을 자주관리적으로 자유롭게 가공해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도농공동체적 영농조합법인 법 개정 호소가 몽유병자의 잠꼬대인가?

쌀까지 포함한 농축수산물의 전면 개방이 피할 수 없는 물결이라면, 농촌 초토화와 그로 인한 민족생명문제에 대한 무슨 대안이라도 세워두고 개방이란 말을 입에 올려야 한다. 아쉬운 대로 한살림에 참여한 농민과 도시 소비자들만큼의 공동체적 신명이라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지금 상태의 수동적 개방은 공업 수출, 선진국화와 세계화란 허상 아래 돈 벌 사람이야 따로 있겠지만, 그러나 민족 생명의 마지막 동질성마저 포기하는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과오를 기록할 것이다.

이번 한살림 농정토론회 때도 우리가 바란 참가 범위는 실무국장 한 사람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농수산부 장관과 국회 농수산위원 전원이었다. 그러나 모처럼 나오기로 약속한 민주당 이길재 의원마저도 토론 중반에 나와 자기 소개만 잠깐 하고 남의 말은 한 마디도 안 듣고 다음 일정을 향해 사라졌던 것이다.

우리 농업의 위기 문제만 해도 발제문에 약술됐듯이 생산과 가공, 제조와 유통

과정에 중첩되는 화학물질의 남용을 누가 부인하고, 따라서 먹을거리의 안전성, 농업의 생명성 위기를 누가 외면할 수 있는가? 지나친 에너지 남용과 토양 파괴를 전제한 공업적 과잉생산과 같은 방식으로 생산된 수입농산물의 개방으로 가세된 농산물의 시장 범람도 제한된 부존자원 탕진만 가속하는 삶의 위기였으면 위기였지 그게 어찌 농업발전인가?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어찌고 하는 맬더스의 인구론을 굳이 반대 토론자가 끌고 오지 않더라도 제한된 토지 자원의 한계를 누구보다 위기적으로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위기 극복의 유일한 전망으로 육량 축소의 공생두레 농업공동체 재건의 법제화를 거듭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더불어 함께 살아남기 위한 공생두레농 공동체의 전망은 지금처럼 모든 생산에 몸으로 직접 참여하지 않거나, 일부 부품생산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어, 결국 생산이란 이름의 생명파괴에 아무도 책임을 안 지고, 오로지 단순한 소비자가 됨으로써 생명의 존귀성, 자연 - 자원의 생명성을 전혀 모르고 파괴만 하는 소비생활양식을 이대로 두고는 전망할 수 없다는 조건을 우리는 언제나 앞세우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의 생명자원 파괴적 소비양식과 모든 삶의 가치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해보는 일과 함께 하지 않는 공생두레 농업공동체 논의는 무의미한 것이다. 이것이 몽유병자의 환상이고 도덕주의자의 이상이라면 내일 너 죽고 나 죽고 모두 죽는 한이 있어도 오늘 왕창 다 써버리자는 당신들은 자식도 없는 당대주의자인가 찰나주의자인가?

과거의 생명자원파괴 양태는 국지적이고 지상적이었기 때문에 이른바 인류문명 발전이란 탈을 쓰고 이나마 지속이 가능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온 주거지와 길은 시멘트, 아스팔트 사막이 돼가고, 우리 밥상 자체인 농토가 화학물질 덩어리로 되었고, 식수는 비료, 농약과 매연 중금속의 비와 폐수로 하수로 부영양 중금속물이 되었고, 하늘에는 수천 개의 인공위성이라는 쇠붙이 파편들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날벼락으로 떠돌고, 바다 밑과 땅 밑이 핵저장과 실험장이 되고, 6천 5백 미터의 심해까지 비닐포장 쓰레기와 핵쓰레기 투기장이 되어 생선 한 마리 마음 놓고 먹을 수 없게 됐고, 심지어 올림픽이 무엇이길래 그것의 자국 유치가 좌절됐다고 핵실험으로 화풀이나 하는 반이성적 광기가 설쳐대고 있다. 오늘의 위기는 이처럼 지상의 농업은 물론 지하와 하늘까지 전 지구적, 전 우주적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농업 위기에 그치지 않고, 조금의 가식도 과장도 아닌 총체파국 그 자체이다.

잠자던 제 3세계까지 도시화와 시장화의 광기에 휩쓸림으로써 우리 시장의 확대 가능성을 낙관하고 즐거워 할 게 아니라 핵 쓰레기와 비닐, 폐수로 끝나버린 황해와 동해를 탄식하고 창공 대신 회색 먼지로 시야를 가로막는 저 하늘을 우러러 통곡할 이이다.

날마다 쏟아지는 일회용 정보로 살찐 간지(奸智)들과 입 속에 밥술이 들어갈 만하게 되니까 제 밥술갈 크기만한 각양각색, 중구난방의 논리들로 오히려 적막 강산이 된 이 시장바닥의 우상과 허위의식을 걷어내고 참다운 중지를 이끌어 모을 의인과 진인의 지혜가 아쉬운 세상이다. 온몸 던져 구하던 예언자들에게나 진리를 드러내어 보여주었던 적막한 광야가 그리운 시절이다.

생명운동의 정치기획³²⁾

문순홍³³⁾

한국 환경운동의 발전과정, 그 유형화 및 가치 정향성 등을 연구한 논문³⁴⁾들에 따르면 한국 “환경” 운동은 대략 4단계를 거쳐왔다.

① 1960년대로부터 1970년대 말에 이르는 시기로 피해보상 차원의 주민환경 운동 등장 및 국가 주도 자연보호운동이 공존하던 단계.

② 1978년 한국공해연구소 출범 이후 1987년 6·29선언에 이르는 시기로 주민 환경운동의 전국 확산이 이루어지고 다양한 민간 환경단체들이 태동하던 단계.

③ 1987년 이후 1992년에 이르는 시기로 대중적 환경의식이 확산되고 전문

32) 이 글은 1998년 9월 24일 <회색에서 녹색으로>란 주제로 열린 전국 환경활동가 워크숍 <마당을 떠는 대화>에서 발표된 원고임.

33) 약력: 성균관 대학교 정치학 박사. 경희대학교 국민대학교 홍익대학교 등에서 강의. 생태사회연구소 소장 역임. 독일 베를린대학교와 문헌대학교 방문학자, 호주 멜번대학교 박사이후 과정 연구. 현 이화여대 대학원 여성학과 post-doc 연구, 여성환경연대 조사연구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환경운동연합 21세기 위원회 운영위원. 계간 『환경과 생명』 편집위원. 저서론 『생태위기와 녹색의 대안』,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한 생태전략』(편역), 『사회생태론의 철학』(역), 『정치의재발견』(역), 『생태학의 담론』(역)이 있다.

34) 한국환경운동의 전개과정에 대한 연구논문으로는 최경애, 『한국 전문 환경단체들의 가치 지향과 그 요인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 논문(1992); 정수복, “환경과 사회: 환경운동과 환경정책”, 이필렬 외 6인 공저 『교양환경론』(따님: 1995)를 참조하고, 환경운동을 유형화하려는 시도로는 이시재, “환경문제, 환경운동 그리고 민주주의”, 공간환경연구회, 『한국공간 환경의 재인식』(한울: 1992); 이상현, “한국 환경운동의 이데올로기와 주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 환경대학원 석사논문(1993); 구도완, “한국 환경운동의 이데올로기 지형”, 문화와 사회연구회 편, 『현대와 탈현대』(사회문화연구소: 1993)를 참조하라.

환경운동단체들이 양적으로 폭발하였으며 비환경운동 단체, 즉 시민운동·여성운동·소비자운동 단체들이 환경운동에 적극 개입하던 단계.

④ 1992년 이후 오늘에 이르는 시기로 전문 환경운동 단체들이 조직을 전국화하고 국가와 기업의 적극적 환경 개입이 표면화되며 나아가 환경운동 영역이 다양화되는 단계.

이러한 단계화에 연이어 1995년은 한국 환경운동에 또 다시 하나의 획을 긋는 시점이다. 왜냐하면 6·27 지방선거 국면을 배경으로 하여 후보를 내는 등 환경운동 단체들의 정치화 시도는 이 단체들이 새로운 전환기에 도달해 있다는 자체 판단에 근거하기 때문이다.³⁵⁾ 이렇게 환경운동이 어떤 식으로든지 정치에 개입하고자 한 것은 그 자체가 자신의 현 외피를 벗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러한 정치화 시도는 환경운동이 협의적 의미인 환경오염 정화 및 환경 자정 능력을 회복하기 위한 고발·감시운동으로부터 이른바 새로운 생태 친화적 대안사회운동으로 나아가감을 그 이면에 깔기 때문이다. 이 새로운 대안 사회운동은 환경문제를 다루면서 얻게 된 이념적 사유를 바탕으로 한다. 이 사유의 획득은 실천으로서의 현실에의 직간접적 관여 가운데 얻어지는 것이고, 현실에의 관여는 외국 논의의 한국적 적용이 지닌 한계를 느끼게 하고 이로부터 나름의 새로운 이론이나 모델을 개발토록 한다. 이로부터 환경문제를 다루면서 얻게 된 우리 논의의 한 가능성으로 생명론에 대한 의미부여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필요한 것이다.

1. 한국 생명운동의 등장 및 정의

원시적 형태이지만, 한국환경운동의 이념화 경향(환경운동의 녹색·생명운동으로의 전환과정)은 1987년경 등장한다. 이 시기는 6·29 선언으로 정치적 억압이 약화되고 정치민주화가 가시적으로 인정되는 상황이었으며, 이로부터 민간환경운동 단체들의 양적 폭발과 관심의 다변화가 나타났던 시기였다. 현재 환경운동 이념으로서의 ‘생명론’은 장일순, 김지하, 장희익, 김종철 등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유아적 이념인 생명론은 1980년 김지하의 크라이슬러 인권상 수상식 답사로부터 그 맹아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러던 것이 1989년 이전까지는 개인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가 『한살림선언』³⁶⁾을 전후하여 집단적 이념으로 공식

35) 김소희, 「전환기 환경운동의 좌표와 모색」, 『환경운동』, 1995년 4월

36) 이 선언문은 한살림운동의 이념과 실천방향을 확립하기 위하여 가진 공부모임과 토론회에서

전환하였다. 이렇게 시작한 생명운동은 1995년에 이르기까지 그 개념 정의와 운동영역을 확장시켜 왔다.

현재 생명운동의 특성은 죽음의 세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존의 환경운동과 시민사회운동이 다루고자 한 의제들과 이를 실행에 옮긴 운동방식 모두를 아우르면서, 동시에 그 결합을 보완하는 데 있다. 이로써 생명운동은 환경운동이 ‘환경 오염 문제’ 수준으로 협소화시킨 주제를 사회적 문제들로 확산시키고 시민사회운동단체들이 놓쳐버린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생명운동은 이로부터 생명 이길 거부하고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기계사회를 생명 지향적 사회로 재건하고자 한다. 그래서 생명운동은 역사 사회적 조건을 고려하여 사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개량주의 운동과 원칙주의적 유토피아 운동 사이에 ‘기우뚱한 균형’을 유지하며 전개되는 운동이라 할 수 있다.

2. 생명론의 논의구조

서구 생태론자들의 논의구조는 1960년대 이후 두드러진 보편성과 일상성을 지닌 위기적 징후군, 위기 원인에 대한 진단 및 현실비판, 위기극복의 논리, 이의 사회적 확장으로서의 실천 주체 및 실천 공간, 그리고 대안사회론(정치론, 경제론, 과학기술론 그리고 남북관계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명론은 아직 이런 정도의 치밀한 논의 구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여기에서는 생명론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위기론, 생명에 대한 실재론 그리고 극복의 논리로서의 생명인식을 다루어 보고자 한다. 사실 이 논의들은 서구 생태론들 중 근본생태론(deep ecology)에서 가장 강점으로 자리잡고 있는 부분이다.

1) 위기론

대부분의 서구 생태론이 그러하듯이 생명론도 1970·80년대 한국 사회의 지배적 ‘사회문제’와는 다른 형태의 문제들, 즉 이른바 위기 징후군에 대한 ‘체험’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이 위기 징후군은 초기엔 핵 위협과 공포, 경제의 구조적 모순과 악순환, 중앙 집권화된 기술관료체제에 의한 통제와 지배 등을 지적하였

함의된 내용을 장일순, 박재일, 최혜성, 김지하가 정리하고, 최혜성이 대표 집필하였다.

으나 이후 점차 지준과 사건, 성수대교 붕괴, 대구지하철 폭발사고, 삼풍백화점 사태 등 생명이 경시되는 사회풍토, 지방 생명과정의 파괴로 인한 노동소외, 토지소외, 신용소외를 거론하고 있다. 이 징후군들은 생명의 위기를 알리는 것이다.

생명론은 이러한 생명위기의 원인이 현 문명과 이 문명을 뒷받침하고 있는 패러다임에 있다³⁷⁾고 본다. 그러므로 생명위기의 실질적인 내용은 현 문명의 위기이고, 죽임을 자연화한 패러다임의 위기이고, 그 해결방안은 문명의 교체와 패러다임의 교체이다.

대체해야 할 문명으로 생명론이 파악한 “현재의 문명은 생명소외의 체제이고, 본질적으로는 반인간적·반생태적·반생명적) 문명”, 즉 죽임의 문명이다. 이 죽임의 문명은 우주, 지구, 생태계, 지방, 인간으로 이어지는 생명과정을 해체시키고, 이로부터 이들의 생명가치를 말살시키는 것을 속성으로 갖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해체와 말살은 현 문명을 속성시켜 온 세 가지 하위과정에 의해 진행되어 왔다. 이 하위과정이란 “(과학)기술과 기계로 인간과 자연을 통제·지배하는 과학기술 발달과정”, “국민경제의 공권력 확장”과 그리고 “국민경제학에 입각한 산업화과정”을 의미한다. 이 과정은 이른바 경제가치의 전사회적 확산을 가속화시켰고 결과적으로 생명가치를 말살시켜,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본성, 즉 참된 자기로부터 소외되도록 하였으며, 공동체를 상실케 하였고, ‘이웃사람’으로부터 고립케 하였으며, 그 생존의 모태인 자연에서 단절토록 하였다.

이 생명과정의 파괴와 생명가치의 말살로서의 위기는 사회, 경제, 정치의 영역, 전 지구적 생태계 영역뿐만 아니라 개인의 일상생활 영역에까지도 침투되어 있다. 그래서 이 위기 징후군을 토대로 현재의 문명이 전환 또는 “개벽”해야 할 시점에 도달해 있는 것으로 진단한다.

그러면 위기가 기회를 의미하듯이, 어떻게 이러한 생명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생명론이 택한 극복의 논리는 이러한 죽임의 문명과 패러다임을 “살림의 문명과 생명의 세계관”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서 핵심개념인 살림과 생명은 1990년 김지하의 「개벽과 생명운동」이 발표되던 당시까지는 모호하지만, “자라는 것”, 부분의 유기적 전체, 유연한 질서, 자율적으로 진화하는 것, 개방된 체계, 순환적이고 되먹임 고리에 따라 활동하는 것, 정신 등으로 표현되었고, 이후엔 “아니다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가 반복되는 원리(그레고리 베이트슨)”, “불연기

37) 『한살림 선언』 및 김지하, 『생명』, 솔출판사, 1992

연(不然基然)의 원리(수운 최제우)” 등으로 지칭되고 있다.

2) 새로운 실재관: 생명관

생명론의 생명개념은 사실 서구의 생태론자들이 풀려고 했던 인간과 자연 간 대립·갈등을 넘어 양자간 합일·조화의 세계를 칭하는 개념이다. 생명이란 개념을 선택한 근거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서구 생태론을 구성하는 유파들이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매개(정신, 물질, 에너지)로 상호연결되어 있다는 주장 그리고 자연과 인간을 아우르는 세계가 생성하고 있는 존재라는 주장에서는 합의점에 도달해 있는데, 대대적(對對的) 의미를 가지고 현재 사용되는 자연이란 용어를 대대적 관계를 넘어선 세계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 둘째, 서구 개념의 번역에 해당하는 ‘환경’ 개념은 이미 대대적 관계를 전제로 한 개념적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는 서구에서 이를 대체했던 “생태” 개념이 한국사회에 주는 생소함이다. 그래서 생명론은 초기엔 인간과 자연 모두를 칭하는 개념으로 생태와 생명을 혼용하여 사용하다가 1994년 후반경부터 생명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다.

생명은, 동어반복적이지만 이로 지칭하는 대상, 즉 ‘살아 움직임’이 실험과 관찰 등 경험적 방법에 의존하는 자연과학적 사실 검증으로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그 인식에서 대상이 될 수 있는 측면과 인식이 될 수 없는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랫동안 생명철학과 생태윤리학을 논의해온 진교훈 교수는 “역사 이래 생명의 본질에 대한 정의는 필연적으로 철학적이거나 종교적인 전제에 기반하던가”³⁸⁾ 아니면 “생명이란 개념이 생물과 무생물을 구분하여 주는 개념”이므로 생물들의 살아 있는 현상(생명현상)의 특징들을 일반화한 것으로 대체하여 사용해 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생명론에서도 생명에 대한 논의는 생명현상에 대한 기술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생명현상은 네 가지 특성을 가진다.

(1) 영성

38) 진교훈, 「철학에서 본 생명」, 생명문화연구소 제1회 세미나 자료집, 1992

생명론에서 생명현상은 여러 가지로 지칭되지만 그 무엇보다도 논의의 중심은 영성에 있다. 영성은 거칠게 표현하자면, 생성하는 자연의 특성을 지칭하는 것인데, 이 영성에 대한 지적은 서구 생태론 특히 근본생태론과 사회생태론에서도 주요한 의미와 위치를 차지한다. 이들이 사용하는 영성 개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그 한 의미는 인간을 포함한 자연계의 전일적 구조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이 전일적 구조에서 창발한다고 보는 인간 정신과 같은 기운(지구의 마음, 예지)을 의미한다. 1

생명론에서 거론되는 생명현상 중 하나인 영성은 장회익, 슈뢰딩거 그리고 김지하의 논의에서 그 전모를 찾아낼 수 있다. 이 세 사람은 모두 생명의 핵심을 영성에서 찾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이 영성은 개체 생명 차원에선 곧 앎을 속성으로 하는데, 이 앎은 유전정보를 최소한의 형태로 가지고 이를 저장·관독·현실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가운데 형성될 수 있다. 그래서 생명의 핵으로서의 영성은 최소 의미로서의 정신현상을 지칭하고, 이 최소 의미로서의 정신현상은 다양한 단위 생명체가 자신이 속한 세계와 정보를 교환하는 성질을 총칭한다. 이렇게 볼 때 영성은 자체 내부에 처음부터 상합성(相合性, 물질과 반물질, 정보자와 보작용자의 상호결합 성질)을 두 번째 속성으로 갖게 되는데, 이러한 상합성은 지구에 국한된 생태계든, 우주적으로 확장된 우주계든 이계들이 보여주는 현상이다. 개체와 개체 또는 개체와 집단(공동체, 사회, 국가) 간의 관계에서 영성은 이제 협동 현상, 즉 자기복제 및 증식현상으로 나타난다. 생명체 본연의 현상인 생성·변화는 이 자기 증식현상과 개체생명과 보생명이란 상생·상극적 협동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이것이 영성의 세 번째 특성이다.

(2) 관계성, 다양성, 순환성

이외에도 생명현상은 다른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미 지적하였듯이 이 생명현상이란 영성이 살아 있음의 과정에서 발현된 것이다. 영성의 확산-수렴적 응축이 발현된 구체적인 것으로 생명론이 거론하는 것은 관계성, 순환성, 그리고 다양성이다. 이 특성들은 서구 생태론에서 대안사회의 몇 가지 조건을 선택할 때 거론하는 특징이기도 한다. 이 특징들은 모두 안정적 생태계를 연구 해석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속성들이다. 이 세 가지 특성은 개체 생명 틀이 만들어내는 세계 전체에 초점을 둔 특성이라면, 영성은 생명체 한 단위의 확산-수렴적 속성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3) 생명인식과 실천

이제까지 논의한 생명으로서의 세계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생명론에서 기술하고 있는 생명으로서의 세계 인식 방법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① 생명인식의 출발점은 다양하다. 개개인은 각각의 역사·사회적 조건과 개인적 조건에 입각하여 또한 실천적 삶을 통해 생명에 대해 알 수 있다. 그래서 생명에 대한 인식은 그 출발점이 개개인이 놓여져 있는 상황성과 현장성에 있으며, 그 출발점은 다양할 수밖에 없다.

② 그런데 이러한 생명에 대한 인식은 생명 자체의 속성 때문에 실험과 관찰 등에 의거한 자연과학적·도구적 이성애 근거한 합리적 사고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 “추측, 내관 및 집중”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③ 이러한 생명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손쉬운 것이다. 왜냐하면 인식하고자 하는 자가 생명이라면 생명의 본성으로서의 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생명인식이 사실상 쉽지 않은 것은 바로 이 개체생명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가 생명과정의 단절과 생명현상의 고갈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④ 그래서 이제 생명인식에 대한 노력은 죽은 세상에 대한 인식으로 나아간다. 이러한 인식은 나 자신의 생명회복이란 의미에서의 실천으로부터 사회적 생명회복의 길을 열게 한다

(4) 생명가치의 회복

왜 이러한 생명과정이 깨지고 생명현상이 사라졌는가?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쉬운 생명인식을 그 동안 하지 못하였는가? 이에 대한 답으로 생명론이 택한 것은 경제가치의 확산과 생명가치 경시를 들고 있다. 따라서 생명론이 택하는 해결 방안은 생명가치의 회복에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생명가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생명가치는 위에서 거론한 네 가지 생명현상이 온존되는 과정에 내재하고 또한 이로부터 발생하는 가치를 칭한다. 이는 현 세계에서 자연이나 인간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도구적 가치 이외에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이다. 그래서 생명가치에 대한 존중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일차적 조건으로 하고, 이로부터 사물들이 자신의 본래적 가치를 발현하도록 “제자리 있게끔 하는” 것을 의미한다.

생명론에서 이러한 생명가치에 대한 주장은 경제가치를 견제하기 위한 또 하나의 극으로서의 비경제가치를 상징하는 것이다. 경제가치를 표현하는 정확한 정의를 찾아보기 힘들다 아마도 화폐적 양을 측정도구로 하여 많고 적음에서 좋고 나쁨을 추구하는 가치, 그리고 목적을 위한 도구로서의 의미가 있을 때 발생하는 가치를 칭하는 것 같다. 그러나 생명가치는 이미 지적하였듯이 살아있음을 존중하고, ‘살아 있는 것’을 ‘살아 있도록 하고’, ‘제 자리에 있게끔 하는’ 행위를 생명과정의 네 가지 현상 유지와 관련하여 “좋은 행위”로 정당화해 주는 기준이다. 그래서 생명가치는 순환적 과정, 다양성, 관계망을 고려하여 행동의 기준을 제공해 주는 기준이다. 생명가치는 단선적이지 못하고 항상 관계망 속에서 드러난다. 경제가치는 ‘화폐’라는 양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과정으로서의 시간 개입을 거부한다. 따라서 경제가치는 시간의 변화와 무관하게 그 측정치가 동일하다. 동시에 경제가치를 추구하는 행위는 짧은 시간에 사고한다. 그러나 생명가치는 시간을 기다리길 요구한다. 생명가치에 의거한 인간행동은 순환의 완결고리, 그리고 다양한 관계를 파악하여야 하므로 긴 호흡을 요구한다.

이러한 생명가치에 대한 존중은 서구의 생태론에서 생태위기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경제 합리성의 전 사회 영역으로의 확산 및 이에 대한 억제제로서의 생태합리성의 배양에 대한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3. 생명운동의 전략적 범역

이제 생명운동의 구체적 형태로 들어가지 이전에 생명운동의 적소(適所)와 그 논의의 독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그 비교의 준거점으로 서구 녹색운동을 먼저 살펴보고자 하자.

1) 서구 녹색운동의 전략적 범역

서구에서 녹색운동은 생태환경운동, 여성운동, 인권운동 그리고 대안운동을 주요 구성부분으로 하고, 이들 운동의 정치화를 압축해 놓은 용어이다.³⁹⁾ 그래서 녹색이란 “보편적 인류 위기로서의 생태위기를 인지한 주민 또는 사회시민단체들

39) 서구 녹색운동에 대한 정의, 구성, 운동 그리고 추구하는 이념에 대해선 줄저 『생태 위기와 녹색의 대안』, 나라사랑, 1992, 5장 1절을 참조하라.

의 정치적 표현”이다. 이를 부연 설명하면, 녹색운동은 생태 위기를 인지한 민중들이 중심이 된 집단적 행위의 공동체적 표현으로 문제의 원인을 기존의 사회구조·이론·세계관에서 찾고, 이것들의 근본적인 변화를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서부터 기존 제도 정치권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추구하는 운동을 의미한다. 그래서 정치화된 생태·환경운동의 표현인 녹색운동은 구체적 일상생활의 주제를 공동으로 다루려는 생활정치로서의 표현태와 이를 억압하는 사회를 변혁하려는 해방정치로서의 표현태 모두를 가지고 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발전해 온 서구 생태론은 현실에 상응적으로 작용하면서 발전한 현실적 합적 이론 추구의 전형을 보여 주었다. 이들의 분화는 사실 해결을 위한 시도들이 봉착한 현실적 장벽들을 넘고자 했던 몸부림이었고, 그래서 각각의 논의들은 나름대로의 해결을 위한 운동공간을 열어놓고 있다. 이를 표로 그려보면 <표1>과 같다. 이 표에서는 이른바 환경문제의 해결에 초점을 둔 운동의 범역만을 제시하였다. 특히 도표 중 정치적 표현태로서의 녹색운동의 적소는 대안운동 영역에 있다.

<표1> 서구 녹색운동의 전략적 범역

공간	운 동
시민 사회 공간	국가와 경제 밖의 시민사회(지역주민사회)에서 공적 공간을 회복하고 활성화하는 운동, 예를 들면 쓰레기 줄이기 운동, 에너지·자원절약운동, 대중교통수단 활용운동, 반전·반핵운동, 생태계보전운동(자연보호운동), 시민환경 감시운동, 지역적 특수성을 기반으로 하는 운동(특정 지역의 쓰레기 매립장 건설 반대운동, 낙동강사태·폐놀 사태 등으로 인한 주민운동, 소각장 건설반대운동 등).
	대안운동: 새로운 공동체 건설운동, 시민의회(포럼) 구성 운동, 준국가적 의사결정 메커니즘 건설운동
경제 공간	기업가 운동, 경제활동의 목적을 새로운 이윤창출에 두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필요한 친생태적 물품들의 생산과 공급에 두는 기업가들의 생산행위를 지칭.
	노동자 운동: 기존 노동조직을 활용하여 노동조합의 단체 교섭 및 협상의 대상에 환경이슈를 집어넣는 운동, 예로, 산재문제, 작업장 환경개선문제, 시민운동단체와 연대한 산업체 환경감사운동 등.
	농민운동: 기존의 농업적 생산행위가 소득에 초점을 두었다면, 친생태적 농민들의 운동은 땅과 수확물의 건강상태에 일차적 초점을 두는 운동으로 이윤(소득)은 부수적으로 뒤따르는 영농행위: 유기농 운동
국가 공간	대안운동: 새로운 정당구성 운동 및 민초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당내민주화 운동
	입법부: 녹색의원
국가 공간	행정부: 결정권 및 집행권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행정부에서 시민으로 이양하고 최소한 환경유관적 정부부처간 연대회의체를 마련하는 것. 예로 시민들의 환경·기술 사전평가권,

	시민환경정책포럼의 구성과 정책반영에 대한 제도화 등.
	대안운동: 새로운 정당구성 운동 및 민초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당내민주화 운동
사회 국가 접면	전문환경운동단체들을 중심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운동. 선거시 친환경적 입후보자를 추천하거나 지지하는 운동, 비선거시 정당과 의원의 환경활동 점수를 매기는 행위. 대안운동: 시민포럼을 구성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토록 비국가적 결정 메카니즘을 상설화하는 것
사회 경제 접면	녹색소비운동: 이 접면은 주로 소비의 통제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따라서 친환경적 상품은 구매하고 반환경적 상품은 불매하는 녹색소비자운동은 경제를 친환경적으로 유통할 수 있다. 재활용운동: 절약 및 유통과정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퇴비화운동 대안운동: 대안적 생산방식과 유통개선에 초점을 둔 새로운 상품교환관계를 취하고자 하는 생협운동이 있다.
국가 경제 접면	환경정책으로 경제도구를 활용하는 방안 국가에 의한 친 생태적 재구조화 방안

2) 생명운동의 전략적 범역

현재 생명운동은 세 가지 개념, 즉 살림운동(영성 회복 운동), 생활운동(생활공동체운동), 패러다임 변형으로서의 혁명적 후천개벽 운동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생명운동의 영역들은 서구의 녹색운동의 경우처럼 사회구조에 대한 분석과 현실적 좌절로부터 운동적 분화가 이루어지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기본속성 중 하나인 관계성의 확장, 즉 인간 내부 → 인간과 인간 간 → 인간과 자연(우주) 간 관계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분화된 것이다. 따라서 이 확장이 일직선적으로 시간적 순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편의상 생명운동을 이 관계의 출발점으로부터 접근해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살림운동으로서의 생명운동은 자신의 운동에 대한 시대적·사회적 요구를 인간과 자연이 인위적 죽임을 당하는 현실에서 찾기 때문에 자신을 죽임의 상태에서 살림의 상태로 바꾼다는 것, 즉 개인의 성화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 개인의 성화란 생명가치의 체득을 의미한다. 이러한 체득방법으로 생명론은 “진정한 자기 근원으로 복귀하는 것”, “참된 개성화 과정”, 또는 “소아 속에 대아를 실현하는 과정”을 지적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길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지적은 아직 구체적이지도 명료하지도 않지만, 대략 서구의 근본생태론자들이 거론하고 있는 영적 자각, 즉 자아실현을 목표로 제시한 T형 생태철학(생태지혜에

도달하기 위한 명상방법)⁴⁰⁾과 흡사한 것 같다.

두 번째, 생활운동으로서의 생명운동은 가장 손쉬운 출발점으로 생활이 이루어지는 영역을 주목하고 구체적 생활 속에서 우주적 연관을 체화하는 과정에 초점을 둔다는 의미에서 현장성에 기반한 운동(日用行事之道에 따른 운동)이다. 그래서 생활운동은 인간의 사회적 성화운동 그리고 시장의 성화운동을 구성영역으로 한다.

인간의 사회적 성화란 ‘나’ 중심주의,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고 공동체적으로 생각하고 생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생활공동체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지역 생활공동체 건설운동은 타면에서 시장의 성화를 내용으로 한다. 시장의 성화란 지역 경제적 삶 속에서 상품화된 신용관계, 노동관계, 그리고 토지관계에 생명가치를 회복시켜주는 것이다. 이러한 생명가치의 회복은 지역 신용을 창출하고, 인간 노동이 자기 실현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자연과의 관계 역시 사유(私有)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토지이용권만은 지역 주민의 공동관리 하에 둬으로써 가능해진다.

세 번째, 후천개벽 운동으로서의 생명운동은 궁극적으로 우주 중생의 성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 그래서 죽임을 강요하는 사회(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를 극복의 대상으로 설정한다. 이런 의미에서 생명운동이 표방하는 후천개벽 운동은 지배적인 사회적 세계관, 과학적 패러다임 그리고 지배적 생활양식을 포괄한 문화 변혁운동을 주된 영역으로 삼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생명운동에 대한 정의를 운동공간과 운동 유형별로 검토해 보면 <표2>와 같다.

<표2> 한국 생명운동의 전략적 범역들

운동공간	운동 유형
인간 내부	근원회복운동(자아 회복운동)
	주체성 회복운동(자기성화운동):개인적 정체성 회복운동
인간간 관계	일용지행자시도에 따른 생활실천운동
	생활공동체 회복 및 건설을 위한 인간의 성화운동
	지역의 생명가치 회복운동(시장의 성화운동)
후천개벽 운동	패러다임 변형을 위한 문화운동
	사회적 모성을 키우기 위한 여성운동

40) 문순홍, 「환경문제와 생태사상」, 『교양환경론』 참조.

3) 비교: 생명운동의 적소

한국의 생명운동은 서구의 녹색운동처럼 사회 전역을 운동의 범역으로 하되, 패러다임 변형으로서의 문화운동과 생활양식 변화로서의 문화운동에 초점을 둔다. 그런데 이 문화운동이란 것이 이미 정치적이다. 왜냐하면 생태론과 마찬가지로 생명론에서도 정치는 통치가 아니라 공적 실천이고 이 공적 실천은 국가로 국한된 공적 영역이 아닌 시민사회와 지방 주민들의 구체적 삶의 과정 속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생명론은 자기로부터 집단에 이르는, 이른바 ‘성화’를 지향하기 때문에, 정치행위는 공적 영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적인 관심을 공적 관심으로 변형시키는 것조차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 생명정치는 집합적 의미로서의 문화적 속성을 갖게 되고, 이런 정치는 시민사회를 적소로 설정하게 한다.

또한 서구 생태론의 경우 현 생태 위기를 야기한 상당 원인을 구 경제질서에서 찾고 이에 대한 통제(경제에 대한 내적 통제와 국가의 친생태적·경제적 재구조화 작업) 필요성을 느끼고, 이로부터 국가의 역할에 대한 인정 및 이의 변형에 논의를 할애하고 있는 반면, 생명론은 국가에 대한 반발과 이후 정치 단위에서 직접할 단위적 속성으로 국가가 담당해야 할 역할에 대해 대단히 회의적이다. 그래서 경제에 대한 통제 과제는 시장의 성화 과정에 부여되어 있다. 이 작업 또한 지역 주민들의 몫이다.

4. 생명운동 현황

이러한 생명운동은 농촌운동, 새로운 유통구조 창출운동, 문화운동 그리고 종교운동에서 가장 활발히 전개되어 왔고, 현재 정치운동과 환경운동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1) 생협운동⁴¹⁾

농촌과 유통영역에서 생명운동은 생활협동운동(이하 생협운동 약칭)으로 나타

41) 문순홍, 「한국 생명운동의 이념과 전략적 한계」, 『현상과 인식』, 1992년 가을·겨울호

났다. 처음에 생협운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교환가치 창출에 기생하고 있는 왜곡된 유통 과정을 개선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일대일 관계를 통해 직접적 유통구조를 만들고자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생협운동은 자신의 성공 여부를 생산자 측에서는 유기농업 운동의 확산, 소비자 측에서는 확장된 “환경의식”과 녹색소비운동의 정착에 두고 있다. 그래서 생협운동의 활성화는 일면에서 농촌 살리기 운동의 다양화 및 활성화로, 타면에선 녹색소비운동의 다양화를 동반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생명운동으로서의 생협운동은 이를 통해 기존 시장에서 자행되던 상품의 비인간화, 소비자생산자의 익명화를 통한 시장의 비도덕성을 궁극적으로 극복하고자 한다. 그래서 건강을 불모로 하고 이윤을 목적으로 한 환경 기업주의 행동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2) 생명민회운동⁴²⁾

생명운동의 정치적 형식은 생명민회운동으로 나타났다. 생명민회운동은 지역을 되살리기 위해 민초들이 결집한 시민의회 건설운동을 의미한다.

생명민회운동은 두 축을 가지고 있다. 그 한 축은 생명정치의 회복이고, 다른 한 축은 생활정치의 추구이다. 원래 정치적 현상이란 공동체적 결정이 이루어지는 현상이다. 공동체적 의견교환 및 결정과정은 다양한 순환적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현재 정치는 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다양한 순환적 흐름들이 국민국가의 행정권 비대화와 공권력 강화 그리고 경제와 정치의 유착 등으로 인해 끊겨진 지 오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명과정으로서의 정치 회복은 이러한 순환적 흐름들을 살려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 순환과정에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간의 순환과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순환,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 간의 순환, 개개 정당 내 정당관료와 정당원 간의 의견순환, 정당과 지역민 간의 의견교환, 그리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주민사회) 간의 의견수렴 과정, 시민사회 자체 내의 의견순환 과정이 포함된다. 이러한 흐름의 회복은 제도적 틀로 주어진 정치영역을 뛰어 넘어 삶의 구성방식 그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을 지향한다. 그 변화란, 첫째 삶의 자기정체성을 회복해내는 것을 지향하고, 둘째 비판과 요구의 능력을 복구하고자 하며, 셋째 대화와 합의도출 능력을 배양

42) 문순홍, 「6·27지방선거와 생명민회운동」, 『녹색평론』, 1995년 통권22호

하고, 넷째 이로부터 삶의 세계에 대해 행해온 체제적 전횡에 한계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 우리들이 목도하는 정치에서의 생명성 상실은 이러한 것들이 총체적으로 결여됨으로써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생명민회운동은 생명정치 운동이다.

그리고 생활정치 추구로서의 생명민회 운동은 궁극적으로 지방적 삶의 재건을 지향한다. 그이유는 주체로 태어난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결정성을 회복하는 영역은 구체적 삶

이 영위되는 지역적 삶의 현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한번도 지역주민들은 주인이 된 적이 없다. 그래서 지역정치는 항상 중앙정치의 시녀였고, 경제는 항상 대기업의 방계적 하청 수준에 머무르며, 이로 인해 벌어들인 소득은 중앙의 모기업과 중앙은행으로 흘러 들어가고, 지역의 토지는 지역주민보다는 외지 서울인들에 의해 소유되어 있으며, 지역문화는 중앙의 문화로 획일화되어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적 삶의 재건은 삶의 주체로서 지역주민들을 세우는 지역정치의 회복, 중앙경제와 대기업의 경제활동 확장으로 피해를진 지역경제의 회생과 지역중소기업 육성, 무분별한 지역개발 및 수탈로 파괴된 지역자연의 회복 및 보전,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해 유동성과 이질성이 강화되고 이로부터 지역자치를 가능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손실된 지역정체성·지역공동체성·지역문화의 회복에 성패가 달려 있다. 그래서 생명민회 운동은 생활정치의 회복을 내용으로 해야 한다.

생명민회 운동에는 김지하, 배달녹색연합, 부천YMCA, 한국불교환경교육원(당시 한국불교사회교육원), 생태사회연구소, 크리스찬아카데미, 그리고 환경운동연합, 여성민우회, 대한 YMCA, 서울YMCA, 평화교육원, 지방자치연구소 등이 참여하고 있다.

3) 생명문화운동

또한 생명운동의 문화적 형태도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있다. 그 한 축은 미시적 수준에서의 생활양식변화 운동이고, 다른 한 축은 거시적 수준에서의 패러다임 변형 운동이다. 특히 전 자가 생협운동으로 표현되었다면, 후자는 생명의 세계관을 이론적으로 구체화하고 이를 대중적 차원으로 확산시키는 운동으로 표현될 수 있다. 전자는 대중매체운동을 지향하고, 후자는 이를 이론적으로 심화하고 구체

화된 사회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녹색평론, 생명문화연구소 등의 활동이 속한다.

이외에도 생명운동은 현재 자신의 변형태로 생명으로서의 환경운동, 생명으로서의 여성운동, 그리고 생명으로서의 자치운동(생명민회운동)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생명운동은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 여성과 남성 간 왜곡된 관계를 회복하고자 한다.

4) 종교단체의 환경운동⁴³⁾

한국에서 종교단체들이 환경운동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던 시기는 1990년을 넘어서면서부터였으나, 이들 종교단체들이 새로운 차원에서 환경운동을 시작해야 함을 느끼고 이를 실천에 옮긴 것은 1993년 <환경윤리 종교인 선언대회>를 준비하면서였다. 이 환경윤리 선언문 채택은 이후 종교인들이 환경문제를 보다 근원적으로 생각하도록 하였다. 이후 이러한 근원적 접근은 <생명운동과 환경윤리>(1994년 7월 1주년 기념행사)를 주제로 한 각 종단 관계자 및 기타 환경관련 전문가·활동가들 간 대화모임으로 표출하였다.

종교 환경운동 단체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들 종교단체들은 주로 친 환경적 행동의 전제조건인 환경의식 계몽운동(교육사업 및 홍보사업), 그리고 이를 일상적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생활환경운동에 특화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생명윤리의 회복을 지향한다.

43) 문순홍, 「생태윤리와 한국 종교단체들의 환경운동」, 『현상과 인식』, 1994년 겨울

생태위기의 대안으로서의 농(農)

- 생태적 농업觀 의 회복을 위해 -

이병철

환경생태계와 식량의 위기는 인류가 지속적으로 생존하는 데 가장 절박한 문제임이 보다 명확해졌다. 갈수록 더욱 심화되고 있는 전 지구적 차원의 생태계의 위기는 이제 단순한 위기 차원을 넘어 인류의 생존 자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생태 위기의 원인은 반자연적인 산업문명의 한계에서 비롯된 데 있음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 되었다.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에 의해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고 유한한 자원을 고갈시키는 공업적 산업문명 체제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한계상황에 이르고 만 것이다. 인간의 무한한 욕망이 낳은 오염과 낭비를 지구 생태계가 도저히 감당해 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제조제가 풀을 죽이는 것은 그것이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식물의 능력이상으로 그 식물이 빠르게 성장하도록 하는 호르몬이 있기 때문이다. 문자 그대로 이것은 죽음에 이르는 성장이다. 그런데 산업사회 역시 지금 문자 그대로 죽음에 이르는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는 폴 호큰의 진단처럼 우리는 이미 성장의 한계를 넘어섰다. 경제 활동으로 인한 인간의 소비가 이미 자연적 소득을 넘어섰으며 그것은 자연적 자원을 와해시킴과 동시에 진정한 부의 창조를 위한 잠재력마저 파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윌리엄 리스)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태 위기가 인류의 목숨 줄인 식량의 위기로 직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식량 위기는 환경생태위기의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산물이다.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경지감소, 인구의 폭발적 증가, 화학농·약탈용으로 인한 토양 생산력의 상실과 농업생태계의 파괴, 물 자원의 고갈, 그리고 지구 온난화 등 기상이변에 따른 재해의 급증 등은 반자연적인 산업문명으로 인한 생태계 위기가 필연적으로 식량위기로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것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같은 환경생태계 위기, 식량위기 등 인류의 생존위기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분명한 것은 인류의 문명과 삶의 양식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더 이상 지속적인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도래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지금까지 인간과 자연을 별개로 인식하고 자연에 대한 지배와 통제를 확대하는 것이 문명의 진보이며 생산력의 발전이라는 사고방식과 그에 따른 생활양식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다음 세기는 생태주의의 시대가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인류는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한 조너선 포릿의 명쾌한 지적처럼 21세기는 생태적 가치, 생명가치와 그 문명을 중심으로 한 시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처럼 다음 세기를 환경의 시대라 하고 산업문명의 대안을 생태문명이라고 할 때 자연과 조화되는 지속 가능한 생태문명과 그 삶의 내용은 무엇인가를 살펴보자.

생태위기의 대안으로서의 농의 가치와 의미

새로운 대안 문명으로서 생태문명과 그 사회를 위한 전제는 ‘지속 가능성’에 있다. 자연을 파괴 약탈하고 소모고갈 시키며 오염과 낭비를 구조화하는 산업문명과 그 체제로는 더 이상 지속적인 생존이 불가능하다면 그 대안은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생태문명이란 곧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한 ‘인간과 자연의 조화’와 자연적 ‘생태순환 시스템의 회복’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기본적으로 모든 경제 활동이 자연환경의 수용능력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연 환경의 수용범위 안에서 인간과 자연이 조화하면서 생태순환 시스템의

회복을 통하여 지속적인 생산과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일찍이 빅터 샤우버거가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만이 대지를 기반으로 살아갈 수 있다. 대지의 질서를 어기는 자는 대지 위에서 살아갈 자격이 없다. 인간의 탐욕으로 파괴된 대지에서는 진화된 생명체가 살아갈 자리가 없게 마련이어서 인간은 자신의 기반을 상실하게 된다. 뿌리를 잃은 생명체는 죽을 수밖에 없다. 지금 욕심을 버리고서 다시 처음부터 새롭게 출발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진화와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멸망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한 것처럼 무엇보다 먼저 대지의 질서 곧 자연의 원리를 철저하게 이해하고 이에 따르는 삶의 방식을 기본으로 삼는 일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생태위기의 대안으로서, 새로운 문명의 근거로서 농업과 농적(農的)문명의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과연 농적생산과 생활양식이 생태적 대안이 될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농촌, 농업적 생산과 생활양식의 회복 이야말로 산업문명의 한계로 인한 생태위기에 대한 유일한 실천적 대안이라는 사실이다. 자연과 조화되면서 자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생태순환 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인 생산과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문명과 그 삶의 양식이 농적생산과 그 생활양식 이외에는 없기 때문이다. 농촌, 농업 생태계는 인간과 자연이 공생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농촌·농업은 인류생존의 터전이자 새로운 문명을 잉태하고 있는 어머니인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농적문명이 산업문명의 위기에 대한 생태적 대안이기는 하나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농업적 생산 양식이 바로 그 대안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생태적 대안으로서의 농적문명이란 인간과 자연이 공생조화하는 유기 순환적인 생산양식과 생활방식을 의미하는 것이 지 이미 산업문명 체제에 편입되어 공업화된 농업생산 형태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닌 까닭이다. 지금의 관행화된 농업형태는 자연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생산 형태가 아니라 자연의 일부인 그 본연의 모습을 잃고 오히려 환경생태계를 파괴하는 가해자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농업에 근거한 문명이 생태적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환경가해자로서의 공업적 농업관의 폐해와 한계를 직시하고 땅을 살리고 생명을 가꾸며 자연과 조화되는 유기 순환적인 농업 본래의 모습과 그 가치관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공업적 농업관의 폐해와 한계

현대산업문명의 위기와 현대 농업생산 양식의 위기는 그 드러난 모습과 내용이 동일하다. 그것은 생산력 중심의 공업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자연의 생태순환 시스템의 파괴 위에 성립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제 이런 형태로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화학비료와 제초제, 농약 등 화학물질의 사용을 기본 전제로 하고 단작화, 집약화, 기계화를 통해 대량 생산을 그 목적으로 하는 현대 농업은 그것이 곧 반생태적 산업문명의 농업적 표현에 다름이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현대 산업문명의 위기는 필연적으로 현대농업 곧 공업적 농업의 위기로 결과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공업적 농업생산 양식은 자연의 일부로서 인간과 자연과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통하여 지속적인 생산을 유지해 오던 농업 본래의 형태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생명의 근원이자 그 모태(母胎)인 땅과 자연을 대량 생산을 위한 한갓 대상과 수단으로 전락시켜 땅이 갖고 있는 생명력을 철저히 고갈시키고 이를 통해 자연의 생태순환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파괴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다.

현대 농업이 자랑하는 높은 생산력과 효율성의 실체란 무엇인가. 그것이 가능한 것은 한마디로 생산되는 에너지 보다 투입되는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은 에너지 과소비, 에너지 비효율의 체제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엔트로피 증가를 극대화시켜가는 이런 현대 농업의 한계는 예를 들어 미국의 현대화된 관개농지에서 재배된 시금치 생산의 경우에 비해 그 이웃한 멕시코 등 3세계의 소농에 의한 윤작과 휴경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농업 생산 양식이 무려 50배 이상 에너지 효율성을 가진다는 것에서도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이는 ‘지난 50년간 이루어진 헥타르 당 생산량의 증가는 값비싼 대가를 치른 것이었다. 즉 이산화탄소와 그 밖의 다른 온실가스가 대기 중으로 방출된 문제는 언급하지 않더라도, 토양침식, 지표수 오염, 토양의 염화(鹽化), 유기적 다양성의 감소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라는 지적과 같은 것이다.

이처럼 자연을 인간과 분리하고 대상화하며 대량생산을 위한 수단으로 지배, 착취하는 현대 농업생산 양식은 그 이면에 인간의 무한 탐욕충족을 위한 이원론적, 기계론적, 지배론적 세계관이 뿌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공업적 농업관에

의해 생명의 근원인 땅은 생산을 위한 대상으로, 농업은 상품생산의 방편으로, 농민은 땅과 자연을 약탈하여 상품을 생산하는 수탈자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결과 이제 땅은 생명력을 잃고 죽어가고 있으며 농촌·농업 생태계는 파괴되어 농업 자체의 지속성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다. 농업의 집약화,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의 과잉 투입 등 화학물질에 의존한 농사법, 무분별한 경작권 확대, 집약적 축산확대 등으로 인한 공업적 생산 양식이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의 주요한 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땅위에 사는 모든 생명체는 어머니 땅(대지)의 생산력에 의해 그 생명을 이어간다. 어머니 대지를 벗어나 살 수 있는 생명체는 없다. 그런데 지금 그 어머니인 땅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자리가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땅은 단순한 물질이나 소유의 대상이 아닌 것이며 더욱이 상품생산을 위한 공장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지금 땅이 어떻게 취급되고 있는가.

열린 마음으로 땅이 그 자체로 살아 숨 쉬는 하나의 유기체임을 보고 느낄 수 있었던 알라 쿠드리아 쇼바는 땅을 온통 절이고 있는 화학비료와 땅의 표피를 짓누르는 농기계들 그리고 농부들의 애정 없는 거친 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땅이 괴로워하며 몸을 뒤틀고 있음을 증언하고 있다. 이처럼 땅의 고통과 신음을 느낄 수 있었던 사람이 어디 그녀뿐이었겠는가. 일찌기 해월(海月)선생은 나막신을 벗어 들었고 인디언과 우리 조상 모두 땅이 살아있는 신령한 생명체임을 몸으로 느끼고 살아왔다. 그런데 이제 농업이 단순한 산업으로 전락되어버린 지금 땅에 대한 존경과 경외심은 사라지고 한갓 생산을 위한 대상이나 수단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농업에서는 어머니와도 같은 대지를 창녀처럼 취급하여 무참히 폭행을 저지르고 있다. 1년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대지의 표피를 벗겨 놓고는 그 위로 독약 같은 화학비료를 마구 뿌려대고 있다.... 지금의 땅, 지금의 농토는 더 이상 자연이 아니며 생명도, 생명력도 존재하지 않는 불모지에 불과하다.’ 자연을 철저히 이해하여 자연에 따라 살 것을 일깨웠던 사람, 빅터 샤우버거의 탄식이 있는지 수십 년이 지난 뒤에도 자신의 생존의 근거를 박탈하고 죽음으로 몰아넣는 인간의 탐욕과 무지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땅이 죽으면, 농촌 농업이 죽으면 우리에게 그 어떤 미래도 없음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농심의 회복과 생태적 인간

농적문명과 그 양식이 생태위기의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농업의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확인하고 농업 본래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 그것은 대량생산을 목적으로 생태계를 파괴하는 환경가해자로서의 공업적 농업관을 극복하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되면서 생태순환체제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생산과 생활을 이루어 내는 생태적 농업의 가치와 의미를 재확인하는 일이며 이에 바탕한 문명 양식을 재창조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선 자연에 대한, 생명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회복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인간이 자연과의 유기적 관계를 통해 생명을 이어 가는 농업적 생산양식과 그 생활양식의 중요성과 가치를 분명히 인식하는 일이 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농업적 생산 양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자연인 땅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관계 맺는가의 문제라 할 수 있다. 농업이란 땅을 기반으로 한 인간의 생산 행위라고 정의한다면 땅과 인간의 관계가 핵심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생태농업실현에 있어서도 핵심과제는 당연히 땅과 인간관계를 새롭게 회복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은 땅이 단순히 농업적 생산수단이나 대상 또는 물질적 소유물이 아니라 그 자체로 살아있는 거룩한 생명이며 생산력의 원천으로서 모든 생명 양육의 모태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땅위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이 그 땅에서 생산하는 것에 의지하여 먹고 입고 번식하며 살아가는 자명한 이치에 대한 자각을 바탕으로 우리 또한 대지, 그 땅의 자식임을 겸허히 깨달으며 대지를 어머니로 공경하고 신뢰하는 자세를 회복하는 일이다. 그것은 우리의 건강과 풍요와 지속적인 생존이 더 이상 어머니 땅에 대한 일방적 지배와 착취와 거역으로서가 아니라 대지의 자식으로서 어머니 땅, 그 자연의 이치와 질서를 존중하여 이에 따른 조화와 협력을 통해서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갖는 일이다. 땅을 죽이고 약탈하며 농업생태계를 파괴함으로써 농산물이란 상품을 만들어내는 한갓 생산수단으로 전락한 병든 농민이 아니라, 대지의 자식으로써 겸손함을 잃지 않고 자연의 신비를 경외하며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감사와 공경으로 자연의 풍요에 동참하여 생명을 돌보고 기르는 자, 생명의 양육자로서의 농부로 거듭나는 일이다.

이는 땅에서 생명을 가꾸고 기르는 농부의 마음 곧 농심을 회복하는 일이다.

결국 농심의 회복이 관건인 것이다. 땅의 사람으로서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며 그 신성함을 경외하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공경하고 한 물건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마음, 맨발로 땅을 밟으며 생명을 가꾸고 기르는 그 자체를 기뻐하고 정성으로 일하며 노력한 만큼의 풍요를 위해 기도하고 주어진 결실에 감사하며 이웃과 뜻 생명과 함께 나눌 줄 아는 마음, 그 농심이 곧 땅을 살리고 생태계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근본자리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농심의 회복이야말로 생태위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생태적 농업의 실현을 통해 농적문명을 열어가는 핵심이며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대지의 철학자 루이스 먼포드가 말하는 ‘자연의 가치와 균형을 이룬 인간가치의 부활’이란 바로 이 같은 농심의 회복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새로운 사회는 새로운 인간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생태적 사회를 위해선 먼저 생태적 인간의 탄생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농심의 회복이란 생태적 인간의 기본조건인 것이며 그런 점에서 자연과 조화하면서 땅을 살리는 생태농업을 실천하는 농민이야말로 생태적 인간의 탄생이라 할 수 있다.

땅의 사람인 농부를 다른 말로 색부(穡夫)라고도 한다. 이는 아끼는 사람이란 말이다. 하늘을 섬기고 사람을 다스리는데 있어 아낌보다 더한 것이 없다는 말처럼 그 아낌의 삶을 사는 사람이 곧 농부인 것이다. 자연에 쓰레기가 없는 것은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스스로 버리는 것이 없기 때문이며, 자연의 법도를 사는 성인도 이와 같아 한 물건이라도 버릴 것이 없다는 것처럼 땅의 사람 인 농부 또한 그 검소함과 알뜰함에 있어서 따를 자가 없는 사람인 것이다. 이런 삶의 양식-버림이 없고 낭비가 없고 오염이 없고 모든 것이 재생순환되는 생산과 생활양식이 생태적 문명과 그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그 풍요를 이루는 근본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이제 그 한계에 이른 산업문명과 환경생태계의 위기로 인해 지금까지의 공급위주 사고방식과 대량소비 생활방식의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자연을 배려하는 생산과 소비 방식이란 소비의 절제와 자원의 효율적 이용 곧 절약과 검소를 바탕으로 한 단순소박한 삶과 재생순환적인 생산양식의 채택 뿐이라는 것에서도 분명히 확인되는 것이다.

땅과 노동 그리고 생명의 기술

농심을 회복한 농부의 삶이 생태적 인간의 핵심이라면 생태위기의 대안으로서

생태농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농업은 인간이 자연인 땅과 관계하여 생명을 기르고 가꾸는 것을 통해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먹을거리와 원료를 마련하는 일이다. 그래서 농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생명을 바탕으로 생명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생명산업인 것이다. 시멘트, 아스팔트나 오염된 땅에선 생명이 움터 자랄 수 없듯이 우선 땅이 살아 있어야 하고 그 살아있는 땅에 씨앗을 묻고 싹 틔우며 기르는 생명의 양육을 통해 확대 재생산된 생명들을 다시 인간과 다른 생명의 양식으로 마련하는 이 모든 과정과 그 결과가 전부 생명에 바탕하고 있는 것처럼 생명을 떠나서는 결코 성립될 수 없는 게 농업의 본질인 것이다.

이에 반하여 공업적 생산양식이란 살아있는 자연을 파괴하고 죽이는 가공과정을 통하여 엄청난 자원과 에너지의 낭비와 생태계의 오염과 파괴를 가져올 뿐 아니라 그 결과 인간의 욕망과 편리를 위해 한때 쓰여지다 결국 쓰레기로 폐기되는 것으로서 철저한 파괴와 오염과 낭비에 바탕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농업적 생산 양식이 ‘살림’을 바탕으로 생명의 확대 양육을 통하여 자연의 풍요로움에 동참함으로써 지속성을 실현하는 것임에 비하여 공업적 생산 양식과 그 체계란 본질적으로 ‘죽임’을 바탕으로 유한한 자원과 에너지의 가공을 통해 낭비와 오염을 구조화함으로써 지속성을 불가능하게 하여 필연적으로 붕괴될 수밖에 없는 한정된 양식인 것으로, 농업과 공업은 그 과정에서 결과에 이르기까지 본질적인 차이를 갖고 있음은 분명한 것이다.

따라서 공업화 사회로 표현되는 산업문명의 한계에 대한 생태적 대안으로서 농작문명의 토대인 생태농업이란 철저한 생명의 원리에 바탕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생태농업에 있어서 인간의 노동행위와 생산을 위한 기술도 공업적 생산에 있어서와는 전혀 다른 내용과 의미를 지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농업에서의 노동이란 기본적으로 자연의 생산력을 돕는 산파로서의 행위와 생명을 돌보고 기르는 양육자로서 행위, 그리고 나아가 자신과 세상을 함께 먹여 살리는 생명 제공자로서의 행위를 동시에 수행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연에 동참하는 생명의 일꾼으로서 농부의 노동행위는 바로 자식을 정성껏 돌보는 어머니의 일과 다를 바 없는 것이어서 생명에 대한 사랑과 섬세한 손길과 정성 그리고 기다림을 필요로 한다.

농사일이란 혼자 지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두레나 품앗이로 이웃과 함께, 땅

과 함께 그리고 온 우주 삼라만상과 함께 짓는 일이다. 농촌이 우리의 뿌리이며 그 문화가 우리 존재, 그 정체성의 근거인 것은 이처럼 사람과 사람이,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울려 살아온 삶의 터전이기 때문이다. 씨앗 한 알 속에 온 우주가 들어 있다는 것은 그 한 톨의 생명이 영글기까지 온 우주의 협동이 있었기에 가능한 까닭이다. 이처럼 농업에서의 노동이란 생명의 근원인 자연과 우주와 협동하는 일이며, 자연의 이치와 생명의 신비를 찬양하는 일이며, 춤추는 일이며 그리하여 일과 놀이가, 명상과 노동이, 삶터와 일터가 하나 되어 자신의 존재를 온전하게 실현하는 일이며, 세상을 풍요롭게 창조하는 일이며 더불어 함께 사는 일인 것이다.

농사란 무릇 하늘과 땅이 짓는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참된 생태적 농법도 또한 자연과 우주의 원리에 맞추는 것이 핵심이 된다. 태양과 달과 별자리의 운행에 맞춰 땅을 갈고 씨 뿌리며 거두는 바이오 다이내믹 농업(루돌프 슈타이너), 눈 속에서도 장미꽃을 피우고 비료 없이도 한아름이 넘는 채소들을 생산해내는 기술(핀드혼 공동체), 자연과 작물과의 대화를 통해 생기를 잃은 땅에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일(만물에 말 걸기), 가축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는 축산법(야마기시즘 농법), 자연의 소리로 만든 음악을 통해 생육을 촉진해내며 질병을 치유하는 농사(자연음악) 등 다양한 생명의 농사법들도 역시 하늘과 땅은 물론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 벌레 한마리에 이르기까지 자연의 모든 것들을 의식 있는 신령한 존재로 섬김으로써 가능한 일들이다. 따라서 새로운 문명, 새로운 사회란 바로 이처럼 자연과 우주의 대생명력과 하나 되는 생태농업의 이치 속에서만 지속성과 풍요로움을 실현해갈 수 있을 것이다.

기술이란 노동을 그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방법이다. 인간인 농부가 자연인 땅과 관계하여 작물을 키우고 가꾸는 방법을 농법 또는 농사기술이라 할 때 생태농업에서 요구되는 기술 또한 당연히 생태적 기술, 생명의 기술임은 자명하다.

여기서 굳이 농사방법으로서의 기술을 이야기하는 것은 생태농업에 적용되는 기술이 곧 생태사회를 이루는 기술의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사실 오늘 이처럼 자연이 황폐화되고 생태계가 파괴된 것에는 이 같은 물리적 황폐화와 대규모의 파괴를 가능케 한 인간의 기술이 있었기 때문이다.

생태기술이란 빅터 샤우버거가 말한 바 있는 자연의 원리를 배우고 이에 따르는 기술이다. 그래서 생태 순환시스템을 따르는 생태기술은 지금처럼 파괴 되어

버린 그 체계를 새롭게 복원하는 기술이고 동시에 인간과 자연의 유기적 협력을 이루어 내는 기술이자 관계의 조화를 이루어 내는 기술이다. 따라서 생태기술은 인간의 편리와 욕망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생태적 안정성과 균형을 위한 기술이며, 생산자체를 목적으로 한 기술이 아니라 생명력이 충실한 양육을 위한 기술 곧 접촉과 교섭의 기술, 돌봄과 보살핌의 그 사랑의 기술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처럼 땅의 생명력을 박탈하고 농업생태계를 파괴하며 농산물을 오염시켜 자신과 세상을 병들게 하는 생산성 중심의 반생태적 기술, 그 농법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생태농업과 그 사회를 위한 적정기술을 마련하는 것은 시급한 일이다. 슈마허의 중간 기술이나 마음과 손의 충분한 활용에 바탕한 공예 기술(루이스 멍포드) 등이 생태기술의 중요한 예가 될 것이다.

생태농업에 있어서 이러한 기술문제와 함께 그 기술의 구체적 표현으로서 기계 문제 또한 같은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두말할 것도 없이 생태농업에서 요구되는 기계란 생산성의 효율 중심이 아니라 생태적 안정과 균형을 유지하는 것에 중심을 두지 않으면 안 된다. 토양생태계를 고려하지 않는 기계의 사용이나 에너지 과소비와 환경오염을 고려하지 않는 효율성 중심의 거대 기계 등은 전면 재조정 되어야한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대지와 생명을 유기적으로 이어주는 교각(橋脚)인 땅속 모세관 체계는 철저히 붕괴되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의 무지막지한 기계문명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지적처럼 특히 생명의 땅에 대한 기계사용의 문제는 매우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태농업에 있어서의 기계는 생태적 기술을 실현하는 도구로서, 노동에 대한 사랑이 실현될 수 있는 도구로서의 기계가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유기순환의 농의 시대로

21세기는 농업이 중심이 되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새로운 세기가 생태사회로 되지 않으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생태사회의 중심을 농업적 사회와 그 문명이라고 거듭 강조하는 이유는 생태적인 농업적 생산과 이에 바탕한 삶의 양식만이 인간과 자연의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생존이 가능한 유일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인류의 문명사를 보면 산업문명의 극히 짧은 기간을 제외하면 그 대부분이 자

연과 이에 바탕한 농업적 생산양식에 의해 그 생존과 문명을 이루어 온 것이었다. 곧 인류의 문명사, 그 흥망사는 땅의 생명력에 의해 좌우되어온 것이다. 우리 모두는 땅에 의해 생명을 유지해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까닭이다.

생명은 먹을거리에 의해 유지되고 먹을거리는 농업에 의해 유지된다. 따라서 생명의 모임인 사회에 문제가 있다면 이는 그 원점인 먹을거리와 농업에 문제가 농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 사회와 우리가 사는 이 문명의 불행은 모든 생명의 근원자리인 땅과 그 자연을 분리하고 차단 시킨 데에 있고 땅과 조화되는 농업을 상실한 것에 있다. 그러므로 다시 땅의 생명력을 바탕으로 한 삶과 문명 양식을 새롭게 회복하는 길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생태 위기 속에서 그 대안으로서 농촌·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 되풀이 하지만 농업이야말로, 농적문명과 그 양식이야말로 자연과의 조화를 통해 건강과 생명, 지속적 안정과 풍요를 실현해 낼 수 있는 유일한 생태적 대안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흙 속에서 생명을 기르고 가꾸는 농업을 통해서만 시멘트·아스팔트 속에서 생명의 가치와 존엄성을 잃고 대지의 자식임을 망각한 채 모태인 땅으로부터 떨어져 버린 뿌리 뽑힌 우리들에게 생명의 소중함과 풍요로움과 심오함을 일깨워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또한 자연생태계속의 일원이며 대지의 자식이라는 존재 본연의 모습을 깨닫고 농심을 회복함으로써 생태농업을 실현하여 생태사회와 문명을 일구어가야 한다. 더 이상 경제 가치, 물질가치가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 생태가치, 생명가치가 중심 가치로 존중되며 생태적 안정과 균형 속에서 물질과 정신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문명과 그 삶이 우리의 새로운 전망이어야 한다. 그런 전망을 명확히 갖는다면 현재의 산업문명의 위기는 우리의 새로운 각성을 위한 절실한 교훈이자 새로운 생태문명과 그 사회를 열어가는 인류문명사의 진화의 기회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겨울의 얼음짙 아래서 싉의 새봄이 태어나듯 대지의 자식으로 농심을 회복한 자리에서 새 문명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 인간과 자연이 조화 공생하는 유기순환의 농적 문명과 그 사회가.

동아시아의 고유한 생명사상⁴⁴⁾

동학을 중심으로

박맹수 (원광대 원불교학과 교수)

1. 동학 성립의 시대적 배경

동학이 성립하게 되는 시대적 배경에 대하여는 다양한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겠으나, 19세기 조선이 직면해야 했던 서세동점, 즉 서양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이라는 대외적 요인과 조선왕조 지배체제 내부의 모순에서 비롯된 대내적 요인으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먼저 19세기 이전까지 조선이 맞이했던 대외적 위기를 살펴보면, 모두 동일 문화권 즉 동아시아 문화권 내에서 일어난 위기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동일 문화권 내의 대외적 위기는 모두 지배체제 정비를 통해 자주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 통일신라 말기의 위기를 고려의 건국으로, 고려 말의 위기를 조선왕조 건국을 통해 극복한 것이 바로 그 예이다. 그러나 19세기 말 조선왕조가 직면했던 대외적 위기는 종래의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차원을 달리하고 있었다. 동일 문화권 내의 도전이 아닌,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전혀 이질적인 문화권으로부터의 도전, 즉 ‘서세(西勢)의 동점(東漸)’이라는 위기 앞에 노출되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의 대외적 위기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서세동점이라는 대외적 위기가 지닌 역사적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서양 열강은 동학이 창도(唱導)되기

44) 출처: 2003세계생명문화포럼

2~3백 년 전부터 중국·조선·일본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동아시아 문화권을 향해 동점해 오고 있었으며, 특히 19세기에 들어와 미국에 의한 일본의 개항이 이루어지고, 영국과 프랑스에 의한 중국 침략이 노골화되어 서양 열강의 동점현상은 극에 달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조선 역시 서양 열강의 이권쟁탈 대상이 되어 갔다.

그런데 당시 동아시아로 동점해 오던 서세 즉 서양 열강은 여러 측면에서 동아시아 삼국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을 달리하고 있었다. 우선 서양 열강을 뒷받침하고 있던 이념은 동아시아의 이념적 지주였던 유학과는 다른 서학(Christianity)이었으며, 둘째 서양 열강은 자연과학의 발전을 토대로 이룩한 근대적 과학기술에 의해 강력하게 지지되고 있었고, 셋째 시장경제와 자유무역주의를 근간으로 한 자본주의가 발달되어 있었으며, 넷째 정치적으로는 중세적 신분질서를 타파한 근대 국민국가를 이룩한 나라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이상과 같은 ‘근대성’을 근간으로 한 서양 열강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삼국이 일찍이 접해본 적이 없는 매우 이질적이면서도 강력한 힘을 갖춘 국가들이었다.

서양 열강은 또한 동아시아 세 나라와는 차원이 다른 역사관·자연관 등도 함께 지니고 있었다. 예를 들면, 서양의 역사관은 기독교의 직선적 역사관(창조와 종말)에 근거하여, 인류 역사는 일직선적으로 무한히 진보한다는 진보사관을 표방하고 있었으며, 이 같은 역사관들은 전형적인 직선적 역사관으로써 동아시아를 지배해온 ‘순환적’ 역사관과는 일정하게 차원을 달리 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동아시아의 유가사상의 경우 인류 역사를 일치일란(一治一亂)의 역사로 파악하며, 도가사상은 유위-무위(有爲-無爲)로 순환하는 역사로 파악한다. 동아시아를 지배하고 있던 자연관 역시 서양의 자연관과 근본적으로 달랐다. 서양의 경우는 자연을 어디까지나 관찰과 분석의 대상 즉 객체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했지만, 동양의 경우는 인간과 자연과의 합일이나 조화를 강조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처럼 동아시아 문명권 여러 나라와는 차원이 다른 이질적인 역사관과 자연관을 지닌 서양 열강의 동점은 동아시아 삼국인 중국·조선·일본 등에게 심대한 충격을 가져다주었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 삼국은 자국의 독자적인 문화전통을 위협하는 서양 열강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논리와 정책을 수립하기에 여념이 없게 되었다. 19세기 중국의 중체서용(中體西用), 조선의 동도서기(東道西器), 일본의 화혼양재(和魂洋才)의 논리는 바로 도전해오는 서양 열강의 이질적인 문명을 자국의 문화전통의 기반 위에서 주체적으로 수용하고자 한 대응책의 구체적 표현들이었다.

그러나 동아시아 삼국은 서양 열강의 도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여러 측면에서 한계를 노정하고 있었다. 동아시아 삼국의 서세동점에 대해 보여준 대응의 첫 번째 문제점은 동점해 오는 서양 문명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결여된 가운데 서양 문명이 지닌 근대적 과학기술만을 수용하여 자국의 정신문화의 전통과 결합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서 잘 드러나고 있었다. 서양의 과학기술을 낳은 것이 바로 서양의 학문과 사상, 즉 이성을 중시하는 합리적 사고의 기반 위에서 성립한 것이 바로 서양의 과학기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합리적 사고는 무시한 채 과학기술만을 따로 떼어 내어 그 수용이 가능하다고 본 중세서용·동도서기·화혼양재의 논리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었다. 이 같은 한계는 결국 서세동점에 주체적으로 대응하고자 고심하던 동양 삼국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둘째 19세기의 서양 각국은 이른바 신분제 봉건제가 중심을 이루던 중세적 지배체제를 타파하고 시민이 중심이 된 근대국가로 발전하여 국민적 통합을 이룬 가운데, 국력을 기울여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비서양 세계로 진출하고 있었다. 이에 비하여 동아시아 삼국은 군주 중심의 전제왕정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채, 동점해 오는 서양 각국에 대해 민족 통합적인 대응을 할 수 없었다. 동양 삼국은 모두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서로 대립 갈등하는 가운데 서양의 도전에 대응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 같은 대응은 국력의 분산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다. 셋째 시장경제와 자유무역주의, 그리고 그것들을 뒷받침하는 근대 국제법 즉 ‘만국공법(萬國公法)’을 내세운 서양 각국은 근대적인 과학기술로 생산한 자국의 상품 판매시장의 확보 및 값싼 원료를 획득하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한 가운데 치열한 식민지 쟁탈전을 전개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발달 단계에서 자국의 무한 이익의 확보를 위해 해외 식민지 침탈에 열을 올리는 자본주의 국가를 제국주의라고 부르는데, 19세기 말 동점해 오던 서양 열강은 모두 제국주의 단계에 들어선 국가들이었다. 그러나 동아시아 삼국은 이들 제국주의 열강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만한 근대적인 군사력도 없었고, 당시의 국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시장경제 및 자유무역주의에 대한 인식 수준 또한 미약하기 그지없었다.

이상과 같은 요인들에 의하여 전통적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하던 동아시아 문화권, 즉 중화문화권은 물밀듯 밀려오는 서양 제국주의 열강의 도전에 의하여 몰락의 길로 들어섰다. 그 중에서도 특히 1840~42년의 제1차 중·영 전쟁(=아편전쟁), 1856~60년의 제2차 중·영 전쟁(애로우호 전쟁)은 동아시아 삼국에 심대한 충격을 가져다주었으며, 그 같은 충격은 동아시아 삼국의 지배층과 민중들에게 ‘천하’ 즉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문화권이 몰락할 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제2차 중·영 전쟁에서 청나라 황제가 피난길에 오르고, 영·불 연합군이 북경을 점령하여 잔인한 약탈과 학살을 벌였다는 소식이 전해진 조선 조정과 조선 민중들이 느낀 위기의식은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다. 1860년 수운(水雲) 최제우(1824~1864)에 의한 동학 창도는 이러한 서양 열강의 동아시아 침략에 대한 '보국안민(輔國安民)의 계책' 즉 서세동점(西勢東漸)에 맞서 조선 민중들 스스로 대외적 위기 극복에 필요한 사상적 주체와 그 대응 논리를 확립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었다.

동학 성립의 또 다른 배경의 하나로 조선왕조 지배체제를 중심으로 한 대내적 모순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임진·병자의 양란을 지나 조선후기에 들어오면서 조선왕조 지배체제는 여러 측면에서 균열이 일어나게 된다. 우선 수백 년 간 지배 이데올로기로 기능해왔던 주자학이 경직화되거나 공소화(空疎化)되고, 그에 바탕한 지배질서는 한 당파에 의하여 좌우되는 파행적인 세도정치로 변질되었다. 과거제도는 그저 형식 뿐으로서 대부분의 관직이 돈에 의하여 사고파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 과거시험은 세도가의 자제를 합격시키는데 필요한 형식적 절차일 따름이요, 합격자는 이미 내정되어 있다시피 하였다. 이러한 문란한 정치현실은 특정한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세도정치로 인하여 견제세력이 부재한 가운데 더욱 기승을 부릴 수 있었다.

한편, 문란한 정치현실은 결국 조선왕조 지배체제의 위기를 부채질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의 어버이라 일컬어지던 지방수령들로 하여금 가혹한 세금의 징수와 수탈을 일삼도록 방조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리하여 조선 후기 지방수령들은 세도정치 아래에서 권력가문의 도움을 받아 지방에 부임하는 대가로 막대한 뇌물을 상납하였고, 지방에 내려가서는 상납한 돈을 채우기 위하여 갖가지 명목의 세금을 거두어 들여 착복하였다. 그 결과 일반 농민들은 원래 1/10에 해당하는 세금을 8~9/10까지 납부해야하는 가혹한 수탈에 시달려 최소한의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견디다 못한 농민들은 여기저기서 봉기하여 수탈을 일삼는 수령, 그리고 수령과 한 통속으로 농민들을 핍박해온 향리들을 정치(懲治)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조선후기 특히 19세기는 '민란의 시대'라 일컬을 만큼 수많은 민중봉기가 잇따른 시기였다.

여기에 더하여 조선후기 민중들의 생존을 가장 심각하게 위협했던 존재는 주기적으로 유행하는 콜레라와 빈번한 자연재해였다. 호열자라 일컬어지던 콜레라는 20~30년 간격으로 유행하여 심할 경우 한 해 10만인 이상의 사망자가 나게 함

으로써 전 조선 민중을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었으며, 여기에 빈번한 가뭄·홍수·기근 등이 겹쳐 조선후기 피지배 민중들의 삶은 뿌리 채 흔들리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가혹한 삶의 조건들은 대부분의 민중들에게 위대한 능력을 가진 '진인(眞人)(또는 이인(異人))'의 출현을 고대하도록 만들었으며, 민중들은 진인의 출현에 의해 고통으로 가득한 현실로부터의 구원이나 해방을 학수고대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진인을 기다리던 민중들의 소망은, 조선후기에 들어 지배체제의 모순이 격화됨으로 인하여 피지배층들의 삶의 현실이 가혹해지는 시대적 조건을 타고 널리 유행하던 『정감록』과 같은 비기도참 신앙과 결합되어 '정진인 출현설'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정진인 출현설은 빈번히 일어나던 민란과 결합하여 민중들을 결속시키는 이념적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조선왕조 지배체제 내부의 모순에 대하여 안으로부터 개혁하고자 하는 새로운 학문 운동이 조선후기에 일부 양반층에 의하여 일어났다. 실학이 바로 그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실학은 조선후기에 와서 벼슬자리로부터 소외된 재야 지식인들과 일부 관료지식인들이 굳어진 주자학에 대하여 다양한 비판을 제기하고, 특히 주자학이 소홀히 취급했던 농·공·상 등 현실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면서 기존의 주자학과 기존 현실의 문제를 극복할 대안 마련에 부심하는 가운데 성립시킨 학문이었다. 이 같은 학문의 방향은 당연히 모순으로 가득 찬 조선왕조 지배체제를 개혁하고자 하는 개혁론의 성격을 지향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실학은 개혁 사상임에도 불구하고 권력에서 소외된 재야의 양반 지식인들에 의해 제기된 '위로부터의 개혁론'이라는 점에서 그 실천에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그 결과, 조선후기에 대내외적으로 위기에 직면한 조선왕조 지배체제를 '위로부터 개혁'하고자 등장했던 실학은 공리공론에 떨어진 주자학의 한계를 극복할 만한 개혁적 요소를 충분히 간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조 내부에서 그 실천의 토대를 마련하지 못함으로써 이념 제시에 그치고 말았다.

실학이 조선왕조의 중세적 모순을 개혁해 내는 개혁사상의 역할을 수행해 내지 못하게 되자, 19세기 조선의 역사는 더욱 많은 우여곡절을 겪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즉 조선왕조의 내부 모순을 주체적으로 극복하는 길이 좌절됨으로써 조선왕조는 결국 외세에 의해 변혁을 강제 당하게 되었고, 민중들로부터도 더욱 강력한 도전을 받기에 이르렀다. 19세기 조선은 이제 이른바 안으로는 '반봉건' 근대 국가의 건설과, 밖으로는 동점해 오는 서세, 즉 서양 제국주의 열강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해야하는 '반침략'이라는 이중의 과제를 짊어진 채 고난의 길을 걷지

않으면 아니되었다.

2. 수운 최제우와 동학의 성립

서세동점이라는 대외적 위기와 지배체제의 동요라는 대내적 위기 등 이중의 모순 속에 처해 있던 조선후기 민중들의 동향 속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은 그동안 지배층에 의해 일방적으로 다스림의 대상으로 객체화되어 있던 피지배층들이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던 이중의 모순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감록』이나 ‘진인출현설’ 등에 가탁(假託)하여 자신들의 의지를 결집시켜 실천에 옮김으로써 ‘민중의식의 성장’을 행동으로 보여 준다는 점이다. 즉 조선후기 민중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혹한 삶의 조건 속에서 시대의 모순을 인식하고 그러한 시대적 모순을 타파하고자 그들 나름의 문제의식을 비기도참서에 대한 신앙이나 ‘진인출현설’에 대한 가탁을 통해 표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정감록』과 같은 비기도참서에 대한 신앙이나 ‘진인출현설’에 가탁한 민중의식은 그 내용이 아직 영성하기 그지없어 조직화되거나 일정한 체계를 사상으로 성숙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곧잘 조선후기 민란의 지도이념으로 기능하곤 했던 비기도참신앙과 ‘진인출현설’ 등은 군현 단위를 뛰어넘지 못한 채, 오로지 한 고을의 폐단을 시정하려는 고립적인 민중봉기 이념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시대적 모순이 심화되던 19세기에 민중들의 의식이 일정하게 성숙해 가고 있던 시대에 장차 동학을 창도하게 될 최제우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된다.

최제우(이하 수운이라 약칭함)는 1824년 10월 28일 경주 가정리(현 경상북도 월성군 현곡면 가정 1리)에서 부친 최옥(崔燾, 1762~1840, 호(號) 근암(近庵))과 모친 곡산 한씨 사이에서 만득자(晩得子)(최제우가 태어났을 때 최옥의 나이는 63세였다)로 태어났다. 어렸을 때의 이름은 복술(福述)이며 본명은 제선(濟宣)이고, 제우는 1859년에 고친 이름이다. 그리고 자는 성묵(性默)이며, 호가 수운이다. 그의 모친은 부친의 세 번째 부인이었으나 과부였으므로 정식 결혼을 한 처지가 아니었다. 그러므로 수운은 서자나 다름없는 재가녀의 소생으로 어려서부터 커다란 심적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그는 어린 시절 퇴계 이황의 학통을 이어 받아 영남 일대에 명성이 있던 부친 슬하에서 수학하여 상당한 수준의 유교적 교양을 닦았으나, 10세 때 모친상을 당하고 17세 때는 부친마저 잃음

으로써 더 이상 학문을 지속할 수 없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19세(1842) 때 울산에 사는 밀양 박씨를 부인으로 맞이하였고, 21세 때부터는 장사 길에 나서 주유팔로(周流八路)의 길에 나섰다. 이후 전국을 돌아다니며 인심 풍속을 살피며 자신이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일종의 구도 생활이 31세(1854) 때까지 계속되었다. 이 무렵 그는 이미 자신의 개인적인 고뇌와 자신이 목격한 혼란한 시대상으로 인하여 갖게 된 고뇌 등 이중의 고뇌를 안고 그 해결을 위한 방황을 계속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약 10여 년에 걸친 방황의 기간 동안 해결의 방법은 마련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던 가운데 그는 32세(1855년) 때 일종의 종교체험을 하게 되고, 그것을 계기로 이듬해(1856년)에는 양산 통도사 내원암 근처에 있는 자연동굴(적멸굴이라 함)에 들어가 49일간의 기도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또 다시 새로운 종교체험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체험들 역시 수운 자신의 고뇌를 궁극적으로 해결해줄 만한 그런 것들은 아니었다. 그리하여 수운은 36세 때인 1859년 10월에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1854년 이래 수 년 동안 살았던 울산 처갓집을 떠나 경주 용담에 있는 옛집으로 돌아왔다. 용담으로 돌아온 뒤 수운은 나이 40이 가깝도록 그 어느 것 하나 이룬 것 없는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며 처절한 심경이 되어 자신의 고뇌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상적 모색에 침잠하였다. 이 무렵 그의 각오는 참으로 대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수운의 전기를 기록하고 있는 『최선생문집도원기서(崔先生文集道源記書)』에 따르면, 이때 최제우는 제선이라는 이름을 제우로 고치고, ‘세간중인부동귀(世間衆人不同歸)’라는 글귀까지 써 붙인 가운데 치열한 구도생활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랜 구도생활의 결과, 수운은 마침내 1860년 4월 5일 자신의 생애에 있어 커다란 전환의 계기가 되는 결정적인 종교체험⁴⁵⁾을 하기에 이른다. 상제(上帝)와의 문답을 통해 천도, 즉 무극대도(無極大道)를 깨달아 동학을 창시하게 된 것이다. 1860년 즉 경신년 4월 5일에 수운이 상제와의 문답을 통해 주문과 영부(靈符)를 받고 천도도 깨닫는 득도 과정에 대하여는 그 득도 직후에 수운 자신이 직접 저술한 「용담가」 「안심가」 「교훈가」 등의 가사와 「포덕문(布德文)」 「논학문(論學文)」 등의 한문체 저작 속에 매우 실감나게 묘사되어 있다. 여기에 득도와 관련된 내용을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다.

45) 동학·천도교의 역사 책 속에서는 1860년 4월 5일의 종교체험을 ‘天師問答’이라고 부르고 있으나, 이 때의 종교체험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석이 필요하다.

천은이 망극하여 경신 사월 초오일에
 글로 어찌 기록하며 말로 어찌 형언할까
 만고 없는 무극대도 여몽여각 득도로다⁴⁶⁾
 사월이라 초오일에 꿈일런가 잠일런가
 천지가 아득해서 정신수습 못 할러라
 공중에서 외는 소리 천지가 진동할 때
 집안사람 거동 보소 경황실색 하는 말이⁴⁷⁾

뜻밖에 4월에 마음이 섬뜩해지고 몸이 떨려 병인가 하였으나
 무슨 증상인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즈음에 신비로운 말씀이
 귀에 들려 놀라 일어나 물으니⁴⁸⁾

몸이 많이 춥고 떨리면서 밖으로 접령(接靈)의 기운이 있고, 안으로
 강화(降話)의 가르침이 있되, 보려 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았으므로 마음으로 더욱 괴이하게 여겨⁴⁹⁾

위 내용에 따르면, 수운은 1860년 4월 5일 당시 ‘여몽여각(如夢如覺)’의 상태, 즉 마치 꿈을 꾸는 듯한 상태에서 “마음이 섬뜩해지고 몸이 떨리는” 증상을 겪는 가운데 “밖으로 접령의 기운이 있고, 안으로 강화의 가르침이 있는” 체험을 하고 있다. 또한 이 같은 체험을 하는 과정에서 그는 상제와 문답(이것을 동학의 후신 천도교 교단사에서는 ‘천사문답(天師問答)’이라 부르고 있다)을 하고, 그 문답 과정에서 수운은 상제로부터 주문과 영부를 받는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최제우가 상제라는 자기 외부의 초월적 존재를 경험하는 체험을 한다는 데 있다. 4월 5일의 체험 이후 수운은 몇 개월에 걸친 수련을 거듭한 끝에 마침내 상제의 마음과 자기 자신의 마음이 둘이 아님을 확신하게 되고(오심즉여심야, 吾心卽汝心也), 그 같은 체험을 통해 얻은 상제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포덕의 길, 즉 천도를 가르치고 전하는 포교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동학이란 표현은 ‘오역생어동 수어동 도수천도 학즉동학(吾亦生於東 受於東 道

46) 『용담유사』(1883년판), 「용담가」 참조.

47) 위의 책, 「안심가」 참조.

48) 不意四月 心寒身戰 疾不得執症 言不得難狀之際 有何仙語 忽入耳中 驚起探問 (『東經大全』(1888년판)), 「布德文」).

49) 身多戰寒 外有接靈之氣 內有降話之教 視之不見 聽之不聞 心尙怪訝 修心正氣而問曰(『東經大全』, 論學文)

雖天道 學卽東學, 「논학문(論學文)」)이라고 한 수운 자신의 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서양으로부터 중국을 거쳐 전래된 서학, 즉 외래 사상 또는 외래 종교의 홍수 속에서 동쪽 나라인 우리나라의 도와 학문을 일으켜 세운다는 뜻에서 수운 자신이 스스로 붙인 이름이었다.

동학 창시 후, 수운은 자신의 집에 있던 두 명의 여자 종을 해방하여 한 사람은 며느리로, 다른 한 사람은 수양딸로 삼음으로써 모든 사람을 ‘하늘님’으로 모시는 ‘시천주(侍天主)’ 사상을 몸소 실천한다.⁵⁰⁾ 또한 득도한 지 1년이 지난 1861년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르침을 펴기 시작한다(동학천도교에서는 이를 ‘신유포덕, 辛酉布德’이라 부르고 있다). 그는 각지에서 찾아오는 민중들에게 머지않은 장래에 가난한 사람도 모두 부귀한 사람이 되는 후천개벽(後天開闢)의 이상적인 새 세상이 열릴 것이라고 역설하면서, 모여든 민중들에게 동학에 들어와 ‘시천주造化정 영세불망만사지(侍天主造化定 永世不忘萬事知)’라는 십삼자 주문을 외우고, 궁을(弓乙)이라는 글자가 쓰여진 영부(신령스러운 부적)를 불에 태워 마시며, 성경신(誠敬信)의 가르침을 열심히 실천하면 모두 ‘하늘님’을 모실 수 있게 되며, 지상의 신선인 군자가 될 수 있다고 가르쳤다. 그는 또한 1861년에 쓴 「포덕문」이란 글에서 잘못된 나라를 바로잡고 도탄에 빠진 민중들을 구제하겠다는 보국안민의 의지를 널리 천명하였다. 그 외에도 그는 동학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무상자(有無相資)’ 즉 넉넉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이 서로서로 돕고 아껴야 한다는 공동체적 정신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처럼 시천주, 보국안민, 후천개벽, 유무상자 사상을 핵심으로 하는 초기 동학은 창도 직후부터 경상도 경주를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전파되어 포교 3년째인 1862년에는 경상도 15개 군현에 동학의 접(接) 조직이 설치되고 이들 각 접에는 지도자인 접주가 임명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동학 교세에 위기의식을 느낀 중앙 조정에서는 동학을 ‘좌도(左道)’ 즉 ‘옳지 못한 도’로 간주하여 탄압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최제우는 1863년 12월 경주에서 체포되어 이듬해 3월 좌도혹민(左道惑民, 옳지 못한 도로 민중들을 현혹시킨다는 뜻)이라는 죄명을 뒤집어쓰고 경상감영이 있는 대구 장대(將臺)에서 처형당함으로써 순교하기에 이르렀다.

50) 金起田 「慶州聖地拜觀實記」, 『新人間』 제 15호, (1927년 8월호), 9쪽.

창시자가 처형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동학은 수운의 수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최시형(호는 해월(海月), 1827-1898)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전국 각지로 퍼져 나갔다. 1861년 6월경 동학에 입교하여 최제우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최시형은 동학 입교로부터 순교하기까지 38년(1861년부터 1898년까지)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동학사상 실천에 온 힘을 기울였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시천주 사상에 근거한 평등사상 실천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다. 예를 들면, 최시형은 스승인 수운의 시천주 사상을 실천적으로 더욱 확대 발전시켜 “사람이 곧 하늘이니 사람 섬기기를 하늘 섬기듯 하라(인즉천(人卽天)이니 사인여천(事人如天)하라)”고 가르치면서 특히 어린 아이들과 여성들 그리고 노비들도 모두 ‘하늘님’으로 대접할 것을 역설하였다. 최시형은 이 같은 만인 평등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람뿐만 아니라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벌레 한 마리 모두 ‘하늘님’ 아님이 없으니”(천지만물 개막비시천주야(天地萬物 皆莫非侍天主也)), “하늘과 사람 그리고 만물을 두루 공경하라”는 삼경(경천(敬天), 경인(敬人), 경물(敬物)) 사상 즉 범천론적 만물 평등사상을 확립하였다. 그의 이 같은 가르침은 1905년에 동학이 천도교로 이름이 바뀐 뒤 수제자 손병희(호는 의암(義菴), 1861-1922)에 의해 人乃天 사상으로 정리된다.

3. 생명사상으로서의 동학

동학 성립의 역사적 의의는 어디에 있을까? 한 마디로 말하자면, 그동안 직면했던 대내외적 위기와는 근본적으로 차원을 달리했던 19세기 조선의 대내외적 위기(이러한 위기의 시대를 수운 자신은 ‘각자위심(各自爲心)의 시대’라고 표현하고 있다.) 극복을 위해 “우리 민족 특유의 민중적인 생명사상을 확고한 중심으로 하여 그 기초 위에서 유교, 불교, 노장 사상과 도교와 기독교 등 제 사상의 핵심적인 생명사상을 통일하되, 특히 민중적인 생명사상, 민중적인 유교, 민중적 불교, 민중적 도교와 민중적 차원에서 새로 조명된 노장사상과 선 사상, 민중적 기독교사상 등의 핵심적인 생명원리를 창조적으로 통일한 보편적 생명사상”⁵¹⁾이 바로 동학의 핵심 사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자본주의와 근대 과학기술, 국민국가라는 ‘근대성’으로

51) 김지하 『김지하 이야기 모음: 남녘 땅 뱃노래』 (도서출판 두레, 1985년), 110쪽.

무장한 서양 열강의 동점에 맞서 이 땅의 사상적 주체를 확립하고자, 민중 사상이 수운 최제우에 의해 성립된 조선의 주체적 ‘근대성’의 산물이 바로 동학이었다. 동학이 세운 우리의 주체적 ‘근대성’에 대하여 김용옥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⁵²⁾

우리 민족의 근대성(modernity)의 뿌리를 생각할 때 가장 창조적이고 자각적인사상을 제출한 인물로서 나는 해월(최시형 1827-1898; 인용자주) 이상의 인물을 생각할 수가 없다. 나 도올은 우리 역사에 지나간 성인은 많이 있으나 내가 리얼하게 느낄 수 있었던 해월과 동무(이제마 1837-1900 ; 인용자주)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굳이 이 조선 땅에서 살아야할 큰 의미를 발견치 못했을지도 모른다는 탄식을 종종 발하곤 했다. 동무의 창조적 고집과 해월의 헌신적 희생의 전범이 없었더라면 나의 삶의 가치관의 진정한 기준을 찾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탄식이었다.

그러나 동학이 이 땅 민중들의 주체적 노력에 의한 조선의 ‘근대성’을 대변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860년 성립 이래 동학은 지금까지 제대로 평가되지 못했다. 제대로 평가되기는커녕 그 극복의 대상이었던 서양 열강의 ‘근대성’에 매몰되어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하지 못했다. 이 같은 현실은 무위당 장일순(1928-1994) 선생님이 직접 털어놓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 속에 극명하게 반영되어 있다.⁵³⁾

제가 해월 선생님 말씀을 많이 하니가 예수 믿는 어떤 분이 “그것은 동학교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 그건 동학이지. 그럼 자네 이야기는 뭔가. 서학 야닌가. 여기는 코리아여 코리아. 뭘 이야기하는 거냐 말이지. 지금 지구가 하나여. 지구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그러면 지구가 지금 한 동네가 되어가고 있는데 수운 이야기를 하면 어떻고 해월 이야기를 하면 어떻고 손병희 이야기를 하면 어때. 그러나 가까이는 이 민족의 독립과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떠든 사상이 뭐야. 동학이지. 그러면 뭇 때문에 어느 동네에서 살면서 헛나발 붙고 있는 거야.” 그런 악을 쓴 적이 있어요. 옳은 것은 말이지, 현상세계에서는 전부 다 옳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 가령 김서방이 옳은 이야기를 한 것은 안 되고 박서방이 이야기를 한 것은 괜참고 이서방이 이야기한 것은 반만 맞고 이런 식이 되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법이 여지껏 이현령비현령이었잖아요? 김서방이 이야기한 것은 신문에 났는데도 붙들여가지 않고 오서방이 이야기한 것은 그 새긴 빨갱이니까 붙잡아 넣어, 이렇게 되었던 말

52) 김용옥 「도올 어린이교육 新憲解題」 『문화일보』 2003년 5월 5일, 5면.

53) 장일순 「자애와 무위는 하나」 『나락 한알 속의 우주: 무위당 장일순의 이야기 모음』 (녹색평론사, 1997) 62쪽.

이에요. 이제 ‘지구일동(地球一洞)’이야. 지구가 한 동네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서니 동이니 나누고 개가 이야기한 것은 반만 맞고 애가 이야기한 것은 안 되고 이 따위 식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툭 터놔야지. 그렇게 해야 지금 한국에 널려져 있는 조건 속에서 살아가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동학 성립 이래 그 역사적 의미가 평가 절하되고, 동학에 대한 천시 풍조가 하나의 시대적 사조를 이루는 가운데에서도 이 땅의 뜻 있는 지식인들은 일찍부터 동학이 지닌 역사적 의미에 주목하고 있었다. “하늘 밑에서는 제일로 밝던 머리”를 지녔다는 범부(凡父) 김정설(金鼎高, 1897-1966) 선생이 동학 창도 백년이 되던 1960년에 쓴 글에서 동학에 대해 평가한 내용을 보도록 하자.⁵⁴⁾

금년으로서 백 년 전, 경신(1860) 4월 5일(음)에 정말 어마어마한 역사적 대사건이 경주 일우(一隅)인 건곡면 마룡동이란 숙조(肅條)한 산협에서 발생했다. (중략) 그런데 역사도 왕왕 기적적 약동이 있는 모양인지라 혼수에 취몽으로 지리한 천년의 적막을 깨뜨리고, 하늘에서 외우는 소리는 웬 셈인지 마룡동 최제우를 놀래 깨운 것이다. 이것이 과연 ‘역사적 대강령’이며, 동시에 신도성시정신(神道盛時精神)의 ‘기적적 부활’이라 할 것이다. ‘국풍의 재생’이라 할 것이며, ‘사태의 경이’라 할 것이다. 정말 어마어마한 역사적 대 사건이었다.

김범부 선생은 위의 글에서 최제우가 1860년 4월 5일에 체험했던 종교체험을 ‘역사적 대강령’이자 ‘신도성시정신의 기적적 부활’이자 ‘국풍의 재생’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는 또 수운 사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시(侍)’자에 주목하여 설명하기를⁵⁵⁾,

‘시(侍)자를 시자 내유신령 외유기화(侍字 內有神靈 外有氣化)라 하니, 이 내(內)는 ‘신(神)의 내(內)’인 동시에 곧 ‘인(人)의 내(內)’인 것이고, 이 외(外)는 ‘인(人)의 외(外)’인 동시에 곧 ‘신(神)의 외(外)’인 것이다. 말하자면 천주가 내(內)인데 인간이 외(外)이거나 인간이 내(內)인데 천주가 외(外)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아(我)의 내(內)가 곧 천(天)의 내(內)이며 천(天)의 외(外)가 곧 아(我)의 외(外)에 삼라한 만상이 곧 천주의 기화란 것이다. 그러므로 천주의 신령을 떠나서 아(我)의 신령이 따로 있거나 천주의 기화를 떠나서 아(我)의 기화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기에 후인의 ‘인내천’이란 것도 저간 소식을 두고 한 말일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천인일체 신아일체(天人一體 神我一體)’, 이것이 수운의 신관으로서 저 기독교 등의 외재신

54) 金鼎高 「최제우론」 『풍류정신』 (정음사, 1986), 82-90쪽.

55) 金鼎高, 위의 책, 93쪽.

관(外在神觀)과는 상이한 점이다

라 하여 ‘시천주’의 ‘시’자에서 드러나고 있는 동학의 독특한 신관⁵⁶⁾을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 국문학자 조동일(서울대) 교수는 동학의 등장에 대해 “스스로 득도해서 새로운 종교를 창건한 것은 우리 역사에서는 전례가 없고, 최제우에게서 처음으로 시작된 일이다”⁵⁷⁾라고 평가하여 동학이 근대한국에서 잇따라 일어나는 각종 민중 종교들의 효시임을 밝히고 있다. 철학자 유초하(충북대) 교수는,

하늘과 사람과 주변 환경을 하나로 꿰는 동학정신은 계급/계층이나 민족/국가/종교/세대/성별 등 각종 수준의 인간집단 사이에 사랑과 화해의 정신이 사그라진 현대세계가 바라보아야 할 공동의 거울이라 할 것입니다. 동학은 하늘(한울님)과 사람과 자연을 연결시키되, 절대자의 세계가 아니라 인간의 세계를 중심으로 보는 이승=세속 중심의 종교입니다. 동학은 절대자에 대해 배타적 인격성을 부여해서 타종교와 전쟁을 일으키는 적대적 종교가 아니며, 관념적 교리를 만들어 살아 있는 생명들을 천시하는 저승 중심의 종교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동학에는 쌀과 밥을 사람의 생명과 바로 연결시키는 범생명주의가 담겨 있습니다⁵⁸⁾.

라고 동학이 지닌 역사적·현재적 의미를 ‘범생명주의’라고 요약하면서, “동학은 우리의 조건을 살피고 우리의 힘을 키우되 남들과 함께 살아가는 정신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소중한 정신적 유산이라”⁵⁹⁾고 결론짓고 있다.

4. 시천주(侍天主)와 십무천(十母天)에 나타난 생명사상

필자는 앞에서 동학 성립의 역사적 의의를 설명하면서 동학을 “민중적인 생명사상, 민중적인 유교, 민중적 불교, 민중적 도교와 민중적 차원에서 새로 조명된 노장사상과 선 사상, 민중적 기독교사상 등의 핵심적인 생명원리를 창조적으로 통일한 보편적 생명사상”이라는 김지하 님의 견해에 동의를 표시한 바 있다. 그

56) 동학의 ‘하늘님’은 한편으로는 초월적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내재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를 일컬어 김정재(한신대) 교수는 “汎在神論”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최제우의 종교체험에서 확인되는 ‘上帝’는 기독교의 유일신 등에서 확인되지 않는 ‘理法的’성격을 함께 지닌다는 점에서 매우 독특한 神觀이라 부를 만하다.

57)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제 4권』(제 2판, 지식산업사, 1989), 18쪽.

58) 유초하 「섬김과 어울림의 문화에 자양이 되는 쌀을 살리자」 『보은취회 110주년 기념 학술포럼 자료집』(2003년 4월 13일), 5쪽.

59) 유초하, 위의 책, 5쪽.

렇다면 민중적 생명사상 등을 창조적으로 통일한 기반 위에서 성립한 동학사상의 핵심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동학사상의 핵심적 내용은 한문 경전 『동경대전』에 실려 있는 「논학문」에서 가장 잘 드러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13자 주문에 대한 해설⁶⁰⁾ 속에 동학사상의 핵심이 잘 드러나고 있다.⁶¹⁾

수운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자기 안에 ‘하늘님’을 모시고 있는 존재로 파악된다(侍天主).⁶²⁾ 수운에 의해 천명된 ‘시천주’는 그의 수제자 최시형에 의해 실천적으로 확대 해석되어 ‘인시천이니 사인여천하라’는 명제로 대표되는 인간존엄의 보편적 평등사상으로 발전하게 되며, 이는 다시 의암 손병희에 의해 ‘인내천’으로 정리되게 된다는 사실은 앞에서 이미 설명한 그대로이다. 따라서 우리는 최시형의 사인여천 사상이나, 손병희의 인내천 사상의 근원이 최제우가 천명한 ‘시천주’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시천주’ 즉 “자기 안에 하늘님을 모시고 있다”는 뜻은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 여기서 잠깐 김지하의 ‘시천주’ 해석에 주목해 보기로 하자. 김지하는 이렇게 말한다.⁶³⁾

‘시천주’, 내 안에 한울님을 모셨다는 뜻은 우선 모든 사람이, 중생이, 끊임없이 활동하는 일체의 생명이 제 안에 한울님, 즉 끊임없이 활동하는 범생명을 모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한울이 사람과 중생의 모두 안에 살아계신다는 뜻입니다. 사람, 중생이 저마다 제 안에 살아 계신 한울님을 모시고 적극적으로 섬김으로써 섬김의 주체인 내가 한울과 한 치의 틈바구니도 없이 일치하고 그 한울에 돌아가 나의 근원인 한울을 내가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김지하는 위의 ‘시천주’ 해석에서 모든 사람이 자기 안에 가장 거룩한 존재인 한울 즉 ‘우주 생명’을 모시고 있다고 해석한다. 따라서 어린 아이들이나 노비나, 여성들도 모두 하늘님을 모시고 있는 거룩한 존재들이다. 김지하는 또한 ‘시천주’란 모든 사람이 제 안에 살아 계신 한울님 즉 우주 생명을 적극적으로 섬김으로써 내 자신이 그 거룩한 한울님과 한 치의 틈바구니도 없이 일치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요컨대 김지하가 바라본 ‘시천주’의 핵심은 바로 전 우주 생명에 대한 ‘모심과 섬김’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시천주’의

60) 『東經大全』 「論學文」에서 최제우는 동학의 十三字 呪文인 ‘侍天主造化定 永世不忘萬事知’에 대해 상세한 해설을 한 바 있다.

61) 김지하, 앞의 책, 111쪽.

62) 『東經大全』 「論學文」의 十三字 呪文 해설 부분 참조.

63) 김지하, 앞의 책, 112쪽.

관점에서는 아이들 역시 당연히 ‘모심과 섬김’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동학의 역사에서 ‘모심과 섬김’의 모범을 보여준 이는 바로 해월 최시형 선생이었다. 최시형은 1861년 6월에 동학에 입도한 이래 1898년 6월에 순교하기까지 38년의 세월 동안 ‘시천주’의 핵심 정신인 ‘모심과 섬김’의 실천에 자기 생애를 모두 바쳤다. 최시형 선생 재세시 전라도 익산 지방의 동학 지도자로 활동하였고, 후일 그의 딸을 최시형의 아들에게 출가시켜 최시형 선생 가문과 사돈 관계를 맺는 오지영(吳知泳)의 회고에 의하면, 최시형 선생이 평생토록 가장 강조했던 법설이 바로 사인여천이었다고 하며⁶⁴⁾, 선생이 남긴 많은 법설 가운데에는 사람뿐만 아니라 천지만물을 모두 가장 거룩한 한울님으로 모시고 섬기라는 간절한 가르침들이 담겨 있다. 여기에 몇 가지 법설만 소개해 본다.

천지즉부모(天地卽父母)요 부모즉천지(父母卽天地)니 천지부모(天地父母)는 일체야(一體也)라⁶⁵⁾

인시천(人是天) 천시인(天是人)이니 인외무천(人外無天)이요 천외무인(天外無人)이니라⁶⁶⁾

인시천(人是天)이니 사인여천(事人如天)하라⁶⁷⁾

도가(道家)에 인래(人來)어든 물인래언(勿人來言)하고 천주강림언(天主降臨言)하라 (중략)

도가부인(道家婦人)은 경물타아(輕勿打兒)하라

타아(打兒)는 즉타천의(卽打天矣)이니 천염기상(天厭氣傷)이니라⁶⁸⁾

만물(萬物)이 막비시천주(莫非侍天主)라⁶⁹⁾

위에 인용한 최시형의 법설에 따르면, 모시고 섬기는 대상이 사람에만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만물, 즉 전 우주 삼라만상에까지 미치고 있다. 최시형의 삶을 살펴보면 그에게는 전 우주 생명이 하늘님이었다(天地=陰陽=鬼神=父母). 따라서 그는 당시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고 있던 계층이던 노비나 여성, 아이들에 주목하여 그들을 가장 거룩한 존재인 하늘님으로 모시고 섬기는 실천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다. 최시형은 사람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에 이르기까지 전 우주 생명을 거룩한 하늘님으로 모시고 섬기는 일에 일생을 바침으로써 스승인 수운 선생이 밝

64) 吳知泳 「東學史(草稿本)」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第1卷』 (사운연구소, 1996년), 401쪽.

65) 천도교중앙총부 『神師聖師法說』 (천도교중앙총부 출판부, 1986년), 27쪽.

66) 천도교중앙총부, 위의 책, 50쪽.

67) 천도교중앙총부, 앞의 책, 68쪽.

68) 천도교중앙총부, 앞의 책, 69쪽.

69) 천도교중앙총부, 앞의 책, 73쪽.

허낸 시천주 사상의 사회화, 만인평등과 인간존엄의 보편주의 실현에 성공하게 된다. 여기서 자시 동학의 시천주 사상이 만인평등과 인간존엄 보편적 사상으로 널리 실천되고 있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충청도 서산 출신의 한 동학 접주의 회상⁷⁰⁾을 읽어보기로 한다.

운수는 참말 있습니다. 자 이런 일도 있었소, 내가 입도한 지 불과 며칠에 전지문지(傳之聞之)하여 동학의 바람이 사방으로 퍼지는 데, 하루에 몇 십 명씩 입도를 하곤 하였습니다. 마치 봄 잔디에 불붙듯이 포덕이 어찌도 잘되는 지 불과 한두 달 안에 서산 한 군이 거의 동학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까닭은 말할 것도 없이 첫째 시운이 번복하는 까닭이요, 만민평등을 표방한 까닭입니다. 그래서 재래로 하층계급에서 불평으로 지내던 가난뱅이, 상놈, 백정, 종놈 등 온갖 하층계급은 물밑 듯이 다 들어와 버렸습니다. (중략) 그런데 이때에 있어서 제일 인심을 끈 것은 커다란 주의나 목적보다도, 또는 조화나 장래 영광보다도 당장의 실익 그것이었습니다. 첫째 입도만 하면 사인여천이라는 주의 하에서 상하귀천 남녀 준비 할 것 없이 꼭꼭 맞절을 하며, 경어를 쓰며, 서로 존경하는 데서 모두 심열성복(心悅性服)이 되었고, (중략) 그 때야말로 참말 천국천민들이었지요.

위의 회상기는 1894년 봄에 충청도 서산에서 동학 접주가 되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던 홍종식(洪鍾植)이란 인물이 1927년에 갑오년 당시를 회상하여 기록한 내용이다. 그는 갑오년 당시의 광경을 회상하면서 만민평등을 어김없이 실천하는 동학에 매료된 민중들이 다투어 동학에 가담하는 광경과 함께, 상하귀천과 남녀 준비가 사라진 그 때 그 사람들을 ‘천국천민’이라고까지 극찬하고 있다. 이것은 동학의 시천주 사상이 최시형 지도 아래의 동학 조직 속에서 즐기치게 실천되고 있음을 실증해 주는 구체적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학에서는 어린 아이들도 어른과 똑같이 거룩한 하늘님으로 대접하였고 대접받았다. 이러한 역사는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에도 그대로 이어져 무수한 동몽접장(童蒙接長(=接主))들이 어른 농민군들과 함께 혁명의 대열에 참여하기도 한다. 1894년 5월 전주성을 둘러싸고 동학농민군과 조선정부군 사이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용맹을 떨치다가 전사한 김복용(金福用)은 동몽접장으로 혁명에 참여했던 대표적 인물이며, 황해도 출신의 김구 선생 역시 총각 때 동학에 들어가 접주가 되어 동몽접장으로 동학농민혁명을 이끌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기도 하다.

70) 洪鍾植 「東學亂實話」 『新人間』 34호(1929년 4월호), 45-46쪽.

끝으로 사람뿐만 아니라 일체 만물을 성심을 다해 거룩한 하늘님으로 모시고 섬겼던 최시형 선생 자신이 시천주의 구체적 실천덕목으로 제시한 ‘십무천(十毋天)’이라는 법설 속에서 오늘날의 위기, 즉 생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십무천 법설은 다음과 같다.

- 무기천(毋欺天): 한울을 속이지 말라
- 무만천(毋慢天): 한울을 업수이 여기지 말라
- 무상천(毋傷天): 한울을 다치지 말라
- 무란천(毋亂天): 한울을 어지럽히지 말라
- 무요천(毋夭天): 한울을 죽이지 말라
- 무오천(毋汚天): 한울을 더럽히지 말라
- 무뇌천(毋餽天): 한울을 굶기지 말라
- 무괴천(毋壞天): 한울을 부수지 말라
- 무염천(毋厭天): 한울을 싫어하지 말라
- 무굴천(毋屈天): 한울을 굴복시키지 말라⁷¹⁾

모두 10개조로 구성되어 있는 십무천 법설에서 강조되고 있는 하늘님은 과연 어떤 존재이며,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동학의 가르침에 따르면, 사람뿐만 아니라 일체중생, 즉 천지만물이 다 가장 성스럽고 가장 고귀한 하늘님이다. 이 같은 관점에 서게 되면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벌레 한 마리도 모두 하늘님이다. 철 따라 부는 바람도 하늘님이며, 밤낮으로 뜨고 지는 해와 달과 별들마저 모두 하늘님 아님이 없다. 그러므로 이 십무천 법설은 하늘님인 사람뿐 아니라 일체 중생, 천지만물을 가장 성스럽고 고귀한 존재로 모시고 섬기라는 말씀이다. 요컨대 십무천 법설이야말로 동학의 범생명주의 사상을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행동강령인 것이다.

오늘날 이 지구상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사람들은 어떤 대접을 받고 있으며, 일체 중생들은 어떤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가? 그리고 사람들을 둘러싼 생태계는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이 모든 현실을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늘님 즉 거룩한 생명에 대한 죽임의 문화’가 가득 차 있는 세상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40여 년 전 이 땅에서 자생한 동학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까지도 가장 거룩한 존재인 하늘님으로 모시고 섬기라는 우주적인 생명 사상을

71) 천도교중앙총부, 앞의 책, 181-182쪽.

제시하였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는 과연 그 같은 우주적인 생명사상이 살아 숨쉬고 있는가? 최시형 선생께서는 대지인 어머니가 아파하실 것이기 때문에 뜨거운 물도 식혀서 버리라고까지 역설하시며,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생태계를 하늘님으로 모시고 섬기는 삶을 온 몸으로 보여주셨는데, 과연 우리들은 오늘의 우리들은 동학의 생명사상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어떻게 계승하고 있는가? 오늘의 현실은 과연 해월 선생의 십무천 법설에서 어느 정도의 거리에 있을까? 우리 모두의 깊은 성찰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생산과 소비는 하나다⁷²⁾

박재일 (한살림 회장)

■ 생산과 소비는 하나다

한살림 운동을 시작한지 어느덧 17년이 됐습니다. 이 운동을 시작하게 된 동기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처음엔 어떻게 하면 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가 뒷받침 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이 길을 모색하다보니 농산물 거래라는 게 딱 걸립니다. 시장에 가보니까 도저히 그게 안 된다는 게 느껴진 거죠. 이걸 할 수 있는 일은 도시 사람들과 농촌 사람들이 기존 농사 방식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공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즉 소비자에게는 어떤 농산물이 공급되어야 하는가, 생산자는 소비자에게 필요한 농산물을 어떻게 생산하고 또 농산물의 정당한 가격 실현은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는가를 서로 공유하고 문제가 있으면 서로 의견을 모아 해결할 수 있어야 할 텐데 기존의 관행으로는 도저히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직접 만나서 문제를 풀어가자는 것이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직거래를 생각한 것인데,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개념이 정확한 것 같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직거래라고 했을 때 그것도 결국은 사고판다는 개념이 들어 있는 것인데, 제가 생각한 것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딱 나뉘진 것이 아니

72) 2003년 11월 강연 녹취록

라 우리들의 삶의 전체와 인간관계를 바꿔내자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는 농산물뿐만 아니라 다른 공산품도 마찬가지로 인간관계는 모두 팔고 사는 관계뿐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경제적인 관계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 이해가 상반됩니다. 소비자는 보다 싸게 사려고 하고 생산자는 보다 비싸게 팔려고 합니다.

결국 둘 중에 하나는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이런 대립관계가 한참 가면 어떻게 하든지 상대의 약점을 이용해서 내 이익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의 생명을 지키는 밥상을 살리는 일이 이렇게 대립적인 관계로는 불가능합니다. "소비자의 밥상살림과 농업살림은 둘로 나뉜 대립 관계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즉, '생산과 소비가 하나'라는 관점에서 출발했을 때 필요한 것을 서로 협력해서 만들어 낸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농산물 직거래 운동, 도농 간 삶의 연대, 공동체운동 등으로 표현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생산하는 사람과 소비하는 사람이 같이 모여서 생산자는 밥상을 살리고 생태계를 살리고 땅도 살리는 생명의 농업, 즉 유기농업 운동을 해나가고 소비자는 그 운동이 지속되고 확장될 수 있도록 소비를 책임짐으로써, 농업도 지키고 건강한 밥상도 지키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밥상살림과 농업살림을 하나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역할을 나눠서 하는 것이죠. 농민 생산자는 생산, 소비자는 소비 역할을 동시에 나눠서 하는 것이죠.

■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주인으로 참여하는 한살림운동

이런 생각을 갖고서 농산물 직거래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서울에서 86년 12월 4일 동대문구 제기동에 '한살림농산'이라고 직판장을 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준비를 철저히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때는 지금과 같은 회원제 운영도 아니었습니다. 직판장에다 생산물 갖다 놓고 지나가는 손님들에게 우리는 이리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생산을 한 것이니까 자유롭게 이용하시라는 정도였습니다.

20평되는 점포를 임대해서 시작했는데 한 일주일 있어도 사람들이 안 와요. 그냥 왔다가는 사람에게 한살림을 시작한다는 홍보물을 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오기도 오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이상하다 생각하고 들어오기도 하는데, 물건을

보면 얼굴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배추를 벌레가 먹어 구멍이 뽕뽕 뚫려 있으니 쳐다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놓고 파니까 '참 웃기는 놈들도 다 있다'는 표정으로 외면해 버리고 말더군요.

이렇게 처음엔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운동을 해 오면서 사람들에게 대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바쁜 세상이고 삭막하게 돌아가는 세상이지만 그래도 정말로 사람이 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다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뜻밖에 참 많았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손님이 뜸하긴 했지만 저희의 참 뜻을 이해하기도 하고 좋은 의견도 나누면서 한두 사람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일 년 반쯤 지나니까 매장을 거쳐 간 사람들이 한 1,500 세대, 그 가운데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10% 정도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번 오는 사람도 꽤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직판장에 공급한 물품은 쌀을 중심으로 해서 한 열 가지 밖에 안 되었습니다.

계속 하다보니까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의견들이 모아졌습니다. 이 운동을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다 협동조합방식이 떠오른 것이죠. 그래서 이름을 '한살림공동체 소비자협동조합'으로 했다가 '한살림 생활협동조합'으로, 그리고는 지금의 '사단법인 한살림'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협동조합방식의 한살림운동은 영리를 추구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한살림운동은 우리의 밥상과 농업을 살리고 나아가 온 누리의 생명을 살리는 운동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기초적으로 먹을거리와 밥상을 살리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살림은 밥상을 차리는 소비자와 생산하는 생산자가 같이 주인으로 참여해 함께 운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생산하는 생산자 회원, 소비하는 소비자 회원이 다 같이 회원으로 참여해 같이 꾸려나가는 형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생산자는 소비자의 생명을 책임지고 소비자는 생산자의 생활을 보장한다.

농산물을 다루다 보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쌀을 생산하다보면 생산자는 보통 9월이나 10월초에 수확을 합니다. 몇 가마를 수확하든 생산하면 이를 일거에 팔아야 영농비와 생활비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밥상 차리는 소비자가 일 년 먹을 밥상을 하루아침에 차리고 364일은 밥상 차리지 않아도 된다

면 몰라도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생산은 일시에 되는데 소비는 일 년 내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생산한 쌀을 누가 보관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초기에는 생산자 회원들이 해결했습니다. 수확이야 한 번에 하지만 관리는 일 년 내내 해야 되니까 고생이 많죠. 그러나 꾸준히 소비만 되면 힘든 것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죠.

저희들이 추구하는 바는 "생산자는 소비자의 생명을 책임지고 소비자는 생산자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생산은 계획생산을 하고 소비는 책임소비를 해나가는 역할과 관계를 설정했습니다. 이런 관계와 목표를 정하고 회원들이 모여 일을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 일단 물건이 올라오면 대금을 빨리 생산자에게 보내줘야 할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을 어떻게 조달을 할 것이냐가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를 좀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돈 가치가 사람 가치보다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가치, 생명가치가 위에 있고 그 다음에 경제 가치는 이의 보조 수단이 되는 관계로 생각을 한 것이죠. 우선 회원이 되려면 자금을 출연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출자라고 하는데, 맨 처음에는 5만원을 투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지금은 3만원을 출자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인 자금은 물품구입, 사무실 얻는 돈, 배달차량 구입, 기타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재정으로 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협동조합을 만든 게 88년 4월 21일이었습니다. 그때 참여한 회원 수는 70여명이었고 모인 돈은 약 78만원이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죠. 지금 현재 회원 수는 매년 늘어나 2003년 11월말 현재 서울에만 4만9천 세대(전국적으로는 7만3천여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 회원들이 출자해서 모은 돈은 45억 정도에 이릅니다. 출자금에 제한은 없지만, 회원이 되려면 3만 원 이상의 출자금은 내야 합니다. 출자금이기 때문에 서울에 살다가 이사를 간다든지 외국으로 이민을 간다든지 해서 탈퇴를 하게 되면, 출자한 돈을 환부를 해 드립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살림살이를 꾸린 후에 매년 결산 총회를 하는데 차량비, 인건비 등 운영비와 모임이나 산지 방문 등 행사하는데 드는 비용 등 전체 예산을 다 제하고 남은 돈은 다시 회원들에게 배당을 합니다. 완전히 공개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필요한 자금은 충당을 하고 다음 해의 생산과 소비 계획을 짭니다. 생산 계획을 예로 들면 쌀농사는 가을에 추수하고 12월 중에 생산자와 소비자가 같이 모여 의논을 합니다.

증가한 회원 수를 감안하여 내년도엔 쌀 소비량이 몇 천 가마가 될 것인지 계산을 합니다. 그게 곧바로 생산계획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생산계획량을 생산자 회원들이 의논을 해서 산지를 배정하고 계획생산을 합니다. 일 년이 지나 수확한 쌀을 도시에 있는 소비회원들이 책임소비를 합니다. 그런데 계획한대로 책임소비가 딱딱 들어맞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여러 사정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3천 가마 예상했는데 살림살이를 해보니까 2천9백 가마만 소비를 할 수도 있고, 또 거꾸로 농사가 안 되어서 2천9백 가마 밖에 생산을 못해 100가마가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한 예에 불과합니다만, 모든 물품이 다 그렇습니다.

17년 전에 출발했을 때는 10개 품목밖에 안되었지만 현재는 생산력도 높아졌고 품질도 높아져 많이 발전했습니다. 처음 3~5년 계속 노력을 해오다 보니까 다행스럽게도 땅도 살아나고 생산도 증가됩니다. 그런걸 보면 ‘참 자연이라는 것이 이렇게 고귀하구나, 생명이라는 것이 이렇게 강하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는 수확량이 떨어지지만 지력이 자꾸 회복되니까 생산량도 늘어납니다. 안전성뿐만 아니라 품질도 굉장히 향상됐습니다. 요즘은 쌀 같은 경우는 시중에 나오면 다른 일반미 못지않게 잘 나갑니다.

초기에는 형편이 없었습니다만 겉보기에도 훨씬 나아졌습니다.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개선시켜나가다 보니까 지금은 가공품까지 합쳐서 일 년에 약 450여 가지의 물품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도시 소비자 회원들은 한살림 생산자회원들이 생산해 내는 것만 가지고도 시장을 보지 않고 밥상을 차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산하는 삶과 소비하는 삶이 연계를 긴밀히 해가면서 하다보니까 하나하나 목적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딸기가 한창 익을 때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루 자고 나면 100kg 따는 것이 200kg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남은 100kg을 한정된 소비자 회원이 갑자기 먹을 수가 없잖아요. 딸기는 며칠만 두면 망가지기 때문에 가공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딸기잼을 만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공품들이 자꾸 개발되고 늘어나서 350여 가지가 된 것입니다.

■ 소비자와 생산자가 서로 나눔의 행사를 통해 신뢰를 돈독히 한다.

이런 과정이 여러 해 동안 진행되다보니까 사람들의 생각이나 관계도 달라집니다. 현재 한살림 회원들은 일반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지 못합니다. 이 물건을 사

도 괜찮은 것인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희 소비자 회원들은 생산자 회원이 생산한 것에 대해서 이런 불안감을 갖지 않습니다. 믿고 안심하고 사는 것이죠.

저희는 '한살림'이라는 소식지(물품정보 포함)를 한 달에 두 번씩 발행합니다. 시기마다 나오는 생산물과 가격의 변동, 그리고 이 품목은 누가 만들었다는 것이 이 소식지에 나옵니다. 직접 찾아가던지 전화를 하던지 해서 확인을 합니다. 이런 과정들이 축적되니까 불신이 걷힙니다. 일단 약속이 되면 바로 생산 공급이 되기 때문에安心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와 농촌을 따로따로 별개의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생각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 관계도 바뀝니다. 만약에 태풍이 몰아치면 소비자 회원들이 생산자 회원에게 전화를 합니다. "태풍이 왔는데 사과 어떻게 됐느냐? 다 떨어지지 않았느냐? 홍수 때문에 벼가 어떻게 됐느냐? 사람 다친 데는 없느냐?" 식으로 자기 일처럼 걱정하고 안부까지 묻습니다. 도농공동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쌀 생산하는 지역은 5만여 개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이 부락들은 삶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현재 우리의 농업이 이런 식으로 계속 도시에 의해 파괴해지면 농촌사회가 깨집니다. 그러면 남아 있는 공동체마저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농촌과 도시는 전혀 다른 별개의 사회가 아니라 삶을 얼마든지 함께 하고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그것은 단지 물품만이 오고가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직접 왕래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생산자는 농사를 지으면서 도시에 있는 우리 회원들 얼굴을 떠올립니다. 도시의 소비자 회원들은 쌀이든 수박이든 딸기든 수확물을 먹을 때, 우리 생산자 회원들의 얼굴과 삶을 생각합니다.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직접 생산지를 방문해 생산자를 만나고 농사체험도 하고 서로를 알아 가면 저절로 생각이 나게 됩니다.

직접 해보면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느끼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10여 년 전만 해도 소비자 회원들이 벼 베기를 많이 했습니다. 수확할 때가 되면 소비자 회원들이 낫을 전부다 쥐고 직접 거둬들입니다. 평생 처음 낫질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기억에 남고 생산자의 삶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수확 철에 논에서 메뚜기가 생겨나면 아이들하고 메뚜기 잡으러 오라고 연락을 합니다. 농약 준 논에는 메뚜기가 별로 없지만 저희 생산자 회원들은 모두가 유기

농을 하기 때문에 그때만 되면 메뚜기가 천지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한바탕 어우러져 노는 거죠. 그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또 배추 등 채소를 심어 봤는데 일손이 부족해 자꾸 풀이 자라면 김매기를 도와주러 갑니다.

또 하나 음력 5월이면 생산자와 소비자가 한자리에 모여 과종의 기쁨을 나누고 한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단오잔치한마당'을 엽니다. 5월 단오는 사실 모 심는 문화 축제였는데 지금은 다 없어졌거든요. 이것을 다시 살리려는 것이죠. 그래서 89년부터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그 때가 되면 도시 소비자들이 어느 생산지 하나를 정해서 갑니다. 옛날처럼 그네도 만들고 여러 놀이도 즐기며 마을 사람들과 소비자 회원들이 하나가 되어 단오 문화행사를 합니다. 이런 문화행사는 더욱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그래서 한번 행사에 참여하고 나면 사람들 생각이 많이 달라집니다.

또 추수가 끝난 후 10월말이 되면 도시에서 농촌의 생산자를 초청해 수확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한 해 동안 소비자와 생산자가 서로를 격려하는 자리인 '한살림 가을걷이 잔치 한마당'을 엽니다. 말하자면 장터 같은 형태죠. 각지 생산자들이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갖다 전시도 하고 음식을 만들기도 해서 소비자들과 함께 무사히 수확을 할 수 있게 한 모든 이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이것도 89년도부터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만남의 행사는 우리의 전통문화를 곁들여 합니다. 우리 문화의 의미도 되새길 수가 있고, 재밌게 장을 벌립니다. 우리가 처음 이런 장터를 할 때는 다른 데서 하는 것을 못 봤는데 요즘은 많은 곳에서 장터가 열리고 있습니다. 참 좋은 일이죠. 그 뜻이 변질만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한살림에서는 산지 방문과 도시의 장터 행사라는 나눔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살림이 하고 있는 중요한 활동 중 하나입니다.

이와 같은 운동은 우리 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후세들에게 좀 일찍 빌려 쓰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때문에 우리 자식들에게도 그런 생각들을 일러줘서 그들이 살아갈 환경과 생존 터전을 제대로 가꾸도록 가르쳐 주어야 하죠. 그것이 미리 빚내서 쓰고 갈 사람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도시 아이들은 자연에서 멀어져 있어 정서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귀한 아이들을 위해 저희는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여름과 겨울 방학 때 '한살림 생명학교'를 열고 있습니다. 생산지를 한곳 정해서 3박4일

동안 생활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논밭 시기엔 논도 매보고, 풀도 뽑아보고 감자도 캐보고, 소꼴도 베어서 소에게 먹여보기도 하는 등 농사 체험도 하고, 생태관찰도 하고, 스스로 음식을 만들어 보기도 하면서 협동생활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됩니다. 자연을 온몸으로 체험해 보는 기회는 또한 아이들의 정서함양에 매우 유익합니다.

그런데 그곳을 갔다 온 아이들은 자연에 대한 이해가 어른들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핵심적이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연 속에서 함께 뒹굴고 놀아 본 아이들은 친구 관계도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혼자서만 놀던 아이도 친구들과 같이 놀 줄 알게 되기도 하죠.

■ 먹을거리운동은 공동체운동과 환경운동으로까지 확대됩니다.

어쨌든 우리의 농업이 잘 보존되고 발전되어서 식량자급을 완전히 이뤄내야 하겠지만 워낙 국토가 좁아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쌀, 보리, 밀, 콩, 옥수수 같은 기본적인 기초식량은 충분히 자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을 생산자에게만 맡겨서는 안 되고 우리 모두의 삶이 농업에 대한 협력적인 삶으로 나아가야만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농업이 건강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이 돼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밥상도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흙 자체도 죽어 결국에는 생산하고 싶어도 생산이 안 되는 심각한 사태가 올 것입니다. 비료와 농약만 마구 치면 땅은 얼마든지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맘껏 생산해 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화학비료에 의존하던 농사는 더 이상 증산이 되지 않고 땅만 망가져요.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 아무리 비료를 쏟아 부어도 되질 않습니다. 고작 30~40년 만에 이런 상태로 와버렸어요.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국민들에게 필요한 기초식품 생산은 농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나라 전체로 보면 이것이야말로 중대한 안보 문제입니다. 북한 보세요. 안보가 보장되고 있습니까? 철통같아 보이던 안보가 먹을거리 때문에 하루아침에 사면초가가 되었죠. 그와 같은 먹을거리 기초식품을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는 농업방식이 보급되고 정착이 되어야 합니다. 포괄적으로 '환경보전형 농업'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도시와 농촌이 하나로 힘을 모아내는 공통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이를 실현하는 데에는 생산자들이 할 몫이 있고 소비자들이 할 몫이 있습니다. 이 몫들을 서로 나눠서 열심히 해나가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살림의 경우가 바로 한 예입니다. 여러 가지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뭐든지 처음 하려고 하면 힘도 들고 발전은 느리지만 꾸준히 해나가다 보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도 17년 전 처음 문을 열었을 때는 호소를 해도 손님이 없었습니다. 그저 친구들이나 와서 술이나 먹고 갔고 저희도 화가 나서 술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훌륭한 분들이 많이 모여서 어느새 73,000여 세대라는 규모가 됐습니다.

한살림을 이용하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좀 복잡하죠. 일주일에 한번 정한 날에 공급을 해줍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즘 얼마나 편리한 세상이 되었습니까? 조금만 나가면 없는 물건 없이 빠르게 진열되어 있는 백화점, 대형 슈퍼마켓들이 즐비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편리해졌지만 저희는 주문을 해도 날마다 갖다 주지도 않고 4만 원 이상이 아니면 공급비용을 더 받아요. 몇 년 전에는 매장도 많지 않았고 5가구 이상 공동주문을 하지 않으면 아예 갖다 주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 까닭은 단지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게 단지 건강한 먹을거리를 먹는 데에 있는 게 아니라 모두 다 함께하는 공동체적인 삶이기 때문에 도시 사람들 간에도 서로 간에 나누는 문화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에서였죠. 그런데 현재 도시의 문화라는 게 어떻습니까? 서로가 삶을 나눌 기회는커녕 파편처럼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은 20여 년 만에 서울에 올라왔는데 제가 떠날 때는 서울이 이렇게 않았거든요.

아파트가 엄청나게 생겼고, 길들이 엄청나게 넓어졌어요. 그런데 사실 아파트의 옆집과 옆집 사이의 두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하찮은 두께가 대단한 철옹성이예요. 옆집에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도 옆집 사람과 인사 정도는 하고 사는데 서로 부딪히는 기회가 없어 진짜로 몇 달에 한 번씩 보는 것 같아요. 그래 얼마 전에 복도에서 만났는데 서로 나눈 인사말이 '오랜만입니다'예요. 바로 옆집 사람끼리 이런 인사말이 성립할 수 있는 건지 참으로 의문입니다.

한 동에 100여세대가 사는데 같이 이웃하며 살면서도 이웃이 없어요. 다 쪼개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헤어내기 위해 공동구매라는 공동체를 만든 것입니다.

이걸 하니까 물건을 주문하려면 옆 사람들을 찾는 것입니다. 처음 만나 어색하지만 자꾸 공동구매를 하다보면 자주 접촉해야 되고 그러다보면 친한 사이가 됩니다. 친한 사이가 되니까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기쁨도 얘기하고 고민도 얘기하고, 그러다 좀 더 발전해서 서로 취미활동을 같이 한다든가, 아이들 글쓰기, 그림그리기 등을 부모가 돌아가며 가르쳐 준다든가 하면서 자체 모임을 만들어 갑니다. 그 모임이 커지면 지역공동체가 되고 지역공동체가 좀 커지면 지부가 됩니다. 그 지역에 사는 회원들이 지부를 만들어 말하자면 독립을 하는 것이죠. 현재 한살림서울생협에는 지부가 다섯 곳 있고 공동체(지역모임)는 많습니다.

한살림 회원이 되면 공동체로 이용할 수도 있고, 개인으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5가구 이상이 모여야 회원가입이 되었지만, 97년부터는 개인 가입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3가구 이상이면 공동체를 이룰 수 있고, 이용금액에 따라 우대혜택도 주어집니다. 그리고 1회 이용금액은 4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그래야 공급하는 비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7년 전만 해도 강남 쪽에 가면 길은 넓고 차는 없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급하는 형제들이 차를 몰고 나가면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았죠. 이제는 너무 많이 막혀 일하기가 곤란할 정도예요. 그리고 주부들의 사회활동기회가 자꾸 늘어나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문도 못하고 개인 주문도 못하는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 지역점포를 만들었습니다. 2003년 현재 고양을 포함한 수도권에만 파천, 분당, 일산, 전농 등 19곳에 있습니다. 공동주문, 개인주문, 매장판매 등 3가지 형태로 물품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되 중심은 공동주문 공급방식입니다.

저희 소비자 회원들은 또한 여러 가지 환경운동도 합니다. 90년부터는 우유팩을 모아 1주일에 한번 공급 나갈 때 모아 와서 그것을 제지회사에 가서 휴지로 만들어 재활용했습니다. 이후에 환경부에서도 분리수거 한다고 하여 계속 할 필요가 없어서 그만두었습니다. 용기도 재활용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재활용을 합니다.

산지에서 나온 물품 병을 회원들이 깨끗이 닦아 다시 물류센터에 보내면 물류센터에서 수집해서 다시 산지로 보냅니다. 폐식용유 같은 것도 하수구로 흘려보내면 한강물이 굉장히 오염이 되기 때문에 분리수거하여 비누를 만들게 되었고, 나중에는 '협성생산공동체'라는 곳에서 젊은 노동자들이 모여 재생비누를 생산하

는 공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물건은 다시 한살림에서 물건을 받아다 회원들에게 공급합니다. 이런 환경운동 및 재활용운동을 하다 보니 행정부처에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음식물 찌꺼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에게 조금 지원을 해주면 퇴비나 사료로 재활용하는 일을 맡겠다고 제안하게 된 것이죠. 몇 군데 아파트단지를 선정하여 그 곳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찌꺼기를 직접 수거하여 닭과 오리를 키우는 농장으로 보내어 바로 사료로 직접 활용하는 실천운동도 했지요. 이렇게 직거래 운동은 환경운동으로 나아가고 또 정부를 바꾸는 일로도 연결이 되었습니다.

■ 생명가치관에 따른 환경농업만이 살길

한살림 운동은 밥상차림 운동으로부터 시작했지만 밥상살림과 농업살림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밥상살림과 농업살림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운동을 생명살림 운동으로 변화시켜가고자 노력했습니다.

세상은 온통 물질과 돈과 출세에 모든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생명가치에 중심을 두고 생명의 세계관에 입각하여 삶을 바꾸어 가고 자연과 인간의 관계도 바꾸고 인간과 인간의 사회적 관계도 바꾸고 농사도 그런 세계관에 따라 짓는 생명살림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처음 시작할 때 유기농산물을 취급한다니까 관이나 협동조합, 농협 등에서 상당히 백안시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 생각이 좀 빠딱하지 않느냐, 속이 빨갛지 않느냐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은 세상이 참 많이도 변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이 살아남아 국제적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가격경쟁 밖에 없다고들 합니다.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결국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환경도 살리고 국민의 건강도 보장해 주는 농업, 즉 질적으로 맛도 뛰어나고 안전성도 있는 농업, 이것이 바로 앞으로 미래를 열어갈 농업입니다.

지난 98년 11월 14일 '환경농업 육성 보전을 위한 환경농업육성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동안 환경농업육성을 위해선 법이 필요하다 해서 관련 단체들이 모여 이뤄냈습니다. 99년 1년 동안 환경농업육성법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시행령을 작업했습니다. 작년 11월 14일 날 시행령이 발표되어 이제 환경보전형 농업을 육성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정책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었습니다.

14년 전만 해도 우리의 일에 대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았는데 지금은 정부가 함께 나서서 법도 만드는 그런 세상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위 분들도 직거래 운동에 대해 자문을 구하면 필요하기는 하지만 고생스럽고 가능성이 있겠냐 하며 말리기만 했습니다. 그런 일을 저희들 같은 미련한 사람이 그야말로 소처럼 미련스럽게 그 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한강의 둔치 같은 넓은 공간에서 직거래를 위한 문화장터 한번 열자고 해도 허락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장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운동을 지혜를 갖고 열심히 해 나가면 방방곡곡으로 퍼져 나갈 수 있지 않겠냐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운동이 산업주의에 의해 빚어지고 있는 여러 절망적인 문제를 극복할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생명학의 미래를 생각한다⁷³⁾

지구 살림살이를 위한 생명학

이기상 (한국외국어대 철학과)

1. 우리 시대의 화두, <생명>

1) 60억 인류의 평화로운 더불어 삶

21세기가 시작되었다. 새로운 천년의 시작을 지구촌의 사람들은 흥분과 기대 속에 전 지구를 첨단 매체로 연결한 요란한 축제와 함께 시끌벅적하게 맞이하였다. 한 단계 성숙한 세계시민으로서 인종과 신념 그리고 문화의 차이를 넘어서 모두가 함께 더불어 평화롭게 사는 지구촌 건설을 다짐하는 숙연한 계기도 되었다. 그런데 그런 평화의 분위기는 채 일 년도 넘기지 못하고 여지없이 깨지고 말았다. 세계기술문명과 자본주의시장의 상징이며 심장인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건물이 테러를 당해 낡은 조립식 건물처럼 힘없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사건이 일어났다. 지구촌의 엘리트임을 자랑하는, 수십 개국에서 선발된 수천 명이 넘는 자본주의의 첨병들이 목숨을 잃었다. 평화를 다짐하던 21세기 초의 분위기는 온데간데없고 전쟁의 기운과 테러의 공포가 전 세계를 휩싸고 있다. 최첨단 무기들이 효율적으로 인간들의 목숨을 빼앗기 위해 집결되고 있다. 최첨단 과학기술이 몽땅 동원되어도 전 세계에서 기아로, 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인간생명을

73) 출처: 2003 세계생명문화포럼

살리기에 역부족인데 오히려 그 반대로 사람목숨을 빼앗는 데 총동원되고 있는 것이다.

21세기로 시작된 새 천년은 그렇지 않아도 인류에게는 그 미래가 불안한, 많은 문제를 배태하고 있는 불확실성의 시대이다. 지구가 과연 새로운 천년에도 인류에게 안정된 삶의 공간을 허용할 수 있을지 마저 의심되는 조짐이 사방팔방에서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지구는 이미 인간이 온갖 지혜를 다 짜내도 60억 인구가 평화롭게 더불어 살아나가기에는 너무나 비좁고 모든 면에서 부족한 공간이다. 그 동안 인간이 지구 생태계에 저질러 온 온갖 형태의 이기적 만행이 이제는 인간의 생명줄을 조여오고 있는 상태이다. 지구 전체를 위협하고 있는 드러난 절박한 문제들만을 대충 열거해도 다음과 같다. 인구과잉, 오존층파괴, 지구온난화, 생물의 멸종, 유전적 다양성의 상실, 산성비, 핵물질에 의한 오염, 열대우림의 벌채, 습지파괴, 토양침식, 사막화, 홍수, 기아, 호수와 하천과 강의 범람, 지하수의 오염과 고갈, 연안과 강 하구의 오염, 산호초의 파괴, 기름유출, 어류의 남획, 쓰레기 매립지의 확대, 유독성 폐기물, 살충제와 제충제 남용에 의한 중독, 작업장에서의 유해물질 노출, 도시의 과밀화, 재생 불가능한 자원의 고갈 등이 그것이다.⁷⁴⁾

그런데 이러한 이 시대의 절박한 문제들이 깊이 고찰해볼 때 서로 떼려야 뗄 수 없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세계 인구를 적절한 선으로 유지하는 과제는 전 세계적으로 빈곤이 줄어들 때에만 가능하다. 그리고 동물과 식물종의 대량 멸종사태는 지구의 빈민국들이 지고 있는 엄청난 외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계속될 것이다. 자원고갈과 환경파괴는 빠른 속도의 인구증가와 결합되어 지역 공동체의 몰락과 민족과 종족간의 갈등과 폭력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21세기 초 인류가 부대끼고 있는 이러한 제반 문제들은 인류가 처한 하나의 커다란 위기가 여러 다른 측면에서 파악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⁷⁵⁾ 그렇게 총체적으로 문제에 접근할 때에만 인류가 놓인 위기에 걸맞는 대처 방안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74) 참조 존 포스터, 『환경혁명. 새로운 문명의 패러다임을 찾아서』, 조길영 옮김, 동쪽나라, 1996, 29/30.

75) 참조 프리츨프 카프라, 『생명의 그물』, 김용정/김동광 옮김, 범양사 출판부, 1998, 18. 비토리오 회슬레, 『환경위기의 철학』, 신승환 옮김, 서강대 출판부, 1997, 22/23, 31/32, 42~44.

2) 생태문제와 발상의 전환

21세기 인류가 부딪히고 있는 최대의 난제는 <생태문제>와 <인구문제>이다. 인간 계놈 프로젝트의 성공을 자축하는 삼패인 소리가 요란한 현금 이 문제는 더욱 더 절박한 인류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미 20세기 중반부터 이들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와 대안모색이 수행되어 왔다. 이 문제를 순전히 기술과 과학의 문제로 보고 그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일군의 사상가들과 과학자들도 있지만 많은 지성인들이 과학 내지는 기술의 문제를 과학 또는 기술로 풀 수는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그 동안 새로운 접근방법, 새로운 해결방법은 발상의 전환, 의식의 전환, 생활방식의 전환에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그 중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사상의 하나가 자연에 대한 인간의 태도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자연에 대한 지금까지의 정복자적인 지배의 태도를 바꾸어 자연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며 함께 진화해나가야 한다는 소위 <공생과 공진화>의 사상이다. 그러기 위해서 인간은 무엇보다도 먼저 자연에 대한 시각, 즉 자연을 보는 눈을 바꾸어야 한다. 자연을 더 이상 대상화시켜 인간이 마음대로 파헤쳐 이익을 극대화해도 되는 에너지 저장창고쯤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자연은 인간뿐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이 생명의 자양분을 받고 있는 텃줄이며 생명의 텃밭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새 천년을 맞이하여 인류가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보다도 <생태문제>이다. 인간이 또 다른 천년을 맞이할 수 있으려면 자연에 대한 관계맺음의 방식이 바뀌어야 하고 우주 안에서의 인간의 사명에 대해서도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 발상의 전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간의 인식론적 사유틀이 <존재(있음)에서 생명(살아있음)>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동서양의 대화를 통해 <생명과 더불어 철학>하면서 인류의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려고 시도해야 한다.

인류는 지금 전환기에 서 있다. 정보화 시대, 세계화 시대라는 말로 지칭되는 지구촌 시대를 살고 있다. 세계가 하나가 된 지구촌 시대의 최대의 과제는 <더불어 삶>이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평화롭게 더불어 살아야 할 뿐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다른 생명체와도 서로 살리며 더불어 살아야 하고 생명이 없다고 간주되고 있는 무생물하고도 조화와 균형 속에 더불어 함께 살아야 한다. 이렇듯 지구 위의 모든 존재하는 것이 서로 평화롭게 더불어 살아야 하는 과제를 슬기롭게 떠맡아가야 할 21세기의 최대의 화두가 <생명>인 것은 우연이 아니다.

20세기말부터 철학에서의 핵심적인 논의도 <생태문제> 내지는 <생명문제>를 맴돌고 있다. 21세기 제일철학은 당연히 <생태철학> 또는 <생명학>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정도이다. 20세기말부터 생태 내지는 생명에 대한 글들이 많이 출간되고 있다. 인식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등장하는 <생명문제>는 그 동안 소외되어 왔던 동아시아의 전통에 대한 관심도 불러 일으켰다.⁷⁶⁾ 생명을 존중해온 동아시아적인 생활방식 또는 삶의 문법이 위기에 놓인 지구와 인류를 구원해줄 대안적 사상의 실마리를 제공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서 그렇다. 더욱이 이제 지구 위에서의 인류의 삶은 세계화 또는 지구화로 인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유대와 연대 속에서 공동의 문제해결을 필요로 하는 시점이다. <생명>에 대한 논의에 한국의 사상가들이 세계적인 사상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자신들의 주장을 펼 수 있게 된 것은 한국의 전통적인 사상 배경 때문이다.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의 전통적인 <살림살이>의 생활방식과 사유자세를 현대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내는 대안적 사상으로 발전시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 서양 사상가들로부터 생명사상을 배워야 할 처지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이 땅에 사는 철학인들이 21세기를 위한 새로운 생태학, 새로운 인간학으로 <생명학>을 개발해서 세계철학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와 책무가 생겨나는 것이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동서철학의 화합, 종합, 융합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 한국의 철학인들이 떠맡아야 하는 세계철학사적인 임무는 자명하다. 우리가 간직해온 동양사상의 바탕 위에서 현대의 서양사상을 비판적 주체적으로 수용하여 오늘날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바로 그것이다.

76) 국내 학자들의 환경 또는 생태문제에 대한 저술들이 많이 출간되었다. 참조 구승희, 『에코필로소피. 생태·환경의 위기와 철학의 책임』, 새길, 1995. 길희성 외, 『환경과 종교』, 민음사, 1997. 김명자, 『동서양의 과학전통과 환경운동』, 동아출판사, 1991. 김성진 외, 『생태문제와 인문학적 상상력』, 나남출판, 1999. 김옥동, 『한국의 녹색문화』, 문예출판사, 2000. 김정옥, 『위기의 환경 어떻게 구할 것인가?』, 푸른산, 1992. 김종철, 『간디의 물레. 에콜로지와 문화에 관한 에세이』, 녹색평론사, 1999. 김소희, 『생명시대』, 학교재, 1999. 김지하, 『생명과 자치』, 숲, 1996. 문순홍, 『생태위기와 녹색의 대안』, 나라사랑, 1992. 우리사상연구소 편, 『생명과 더불어 철학하기』, 철학과 현실사, 2000. 이진우, 『녹색사유와 에코토피아』, 문예출판사, 1996. 장희익, 『삶과 온생명』, 숲, 1998. 진교훈, 『환경윤리. 동서양의 자연보전과 생명존중』, 민음사, 1998. 최승호, 『한국 현대사와 동양적 생명사상』, 다운샘, 1995. 한국불교환경교육원 엮음, 『동양사상과 환경문제』, 모색, 1996.

2. 경쟁 이데올로기의 한계와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

서양 사람들의 논리는 한마디로 죽음의 논리다.⁷⁷⁾ 그들은 허울 좋게 “소비는 미덕이다”라고 외치며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인류의 사활이 걸려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비가 미덕이 되기 위해서는 욕망을 부추겨야 한다. 없는 욕망도 만들어내 필요 없는 물건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구입하도록 보이지 않게 조장해야 한다. 이것이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간단한 생산과 소비구조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기에 바쁘다. 우리도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남을 밟고 올라가려 한다. 여기에는 살림의 논리, 상생(相生)의 논리가 들어설 틈이 없다.

서양 사람들은 이런 무한경쟁의 논리를 다윈의 진화론에서부터 배웠다. 다윈의 진화론은, 서양인들이 자연의 생태계에서 보고 배운 삶의 논리다. 그들은 자연의 생물들이 살아가는 실상을 그렇게 보았으며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진화의 원리를 끄집어내 자연도태, 적자생존, 우생열패의 원칙을 이론으로 정립해낸다. 이들은 그들이 발견한 이 논리를 인간사회에 적용하여 최고만이 살아남는다는 <경쟁의 논리>로 만든다. 그러기에 최고가 아닌 사람은 희생된다. 아니 마땅히 희생되어야 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라고 한다. 이런 논리는 차가운 계산의 논리, 이성의 논리며 매우 합리적이다. 이런 논리대로 라면 80%의 사람들은 못살게 되어있다. 나만 이 80%안에 들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리스본 그룹은 자신들의 연구결과 보고서인 『경쟁의 한계』에서 경쟁의 논리가 물고 온 폐해를 이렇게 비판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경쟁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시대는 사사로운 감정이나 휴전이 용인될 수 없는 전쟁터나 마찬가지다. 거기에서는 ‘타인=경쟁자’라는 등식이 성립된다. 인간의 삶이나 조직의 활동 자체가 생존을 위한 ‘서바이벌 게임’으로 전락하고 만다.⁷⁸⁾

지금 지구촌은 무한경쟁을 외치는 새로운 경쟁시대에 들어서 있다. 이러한 무한경쟁 시대에는 ‘생존 우선’이라는 현실논리가 지구촌 ‘공동번영’이라는 이상적 목표보다 훨씬 더 절실한 과제로 받아들여진다. 문제는 이 같은 무한경쟁이 인류 전체의 생존마저 위협할 수 있을 만큼 심화되고 있다는 데 있다. 오늘날 지구촌 국가들은 대부분 자유시장경제를 지도이념으로 채택하고 있다. 또 국경을 초월한 ‘세계적’ 자본주의가 ‘민족적’ 자본주의를 빠른 속도로 대체해 나가고 있다. 표면

77) 참조 김지하, 『생명과 자치』, 200~202. 김지하, 『틈』, 33.

78) 참조 리스본 그룹, 『경쟁의 한계』, 채수환 옮김, 바다출판사, 2000, 12.

적으로는 적어도 국제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개인은 물론 국제기구 같은 집단안보체제도 끊임없이 위협에 노출되고 있다. 그 이유는 남북분열이 선진국과 극빈국의 경제격차를 더욱 고착시켰기 때문이다. 세계 인구 중 부유층에 속하는 상위 20%와 빈곤층에 속하는 하위 20%의 격차는 지난 30년 동안 계속 확산돼 가고 있는 추세다. 완전고용 정책이 더 이상 존재가치를 상실한 것도 인류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사회보장제도의 범위가 대폭 축소되면서 개인은 이제 자신의 생존을 위해 혼자 투쟁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다.⁷⁹⁾

세계화 시대에 더 이상 근대화 시대에서 통용되었던 삶의 원칙은 적용될 수 없다. 올리히 벡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 시대는 제1 근대와는 다른 제2 근대라고 규정하며 제2 근대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한다.⁸⁰⁾ 그러면서 “제2의 근대의 관건을 이루는 질문에 대한 답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한탄한다.⁸¹⁾ 그렇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여야만 21세기에 평화가 있을 것이다. 프리츨프 카프라는 『생명의 그물』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할 수 있다며 “발상의 전환, 인식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⁸²⁾ 이 말은 지금까지의 경쟁의 논리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실행해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는 세상을 보는 눈, 사람을 보는 눈을 바꿔야 한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머리를 굴려 계산해서 이득이 되는 것만을 하려는 약삭빠른 생활방식을 버리고 존재하는 모든 것을 영성으로 아우르고 감싸 보살피는 사유태도를 배워 익혀야 한다.

79) 참조 리스본 그룹, 같은 책, 95/6. 리스본 그룹은 경쟁 이데올로기의 한계를 지적한다. 그들에 의하면 경쟁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불평등 구조를 심화시킨다는 사회적 반향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 기능 자체의 구조적인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들은 과도한 경쟁의 부정적인 효과들을 다음과 같이 열거한다. 1. 인간이나 인적 조직보다 도구와 기술적 시스템에 더 많은 비중을 두게 된다. 인간은 생산자와 소비자로서만 그 자치를 인정받게 된다. 2. 단기적인 금융비용에 우선권을 두게 되고 파잉생산과 빈부격차를 확대시킨다. 3. 국내시장보다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 집중 현상이 벌어진다. 그 결과 지구촌 차원의 과점적 시장구조가 탄생한다. 4. 지역적·계층별 불평등이 조장된다. 배제된 지역에 대한 무관심이 일어난다. 5.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구촌 환경파괴가 가속된다. 6. 노동규제와 사회 복지프로그램이 악화되거나 서서히 해체된다. 대량 실업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된다. 7. 공공부문의 영역이 축소되고 대의민주주의가 훼손된다. 8. 개인, 기업, 도시, 국가에서 경쟁력이 없는 행위자는 더 이상 역사의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단지 ‘패배자’라는 이유만으로 존재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참조 리스본 그룹, 『경쟁의 한계』, 146.

80) 참조 올리히 벡, 『지구화의 길』, 30, 203, 252, 290.

81) 참조 올리히 벡, 같은 책, 290.

82) 참조 프리츨프 카프라, 『생명의 그물』, 19이하.

20세기 위대한 영성가인 마더 테레사는 “나눔 없이 평화 없다”고 하였다. 지금 지구상에 평화가 없는 것은 나누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잘 사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나누려는 나눔의 정신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 같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 인구폭발의 문제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60억의 인구가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는 해법은 결코 경쟁의 논리, 죽음의 논리는 아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위대한 영성가들에게서 무언가를 배워야 한다. 21세기를 예비하면서 자신의 삶을 영성적으로 산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아시아는 그 어느 대륙보다 영성적인 분위기가 삶의 밑바탕에 깔려 있다. 그러기에 21세기 위대한 영성가는 아시아권에서 나올 것이라 한다.⁸³⁾

우리는 아래에서 발상의 전환을 위한 실마리를 한국 민중들의 전통적 살림살이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인간관과 그 생활방식에서 찾아보도록 한다. 만해 한용운 선생이 서양의 근대화에 대한 우리 전통의 대응책으로서 평등주의와 구세주의를 내세운 것은 아직도 유효하다. 자유와 평등의 이념 아래에서 모든 속박과 굴레로부터의 해방을 외치며 투쟁하여 자유와 평등을 쟁취한 근대인은 지구촌 시대를 맞아 이제 시야를 더욱 확대시켜야 한다. 개인인 자신의 안녕이나 동족인 자기 민족의 평안만을 추구하던 개인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세계관과 인간관에서 벗어나 지구 위의 모든 인류, 더 나아가 앞으로 태어날 미래의 인류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지는 성숙한 세계시민으로 거듭나야 한다. 더 나아가 지구 자체의 유지와 보존에 대해서도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인간이 스스로를 우주 진화의 꽃으로 자처한다면 우주 진화의 방향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우주인으로서 지구 살림살이에도 깊이 관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지 인간이라는 종의 평안만을 염려해서는 안 되고 지구 위의 모든 생물과 무생물에도 관심을 쏟아야 한다.⁸⁴⁾

83) 민족적인 심성을 잘 살펴보면 한국인들만큼 종교적인 심성이 강한 민족도 많지 않다. 그리고 나름대로 결단력과 용기도 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경쟁의 논리, 자본의 논리에 의해 죽어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들이 버린 우리의 전통, 역사, 문화 속에서 현대 인류가 필요로 하는 무언가를 찾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서양 사람들이 그것을 대신 보고 찾아주기를 바라며 기다리다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지금 세계가 놓여 있는 문제를 우리가 직시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어떻게든 우리 스스로가 찾아야 한다.

84) 지은이는 오래 전부터 우리의 사유 또는 인식의 틀을 이성 중심, 인간 중심, 존재 중심에서부터 생명 중심, 영성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도출되어 나오는 가치관을 <살림, 섬김, 비움, 나눔>이라고 제안하였다. (참조 이기상, <21세기 기술시대를 위한 새로운 가치관 모색>, 『가톨릭 철학』 (창간호)(1999), 한국가톨릭철학회, 68 ~

3. 인간중심에서 <생명>중심으로!

지금으로부터 백 오십 년 전의 조선 사회를 지탱하던 근본가치관은, 인의예지(仁義禮智)의 유교적 근본가치에 바탕한 충(忠)과 효(孝)가 중심에 있는 삼강오륜(三綱五倫)이었다. 그로부터 백 오십 년이 지난 지금 한국사회를 받치고 있는 근본가치는 더 이상 충과 효 같은 유교적 덕목이 아니다. 20세기 후반부터 우리 사회에서도 서구사회를 지배하는 자유, 평등, 인권, 사회정의라는 기본가치가 아무 의심 없이 통용되고 있다. 달라진 가치관에 따라 한국 사회는 몰라보게 변했고 많은 면에서 긍정적으로 발전되어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회가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한번 이러한 서구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끌고 가는 방향이 어디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20세기 초반 많은 서구의 학자들이 서양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퍼트리느 삶의 방식과 사유태도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막스 베버(Max Weber, 1864~1920)는 엄청난 문화발전의 최종 단계에 기계화된 화석 인간이 나타날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그는 그러한 ‘최후의 인간’에게는 다음과 같은 말이 사실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정신이 없는 전문가, 가슴이 없는 욕욕주의자. 이러한 쓰레기 같은 인간이 지금까지 인류가 도달한 적이 없는 그러한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고 자부할 것이다.”⁸⁵⁾ 베버가 말한 ‘가슴이 없는 욕욕주의자들’이란 표현은 오늘날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삶의 상황을 적절하게 예견한 표현이다. 그가 가슴이 없다고 한 것은 물질이 주는 감각적 쾌락만을 알고 그것만을 느낄 수 있을 뿐이며, 인간만의 독특한 정신적 영역, 예술적 영역 및 종교적 영역과 관련된 감정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인간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러한 인간은 욕욕적 쾌락에만 관심을 두고 거기에 탐닉하는 쾌락주의자들이다. 이와 같은 쾌락주의자들은 쾌락을 주는 물질만을 소유하고 소비할 뿐 정신적인 것에 대해서는 무식하고 무감각한 야만인이며

125; <이 땅에서 철학하기. 탈중심시대에서의 중심 잡기>, 『이 땅에서 철학하기. 21세기를 위한 대안적 사상 모색』, 숲, 1999, 13~80.) 우리는 그와 같은 살림살이의 가치관을 전통 한국 민중들의 삶의 문법에서 찾아낼 수 있다. 그리고 그와 비슷한 세계관과 인생관을 권장하고 있는 수많은 영성가들을 우리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만해 한용운, 간디, 마더 테레사, 타골, 달라이 라마, 틱낫한, 다식 류영모, 법정, 송산, 김지하 등의 말과 글에서 새로운 영성시대를 예비하며 영성적 인간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하는 호소들을 읽을 수 있다.

85) Max Weber, *Die protestantische Ethik und der Geist des Kapitalismus* (개신교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in: *Gesammelte Aufsätze zur Religionssoziologie I* (종교사회학에 관한 논문모음집 제1권), Tübingen, 1988, S. 204.

미개인이다.

싱싱하고 팽팽한 육체, 맛있는 음식, 육체적인 쾌락사냥에만 몰두하고 있는 현대인들은 바로 베버가 앞서 내다본 ‘최후의 인간’이며 ‘기계화된 화석 인간’이다. 자유, 평등, 인권, 사회정의라는 서구의 가치관의 밑바탕을 잘 분석해보면 거기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소위 선진국 사회에는 물질적인 풍요에 따른 물질지상주의적, 황금만능주의적 생활 태도가 두루 퍼져 있으며, 이지러진 자유의 행사에 따른 이기주의적 태도와 소유욕이 당연시되고 있다. 더 나아가 잘못된 평등관에 따른 인간의 기능화, 부품화가 전개되고 있으며, 지나친 종교의 세속화와 가치의 상대화에 따른 허무주의적 경향이 만연하고 있다. 왜곡된 인권 해석에 따른 인간의 동물화가 촉진되어 사람들은 온갖 종류의 쾌락사냥에 몰두해서 성문란은 자명한 귀결이고 알콜과 마약중독에 의한 사회적 혼란이 한층 더 깊어가고 있다.⁸⁶⁾

이러한 서양의 세계관과 가치관의 밑바탕에는 무엇보다도 특히 인간중심적인 시각이 깔려 있다. 거기에서는 자연도태와 적자생존의 원칙을 앞세우는 진화론적 세계관이 큰 몫을 하고 있다. 이들 진화론자들은 우주론적 진화의 꼭대기에 진화의 꽃으로 인간이 놓여 있다고 본다. 그들은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우주의 법칙인 진화법칙에 의해 우주의 주인이며 정복자가 된 인간이 모든 것을 자신의 의지와 욕망에 의해 다스릴 수 있고 다스려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인간 사회에도 똑같이 적자생존이라는 진화법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여긴다. 무한경쟁을 앞세워 인간에 의한 인간의 지배가 당연한 자연의 법칙인 것으로 선포하고 있다. 이렇게 무한욕망, 무한소유, 무한소비를 부추기며 무한경쟁을 유일한 생존의 법칙으로 내세우고 있는 서양의 세계관과 가치관의 밑바탕에는 인간중심적 시각이 깔려 있다. 그리고 이때의 인간이란 물론 서양인인 백인이다. 이 세계관을 주도하는 원리는 자유경쟁이라는 이름아래에서 자행되는 자본과 권력에 의한 정복이며 지배이다.

20세기말부터 이러한 인간중심적, 서양중심적 시각이 사방팔방서 비판받고 있다. 서양의 역사를 두루 질러 통용되어 왔던 다양한 시각들이 총체적으로 비판의 도마 위에 올려졌다. 변하지 않는 원리(아르케)나 원인이나 바탈을 찾아 나섰던, 고중세의 실체론적 세계관이 환원주의적 시각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정밀한

86) 참조 이기상, <현대의 실존적 상황과 인간성 상실의 위기>, 『인간성 상실과 위기 극복』, 철학과 현실사, 1995, 50~90.

기계를 모델로 삼아 모든 것을 기계 역학적으로 설명하려는 기계론적 세계관도 전체를 보지 못하는 장님 코끼리 만지는 고찰방식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었다. 생물의 세계에서 관찰해서 얻은 시각인 적자생존과 자연도태의 원리를 모든 존재자에게 적용시키려던 진화론적 세계관도 근본을 보지 못하고 결과 - 꽃 - 만을 본 잘못된 관점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최근에 들어서 서양의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요소환원주의와 단일결정론으로는 복잡한 세계를 설명할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져 가고 있다. 변하지 않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구성요소를 찾아서 그것으로 전체를 설명하려는 태도가 먼지를 갖고 우주를 설명하려 드는 어처구니없는 시도라고 비판받고 있다. 학자들은 전체를 고려에 넣어야 하며 그 전체가 보이지 않게 모든 부분들을 열기설기 엮고 있어서 부분들이 드러나게 드러나지 않게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인정해야 함을 깨닫기 시작했다. 전일론적 시각과 관계론적 관점이 새로운 방법론적 접근방식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전일론적이고 관계론적인 시각이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우리는 언제나 바로 그러한 세계관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이다. 생명이 화두가 되고 생명체인 유기체가 새로운 설명의 모델이 되어 세계를 해석하는 새로운 시각으로 부각되고 있는 현금 이러한 새로운 생명론적 패러다임의 모색에 동아시아의 지식인들이 일조할 수 있는 기회가 온 셈이다.

이제 우리는 인간중심에서 생명 중심으로 발상의 전환을 감행해야 한다. 어느 인디언 추장의 말이 우리에게 깊은 경종으로 와 닿는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한 가족이 혈연으로 이어지듯 삼라만상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 지구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지구의 딸과 아들들에게도 그대로 닥친다. 인간들이 생명의 그물을 짜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란 단지 그 그물 속의 한 올일 뿐. 그 그물에 가하는 모든 일은 스스로에게 향한 것이다.”(테드 페리)⁸⁷⁾

4. 새로운 삶의 모형은 “살림살이”의 길 - 지구 살림살이

우리는 생명의 세계에서 “살림”의 원칙을 배울 수 있고 배워야 한다. 우주적 살림살이의 대 원칙은 “나눔”과 “비움”이다. 우리 한국인의 생활세계에 각인되어

87) 프리츠오프 카프라, 『생명의 그물』, 김용정/김동광 옮김, 범양사 출판부, 1998, 10 쪽에서 다시 따옴.

있는 삶의 문법을 고찰해 볼 때, 우리는 거기서 “살림, 섬김, 비움, 나눔”이라는 살림살이의 원칙을 찾아낼 수 있다.

예전에 서양은 자기들의 세계만이 유일한 세계이고 나머지는 모두 변방이라고 보았으며 하나의 진리, 하나의 문화, 하나의 언어, 하나의 이성만이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이제 세계는 다원화가 되어가고 있고 문화와 가치가 세계에 따라서 다름을 보고 알게 되었다.

서양의 이성은 기계론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 기술적이고 계산적인 특성을 띠고 있다. 이러한 서양인의 생활세계적 이성을 하버마스는 “의사소통적 이성”이라고 이름한다. 그 이성을 서양인들은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세계에 따라서 이성의 모습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이 하버마스가 말하는 “생활 세계적 이성”이라는 개념 속에 담긴 본래의 뜻이다.

철학은 삶의 세계에서 어떤 생활 방식을 표본으로 삼아 그것을 이론화시키고 합리화시킨다. 그것이 그들 세계의 독특한 이성이며 세계를 보는 눈을 이룬다. 하이데거의 방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이것이 “존재의 이해”이고, “존재를 둘러싼 거인들의 싸움”이다.

이러한 존재이해를 둘러싼 거인들의 싸움에서 자유, 평등, 인권, 사회정의를 기치로 내건 유럽적인 세계관이 승리하였고 그래서 기계론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 기술적이고 계산 가능한 이성이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다. 그러나 다원화된 현대에서 자기중심적인 시각에서 자신의 이성만을 고집하여서는 화해와 평화를 기대할 수 없고 오직 갈등과 투쟁만이 난무하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문화권에서 다른 역사적 배경 속에서 간직되어온 다른 이성의 형태를 알아보고 인정할 수 있는 ‘가로지르기 이성’이다.

다른 세계관과의 대화, 다른 문화간의 대화, 다른 종교와의 대화에는 가로지르기 이성이 필요하다. 내 것만을 옳다고 고집하지 않고 상대방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 대화를 나누어 더 보편적인 것을 찾아나서는 열린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가로지르기 이성을 전제로 하면서 우리의 생활세계를 되돌아볼 때, 우리 나름의 독특한 이성은 무엇인가. 우리의 생활세계를 각인한 우리 나름의 생활세계적 이성을 찾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살림살이의 이성”이라 이름할 수 있다.

우리의 조상들은 천(天)·지(地)·인(人) 합일(合一)의 삶을 살았다. 인간은 하늘과 땅 사이에서 존재하는 “사이존재”이다. 예전에는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하늘과 땅

사이에 책임을 져야 할 인간이 잘못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보았다. 물이 넘쳐 홍수가 났을 때 그 물이 왜 넘쳤는지 원인을 알 수 없으면, 그 고을의 책임자가 천주(天柱)라고 하는 동헌의 기둥에 피가 나도록 머리를 찢어 인간의 잘못에 대하여 대신 사죄하였다.⁸⁸⁾

우리는 자연을 서양인들처럼 에너지 창고로 본 것이 아니라, 자연에서 인간이 배워야 할 도리를 보았고 따라야 할 덕목을 읽어내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인품(人品)이 있듯이 꽃에게도 화품(花品)이 있다고 보았다. 대나무는 절개, 모란과 작약은 부귀, 개나리와 진달래는 그 분명한 거취가 그 꽃들의 화품(花品)이다. 이러한 도덕의 범위를 짐승에까지 확대하여 벌과 개미에게는 군신의 의(義)가 있고, 원앙에게는 부부의 정(情)이 있고, 기러기에게는 장유유서(長幼有序)의 예(禮)가 있다고 보았다.⁸⁹⁾

또한 우리는 생명체가 아닌 무생물도 그냥 마구 다뤄도 되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 예를 들어 우리는 물을 특별하게 생각하여 다루었다. 시어머니의 구박을 견디기 어려운 며느리는 팔(八)자를 적은 바가지를 갖고 냇가에 가서 실컷 울고 그 바가지를 쪼개서 냇물에 떠내려 보내어 자신의 한을 풀었다고 한다. 물은 우리에게 생명의 상징적 의미를 간직하고 있다.⁹⁰⁾

우리의 선조들은 비가 온 뒤에 산에 갈 때에는 코가 얼기설기한 짚신을 신고 갔다. 비가 온 뒤에는 길가에 벌레가 많이 나오는데, 그 벌레들을 죽이지 않으려고 그러한 신발을 신었던 것이다. 그리고 산에 갈 때에는 요강 같은 것을 가지고 갔다고 한다. 우리는 “산에 간다”라는 말 대신에 “산에 든다”라는 말을 썼다. 산에 허락 말고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 마음대로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존재, 소유, 욕망, 경쟁이라는 서구적인 삶의 문법이 우리의 삶에 파고들어 죽음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그 죽음의 문화가 우리의 삶의 터전인 지구를 황폐화시키고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몰살시키고 우리들의 생명까지도 멸절시키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법 속에 새겨져 있던 살림살이의 원칙을 배워서 오늘 날에 되살려 놓아야 한다. 새롭게 다시 살림과 섬김, 비움과 나눔의 가치관을 정

88) 참조 이규태, 『청산아 왜 그리 야위어만 가느냐. 이규태 환경학』, 동아출판사, 1993, 79~80.

89) 참조 앞의 같은 책, 131~133.

90) 참조 같은 책, 61.

립하여 삶의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의 살림살이의 문법이 지구의 살림살이 문법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이론화시키고 체계화 시켜야 한다.

5. 한국인의 삶 속에서 찾은 살림살이의 길

1) 살림살이

우리는 예로부터 인간을 하늘과 땅 사이[天地間], 때 사이[時間], 빔 사이[空間], 사람 사이[人間]에서 사이를 나누며 유지하고 보존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이-존재>로 보아 왔다. 이러한 한국인의 생활세계를 보이게 보이지 않게 규정해 온 한국인의 삶의 심층문법은 한마디로 <살림살이>이다. 지금 전 세계를 하나의 세계로 통합시키면서 무섭게 자신의 지배영역을 지구상의 곳곳으로 뻗치고 있는 원리는 국제자본금융의 경제논리이다. 모든 것을 돈이라는 경제단위로 단일화시킬 수 있는 이 무서운 수량화의 논리 밑바탕에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표상화하고 나아가 수량화하려 한 서구의 형이상학이 깔려 있으며, 우리는 그 이념이 생활세계에서 실현되고 있음을 보고 있는 셈이다. 경제중심의 생각이 지금 인류를 무한한 욕망으로 부추기며 하나뿐인 지구를 파멸의 낭떠러지로 몰아가고 있음을 이제 서구의 지성인들도 깨닫고 어떻게 하면 경제학과 환경[생태]학을 조화시킬까 고심하고 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경제학(Ökonomie, economy)과 환경[생태]학(Ökologie, ecology)의 어원을 보면 그것은 똑같이 그리스어 <οικος(집, 주거, 거주)>에서 유래한다. 하나는 가정경제[가계운영]에 뿌리를 두고 있고 다른 하나는 주거관리에서 연원하고 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가정경제와 주거관리가 없었을 리 없기에 거기에 해당되는 우리말을 찾아본다면, 그것은 둘 다 <살림살이>이다. 우리말의 <살림살이>에는 살리는, 다시 말해 죽지 않도록 감싸주고 보살피는 삶의 방식을 가장 중요한 생활자세로 본 우리 선인들의 삶의 철학이 배여 있다. 살림을 생활화해서 그것을 우리의 삶의 일로 삼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살림살이>라는 낱말 속에 간직되어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을 수량화하여 죽여버리는 <경제학>이 아니라 모든 것을 살도록 감싸주고 보살피주는 <살림살이>에서는 생태

계 파괴의 꼬투리도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개별 생명체의 멸종과 지구 절멸의 위기에 봉착한 현대인이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마당에서 살림을 생활해온 이 땅의 선조들의 삶의 철학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지 않겠는가?

<살리다>는 사역동사로서 ‘살게 하다’, 달리 말해 ‘죽지 않도록 하다’를 뜻한다. ‘살다’와 ‘살리다’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살다’는 자동사로서 ‘목숨을 지니고 있다’,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고 있다’를 뜻한다. 이와는 다르게 ‘살리다’는 그냥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음과 독특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부각시킨다. 살아있음의 상태를 바람직한 가치로서 인정하고 받아들여 살아있는 것이 그 살아있음을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보살피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은 다른 살아있는 것들과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냥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것의 <살아있음>에 관여하고 있는 존재이다. 이렇듯 살아있음을 가치로서 소중히 대하는 생활방식은, 그것을 <생명(生命)>이라고 명명하며 거기에서 살아있도록 보살피야 하는 명령을 보고 아무리 미물이라고 살아 있는 것은 천명을 받고 거기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였다. 우리말 ‘생명’은 서양어인 ‘vita, life, vie, Leben’ 등에서 표현되고 있는 단순한 ‘삶’이 아니다. 생명이란 낱말은 생물, 유기체, 목숨 등과 같은 비슷한 단어들로는 감지될 수 없는 성스러움의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 그것은 한마디로 살아있음에서 그 살아있음을 유지하고 보존해야 함을 말없이 전달하고 있는 하늘의 뜻을 알아보아야 함이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살림>이란 살아있는 모든 것을 죽지 않고 살아 있도록 보살피고 보호해야 하는 인간의 생명론적 역할을 함축하고 있다.

살아있음에 동참하고 살아있음의 질서를 알아야, 다시 말해 나서 살다가 죽어 사라져버리는 우주적 생명의 대원칙을 알아볼 수 있어야 <살림살이>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살다’라는 현상을 우리 한국인들은 어디에서 보고 있으며 그 실마리는 어디에서부터 얻고 있으며 그것을 어디까지 적용하여 사용하였는가?

2) 삶을 얹: 사람

우리말의 ‘살다’는 목숨을 지니고 있는 생물이 목숨을 유지하려고 움직이는 모든 동작을 다 지칭하는 낱말이면서 그 어원을 추적해 들어가면 생명의 에너지를 불살라 가는 전 과정을 뜻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부여받은 생명의 에너지를

불사르다가 마치 촛불이 꺼져버리듯이 그렇게 사라져버린다. 우리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 어떤 형태로든 열과 힘을 지니고 있으며 그 열과 힘을 지니고 있는 한 그 형태로 있다가 자신의 열과 힘을 다 써버리고 사라져 버린다는 것을 안다. 우주의 별들도 다 자신의 열과 힘을 태우면서 우주에 반짝이며 존재하다가 열과 힘이 소진되면 산산이 부서져 우주 속으로 사라져버린다. 그런 한에서 우리는 별들의 탄생과 죽음을 이야기한다. ‘살다’라는 낱말 속에 간직되어 있는 우리 민족의 상상력과 기억을 파헤쳐 본다면 그 밑바탕에는 연소작용, 즉 불을 사르는 현상이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불이 타오르는 화산을 살아 있는 화산[활화산(活火山)]이라고 하는 데에서도 보듯이 불사름의 현상에서 유추하여 살아있는 생명현상도 그렇게 설명하여 본 것이다. ‘살다’라는 말은 원초적으로 보아 불이 타고 에너지가 정지상태에서 운동상태로 옮겨간다는 뜻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에너지는 태양에서 비롯되기에 태양은 예로부터 불의 상징이었고 삶의 바탕인 대지를 생성시키는 ‘화생토(火生土)’의 본거지이며 모든 생명체를 유지시키는 에너지 공급원이다. 태양의 에너지를 받아 정지상태에서 운동상태로 가는 것이 넓은 의미의 ‘사르다’, ‘살다’를 뜻한다면 땅 위, 하늘 아래에 있는 변화하여 움직이는 모든 것은 사름(삶)을 명 받은 생명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땅 위 하늘 아래에, 다시 말해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생명체 중에서 사람은 바로 이러한 사름을 알기에 그것을 살려 사름이 계속 진행되도록 돕는 전형적인 ‘사름’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인간은 그러한 사름을 사는 ‘사람’일 뿐 아니라 그러한 삶을 알기에 앎을 살면서 살림살이를 사는 ‘삶앎(>사람)’인 것이다.

3) 생명의 원칙: 비움과 나눔 그리고 섬김

이렇듯 우리 한국인은 존재하는 모든 것에서 고정된 <있음>을 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며 되어 가는 <살아있음>을 보았다. 살아있음은 정지된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이며 <되어 가는> 것이다. 모를 지기 생명체는 그러한 생명의 흐름에 보조를 맞추어 잘되어 가야하며, 살림을 생활화해야 하는 사람은 더욱 말할 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명의 원칙을 잘 따르는 사람을 <된 사람>이라 부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못된 사람>이라고 부른다. 우주적 생명사건에 동참하며 잘 되어 가는 생명체는 자신을 고집하지도 공간에 집착하지도 시간에 매달리지도 않는다. 오로지 하늘과 땅 사이에 자

신을 내맡기며 되어 감[변화]의 원칙을 따른다. 이 <되어 감>의 원칙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비움>이며 없어짐이며 사라짐이다. 되어 감에서 우주 현상의 본질적인 차원을 감지했을 때 거기에서 부각될 수 있는 근본개념은 <있음[존재]>이 아니라 <없음[無, 空]>이다. 있음이란 없음과 없음을 잇고 있는 순간적인 연결고리일 뿐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무에서 생겨나 주어진 삶의 에너지를 불사르며 존재 속에서 되어 가다가 에너지를 다 소진한 뒤에는 다시 무 속으로 사라져 간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있음>이 놀라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 이러한 <없음>이 경탄과 사색의 대상이었다. 무수한 별무리들을 다 감싸 안고 있는 저 무한한 천공이, 한없이 너르며 시간 속에서도 한결같이 늘 그러한 하늘[한늘 = 끝없이 크고 늘 그러한]이 놀라움과 경배의 대상이었다. 온갖 것을 다 살게 하고 있는 저 광활한 빈탕한데[虛空]는 분명 없는 것이면서도 동시에 있는 것이다. 우리 한국인은 이러한 <없이 있는 것>에 매료되었다. 우주적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분명 이러한 없이 있는 어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으며 그것을 <하늘님[하느님]>이라고 숭배했다. 우리는 하느님의 <없이 계심>에서 살림살이의 원칙을 유추해낼 수 있다. 우주적 생명의 본질은 <있음>에 있지 않고 <비움>에, 즉 <없이 있음>에 있다는 것을 간파하였다. 이렇게 없이 있으며 모든 변화하는 것을 움직이며 되어 가도록 하는 것을 우리는 <거룩한 신>, <거룩한 영>으로 보았다. 우주의 모든 곳을 두루 꿰고 있으며 우주적 생명을 유지 보존하고 있는, 없이 있는 신령한 존재를 우리는 <한얼>이라 명명하였다. 우리는 변화하는 모든 것에서, 특히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에서 하늘의 명인 얼을 알아보고 그것들이 그것들로서 따로 서서 사이를 나누면서 그것들의 되어 감이 잘 전개되도록 도와야 한다. 그렇게 존재하는 모든 것을 그것으로서 서도록 도우면서 우리는 없이 계신 한얼을 섬기는 것이다. <섬김>이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나서 그 자신으로 서서 우주적 생명의 전개과정에 편입되도록 관여하는 것이며 그렇게 하여 존재하는 모든 것 속에 살아 숨 쉬고 있는 <한얼>을 알아보고 모시는 것이다.

‘산다’는 것은 큰 눈으로 멀리 볼 때 자신을 살라 버리고 없애 버려 우주적 생명의 얼에 동참하는 것임을, 그렇게 자신을 가르고 나누어 우주적 생명을 살리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나누다>는 나서 갈라져 나가고 또 나서 갈라져 나가는 식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가르고 나누어 생명의 전개과정에 동참하는, ‘사이를 나누는’ 살림살이의 대원칙이다. 새롭게 나서 그 자신으로 서서 자신의 고유한 생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생명을 나눠 갖는 것이 곧 <나눔>이다. 갈라지지 않기를 고집

하는 사람은 생명의 질서, 생명의 흐름, 숨돌이와 피돌이를 막는 자이다. 자신을 나누어 갖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자기를 비우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생명의 반역자들이다. 이렇게 <비움>과 <나눔>은 우주적 살림살이의 대원칙이다.

우리말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세계관에서부터 우리는 우리 선조들의 살림살이를 유추해낼 수 있다. 한국인의 삶은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이 하나가 되어 존재하는 모든 것과 생명의 교감을 나누며 살아온 천지인(天地人) 합일의 삶이었다. 천지인이 하나의 거대한 우주적 생명체를 이루고 그 안에서 만나는 모든 것을 살아있는 우주 또는 자연의 일부로 보고 사는 생명중심주의의 삶이었다. 우주적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 자연을 인간이 그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삶의 도리를 배우고 실천해야 하는 장으로 여긴 자연동화주의의 삶이었다. 이러한 자연관과 생명관을 가진 한국인에게 생명체는 단순히 감각을 가진 동물만이 아니고 자신의 복제능력을 가진 유기체만도 아니고 진동, 순환, 팽창 속에서 나름대로 우주적 생명의 생성과 전개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살아있는 생명체이다. 인간은 우주 진화의 꽃으로서 자신 안에 이러한 모든 우주 생성과 진화의 열매를 간직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을 알아내고 그 우주 진화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참여해야 한다. 거기에 인간의 위대함과 동시에 또한 책임의 막중함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우주적 생명의 생성에 동참하여 살아있는 모든 것을 살아있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이 인간의 과제이며 그러한 인간의 생활양식을 우리는 <살림살이>라고 불렀다. 다시 말해 살림의 생활이며 살림을 생활화하는 <살이>인 것이다.

우리의 삶의 문법이었던 <살림살이>는 분명 숨돌이와 피돌이가 막혀 죽어가고 있는 하나뿐인 지구를 살리고 그 안의 모든 생명체를 살릴 수 있는, 새 천년을 위한 새로운 대안적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다. 이제 인간은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살리며 보존해야 하는 지구 살림지기로서 생명의 그물을 지켜나가야 한다. 그럴 때 생명의 그물은 인간을 자기 그물의 한 그물코로 받아들이며 생명의 그물망을 함께 짜나갈 것이다.

우리 한국인의 삶의 길라잡이였던 불전은 우리가 취해야 할 살림살이의 태도를 이렇게 설하고 있다.

“꽃의 아름다움과 색깔, 그리고 향기를 전혀 해치지 않은 채 그 꽃가루만을 따가는 저 벌처럼 그렇게 잠깐 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법구경』 제4장 49절) “모든 흙과 물은 다 나의 옛몸이고 모든 불과 바람은 다 나의 진실한 본

체이다. 그러므로 항상 방생을 하고 세세생생 생명을 받아 항상 머무르는 법으로 다른 사람도 방생하게 해야 한다. 만일 세상 사람이 축생을 죽이고자 하는 것을 보았을 때는 마땅히 방편을 써서 구호해 괴로움을 풀어주어야 한다.”(『大正藏』 제24책)⁹¹⁾

우리는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존재를 ‘돌보고 보살피야’ 할 ‘사이-존재’이다.

6. 21세기의 영성적 인간

우주진화의 꽃인 인간 안에는 지난 150억 년의 우주적 영성이 무의식적인 얇은 형태로 녹아 있다. 우주적 진화 속에서의 인류의 발달도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학자들은 인류 진화의 역사가 그 흔적을 개개인의 몸 속에 남기며 그것이 무의식과 잠재의식의 어두운 영역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해 인간의 종족발생적 차원의 경험들이 개개인에게 각인되어 개체의 삶의 과정 속에 개체발생적으로 반복되며 서서히 새로운 경험의 요소와 차원을 넓혀가고 종족발생적으로 이러한 새것들을 유전자 속에 각인해 나간다는 것이다. 그렇게 볼 때 종족발생적인 차원에서의 인류의 현 시대적인 시점은 개인의 발달사에서 어느 시점을 나타내고 있을까 한 번 생각해봄 직하다. 주체의 시대인 근대가 그 극에 이르고 이제 주체의 죽음과 해체를 주장하는 탈근대적인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는 현대를 되돌아볼 때 자기의 뜻과 주장이 확고하여 마음먹은 바를 꼭 관철하고자 마는 고집스러운 불혹의 나이는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서양인들의 인생관에서 50대는 무엇을 뜻하는가? 세속적으로 이를 것은 다 이루어 놓고 시간이 남아돌아 시간을 죽이고 있는 나이는 아닐까? 그 남아도는 시간을 육체적인 쾌락의 탐닉에, 스포츠에, 소비에, 무언가 새롭고 흥미로운 것 찾기에 쏟아 붓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가(자유)시간을 여행에, 다양한 취미생활에, 다양한 문화생활에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또는 불가능에 도전하며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실험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또는 음악과 미술과 같은 창의적인 예술활동에 모든 것을 바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또는 새로운 형태의 초월을 체험하고 신적 존재를

91) 고영섭, <불교의 생태관. 연기와 자비의 생태학>, 『생태문제와 인문학적 상상력』, 나남출판, 1999, 159에서 다시 따옴.

만나기 위해 세속을 떠나 방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또는 이 모든 것에서 참다운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해 인생은 허무한 것이라고 허탈감 속에 자신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의 현재적인 경험이 장래의 어느 시점에 종족발생적으로 인류의 무의식을 각인하여 인류의 미래의 모습을 규정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현재적인 삶에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다. 탐욕, 다툼, 경쟁, 지배, 소유, 소비, 소모, 방탕, 후안무치 속에 50대에서 삶을 끝낼 것이라면 지금 이대로 기계화된 마음에 우리 자신을 맡겨버리면 될 것이다. 그러면 인류도 아마 21세기를 온전하게 넘기지는 못할 것이다. 또 하나의 새로운 천년은 아마도 인간 없이 계속될지도 모른다. 아니면 적어도 인간이 우주진화의 꽃이자 구슬로서는 아닐 것이다. 그래서 아마도 서양의 많은 지성인들이 그토록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인간상을 갈구하며 고대했는가 보다.

21세기는 새로운 영성, 정신성, 종교성의 시대가 될 것이며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지성인들이 많다. 자세히 고찰해 볼 때, 그것은 우리의 개인 발달적인 삶의 전개하고도 통하는 점이 있다. 우리는 50대를 지천명(知天命)의 나이라고 하지 않는가? 이제 자신의 자아라는 좁은 울타리에서 벗어나, 인간의 주체성만을 고집하는 인간 중심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하늘의 뜻을, 우주의 숨은 명을 알아야 하는 나이가 아닌가? 육체에 묻히거나 가족이나 민족의 울타리에 갇히거나, 돈이나 이념에 눈이 멀어버리지 않고, 나 중심, 민족 중심, 종파 중심, 인간 중심에 빠지지 않고, 욕망을 비우고 맘을 자유롭게 놓아 우주의 열과 하나 되는 그런 깨달음에 이르러야 되는 나이가 아닌가? 그럴 때 인류가 고대하는 새로운 영성의 시대를 열 수 있지 않는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천지인(天地人) 합일의 삶 속에서 구현해야 할 가치들은 바로 이러한 영성의 시대를 예비하는 가치들임을 알 수 있다.

인간의 나이 50은 이렇게 영적인 나인 <얼나>로 깨어나 내 안에 있는 속알[性, 天命]을 깨우쳐 알아 그 바탈을 태우게 되는 나이이다.⁹²⁾ 나 하나도 주체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정력제를 찾아다니는 나이이어서도, 가족과 가문에 매여 문벌·학벌·재벌의 울타리에 갇혀 명예와 권위에 안주하며 만족해하는 나이이어서도, 민족과 국가, 문화와 이념의 일면성에 눈이 멀어 자기중심적이고 민족 중심적이

92) 참조 이기상, 『다석과 함께 여는 우리말 철학』, 지식산업사, 2003.

고 인간 중심적인 정당화 속에서 언어의 놀이에 도취되는 나이이어서도 안 된다. 침묵 속에서 내 안에서 말 걸어오는 <없이 계신 하느님>의 부름에 응해 우주적 대해탈의 역사에 동참하려는 원대한 꿈을 키워야 할 나이이다.⁹³⁾ 인류의 나이는 기술문명의 편함에 모든 것이 퇴화되어 버린 그런 무기력한 나이에 고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인류는 영적인 <얼나>의 단계로 솟아야 한다. 그럴 경우 우주의 진화는 그 방향을 달리 하게 될 것이며, 이 우주는 인간을 털어내서 인간 없이 그 생성과정을 계속하려 하지 않고 인간과 더불어 또 다른 새로운 천년들을 맞이하려 할 것이다.

지천명의 나이임을 느끼면서 감지하는 다음과 같이 <나이>를 반추한다.

“나이 먹는 것
차츰 쓸쓸해지는 것
혼자서 우주만큼 커져
삼라만상과 노닐도록
이승에선 그렇게 외로워지는 것.”⁹⁴⁾

93) 참조 이기상, <김지하의 생명사건론. 생활 속에서 이루어야 하는 우주적 대해탈>, 『낭만주의 해석학』 (한국해석학회 편), 철학과현실사, 2003, 495 ~ 574.

94) 김지하, 『중심의 괴로움』, 술 1994, 85.

온생명의 이해와 생태보전⁹⁵⁾

장희익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찰스 다윈의 할아버지였던 에라스무스 다윈(Erasmus Darwin)은 일명 『유기적 생명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의 저서 주노미아(*Zoonomia*, 1794)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우리 언어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우리는 짐승의 새끼를 또 하나의 짐승이라 부른다. 그러나 사실은 그 어버이의 한 가지라든가 연장이라 불러야 옳다. 왜냐하면 짐승의 태아는 어버이의 한 부분이거나 한 부분이었고,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태어날 때에 완전히 새로운 존재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은 그 어버이가 지녔던 행동 습성의 일부를 그대로 간직하게 된다. [Margulius and Sagan (1995), p.176. 에서 인용]

그런데 이 책이 나온 지 200여 년이 지난 오늘에도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지칭할 적절한 용어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게 되는 진정한 원인은 하나의 유기체(다윈의 용어로 한 짐승)가 생명의 진정한 단위가 아니라는 사실과 관련된다.

95) 출처: 2003 세계생명문화포럼

온생명의 의미

물질세계 안에 발생하는 여러 현상들 가운데서 생명 현상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과학의 시대라고 불리는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생명에 대한 올바른 과학적 이해는 만족스런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생명에 대한 과학적 탐구는 주로 이것의 구성 요소들을 정밀하게 살펴나가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러한 점에서 많은 성과를 거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도 생명의 ‘정수’가 발견될 수 없다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세포 핵 안에 들어있는 DNA 분자들이 결정적인 정보를 함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를 일러 생명의 ‘정수’라고 말할 수는 없다. 세포라는 환경에서 분리된 DNA 분자 그 자체는 단지 다소 복잡한 대형 분자일 뿐, 아무런 기능이나 심지어 정보조차도 가지지 않는다. 오직 이들이 아주 특별한 세포 환경 여건 아래 적절히 자리를 잡고 있을 때에 한해, 이들은 살아있는 유기체가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의 기능을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정수’라고 하는 것은, 만일 그러한 것이 존재한다면, 신체 안의 어떤 비밀스런 장소에 놓인 것이 아니라, 생명이라 불릴 전체 체계 안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생명의 ‘정수’는 살아있는 세포 안에 있는 것일까? 생물 세포가 바로 생명 현상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전체 체계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것일까? 많은 생물학자들은 그렇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추출된 DNA 분자들에 적용했던 것과 똑같은 논의를 적용한다면 우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주위에 어떤 물질 분자들이나 사용 가능한 에너지 공급도 없는 가운데 우주의 빈 공간에 고립된 생물 세포는 생명과 관련된 아무런 정상적 활동도 하지 않는 다소 복잡한 대형 분자들의 체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오직 이것이 우리가 ‘환경’이라 부르는 매우 특별한 물리적 여건 안에 놓일 때라야 생명 현상에 해당하는 특정의 양상을 띠게 된다.

동일한 논의는 토끼나 인체와 같은 정상적인 유기체들에 대해서도 성립된다. 이들 또한 외부로부터의 결정적 지원이 마련된 경우에 한해 생명 현상을 나타낼 수 있다. 그렇다면 외부로부터의 본질적 도움이 없이 그 자체로서 생명 현상을 나타낼 수 있는 체계가 존재하는가, 그리고 이것이 갖추어야 할 최소의 여건은

무엇인가? 여기서 우리는 생명 현상을 자체적으로 지탱할 모든 것을 갖춘 실체로서의 온생명 개념에 도달하게 된다.(장회익 1988, Zhang 1989a, 1989b) ‘온생명’이란 결국 생명의 모든 것을 갖춘 자족적 단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생명에 관련된 모든 본질적 요소들을 그 안에 담고 있는 일정 영역의 시간 공간을 점유하게 된다.

이러한 온생명 개념은 예컨대 우주 자체를 포함한 그 어떤 보편적 존재로 그 의미를 확장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우주내의 모든 다른 비생명 현상들에 대비해 생명 현상만이 지니는 독특한 성격을 적시하는 엄격한 과학적 개념이다. 실제로 이러한 온생명은 우주 안에서 매우 희귀한 현상일 것으로 생각되며 또 그 공간적 규모에 있어서도 우주의 알려진 크기에 비해 극히 작은 한 영역에 국한된다. 지금까지는 단 하나의 이러한 온생명이 알려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태양계 안에 형성된 온생명이다. 태양-지구 체계 안에 틀을 잡은 이 온생명은 대략 40억 년 전에 출생하여 줄곧 성장해 오고 있다. 이것은 우리 자신들과 우리의 모든 조상을 포함하여 지구 위에 최초로 나타난 생명체 이르기까지 지금 살아있는 모든 것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 온 모든 것을 포함한다. 이것은 또한 하나의 기능하는 전체를 이루는 유기물 무기물 기타 생명에 소요되는 모든 필요한 요소들을 포함한다.

생명 현상이 지닌 이러한 모든 유형적 측면 외에도 온생명 개념은 지능이라든가 마음과 같은 생명이 전개되면서 늦은 단계에 서서히 출현한 모든 고차적 성질들도 함께 포함한다. 시간적 차원에서 보자면, 이것은 출생에서부터 성장해 가는 과정까지를 그 정체성의 한 본질적 측면으로 모두 포함한다. 이는 마치도 한 사람을 그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경력적 측면까지 아우른 다차원적 존재로 파악하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온생명이 인간을 위시한 그 구성 성분들이 나타내는 정신적 그리고 문화적 측면 이외에 그 어떤 초월적인 정신적 혹은 영적 성격을 지닌다고 보지는 않는다. 이 개념에서 강조되는 점은 생명 현상의 모든 국면 사이에 나타나는 불가분의 연관성이다. 이러한 전체를 하나의 유기적 실체로 파악함으로써 하나의 새 시각과 해석을 얻어낼 수 있다. 이 개념이 지닌 이런 포괄적 성격은 ‘사람’이라는 개념 속에 나타나는 것과 유사하다. ‘사람’이란 개념 안에는 ‘인체’라든가 또는 ‘인간 세포의 집합’이라는 개념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

생명 관념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온생명 개념의 이러한 이해는 생명 관념에 대한 하나의 패러다임 전환에 해당한다. 우리 모두는 일상의 경험을 통해 ‘생명’에 대한 관념을 지니게 되지만 이것이 함축하는 의미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는 일은 많지 않다. 사람들은 흔히 모든 생명체로 하여금 죽지 않고 살아있게 해주는 그 어떤 공통된 특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생명’이라 한다. 이를 달리 말하면 죽음과 함께 사라지는 그 어떤 성격이 된다. 그러나 조금 세심하게 살펴보면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 적용되는 이러한 특성을 찾아내는 것이 가능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 어떠한 대상이 과연 살아있는 것인지 아닌지조차도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예컨대 부러진 나뭇가지가 살아있는 것인가? 살아있지 않다면 적절한 땅에 심었을 때 새로운 나무로 자라나는 일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오랫동안 살아있는 것인가? 마른 나뭇가지도 살아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언제부터 그렇지 않은 것인가? 이것이 살아있음을 말해주는 특성은 무엇인가? 살아있는 가치와 죽은 가치를 구별할 분명한 경계선이 존재하는가? 여기에 대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러저러한 여건 아래서는 이것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 정도이다. 이런 어떤 여건을 말하지 않고 단순히 이것이 ‘살아있다’ ‘아니다’를 말하는 것은 전혀 무의미한 일이다.

여기서 보다시피 가령 마른 나뭇가지와 같은 경계 상황에 적용해 볼 때 일상적 의미의 생명 개념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가를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명을 개별 생명체에 연관시키는 일상적 관념에 지나치게 익숙한 나머지 이 관념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개별 생명체 안에 생명이라 불릴 어떤 것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관념에 묶여있다. 그런데 이들은 이러한 관념적 속박으로 인해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이들은 생명의 정수를 공허한 개별 신체 안에서 찾으려 함으로써 생명 현상이 지닌 진정한 모습을 놓친다. 이들은 생명의 전체적 측면을 보지 못하고 개별 생명체에만 지나치게 집착함으로써 생명에 관련한 적절한 가치 판단에 이르지 못한다. 이들은 생명의 일상적 관념에 집착한 나머지 온생명 개념의 수용 자체를 거부한다. 이러한 사실은 생명 관념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모든 패러다임의 전환이 그러하듯이 이것 또한 쉽게 이루어질 일이 아니다.

온생명 및 관련된 개념들

내가 아는 한 필자가 온생명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여기에 온생명(*global life*)이란 명칭을 부여하기(Zhang 1988, 1989a, 1989b) 이전에 이것에 대해 관심을 기울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람들은 물론 생물권(*biosphere*)이라든가 가이아(*Gaia*) 혹은 지구 생태계(*global ecosystem*)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다. 이것들은 모두 어느 면에서 온생명과 유사한 점이 있기는 하나 동일한 것은 아니다. 개략적으로 말해서 이들은 온생명의 신체적 측면에 해당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특히 가이아 이론은 지구상에서 유기체의 진화가 주변 환경의 진화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점에 주목하고, 이렇게 구성된 생물-지구 복합체가 그 자체로서 하나의 생명체적 성격을 지닌다고 보는 관점이다. 이것 자체는 하나의 좋은 가설이며 만일 긍정적으로 검증이 된다면 온생명의 성격에 대해 유용한 직관을 제공할 것이지만 이것이 온생명 개념과 특별한 관련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온생명은 오직 생명 현상을 이것이 지닌 포괄적이고 불가분적인 성격을 강조하면서 이를 있는 그대로 지칭하는 개념에 해당하는 것이다.

최근에 마굴리스와 세이건은 그들의 야심적 저서 『생명이란 무엇인가』 [*What is life*, Margulis and Sagan (1995)]에서 생명의 성격을 규정하는 가운데 온생명이란 명칭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여기서 온생명이라 부르는 것과 매우 유사한 내용의 언급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생명이란 무엇인가?

생명이란 행성적 충일(充溢)이며 태양적 현상이다. 이것은 지구의 공기, 물, 그리고 태양을 세포 속으로 이끌어드리는 천체간의 국소 전환이다. 이것은 성장과 죽음, 파송과 삭감, 변형과 쇠퇴이다. 생명은 다윈의 시간을 통해 최초의 박테리아에 연결되고 베르나드스키의 공간을 통해 생물권 모든 성원들에 연결되는 팽창해나가는 조직이다... 이것은 불가피한 열역학적 평형 즉 죽음의 시각을 영구히 밀어내기 위해 스스로의 진로를 선택해 나가고자 하는 물질의 광란이다. 생명은 또한 우주가 인간이라는 형태를 취해 자기 자신에게 던져보는 하나의 질문이다...

일상적 관점에 따르면 ‘당신’은 당신의 출생 약 9개월 전에 당신 어머니의 자궁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좀더 깊은 진화적 관점에서 보면 ‘당신’은 약 40억 년 전 초기 지구의 반죽 속에 빚어진 생명의 대담한 출생과 함께 시작되었다. [Margulis and Sagan (1995) p.49]

그러나 이 책의 뒷 부분에 가서 이 저자들은 아무런 구체적 정의도 제시하지 않은 채 무심코 "global life"(온생명)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온생명(Global life)은 그 성분들보다 훨씬 더 풍부한 체계이다. 동물들 가운데 우리만이 대형 망원경을 만들고 태고의 다이아몬드를 채굴한다. 그러나 우리의 위치가 조만간 뒤바뀔 것 같지는 않지만 우리가 반드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다. 다이아몬드는 40억 년 전 생명이 시작될 무렵부터 생명을 구성하는 주된 원소인 탄소로 이루어졌으며, 망원경은 그 자체 생물권의 한 기관인 메타인간의 복합적 눈동자라 할 렌즈들로 이루어져 있다. [Margulius and Sagan (1995) p. 197]

이 문맥으로 볼 때, 마굴리스와 세이건이 이 개념을 우리가 여기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이 이것을 확인 가능한 존재로 보고 있으며 그 안에서 다양한 생리적 과정이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점이다. 그러한 과정의 사례가 태고의 다이아몬드의 채굴과 대형 망원경의 제작이다. 여기서 망원경은 그 자체 생물권의 한 기관인 메타인간의 복합적 눈동자와 연계되고 있다. 이 인용문을 보면 온생명(global life)과 생물권을 서로 다른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으나, 이 저자들이 이들을 구분할 새로운 용어의 필요성을 느꼈던 것만은 분명하다.

온생명 개념과 생태보전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다. 당연히 온생명이란 말을 창안한 사람으로서 나 자신은 이 용어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절실하게 느꼈으리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런데 미묘한 것은 내가 이 용어의 필요성을 이 용어를 만들기 전보다는 만들어 놓고 난 후에 더 절실하게 느낀다는 점이다. 이것을 만들기 전에도 내가 그 필요성을 느꼈을지는 모르나 이러한 필요성을 의식적으로 떠올리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것을 만든 후에는 내가 이 용어를 알고 있지만, 독자나 청중이 이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이것을 자유롭게 활용하지는 못한다. 많은 경우 나는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것에 관련된 바를 말하려고 하는데, 이 때 이 용어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는 것이다.

어쩌면 생명의 의미를 깊이 있게 다루어 보려했던 마굴리스와 세이건은 예외가

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온생명이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내용을 직시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므로 이 용어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용어의 위력을 발견하게 된다. 아무리 어떠한 내용이 중요하더라도 이를 지칭할 적절한 용어가 없으면 이것을 인지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반대로 그 말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말이 지칭하는 실체가 아주 자연스럽게 다가올 수가 있다.

이 점을 좀 더 명료하게 하기 위해 매우 익숙한 용어 하나가 상실된 경우를 상상해 보자. 예를 들어 ‘사람’이라는 말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어떤 문화권이 있다고 하자. 거기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살아가고 있을 것이며 어쩌면 이 말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고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는 문화적으로 적지 않은 빈곤을 겪을 것이며 어쩌면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을 상상할 수 없을 지도 모른다. ‘사람’이란 말을 사용하던 문화권에 살다가 이러한 곳으로 이주한 사람이 있다고 할 때 그가 느끼는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온생명 개념은 이것이 지시하는 실체의 통합적 성격이라는 점에서 ‘사람’이라는 말과 매우 흡사한 면이 있다. 예를 들어 ‘인간의 신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말이 지닌 의미를 그대로 나타내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생물권’이라는 말은 ‘온생명’이 지닌 의미를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온생명이라는 말의 필요성이 가장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은 아마도 지구 생태계의 위기를 말할 때일 것이다. 누구나 우리의 생태계 문제를 말하고 있지만 지구생태계라는 것이 원체 크고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문제의 전모를 이해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일단 온생명 개념을 가지게 되면 이것은 곧 온생명의 건강 문제로 귀착된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 온생명의 건강한 생리이고 무엇이 병적인 생리인가를 이해하는 일이다. 우리가 아직 이것을 잘 모르고 있다면 우리는 바로 이를 규명하는 일에 착수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온생명의 ‘건강문제’를 좀 더 깊이 논하기 전에 온생명 안에서 인간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온생명 안에서의 인간

현대과학이 말해주는 가장 의미 있는 사실은 우리 또한 온생명의 일부라고 하

는 점이다. 우리 각자는 모두 살아있는 존재이며 존중되어야 할 생명의 단위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명의 단위는 대단히 불완전하며 온생명의 나머지 부분을 떠나서는 잠시도 생존이 가능하지 않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참된 나는 무엇인가? 이것은 수 십 년 전부터 존재하여 그간 경험한 내용을 개인적 기억 속에 담고 있는 그 무엇인가, 혹은 지난 40억 년을 생존해 오면서 그간 경험한 내용을 DNA와 기타 기억 장치 속에 간직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 사람들은 어쩌면 의식의 단위가 자기 정체성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할는지 모른다. 그리고 중추신경계와 연결된 신경 세포들이 개인 신체 안에만 퍼져있으므로 의식의 단위 또한 사람의 신체에 국한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우리의 정보 채널이 온생명 전체에 뻗어있으므로 의식의 단위 또한 여기까지 연장된다는 말을 할 수 있다. 사실 우리의 정보 채널을 이렇게 연장하는 일은 기술적으로 가능해지고 있으며, 따라서 인간의 문화적 기능은 이제 인간 신체 안에 작동하는 중추신경계와 같은 역할을 해나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우리 온생명 자체가 이러한 신경망을 통해 자의식을 지니는 존재로 깨어남을 의미한다. 온생명 안에서 발생한 이러한 인간 문화가 자기 자신을 온생명인 것으로 확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야기의 전부는 아니다. 인간은 온생명의 정상적인 생리를 극심하게 교란시켜 심지어 이것을 사멸의 위험에까지 이르게 하고 있다. 온생명에 대한 이러한 인간의 행위는 인체에 대한 암세포의 행위에 비교될 수 있다. 암세포는 숙주 신체에 침범한 외부의 침입자가 아니라 자기 신체의 일부이다. 이들은 오직 숙주 신체의 정상적 생리에 거슬러가며 무작정 자기 증식만을 꾀하는 존재로 급기야는 숙주의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성격을 지닌다. 인간 또한 암세포와 마찬가지로 온생명의 주요 부분을 모두 탈취하여 이것을 오직 자신들의 번영과 증식만을 위해 변형시켜가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상황이야말로 우주사적 차원의 역설이며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온생명은 출생 이후 40억 년이란 기나긴 세월을 버텨낸 후 이제 비로소 정신적 기능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새로운 존재로 부상하는가 했더니, 바로 이 의식을 가능하게 해주는 역할 수행자 그 자체의 또 다른 역할로 인해 암적인 질환에 접어들고 만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온생명 안에서 인간이 처해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의식적인 삶을 영위해 가는 주체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이 엄청난 재앙의 가능성 앞에 안이하게 눈을 감고 암세포로서의 행위를 계속해나가려 할 것인가, 아니면 눈을 크게 뜨고 이 커다란 재난을 고통스럽게나마 극복해나가려 할 것인가? 과학은 오직 이러한 상황 자체만을 알려줄 뿐 어떻게 하라는 지시는 내리지 않는다. 엄격히 말해 이것은 도덕적 혹은 종교적 결단의 문제이다. 그러나 설혹 깊은 종교적 사유를 거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경우 우리가 어느 길을 택해야 할 것인가는 너무도 명백하다. 이러한 상황을 분명히 파악하고 나서도 굳이 암세포적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마도 맑은 정신의 소유자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중요한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과학적 이해 이외에 (종교와 같은) 어떤 다른 형태의 이해가 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많은 점에서 그렇다고 생각된다. 다른 생물종의 경우에서처럼 인간의 생존 본능도 그 유전 정보 안에 각인되어 있다. 이러한 생존 본능은 두 가지 경향으로 작동한다. 그 하나는 개체적 자아를 보전하고 증식해가려는 경향이고, 다른 하나는 온생명의 나머지 부분과 협동하며 이를 보존하려는 경향이다. 만일 이 두 경향이 함께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 생물종 그리고 그 개체 자신의 생존이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서로 상반되는 이 두 경향 사이의 균형이 항상 이상적인 상태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문명이 출현하면서 협동의 필요성이 커지게 되고 따라서 유전 정보 안에 각인된 본능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협동과 보존 쪽으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도입되는 것이 사회 규범이라든가 혹은 도덕성과 같은 문화적 장치들이다. 그러나 좀 더 자연스럽게 균형을 보정하는 방법들 또한 존재한다. 즉 가족이라든가 공동체, 국가와 같은 상위 개체들을 구성하여 고차적인 자기정체성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새 자기정체성이 마련되면, 자신을 보전하려는 본능을 발동시켜 이것이 새로 마련된 이러한 고차적 자기정체성으로 향하도록 만들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 점에 관련하여 인간은 묘한 성품 하나를 가지고 있다. 즉 인간은 정신적 조작에 의해 인위적 자기정체성을 만들고 이에 따라 마음의 지향을 바꾸기도 하는 것이다. 그 명백한 사례가 스포츠라는 현상 속에서 잘 나타난다. 우리가 일단 어느 한 쪽을 자기편

이라고 마음속에 정해버리면 아무 다른 이유도 없이 마음이 그 쪽으로 쏠리게 되는 것이다. 같은 이유로 우리 모두가 ‘인간 가족’의 한 성원이라고 이해하고 나면, 일정한 집합적 자기정체성이 발생할 것이고, 이것은 다시 인간 사회의 많은 윤리적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간다면 온생명에 대한 의식이 생태계의 많은 문제를 풀어내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은 쉽게 납득할 수 있다.

실제로 온생명 개념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기 전에도 생명이 지닌 온생명적 성격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서를 이끌어낸 사람들이 있다. 전통 종교들에서 소중히 여기는 가르침들 예컨대 동물과 식물을 포함한 자기 이웃을 사랑하라는 가르침들이 대략 그러한 맥락의 것인데, 이들은 모두 살아있는 단일한 존재 단위로서의 온생명의 이미지가 명백해지면 쉽게 수용될 수 있는 것들이다. 우리는 오직 이들이 내 몸의 한 부분이라는 점만 명백히 하고 여기에 자기 보전의 본능을 발동시키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반면 온생명에 대한 과학적 이해가 부족할 경우에는 이것이 자기 자신이라는 생각이 미약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좀 더 명백한 자아로 인지되는 작은 ‘나’ 즉 개체만을 위하려는 본능을 넘어서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몇몇 근본적인 물음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삶 속에서 의미를 추구해 보려는 성향을 가지며 이를 일러 ‘영성’이라 부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영성 또한 인간의 자기정체성과 깊은 연관을 가진다. 고차적 자기정체성을 획득할 경우에는 그만큼 높은 차원의 영성이 발현되는 것이다. 우리가 자신을 ‘인간 가족’의 일원으로 확인할 경우 집합적 인간의 영성이 나타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온생명을 자기 자신으로 받아들일 경우 그 어떤 온생명적 영성이 출현하리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이것은 초월적 성격을 띤 그 무엇이 아니다. 이것은 단지 좀 더 낮은 차원의 자기정체성을 가질 경우 나타나는 것과 같은 성격의 것으로서 온생명에 대한 의식이 천천히 진전됨에 따라 우리의 문화 안에 출현할 것으로 기대되는 그 어떤 것이다. 이러한 온생명적 영성이 충분히 성숙된다면,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할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지에 대해 좋은

대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점을 전제로 하여 좀 더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져 볼 수 있다. 온생명은 정말로 유의미한 것인가? 나는 왜 한 개체로서의 그리고 온생명으로서의 나 자신을 보전해야 하는가? 나는 도대체 왜 살아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과 그리고 온생명에 대한 과학적 이해만으로는 부족하게 된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이며 왜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가에 대해 깊은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말할 것도 없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 온생명이다. 이것이 지닌 놀라운 성격을 인식하는 한 가지 길은 이것이 겪어온 경력을 살펴보는 일이다. 이것은 대략 40억 년 전 소박한 모습으로 출생한 이후 다양한 각종 식물과 동물을 빚어내는 일 등을 통해 그 놀라운 자태를 드러내며 서서히 성장해 오다가, 극히 최근에 이르러서는 인간의 마음이라든가 인간의 문화와 같은 뛰어난 존재들을 산출했고, 다시 이 전체의 몸인 온생명으로 하여금 엄청난 규모의 자의식을 지닌 존재로 탈바꿈하는 데에 성공하고 있다. 이러한 전개과정의 최정점에 자리하고 있는 인간으로서 우리는 이제 생명의 시작 이후 처음으로 이 모든 상황을 한 눈에 내다볼 수 있게 되었으며,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이 바로 내 몸이며 내 지나간 경력임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발견에 압도되면서, 그 어떤 신성 혹은 궁극적 실재를 상정해 볼 때, 우리는 이 모든 것 속에 신의 섭리가 숨어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뿌리치기 어렵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신의 섭리가 들어있을까? 여기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해 우리는 행여 신성의 저편에서 들려올지도 모르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한편, 우리에게 나타난 가장 분명한 사실부터 우선 챙겨나가지 않을 수 없다. 그 최종적 해답이 무엇이든 간에 이 안에는 이 온생명을 이것이 지닌 가장 놀라운 모습들과 함께 보전해나가야 한다는 점이 포함되어야 함은 분명하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도대체 왜 나로 하여금 이 놀라운 모습을 보게 하겠는가? 그리고 우리가 일단 이것을 신의 섭리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곧 이 안에서 엄중하고 긴급한 메시지를 읽어내게 된다. 즉 우리 온생명은 지금 좀 더 높은 단계의 정신적 도약을 향해 영적인 진전을 지속하느냐 아니면 암적 질환으로 인해 신체적 파멸로 치닫느냐 하는 갈림길에 들어서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에 대해 책임을 질 유일한 존재는 인간이다. 자기도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도 인간이고,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에 대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여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오직 인간뿐이기 때문이다.

회개하지 않은 원죄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죄’와 ‘구원’이라는 종교적 개념을 연결시켜 볼 수 있다. 인간의 모든 의식적인 행위는 갈림길에서 행동의 방향을 선택하는 일에 해당한다. 이때에 이상적인 선택에 이르지 못하는 행위를 일러 우리가 ‘죄’라고 규정할 수 있다. 우리는 항상 이상적인 선택에 이르지 못함을 스스로 알고 있기에 스스로를 죄인이라 부르고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기독교의 ‘원죄’(Original Sin)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것은 기독교 신학에서 오랫동안 골치 아픈 논쟁거리로 내려왔지만 온생명의 관점에서는 의외로 쉬운 해석을 얻을 수 있다. 인간의 문명은 인간 자신과 같은 소중한 산물을 낳아준 태고의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일과 함께 시작되었다. 아담 즉 인간 문명의 시조들은 이 생태계를 파손시킴으로써 첫 번째의 죄를 지은 것이다. 그 이전에 존재한 어떤 생명체들도 의식적 결정에 이를만한 능력도 은전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런 죄를 지을 수 없었다. 어쩌면 그 당시의 아담으로서는 이를 저지르는 것 이외에 다른 방도가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의 정체성을 계승하고 있는 (집합적 의미의) ‘인간’으로서는 이 책임을 회피할 길이 없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인간은 ‘원죄’를 지었으며, 아직도 이를 회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References:

- Darwin, Erasmus, *Zoonomia, or the Laws of Organic Life* (1794)
- Margulius, Lynn and Dorion Sagan, *What is life*, New York: Simon & Schuster (1995).
- 장희익, "생명의 단위에 대한 존재론적 고찰", 『철학연구』 23, 89-104 (1988).
- Zhang, Hwe Ik, "Man in the World of Life", *The World Community in Post-Industrial Society: 5 Environment*, 141-153 (1989a).
- Zhang, Hwe Ik. "Humanity in the World of Life." *Zygon: Journal of Religion and Science* 24 (December): 447-56, (1989b).
- 장희익, 『삶과 온생명』 솔출판사: 서울 (1998).

생명여성주의와 생태여성주의의 동질성, 차별성, 보편성

"21세기의 생명운동과 여성"을 성찰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이영숙

21세기의 주요 화두는 생명과 여성문제다.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여성이 성차별에 의해 억압당할 뿐만 아니라,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와 생명을 해석하는 관점 자체가 젠더화(gendered) 되어 있다. 생명적 여성은 사회, 경제, 문화, 그리고 영성 면에서 여성이 젠더화된 불평등 구조에 의해 성차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성을 포함한 생명에 대한 생명적 원리에 어긋나는 보편적 장애와 한계를 극복해 나가는 생명적 감수성이 살아 있는 여성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한국 여성생명의 경험과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여성주의 시각인 생명여성주의를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생명이란 생물학적 실체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힘의 관계가 일어나는 지점이다. 여성주의에서 관건은 생명이 실체라는 점과, 그리고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는 장이라는 두 가지 층위 모두에서 성별관계의 불평등으로 젠더화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국경을 넘나드는 환경오염, 생명공학의 여성 몸에 대한 자본화, 유전자조작 식품의 확산, 일상생활 속의 정체불명의 화학물질들, 그리고 문화산업에 의한 몸의 왜곡, 성폭력, 성매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재생산과 생산 영역에서 여성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사회 속에서 생명의 현실은 중성적이 아니라 남녀사이에 체계적인 성별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성별화된 생명'의 차이는 남녀 간에서 차이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사회들의 여성들 사이에도 생명의 조건에 차이가 있다. 특정 사회 여성의 현실과 그들의 운동을 파악하는 데 이 두 가지 다른 차이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 서구의 문화산업은 지구화라는 정보 기술의 확산을 통해 서구 상품에 대한 '보편적' 지역의 구매 의욕을 창출하고 있다. 이로써 지역의 독특한 문화는 서구적으로 동질화되어, 지역인의 삶과 공동체에 대한 비전과는 어긋나는 소비와 의식으로 지역을 서서히 잠식하게 된다. 이러한 어긋나는 '구매' 현상은 학문 세계에서든 가능하며, 여성과 성별화된 생명 관련 지식체계의 경우도 예외일 수는 없다.

서구중심주의의 학문적 폐해는 서구의 지식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 여성의 경험에 유리된 서구 여성의 문제의식을 보편적인 것으로 내면화하게 한다. 이로써, 우리 여성에 대한 독자적인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게 하고, 따라서 적합한 이론을 내세우게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한국여성의 경험에서 세워지지 않은 여성이론은 한국여성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보편적 개념의 틀로 재구성하여 대상화하게 되고, 그 결과 우리의 상황과 맞지 않는 서구중심주의의 이론, 시각, 분석 틀에 기반한 여성 정책 수립(예: 여성건강정책)은 한국여성의 특수한 욕구와 필요, 그리고 문화적 조건을 다 포괄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한계의 인식에서 출발하여 지구적인 생태여성주의에 대한 대응으로서 한국여성의 경험과 현실을 반영하면서, 동시에 다른 지역의 여성에게도 기여할 수 있는 보편성도 일부 가진 생명여성주의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1. 지구적/지역적 관계와 여성간의 차이의 문제

여성과 생명의 젠더화에 대한 현장의 시각은 여성환경운동에서 나타나는 여성들의 입장을 통해 포착해 볼 수 있다. 특히, 환경운동과 지역의 특수성이 접목되는 교차점에서 나타나는 젠더에 대한 논의는 한국적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지점이 된다.

여성간의 차이 논의로 들어가기 전에 우선 배경이 되는 우선 지구적 환경운동의 문제부터 살펴보자.

환경운동 관련 논의에서 일반적으로 지구적인 것과 지역적인 것 사이의 역동성은 첫째, "지구적" 환경주의의 '북쪽' 국가들의 이권 증대를 위한 패권적 담론과, 둘째, '남쪽' 환경주의가 가지는 지구적 환경주의에 대한 저항운동과 연대 사이에

서 일어난다. 전자를 성별문제에 대입하면, "지구적" 자본주의가 '보편적 자본주의'라고 특권을 주장할 때 가지는 자본의 성중립적 성격이 성별관계에서 억압적 힘을 휘두르는 것(Sturgeon, 1997)으로 정리된다. 이 글은 후자의 저항의 성격과 동일하지는 않으나, 그 맥에서 지역적 변형을 추구하는 것으로 지역 여성의 주체성의 문제를 함축한다.

1) 패권적 환경주의에 대한 여성들의 연대

패권적 환경주의는 경제의 지구화 논리가 세계 시민권을 위한 초국가적 정책인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서 초국적 지구적 자본주의의 조직이 가진 강력한 힘을 통해 강압적 환경주의의 보편성을 지역에 적용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즉 이슈는 환경보호이지만 실제 내용은 북쪽 국가들이 환경문제를 거론하여 남쪽 국가들을 대상으로 세계의 자본을 장악하려는 지구적 의도를 은폐하는 것이다 (앞글, 1997).

환경과 개발의 문제 사이에서 일어나는 패권적 환경주의에 대응하여 여성들이 조직적으로 그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기구로 WEDO(Women's Environment and Development Organization, 뉴욕 소재)를 발족시켰다. 일반적으로 생태여성주의의 경향을 가진 이들은 1980년대 말부터 패권적인 환경 논의에 연관된 지배적인 개발담론에 정치적으로 간섭하기 시작하고, 이로써 남북 국가들의 여성 사이에 연대가 형성되었다(앞글: 135-136). WEDO의 입장들(WEDO, 2000a; 2000b; 2000c; 2000d; 2000e)은 자본을 앞세워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는 패권주의적 담론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의 도전의 표현이며, 지구적 자본주의와 성별관계에서 보편주의를 해체하는 것이다. 생태여성주의는 지역의 생태적 특성을 중시하므로 보편적 하나의 체제로 해결하려는 환경주의의 지구화 자체에 반대한다. 때문에, 북쪽과 남쪽의 생태여성주의자들 사이의 연대에서도 남쪽 국가들이 스스로 자기의 목소리를 지역에서 찾도록 열어 두게 된다. 그리고 남쪽은 북쪽 생태여성주의자들의 여성과 환경 사이의 관계, 경험, 이슈를 오롯이 보편적인 담론으로 수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배경이 한국 여성 환경운동에 주는 시사성은 이중적이다. 하나는 지구적 패권주의에 대한 지역과 남쪽국가들의 특수성 부각의 중요성이며, 다른 하나는 각 지역의 여성들 사이의 경험의 차이를 토대로 지역의 여성이 세계환경운동

에서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구적 환경주의에 대해서 남북 여성이 연대하여 남성적 보편주의의 해체를 촉구하는 것과 동일한 논리로 지역사회의 특수성을 살린 환경보존, 그리고 지역여성의 문화와 특수성을 살린 환경보존 지식과 이념을 한국 여성 환경운동은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2. 생명여성주의의 모색

1) 생태여성주의의 지역화로서 생명여성주의

여성의 생명에 대한 시각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자연과 여성 사이의 유사한 억압적 상황을 논하는 생태여성주의를 우선 소개할 필요가 있다. 생태여성주의는 1990년대 초부터 한국에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생태여성주의는 서구에서 최근까지 남성이 주류가 되어 진행시켜온 역사의 행보가 어떤 방식으로 자연을 비롯해서 지구를 파괴시키면서 진행되어 왔는가에 대한 성찰적인 저항운동으로서 지구를 구하려는 여성들의 노력과, 여성과 자연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여성주의적 시각이 맞물려 형성되고 있다.

에코페미니즘이라고 칭하는 생태여성주의의 핵심은 남성이 여성을 억압하는 가부장제적 성차별주의와 사람의 무차별 개발에 의한 자연파괴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체계적 논의에 있다. 서구 생태여성주의자들과 인도의 쉬바와 같은 학자들은 서구 과학을 "모든 제도적 폭력을 정당화시키는 궁극적인 원천으로서, 그리고 오늘날의 지배-피지배 관계의 기본적인 모델"이라고 지적하여 적극적으로 피지배 여성들의 자연과의 관계 방식에 특별한 관심을 보여 왔다(브라이도티 외, 1995: 186-187).

생태여성주의에서 서구중심주의를 극복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탈식민은 구체적 역사성 속에서 출현하는 것이므로 생태여성주의에 대한 한국여성환경인의 반응을 소개해 볼 필요가 있다. 이영숙(2001)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국여성환경인들이 생태여성주의 이론에 대해 선뜻 수용하지 않는 입장들이 드러나고 있다. 성별관계에 대해 확실한 의식을 가진 성인지적 한국여성환경인도 "과거엔 생태여성주의 이론이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다. 현재도 잘 모른다. 생태여성주의가 무엇인지 너무 추상적으로 들렸다. 한국의 현실과 좀 다르다. 여성환경운동가들이 생태여성주의에 대해 공부는 좀 했으나, 나는 생태여성주의에 별

로 관심이 없다"고 이야기를 한다.

여성적 시각은 생태여성주의적 관점과 동일한 것은 아님을 명백히 언어화하고 있다. 생태여성주의에 대한 이질감의 표명에서 여성과 자연의 연관성이 서구중심의 공통의 언어로 균질화 되기를 거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분명한 것은 아주 적극적인 한국 여성환경인일지라도 서구적 관념에 자신의 경험이 잘 맞추어지지 않기에 거부감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서구의 여성과 환경 관계의 이론이 우리의 언어로 거르지 않은 채 서구 여성의 일상 및 자연과의 관계가 바로 적용될 때 지역과 가지는 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생경감이 있었다. 이러한 사례는 한국여성환경인들에게서 여성과 자연의 억압들 사이에 존재하는 연관성의 근원에 대한 서구 주도의 이론에 쉽게 공감하지 않는 목소리를 들려주고 있다. 이것은 우리들 자신의 환경관련 경험의 목소리들을 바탕으로 개념화하여야 할 것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전 지구적 페미니즘은 지역여성들 간의 "차이 속에서, 차이를 통해서, 차이에도 불구하고"(통, 2000: 462) 다양성 속에서 지구적으로 통일성을 가지고 연대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사실, 생태여성주의 이론의 형성은 대부분의 거시이론이 고도의 지적 추상성으로 이론의 틀을 짜는 것과는 달리 지역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례들의 상황을 반영하여 이루어진다. 자연혐오와 여성혐오에 대한 상호연관된 사회적 지배의 뿌리를 밝히는 구체적 분석 없이는 생태학은 추상성으로 남게 된다(King, 1989: 23-24). 구체성을 지닌 사회적 지배의 뿌리란 두말할 것 없이 그 지역 사회의 역사, 문화, 사회적 배경을 의미하는 것이다. 워렌(Warren, 1994)은 생태여성주의의 이론형성 과정을 켈트(조각이불)만들기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 조각 하나 하나는 켈트 조각을 만드는 여성의 개인적인 삶의 자리와 삶의 여정에 대해 말해주는 데, 이와 마찬가지로 각 생태여성주의자는 각자의 문화적, 사회적, 역사적, 지역적, 인종적, 국가적 배경에 따라 각자의 독특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커다란 조각이불 켈트를 일반명사인 '소문자 생태여성주의'라고 지칭할 때, 이 조각이불은 지역 여성의 경험에서 만든 고유명사 켈트 조각하나인 '대문자 생태여성주의'들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조각이불은 많은 조각이 모여 차츰 새로운 모양의 이불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이것이 개별 조각 켈트 하나하나 사이의 동질성, 차별성, 보편성이 형성되는 맥락이다.

이 조각이불 만들기와 같은 생태여성주의 이론의 형성과정은 조각이불을 만드

는 작업 자체에서 연상될 수 있다(앞글: 187-188). 첫째, 위렌이 언급한 바와 같이 생태여성주의에서 이론은 항상 형성 과정에 있는 것이므로 역사적, 사회경제적, 문화적 상황을 반영하여 이론이 형성되어야 한다. 둘째, 한 지역에서 생태학적으로 가능한 것을 지구 보편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오로지 생태학적인지 아닌지는 그 지역에서 그것이 지배와 종속의 상황과 구조의 유지에 호의적인가 아닌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다. 셋째, 구조적으로 환원주의거나 단 일적인 것이 아니라 다원주의적이다. 따라서 포괄성 속의 차이이며, 이 차이는 지배하거나, 다른 것을 열등시하지 않는다.

이러한 생태여성주의 이론의 특성에 따라 한국 여성은 우리의 개념과 언어로 생태여성주의를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서구의 여성학 이론과 생태여성주의는 여성문제를 파악하는데 강력한 분석틀을 제공해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서구여성의 경험과 비서구 여성의 경험이 구체적인 부분에 들어가서는 다른 면이 있는데 이것을 동일한 개념으로 언어화하는 것은 문제다. 서구 여성의 경험이 비서구 여성의 경험과 역사에 반하여 보편적인 경험으로 수용되거나, 또는 비서구 여성들의 경험을 생태여성론에 따라 서구적 감각으로 해석하거나, 서구적으로 '의식화' 하는 것은 문제다. 물론 서구의 과학기술에 대해 비판하는 서구의 페미니즘은 서구식 개발을 비판하여 비서구여성의 삶과 만나는 담론의 장을 펼쳐왔음을 상기한다.

이 논의는 페미니즘 내에서 여성간의 차이와 탈식민적 주체성의 문제 영역에 있는 것이다. 여기서 아주 적절한 인용을 해보자: "저항 정치학으로서 생태여성주의는 힘의 관계로서 이론 자체의 사용과 남용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일깨워 주고 있다. 사실상 생태여성주의 안의 우리가 권력에 반대함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전제들에 도전할 때이다"(퀸비, 1996: 197). 이 내용은 가부장적 사회에 대해 여성이 주장하는 외적 주체성과 구별하여 여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내적 주체성의 문제라고 이름지을 수 있다. 생태여성주의는 이론의 남용을 경계하고, 그들 자신의 전제들에도 내적 차별이 없도록 스스로 항상 도전해야 하는 이론이다. 쉬바(1996: 286)는 생명 파괴적이고 자원 낭비적인 악발전을 가져오는 서구적 발전모델을 제 3세계에 적용하여 발전이 서구적 경제체제(악발전)들과 동일시되었다고 통렬히 고발하고 있는데, 이 서구식 발전 모델에 문제를 제기하고, 대항하는 한국의 여성환경운동이 서구적 생태여성주의와 동일시 될 필요도 없는 것이다. 비서구 중에서도 한국 여성의 자연과 여성관계는 한국 여성의

경험에서 도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여성의 삶의 현장인 환경 관련 이야기에서 사회구조 문제를 스스로 끌어내도록 하자. 여성은 사회적으로 구성되었는데, 우리와 상이한 서구 현장의 개념, 용어, 문화들이 "보편적 추상성"으로 우리 옆을 스쳐지나가고 있다. 한국에서 생태여성주의에, 그리고 페미니즘에 대해 일반 주부들이 별로 공감하지 않는 이유는 생활이 보장된 가정이라는 공간을 잃지 않으려는 현실적 이유에 더하여 방금 언급한 우리 자신의 경험을 통한 개념화 작업의 부족과 결여에 있다. 한국 여성의 여성과 자연의 관계에서 한국 여성의 삶에 대한 분석틀을 모색하려면 한국 여성 자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부터 이론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의 생태여성주의의 쉼트 조각은 한국 여성의 경험이 갖는 특수성--자연과의 관계, 몸, 가부장제의 특수성, 산업화 과정의 특수성, 최근 기술사회의 특성, 이슈 등--이 반영된 이론으로 생태여성주의를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자료가 말해주고 있었다.

2) 생태여성주의와 생명여성주의의 관계

생명여성주의의 모색은 생태여성주의와의 관계에서 서로 대립된다기 보다는 상호보완하면서 발전되어야 할 것으로 접근하면서 동시에 생태여성주의와 일정 부분 차별화 전략으로 이루어진다. 차별화 전략은 사실상 기존 서구중심 생태여성학의 주요 전제들을 수용하면서도 여성사이의 차이점에 착안하여 한국여성의 경험과 현실, 문화의 생명적 가치들과 의미를 재조명하는 것이다.

3) 생명여성주의의 관점을 형성하는 주요소들

생명여성주의란 무엇인가? 생명여성주의는 생명의 특성 및 사회·문화적 조건에 대한 이해를 양성평등 가치에 접목한 여성주의적 시각이다. 생명은 사회구조에 의해 젠더화 되어 있다. 어느 사회든 산업화, 기술, 자연, 생명이 맺는 상관관계는 있는데, 한국이라는 특정 현장에서는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를 파악하고, 또한 여성이라는 집단이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생명을 중심으로 젠더관계를 가지는가를 생명여성주의는 포착해야 한다.

생명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논의의 중심 틀은 생명적 원리와 양성평등의 원리의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된다. 이 두 축이 만나는 교차점에서 '성별관계로 층화된 생명'의 이해, 즉, 여성과 생명에 대한 '젠더화 된 생명에 대한 관점'이 이루어진다.

생명적 원리는 생물학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여성의 성별관계를 위치 짓는 생명의 조건은 자연만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의 사회적 환경을 보는 것이다. 생명적 원리에는 생명의 사회, 경제, 역사, 문화적인 것이 포함되고 있다. 생명여성주의는 생명의 이러한 사회적 제조건을 중시한다.

생명여성주의의 시각에서 여성의 생명은 두 가지 층위에서 논의될 수 있다. 그 하나는 사회 속에서 '성별화된 생명'에 대한 이해이며, 다른 하나는 '성별화된 여성의 몸'에 대한 이해의 층위들이다. 전자의 경우는 메타포 차원에서 생명이 논의되는 부분으로 왜 생명이 차별받고, 억압되고 있는가와 같은 생명이 위치한 사회적 구조를, 그리고 그 구조가 성별화된 점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후자의 경우는 여성 몸의 현실을 생물학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생명의 구체적 실현으로서 몸을 보는 것이며, 따라서 우리의 사회문화 안에서 억압의 장소로서 몸을 보는 것이다. 예컨대, 환경오염에 의한 여성의 피해, 생명공학 기술이 여성의 몸에 개입해서 어떻게 자본화시키는가, 사회문화가 요구하는 여성의 몸 이미지가 여성에 가하는 반생명적 몸 만들기 등을 말하는 것이다. 이때 몸 자체도 '물질적 실체로서의 몸'과 '문화가 실현되는 장으로서의 몸'이 있다.

4) 생태여성주의와 생명여성주의가 분리되고, 차별화 되는 지점

(1) '생태'와 '생명'

그러면, 한국 여성 환경활동가들이 생태여성주의에 도전해야 하는 요인들은 무엇일까? 생태여성주의는 자연과 여성의 관계를 여성주의적으로 이해하였는데, 우리는 어떻게 자연과 여성의 관계를 이해해야 우리의 문제와 생명에 대한 비전을 가장 적절하게 답을 수 있을까?

한국 여성의 삶에 대한 고찰은 한국 여성 경험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서구여성의 경험과 비서구여성의 경험이 다르며 산업화 정도라든가 사회구조에 따라 여성 문제의 성격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각 사회의 산업, 경제구조, 문화에 따라 환경운동의 내용과 저항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생태여성주의자들의 제3 세계 여성에 대한 논의는 주로 개도국 여성들이 직면하는 개발, 자연문제, 일상생활(연료, 식수, 식품 등)과의 연관성에서 여성의 주변화와 억압을 말하고 있

다. 서구에 대한 생태여성주의자들의 연구는 자연과 여성의 관계를 기초로 핵문제, 화학약품, 유전자 조작 식품, 생명공학의 복제 문제 등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 이 서구 여성에 대한 생태여성주의자들의 이해는 주로 기술적 접근(descriptive approach)의 성격을 가진다. 그 이유는 자연을 중심으로 한 '생태'가 직접적으로 여성의 삶을 구성하지 않으므로 자연과 여성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적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제 3세계 여성의 문제를 생명여성주의적으로 접근할 경우 다음과 같이 풀어 쓸 수 있다.

제 3세계는 농업사회에서 산업화로 이행하는 자본주의의 팽창 과정에서 한편으로는 여성의 생계부양 활동과 직결된 농업에 주는 문제와 개발이 여성의 역할과 지위를 박탈하거나 악화시켜 여성의 공적 경제활동을 '젠더화하는' 문제, 즉, '생명 억압의 장소로서 여성의 몸' 문제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 환경 악화가 여성의 재생산 노동과 생물학적 몸, 즉, 실질적 실체로서의 몸에 주는 젠더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접근은 여성문제의 실체와 문제의 사회적 위치, 그리고 성별관계가 접합하여 하나의 통합적 차원에서 여성의 현실을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생명여성주의는 생태여성주의적 인식을 보완하는 인식 틀로 한국 문화의 생명에 대한 통찰과 인식을 수용한다. 생명여성주의의 출발점은 생태와 생명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그 구체적 한국적 맥락 속에서 한국적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보인다. 여성주의 심리학자 길리건(1997)에 의하면 여성의 도덕성의 근거는 책임과 관계의 연결망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 책임과 관계는 사실 "생태"에 대한 책임보다는 "생명"에 대한 책임이 아닐까?

여성은 생명 살리기에 민감한 생명적 감수성을 가지고 있다. 생명에 초점을 맞추면, 그 속에서 여성에 대한 반생명적인 사회구조 문제, 그리고, 환경에 대한 억압이 함께 보인다. 생태(Eco)에 초점을 맞추면 한국에서는 억압받는 여성이 덜 부각된다. 우리말의 생명은 생태보다 훨씬 강력한 의미를 함축한다. 생명이라고 말할 때 숨쉬고, 고뇌하는, 그리고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러나 현실 속에 간혀 헤어날 수도 움직일 수도 없는 여성의 한을 듣게 된다. 거기에는 기, 에너지, 세포의 율동, 운명, 적나라하게 먹고사는 정치경제학적 관계, 건강, 사랑과 출산, 억울한 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의미까지도 함축하는 동태적 개념이 있다. 묘하게도 '생태'라고 하면, 우리말에서는 역동적인 동학이 사라진 정태적인 물리적

의미로 다가온다. 영어에서는 Ecology가 역동성을 가지는 말인지 모르겠다. 우리 말에서 생명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빈부의 관계, 남녀의 관계, 자연과 사람의 관계까지 담아 들이는 사회 동학적 관계의 개념이 된다.

(2) 생명여성주의의 인식론적 전제

생명여성주의에서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그리고 생명여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은 생명여성주의적 인식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찾아 볼 수 있다.

참고로 생태여성주의자들의 주요 인식체계를 먼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생태여성주의에서 말하는 자연과 여성의 관계는 두 가지 다른 입장으로 나눠진다. 하나는 여성이 본래적으로 자연에 더 가깝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역사적 구성물로서 체화된 여성을 말한다.

나. 전자에서는 보살핌과 같은 여성적 가치에 의미를 부여한다.

다. 모든 생명의 상호연관성을 강조한다.

라. 모든 억압적 이념들이 가부장제에 의해 유지·강화되는 지배의 논리를 말하고 있다.

마. 생태계의 다양성 유지의 중요성과 그에 따른 힘의 분산을 생태여성주의에서 추구하면서, 소비산업을 통해 유사한 욕구와 욕망이 전지구적으로 통용되는 문화의 단순획일화의 문제를 지적한다.

바. 자연, 문화, 사람 사이의 이분법적 인식체계의 철폐를 강조한다.

생명여성주의적 인식은 생명과 관련된 한국적 전제, 속성, 이해를 포함한다. 한국 문화에서 "생명"이 가지는 특수성을 먼저 검토하고 그것을 기저로 생명여성주의적 인식론적 전제를 모색하여 보았다.

① 생명여성주의에서 생명은 주체다

생명에서 자기해방적 힘을 본다. 이것을 잘못 해석하여 여성은 두들겨 맞아도 아무렇지도 않고, 다시 일어난다는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생명의 자율성, 생명의 내적 자기해방적 힘을 전제한다. 생명은 정태적 '생태'와 달리 스스로 내면에 가지고 있는 성장하는 힘 자체이다. 여성의 경우 자기 자신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여자. 자기의 생명력이 스스로 자신을 끌어내는 힘을 내장하고 있는 여성을 말할 수 있다. 이는 여성 안에 있는 힘, 즉, 여성이 자생력

과 자율성을 가지고 삶의 주체가 됨을 말하는 관점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생명여성주의는 여성은 희생자이면서 동시에 극복할 힘을 가진 자, 사회변동의 주체로 부각될 수 있다.

생명여성주의에서 생명은 주체라는 전제는 생명이 사람의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도 가진다. 이 의미는 양성평등 사회의 구현을 위한 운동 차원에서, 그리고 연구의 방법론 차원에서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생태여성주의는 자연과 여성이 서로 다른 종류로서 동등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상정한다. 자연이 주체, 여성도 주체, 생명이 그 자체로서 주체다. 인간 행위의 대상인 목적격으로서 자연과 여성의 관계가 논의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자연과 여성 주체 사이의 관계는 여성이 자연을 닮았는가 아닌가를 가지고 여성주의자들 사이에서 분화되고 있다. 생명여성주의에서는 남성 속의 생명도 주체이므로 남녀 사이의 보편적 생명이 전제된다. 이로써 생태여성주의에서 쟁점의 하나인 자연과 여성이 닮았느냐, 아니냐라는 본질주의 논쟁을 생명여성주의에서는 근원적으로 묻지 않게 되고, 여성과의 생명과 남성의 생명이 보편적으로 만날 수 있는 양성 해방운동의 이론적 장치가 될 수 있다.

여성을 포함한 사람과 함께 있는 생명이 주체인 것이다. 생명과 여성(사람) 사이는 자연과 여성사이의 논의에서 그 둘이 분리되는 것과 같은 분리가 불가능하다. 이로써 생명여성주의에서는 생명, 여성을 함께 묶어 하나의 단위로서 성찰해야 하며, 따라서 연구 방법에서 생명은 파편화해서 그 성격을 포착할 수 없으므로, 생명여성주의적 접근의 여성 연구(다른 생명학적 연구에서도)는 통합적인 접근을 요하게 된다.

② 생명여성주의는 상호영향성을 중시한다

생명은 에너지이기도 하므로 상호영향을 주고 상호작용한다. 따라서 생명을 상호관계적으로 인식한다. 생태여성주의에서도 사람과 자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호연관성을 중시한다. 그러나, 생태여성주의의 '상호연관성'에 비해 생명여성주의에서 의미하는 바는 적극적으로 상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관계를 말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생명"은 역동적 성격을 가진다. 한국에서 기는 흐르는 에너지로 이해되고 있으며, 사물과의 관계는 일방적이지 아닌 것으로 이해된다. 동양에서 생명이라고 할 때 생명은 실체, 근원적 에너지, 사회적 장, 역사성과 운명까지를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주체다. 생태

여성주의에서 자연이 살아 있다고 할 때조차도 생물학적 차원에 주로 머무르고 있다.

'생태'는 정태적으로 다른 종들 사이의,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에서 물리적 현상을 중심으로 말할 수 있는 틀이 된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같은 종 내의 힘의 관계를 분석하기보다는 자연 환경과 여성의 관계를 자연현상을 축으로 해서 분석 가능하다. "생명" 개념은 한 종 내의 성별, 인종, 힘, 계층, 계급의 관계 모두의 역학을 경제, 사회, 정치학적으로 접근 가능한 동적 개념이다. 생태여성주의에서도 남녀관계에서 힘의 관계를 보나, 일반적으로 이것은 분석에서 부차적이 된다. 이로써, 생태여성주의의 상호연관성은 생명여성주의의 상호영향성에 비해 소극적으로 보인다.

③ 생명의 연속성을 강조한다

'몸과 마음, 그리고 정신과 물질의 이원론 극복'의 인식은 이미 기존 페미니즘에서 수용하고 있다. 남녀의 연속성 전제는 여성과 남성이 크게 다르지도 같지도 않다는 의미를 내포하며, 이 인식에는 젠더라는 사회적으로 구조된 성불평등의 정치학을 극복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물론 젠더의 극복을 위해서 남녀의 차이에서 출발해야 하지만, 남녀가 크게 다르지도 않다는 진제에서 여성과 남성 각각에 대해 가부장적 성역할 분리로 이어지는 여성성과 남성성을 극복하고 양성성(androgyny) 추구를 가능케 한다.

이원화되지 않은 몸과 정신이 함께 조화를 이룰 때 생명적 상태로 가는 조건의 하나가 된다. 이때 실체로서의 생명, 생명의 실체로서 몸 강조를 강조할 수 있게 된다. 관념적이 아니라 실체로 만나서 체험하는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가진 도교는 '생명을 존중하고(귀생)', '생명을 기르는(양생)' 문화이기 때문에 신체성을 강조해 왔다. 생태여성주의는 "모든 것이 변화 속에 있다"고 전제하므로 고정된 실체를 거부한다. 때문에 '생명의 실체로서 몸 강조'는 근대적 사유의 실체론이 된다고 반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생명여성주의에서 말하는 실체는 정신과 몸이 분리되지 않은 실체, 그리고, 여성학에서 말하는 담론 속에서 만들어 지지만 한 여성(구조물로서의 여성)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실체를 말한다.

④ 생명의 치유적 관계를 중시한다

역할, 기능, 조직 체계, 노동과정에 치유적 성격을 중시한다. 생명의 온전성은

사회적 관계에서 항상 상하고 있으므로, 생명적 관계에는 늘 치유적 기제가 요청된다. 생명개체의 자기 충족, 자기완성 과정에서 다른 개체와 다른 집단에 발생시키는 모순, 갈등이 있게 마련이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기술문명과 이미지의 세계 속에서 생명에 대한 감수성이 무디어 지고 있으므로, 생명과 생명 사이에서 생물학적, 사회적, 관계적, 존재적 차원이 다치게 된다. 따라서 모든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치유하면서 나가야 한다. 생명적 감수성은 생명의 치유적 관계를 위해 역할하는 중요한 감성이다.

⑤ 시간을 곡선으로 이해한다

삶의 곡선적, 동시적 흐름을 시계가 조형하는 일직선상의 시간의 틀에 넣어 왜곡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다. 한 생명의 시작과 끝을 분리하지 않고 그 생명의 현재, 과거, 미래의 모든 시간이 함께 만나는 지금 이 순간을 생명에 추동력을 붙이는 공생의 시간의 덩어리로 전제한다.

시간을 일직선상으로 놓을 때 (전제할 때) 이항대립적 사고가 시작된다. 미개/발전, 과거/현재, 나/너 등으로.

생명의 힘을 열어두기 위해서는 시간에 대한 우리의 분절적, 직선적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그때 직선적 시간에 의해 과거/현재로 분열된 자기 자신과 화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나 혼자만의 파편화된 시간을 포괄하는 "공생의 시간대"로 들어갈 수 있으리라 상정한다.

시간을 곡선적, 동시적으로 놓을 때 생명에 대한 직선적 이해와 함께 가는 합리적 인식을 극복하고 역설적 인식까지 포함 가능하게 된다. 비우면 비울수록 줄 것이 더 채워진다는 생명의 역설이 있다. 생명의 패러독스와 아이로니의 '역설'을 언급하는 이유는 서구적 합리성에 입각한 여성과 남성 사이의 등가원칙에 의한 상호성(mutuality)의 한계를 극복하자는 것이다. 여성주의는 남녀사이의 상호성을 중심으로 분석하는데 여성주의의 궁극적 목적은 상호성이 아님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 상호성은 양성간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분석의 과정에서 우리들이 사회 운동을 펴는 내용들이지 그것이 궁극적 목표는 아니다. 양성평등적 논의의 장으로 남성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남녀 사이의 상호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양성 모두가 함께 해방될 수 있는, 양성 모두에 해당되는 보편성이 함께 제시되어야 하리라 본다.

(3) 양성평등 원리와 생명적 원리가 결합되는 방식

생명적 원리와 양성평등적 원리가 어떤 식으로 결합되는가? 이 생명원리와 양성평등원리의 결합방식은 생태여성주의에서 여성과 자연의 유사한 상황이 유비(類比) 접목되는 방식과 같은가?

① 생명여성주의는 자연을 매개로 할 필요가 없으므로 현대사회의 반생명적 현상을 분석하기에 용이하다.

생태여성주의는 자연이 억압 받는 방식과 여성이 억압받는 방식이 유사 내지 동일하다고 한다. 이 점은 생명여성운동에서도 공감한다. 그런데 생태여성주의는 자연을 매개변수(혹은 맥락)로 하여 생명을 말한다. 자연을 매개로 하면서 그 분석은 자연에 대한 억압관계가 결국 인간 사회에서의 억압관계와 동형적이라는 것이다. 생태여성주의는 자연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 많은 생각을 피력한다. 그러나, 사회적 관계라고 하는 사람과 사람의 내적 관계, 힘의 관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 생태여성주의에서 자연을 매개로 해서 제1, 제2 세계 분석을 시도할 경우, 개념상 틀리고 올 곳이 많다보니, 현대사회의 주제에 대해서는 분석력이 떨어진다. 사실 사회의 특성에 따라 젠더화된 생명의 현실이 다르므로 현대 사회에서 반드시 자연을 거쳐서 반생명적 현상을 논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생명여성주의는 반드시 자연을 매개로 우회하지 않더라도 생명의 성별관계 문제의 사회적 조건을 바로 논의할 수 있다. 생명여성주의는 인간의 자연억압의 동형구조가 재생산된다는 점의 부각에 치중하여 자연을 매개로 하면서 사회적 문제로서 여성문제를 논의하기보다는 여성문제 자체에서 바로 반생명적이고, 젠더화된 생명의 문제를 보고자 한다. 여성과 남성 사이에, 가진 자와 없는 자 사이에, 권력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사이에 그 동형구조가 같이 내려오는 점에 주목하고, 생태여성주의에서 자연 논의를 관통하는 핵심이 생명담론임을 지각한다.

한국의 경우는 산업화된 도시에서 여성의 생명이 어떻게 고통받는지 논의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생명이 젠더화된 현상을 생명적 원리와 양성평등 원리가 만나는 접합점에서 "생명의 젠더화로서 여성 몸의 자본화"와 같이 개념화하고, 그에 따라 구체적 한국여성의 경험에서 반생명적 "성형수술의 유행은 여성의 몸에 '재현된' 남성중심 노동의 조건과 상관관계를 가진다"라는 식으로 조작적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사회주의 생태여성주의의가 사회적 구성물로서의 여성이라는 점

에 착안한 접근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생명여성주의는 사회주의적 생태여성주의와 문제의식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제를 공격하고자 하는 방식이 다르다. 생명여성주의는 첫째, 한국적 생명의 젠더 경험에 토대를 두고 있고, 둘째, 자연을 매개로 하지 않으므로 현대사회의 중층적인 젠더화 현상을 분석하기에 용이하고, 셋째, 생명을 주체로 전제하기에 여성과 생명이 분열되지 않으므로 젠더화 된 생명에 대해 통합적으로 접근하도록 된 장치다. 다음 항에서 이를 좀 더 상세히 논의한다.

② 통합적 접근

생명여성주의는 자연과 사람을 별개이면서 동등한 것으로 보는 생태여성주의와 달리 생명 자체가 주체이면서 그것은 사람을 만드는 핵심 개념이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생명여성주의는 자연을 매개로 하지 않으므로 특히 현대사회의 중층적인 현상을 분석하기에 적합하다. 또한 생명은 중층적으로 이루어진 특성에 의해,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만이 생명의 젠더화 문제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으므로 생명여성주의는 통합적 방법을 강조한다.

성별화된 생명의 현상은 사회의 특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또한 생명적 현상은 복합적 조건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일반적으로 생태여성주의는 여성이 사회구조에 의해 젠더화됐다는 점을 기초로 하나, 사회적 생명에 대한 논의를 오히려 부차화시키면서 자연이 받는 억압상태와 여성의 상황에 연민을 가지고 접근한다. 이때 실제로 사회의 특성이나, 문제에 따라 생명의 젠더화의 현상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젠더화된 생명을 조건 지우는 중층적 요인들을 분석하기엔 생태여성주의의 관점의 틀 자체부터 방향이 맞지 않는다. 통합적 접근을 하기보다는 이론의 분파에 따라 접근의 주안점이 다르고, 분파에 따라 사회구조, 문화, 여성 등으로 분절되거나, 편향된 분석을 종종하게 된다.

예컨데, 사회주의적 생태여성주의는 여성과 자연이 자본을 중심으로 맺는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이 논의는 여성의 몸이 성별화된 생명의 장이라는 사실을 소홀히 한다. 급진적 생태여성주의는 영성을 중시하면서 사회적 구조물로서 젠더화된 생명을 소홀히 한다. 이와 달리 생명여성주의는 생명을 조건 지우는 사회, 경제, 문화적 관계의 중층적 현상에 대하여 통합적인 접근으로 생명의 성별화를 파악하려한다.

5) 생명적 감수성

여성과 생명을 연결하는 고리가 무엇일까? 생명여성주의는 생명적 감수성이 그 답이라고 제안한다. 이 제안이 나오기까지의 배경에는 생명여성주의의 인식체계에서 언급했던 "생명은 상호영향성"을 가진다는 전제가 생태여성주의의 전제 "상호의존성"에 비해 훨씬 강도 높은 사회, 심리, 물리적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인식에 토대를 두고 있다.

생명적 감수성은 자기의 생명, 그리고 다른 생명의 욕구와 필요, 고통을 느끼고, 생명이 가진 자생력을 펼치도록 판을 벌려주고, 지켜주고, 도와주기 위해 성찰적으로, 그리고 연민을 가지고 사물과 관계를 맺는 감수성을 의미한다. 늘 감성이 깨어 있고 가슴을 열어 두어야 가능한 감성이다. 이 감성은 감각적인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사유적, 행동적인 것을 포함하여 거의 인성의 차원에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길리건(1997)과 같은 페미니스트 학자가 말하는 여성주의적 윤리의 주요한 특성인 여성적 원리와 유사한 면은 생명여성주의가 배려, 보살핌의 성격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명적 감수성의 지평이 논리적으로 여성적 원리보다 훨씬 더 넓다. 생명적 감수성은 무성적으로 양성에 모두 쓰일 수 있는 보편성을 가진 용어이며, 개념이다. 생명여성주의는 '생명적 감수성'을 여성주의의 윤리로서 제안한다.

이 제안의 배경에는 본질주의에 대한 여성주의자들의 거부감이 자리하고 있다. 여성주의자들 가운데, 그리고 생태여성주의자들 가운데 여성적 원리(feminine principle)를 여성주의의 윤리로서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여성주의자 일반과 생태여성주의자 가운데는 여성적 원리가 가부장제로부터 양성이 모두 해방되기 위한 가장 의미있는 가치관이라는 주장에 반대하고 있다. 이 반대 논의는 '재생산하는 자연의 성격과 닮은 여성이 양육하고, 살림하는 "여성 특유의 보살핌과 배려의 본질이 있다"는 본질주의(essentialism)에 대한 맹렬한 비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성적 원리를 본질화 시키는 것에 거부감을 가지는 여성주의자들은 여성이 자연과 닮았다거나 여성적 원리라는 선형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접근에 반대하는 것이다.

생명여성주의는 전략적으로 여성주의적 원리(양성평등)와 생명적 감수성을 서로 접목시킨다.

"여성적 원리"(배려 등)는 본질주의 논쟁 때문만이 아니라, 용어의 외연적 틀에 의하면 여성에게만 있는 것으로 상정하는 문제가 있다. 남성이 가사노동, 양육, 살림에 참여할래야 할 수 없도록 성분리적으로 개념화되어, 남녀의 성역할에 경계선을 그은 결과가 된다.

이렇게 되면, 남성이 "배려" 역할에 동참하려면 여성적 역할로 젠더(사회적 성별)의 변화가 와야하는 것으로 전제되어 있다. 그런데, 생물학적으로도 여성이라는 성별이 있다. 그러니, 남성이 생물학적으로 여성이 될 수 없는 불가능한 조건과 용어가 겹치므로 "배려"할 수 없는 논리적 상황에 처해 있다.

생명적 감수성이 양성평등을 원칙으로 하는 여성주의적 원리에 의해 거둬낼 때, 양성관계와 사람과 생명의 관계가 바로 서고 살릴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때 생명적 감수성은 성차별을 철폐하고, 또한 남성의 성역할에 대해서도 해당되는 보편성을 가진 변화의 촉매가 될 것이다.

3. 맺는 말

생명여성주의 지구/지역의 관계, 동질성, 차별성, 보편성의 의미

생명여성주의 논의를 통해 글은 생태여성주의와의 동질성과 차별성,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문자 생태여성주의에도 해당하는 보편성과 남성을 포함한 양성 모두에 해당하는 보편성을 추구해 보았다.

생태여성주의에서 우회적으로 접근한 "생명"의 성격과 생명의 성격에 근거한 인식체계를 부각시켰다. 이 과정에서 생태여성주의가 지금까지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고 자연을 매개로 한 여성문제를 생명여성주의가 "젠더화된 생명"의 문제로 부각시킨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층위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생태여성주의가 가진 강점인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를 사장시키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해야겠다.

생명여성주의는 우리가 여성의 현실을 파악하고, 사회과학적 의미를 해석할 때 여성이 위치하고 있는 공간의 지역성의 중요함을 지적하고, 젠더화된 생명에 반하여 생명적 인식을 바탕으로 생명여성주의적 접근의 틀을 제시하려 하였다. 우리의 갯벌 할머니에서 시작한 생태여성주의를 해야지, 생태여성주의에서 시작한 갯벌 할머니는 지역여성을 서구적 이론으로써 대상화하는 것이다. 갯벌여성의 삶

자체가 우리에게 중요하지 생태여성주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생명여성주의의 열개의 모색은 이제부터 한국여성의 경험에서 개념화하는 작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 문화와 지역, 여성의 삶에 대해 더욱 활발히 논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생명여성주의의 모색에는 한국적 특수성의 의미뿐만 아니라, 보편성의 의미도 가진다. 이 보편성의 의미는 이중적이다. 지구/지역의 관계의 차원에서 볼 때, 생명여성주의가 지역에서 가지는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태여성주의에 보편성으로 접목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 예를 들어 "생명이 주체다", "생명이 역동적으로 상호영향력을 가지는 에너지다", "시간에 대한 곡선적 이해와 상호성의 극복", "생명적 감수성이 생명적 원리와 양성평등의 원리를 연결하는 고리"라는 원칙들은 소문자 생태여성주의에 대한 보편성과, 남성까지 포함한 양성 모두에 해당하는 생명적 삶을 위한 접근법으로서 보편성을 가진다.

참고로, 생명여성주의의 실천은 환경운동, 여성 몸 연구, 생명공동체 운동, 생명여성적 문화 운동, 생명여성주의적 상담, 생명적 감수성 훈련 등에서 가능하다.

끝으로, 보다 입체적인 생명 여성의 상을 가지기 위해서는 핵심 개념들의 여성학적, 생명적, 한국적 성격을 적절히 채용했어야 하는데 아직 미진하다. 현재 생명여성주의는 개념화하면서 재개념화 하는 단계에 있다. 생명여성주의는 '구성물'이므로, 이것이 생명 여성의 성찰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앞으로 생명학과와의 대화를 통해, 그리고 구체적으로 연구에 활용한 후 결과물들을 통해 논의를 수정 보완하면서 현상과 이해 사이의 접근 틀을 바로 잡아갈 것이다.

참고문헌

길리건, 캐롤(1997), 『다른 목소리로』, 동녘.

다이아몬드 & 오렌스타인(1996), 『다시 꾸며 보는 세상』,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머천트, 캐롤린(1996), "생태여성주의와 여성론", 아이린 다이아몬드·글로리아 페만 오렌스타인(편저), 『다시 꾸며보는 세상』,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미스, 마리아(1996), "전지구적 생태여성론이 세계를 구할 수 있는가?", 『여성과 사회』(7호).

브라이도티, 로지, 외(1995), 『여성과 환경 그리고 지속 가능한 개발 - 이론적 종합을 지향하며』, 한국여성 NGO위원회 여성과 환경분과(웁김), 서울: 도서출판 나라사랑.

쉬바, 반다나(1996), "서구 가부장제의 새로운 계획으로서의 발전", 아이린 다이아몬드·글로리아 페만 오렌스타인(편저), 『다시 꾸며보는 세상』,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8), 『살아남기』, 솔.

스프레트낙, 샤를린(1996), "생태여성주의: 우리의 뿌리와 꽃피우기", 아이린 다이아몬드·글로리아 페만 오렌스타인(편저), 『다시 꾸며보는 세상』,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이영숙(2001), "한국 여성환경운동의 성별관계와 지구화 논점들", 「여성학 논집」.

장희익(1998), 『삶과 온 생명』, 솔.

퀸비, 리(1996), "생태여성주의와 저항의 정치학", 아이린 다이아몬드·글로리아 페만 오렌스타인(편저), 『다시 꾸며보는 세상』,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킹, 이네스트라(1996), "상처의 치유: 여성주의, 생태학 그리고 자연, 문화의 이원론", 아이린 다이아몬드·글로리아 페만 오렌스타인(편저), 『다시 꾸며보는 세상』,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통, 로즈마리(2000), 『페미니즘 사상』, 한신문화사.

King, Ynestra(1989), "The Ecology of Feminism and the Feminism of Ecology" in Judith Plant (ed.), Healing the Wounds: The Promise of Ecofeminism. Philadelphia, PA: New Society Publishers.

------(1995), "Engendering a Peaceful Planet: Ecology, Economy, and Ecofeminism in Contemporary Context", Women's Studies Quarterly 23, Fall/Winter.

Sturgeon, Noël(1997), "Ecofeminist Natures and Transnational Environmental Politics" in Author, Ecofeminist Natures: Race, Gender, Feminist Theory, and Politics Action. New York: Routledge.

Warren, Karen(1994), "Toward an Ecofeminist Peace Politics" in Karen Warren (ed.), Ecological Feminism, New York: Routledge.

WEDO(2000a). "A Gender Agenda for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http://www.wedo.org>.

------(2000b). "Economic Policies and Women's Health."
<http://www.wedo.org>.

-----, 2000(c). "Global Survey Finds Progress on Women's Rights and
Equality Compromised by Economic Globalization." <http://www.wedo.org>.

-----, 2000(d). "Women's Health and the Environment."
<http://www.wedo.org>.

-----, 2000(e). "Women Transform the Mainstream." <http://www.wedo.org>.

흙과 생명⁹⁶⁾

정경식(농민)

1. 서문

넓은 창공, 파란 하늘, 떠다니는 구름, 스쳐 지나가는 바람, 억새꽃은 가을을 자랑합니다. 바람결에 스치는 벼는 농부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노을의 빛나는 모습은 땅에서 자라는 모든 생명을 밝게 해줍니다. 밝은 기운과 맑은 마음으로 생명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생명의 아름다움을 전합니다.

가을하늘 찬바람이 스치는 아침, 황금빛 벼를 베고 난 후 농부는 안도의 숨을 내 쉽니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땅에 뿌려진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리고 그 열매를 보존하여 또다시 내년 농사준비를 위해 땀 흘리는 모습이 거룩하게만 느껴집니다.

거룩한 그 모습으로 인해 수천, 수만 년 동안 땅을 경작하면서 땅과 함께 더불어 살아왔고 또 더불어 살아갈 것입니다.

죽어도 땅으로 되돌아가야 할 생명들이기에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종자만은 남겨 두었던 농부의 심정으로 인해 만년의 농업역사를 지켜오지 않았던가요. 그래서 생명의 땅을 보존해오지 않았던가요.

그런 땅 그런 거룩한 땅을 지키던 농부들이 떠났습니다. 땅을 버리고 떠나고

96) 출처: 2004 세계생명문화포럼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소리 없이 병들어 갑니다. 땅이 마구 갈라집니다. 땅이 마구 뒤흔들리고 찢어집니다. 마치 술주정꾼처럼 비틀거리고 환자처럼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땅에서 토해내는 신음소리는 생명의 기운을 잃게 합니다. 기운을 잃은 생명들이 땅으로 인해 병들어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땅-땅을 병들게 하는 자는 땅과 함께 병들어 갈 것입니다. 땅-땅을 살리는 자는 땅과 함께 더불어 살 것입니다. 땅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 그게 우리 모두의 축복입니다.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땅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1) 땅이 가진 생명력

땅이 생성하는 모습을 보았습니까. 땅이 소멸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생명의 몸이 태어나고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땅도 하나의 생명임을 증명해 보실 수 있으십니까. 땅에 코와 눈과 입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땅에도 냄새와 맛과 빛깔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학문과 이론과 과학으로 분석하고 쪼갰다고 땅의 생명을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생명의 형상이 땅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 형상의 사람들이 있듯이 땅에서도 여러 생명의 형상이 있고 땅으로부터 드러난 이 형상들을 통해 생명의 땅에 흐르는 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땅에서 흐르는 생명이 중병에 걸려서 피를 토하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피를 토하고 죽어가는 땅을 살리고자 땅과 함께 아픈 고통을 겪어 보았습니다.

땅에서 살아가는 거미와 땅강아지와 지렁이와 두더지 그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이 흘리는 피를 멈추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했어야 했습니다. 덮어주고, 재워주고, 먹여주는 일들이었습니다. 보릿대와 벼짚과 온갖 낙엽들로 생명의 피를 멈추게 하는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손발이 저리고 허리가 아프고 숨이 찰 지경에서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 가슴 속 깊숙이 뿔어져 나오는 마음의 심장소리가 들려옵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땅, 그 땅에서 신발을 벗고 누워라. 손발이 아픈 것, 허리가 아픈 것, 숨이 찬 것, 하늘을 보고 긴 호흡을 하여라.

천천히 그리고 더 깊숙이 숨을 쉬어라. 그런 후 조용히 일어나 앉아라. 일어난 그 자리 그 땅에 있는 흙을 천천히 조금씩 씹어 먹어라.

그렇다 그게 식량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 만약에 인간에게 식량부족 현상이 오게 된다면 살아있는 땅, 생명이 있는 흙, 그 흙을 먹고 살라라.”

고통 깊숙이 스쳐 지나간 내면의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조금씩 조금씩 흙을 천천히 씹어 삼켰습니다. 입을 통해서 목구멍으로 삼켰습니다. 나는 비로소 살아있는 생명을 먹게 되었습니다. 흙 1g 속에 1억~2억 마리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걸 나는 먹게 되었습니다. 순간의 교감은 벅찬 감격이었습니다. 순간적인 감격이었지만 지나온 일들을 생각한다면 흙을 보듬어 안고, 흙을 어루만지면서 흙을 살리고자 했던 몸부림은 저주받은 인간이 해야 할 뼈아픈 고통이었기에 그 고통을 고통으로 끝냈다면 정말이지 저주받은 인간이었겠지요. 하지만 나는 비로소 저주스러운 고통에서 희열을 맛보는 감격을 느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하는 순간적인 모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내가 임신하여 아이를 출산할 때 내 스스로 아이의 생명을 받아본 기억이 납니다. 그때 아내의 고통, 분만의 고통을 보게 되었고 출산한 아이를 보는 순간 고통이 희열로 바뀌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감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시작은 고통이며 그 고통으로 인해 생명이 탄생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명이 탄생되는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곧 땅의 생명력입니다. 땅의 생명력을 도우는 일 - 그것이 유기농업이었고 그 유기농업을 실천하면서 땅의 생명력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생명을 잉태시키고 키워내는 능력을 가진 땅이 서서히 파괴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2) 생명력이 파괴되는 현실 (땅의 생명력이 파괴되는 현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땅, 그 땅에서 주어진 모든 것은 존재가치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치는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존재가치를 인정받을 때 비로소 생명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술, 진보, 기계, 정보 등 이른바 과학과 학문이란 척도에서 사람 이외의 대부분을 생명으로 보지 않게 되면서부터 존재 가치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학적 학문이란 것을 통해 산업문명을 창출하게 되었고 산업문명 창출로 인해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굶주림에서부터 해방되었으며, 추위와 더위를 잊게 하는 냉, 난방을 얻었으며 TV와 컴퓨터를 얻었고 불과 몇 시간 만에 천릿길을 달릴 수 있는 자동차를 얻었습니다. 농업분야만 하더라도 얻은 것이 많습니다.

육종학의 진보로 인해 다수확을 얻었고 기계의 진보로 이앙기와 트랙터, 그리고 콤바인을 얻었고, 화학처리의 발전으로 비료와 농약, 제초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퇴비 한줌 없어도, 농민이 줄어들어도 방대한 농토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과학이란 산업문명의 혜택이며 그 원료는 화석연료(석유)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화석연료가 엄청난 환경공해를 불러일으키리라 상상도 하지 않았겠지요. 하지만 화석연료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공해는 이 땅의 많은 생명력을 잃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공기, 물은 말할 것도 없지요. 공기, 물, 땅은 생명이 생명답게 살아가기 위해 절대적인 것인데 그런 절대적인 것이 오염되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위험한 일일 것입니다.

여기서 농민으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농토며 농토는 농사짓는 땅을 말합니다.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은 인간의 먹을거리를 제공해 주는 땅이 농약, 화학비료, 제초제 그리고 백색혁명이라 불리어지는 비닐과 거대한 기계로 인해 땅이 굳어져가는 현상과 잔류농독에 의한 중병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유기물 함량 부족으로 수확체감의 법칙에 의해 식량증산의 감소현상이 일어나며 땅의 생명력 저하로 병, 해충이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농토는 갈수록 산성화 되어 가고 있고 통기성과 보수성이 악화되면서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생명력을 잃어가는 것은 농사짓는 농토뿐 아니라 전반적인 땅 전체가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공장과 도시 집중화로 발생하는 대기오염, 자동차매연으로 인해 비와 이슬과 눈이 산성화되었고 산성화된 비로 인해 땅은 더욱더 산성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흙1g 당 1억~2억 마리씩 존재하는 미세한 생명들의 활동이 교란됨과 동시에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땅의 생명력을 잃게 하는 또 하나의 주범은 중금속오염과 다이옥신 그리고 방사능 물질일 것입니다. 산업문명으로 창출된 공업화는 도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많은 수의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어 냈으며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성 폐기물은 다이옥신과 함께 인간이 만들어낸 최악의 독극물이라 표현합니다.

방사성 폐기물은 최근 전북 부안에서 방사성 물질 폐기장 건설 문제로 1년 넘게 주민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산자부와 정부를 상대로 한 반대투쟁을 전개하여 세인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방사성 폐기물의 해악을 극명하게 보여준

소련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사고는 유럽전역 뿐 아니라 8천km 떨어진 일본까지도 방사능으로 땅을 오염시키고 그 땅에서 나오는 모든 농산물을 폐기처분해야 하는 사태를 불러왔었습니다. 이토록 무서운 방사능 오염물질에 노출된 땅은 장기간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방사능 오염물질이 ‘죽음의 재’로 불리는 이유일 것입니다.

‘죽음의 재’로 불리는 또 하나의 재앙은 방사능과 똑같은 레벨을 가진 다이옥신입니다. 다이옥신은 베트남 전쟁 당시 밀림지역을 초토화시키기 위해 뿌려진 고엽제의 주성분이었습니다. 그 다이옥신으로 인해 월남 전쟁이 끝난 20년 후 그 때 참전했던 많은 병사들이 기형아 출산 등 알 수 없는 병들로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 원인을 규명한 보고서가 그 유명한 제킨스 보고서입니다.

제킨스 보고서에 의해 다이옥신이란 물질은 인간이 만들어낸 최악의 독극물이란 것이 지상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런 무서운 다이옥신이 우리들이 사는 일상적인 생활물자뿐 아니라 다수확을 하기 위해 뿌리는 잡초제거용 농약에 다량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1976년 스위스 접경 세베소 지역 화학공장에 2.4.5T라 부르는 제초제 공장의 안전문이 터지면서 뿌려진 다이옥신으로 인해 그 지역이 최강오염지구로 지정되어 폐쇄 명령이 내려지고 그 지역 주민 17,000명은 살고 있는 땅으로부터 떠나야 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던 모든 생활물자도 그대로 버려두고 가야만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땅의 생명력을 잃게 하는 것은 중금속과 합성세제일 것입니다. 도금, 전기, 시멘트, 자동차, 공장을 비롯해서 쓰레기 소각장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을 통해 사용되어지는 중금속과 합성세제는 하천과 강, 식수와 농업용수를 오염시킬 뿐 아니라 땅을 오염시키고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땅의 생명력을 파괴시키는 일들이 이 시간에도 수없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개발논리로 땅을 파헤치며 산과 들, 온 국토를 거미줄 모양으로 수놓고 있는 도로는 시멘트,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풀 한포기 살아갈 수 없는 땅을 대규모로 조성해 놓았습니다. 그 땅은 침묵의 땅이 되어 도시의 고층아파트와 수많은 공장, 주택을 지탱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 무거워하는 생명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너무 답답해하는 생명들의 숨소리가 들립니다.

침묵의 땅이라 하지만 그 땅에는 생명들이 숨 쉬고 있기에 우리는 그런 생명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땅에 있는 생명들이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다 그 생명이 멈추게 되는 그날, 인간도 그 죽음의 공포에 직면할 날이 머지않아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후회 한 들 아무 소용이 없게 될 것입니다.

3) 생명력이 파괴되는 땅을 살려내기 위한 방법

“너희의 생활태도를 깨끗이 고쳐라. 그래야 너희 조상들이 길이 살라고 준 이 땅에서 너희를 살게 하리라. 인간은 땅을 밟고 살게 했다고 하는 것을 축복으로 깨달아라.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토대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소련의 석학 술제니친은 크레믈린에 보내는 편지에 나의 조국 땅은 오염되어 시베리아로 옮겨 새롭게 시작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오염되어 있는 땅을 극복하기 위해 우선 우리는 생활태도를 바꾸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말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1) 생활태도를 고치는 방법

우리의 생활은 자연적이고 시골생활인 농촌이 있고 인위적이고 산업문화 생활적인 도시가 있습니다. 도시는 인간이 만들어낸 공업을 말하며, 농촌은 신(자연)이 만들어낸 농업을 말합니다. 도시는 산업문명에 근거한 기계론적 사고에서부터 출발되어졌다면 농촌은 자연에 근거한 생명론적 사고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농촌은 모든 게 철에 따라 움직이는 재생 순환적 생활방식이라면 도시는 화석연료로 움직이는 소비 지향적인 생활방식입니다. 재생 순환적 생활방식은 생명이 생명답게 영원히 살아갈 수 있지만 화석연료로 움직이는 소비 지향적인 생활방식은 시작과 끝이 분명히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촌은 신(자연)이 만들었으며 도시는 인간이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땅이 생명력을 잃지 않고 파괴되지 않으려면 그리고 파괴된 땅의 생명력을 회복시키자면 지속가능한 생활양식과 생활태도를 바꿀 수 있는 농업중심의 경제와 문화회복으로 전환하는 길 밖에는 없는 듯싶습니다.

(2) 영성적 감각을 키우는 방법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농사꾼으로서 농약과 화학비료로 흙이 중병에 걸려 신음하는 소리에 귀 기울여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흙을 살릴 것인가 고민하면서 농사를 짓던 중 어느 날 고추 탄저병의

로 어린 고춧잎이 썩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농약을 쳐야 된다는 유혹으로부터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땅을 생각해서 농약을 칠 수 없기에 타들어가는 어린 고추모종을 안타깝게 들여다보면서 애태우다가 견디지 못해 나는 아이를 옅고 있는 아내에게 물이 담겨져 있는 물통을 들고 사정없이 뿌렸습니다. 아이는 울었고 아내는 겁에 질려 떨어졌습니다. 그때 뽕족한 물통 밑 부분의 칼날같이 생긴 함석에 둘째 손가락의 살이 툭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순간 피가 솟아났습니다. 피와 물, 아내와 아이, 그리고 나.

싸움은 5분 만에 끝났지만 아픈 고통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상처 난 손을 천으로 묶었습니다. 그리고도 고추모종을 돌보아야 했습니다. 탄저병균이 없는 새로운 흙을 만들어 고추모를 옮겨 심었습니다. 썩어가는 고추모의 어린잎은 가위로 수술하듯이 도려내었습니다. 그런 후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때 아픈 상처를 견디면서 내 마음속 깊숙이 스쳐 지나가는 것, 보이지 않는 내면 속 깊숙이 솟구쳐 오르는 감정은 땅에 있는 모든 생명과의 교감이었습니다. 생명과의 교감에서 일어나는 영성의 체험이었습니다.

땅과 나, 나와 아내, 아내와 아이, 아이와 물, 물과 피, 피와 고추. 이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아는 순간 상처 난 손가락의 아픈 고통이 사라지게 된 것을 느낀 것은 땅에서부터 일어나는 생명과의 교감이며, 연결되어 있는 그들과의 교감이었습니다. 그 체험을 통해 나는 땅의 생명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은 우리의 마음과 심성이 흙과 교감하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때의 체험을 나는 살아있는 땅과 나의 영성적 교감이라 믿고 싶습니다.

(3) 자연 치유 능력을 키우는 방법

논농사를 하던 어느 날 애지중지 키운 벼를 애벌레가 모두 갉아 먹었습니다. 내 자식보다도 더 소중하게 키운 벼를 벌레가 먹고 있어서 약이 오릅니다. 벼 잎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얗게 됩니다. 지나가던 이웃집 농부가 흙을 밟니다. “이 사람아, 힘들게 농사지어 벌레 좋은 일 시키려고 하나? 일주일만 지나면 종자도 못 건질 것이니 어서 농약을 치게”

내 살점을 뜯어 먹히는 느낌이 왔습니다. 아픈 진통을 느끼면서 밤낮으로 벼를 어루만지며 보냈습니다. 그때 내 속에서 누군가의 깊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생명이란 고통이고 진통이란다. 그 고통과 진통을 견디어라. 그런 후 생명이

잉태될 것이다”

그래서 5일을 견디었지만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4km나 되는 길을 뛰어가서 농약 한 병을 사왔습니다. 농약을 치기로 단단히 마음을 먹고 논으로 나갔습니다. 논으로 들어설 즈음, 서쪽으로 기울어 가는 해가 벼들을 비춥니다. 바람이 불어와 벼를 흔들어 줍니다.

흔들거리는 벼, 노을에 비친 벼, 그 벼의 모습에 나는 발길을 멈추었습니다. ‘저렇게 아름다운 벼에다 내가 지금 뭘 하려고 하고 있는가. 내가 미쳤지. 내가 어찌 저 아름다운 벼에 농독을 뿌릴 수 있는가. 저 벼가, 저 아름다운 벼가 바로 나의 생명인데.’ 나는 농약을 치지도 못하고 논둑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로 인해 내 마음은 편안해졌습니다. 진통과 고통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 후 1주일이나 지나자 벌레들은 모두 고치가 되고 나뭇잎이 되어 자연스레 벗잎 먹기는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벌레가 먹기를 중단하자 벼는 스스로 치유되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치유력의 큰 동력은 살아있는 땅으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농약을 사용한 인위적인 치유법은 오히려 흙에 내재되어 있는 자연 치유력을 파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4) 공생적 관계를 깨닫게 하는 방법

유기농법으로 고추농사를 짓던 어느 해 진딧물이 극성이었습니다. 얼마나 심한지 농약을 아무리 쳐도 진딧물이 죽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며 우리 고추밭에 찾아온 동네 젊은 친구는 깜짝 놀랐습니다. 농약 한 방울 뿌리지 않았던 고추에 진딧물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젊은 친구와 함께 유심히 관찰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손뼉을 치면서 ‘이거다!’라고 외쳤습니다.

먹고 먹히는 자연의 순리. 그 순리에서 익충과 해충이 따로 없습니다. 서로 먹고 먹히는 먹이사슬에 의해 자연은 존재합니다. 고추도 자연의 일부로서 존재하며 진딧물이 고추진액을 빨아 먹는 것도 익충이 해충을 먹어치우는 것도 먹이사슬에 의한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사람만이 고추를 전부 먹겠다는 욕심으로 농약을 칩니다. 그러다보니 가장 먼저 죽는 것은 익충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익충은 고추에게 피해를 주는 진딧물을 잡아먹는 무당벌레였습니다. 농약을 치면 칠수록 무당벌레의 수가 감소되어 진딧물이 더욱 극성을 떨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유기농 첫째 땅콩 농사를 했는데 수확하여 보니까

땅콩이 쪽정이 뿐이었습니다. 곰뽕이가 모두 먹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년,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저절로 곰뽕이가 없어졌습니다. 이유는 지렁이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지렁이 몸에서 나오는 액체가 곰뽕이를 접근하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대신 지렁이가 많이 생기니까 두더지가 극성이었습니다. 올해 농사는 두더지 때문에 토마토 모종이 피해를 입어 두더지와 싸움하느라 애를 좀 썼지만 농약과 화학비료와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농사짓는 나로서는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 많은 색다른 경험을 하였습니다. 땅을 살리고 땅의 생명력을 파괴시키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공생적 관계를 존중하고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것도 그 중 하나입니다.

(5)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녹색정책

가난하고 배고픈 시절을 극복하기 위해 근대에 와서 본격적으로 산업문명을 도입하게 되었고 산업문명에 근거한 공업화정책은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들었다. 박정희 정권시절,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고향인 땅을 떠나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땅을 때는 1년에 5십만 명이 줄줄이 땅을 떠났다)

한 번 잘 살아 보자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농촌은 농촌대로, 도시는 도시대로 열심히 일한 결과 우리는 정말 잘 살고 있습니다. 소위 새마을운동이란 수출주도형 공업정책으로 가난하고 배고픈 시절에는 상상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는 너무도 잘 살고 있습니다.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마음만 먹으면 못할 일이 없을 정도로 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뭔가 빠진 사람모양 허전합니다. 공허합니다. 불안합니다.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살하기도 합니다. 암, 고혈압, 당뇨, 아토피성 피부질환 등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불신과 불만으로 서로 감시하고 감시당해야 합니다. 부익부, 빈익빈으로 계층 간의 격차는 심해져 갑니다. 실업자는 늘어가고 사회적 혼란은 심해져 갑니다.

우리 한 번 잘 살아보자고 땅을 떠난 결과입니다. 땅을 보존하고 경작하는 농부가 사라져 버린 결과입니다. 경작할 땅에는 농약과 화학비료, 제초제, 기계, 비닐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땅에는 미꾸라지, 개구리, 거미, 지렁이 등이 보이지 않은지 오래 되었습니다. 처마 밑에 봄이면 봄마다 흙으로 집을 짓는 제비도 오지 않습니다. 지저귀는 참새와 종달새가 사라진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오로지 사람만이 희망이라고, 사람만이 이 지구상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갖추

기 위한 공업화정책은 고향인 땅을 버리고 도시를 건설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허리띠를 졸라매고 잘 살아보자고 열심히 일했지만 농민은 농민대로, 도시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힘겨운 생활이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남보다 더 잘 살아 보려고 경쟁, 시기, 질투, 전쟁, 투쟁, 개발, 수출, 증산 등을 부르짖어 왔지만 여전히 평화와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농산물 시장 개방 저지와 임금인상을 위해 끊임없이 투쟁했지만 WTO와 초국적 독점자본들만이 여전히 판을 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결국 우리는 땅을 떠나서는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출주도형인 공업정책을 포기하고 자연을 관찰하고 땅을 가꾸고 모든 생명이 생명답게 살아갈 수 있는 대안적 녹색정치가 필요한 시기라 보입니다. 친환경적이고 녹색적인 순환과 공생, 생명과 생태적인 정책만이 파괴되어가는 땅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한 예로써, 쿠바의 유기농업 정책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철저한 무역봉쇄를 당해온 쿠바는 소련으로부터 모든 물자를 공급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탕을 중심으로 담배나 커피를 수출하여 화학비료, 농약, 비누, 종이, 전기제품, 자동차 등 모든 것을 소련으로부터 공급받고 살아가는 쿠바가 소련이 붕괴되자 모든 물자 공급이 중단되고 대량 실업과 식량위기를 동시에 겪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카스트로 정부는 대안적인 방법으로 수입자원에 의존하지 않는 생산방법, 친환경적이고, 생명생태적인 유기농업을 선택하는 결단을 하였습니다. 이후 쿠바에서는 지금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땅을 떠나서 도시를 만들고 그 도시들로 인해 땅이 파괴되어 가고 있는 지금, 수출주도형 공업화 정책은 대전환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친환경적인 유기농업 혁명이 일어나야 합니다.

(6) 토지(땅)제도의 대개편이 선행되어야 한다.

땅을 버리고 떠난 농민들은 조상대로 물려받은 토지를 자본가들에게 넘겼습니다. 5%도 안 되는 재벌(자본)들이 전국토의 땅을 55% 소유하고 있습니다. 재벌의 땅 독점을 막지 않는 이상 파괴되어 가는 땅을 회복시키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는 불가능 하다고 보입니다. 자본이라는 것은 돈을 버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돈을 벌수 있는 일이라면 그 어떤 일이든 하게 되어 있는 것이 현대

자본가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돈으로 보고 돈을 벌기 위해 땅을 사고팔고 또 마음대로 파헤치고 메우고 합니다. 실제로 부안 변산 새만금 간척지를 보면서 그 넓은 땅과 바다를 매립하여 육지를 만들겠다는 발상을 한 인간이 위대해 보이기도 하지만 것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케 하는 것도 자본의 논리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없이 많은 산과 들, 바다와 강을 메우고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수확이란 이유 하나로 전 국토에 뿌려지는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로 인해 엄청난 면적의 땅이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땅(토지)이란 내 것이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소유 개념에서부터 출발되어졌습니다.

자본을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땅을 생명으로 보지 못하고 물질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마구 짓밟고 파헤치고 메우고 독성 물질을 마음대로 뿌려댑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도로건설이다, 주택이다, 공장이다, 골프장이다, 간척지다 끝이 없습니다. 개발논리와 무한 경쟁이 더욱더 부추깁니다.

땅을 사적인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바라보는 소유개념이 아닌 토지공개념 내지 생명개념으로 바라보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때라 보입니다. 땅은 누가 소유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을 영원히 팔지 말라고 부탁한 성서에 담겨진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땅이 마구 무너지고, 땅이 마구 갈라지고, 땅이 갈갈이 찢어지고, 땅이 마구 뒤흔들리고, 땅이 주정꾼처럼 비틀거리고 그래서 땅이 쓰러져서는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을 때야 비로소 우리 인간들은 정신을 차릴 것이다.”

<참고>

땅은 누구의 소유도 아닙니다. 그래서 땅은 사고 팔수 없습니다. 뉴질랜드의 마오리족은 절대로 땅을 소유한다거나 매매한다거나 하는 생각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백인들은 들어와서 땅을 갈기갈기 찢어 팔고자 했습니다. 어리둥절한 마오리족은 “땅은 우리 어머니다. 어찌 우리 어머니를 갈기갈기 찢어서 팔수 있느냐”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사람들은 땅을 사고팔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땅을 더럽히면 너희보다 앞서 거기에 살던 민족을 토해 냈듯이 그 땅이 너희를 토해 내리라” 우리가 땅을 무시하고 어머니를 무시하고 짓밟아 버린다면 땅이 입을 벌리고 집어 삼켜 버릴 것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너희들은

땅을 밟고 살게 했다는 것만으로 축복으로 알라고 말합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는 토지공개념에 의해 땅은 누구의 소유가 될 수 없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땅을 경작하는 사람들이 땅을 생명으로 가꿀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일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을 경작하는 그들을 위해 땅 살리기, 땅 가꾸기, 땅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을 공동체 회복, 땅을 통해 생산되어지는 농산물 직거래 운동, 도농공동체운동으로 우리 땅에서 생산되어지는 농산물을 학교에 공급하는 학교급식운동, 땅이 교과서가 되는 교육개혁운동 등 할 수 있는 모든 영향을 총동원 할 때라 보입니다.

2. 결론

땅 - 땅을 떠나서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산업문명이란 틀 속에서 우리는 가꿀 만한 기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힘은 과학기술에서 나왔습니다. 과학의 힘, 그럼 과학이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학하면, 3가지를 나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과학을 통해서

- 1)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다.
- 2) 만든 것을 언제든지 살 수 있다.
- 3) 쓸 수 있는 것을 끝 수도 있다.

그래서 과학이란 명제 하에 우리 인간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만들 수 있고 살 수 있고 끝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산업문명이란 거대한 도시를 만들 수도 있고, 천릿길을 달릴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 수도 있고, 수천 km를 날아다니는 비행기를 만들 수도 있고, 서울을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하게 할 수 있는 원자폭탄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든 그것을 우리는 언제든지 이용하고 쓸 수 있습니다. 그 원료는 화석연료(석유)이고 그 화석연료를 태우는 것은 불입니다.

그런데 그 불로 인해 생기는 찌꺼기(재)는 이산화탄소, 아황산가스 등입니다. 그런 가스가 소위 환경공해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해로 인해 많은 생명이 병들고 죽어가야 하며 병들어 아픈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 공해병입니다. 그런데 과학으로 인해 만들어 쓸 수는 있지만 ‘끝 수 있다’라는 세 번째 물음에

대해 과학은 확실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인간이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만들어 쓰고 버린 그 많은 쓰레기를 치울 수 없다는 것이며 만들어 쓰고 있는 물건을 정지 시킬 수 없다는 것, 이같은 문제에 해답을 줄 수 없는 오늘의 과학은 과학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부터 과학적으로 밝힐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정지시킬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의 끊임없는 욕심으로 인해 만들어 사용된 산업물질로 인해 발생된 방사능, 다이옥신, 합성세제, 중금속 등의 산업쓰레기는 전 지구의 땅, 공기, 물을 오염시켰지만 오염된 환경공해를 해결할 뾰족한 대안이 없는 것이 오늘의 과학이며 자동차와 TV, 컴퓨터 등을 우리는 사용하고 쓰고 있지만 달리는 자동차를 정지시킬 수 없는 것이 오늘의 과학입니다. 말하자면 타오르는 불을 끌 수 없는 것이 오늘의 과학이기 때문에 그 과학은 과학이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과학이 아닌 과학을 가지고 자본(돈)과 국가권력과 기술이란 3자가 합작하여 거대한 산업문명인 도시를 창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위기에 직면한 인류 문명이 예견되는 대재앙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을지요?

학문을 연구하고 생명을 논하고자 오신 여러 선생님! 이른 아침 한 생명의 잎새에 맺힌 이슬방울을 보셨습니까? 방울방울 맺힌 이슬이 떠오르는 태양에 의해 반짝이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살아있는 땅에서 자란 황금빛 들녘에 사방으로 엉켜져 있는 거미줄에 맺힌 이슬방울에서 생명의 신비를 느껴 보셨습니까? 한 톨의 작은 씨앗이 땅에 떨어져 파란 싹을 내미는 경이로움을 보셨습니까?

우리의 존재 가치는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산업문명으로 빚어진 대재앙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생명의 존재 가치에서 찾아져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생명을 논하자고 하는 이 땅은 풀 한 포기 살 수 없는 시멘트로 포장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숨조차 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시멘트로 포장된 이 땅에서 어찌 우리가 생명을 논할 수 있고 생명이 자라는 모습을 보지 않고 어찌 생명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이 자라는 것을 보는 것은 생명과의 교감이며 깨달음입니다. 생명의 교감과 깨달음 없이 생명을 논하고 생명을 탐구한다는 것은 학문을 위한 학문이며 귀족적인 생명관을 가진 사람들의 학문에 불과할 뿐입니다. 어렵고 알아듣지 못하는 생명적 사고를 던져 버리고 살아 있는 풀 한 포기를 어루만질 수 있고 교감을 느낄 수 있는 땅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그 땅에는 살아 숨 쉬는 땅의 기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드라망 세계관과 삶의 철학

도 법(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

1. 본래의 길, 생명살림의 길인 인드라망 세계관

인드라망은 화엄경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불교 우주관에 나타나 있는 무수한 하늘나라 가운데 하나인 제석천 궁전에 드리워진 그물을 뜻하는 말이다. 깨달음의 핵심인 연기법의 세계관을 상징하는 비유이다. 구체적으로 인드라망 세계관이 화엄경에서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제석천 궁전에는 투명한 구슬그물(인드라망)이 드리워져 있다. 그물코마다의 투명구슬에는 우주삼라만상이 휘황찬란하게 투영된다. 삼라만상이 투영된 구슬들은 서로서로 다른 구슬들에 투영된다. 이 구슬은 저 구슬에 투영되고 저 구슬은 이 구슬에 투영된다. 작은 구슬은 큰 구슬에 투영되고 큰 구슬은 작은 구슬에 투영된다. 동쪽 구슬은 서쪽 구슬에 투영되고 서쪽 구슬은 동쪽 구슬에 투영된다. 남쪽 구슬은 북쪽 구슬에 투영되고 북쪽 구슬은 남쪽 구슬에 투영된다. 위의 구슬은 아래 구슬에 투영되고 아래 구슬은 위의 구슬에 투영된다. 정신의 구슬은 물질의 구슬에 투영되고 물질의 구슬은 정신의 구슬에 투영된다. 인간의 구슬은 자연의 구슬에 투영되고 자연의 구슬은 인간의 구슬에 투영된다. 시간의 구슬은 공간의 구슬에 투영되고 공간의 구슬은 시간의 구슬에 투영된다. 동시에 겹겹으로 서로서로 투영되고 서로서로 투영들 받아들인다. 총체적으로 무궁무진하게 투영이 이루어진다.

화엄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세계의 실상이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연기법의 세계관 또는 인드라마 세계관이라고 한다. 실로 그 활동작용이 신비롭고 황홀하고 불가사의하다. 신비롭게 활동하고 있는 우주의 그물은 연기의 산물로서 불멸의 실체성이 없다. 마찬가지로 구슬 하나하나도 연기의 산물로서 독립된 실체성이 없다.

여기에 한 송이 꽃이 피어 있다. 온 우주 삼라만상이 하나의 그물관계를 이루어 꽃을 피워내고 있는 것이다. 이 세상 그 무엇도 꽃과 무관한 것은 없다. 펠레야 펠 수 없는 관계의 작용에 의해 꽃이 피어나고 있기 때문에 꽃 그 자체가 바로 세계요, 세계 그 자체가 바로 꽃이다. 관계의 그물인 우주는 본래 하나의 유기적 생명공동체이다. 공동체로 성립하고 공동체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 우주의 진면목이다. 시간과 공간, 정신과 물질, 인간과 자연, 중생과 부처, 인간과 신, 너와 나 등 모든 것들이 총체적 관계 속에 성립 전개되고 있다. 영원에서 영원 너머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관계 속에 끊임없이 생성변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요, 우주의 모든 것들이다. 이처럼 우주의 삼라만상 어느 것 한 가지도 관계를 떠나서 존재하는 것은 없다. 달리 표현하면 온 우주는 ‘한 몸, 한 생명’인 것이다.

<불본행집경>에서는 부처님이 연기법(인드라마, 즉 한 몸, 한 생명 세계관)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인류역사에 희망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음을 선언적으로 설파하고 있다.

‘어두움의 역사가 청산되고 광명의 역사가 시작되었도다. 고통과 죽음은 뿌리를 뽑아내고 안락한 참삶의 새싹을 움트게 했도다.’

영원한 우주의 진리인 연기법을 깨닫고 본래의 길인 연기법을 발견함으로써 비로소 인류 역사에 희망의 서광이 빛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마치 봉사가 눈뜨듯이 인드라마 세계관을 확립할 때 희망의 길이 열리게 된다고 웅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한 몸, 한 생명의 길인 인드라마 세계관을 확립하는 작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임을 깊이 깨달아야 하겠다.

2. 한 몸, 한 생명의 질서인 더불어 함께 사는 길

인드라망 세계관으로 보면 이 세상의 길은 더불어 함께 사는 큰 길 하나밖에 없다. 함께 사는 본래의 길 말고는 그 어디에도 길이 있지 않다. 이 세상에는 천 갈래, 만 갈래의 길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은 진정한 길이 아니다. 오로지 더불어 함께 사는 길만이 참된 길이요, 희망의 길이다. 서로서로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나 더불어 함께 살도록 되어 있다.

그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연꽃과 연꽃의 관계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연꽃은 연꽃을 피워낸다. 연꽃은 연꽃에서 피어난다. 연꽃 없는 연꽃은 무의미하다. 연꽃을 떠난 연꽃이란 있을 수 없다. 연꽃이 뿌리내리고 있는 곳은 뽕 연꽃이다. 냄새나고 지저분한 연꽃이 아름답고 향기로운 연꽃 생명의 원천인 것이다. 연꽃이 제 아무리 우아하다 하더라도 퀴퀴한 냄새의 진원지인 연꽃을 떠나서는 피어날 수 없다. 연꽃과 연꽃은 분리시킬래야 분리시킬 수 없는 한 몸, 한 생명이다. 연꽃은 연꽃이 피어나기 때문에 존재가치가 있다. 연꽃은 연꽃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꽃으로 피어난다. 연꽃과 연꽃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가치이다. 연꽃은 연꽃에 가치를 부여하고 연꽃은 연꽃에 생명을 준다. 연꽃과 연꽃은 서로 주고받으며 서로 의지해 함께 있을 때 생명을 갖게 되고 가치를 갖게 된다. 연꽃과 연꽃처럼 함께 사는 길만이 참된 길이요, 생명의 길이며, 희망의 길이다. 인간과 자연, 너와 나 등 우리 모두 함께 사는 길 말고는 그 어디에도 진정한 길은 없다.

3. 한 몸, 한 생명의 질서인 서로 돕는 길

서로 돕는 길만이 확실한 생명의 길이다.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살펴보자. 남자는 여자와의 서로 돕는 관계에 의해 남편이 된다. 여자는 남자와의 서로 돕는 관계에 의해 아내가 된다. 여자가 없는 남편, 남자가 없는 아내란 있을 수 없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주고받는 도움관계에 의해 자식을 낳고 아버지, 어머니가 된다. 서로 주고받는 도움관계에 의해 아들, 딸이라는 가치창조가 이루어진다. 주고받는 도움관계를 떠나서는 가치창조란 있을 수 없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평등한 가치의 존재들이다. 남편과 아내는 함께 살도록 되어 있다. 서로 도우면 삶이 안락하고 아름답고 더 나은 가치창조의 삶

이 된다. 반면, 서로 돕지 않으면 삶은 갈등과 추악함으로 가득하고 나아가서는 가치파괴의 삶이 된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다. 서로 호흡이 잘 맞으면 삶의 짐은 가벼워지고 뜻한 일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 서로 호흡이 맞지 않으면 백지장은 맞들면 찢어져 버린다. 호흡이 맞지 않는 삶은 짐이 무거워지고 뜻한 일이 더욱 어려워진다. 서로의 개성과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서로 돕는 관계로 삶을 가꾸는 방법과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우리가 찾아가야 할 길, 확실한 희망의 길은 이 길밖에 없다.

4. 한 몸, 한 생명의 질서인 균형을 유지하는 길

함께 살기 위해서는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홍수와 가뭄, 도시와 농촌의 관계를 생각해 보자. 비가 너무 많이 오면 홍수가 나고 많은 피해가 발생한다. 너무나 오랫동안 가물면 모든 생명이 고통과 위협에 처하게 된다. 비오는 날과 맑은 날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면 농사도 잘되고 건강에도 좋고 나아가 삶이 풍요롭고 편안하다. 물과 불, 음과 양의 균형과 조화를 잘 유지할 때 뜻한 바 가치창조가 이루어진다.

또 한 가지 도시와 농촌의 관계를 따져보자. 지금 도시는 사람이 너무 많음으로 인하여 경제, 교통, 주택, 교육, 환경 등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되고 있다. 농촌은 많은 사람들이 떠나버려 마을이 텅 비고 농지가 황폐해지고 식량자급율이 낮아지는 등 절망과 부작용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도시와 농촌이 균형을 이루면 도시는 인간적인 도시가 되고 농촌은 살기 좋은 고향으로 가꾸어진다. 도시와 농촌이 조화를 이루면 사회는 안정되고 삶의 문화는 더욱 풍부해지며 나아가 삶의 질이 향상된다. 삶은 인간과 자연, 너와 나, 정신과 물질 등 총체적인 균형과 조화 속에 흘러가고 있다. 균형과 조화의 길을 닦아가야 한다. 균형과 조화를 통해서만 우리가 희망하는 삶이 가능하다. 길은 분명 이 길뿐이다.

5. 가치창조를 위한 주체의 길

우리가 희망하는 삶을 가꾸어가려면 주체에 대한 올바른 눈뜸이 필요하다. 삶의 주체인 나라고 하는 존재도 총체적인 관계 속의 나이다. 하늘과 땅이 없

는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해와 달이 없는 나란 성립되지 않는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없는 나, 너와 이웃이 없는 나, 대자연이 없는 나란 이 세상 어느 구석에도 있을 수 없다. 나라는 것이 존재하기 위해 하늘과 땅, 부모와 형제, 너와 이웃이 동시에 없으면 안 된다. 하늘과 땅과 부모와 너라는 대상은 나에게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가치이다. 그러므로 나의 존재가치가 중요하듯이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상대의 존재가치도 중요하다는 이해와 인식을 실천해야 한다. 한 몸, 한 생명의 진리인 나, 한 몸, 한 생명의 가치를 창조하는 주체인 나의 삶은 업(業)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한다. 업은 행위를 뜻하는 말이다. 즉 몸과 입과 마음의 행위가 업인 것이다. 경전에서는 업의 주체성을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는다.(自業自受)’ 업의 창조성을 ‘자신의 업에 따라 삶이 이루어진다.(自業自得)’고 하고 있다. 한 마디로 자신의 삶은 자신이 책임져야 하고, 자신의 행위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을 의미한다. 스스로 도둑질에 관심을 갖고 행위하면 도둑놈이 된다. 싸움에 관심을 갖고 행위하면 싸움꾼이 된다. 보살의 삶에 관심을 갖고 행위하면 보살이 된다. 부처의 삶에 관심을 갖고 행위하면 부처가 된다.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집중하게 되고, 집중하면 힘이 나오고 힘이 형성되면 현실이 된다. 얼마나 주체적이고 창조적인가.

삶은 스스로가 주인이다. 나의 행위가 삶의 전부이다. 부처의 행위를 하면 부처의 삶의 되고 중생의 행위를 하면 중생의 삶이 된다. 한 몸, 한 생명의 진리로 보면 나의 삶이 그대로 역사이고 역사가 그대로 나의 삶인 것이다. 나의 삶을 떠난 역사, 역사를 떠난 나의 삶이란 있을 수 없다. 한 몸, 한 생명의 삶을 온전히 사는 자가 부처요, 한 몸, 한 생명의 삶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현상이 정토이다. 박노해 시인은 ‘희망찬 사람은 그 자신이 희망이다. 길 찾는 사람은 그 자신이 섯길이다.’라고 읊었다. 부처님은 ‘자신을 등불로 보고 스스로 등불이 되라.’고 가르치셨다. 한 몸, 한 생명의 진리인 주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이 없는 한 참된 가치창조의 길은 열리지 않는다. 한 몸, 한 생명의 가치를 창조하는 주체의 역할을 온전히 할 때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 삶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6. 맺음의 글

미래를 열어 가는 길이 먼 곳에 있지 않다. 희망을 가꾸는 길이 다른 곳에 있

지 않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새로운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길은 본래부터 있었다. 다만 우리들이 본래 있는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해 온 것이다. 잃어버린 본래 길을 찾아야 한다. 본래의 길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셋길이요, 희망의 길이다. 그 길은 과거의 길이었고 오늘의 길이었고 미래의 길이기도 하다. 하늘의 길이요, 지상의 길이다. 인간의 길이요, 자연의 길이다. 너의 길이요, 나의 길이다. 너무 오랫동안 길을 잃고 헤매왔다. 본래의 길에서 너무 멀리 벗어나 버렸다. 이제 본래의 길을 찾아 돌아가야 한다.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고자 한다면 본래의 길에서 시작해야 한다. 올바른 방향인 인드라마세계관 확립과 바람직한 방법인 더불어 함께 사는 길, 서로 돕는 길, 균형과 조화의 길에서 삶을 가꾸어야 한다. 이 길만이 희망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다. 이 길만이 인류의 영원한 꿈인 자유, 평등, 평화를 실현하는 큰길이다. 또 다시 시행착오를 해도 팬창을 만큼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 머뭇거림을 용납해서는 안되는 상황이다. 똑바로 보고 똑바로 가야 한다. 큰 결심하고 큰 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한국 생명사상의 뿌리⁹⁷⁾

한국인의 생명체험과 생명이해: 묘합(妙合)과 서로 살림(相生)

박재순(한신대 신학과 연구교수)

1. 생명의 본질

1) 서로 다른 요소들의 묘합(妙合)

생명체의 생성과정에는 지배와 정복의 원리가 작용하지 않았다. 서로 다른 요소들이 타자를 긍정하고 존중하면서도 자기를 지키고 살리는 방식으로, 공생과 상생의 구조와 관계를 이룸으로써 생명체가 생겨난 것이다. 서로 다른 요소들이 분명히 참여했으나 자기 형태와 성질을 배타적으로 고집하지 않고 기본적인 자기 성질과 바탕을 유지하면서도 상대를 세우고 살리는 방식으로 함께 어우러짐으로써 전혀 새롭고 오묘한 형태와 성질을 지닌 생명체를 탄생시킨 것이다.

생명 없는 물체들의 관계가 표면적이고 정태적이라면 생명체를 생성하는 물질들의 관계는 중층적이고 입체적이며, 존재의 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창조적 관계이다. 생명 없는 물질에서는 볼 수 없는 깊이와 높이와 자유를 지닌 질적으로 새로운 차원이 열린다. 이 미묘하고 창조적인 내적 관계구조는 단순한 종합이나 결합, 연합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 없고 묘합, 서로 다른 요소들의 절묘한 결합이라

97) 출처: 2005 세계생명문화포럼

고 할 수밖에 없다. 씨앗 한 알과 배추 잎 하나 속에서 다양한 우주적 물질과 요소들이 창조적이고 공생적인 묘합을 이루고 있다. 이런 공생적 묘합은 서로를 긍정하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함으로써, 서로의 존재에 깊이 참여함으로써만 가능해진다. 생명체 안에서 서로 다른 요소들은 뗄 수 없이 결합되었기 때문에 어느 한 요소도 배제되거나 소외되면 생명체는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다.

2) 지천태(地天泰): 자기 비움과 평화로운 공생

성서에 따르면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의 몸을 빚고 하나님의 생명기운(숨)을 코에 불어넣음으로써 인간을 창조했다. 하나님의 생명기운, 하늘의 기운을 흙으로 빚은 사람의 몸 속에 넣는다는 것은 하늘(天)이 흙(地) 속에 들어온 것을 뜻한다. 주역에서 하늘이 겸손하게 땅 아래로 오면 태평해진다고 한다. 하늘이 땅 위에 높이 있으면 위험하고 흉해진다. 그러나 땅이 앞에, 위에 오고 하늘이 땅 뒤에 땅 아래 오면 태평해진다는 것이다.(地天泰) 평화세계(하늘나라)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天)이 사람의 몸(地)을 입고 땅 바닥으로 내려왔다는 기독교의 가르침은 주역의 지천태가 시사하는 생명·평화세계의 진리와 통한다고 할 수 있다. 몸으로 하늘바람을 숨쉬는 숨에는 기독교적 인간창조의 깊은 의미가 담겨 있고 주역에서 말하는 지천태의 신비가 숨겨 있다.

주역에서 겸괘(謙卦)는 늘 길하고 이롭다. 강하고 높은 이가 자기를 낮추고 비울때 생명이 융성해지고 풍성해진다. 강해진 음이 스스로 줄어들 때 생명이 생겨나고 생명활동이 이루어지며, 강해진 양이 스스로 줄어들 때 생명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다. 자기를 비우고 줄임으로써 생명이 발생하고 활동한다는 주역의 사고는 ‘타자’에 대한 예의와 배려를 담고 있으며, 공생과 상생의 관념을 반영한다.

3) 상생(相生)의 원리

스스로 낮추고 비움으로써 생명활동이 융성해진다고 보는 동양적 생명이해는 상생과 공생의 원리로 이어진다. 음양오행설에 따르면 만물은 ‘서로 살림’(相生)과 ‘서로 이김’(相剋)의 원리에 의해 운행된다. 생명세계에서도 서로 살림과 서로 이김의 원리가 지배한다. 그러나 생명세계에서는 서로 이김보다 서로 살림의 원리가 우세하고 주도한다. 만일 서로 이김의 원리가 우세하다면 생명세계는 줄어

들고 약해져서 결국 소멸할 것이다. 또 서로 이김과 서로 살림의 원리가 똑 같이 지배한다면 생명세계는 정태적인 균형과 조화 속에 지루한 반복만 있었을 것이다. 서로 살림이 우세하기 때문에 생명세계는 큰 조화와 균형 속에서도 자유롭고 다양하고 풍성하게 생성하고 발전하고 진화해 가는 것이다.

생명은 상극보다 상생의 관계다. 먹이사슬의 구조와 관계도 상생조화 속에서의 먹고 먹힘이다. 오히려 먹임으로써 사는 관계, 너를 살리기 위해 나를 밥으로 줌으로 함께 사는 상생조화의 길을 연다. 호랑이는 늑대를 먹고 늑대는 양을 먹고 양은 풀을 먹는다. 그러나 호랑이도 늑대도 양도 죽어서는 풀의 거름이 된다. 먹이사슬의 순환과 상생의 관계는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 조화와 균형 속에서 생명세계는 더욱 깊어지고 풍성해진다. 이 먹고 먹히는 생명세계를 최시형은 “하늘로써 하늘을 먹임”(以天食天)으로 보았다. 자연생명세계를 먹이고 기르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보았다. 유영모는 “자연생명세계가 서로 먹이[희생양]가 됨으로써 죄와 더러움을 씻어서 힘 있게 한다.”(自然相贖殷)고 보았다.

꽃과 곤충·포유류는 먹이가 됨으로써 서로를 살리는 아름다운 상보상생적 관계를 이루었다. 속씨식물의 꽃과 열매, 꽃가루와 꿀은 ‘더불어 살자!’는 생명의 표현이요, 상생에로의 초대였다. 꽃씨 식물은 자신을 포유류와 곤충들에게 먹이로 내어줌으로써 자신의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살린다. 겸허하게 자기를 먹이로 내어줌으로써 서로 살게 하였다. 먹히는 자가 먹는 자의 속에 들어가서 더욱 힘있게 살고 먹는 자도 힘있게 사는 관계는 먹히는 자와 먹는 자의 멋지고 오묘한 공생 관계를 나타낸다.

2. 한국인의 생명 체험과 생명 이해

한국인의 생명체험에서 생명사상과 생명이해가 형성되었다. 한국인의 독특한 삶의 경험이 언어와 정신과 문화에 반영되고 이렇게 형성된 생명이해가 한국인의 삶의 양식을 규정한다.

1) 밝고 따뜻한 삶에 대한 염원

한민족은 수 천, 수 만 년 전부터 해 뜨는 동쪽, 밝고 따뜻한 나라를 찾아 중앙아시아의 우랄 알타이산맥을 넘어 북 몽골 족이 세력을 떨쳤던 바이칼 호를 거

쳐 동북아지역으로, 다시 만주와 시베리아를 거쳐 한반도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추정된다. 밝고 따뜻한 삶을 향한 이러한 오랜 순례의 길에서 한민족의 가슴에는 밝고 따뜻한 삶에 대한 사무친 염원이 새겨진 것 같다.

밝고 따뜻한 삶을 추구한 한민족은 자신들을 예(濊) 또는 맥(貊)으로 자처했는데, 예(濊)는 동쪽을 맥(貊)은 밝음을 뜻했다. 한민족은 동쪽에서 환히 비치는 태양의 광명을 받았다는 의미에서 예맥, 한(韓=桓:밝음)을 자기부족들의 이름으로 사용했다. 동북아일대의 산천이름 사람이름 등에 白(뽳)자가 많다. ‘희다’와 ‘밝다’를 뜻하는 白(뽳)은 밝고 따뜻한 햇빛을 나타낸다. 한민족이 스스로를 “배달의 겨레”라고 일컬었는데 배달은 “뽳달=뽳은 땅”을 뜻한다. 이런 이름들은 한민족이 밝고 따뜻한 삶을 지향했음을 나타낸다. 또 한민족이 흰옷을 즐겨 입은 것도 밝은 삶에 대한 염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2) 한민족의 근원적인 생명체험과 생명이해: ‘한(韓)’의 묘합

한민족의 정체를 나타내는 ‘한’은 흔히 ‘큰 하나’를 뜻하지만 그 쓰이는 말뜻은 매우 복잡적이고 다양하다. “환하다, 크다, 임금(우두머리), 높음, 온전함, 대략, 하나, 많은, 무릇, 모든, 바른, 넓은, 가운데”. 이런 다양하고 상반된 의미를 지닌 ‘한’의 어원은 무엇일까? 학자들은 ‘한’(韓)이 ‘환하다=해=뽳음’(白)에서 온 말이라고 본다. 한은 환히 밝다는 ‘환’(桓)을 뜻한다. 이기영에 의하면 ‘뽳=한’은 중앙아시아의 추운 바이칼 호수 일대에서 따뜻한 광명을 찾아 남하하는 동안에 한민족에게 생긴 본능적 개념이다.⁹⁸⁾

‘한’이란 말 속에는 한민족의 근원적 생명체험과 생명이해가 담겨 있다. ‘한’의 논리와 사유는 생명의 논리와 사유이다. ‘한’은 ‘낱’(하나로서의 개체)과 ‘온’(큰 전체)을 아우르는 말이다. 생명도 다양한 ‘낱’이면서 하나로 이어진 ‘온’이다. 생명세계가 분화되면 많음이 되고 다양한 많음이 수렴/통전되면 하나로 귀결되듯이, ‘한’은 다양한 많음과 수렴·통전된 하나를 함께 나타낸다.

‘한’이라는 하나의 존재가 ‘크다’(전체)와 ‘하나다’(개체)의 이원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을호는 ‘크다’와 ‘하나다’의 이원적 구조가 일원적 존재로 이해되는 ‘한’의 존재구조를 ‘묘합’(妙合)으로 설명한다.⁹⁹⁾ ‘한’은 서로 다른 상반되고 양극

98) 이기영, 민족문화의 원류, 149쪽. 김상일, 한철학, 26쪽에서 재인용.

99) 이을호, “단군신화의 철학적 분석” 한국사상의 심층연구, 14쪽.

적인 요소의 일원적 통일을 나타낸다.

모함으로서의 한의 구조는 ‘날’과 ‘온’의 역설적이고 역동적인 일치와 통전을 나타낸다. ‘한’은 ‘날’으로서의 개체와 ‘온’으로서의 전체가 결합된 개념이다. 또한 ‘한’은 한겨레와 ‘한울(하늘)’, ‘한님’(한아님)을 함께 나타낸다. ‘한’은 이 땅에 사는 한겨레의 삶과 하늘(한님)을 이어준다. ‘한’이란 말속에서 한겨레와 하늘(한님)은 뗄 수 없이 결합되어 있다. ‘한’이란 말속에 ‘밝고 따뜻한 땅의 삶에 대한 염원’과 ‘하늘의 자유’가 미묘하게 결합되어 있다.

서로 다른 것의 모함의 논리는 평면적인 형식논리가 아니라 생명과 정신의 입체적이고 중층적인 구조와 깊이를 나타내는 논리이다. 이것은 개체 속에서 전체를 보고 전체 안에서 개체를 보는 생태학적 논리이며, 사람과 하늘의 깊은 관계를 보는 영적 깨달음의 논리이다.

삶은 다양하고 다원적이고 복잡하고 중층적이면서도 구체적인 하나의 생명체로 존재한다. 모든 생명체는 우주적 요소들과 생명작용의 모함이다. 한사상은 이러한 생명현실을 충실히 반영한다. 양극화, 분리, 대립, 배제, 갈등의 논리와 사고는 삶의 본질과 현실에 충실한 한민족의 기본정서와 사유에 맞선다. ‘한’에는 배제하거나 소외시키지 않는, ‘더불어 살고’ ‘서로 살리는’ 인식과 사유가 내포되어 있다.

모함으로서 한은 개체와 전체, 하나님과 인간, 하나와 많음의 역동적 일치를 나타낸다. 한민족의 전통종교사상을 담은 〈삼일신고〉에서는 이것을 “하나를 잡아 셋을 포함하고 셋이 만나 하나로 돌아옴”(執一含三, 會三歸一)으로 표현했다. (〈삼일신고〉가 조선왕조 말엽이나 일제 때 씌어진 위서라고 해도 거기에 담긴 내용이 민족종교문화의 본질과 성격을 드러낸다면 그것만으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셋은 완전수로서 만물을 나타낸다. 만물을 포함하고 하나로 돌아가게 한다는 원리는 만물을 품어 하나로 만드는 ‘한 사상의 포용적 동화적 성격’을 드러낸다. 셋(만물)을 큰 하나 속에 포함시키고 큰 하나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은 ‘나’, ‘너’, ‘그것’을 두루 포용하고 통전시키고 동화시키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는 ‘하나’와 ‘셋’, ‘셋이 어우러짐’(會三)과 ‘하나로 돌아감’(歸一) 사이에 긴장과 균형의 관계가 있다.

‘한’의 이원적이면서 하나인 존재구조에서 개체와 전체, 하나와 셋의 역동적 관계가 성립된다. ‘한’의 사유와 논리에서는 ‘나’가 전체(우리) 속에 소멸되거나 해소되지 않고 우리(전체)가 개별적인 ‘나’로 해체되거나 흩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인도종교의 범아일여(梵我一如) 사상과도 다르다. 범아일여는 ‘나’와 우주적 보편적 실재와의 직접적인 일치로서 ‘나’를 우주적 신적 실재와 동일시하거나 우주적 신적 실재로 해소한다. 또한 중국의 음양오행사상이나 노장사상과도 다르다. 음양오행사상은 음양의 조화와 상보성, 오행의 순환적 상관관계를 말한다는 점에서 하나로 귀일시키는 ‘한’의 사유구조와는 다르다. 그리고 노자도 도(道)를 ‘하나’로 파악하지만 이 ‘하나’는 만물의 근본법칙으로서 사물을 사물의 본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道德經 39장) 또 “도에서 하나가 나오고 하나에서 둘이 나오고 둘에서 셋이 나오고 셋에서 만물이 나온다(道生一 一生二 二生三 三生萬物)”고 함으로써 도에서 만물로 퍼져 나가는 사유구조를 제시한다.(42장) 이런 사유구조도 “하나로 셋을 포함하고 셋을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한’의 사유구조와는 다르다.

한의 묘합사상은 하나와 만물(셋), 개체와 전체의 역동적 관계를 지킨다. 마치 생명체가 자기중심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내적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고 바깥세계와의 평형을 지키는 것과 같다. 개체와 전체의 역동적 관계를 지키는 한의 사유구조에서는 ‘나’(하나)가 ‘우리’(큰 전체)로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우리’가 ‘나’(하나)로 해체되지도 않는다.

3) 한(恨)과 신명의 묘합

한국인의 묘합적 정신구조는 한(恨)과 신명의 어울림(妙合)을 낳았다. 밝은 삶을 염원하기 때문에 신명이 나고 일치와 동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한(恨)이 맺힌다. 한의 사무친 슬픔 이면에는 삶에 대한 깊은 염원이 있다. 이어령이 말하듯이 한은 “...자기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회구(希求)하고 성취하려는 욕망이 없이는 절대로 이뤄질 수 없는 정감이다.”¹⁰⁰⁾ 삶에 대한 염원과 한(恨)이 미묘하게 결합되어 있다.

한국인의 삶의 특징은 한(恨)과 신명의 어울림에 있다. 사무치는 한(恨)의 아픔과 장쾌한 활력, 구슬픈 애조와 흥겨운 가락이 공존한다. 함께 눈물 흘리며 아리

100) “남에게서 피해를 본 것만으로도 증의 감정은 생겨난다. 그러나 한은 자기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希求하고 성취하려는 욕망이 없이는 절대로 이뤄질 수 없는 정감이다. 그런 꿈이 없을 때 한의 감정은 단순한 절망감이 되어 버리거나 「복수심」으로 전락되고 만다.”(李御寧, “푸는 文化, 신바람의 文化” 中央日報, 1982. 9.23일자)

량을 부를 수도 있고 함께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아리랑을 부를 수 있는 한민족의 가슴에는 한과 신명이 어우러져 있다.

역동적인 묘합의 사유와 정신구조 속에 사는 한국인은 깊은 한(恨)을 품으면서도 어둡고 깊은 한(恨)에만 매몰되지 않고 밝은 신명과 활력을 지니고 산다. “한(恨)이 깊을수록 신명이 난다.”는 말은 한(恨)과 신명의 묘합과 역동성을 드러낸다. 한이 깊고 처절할수록 삶은 정화되고 아름다워지고 강해질 수 있다. 탈춤이나 대동제의 집단연회는 맺힌 한을 집단의 신명으로 전화시킨다. 한이 원한으로 되고 한이 맺혀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해학과 초월로 승화되기도 한다. 한이 깊은 만큼 인정도 깊다. 그러나 거꾸로 신명나는 신바람과 초탈한 웃음, 속 깊은 정(情) 속에 한(恨)이 배어 있기도 하다. 한(恨)은 흥겨운 가락으로 표출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 밑바닥을 사로잡는 정서이기도 하다.

3. 한국인의 언어에 담긴 생명사상

1) 모심과 교감의 언어

타자에 대한 서구인들의 비우호적 사고는 정복전쟁, 권력투쟁과 계급투쟁을 통해 정치사회문화를 형성해온 전통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더 나아가서 타자에 대한 그들의 이러한 비우호적 사고는 그들의 언어구조와 실체론적 사고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유럽언어들의 뿌리 말에 해당하는 라틴어에서는 주어가 술어를 지배하고 규정한다. 동사의 형태는 객어(상대)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주어의 성·수·격에 의해 결정된다. 모든 명사와 형용사도 자신의 성·수·격에 따라 그 꼴이 결정된다. 주어가 지배하고 명사와 형용사가 자신의 성·수·격에 따라 변화하는 라틴어의 문법구조와 성격은 타자를 지배하고 자신에게 집중하는 사고경향을 조장했다고 여겨진다. 또한 “자기완결적이고 배타적인” 실체개념이 서구철학의 중심개념이 됨으로써 타자에 대한 열린 사고와 타자의 다름을 존중하는 사고가 발달하기 어려웠다고 본다.

우리말에는 자기를 낮추고 비켜서는 겸허함과 자기 비움이 배어있고, 상대에 대한 배려와 존경이 스며있다. 한국어에서 ‘나’가 흔히 ‘우리’로 뭉뚱그려지거나 생략되는 것은 자기를 낮추고 비우는 겸허함의 표현이고 상대(객어)가 술어의 꼴을 결정하게 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배려와 존경을 나타낸다. 한국인의 언어는

객어(상대)를 존중하고 드러내는 언어이다. 상대와의 교감을 중시하는 우리말은 주어가 지배하는 서구언어에 비해서 평화적인 언어라고 할 수 있다.

인식주체가 인식대상을 지배하고 분해하려들지 않고, 인식대상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모시는 자세가 한국어에 드러난다. 서구어가 대상을 범주화하고 일반적으로 규정하는데 반해서 한국어는 대상을 존중하고 그대로 드러내려 한다. 서구어에서 색깔이 단순하게 범주화되는데 한국어에서는 색깔에 대한 미묘한 묘사와 표현이 발달해 있다. 대상의 움직임을 드러내는 의성어와 의태어, 부사어가 풍부한 것도 한국어가 인식대상 즉 타자에 대한 존중과 긍정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처럼 형용사와 부사어가 한국어에서 특히 발달한 것은 인식대상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드러내려는 한국인의 생명친화적 태도와 자세를 반영한다.

또한 한국어에서 주어와 객어를 생략하고 동사로만 대화할 수 있는 것은 상대와 의 교감을 전제한 것이다. 주어와 객어가 생략된 “왔어?”, “왔니?”와 같은 표현은 서구어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제3자를 지칭하는 표현이 서툰 것도 객관화하는 사고가 발달하지 않은 것을 나타내는 반면에 한국어가 교감의 언어임을 알려준다. 교감은 생명의 기본 특징이다. 교감의 언어인 한국어는 미묘한 생명 언어이다.

2) 생명친화적인 동양·한국의 인식방법

생명과 물질의 내적 구조와 성격, 본질과 성향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는 방식으로, 인식대상에 대해서 공감하고 신뢰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인식해야 한다. 인식하는 주체와 인식되는 대상 사이에 인식론적 일치만 아니라 존재론적 일치와 교감이 이루어질 때, 다시 말해 생명의 공명과 감응이 이루어지고, 인식주체와 인식대상 사이에 신뢰관계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생명과 물질에 대한 깊은 인식이 이루어진다.

‘알다’는 말도 서양의 말과 비교된다. 서구언어의 뿌리 말인 인도 유럽어에서 ‘알다’를 나타내는 말(라틴어 scio)의 말 뿌리는 ‘skei’인데 “자르다, 분리하다, 가르다”를 뜻한다.¹⁰¹⁾ 서구언어에서 ‘알다’는 대상을 ‘가르고, 잘라서’ 본다는 뜻을 품고 있다. 인식주체의 자르고 분리하는 이성적 자아의 인식능력이 얕은 행위를

101) J. Pokorny, Indogermanisches etymologisches Wörterbuch. Bern, A. Francke Hg. 1969. 919쪽.

구성한다. 인식대상은 가르고 자르는 인식행위의 수동적 대상에 문다. 이에 반해 우리말 ‘알다’는 사전에서 “배우거나 경험하여 모르던 것을 깨닫다.”로 풀이한다. 그리고 ‘알다’의 뿌리 말 ‘알’은 ‘알맹이’(核), ‘알짬’(精), ‘알’(卵)이고 ‘얼’(精神)과 통한다.¹⁰²⁾ 우리말 ‘알다’는 인식주체의 인식능력이나 행위와 관련되지 않고 인식대상의 본질과 내용과 관련된다. ‘알다’는 인식대상의 알맹이와 알짬, 잠재적 생명력을 긍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알다’는 인식대상에 ‘알맹이’, ‘알짬’, ‘생명의 씨앗’이 있다고 믿고 대상에 접근한다. ‘알다’는 인식대상의 알짬[내적 본질]을 알 수 있음을 전제한다. 앞에는 인식대상의 알짬이 담겨 있다. 서구언어에서 ‘알다’는 인식대상을 분석하고 해체해서 대상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얻는 것이라면 한국어에서 ‘알다’는 인식대상 전체의 핵심을 손상시키지 않고 파악하는 것이다. 한국어에서 ‘알다’는 전체적인 이해와 깨달음을 뜻한다. 이런 말의 어원적 차이는 서구에서는 인식대상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인식론을 시사하고 한국에서는 인식대상을 긍정하고 신뢰하고 존중하며, 인식대상에 맞추는 인식론을 시사한다.

모름이란 말 자체가 한국인의 이런 인식방식과 성격을 드러낸다. 다른 말들에서는 ‘안다’는 말 앞에 부정사를 써서 알고 있지 않음을 나타낸다. 영어는 'know', 'don't know'라고 한다. 영어를 비롯한 서구언어가 다 그렇고 중국어와 일본어도 그렇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안다’, ‘안 안다’고 하지 않고, ‘안다’, ‘모른다’고 할까? ‘모른다’는 ‘못 안다’에서 온 말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모름’은 ‘못-알’이다. 김민수 편 『우리말 語源辭典』에서는 ‘모르다’의 어원을 ‘못[不能]+ ㄹ[매개모음]+ 다[어미]’로 보기도 한다.¹⁰³⁾ ‘모른다’는 말에는 “능력이 없거나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어원적으로 ‘모름’이 ‘못 알’에서 오지 않았다고 해도 ‘모름’에 인식능력이 없거나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면, ‘모름’은 ‘못 알’을 뜻한다. ‘못-알’은 ‘안-알’과는 다르다. ‘못’은 능력이나 형편이 미치지 못한 것을 나타내고 ‘안’은 사실에 대한 부정을 나타내거나 말하는 이의 의지를 드러낼 수 있다. “결혼 못 했다”는 말과 “결혼 안 했다”는 말에서 그 차이가 잘 드러난다.¹⁰⁴⁾

인식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존재와 생명 세계에 대한 겸손한 인정과 접근태도가 모름이란 말에 담겨 있다. 앞의 세계와 알고 있지 않은 세계를 지배하고 통제하

102) 김민수 편, 『우리말 語源辭典』, 태학사 1997. 705쪽.

103) 김민수 편, 『우리말 語源辭典』, 태학사, 1997. 366쪽.

104) ‘안’과 ‘못’의 차이에 대해서는 천소영, 『우리말의 속살』, 창해, 2000. 130-1쪽.

는 자세와 태도가 아니라 나의 인식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모름의 세계를 긍정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드러나 있다. 모름은 인식능력이 미치지 않는 차원의 세계가 내게 알려주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세를 나타낸다. 모름을 모르는 대로 두어 두고 모르는 대상이 알려지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모르는 대상을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 ‘모름’을 지키는 것은 나의 인식능력과 주체의 한계를 인정한다는 것이지 인식능력과 인식주체를 포기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대상에게 모르는 것을 물으면서 모르는 대상이 스스로 알려주기를 기다리는 것이고 ‘나’ 자신이 깨알아 알게 되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지금 능력이 미치지 못해서 알지 못하지만 ‘알고 싶다’, ‘알고 싶은 데 모른다.’는 뜻이 담겨 있다. ‘모름’은 인식대상에 대한 존중과 경이를 내포하고 모르는 것에 대한 알고 싶은 의욕과 의지를 담고 있다. 이것은 ‘모름의 세계’에 대한 구도자적 탐구의 자세를 포기하지 않으나 모르는 대상에 대한 인식론적 왜곡과 폭력을 피하는 주의 깊은 태도이다.

‘가르침’과 ‘깨달음’을 전제하는 이러한 ‘모름’의 인식론에는 ‘모르는 것’이 알려질 수 있다는 낙관적 신념이 들어 있다. 지금 모르지만 알 수 있는 가능성이 닫혀 있지 않다. 지금 인식능력이 부족하고 미치지 못하지만 알 수 있다는 신념과 알고 싶은 의욕이 깔려 있다. 인식주체의 인식능력이 늘어나고 커질 수 있으며, 인식대상이 스스로를 드러내고 알릴 수 있다. 인식주체와 인식대상 사이에 친화적 관계가 성립한다. 이런 인식관계 속에서는 인식대상도 수동적이고 닫힌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인식행위와 인식사건에 참여한다. 모름에 대한 깨달음을 추구하는 인식주체도 모름의 차원과 세계를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스스로를 새롭게 변화시킨다. 단순한 정보(information)를 추구하지 않고 모름의 세계를 깨달으려는 사람은 스스로를 변형(transformation)시켜야 한다. 질적으로 새로운 차원의 삶에 이르기 위해서는 기존의 인식방식과 관점과 관념을 변형시켜야 한다.

모름의 인식론은 인식대상을 지배하거나 정복하지 않고 인식대상과 교감하고 감응하는 방식으로 대상과 타자를 인식한다.

4. 맺는 말

생명의 존재론적 깊이와 자유로우면서도 뻗 수 없는 미묘한 관계구조는 한민족

의 생명체험과 이해를 담은 ‘한’의 묘합적 논리구조와 일치하고 한국전통문화의 포용적이고 종합적인 성격과 통한다.

지구화 과정 속에서 갈등하고 대립하는 서로 다른 주체들과 요소들이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름을 존중하고 지키면서도 서로 이어지고 서로 살리는’ 묘합(妙合)의 지혜와 생활방식이 요구된다. ‘날’과 ‘온’, 사람과 하늘을 아우르는 한국 생명사상은 모든 것이 파편화하고 알파해지는 세상에서 삶의 깊이를 지니면서 부문과 장르, 영역과 개성이 어우러지는 문화세계를 열어가고, 국가와 민족을 넘어서, 동과 서를 넘어서 평화세상을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삼보일배의 마음으로 못 생명의 용서를 구한다¹⁰⁵⁾

수 경

봄 바다에 노란 깃발이 올랐다. 그러나 불행히도 붉은 만선의 깃발이 아니라 황사 자욱한 절망의 SOS 깃발, 선상 투쟁의 샛노란 깃발이다. 생명 평화의 바다와 갯벌 위에서 꿈속에서라도 일어나서는 안 될, 아비규환의 날들이 닥치고야 말았다.

2006년 3월 16일 오후 2시, 마침내 대법원의 나무망치 소리가 선전포고처럼 울리고야 만 것이다. 눈앞이 캄캄하다. 어차피 대법원 판결로 새만금의 모든 문제가 풀릴 것이라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처참하다. 3년 전 '봄이 왔건만 봄이 아니라'며 그 누구를 탓하기 전에 내가 먼저 참회하기 위해 시작한 삼보일배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른다.

그렇다면 모두 소용없는 짓이었단 말인가. 정녕 그렇단 말인가. 우리 사회의 문제해결 능력이 이 정도 밖에 안 된단 말인가. 21세기의 지성과 논리는 어디에 있으며 대의와 정치, 법과 정의, 화해와 상생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공든 탑은 무너지고 또 다시 투쟁과 대립의 악순환이란 말인가.

그래도 진인사대천명의 심정으로 행여나 고대하고 고대했건만 남은 것은 허탈감뿐, 목구멍 깊숙이 죽어가는 갯벌의 썩은 냄새와 신음소리만 치밀어 오른다.

당장 코 앞에 닥친 이 죽음의 냄새와 신음소리, 투쟁과 대립의 아비규환을 어

105) 출처: 삼보일배의 마음으로 못 생명의 용서를 구한다 (오마이뉴스, 2006. 3. 17)

찌할 것인가. 생존권이 깃뚫힌 연안 어민들은 애지중지 생계수단이었던 배에다 목숨처럼 깃발을 매단 채 방조제로 달려가고 "해수유통, 갯벌을 살리자"며 울부짖는 사람들은 꼬막처럼 몰려들고 있으니 이 아수라장의 전쟁을 어찌 피할 것인가.

마지막 물막이 공사가 재개되는 방조제가 끝끝내 '제2의 38선'이 되어 생명과 반생명의 끝없는 전쟁을 부추기니, 아찔하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도저히 무슨 엄두라도 낼 수 없으니, 차라리 모든 것은 내려놓고 지난 겨울 동안거에 들었던 조계종 특별선원 봉암사에라도 들어가 숨고 싶다. 두 눈과 두 귀를 틀어막고, 곁가마저 끓은 채 토굴에라도 스며들어 잠적하고 싶다.

그러나 또 어찌 하랴. 지난 겨울 수행자의 본분사로 선방에 들었지만, 시절이 하수상하다보니 가랑잎 구르는 소리에도 벌떡 일어나 먼 하늘을 바라보지 않았던가. 산새들의 울음소리며 개울의 아침 물안개며, 열매와 잎마저 다 내어준 겨울 나무들 모두가 '나 아닌 것'이 없었으며 또한 '너 아닌 것'이 없지 않았던가. 그러니 내 어찌 이 불화살을 피할 수 있으랴.

내 법당은 해창 갯벌... 신도는 갯지렁이, 꼬막, 백합

그 동안 나의 법당은 해창 갯벌이 아니었던가. 내게 신도들이 있다면 갯지렁이와 꼬막과 백합들이 아니었던가. 그 동안 내내 나를 따라다녔던 수행자와 운동가라는 '말의 가시덤불'이 나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지 않았던가.

실로 여간 고통스러운 게 아니었지만 '수행의 실천이 곧 운동이요, 올바른 운동이 곧 수행'이라고 철저히 믿어온 신념과 불살생의 계율을 어찌 외면할 수 있겠는가. 나는 단순히 반대만을 위한 운동가도 아니요, 종교라는 성역에 기대거나 성역을 함부로 빙자하는 운동가도 아니었다. '새만금 삼보일배'가 그러했고, '지리산 살리기 운동'이 그랬다.

당시 이미 많이 진행됐던 북한산 문제 또한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꼭 지켜야할 국립공원을 오히려 국가가 앞장서서 파괴하는 것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누가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개발 독재식의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인해 마지노선인 국립공원마저 무너지는 선례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명분 때문이었다. 그러나 결국 북한산은 뚫리고야 말았다. 대통령은 애초의 공약을 어긴 뒤 슬그머니 불교계와의 야합으로 수도권의 허파에 거

대한 구멍을 뚫고 말았다.

그리고 3월 16일, 마침내 참여정부는 새만금 문제마저 법의 이름으로 야합을 하고 말았다. 대통령의 말 바꾸기, 그리고 정부의 조정능력과 정치력이 바닥나자 마침내 대형 국책사업을 행정부가 아닌 사법부에 떠넘긴 채 짐짓 구경만 하고 있으니, 이는 야합에도 못 미치는 직무유기이자 방조와 무책임이 아닌가.

일국의 대법원이 국책사업의 담당부처란 말인가. 그러나 부메랑은 언제나 다시 돌아오게 돼 있다. 아니, 불행하게도 이미 엄청난 후폭풍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제 어찌할 것인가.

삼보일배하던 2003년과 지금, 달라진 것은 없다

그럼에도 새만금은 여전히 21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생명평화의 시대정신과 직결되는 화두다. 2003년 당시 나는 '생명평화 실현을 위한 삼보일배 발로참회를 시작하며'라는 선언문을 통해 이렇게 밝힌 적이 있다.

"춘래불사춘이라, 봄은 왔으나 봄이 아닙니다. 지리산에 매화가 피고 산수유꽃이 피었지만 그 꽃들마저 불안하고 불안합니다. 한반도에 봄바람이 불고 녹색별인 지구에도 21세기의 화두인 생명평화의 푸른 기운이 일고 있지만, 이 봄바람마저 예사롭지 않고 생명평화의 푸른 기운마저 위태로울 뿐입니다.

이는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하는 오만한 미 제국의 이라크 침공 때문이자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외면하는 대한민국 개발독재의 광풍 때문이며, 우리 모두의 가슴 속 깊이 도사리고 있는 죽음의 문화와 투쟁과 대립의 독 기운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20세기적인 '죽음의 향연'에 길들여져 스스로 '불타는 집' 속에 갇혀 있습니다. 전쟁과 테러와 난개발의 뿌리는 서로 다르지 않고 말 그대로 반 평화, 반 생명, 반 환경의 독입니다. 반드시 부메랑처럼 되돌아올 수밖에 없는 업보의 화살이자 독일뿐입니다."(하략)

하지만 3년 전이나 오늘이나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 깊이 들여다보면 테러나 전쟁이나 환경파괴는 '탐진치(탐욕·진에(화냄)·우치(어리석음))의 못난 일란성 쌍둥이들'이 아닌가. 모두 올바르게 극복하고 청산해야 할 20세기적인 것들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이미 노태우 정권 때 잘못된 정치논리로 계획되고 지금까지의

술한 논란 속에서도 여전히 박제화 된 채로 진행 중인 '새만금 사업' 또한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재정립하는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아니, 이제 진정으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우리 모두 무릎을 꿇고 생명평화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국가 균형발전 시대의 서막을 여는 첫 단추로서 새만금 사업을 핏발선 두 눈으로 똑똑히 바라봐야 한다.

오늘의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면 곳곳에서 갈등과 대립의 첨예한 사안들이 첩첩산중이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새만금 문제만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새만금은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 생존권의 문제가 씨줄날줄로 얽혀있는 중요 사안인 동시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실마리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실패를 위한 실패'

노무현 대통령도 어느 자리에선가 새만금 소송문제에 대한 질문에 "새만금 사업은 해야 하지만 환경적인 요인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약간의 사업변경은 필요하다는 예전의 의견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지 않았던가.

그렇다. 문제 해결의 핵심 고리는 사실 재판의 승패가 아니라 '약간의 사업변경' 바로 이 지점에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새만금 신구상기획단'을 꾸리기도 했지만, 불행히도 이러한 노력마저 지역과 부처 간의 이기주의 등으로 도로아미타불이 되지 않았던가.

쌀 수입 개방 문제 등에서도 확연히 드러나듯이 간척사업의 초기 목표인 농지 조성의 타당성이 상실됐을 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무슨 용도로 사용될지 목표조차 확실히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국책사업이 강행되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지속되고 있다.

말하자면 도대체 어디로, 왜 가야 하는지를 정하지도 않은 채 일단 자동차의 엑셀러레이터(가속기)만 밟는 격이다. 그리하여 새만금은 잠시 시동을 끄고 이제부터라도 로드맵을 다시 그려보는 새로운 시작일 수밖에 없다.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가운데 수조원에 이르는 혈세를 뿌려 미래세대들에게 환경재앙을 불러들일지도 모를 마지막 물막이 공사를 어찌 묵과할 수 있단 말인가. 마침내 이제서야 때가 왔으니 새만금 사업이야말로 국책사업의 비합리적이고 비민주적인 결정과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문제로 진행돼야 하며, 그동안 무책

임하게 이뤄졌던 정책 실패와 막대한 혈세 낭비의 악순환을 끊는 정책 대전환의 문제로 거듭나야 한다.

새만금 간척사업의 타성적이고도 박제화 된 강행은 시화호나 영산호처럼 '실패'를 위한 실패'를 반복하는 것이며, 자칫하면 참여정부가 세계 최대의 '반경제·반생명·반평화의 웃음거리'를 앞장서서 추진하는 꼴이 될 것이다.

어느새 새만금 갯벌은 우리들의 교회이자 성당이 됐고, 우리들의 법당이자 '21세기의 성지', 생명평화의 교과서이자 바로미터가 됐다.

또 하나의 38선이 된 새만금 방조제, 나는 두렵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어떠한가. 마지막 물막이 공사가 강행되는 방조제는 갈등과 대립과 투쟁을 부르는 '또 하나의 38선'이 되지 않았는가. 나는 그저 부안 사건처럼 또다시 벌어질지도 모르는 전쟁 같은 상황이 두렵기만 할뿐이다.

낙후된 전북은 힘겹다 못해 "새만금은 전북의 희망"이라며 이 사업을 한껏 부풀리며 목을 매고, 제2의 시화호, 영산호를 걱정하는 양심적인 학자들과 (새만금 간척사업을) '우리시대 생명파괴의 상징'으로 보는 환경단체와 시민들, 그리고 생존권을 지키려는 일부 주민들 또한 눈에 핏발을 세우고 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새만금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얽히고설킨 실타래들을 하나씩 풀어나가야 한다.

먼저 참여정부는 이미 새만금 신구상기획단을 꾸린 바 있듯이 대통령이 초심으로 돌아서서 합리적이고도 객관적인 기획단의 재구성이나 '새만금 특별법' 등을 통해서라도 확실히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

대통령이 아니라면 농림부와 환경부, 낙후된 전북도의 이견과 아픔을 과연 누가 중재하고 위로할 수 있단 말인가. 새만금의 경제적 가치 등을 따지기 전에 정의와 진실에 대한 대의명분으로 올바른 국가관을 세워야 한다. 국가적으로 불행한 사태를 미연에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미래 세대들의 '새만금 1적'으로 남을 수 없지 않은가.

우선 상대적으로 소외되다보니 부풀릴 수밖에 없는 전북도의 사업구상과 정부 각 부처의 제안,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대안 등을 종합하여 하루 빨리 중지를 모아야 한다.

입장이 서로 다르다보니 쉽지는 않겠지만 전북 주민과 새만금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화해하고 상생하는 노력들이 절실한 가운데, 그 기운들을 일시에 불러 모을 수 있는 해법이 도출되어야 한다. 이는 마지막 물막이 공사가 진행되기 전에, 대립과 갈등의 돌이킬 수 없는 격랑이 휘몰아치기 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할 절체절명의 관문이다.

지금이라도 새만금 사업의 로드맵을 완성하라

따지고 보면 어차피 새만금 문제는 참여정부에서 완성할 수 없는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아닌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올바른 과거청산과 국가 균형발전의 차원에서라도 표류하는 새만금 사업의 로드맵을 완성해 그 내용적 좌표만은 분명히 해야 한다.

엷히고 설킨 국정의 여러 난맥상들마저 오히려 새만금을 통해서 그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껏 논의된 내용들만이라도 자세히 살펴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무엇보다 묵묵부답의 국회는 당장 '새만금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정치논리로 새만금 문제를 부추긴 장본인들은 이 지경이 되도록 무엇을 했는가. 제대로 국책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보고 현장을 방문한 적이라도 있는가. 한나라당과 민주당, 그리고 열린우리당이 자성과 참회의 자세로 뜻을 모아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

국민들을 회롱하는 듯한 정치적인 쇼에만 특별검사나 국정조사 등을 운운할 게 아니라 끝내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새만금 정도의 대형 국책사업에 국정조사를 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에 짐을 떠넘기고 짐짓 모른 척해서야 어찌 민의의 정당인 국회라고 할 수 있는가. 정치논리를 제외하면 도대체 주먹구구식인 국책사업을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챙기는 것만이 국회와 국회의원 개개인에 대한 국민들의 조롱과 환멸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일 것이다.

전라북도 또한 스스로 정치논리의 희생양에서 벗어나야 한다. 좀 더 냉철한 시각으로 새만금의 거품이나 환상을 지우고 실질적으로 전북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해야 한다.

오죽 답답하면 새만금에 목숨을 거는지 모르는 바 아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가까운 예로 전남의 S프로젝트 등에 비하면 그 규모와 예산만으로도 얼마나 초

라한 대책사업인가. 또다시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소외되고 말 것인가.

전북도가 오히려 앞장서서 해수유통 등을 통해서도 변산반도와 더불어 새만금을 세계적으로 돋보이는 생태관광지 등으로 보전하고 가꾸어 전 국민의 자랑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제 세상은 바뀌었다. 개발이 덜된 전북은 이제부터라도 낙후지역이라는 콤플렉스에서 벗어나 오히려 전 지역이 생태문화관광의 명소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다시 돌아오는 불화살, 굳이 피하지 않겠다

무조건적인 강행으로 향후 10년간 아니 20여년 내내 반대에 부딪히며 불확실한 사업에 도민들의 생존권을 저당잡힐 것인가. 들뜬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환경단체나 국민들의 열망에도 귀를 기울여 오히려 그들보다 실질적으로 한발 앞서 나가는 새만금을 구상할 때 진정한 전북도의 발전이 있지 않겠는가.

아울러 환경단체와 주민들 또한 무조건의 반대와 투쟁이 아니라 전북도의 처지와 고통을 헤아리며 인내심을 발휘하고, 동시대의 공범자로서의 참회를 함께 다짐하고 다짐해야 한다. 갯벌만큼이나 상처받은 전북 도민들을 더더욱 사랑해야 하며 끝까지 부둥켜안아야 한다.

이제 새만금은 더 이상 죽음의 터, 투쟁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마침내 새만금은 우리 시대 희망의 터전이어야 하며, 상생과 화해의 잔치마당·생명평화의 베이스 캠프여야 한다.

언제나 '나의 뿌리는 너, 너의 뿌리는 나'라는 동체대비(同體大悲, 중생의 괴로움을 자신의 괴로움으로 하는 석가의 자비-편집자주) 사상에 입각해 유정무정의 모든 생명이 평화롭고 청정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며, 그저 세 걸음에 한번 절을 하는 삼보일배의 절절한 심정으로 못 생명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구할 뿐이다.

제2의 불화살이 날아온다. 그러나 굳이 피하지는 않겠다.

불기 2550년 3월 16일

수경(收耕) 합장

생명운동 자료모음

■ 생명운동 관련 단체 주요 문건(선언, 강령, 제안, 취지문)

- 가톨릭농민회 - 가톨릭농민회 제20차 대의원대회 선언문 (1990. 2. 27) _ 49
- 가톨릭농민회 - 21세기 문명사적 대 변혁운동선도 (2006. 11. 8) _ 187
- 기독교환경운동연대 - 2000년 기독교 환경선언 (2000. 6. 4) _ 88
- 녹색연합 - 녹색연합 강령 (2000. 4. 1) _ 86
- 녹색연합 - 창립선언문 (1994. 4. 1) _ 58
- 농업회생연대(준) - 농업회생연대 제안문 (2002. 3. 14) _ 98
- 농업회생연대(준) - 우리쌀지키기 100인 100일 걷기 운동 제안문 (2002. 4) _ 104
- 두레생협연합회 - 나에게서, 너에게서 생명을 분다 (2004. 10) _ 113
- 불교환경연대 - 불교환경연대 창립선언문 (2001. 9) _ 96
- 새만금 삼보일배 순례단 - 새만금 삼보일배를 떠나며 (2003. 3. 28) _ 106
- 생명과 평화의 길 - 생명평화선언 (2004. 8. 26) _ 146
- 생명민회 - 생명가치를 찾는 민초들의 모임(생명민회)을 제안한다 (1) (1994. 10) _ 63
- 생명민회 - 생명가치를 찾는 민초들의 모임(생명민회)을 제안한다 (2) (1994. 10) _ 77
- 생명평화결사 - 고천문: 생명평화탁발순례, 길을 나서며 (2004. 3. 1) _ 142
- 생명평화결사 - 생명평화 100배 서원문 (2006. 4. 21) _ 179
- 생명평화결사 - 생명평화경 (2007. 11. 2) _ 196
- 생명평화결사 - 생명평화선언문 (2008. 12. 14) _ 200
- 생명학회 - 생명학회 창립 취지문 (2007. 5. 26) _ 190
- 세계생명문화포럼 - 세계생명문화포럼 2003 선언문 (2003. 12. 20) _ 109
-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창립선언문 (1994. 6. 29) _ 59
- 인드라마생명공동체 - 인드라마생명공동체 창립선언문 (1999. 9. 11) _ 84
- 전국귀농운동본부 - 전국귀농운동본부 창립선언문 (1996. 9. 19) _ 61
- 천성산살리기운동 도롱뇽 소송인단 - 천성산살리기운동 도롱뇽 소송인단 발족 취지문 (2004. 8. 20) _ 144

- 한국생명학연구원 - 한국생명학연구원 취지문 (2000. 11. 23) _ 92
- 한국종교인 평화회의 - 환경윤리종교인선언 (1993. 5. 31) _ 55
- 한살림 - 한살림운동의 지향 (1999. 2) _ 83
- 한살림 - 한살림을 시작하면서 (박재일, 1987) _ 9
- 한살림모임 - 한살림선언 (1989. 9. 29) _ 12
-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 강령 (1993. 4. 2) _ 53
- 흙살림 - 흙살림 창립선언문 (1991. 6) _ 51

■ 생명운동 관련 매체

- 공동체문화(제3집) - 생활공동체, 그 평가와 전망 (좌담, 1986. 3) _ 205
- 한살림(무크지) - 문명의 위기에서 생명의 질서로 (좌담1, 1990) _ 227
- 한살림(무크지) - 새로운 삶의 이해와 생활협동운동 (좌담2, 1990) _ 251
- 녹색평론 - 창간사: 생명의 문화를 위하여 (김종철, 1991) _ 265
- 민들레 - 창간사 (현병호, 1999) _ 272
- 민들레 - 창간 서사: 민들레, 이 꽃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기를 (김희동, 1999) _ 274

■ 생명담론 관련 주요 문헌

- 김종철 - 시의 마음과 생명공동체 (1991) _ 393
- 김지하 - 개벽과 생명운동 (1990) _ 345
- 도 법 - 인드라마 세계관과 삶의 철학 (2005) _ 555
- 문순홍 - 생명운동의 정치기획 (1998) _ 434
- 박맹수 - 동아시아의 고유한 생명사상 (2003) _ 460
- 박재순 - 한국 생명사상의 뿌리 (2005) _ 561
- 박재일 - 생산과 소비는 하나다 (2003) _ 478
- 수 경 - 삼보일배의 마음으로 뜻 생명의 용서를 구한다 (2006) _ 572
- 원주사람들 - 생명의 세계관 확립과 협동적 생존의 확장 (1980) _ 279

- 이기상 - 생명학의 미래를 생각한다 (2003) _ 490
- 이병철 - 생태위기의 대안으로서 농(農) (1999) _ 449
- 이영숙 - 생명여성주의와 생태여성주의 (2004) _ 522
- 장일순 - 삶의 도량에서 (1988) _ 336
- 장일순 - 시(侍)에 대하여 (1989) _ 340
- 장희익 - 온생명의 이해와 생태보전 (2003) _ 510
- 정경식 - 흙과 생명 (2004) _ 542
- 천규석 - 공생두레농: 농업위기와 그 대안 (1994) _ 411